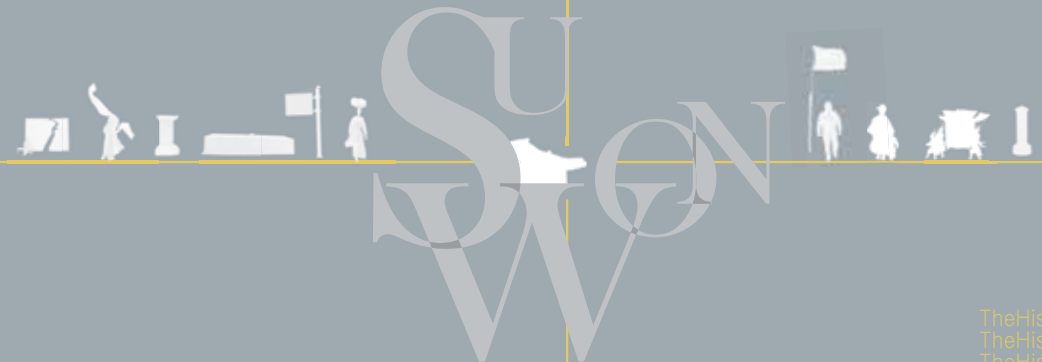


수원시사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비데품
04080
9 788987 738680
ISBN 978-89-87738-68-0
ISBN 978-89-87738-60-4 (세트)

THE HISTORY OF SUWON CITY 수원시사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일 | 러 | 두 | 기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뤘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일러두기

제1부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 성주현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_17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_22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_25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_28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_30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 김형목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_41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_45
 - 1) 국채보상취지서의 배포 _45
 - 2)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 _47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_51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 김형목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_57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_60
 - 1) 계몽단체의 조직과 활동 _60
 - 2) 민지 계발과 인식 변화 _61



-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_63
 - 1) 근대교육의 보급과 내실화 _63
 - 2) 계몽운동의 주요 활동가 _73
- 4. 계몽운동의 성격 _77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 박민영

- 1. 한말 의병전쟁 _81
- 2. 전기의병(을미의병)의 활동 _83
 - 1) 역사적 배경 _83
 - 2) 전기의병 투쟁 _85
-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_88
-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_90
 - 1) 수원의병의 항일전 _90
 - 2) 홍원식(洪元植) 부대의 의병투쟁 _95

제2부
일제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 이동근

- 1. 수원면의 만세운동 _103
- 2. 송산면의 만세운동과 순사의 처단 _107
- 3. 발안장과 우정면·장안면의 만세운동 _109
- 4. 기타 지역의 만세운동 _114
- 5. ‘제암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 _118



제2 장 수원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 박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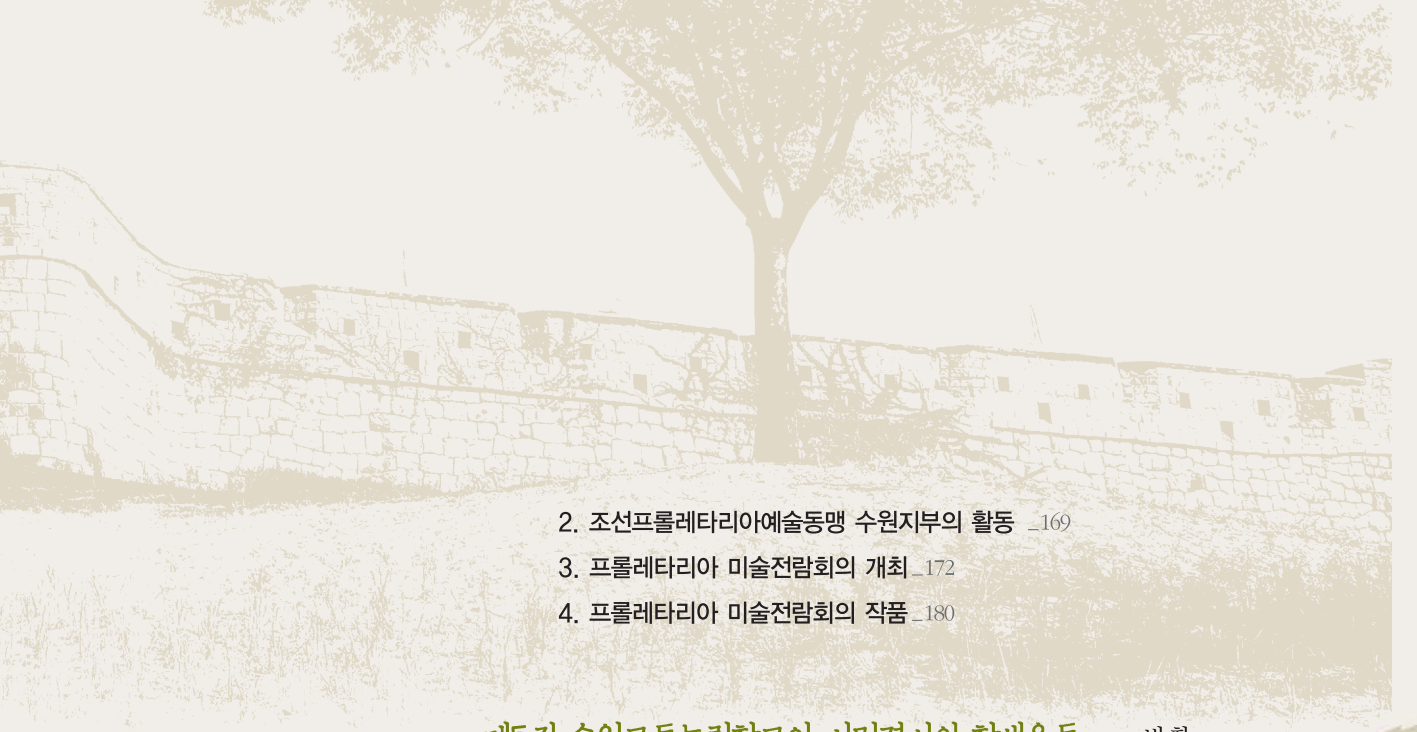
1. 수원 혈복단의 결성 _125
2.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_127
3.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성격 _133

제3 장 수원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 조성운

1.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_137
 - 1) '청년'의 성장 _137
 - 2) 청년단체의 창립과 조직 구성 _139
 - 3) 청년단체의 활동 _143
2. 청년단체의 혁신과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_144
 - 1) 청년단체의 혁신 _144
 - 2) 수원청년동맹의 결성 _148
3.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해소 _154
 - 1) 지부 설치 활동 _154
 - 2) 일반적인 활동 _156
 - 3) 조선청년총동맹 해소 활동 _159
4. 수원 청년운동의 특징 _162

제4 장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 조은정

1.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설립 _165



- 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활동 _169
- 3.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 _172
- 4.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작품 _180

제5장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 박 환

- 1.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의 조직 배경 _191
 - 1) 수원고농의 설립과 한국인 학생 _191
 - 2) 수원고농 학생들의 민족의식 성장 _197
- 2. 1920년대 학생비밀결사 _ 건아단과 조선개척사 _203
 - 1) 수양단과 건아단의 조직과 활동 _203
 - 2) 조선개척사의 조직과 활동 _209
 - 3) 1920년대 '수원고농사건' 의 특성 _215
- 3. 1930년대 수원고농 학생운동 _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_216
 - 1) 독서회의 조직 배경 _216
 - 2)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 _217
 - 3) 체포와 와해 _219

제6장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 조성운

- 1.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배경 _225
- 2.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_230
- 3.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 _234
- 4. 신간회 수원지회 회원의 성격 _239



제7장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 ————— 조성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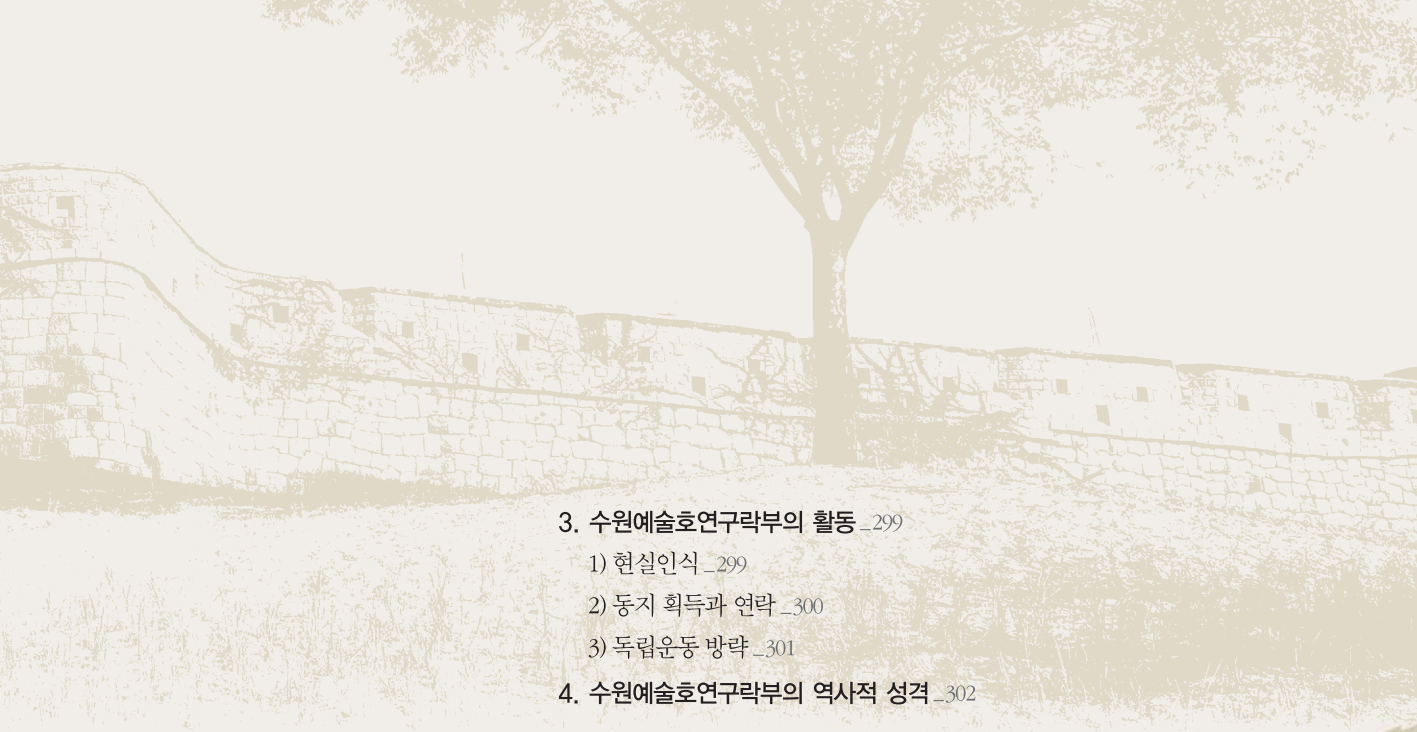
1. 수진농민조합의 결성 _246
2. 수진농민조합의 주요 활동가 _253
3.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 _257
4.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방침 _260
5. 수진농민조합운동의 성격 _262

제8장 수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 ————— 박철하

1. 노동조건과 생활상태 _265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_271
3.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 _277
 - 1) 토목건설노동자 파업 _278
 - 2) 인쇄직공 파업 _278
 - 3) 자동차운전수 파업 _279
 - 4) 직물 여자직공 파업 _282
 - 5) 도축노동자 파업 _284

제9장 수원의 반일낙서사건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 ————— 박철하

1. '반일낙서(反日落書)' 활동 _289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_293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_299

- 1) 현실인식 _299
- 2) 동지 획득과 연락 _300
- 3) 독립운동 방략 _301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_302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 유문종

1. 4·19혁명부터 1980년까지 민주화운동 _310

- 1) 학생들의 4·19투쟁 _310
- 2) 서울대 농대생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유신 반대투쟁 _313
- 3) 수원양서조합운동 _314
- 4) 야학 활동 _316

2.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 _317

3.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_324

제2장 1970~1990년대 수원의 학생운동 — 유문종

1. 1980년대 수원 지역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의 사회인식 _336

2.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운동 _339

- 1) 상록수정신을 이어받은 야학운동 _340
- 2) 유신시대에 맞선 김상진 열사 _342
- 3) 1980년대 학생운동 _343
- 4)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농대 이전투쟁 _343



3.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_344

4. 수대협과 경기남부총련 활동 _349

제3장 1980~1990년대 수원의 노동운동 ————— 이창언

1. 대학생 · 종교인과 노동자 _360

2. 노동운동단체의 태동과 수원 지역 노동운동 _365

3. 전국적 연대조직의 탄생 _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_372

1)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삼성 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 시도 _372

2) 경기 남부 노동조합운동의 중심, 경기노련의 출범 _374

3) 전노협을 둘러싼 조직 논쟁과 전노협의 출범 _377

4) 민주노총의 출범과 두 개의 민주노총 _381

5) 노동운동의 혁신과 전망 _383

제4장 1980~1990년대 수원의 통일운동 ————— 유문종

1. 6월민주항쟁 이후 통일운동 _387

2. 1990년대 통일운동 _392

제4부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제1장 수원의 시민운동 ————— 이상명

1. 시민운동 태동기(1987~1993년) _400

1) 시민운동의 태동 _400

2) 1990년대 초반 시민운동 연대활동 _403



- 2. 시민운동 성장기(1994~2002년) _405
 - 1) 시민운동의 성장과 지역 정치 _405
 - 2) 지역문제와 시민운동 _406
- 3. 시민운동 위축기(2003~2009년) _411
 - 1) 민관협력의 위축 _411
 - 2) 사안별 시민운동 _413
- 4. 시민운동 활성화기(2010년 이후) _415
 - 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수원시정 참여 _415
 - 2) 수원 지역 시민운동 연대와 시민운동 _416
- 5. 수원 지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_418

제2장 수원의 환경운동 김충관

- 1. 환경운동의 태동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 _423
-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한 환경운동의 발전 _427
 - 1) 환경오염조사와 정책 제언 _428
 - 2) 수원 지역의 흐름을 바꾼 지역환경운동 _429
 - 3) 미완의 쓰레기 시민운동 _431
 - 4) 생태보전운동 _433
 - 5)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_436
 - 6) 현재진행형인 항공기 소음문제 _442
 - 7) 환경교육,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지역이 변화한다 _444
- 3. 새로운 모색 _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수도 만들기 _446
 - 1) 지방의제21
_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환경운동의 지평 확대 _446



- 2)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_ 하천살리기 운동의 중심 역할에 나서다 _447
- 3)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 수도 지향과 과제 _449

제3장 수원의 마을공동체운동 ————— 유문종

- 1. '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이란 무엇인가? _453
- 2. 마을공동체운동의 출발 _ 아파트공동체운동과 2000년대 초·중반
마을만들기운동 _454
 - 1) 아파트공동체운동 _454
 - 2)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운동 _457
 - 3) 2000년대 중반 마을공동체운동 _459
- 3. 마을공동체운동의 정착
_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활동 _460
- 4. 마을공동체운동의 개화
_ '마을르네상스' 활동 _460

제4장 수원의 생활협동조합운동 ————— 서정리

- 1. 1980~1990년대 경인 지역 생활협동조합 _ 469
- 2.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과 활동 _472
 - 1)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 _472
 - 2) 법인 창립과 매장사업의 재도전 _474
 - 3)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활동 _477



3.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_ 478

- 1)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_ 478
- 2)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 _ 480
- 3) iCCOOP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_ 481
- 4) 두레사업연합회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구 _ 481
- 5) 바른생활협동조합 _ 482
- 6)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_ 482
- 7)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_ 482

4. 생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과 제정 활동 _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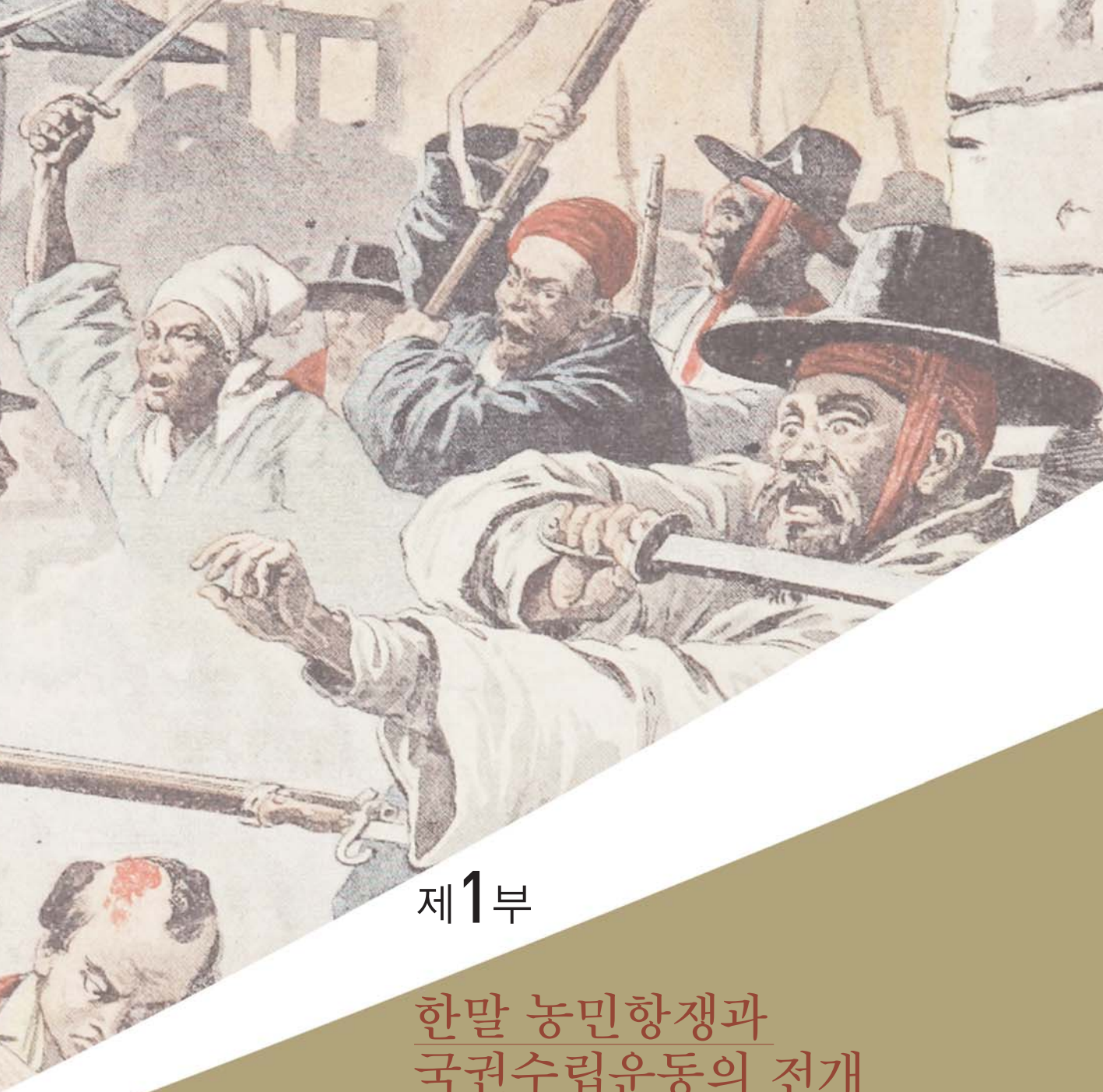
- 1) 「생활협동조합법」 개정 _ 484
-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_ 486

● 참고자료 _ 488

● 찾아보기 _ 492

● 집필위원





제1부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제1장

수원의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민란의 발생

19세기 후반, 특히 개항 이후를 일반적으로 ‘민란의 시대’로 일컫는다. 이는 기존의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했음을 의미한다. 17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농업생산력은 상품화폐경제 발달의 한 요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농민층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개항 이후 신분제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계층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와 같이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농민층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생활 터전인 토지로부터 격리된 농민들은 점차 반봉건적 의식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삼정(三政)의 문란, 홍수와 한해 등의 자연재해, 그리고 외국상품의 유입과 미곡 유출로 농촌사회의 위기의식이 가중되면서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전개하였다.¹ 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들어 ‘정감록’ 신앙이 널리 퍼지면서 ‘역성혁명론’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각지에서 수많은 ‘민란’ 또는 ‘변란’² 등의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1811년 ‘홍경래 난’과 1862년 ‘임술민란’

이 대표적인 농민항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민항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지속되었다.

농민항쟁은 19세기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임술민란기에는 전국 70여 지역에서 농민항쟁이 발생하였다. 이들 농민항쟁은 주로 호남, 호서, 영남 등의 삼남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지역 중 호남의 경우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는 1894년까지 38개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189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항쟁이 발생하였는데, 많게는 연간 10회 내지 20회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³

당시 농민봉기는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몽둥이와 죽창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농민들이 읍성(邑城)을 습격하여 동헌(東軒)을 점령한 후 수령을 쫓아내거나 수령의 인부(印符)를 탈취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방식이었다. 또한 관아의 문서, 즉 세금장부를 태우고 수탈을 일삼는 향리를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부수거나 불태우고 해당 군현에서 자행되던 폐단을 고쳐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은 철종 대에서 고종 대까지 지속된 삼정의 문란과 지방관의 탐학에 한재(旱災)까지 겹쳐 더욱 고조되었다. 정부에서는 초기에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봉기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수령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1862년 5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하고 「삼정이정절목(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민란의 주요 요인은 삼정의 문란이었다. 그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폐해가 컸던 환곡의 운영과 향촌의 동향은 어떠하였을까.

환곡제도는 춘궁기에 관청에서 곡식이 떨어진 농민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 추수

1 개항 이후의 민란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서는 김양식, 「제1부 19세기 말 농민항쟁의 두 흐름」,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을 참조.

2 '민란'과 '변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민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두고 그 속에서 생산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던 사람들이 둘째, 국가권력에 의한 부세(賦稅)수탈이나 수령과 이서배의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셋째, 발통취회(發通聚會)와 정소(呈訴)를 거쳐 봉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란은 투쟁공간이 고을 단위에 국한된 지역적 제한성을 보이고 투쟁의 목표 역시 대체로 특정 고을의 부세수취와 관련된 부당함을 반대하는 고을 단위의 경제투쟁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변란은 첫째, 향촌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훈장, 의원, 지관 등을 생업으로 삼아 각지를 편력하던 소외되고 가난한 한유(寒儒), 빈사(貧士) 중 일부가 둘째, 정감록류의 이단사상을 이념적 무기로 조선왕조 자체에 불만을 품고 셋째, 빈민과 유랑민 등을 동원하여 특정 고을을 장악한 다음 감영을 거치거나 아니면 곧바로 서울로 공격하기 위해 일으킨 병란이다. 따라서 변란은 민란과 달리 참여층이 특정 고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을 단위를 벗어나 지역 간에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투쟁 목표 역시 읍제의 개혁이나 이서배의 징치를 위해 읍권을 장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를 전복하고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다(배항섭,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2002, 103·114쪽).

3 김양식의 연구에 의하면 1880년부터 1893년까지 54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발생건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1893년에만 최소 66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에 1할의 이자를 더하여 거두는 것으로, 원래 소농민 경영의 재생산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빈민구휼제도였다. 즉 원곡(元穀)을 대여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원곡을 회수하고 원곡의 10분의 1인 모곡(耗穀)을 덧붙여 징수하였다. 그런데 구휼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환곡이 명종 대에 이르러 호조 경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곡 중 10분의 1을 회록(會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취모보용(取耗補用)’이 시작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변화되었다. 회록제도는 원곡의 부족분을 메워 주거나 궁민(窮民)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모곡의 일부를 공용(公用)으로 전환시켜 중앙과 지방의 재정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재정의 부족분을 지방의 관아에서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별도로 환곡을 증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지방 관아에 그대로 전이되었다. 즉 지방의 관아도 중앙 상납분의 증가로 재정이 부족해지자 대동미의 유치분을 환곡으로 이용하거나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보충하였다.⁴ 이로써 환곡제도는 점차적으로 ‘부세적(賦稅的)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환곡의 분급을 비롯하여 전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들어 국가재정 중 환곡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 수탈로 이어졌으며, 환곡제도는 소농민 경영의 재생산 기반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⁵

이처럼 19세기 들어서면서 재정 파탄이 만성화되면서, 중앙의 관청은 물론 지방의 감영·병영·진영, 그리고 군현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환곡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각 관아는 환곡을 주요 재정 수입원으로 삼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농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종 대에 수원에서는 대홍수가 났는데 이 때문에 표류되고 붕괴된 가옥들에게 홀전(恤典)을 주었다.⁶ 고종 대에도 수원 지역은 홍수로 마을이 잠기고 압사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⁷ 이처럼 홍수 등 자연재해는 농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농민이 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삼정의 문란, 즉 수령, 토호, 서리, 향리의 토색과 탐학에 의한 수탈로 민란이 속출하고, 대외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침략이 대두되던 19세기 말 경기도 지방에서도 민란이 일어났으며, 점차 확대되었다.

4 양진석, 「18·19세기 환곡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989, 239-241쪽.

5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한국역사연구회, 1994, 84쪽.

6 『철종실록』 권2, 1850년 7월 13일; 『철종실록』 권3, 1851년 8월 22일.

7 『고종실록』 권2, 1865년 7월 19일.

경기도의 경우 1862년 10월 광주민란을 시발로 하여 1876년 12월 파주에서 명화적(明火賊)이 금천군의 상납전(上納錢)을 약탈하는 등⁸ 도적이 각지에서 빈발하자 이듬해 2월 「경외집도령(京外戢盜令)」을 공포하였다.⁹ 1885년 2월에는 여주에서 퇴리(退吏)와 사민(士民)이 주동이 되어 과다한 결세의 남징(濫徵)에 반발하여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한 후 이를 불태우고 옥을 부수어 죄수를 석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¹⁰ 그리고 이듬해 1890년 안성에서 읍민이 군수의 탐학에 대한 민소를 하기 위해 발통취당(發通聚黨)하여 민란을 일으켰다.¹¹ 1893년 인천에서도 관속인 이교(吏校), 수리(首吏), 수교(首校) 등이 주동이 되어 관아를 습격하고 관예(官隸)를 구타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고,¹² 이해 11월 개성에서는 수령의 과도한 탐학에 대해 현감과 농민이 봉기하여 관아와 양반의 집을 부수는 민란을 일으켰다.¹³

이처럼 조선 후기 들어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며, 수원에서든 1889년과 1891년 두 차례의 민란이 발생하였다. 먼저 1889년의 민란에 대하여 살펴보자. 1889년 10월 중순경 수백 명이 한밤중에 화성 안으로 모여 관아와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였다. 수원유수 김홍집(金弘集)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 수원부 성 안에서 수백 명의 무뢰배가 밤을 타 소란을 일으키고 인가를 파괴했습니다.¹⁴

1889년 민란이 일어난 배경은 전 승지 김명기(金命基)와 전 군수 윤수영(尹守榮)의 가렴주구 때문이었다. 즉 김명기와 윤수영에게 “평소에 쌓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집이 “조정에 수치를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탐학은 심각한 것이었다.¹⁵ 민란의 주모자 이흥완(李興完)은 체포되었으나 중군(中軍) 이민고(李敏皐)의 실수로 도주하였다.¹⁶

그 후 잠잠하던 수원 지역 민란은 2년 뒤인 1891년 6월 다시 발생하였다. 이 민란의 원인은 참봉 민병성(閔丙星)의 남작과다(濫斫過多)였는데, 현릉원 원군과 지역 주민이 합세

8 『일성록』, 고종 13년 12월 2일; 『일성록』, 고종 13년 12월 14일.

9 『일성록』, 고종 14년 1월 25일.

10 『일성록』, 고종 22년 2월 27일; 『일성록』, 고종 22년 3월 29일; 『일성록』, 고종 22년 6월 25일.

11 『일성록』, 고종 27년 1월 28일; 『일성록』, 고종 27년 10월 29일; 『비변사등록』, 고종 27년 윤2월 14일.

12 『일성록』, 고종 30년 8월 13일.

13 『일성록』, 고종 30년 11월 23일; 『일성록』, 고종 30년 11월 24일.

14 『고종실록』 권26, 고종 26년 10월 17일.

15 『고종실록』 권26, 고종 26년 11월 14일.

16 최홍규,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 『경기사학』 창간호, 81쪽.

各司謄錄第

冊

(本府大皇橋作架罪人等行
查文案)

光緒十七年三月

行查文案

軍洞官龍仁縣令為據報事本府作架罪人團
年三十一日守僕崔信通年五十一守僕朴允石
國參奉文內汝矣等以顯隆園守僕來告以為本
名與附近祠民數百名作黨突出結縛團軍官舉
措某是喻一如為置汝等所謂幾許名團軍附近
納洞民亦是喻一如為置汝等所謂幾許名團軍附
招為汝等所謂幾許名團軍附近

招何等幾許是喻一如為置汝等所謂幾許名團軍附
是卧在情節必數前委折并為直招亦推問教
事致是白半中今月十一日自松山金注書公宅
境何不訴言通而再立平崔信通數今至難保之
無入來懇訴復屬無失農時耕作可而退矣
十二日參奉案前呈假官狀早朝發陪矣身等
來告急曰參奉主行到陽山里近洞民幾百名
結縛驅去大皇橋店所見果如所聞冒犯生被眾
急急至大皇橋店所見果如所聞冒犯生被眾

1891년 제2차 수원민란 전개과정 『각사등록』, 광서 17년 3월)

하여 민란을 일으켰다.¹⁷ 수원유수 윤영신의 장계에 따르면 “현룡원의 화소(火巢)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명확히 조사하였더니, 변고를 격발시킨 것은 실로 해당 참봉 민병성이 평소애 원망을 샀고 또 함부로 많은 나무를 베어 낸 데 있습니다.”¹⁸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봉 민병성의 민폐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민폐가 계속되자 김준기는 현룡원 원군과 지역민을 규합하여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에 박진상(朴振商) 등이 적극 호응하였다.¹⁹ 그런데 이 민란에 참가하였던 김용규(金容圭)는 사족 출신이었지만 몰락한 잔반(殘班)으로 현룡원 원토에 의지할 정도로 생계가 빈한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일반 소작인과 다름이 없었다.²⁰ 이 외에도 윤흥만(尹興萬), 마희손(馬希孫), 이원용(李元用),

17 『비변사등록』 권272, 고종 28년 6월 23일.

18 『고종실록』 권28, 고종 28년 6월 23일.

19 『비변사등록』 권272, 고종 28년 8월 6일.

20 김용규는 “그 생계는 원토(園土)에 의지하였으나 이작(移作)에 감정을 품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박윤석(朴允石) 등이 민란에 적극 참여하였다.²¹ 이 민란은 ‘현릉원원군작요(顯隆園園軍作擾)’로 알려져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수원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민란과 경기도 지역의 민란은 토호들의 가렴주구에 대해 몰락한 잔반 계층과 일반 민중이 저항한 조선 후기 전형적인 민란임을 보여 주고 있다. 민란에 참여한 민중들은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였고, 여기에 동학이 그 역할을 하였다.

2. 동학의 창도와 동학사상의 특성

1860년 4월 5일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의 사상적 특성은 크게 다시 개개(開開)²²의 혁세사상(革世思想), 시천주(侍天主)²³의 평등사상(平等思想), 유무상자(有無相資)²⁴와 동귀일체(同歸一體)²⁵의 대동사상(大同思想), 척왜양(斥倭洋)²⁶의 민족주체사상(民族主體思想)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제우는 『용담유사』에서 자신의 득도 이전까지의 세계를 ‘개벽후오만년(開闢後五萬年),’²⁷ ‘하원갑(下元甲),’²⁸ 전만고(前萬古),²⁹ ‘효박한 이 세상’³⁰ 등의 표현을 통하여 비판하면서 득도 이전의 시대는 온갖 모순이 가득찬 시대이므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제우는 동학의 새로운 출발 시기인 1860년 4월 5일을 기점으로 ‘다시 개벽,’ ‘상원갑(上元甲),’³¹ ‘후만고(後萬古),’³² ‘오만년지운수(五萬年之運數)’³³ 등의 표현으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역설하고 있다. 즉 최제우는 모순에 가득찬 지금까지의 혼란한 시대는 반드시 무너지고 다가오는 새 시대, 다시 개벽의 시대야말로 지상천국의 이상적 사

21 『고종실록』 권29, 고종 29년 5월 14일.

22 「안심가」,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龍潭遺詞)』 계사(癸巳)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3 「논학문(論學文)」, 『동경대전(東經大全)』 계미(癸未)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4 유무상자(有無相資)라 함은 최제우 초기부터 그의 제자 중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적극 돕는 것으로 이 같은 초기 동학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빈궁자(貧窮者)로 하여금 동학에 입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유무상자는 최제우의 순도 후에도 수십 년간 지하조직으로 존립하였다.

25 「안심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6 「포덕문(布德文)」,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7 「용담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8 「몽중노소문답가」, 「권학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29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0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1 「몽중노소문답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2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3 「용담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회가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제우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는 개념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조선 왕조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제시하였다. 최제우는 다시 개혁과 무위이화를 통해서 낡은 시대와 낡은 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현실 비판사상이며 천도(天道)를 회복하는 새 시대, 새 문명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진보적 사상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면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반봉건 반침략의 사상적 연원이 되고 있다.³⁴ 최제우는 『동경대전』에서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³⁵과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³⁶ 『용담유사』에서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어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원하단 말가.”³⁷라는 표현을 통해 한울님과 인간이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한울님을 체험함으로써 시천주사상은 조선왕조 신분제를 타파하고 근대적 평등사상을 확립하고 있다.

최제우의 시천주사상은 최시형에 의해 “천지만물이 시천주 아님이 없나니 만물을 일체 공경으로 대하라.”³⁸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이 없나니라. 사람이 인위로써 귀천을 가리는 것은 한울님의 뜻에 어기는 것이니 제군은 일체 귀천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先師)의 뜻을 맹세하라.”³⁹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⁴⁰라는 범천론적 동학사상으로 확대되어 민중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1894년 당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동학군을 결속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었다.

최제우는 동국(東國)의 학(學)인 동학(東學)⁴¹이 당시 민중들 사이에 이미 널리 포교되고 있는 서학(西學)을 제압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최제우의 반외세적 척왜양사상은 줄곧 동학의 기본사상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1893년 전개된 교조신원운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보은 장내에서 전개된 보은집회에서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기치로 내걸고 수만 명의 동학도인이 모여 20여 일간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어 1894년 기포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수많은 격문(檄文)과 포고문(布告文)을 통해 반침

34 장영민, 「최시형과 서장옥-남북집 문제와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자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7, 134쪽.

35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6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7 「교훈가」, 『용담유사』 계사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38 「천도교서(天道敎書)」, 『신인간(新人間)』 통권 377호, 1980년 5월, 75쪽.

39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5쪽.

40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8쪽.

41 「논학문」,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78).

략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도 최제우는 포교 과정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제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적극 돕도록 가르쳤다. 유무상자(有無相資)라 하여 경제적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동학의 조직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견고하게 다져졌으며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그대로 계승 실천되었다.

최제우가 확립한 동학의 사상적 특성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확대 발전되었다. 특히 시천주사상은 “천지만물이 한울님 아님이 없다(天地萬物 莫非侍天主).”⁴²로 재해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최시형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자체가 바로 한울님이므로 어린이도, 며느리도, 남의 종도, 날아가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모두 한울님으로 인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기본사상으로 하여 최시형의 사상적 특성도 ‘만민평등(萬民平等),’⁴³ ‘천주직포(天主織佈),’⁴⁴ ‘새소리도 한울님 소리,’⁴⁵ ‘이천식천(以天食天)’⁴⁶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최제우 당시 교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근본이 되었던 유무상자의 대동사상(大同思想)은 최시형에 이르러 더욱 활성화되었다. 1875년부터 1892년에 이르기까지 최시형은 통문을 통해 유무상자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최시형도 몸소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유무상자의 대동사상은 교조신원운동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시형은 어린 시절 매우 불우하게 보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청소년 시절 내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와 제지소(製紙所) 직공으로 일한 적이 있다. 특히 최시형은 이때의 불우한 생활에 대해 “내가 가장 한스러웠던 것은 머슴을 살면서 ‘머슴 놈’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⁴⁷던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 과정은 그에게 사상적 특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시형은 최제우의 가르침에 충실하였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최제우가 두 명의 여자 몸종을 며느리와 수양딸로 삼은 것이었다. 최제우의 이러한 실천행동은 머슴 생활을 했던 최시형에게 충격이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최시형은 동학에 입도한 후 수련에 힘쓰는 한편 적서차별, 남녀차별, 귀천차별의 철폐를 철저하게 강조하였다.⁴⁸

42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5쪽.

43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5쪽.

44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1월, 75쪽.

45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8쪽.

46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4호, 1980년 1월, 79쪽.

47 표영삼, 「최시형과 금등골」, 『신인간』 통권 485호, 1990년 8월, 14쪽.

최시형의 가르침은 당시 신분제에서 고통받고 있던 서얼과 중인층, 그리고 일반 평민과 천민들에게 새로운 메시지였으며 동학 교세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상도 영해와 영덕 지방의 새로운 신분 상승세력으로 등장했던 신향(新鄕)들이 1863년 대거 동학에 입도했던 것⁴⁹이나 1891년 천민 출신의 남계천(南啓天)을 호남좌우도 편의장(便義長)으로 과감하게 임명한 사실⁵⁰ 등은 모두 최시형의 평등사상이 영향을 미친 실천적인 사례이다. 또한 다시 개벽의 혁세사상은 최시형에 이르러 “이 세상 운수는 천지가 개벽하던 처음의 운수를 회복한 것이니 세계만물이 다시 포태의 수를 정치 않는 것이 없나니라. …… 새 한울 새 땅에 사람과 물건이 또한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3. 수원의 초기 동학 교세

수원 지역에 동학이 처음 포교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1861년경으로 보인다. 수운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하였으나 이보다 1년 뒤인 1861년에 경주를 중심으로 포교를 하였다. 그 후 교세가 크게 확장되자 1862년 12월 흥해(興海)에서 접(接)을 조직하고 접주(接主)를 임명한 바 있는데, 접소(接所)와 접주는 다음과 같다.

경주에 이내겸(李乃謙)·백사길(白士吉)·강원보(姜元甫), 영덕(盈德)에 오명철(吳明哲), 영해(寧海)에 박하선(朴夏善), 대구 청도(淸道) 겸 경기(京畿)에 김주서(金周瑞), 청하(淸河)에 이민순(李敏淳), 연일(延日)에 김이서(金伊瑞), 안동(安東)에 이무중(李武中), 단양(丹陽)에 민사엽(閔士燁), 영양(英陽)에 황재민(黃在民), 신령(新寧)에 하치욱(河致旭), 고성(固城)에 성한서(成漢瑞), 울산(蔚山)에 서군호(徐君孝), 장기(長鬐)에 최희중(崔羲仲) 제인(諸人)이라.⁵¹

경기 지역에도 접주로 김주서가 임명될 정도로 동학의 접 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천도교백년약사』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접주로 이창선(李昌善)이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² 이 두 기록에서 경기 지역의 동학접주가 김주서와 이창선으로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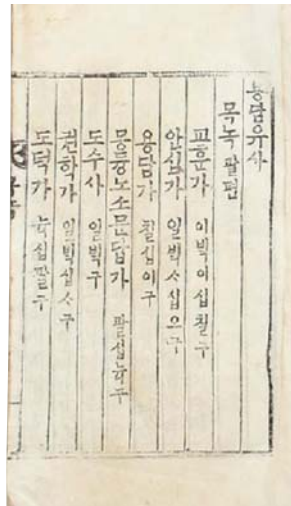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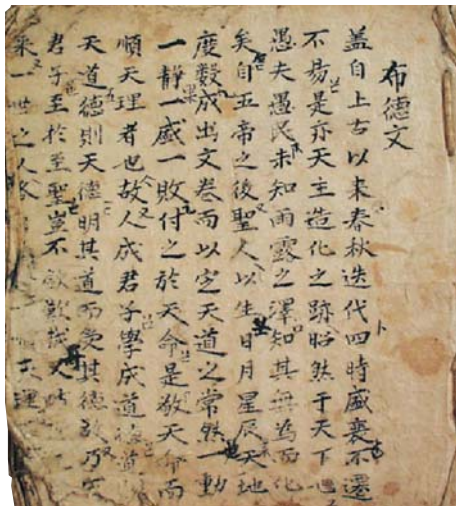
48 해월 최시형이 동학 최고지도자로 부각된 이후 처음으로 행한 법설은 적서차별(嫡庶差別) 철폐와 만민평등(萬民平等)에 관한 것이었다(『천도교서』, 천도교중앙총부, 1920).

4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민, 「1871년 영해(寧海) 동학관」, 『한국학보』 47, 일지사, 1987 참조.

50 『천도교서』, 『신인간』 통권 377호, 1980년 5월, 79쪽.

51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총리원, 1934, 42쪽.

52 『천도교백년약사』 상,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1, 96쪽.



동학의 핵심경전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제공)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1862년 동학교단에서 접소와 접주를 임명할 정도로 경기도 지역에도 상당수의 동학이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동학이 포교된 지역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수원 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은 이보다 20여 년 후인 1880년경이었다.⁵³ 1880년대는 동학교단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정세가 급변하던 시기였다. 1880년 고종이 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화파 인사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하였고,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수교한 후 서양 열강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동학교단도 초기의 위기에서 벗어나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寧海敎祖伸冤運動)으로 한때 교단 존립의 극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1873년 태백산 적조암(寂照庵) 기도를 계기로 동학의 포교는 점차 강원도 지역에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1880년과 1881년에 동학의 핵심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典)』과 『용담유사(龍潭遺詞)』를 각각 간행하였다. 동학 경전의 간행은 동학 창도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었던 관의 탄압에서도 동학교단이 새로운 차원에서 포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53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 2001, 183~184쪽.

水原郡宗理院沿革

우리郡의大道에盛運을맞은時機는
 布德二十五年甲申二月頃이었
 다湖南人安敎善氏의傳道로安承寬
 金鼎鉉氏가先導가되야僅僅發展하
 다
 布德三十一年庚寅에徐丙學、張晚
 秀、李圭根、金永根、羅天綱、申
 李植諸氏가六任이되고安承寬氏는
 畿湖大接主로金鼎鉉氏는畿湖大接
 司되야該接主林炳昇、白閑深、羅
 天綱、申龍九、羅正完、李敏道外
 諸氏의幹旋으로各地에信徒가數萬
 에達하다
 全三十四年癸巳二月에海月神師命
 意로申龍九、李敏道外諸氏의周旋
 으로報恩帳內에數千人이往來하다
 全三十五年甲午의東亂으로安承寬
 金鼎鉉兩氏는京城에서金元八氏는
 水原城內에서正刑을受한后安城人
 金漢式에適功한活動으로歷年間指
 目을不關하고人心을攪提하야나와
 敎運이進興된地을踏하였다
 全四十二年辛丑에聖師主渡東上
 에數次敎通으로地方敎人이驚醒하
 였다全四十六年乙巳에李鍾禔林湛
 鎮兩氏가一進會事務所를水原城內
 에置하고烈烈한活動中林湛鎮氏는
 田畠百餘畝를巨大한財産을一傾
 하야數年間敎中活動으로積置된債
 務를報償하고前進向上努力하였다
 全四十七年丙午一月三日에聖師還
 國하신後全年五月에會數分析의宗
 令으로李鍾禔氏가敎區長되야李會
 信、李德有、高柱元、東鍾九、宋
 益忠、俞相烈、安道善諸氏의幹旋
 으로宗學講習所를設立하고羅天綱崔
 亨喜、金正漢諸氏가最히努力하다
 全五十二年壬子에李鍾禔鄭道水金
 正漢李圭植李敏道諸氏가次第로聖
 師主遷拔을受하야風風閣에攄作하
 了
 全四十八年丁未에具洛書敎區長으
 로全五年二月에聖師主御駕하사鍊武
 臺에서敎理을演說하시다
 全四十九年戊申十二月에敎理專門
 講習所를設立하다
 全五十年己酉二月에李鳳九、孔炳
 台兩氏를選拔하야中央總部師範講
 習所에入學하다
 全五十二年庚戌에李鳳九鄭道永高
 柱元李會信李德有李鍾禔陳始泳陳
 鍾九諸氏의活動과頭目諸位에特別
 金力外지出指하야敎區를長安洞草
 家數十餘間으로移轉하다
 全五十二年辛亥에本區管内城湖面
 에宗學講習所를設立하고羅天綱崔
 亨喜、金正漢諸氏가最히努力하다
 全五十二年壬子에李鍾禔鄭道水金
 正漢李圭植李敏道諸氏가次第로聖
 師主遷拔을受하야風風閣에攄作하
 了

수원 지역 동학 포교 과정을 정리한 「수원군종리원연혁」(『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

1883년 3월 김연국(金演局), 손병희(孫秉熙), 손천민(孫天民), 박인호(朴寅浩), 황하일(黃河一), 서인주(徐仁周), 안교선(安敎善), 여규덕(呂圭德), 김은경(金殷卿), 유경선(劉敬善), 이성모(李聖模), 이일원(李一元), 여규신(呂圭信), 김영식(金榮植), 김상호(金相鎬), 안익명(安益明), 윤상오(尹相五) 등 중견 지도자들이 강원도 인제에 머물고 있던 동학의 책임자 해월 최시형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도를 받았다.⁵⁴ 이들은 대부분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안교선과 서인주는 수원 지역에 동학을 전파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안교선⁵⁵은 호남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이 1883년 여름 경주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윤상오와 함께 유사(有司)로 참여한 바 있다.⁵⁶ 그는 1884년 2월경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蘊鉉 : 金乃鉉)이 안교선에게 입도하였다.⁵⁷ 또한 김내현은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의 생활공간인 진위 일대까지 포교를 하였다. 그리고 서인주는 수원 출신으로 1883년 3월 김연국, 손병희 등과 함께 최시형을 방문한 이후 동학교단의 핵심 지도자로 떠올랐다. 서인주는 최시형과 함께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에게 수학하였지만,⁵⁸ 교단 초기 큰 두각을 나타

54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 60쪽.

55 안교선은 호남인으로 1870년대 후반에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1879년 최시형이 강원도 인제 방시학의 집에 수단소(修單所)를 설치할 때 안교상(安敎常)이 서유사(書有司), 안교일(安敎一)이 감유사(監有司), 안교백(安敎伯)이 책자유사(冊子有司), 안교강(安敎綱)이 윤통유사(輪通有司)로 각각 참여한 바 있다. 안교선은 이들과 형제 또는 친인척으로 보인다(강수, 앞의 책, 275~276쪽).

56 『동경대전』 계미판(『동학사상자료집』 1, 아세아문화사, 1987, 55쪽).

57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6년 1월, 29쪽; 이병현, 「수원교회낙성식」, 『천도교회월보』 292호, 1936년 12월, 36쪽.

내지는 못하였다. 일찍이 불교에 입도하여 30여 년간 불도를 닦은 후, 동학의 핵심교리인 포덕천하(布德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에 크게 공감을 받고 동학에 입도하였으며, 서병학(徐丙學)과 함께 동학의 의식과 제도를 제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서인주는 신체와 용모가 매우 작고 특이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진인(眞人)’ 또는 ‘이인(異人)’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 동학을 포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포교활동으로 1880년대 중반 서병학(徐丙學)·장만수(張晩秀)·이규식(李圭植)·김영근(金永根)·나천강(羅天綱)·신규식(申奎植) 등은 육임(六任)⁵⁹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승관(安承官)은 경호대접주(京湖大接主)로, 김내현은 경호대접사(京湖大接司)로, 임병승(林炳昇)·백난수(白蘭洙)·나천강(羅天綱)·신용구(申龍九)·나정완(羅正完)·이민도(李敏道) 등은 각각 접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으로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 동학교인이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⁶⁰ 이로부터 18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원 지역의 동학 교세는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되었으며,⁶¹ 대접주(大接主), 대접사(大接司), 접주(接主), 육임(六任) 등 기본적인 교단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4. 수원의 동학과 척왜양창의운동

이러한 교세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의 동학교인들은 1892년과 1893년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 주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교조신원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초기의 교조신원운동은 수원 출신의 서인주와 서병학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1892년 10월 20일경 동학교인들은 충청감사를 상대로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씻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892년) 7월에 서인주·서병학 2인이 신사(海월 최시형 : 필자 주)께 찾아와 방금 우리들의 급한 당무(當務)는 대신사(수운 최제우 : 필자 주)의 신원 일사(一事)에 재하니 원컨대, 선생(海월 최시

58 황현 저, 김종익 역, 『오하기문』 수필(首筆), 역사비평사, 1994, 73쪽.

59 해월 최시형은 1884년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육임제(六任制)를 정하여 동학 교단을 정비하였다.

60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년 2월, 29쪽.

61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 2001, 184~185쪽.

형 : 필자 주)은 각지 도유에게 효유하여 소(疏)를 제(齊)하고 혼(魂)에 규(叫)하여서 대신사 만고의 원(冤)을 설(雪)하소서 했다. 신사의 일이 순성(順成)치 못할 줄 아시고 허치 아니 하시니 2인이 온의(溫意)가 유하더라. 10월에 서인주 · 서병학 2인이 신사의 언(言)을 불준(不遵)하고 도인을 공주에 회집하여 서(書)를 관찰사 조병식에게 치(致)하다.⁶²

서인주는 서병학과 함께 공주에서 동학 교조신원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 때문에 공주교조신원운동에는 서인주가 포교한 수원 지역의 동학교인이 적지 않게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93년 초 광화문 앞에서도 신원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역시 수원 지역 동학교인들이 참여하였다.

수원 지역의 동학 포교 현황은 1893년 3월 10일 충북 보은군 장내면에서 개최하였던 척왜양창의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유추해 볼 수 있다. 1892년과 1893년에 전개되었던 공주교조신원운동, 삼례교조신원운동,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지 못한 동학교단은 1893년 3월 10일 보은 장내리에 전국의 동학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전개하여 왔던 교조신원에서 벗어나 척왜척양을 부르짖는 반봉건적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이 척왜양창의운동에는 동학교인이 3만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수원 지역 동학교인의 참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3월 21일 보은관아의 보고에 따르면 척왜양창의운동에 참가한 동학교인들은 ‘척왜양창의’ 깃발 외에 자신의 출신 접소를 알리기 위해 작은 깃발이 함께 나부꼈는데, 수원 접(水原接)을 알리는 ‘수의(水義)’를 비롯하여 광주접(廣州接)의 ‘광의(廣義)’, 죽산접(竹山接)의 ‘죽의(竹義)’, 진위접(振威接)의 ‘진의(振義)’, 용인접(龍仁接)의 ‘용의(龍義)’, 양주접(楊州接)의 ‘양의(陽義)’ 등이 경기 지역에서 참가하였음을 알리고 있다.⁶³

또한 3월 27일 보고에는 전날인 26일 수원 · 용인 등지의 동학교인 300여 명이 보은 장내로 왔으며, 28일 보고에는 “수원접에서 600~700여 명이 장내리 삼마장 장재평에 기를 세우고 진을 풀었다.”⁶⁴고, 30일 보고에는 “어제 들어온 접인들이 장재에서 광주 교인 수백 명과 함께 장내에 이입해 왔다.”고 하였다.⁶⁵

당시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였던 어윤중(魚允中)의 보고를 통해 수원 지역 동학교인의 참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보은군 장내에 모였던 동학교들의 해산 과정에서 2일

62 『천도교교회사초고』 포덕 32년조, 천도교중앙총부, 1920.

63 「취어」, 『동학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0쪽.

64 「취어」, 『동학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8쪽.

65 「취어」, 『동학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19쪽.

에서 3일에 이르기까지 돌아간 무리는 경기도 수원집 800여 명이였다.⁶⁶ 또한 「수원군종리원연혁」에 의하면 “포덕 34년 계묘 2월에 해월신사 명의로 신용구(申龍九), 이민도(李閔道) 외 제씨의 주선으로 보은 장내에 수천 명이 왕참(往參)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⁶⁷

이 밖에도 당시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는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양주·여주·안산·송파·이천·안성·죽산·진위·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참여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동학교인은 대부분 수원의 관할이었다. 이러한 기반으로 볼 때 수원 지역 동학은 이후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명기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동학농민혁명과 수원 동학군의 활동

1894년 3월 20일 고창군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은 호남 지역과 호서 지역을 거쳐 경기도 지역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선 고종이 광주에 있는 헌릉(獻陵)을 참배하고자 하였으나 ‘동학군의 기승’을 우려하여 연기할 정도였다.⁶⁸ 경기 지역에서 동학군의 본격적인 활동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보이고 있다. 특히 왕궁과 가까운 송파 부근에 “동학군이 모인다.”는 설이 돌 정도로 동학군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송파 부근의 동학군의 동향은 현장조사 결과 군사적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다.⁶⁹ 그러나 11월 25일경에는 송파에 500여 명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이는 송파에 일본병참 송파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⁷⁰ 일본군의 병참기지는 일제의 조선 침략과 청일전쟁에서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다. 따라서 동학군 역시 이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우선 수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용인과 진위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자. 일본인 순사 마쓰모토(宋本惣市)·사메시마(鯨島彌入)·쿠라카와(倉川信行)의 보고에 따르면 “죽산(竹山) 기타 각 군에서 동학군의 행패가 심해져서 무기를 탈취하려는 김새가 보인다.”⁷¹라든가 “벌써부터 이 지방에 동학당이 다시 발동하여 급습하게 휘젓고 돌아다닌 것이 사실입니다.”⁷²라고 하여 동학군의

66 「취어」 『동학란기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24쪽.

67 「수원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91호, 1927년 2월, 29쪽.

6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5쪽.

6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18쪽.

7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92쪽.

7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1쪽.

활동이 점차 구체적으로 조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동학군의 지도자는 김형식(金滢植)·김용희(金鏞喜)·김구섭(金九燮)·안치서(安致西)·홍승업(洪承業) 등으로, 김형식은 평택, 김용희와 김구섭은 목천(木川), 안치서는 온양, 홍승업은 천안 출신이었다. 이들의 활동지역은 직산·평택·천안·목천 등지로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수원 주변의 동학군 활동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비도들이 경기도 내의 죽산과 안성 양 읍으로까지 침범한다.”고 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⁷³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국기무처에서도 “근일 동학도들이 창궐하여 경기 지방까지 침범하였다. 이때에 지방관이 게으르면 걱정이다. …… 죽산과 안성은 동학도 중 핵심인물들이 모여 있다. 잠시라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수령을 교체하되 능력 있는 자를 차출하여 병력을 이끌고 가서 포착하는 데 힘써야 한다.”⁷⁴고 할 정도로 동학군의 활동이 관아를 위협하였다. 당시 진위 소사에는 동학군이 1만여 명이 될 정도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유수는 수원 인근 지역의 동학군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비도(匪徒: 동학군)들이 호남에서 공주 등지까지 가득차 있어 서로 연락(連絡)을 취하고 있고, 소사(素沙)에 있는 적(賊)들도 그 수가 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우리 병사는 200명뿐이고 귀병(貴兵: 일본군)들도 70명에 불과하여 그 중과가 너무 차이가 있음으로 감히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⁷⁵

이와 같이 수원 인근 지역에서 동학군의 활동은 수원 지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츠이(宋井慶四郎)는 9월 10일경 “수원부에 수감(囚監) 중인 동학비괴(東學匪魁)를 그 비당(匪黨)이 탈취(奪取)”할 것이라 하여 동학군의 관아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보고하면서⁷⁶ 급히 일본군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⁷⁷

또한 수원 부근에 동학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⁷⁸ 이에 따라 남부병참부 이토(伊藤祐義) 병참감은 다음과 같이 명령서를 내렸다.

7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2쪽.

73 『일성록』 고종편 31, 갑오 9월 초11일.

74 『일성록』 고종편 31, 갑오 9월 초11일.

7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34쪽.

7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86쪽.

7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1쪽.

7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5쪽.

1. 파견(派遣)하는 수비병은 1개 소대이고, 육군 보병 소위(少尉) 하라다(原田常入)가 이를 지휘한다.
2. 파견하는 우리 수비병은 금일 제물포(濟物浦)를 출발하여 인천을 경유 과천현 남쪽 약 30리에 있는 군포장(軍浦場) 십자로(十字路)로 진출한다. 내일 26일 오후에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3. 군포장(軍浦場)에서 조선군(朝鮮軍)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따라서 조선군은 행군속도(行軍速度)를 배가(倍加)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조선 관리(官吏)는 우리 군사(軍士)의 병량(兵糧)과 말 먹이의 구매(購買)와 숙소(宿舎)의 설치(設置) 등을 주선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군(軍)에서 지불할 것이다.⁷⁹

이 명령서에 따르면, 수원 지역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일본군은 하라다(原田) 소위가 지휘하는 1개 소대 49명을 파견하여, 군포장에서 조선군과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⁸⁰ 이에 따라 일본군은 10월 25일(양) 새벽 5시, 조선군은 오후 4시에 각각 출동하였다.⁸¹ 일본군은 수원 부근에서 오산동(烏山洞)에 거주하는 집주 홍경운(洪敬雲)을 잡아 수원부로 압송하였다.⁸² 이로써 수원 지역 동학군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11월 11일 스기무라(杉村) 서기관(書記官)에 따르면 “동학군의 세력이 다시 회복하여 관아를 밀어 닦칠 것이다.” 하여 동학군이 재기하여 수원부를 위협하였다. 이에 수원유수는 일본군의 주둔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⁸³

그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 동학군 역시 충청 내포(內浦) 지역 동학군과 연합하여 활동한 사례도 있다. 11월 17일 내포의 대접주 이창구(李昌九)는 자신이 지휘하는 동학군과 수원의 동학군은 수원과 내포 간의 경계를 이루는 송학산(松鶴山) 민보(民堡), 즉 송학보(松鶴堡)를 점령하여 군량미를 확보하는 한편 조운(漕運)을 방해하였다.⁸⁴ 그러나 이들 동학군은 11월 27일 일본군의 내습을 피해 해미(海美) 지역으로 피신하였다.⁸⁵

1894년 9월 들어 국내의 정치 상황은 적지 않게 변화하였다. 일본군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오시마(大島) 공사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로 교체하였다. 그는 9월 27일(양 10월 25일)에 조선에 부임하면서 저항세력을 무자비하게 말살시킬 방침을 세웠다. 우선 조선정부를 완전히 장악한 후 동학군 토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군 약 300명

7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2쪽.

8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1988,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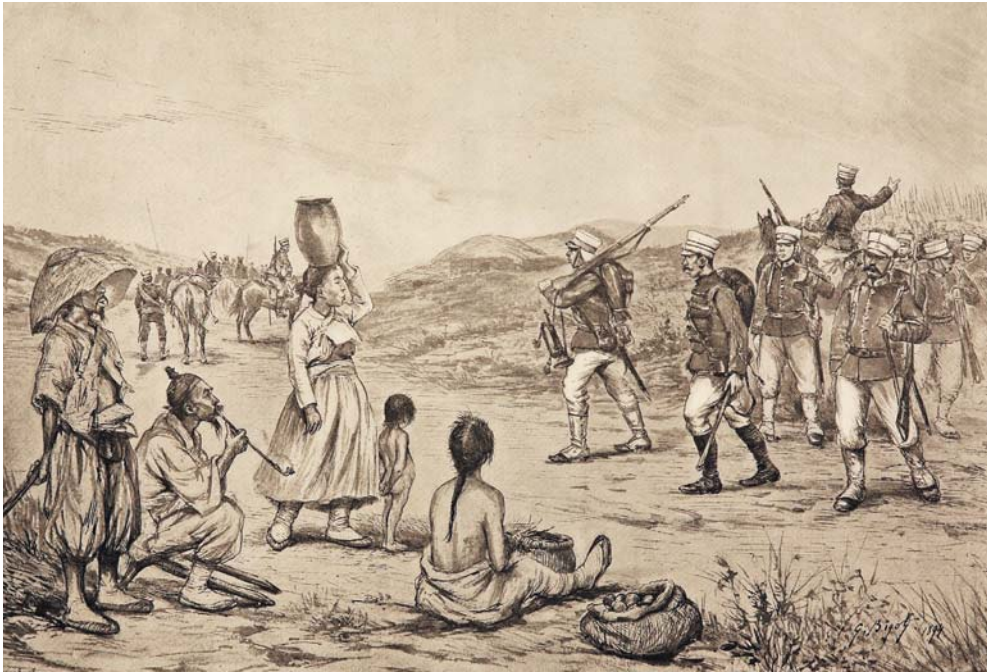
8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3쪽.

8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4쪽.

8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60~161쪽.

8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69쪽.

8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81쪽.



서울 거리를 행진하는 일본 군대(『The Graphic』 1894년 12월 22일)



‘동학군토벌대’의 파견(『일청전보화보』 제1편, 1894)

씩을 안성과 죽산에 각각 파견하였다. 이어 9월 21일에는 양호도순무영(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고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를 도순무사(都巡撫使)로 임명하였다.⁸⁶ 그리고 9월 26일에는 장위영 정령 이규태(李圭泰)를 순무선봉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동학군 진압을 본격화하였다.

일본은 동학군을 초멸하기 위해 이른바 ‘동학군토벌대’라 불리는 후비보병 제19대대를 파견하였다.⁸⁷ 원래 후비보병은 2개 중대로 나누어 1개 중대는 수원·천안·공주 등지를 경유하여 전주부 가도의 동학군을, 다른 1개 중대는 용인·죽산·청주·성주 등지를 경유하여 대구부로 이어지는 가도의 동학군을 토벌할 예정이었다.⁸⁸ 그러나 동학군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초멸하기 위해 3개 중대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서로·중로·동로 3개 노선으로 재조정하였다.⁸⁹ 3개 노선 중 서로는 과천·수원·진위·양성·평택, 중로는 신원·용인·양지·죽산, 동로는 광주·이천·장호원으로 이어졌는데, 수원은 서로에 속하였다.

한편 조선정부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에게 우수한 무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군 혼성여단장은 조선군을 손쉽게 지휘할 수 있도록 무라타(村田) 소총을 지급해 주자고 주장하였지만 일본대사관 측은 경복궁 점령 때 몰수했던 모젤 소총 1,000정 중 400정을 반환해 주었다.⁹⁰ 우수한 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이 토벌에 나서자 경기 지역의 많은 동학군은 무기의 열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9월 하순부터 정부는 유생층을 비롯하여 보부상 등 반동학세력을 규합하여 민보군을 만들도록 권장하였다. 그 후 동학군은 민보군에게 학살되거나 재산까지 빼앗기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남하하는 이두항 부대는 수원의 동학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근 지역 동학군을 진압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9월 21일: 용인에 이르러 …… 삼경(三更)에 100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직곡(直谷)에 있는 점주 이용익(李用翊: 用益)의 집에 가서 동학도 14명을 잡았고 또한 김량장(金良場: 水餘面)에 사는 이삼준(李三俊)의 집에 가서 6명의 동학도를 잡아 양지읍(陽智邑)으로 압행(押行)하였다.

86 『선봉진일기』, 갑오 9월 21일.

87 강효숙, 「제2차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역사학연구』 762, 청목서림, 2002, 26쪽.

8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47~148쪽 및 151쪽.

8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154~156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1991, 63~68쪽.

9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 331쪽.

9월 22일 : 양지읍에서 어제 잡은 20명을 일일이 조사한 후 16명은 석방하고 이용익과 이삼준 그리고 양지읍에서 잡은 정용전(鄭用全 : 龍全)과 이주영(李周英) 등 4인은 읍 앞 대로상에서 포살하였다.

9월 27일 : 이참의(李參議)가 보낸 글에 이천 일본병참소(兵站所)에서 잡은 동학도와 적당 30인을 구속하였다. 5명은 일찍이 놓쳐 버렸고 나머지 20여 명 중 괴수 10명은 포살하고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안성군수 성하영이 도착하던 날인 24일에 비도 3인(魁首 兪九西, 接主 金學汝, 鎭川東徒 金今用)을 잡았는데 27일에 참살하였다.

10월 3일 : 용인군 서이면(西二面) 장항(獐項)에 사는 우성칠(禹成七)을 잡아 가두었다. 4일 조사해보니 동도의 거괴이므로 처형하였다.

10월 5일 : 용인군 남일면 주천(注川) 등지에서 동학도 5명을 잡아 가두었다.⁹¹

이 밖에도 수원 관할의 진위에서는 민공익(閔孔益), 한홍유(韓弘儒), 김명수(金命壽) 3명의 동학군을 체포하였다.⁹² 이들은 모두 수원의 대접주인 김내현의 권유로 동학에 입교하였고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동학교인들이었다.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 동학군은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이는 동학군을 진압하는 직접적인 경로였기 때문에 수원 지역의 동학군은 충청 지역이나 호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수원 인근 지역 동학군들은 각 지역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밀려 희생자가 속출하였고, 결국 충청도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경기 동부 지역은 황산(黃山)과 진천 광혜원(廣惠院) 쪽으로, 진위 지역은 목천(木川) 세성산(細城山) 쪽으로, 수원·남양·시흥 지역은 황산 쪽으로 이동하였다.⁹⁴

9월 18일에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이 내리자 수원을 비롯해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 동학군들은 광혜원에 모였다. 당시 상황을 『양호우선봉일기』에서 “장리(將吏)를 보내 동학도(東學徒)의 거취를 탐지한 결과 충주 무극장기(無極場基)와 진천 구만리(九萬里 : 廣惠院) 두 곳에 몇 만 명이 모여 있다.”⁹⁵고 할 정도였다. 김구도 당시의 상황을 “선생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난 뒤 우리는 속리산을 구경하고 귀로에 접어들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곳곳에서 흰 옷을 입고 칼 찬 동학당을 만났다. 광혜원장에 도착하니 수만의 동학군이 진영을 차리고 행인들을 검사하였는데 그곳에서 볼 만한 것은 평소 동학당을 확대하던 양

91 『양호우선봉일기』(『동학란기록』 상, 259~266쪽).

92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 상, 393·395·411쪽).

93 『순무선봉진등록』(『동학란기록』 상, 412~413쪽).

94 『균암 임동호 약력』.

95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9월 초6일.

반들을 잡아 와서 길가에서 쫓신을 삼게 하는 것이었다.”⁹⁶고 했다. 이들 동학군은 10월 3일에 충북 보은으로 이동하였으며,⁹⁷ 경기 지역 동부 동학군과 강원도 일부 동학군들은 황산에 모였고 충주 신재련(辛在蓮) 휘하의 동학군들은 복평(浹坪)으로 모였다. 이들 동학군은 충의대도소(忠義大都所) 대접주 손병희가 지휘하였다.

수원 지역 동학군은 호서 지역 동학군과 대오를 재편성한 다음 10월 5일에 보은으로 향하였다. 이는 군기를 확보하기 위해 괴산관아를 습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6일 아침 괴산읍으로 전진할 때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절반은 북쪽 길로 들어가고 절반은 남쪽 길로 들어가 협공하기로 했다. 북쪽 길로 가던 동학군은 괴산읍 북방 6km 지점인 당동(唐洞)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를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던 일본군은 일제히 사격을 가해왔다. 일본군 하라다(原田) 소위는 10월 5일 괴산에서 동학군이 공격해 온다는 보고를 받고 길목이 좁은 당동으로 나와 포진하고 있었다. 동학군과 일본군의 당동전투는 오래 가지 않았다. 일본군은 동학군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오전 11시 30분경에 패주하였다. 한편 남쪽으로 들어간 동학군은 수성군이 도망쳐 버려 무혈입성을 하였다. 당시 전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11월) 3일(음 10월 6일) 하라다(原田) 소위가 2개 분대를 인솔하고 충주에서 괴산 지방까지 정찰하던 중 적군 약 2만 명을 만나 격전을 벌이다가 다음 날(4일) 오전 6시에 충주로 돌아왔다. 하라다 소위 이하 4명이 부상했으며 사병 1명이 즉사했다.⁹⁸

10월 6일에 동학도는 두 갈래로 들어왔다. 일본군 25명은 북쪽에서 동학도가 다가오자 출동했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적은 수성군이 맞아 싸웠으나 병력이 적어 버틸 수 없었다. 북쪽에서도 일본군 1명이 사망하였다. 수성군과 부민도 11명이 죽었고 중상자도 30여 명이나 되었다. 5동의 민가도 500여 채가 불탔으며 공해도 모두 파손되었다.⁹⁹

수원을 포함한 경기와 호서 지역 연합 동학군은 일본군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 사기가 충천하였다. 8일에는 보은 장내리에 이르러 11일까지 머물렀다.¹⁰⁰ 그러나 이곳에서 이천 출신의 홍복용(洪卜用), 안성 출신의 신덕보, 용인 출신의 이청학 등이 포살되었다.¹⁰¹

96 김구, 『백범일지』, 나남출판, 2002, 30쪽.

97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초7일.

9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443쪽.

99 『순무선봉진동록』, 갑오 10월 15일.

100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5일.

101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6일.

보은에서 충경포(忠慶包)와 문청포(文淸包) 동학군과 합류한 다음 11일에 청산으로 이동하였다.¹⁰² 당시 청산에는 영동과 옥천 지역 동학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총기포령을 내렸던 최시형은 호남동학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집결한 수원 지역과 호서 지역 동학군은 통령이 된 손병희를 중군으로 하여 경기 안성의 정경수(鄭璟洙)를 선봉진(先鋒陣), 이천의 전규석(全奎錫)을 후군으로 삼고, 광주 이종훈(李鍾勳)을 좌익, 황산 이용구(李容九)를 우익으로 하는 등 동학군을 재편성하였다.¹⁰³

이어 10월 12일(양 11월 8일)에 수원 및 호서·경기 지역 동학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논산으로 향하였다. 하나는 회덕(懷德)과 지명(芝明)을 거쳐 논산으로 향하였고,¹⁰⁴ 다른 하나는 영동을 거쳐 논산으로 직행하였다. 논산으로 합류한 수원 지역 동학군은 전봉준·손병희와 함께 공주성을 공략하였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동학군은 청천으로 후퇴하였다. 그 후 동학군은 고부까지 후퇴하였다가 12월 1일에 임실 오수(獐樹)로 넘어와 장수와 무주, 12월 9일에 영동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퇴진하였다. 그리고 보은 북실에서 최후의 전투를 하였다.

17일 오후 10시 30분 상주 한병(韓兵) 240명은 왼쪽 큰길로, 소관(桑原少尉)은 부하 14명과 이세가와 군조의 1개 분대를 이끌고 오른쪽 산길로 들어갔다. …… 동학도 약 1만 명이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 사격하고 돌입하자 그들은 마을 밖으로 달아났다. …… 이때가 오전 3시다.

…… 18일 아침 8시경에는 동학군이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 왔다. …… 패주를 가장하여 200m가량 후퇴하였다. 그러자 함성을 지르며 맹공해 왔다. 거의 80m 안까지 들어왔다. 이때 일제히 사격하자 제1선이 머뭇거렸다. 아군은 틈을 주지 않고 돌격하자 그들은 두 갈래로 달아났다. …… 이때가 오전 10시였다. 적도의 전사자는 300여 명이고 노획한 무기도 수십 점이었다.¹⁰⁵

북실전투에서 2,000여 명의 동학군이 학살되었다. 여기에는 수원 지역 출신의 동학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수원 지역 동학군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충북 황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보은 청산을 거쳐 논산, 공주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였다. 그 후 호서 지역 동학군과 함께 후퇴하였고 최후의 전투인 북실전투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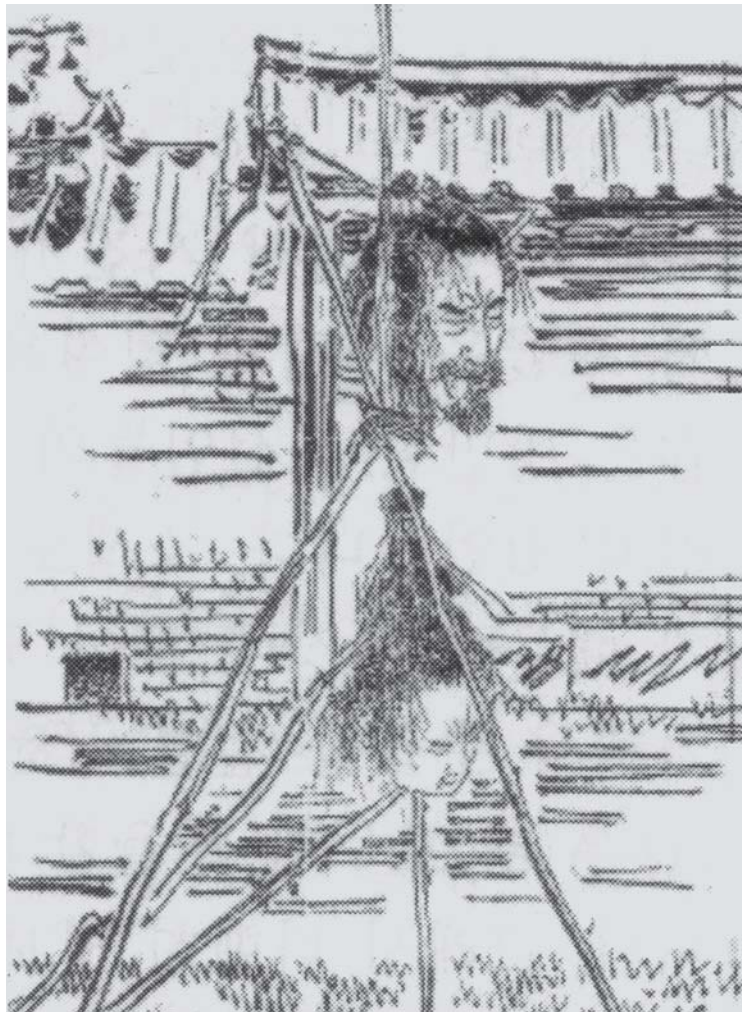
102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5일.

103 『천도교회사초고』, 466쪽.

104 『순무사정보첩』 기26(『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6, 312쪽).

10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국사편찬위원회, 1991, 68~70쪽.

在居憂云使之起復從戎何允之○兩湖都巡撫營以水原匪魁金鼎鉉安承寬梟孽啓○初五日○初六日議政府啓洪牧移拜完伯今已多日矣聞此州處在湖沿衝要而該倅備豫有方匪類不敢入境附近七八邑倚以爲重耆紳士民踵至願借誠有臨陣易將之歎前洪州牧使李勝宇特爲仍任全羅監



김내현과 안승관 처형 기록(『고종실록』, 고종 31년 10월 4일)

동학군 김내현과 안승관 효수 장면(『메사마시신문』, 1895년 2월 8일)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일부에서는 수원에서 호남 지역 동학군의 활동에 호응하기 위해 김내현과 안승관 등은 화성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내현과 안승관은 관군에게 피체되어 효수를 당하였다.¹⁰⁶ 이 외에도 마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황성도 역시 수원부에서 효수당하였다.¹⁰⁷

106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10월 4일.

107 『선봉진일기』, 갑오년 10월 21일.

이로 볼 때 수원 지역의 동학군은 크게 세 지역에서 나누어 활동하였다. 첫째 동학농민 혁명 초기에는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둘째 후기에는 충청도 황산과 공주 우금치, 보은 북실 등지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셋째 수원에서 호남 지역과 호응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수원 지역 동학군은 다양한 지역에서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1.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일본은 청일전쟁을 전후로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차관공세에 나섰다. 이는 경제적인 침략을 통하여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예측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에는 철도부설권·광산채굴권·산림벌채권 등 각종 이권 획득에 동분서주 하였다.¹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1904년 8월 이후 차관공세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었던 일본은 차관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도 유통권을 장악하는 데 혈안이었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 버금가는 거대한 자본은 국내 경제계를 독식하여 나갔다. 일제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책으로 토착자본은 일시에 붕괴되었다.²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더불어

1 이배용, 「일본과 광산이권」,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 일조각, 1989.

2 강창석, 『조선통감부연구』 II, 국학자료원, 2004.



자본주의적 침략을 묘사한 삽화(『Le Petit Journal』, 수원박물관 소장)

민중생존권을 위협하였다. 하와이·멕시코 이민과 연해주·만주 등지의 대량적인 유이민은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³

재정고문 메가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는 1906년까지 4차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1,1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화폐개혁을 구실로 한국인 자산을 수탈하는 한편 식민지용 화폐인 제일은행권의 유통·보급에 앞장섰다.⁴ 실질적인 구매력이 없는 통화를 차관으로 하여 식민지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계를 파산상태로 내모는 가운데 일본의 금융독점을 강화시켰다.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시정(施政) 개선과 기업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였다. 문명국가 건설을 표방한 시정 개선은 명목에 불과할 뿐이었다. 실제는 한국 침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고율의 국채로 기채(起債)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조달하였다. 차관공세에 따라 국채는 1,300여 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부채는 대한제국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침략 강화는 민중의식을 크게 각성시키는 요인이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국권회복을 위한 자립경제운동 활성화로 이어졌다. 대일 부채 증가는 곧바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국권회복은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선각적인 지식인과 자본가들은 국채보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대구 지역 재계 선각자 서상돈(徐相敦) 등의 발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구민의회(大邱民議所: 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 재임 시 일제의 경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인 경제권 수호를 주창한 인물들이었다. 이는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에서 처음 발의되었다.⁵

서상돈의 발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다. 김광제는 발기 연설을 마친 직후 당장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기인들은 김광제와 서상돈 공동명의로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⁶ 대구광문사와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 발기 소식은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 등을 통하여 각지에 알려졌다. 일

3 김형목, 「멕시코 이민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 동향」, 『아시아·아메리카 연구』 5-1, 단국대 아시아·아메리카연구소, 2005.

4 김혜정,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고문정치 실시와 목적 - 재정고문 목하전종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66~72쪽.

5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56~60쪽.

6 이동연,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깃발을 세운 김광제」, 『대구의 문화인물』 1, 대구광역시, 2006, 106~108쪽.



장지연의 '단연보국채' 논설(『황성신문』, 1907년 2월 25일)

제 침략에 고통을 받던 각계각층은 자발적·경쟁적으로 모금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국채를 ‘자신들 부채’로 인식할 정도였다.

2월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김성희(金成喜)와 김상만(金相萬) 등은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국채보상기성취지서」와 「국채보상기성회회칙」 등을 발표하였다. 대한 매일신보사·상동청년학원사무소 등 의연금 수전소(收錢所)로 8곳을 지정하는 등 중앙 기구로서 성격을 천명하였다. 윤흥섭(尹興燮)·박규순(朴圭淳)·서병염(徐丙炎) 등도 「국채보상포고문」을 발표한 후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조직하였다.⁷ 이들은 수금소로 황성신문사를 지정하는 등 모금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장지연(張志淵)은 『황성신문』에 「단연보국채(斷煙報國債)」라는 논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2월 26일 광무황제의 단연보상 참여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영친왕 길례(吉禮)도 음력 7월로 연기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인

7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재·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61쪽.

확산에 부응하였다.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원 단연 결의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각계각층의 동참을 유도하는 ‘기폭제’였다.⁸ 3월 1일 대한자강회 임시평의회는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하였다.

여성들은 통일적인 참여를 위한 모금단체를 결성하였다. 2월 23일 대구 남일동 정운갑 모친 서씨, 정운화 처 김씨, 서병규 처 정씨, 서학균 처 정씨 등 7인은 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하였다.⁹ 논리는 남녀평등론에 의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역할 분담과 의무 수행이었다. 이는 각지 여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주에 사는 기생 부용(芙蓉) 등은 진주애국부인회(晉州愛國婦人會)를 조직한 후 취지서를 발표하였다.¹⁰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국채보상운동을 한 차원 승화시키는 계기였다. 생계조차 곤란한 결인·고용인·노복, 사회적인 존재로서 버림받은 백정·무당·죄수 등도 의연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5~6세에 불과한 아동들도 세뱃돈을 의연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널리 칭송되었다. 인천·원산 등 개항장에 거주하는 일본인, 평북 영유 이화학교(梨花學校) 일본인 교사 사마야나기(正柳好彬) 등도 모금활동에 적극적이었다.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전 민족적인 참여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는 밑거름이었다.¹¹

일본 유학생 친목단체인 태극학회(太極學會)도 총회에서 단연과 금주 단행을 결의하는 한편 의연금을 황성신문사로 보냈다. 미주 지역 동포들은 공립협회(共立協會)를 중심으로 모금한 돈을 대한매일신보사에 의연하였다. 부인들은 격려 「의연서」까지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교포들도 의연에 나섰다. 이러한 해외 한인들의 의연금 동참은 국채보상운동을 추진시키는 자극제였다.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1) 국채보상취지서의 배포

국채보상을 위한 모금활동은 수원으로 전파되었다. 경부선은 승객이나 물류뿐만 아니

8 대구상공회의소, 『국채보상운동사』, 1997, 52~69쪽.

9 「탈환회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3일 잡보.

10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28~130쪽.

11 김형목, 「나랏빛은 망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64~65쪽.

兩氏愛國 京畿道觀察署理叅書
官金漢睦氏와該道主事羅基貞氏가
今番에國債報償을爲하야大邱徐
相敎氏의斷烟同盟을支拂同하야
國債報償金募集事務支所를水原郡
鍾路에特設하고人民을勸諭하야
力助納稅하며管下各郡에도亦將行
文하야家諭戶說에期有實效케하
니同兩氏의聲譽를飽聞已久러니可
謂名不虛傳이라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수원 종로에 설립한 나기정과 김한묵(『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라 대구에서 전개되는 ‘장엄한’ 소식까지 전해 주었다. 경기도관찰사 서리 김한묵(金漢睦)과 주사 나기정(羅基貞)은 수원 종로에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관내 각 군수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훈령하기에 이르렀다.¹² 영어삼학당(삼일남학교 별칭) 찬성회장 김제구(金濟九)와 서기 이하영(李夏榮)·임면수(林勉洙) 등의 「국채보상취지서」 발표는 대단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정한 국민의무는 애국에 있으며, 정성스러운 애국은 오로지 보국안민과 관련됨을 일일이 논할 필요조차 없다. 1,300만 원 외채에 관한 여러 풍설이 나라 안에 전파된 이

후로 유지한 선비와 백성이 서로 돌아보며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미상 불 분발하여 창론함에 이 거액의 외채를 갚을 계획이다. 다행히 충의와 뜨거운 정성이 먼저 영남의 신성한 땅에서 일어나 단연동맹이 우리 2천만 동포의 뇌리를 고동(鼓動)하여 마을의 우부치부(愚夫痴婦)와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 병든 걸인까지 힘을 다해 의연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들고 물 솟듯 하는지라.¹³

이들은 국한문으로 된 취지서 수백 매를 자비로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을 가볍게 여긴다.”는 취지로 거리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각 군에도 취지서를 무료 배포하는 등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2~3일 만에 의연금 수백 원이 모금될 정도로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¹⁴ 도내 국채보상운동은 이들 노력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경쟁적으로 전개된 활동상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⁵ 재무원인 나성규(羅聖奎)·차운순(車裕舜)도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등 매우 열성적이었다. 이들은 의연금 모금을 자신들의 최소한 ‘사회적 의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12 「양씨 애국」,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13 「국채보상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9일 잡보; 대구상공회의소, 1997, 『국채보상운동사』, 117~118쪽.

14 「奮發義氣」,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 잡보; 「三姓奮義」,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6일 잡보; 김형묵,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6쪽.



임면수(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이하영(삼일상업고등학교 소장) 뒷줄 가운데가 이하영이다.

2)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

성공회 신부 부재열(夫在烈)의 참여는 신도와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동참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¹⁶ 교인들은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국채의연금 모금 소식을 듣고 구화(舊貨) 120원 40전을 의연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순식간에 관내로 파급되어 나갔다. 용주사(龍珠寺) 승려 25인도 의연금 모금에 동참하였다. 어려운 재정에도 12원이라는 거금을 희사하는 등 참여를 마다하지 않았다.¹⁷ 특히 부녀자들에게는 신앙활동을 통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 단위나 문중 단위로 전개된 모금활동에서 당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상흥남면(床笏南面) 광산 김씨 문중은 11원 20전을 의연하였다.¹⁸ 다른 집성촌도 이러한 모금에 편승하는 등 경쟁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토진면(土津面) 도호(桃湖)와 문시 목동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⁹ 상무사 두령 임흥수(林興洙), 송윤명(宋允明) 등은 300여 원을 모금하였다. 이들은 일제 상인들의 유통망 장악을 저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²⁰ 이

15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차선훈, 「국채보상운동」, 『경기도사(한말)』 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4, 343~3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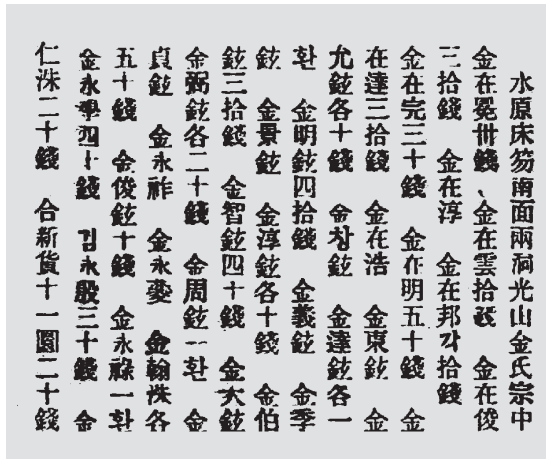
16 「姑爲領收」,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1일 잡보;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5일 광고; 「국채보상의연금수입액」,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9일 광고.

17 「국채보상의연금수입액」,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9일 광고.

18 「水原床笏南面兩洞光山金氏宗中」, 『황성신문』, 1907년 5월 10일 광고.

19 「水原土津面桃湖」, 『황성신문』, 1907년 8월 20일 광고; 「수원문시면목동」,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25일 광고.

20 「商社義捐」,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잡보.



수원 상홀면 광산 김씨 문중의 국채보상 참여(『황성신문』, 1907년 5월 10일)

는 상인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상무사도중(商務社都中) 양성관(梁性寬) 등도 172원 15전이라는 거금을 의연하였다.²¹ 관내 장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의 분발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퇴촌면 집강 김두현(金斗鉉)도 국채보상 의연에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70여 원을 모금한 후 이를 부내 수금소에 전달하였다.²² 세뱃돈을 의연한 사례는

미담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6세에 불과한 신천동(申天動)의 의연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원부 내에 6세아 신천동이가 국채보상의 다른 지역 연조(捐助)함을 보고 세배 시 다른 사람에게 얻은 50전을 회회(該會)에 내납(來納)하였다. 오매간(寤寐間)에 국채보상 4자를 구불절성(口不絕聲)하는 고로 부근 마을 사람이 개왈(皆曰) 황천감동(皇天感動)하였다 한다더라.²³

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될 정도로 칭송되는 분위기였다. 어린 아동에 대한 찬사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관립수원농림학교, 수원공립보통학교 직원과 학생 등도 분위기 조성에는 크게 이바지하였다. 학생들 활동에 대한 보도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커다란 자극제였다.²⁴

1907년 8월 초까지 계속된 모금 현황은 현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내 신기장동 상민계와 발안·안중·김량장·오산 등지 상인층은 장시를 중심으로 모금하였다. 장시일은 주민들에게 국채보상에 대한 의미를 선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현상이었다. 상인들은 각지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다.²⁵

단연운동은 곧바로 금주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기반

21 「상무사도중」,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7일 광고.

22 「執綱忠義」,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1일 잡보.

23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자료집: 대한매일신보편』 3,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대구흥사단, 2007, 265쪽.

24 「수원공립보통학교」, 『황성신문』, 1907년 6월 22일 광고; 「관립수원농림학교생도」,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 광고.

25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7쪽.

●國債報償義捐金

七月中本社收入總額

每日送明細錄

●七月五日

第一四〇四號山車鐵路義捐

第一四〇五號元山義捐報償會

第一四〇六號地川山內面各里

第一四〇七號竹山歸村面各里

第一四〇八號利川北面道各里

計九十九國四拾錢

七月五日外收入總額

五百三十三圓七十一

四五六三個月收入總額

四萬八千〇六圓〇

六錢七厘

都總合四萬八千五百九十九圓七

十七錢七厘

●國債報償義捐金

本社收入廣告

伊川郡報成社第貳回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下開 卽伯榮 一圓

韓泰益 陸士烈 卽伯榮

金榮奎 梁龍杰 卽伯榮

曹秉教 卽伯榮

劉仁河 池連吉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夫人安氏銀幣一件九錢七分重

李教儀 拾圓

夫人洪氏銀幣一件一兩三分重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同女兒 四十四元 鄭斗鎮

李錫九 李德九 李南九

趙性烈 卽伯榮 卽伯榮

林和烈 卽伯榮 卽伯榮

徐元植 池連吉 卽伯榮

安興交 李全日 卽伯榮

金德股 徐命時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金十維 吳成敏 安仁成

嚴利宗 卽伯榮 卽伯榮

車利威 卽伯榮 卽伯榮

宋成威 車利威 卽伯榮

許成威 車利威 卽伯榮

張應天 黃全宅 卽伯榮

趙仁學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金仁波 李光先 沈用求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金仁波 李光先 沈用求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卽伯榮

조성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자립경제운동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까지 비약되는 계기였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활여건 개선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김문옥(金汶昊)과 이동근(李東根) 등은 이를 주도하였다.²⁶ 수원에서 모금된 주요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원 지역 국채보상의연금 모금 현황²⁷

거주지	성명	금액	특성	전거
부내 성당	부재열 · 김만준 등 신도	120원 40전 (60원 20전)	신부 · 전도사 · 신도	大 1907. 3. 21; 1907. 4. 5.
현남 이동	정창진 등 4	1원 20전		황 1907. 4. 10.
서울	정환규	1원	정3품	大 1907. 4. 13.
송동 시곡리	조익승 등 3인	90전	문중	大 1907. 4. 16.
청오 오산	이명삼 등	53원 65전		황 1907. 4. 17.
관내	윤태중 등 36인	27원	농림학교 생도	大 1907. 4. 21.
형석	윤병장 등 149인	30원 10전		만 1907. 4. 23.
오정	김용삼 등 주민	당오 1,356냥		황 1907. 4. 26.
서신리 현곡	박치백 등	29원 10전		황 1907. 4. 30.
문시 금암	전기명 등	15원 40전		황 1907. 5. 1.
용주사	승도 25인	12원	승려	大 1907. 5. 9.
부내	성당 신도	60원 20전	신도	大 1907. 5. 9.
상홀 남면	김재면 등	11원 20전	광산 김씨 문중	황 1907. 5. 10.
정림 2동	최광석 등 18인	10원		大 1907. 5. 14.
초평 가수동	이한익 등	당오 5,365냥		황 1907. 5. 20.
오정	4개 동민	22원 40전		만 1907. 5. 18; 1907. 5. 19.
남부 독산동	이학중 등 44인	8원 4전		만 1907. 5. 22.
태촌 매탄리	김창근 등 40인	8원 50전		만 1907. 5. 23.
종덕	3개리 주민	26원		만 1907. 5. 26.
남부 원천동	신석현 등 61인	15원 50전		만 1907. 5. 28.
남곡 귀래동	서상환 등 35인	8원 96전		大 1907. 5. 29.
매곡 원평리	양필환 등 54인	10원 24전	아동 다수	大 1907. 6. 8.
부내	임홍수 · 송운명	300원	상업	大 1907. 6. 11.
태촌	김두현	70원	집강	大 1907. 6. 11.
부내	차유순 · 나성규	283원 8전	국채보상회 재무원	大 1907. 3. 9; 1907. 3. 29; 1907. 6. 11. 대 1907. 7. 7.
부내	신천동	50전	아동(6세)	大 1907. 6. 11. 대 1907. 7. 7.

26 『斷酒違約』,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0일 잡보.

27 大는 『대한매일신보(국한문혼용판)』,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판)』, 황은 『황성신문』, 만은 『만세보』를 각각 의미한다.

거주지	성명	금액	특성	전거
부내	김병천 등	당오 5,787냥 5전	공보교 학생	황 1907. 6. 22.
문시 목동	이면구 등 17인	5원 30전	문중	大 1907. 6. 25.
남창동	이용훈	2원		대 1907. 7. 4.
부내	양성관 등	172원 15전	상무사 도중	대 1907. 7. 7.
숙성 단교동	김현영 등 20인	8원 60전		대 1907. 7. 17.
청룡 덕우리	이신의 등 32인	9원		대 1907. 7. 17.
문시 세교	나학연 등 16인	8원 10전		대 1907. 7. 17.
부내 군기동	서춘근 등 27인	6원 25전		대 1907. 7. 17.
양한 6개 동	김찬수 등 69인	13원 90전		대 1907. 7. 17.
삼봉 분천	이계환 등 동민	6원 80전		대 1907. 7. 17.
초평 서촌	유관오 등 3인	3원		大 1907. 7. 25.
초평 서촌	김청칠	1원		大 1907. 7. 25.
부내	박용태 등 38인	15원 75전	유기상	大 · 대 1907. 7. 31.
부내	김순원 등	56원 50전	상인, 계원	大 · 대 1907. 8. 3.
발안	김운삼 등 63인	23원 30전	상인	大 · 대 1907. 8. 3.
오산	김명현 등 45인	21원 85전	상인	大 · 대 1907. 8. 3.
안중	김기순 등 26인	13원 10전	상인	大 · 대 1907. 8. 3.
토진 도호(桃湖)	신철우 등	49원 34전	신씨 문중 등	황 1907. 8. 20.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수원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경쟁적일 만큼 열성적으로 전개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문중이나 마을 단위 참여는 국채보상을 사회적인 책무로 인식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교직원과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에 따라 동참하였다.

3. 국채보상운동의 특성과 의의

수원 지역 국채보상운동은 인근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관료나 성 공회 · 불교계 등 종교계 인사들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근본적인 지향점은 국권회복에 있었다. 이러한 수원 지역 국채보상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인층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을 추동시킨 원인 중 하나인 자립경제 수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 버금가는 무차별적인 일제의 경제 침탈은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였다.²⁸ 상업자본화 이전 단계

28 이창식, 「조선시대 이후의 수원시장」, 『기전문화』 1,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6, 30~34쪽.



성안시장의 수원 상인(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에 놓인 토착자본은 러일전쟁 발발을 전후로 전면적인 붕괴에 직면하였다. 경성상업회의소를 비롯한 일부 상업자본가는 식민체제 내로 포섭되는 등 예속자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²⁹ 반면 자생적인 발전을 모색한 상인층은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즉 자신들의 사회적인 존재성을 알리는 동시에 긴밀한 유대감과 정보를 교환하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교류에 의한 소통은 상인층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29 전성현, 「한말~일제 초기 경성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127~139쪽.

둘째는 문중 조직 등을 포함한 향촌사회 공동체의 모금방식이다. 일제 침략에 대응한 집단적인 저항은 조선 후기 향회(鄉會) 운영방식을 계승 발전시킨 경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강제력은 주민들 상호 간에 경쟁심을 촉발시켰다. 각지 의연금 모금도 이러한 요소와 맞물려 있었다.³⁰ 의연금 모금주체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가운데 공동적인 관심사로서 부각시킬 수 있었다. 특히 동계(洞契) 운영에 의해 마련된 공동기금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주민들의 소망이나 염원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셋째는 종교인과 관료들의 주도적인 활동이다. 부재열 신부나 용주사 승려들의 활동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종교기관이나 신도들의 활동은 교세 확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교육기관 운영과 모금활동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방안이었다. 나기정·김한목 등 관료들의 동참과 지원도 이러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일부는 이를 사회적인 의무이자 책무로 인식하고 실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³¹

넷째는 공교육 부진과 달리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다. 관립수원농림학교와 수원공립보통학교 교원과 학생들의 의연은 이를 반증한다.³² 이외는 달리 20여 개교에 달하는 사립학교 의연금 동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민족운동 동참은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고 체험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동기였다. 3·1운동 이후 '노학연계'나 야학운동 활성화는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의 모금이 전무한 것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여성들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원 지역 「국채보상취지서」 발기인의 부인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의연금 대열에 동참하였다.³³ 한말 계몽적인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은 이후 최시외(崔是議)를 중심으로 조직된 수원부인회가 거의 유일하다. 국채보상운동을 실행하기 위한 여성단체 조직은 계획이나 움직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인근 남양 지역의 경우 김희경, 김혜경, 안마리아 등이 의성회(義誠會)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³⁴

수원인의 열의와 경쟁적인 의연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는 외형적인 성과일 뿐 민중의 현실인식은 심화되고 있었다. 의연금 모금 대열 참여는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상을 체험하는 '현장교육'이었다. 뼈저린 경험은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나갔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 고조와 근

30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북 김천지역 계몽운동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72쪽.

31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7, 20쪽.

32 「관립수원농림학교생도」,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21일 광고; 「수원공립보통학교」, 『황성신문』, 1907년 6월 22일 광고.

33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두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34 김형목, 「대한제국기 화성지역 계몽운동의 성격」, 『동국사학』 45, 동국사학회, 2008, 74쪽.

대교육 확산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요 활동가에 의하여 조직된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 수원지회는 이후 문화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중심 단체였다. 이들의 부단한 노력은 지회 설립인가로 귀결되었다. 최성대(崔成大)와 이하영 등 39인은 「설립인가청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수원 지역 근대교육 확산을 위하여 교육부장 김가진(金嘉鎭)과 평의원 조완구(趙琬九)를 특별위원으로 파견하였다. 시찰원 보고서를 토대로 1908년 6월 14일 평의회에서 이순하(李舜夏)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가결시켰다.³⁵ 수원지회원들은 근대교육 보급에 전력을 기울였다.

「사립학교령」과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을 시행하여 근대교육운동을 탄압하여도 국권회복운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 참여를 통한 경험은 수원인들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곳의 의연금 모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개신교인, 전현직 관리, 자산가 등이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취지서」를 도내 각 군에 발송하는 등 거국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신부 부재열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도들의 동참과 지원을 유도하는 데 앞장섰다. 용주사 승려 동참은 경쟁적인 의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특히 6세 아동 신천동은 세뱃돈을 기꺼이 의연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인층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민들에게 ‘국채 = 국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실력양성을 위한 문화계몽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 학교 · 의숙 · 강습소 설립이나 운영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삼일학교나 수원상업강습소 교육 내실화는 변혁운동 경험에 의하여 도모되었다. 특히 상무정신 고취를 위한 연합운동회 개최는 주민들의 열광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³⁶ 국채보상운동이 지닌 지역운동사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이들에 대한 기존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였다. 여성에 대한 편견도 점차 사라지는 계기를 맞았다. 20세기 초반 전래된 개신교나 성공회 등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앞장섰다. 나기정의 부인 최시의는 수원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입장이었다. 목적은 여성교육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 향상에 있었다.³⁷

일부 여성들도 교회와 여학교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점차 자각하였다. 여

35 「勸諭發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 잡보; 김형목, 「기호흥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중앙사학연구회, 1999, 72~75쪽.

3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동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38쪽.

37 「一家教育」,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성들의 ‘유일한’ 사회 활동공간이자 의견 수렴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삼일여학교가 수원 여성교육의 요람지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사회운동 참여에 따른 다양한 경험과 소통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수원 여성운동을 진전시키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금주단연운동, 소비조합운동 등도 이를 계승하는 가운데 진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 4 계몽운동의 성격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1. 수원 사회의 근대적 변화

수원에서 근대사회 도래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동학 계열의 수원 지역 진보회(進步會)와 일진회(一進會)는 일찍부터 문명개화를 기치로 주민들 규합에 나섰다. 일진회 집회 시에는 150여 명이나 운집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904년 12월 4일 지회 발기일 당시 지회장은 정경수(鄭景洙)였다. 일진회원의 불법행위는 때때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세 감면을 구실로 농민들을 현혹시키는 등 각종 작폐도 일삼았다. 천도교 수원교구 설립은 불법적인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특히 교리강습소는 주민들에게 시세 변화를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단순한 교리 강습 차원을 넘어 문명사회의 지향은 민지(民知) 계발로 이어졌다.¹ 문맹 탈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끈이자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8-9쪽.



경기 남부 지역의 선교 거점인 수원종로교회(1930년대, 수원종로교회 소장)

‘절대자’라는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 만민평등도 신분제 질곡에서 신음하던 민중에게 위안이자 안식처로 다가왔다. 교회는 여성들에게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 1900년 전후에 전래된 개신교 감리교파는 수원인들의 가치관과 현실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는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 일상을 변화시켰다. 수원 읍내에 설립된 종로교회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를 포함하는 사실상 선교 ‘거점지’나 마찬가지였다.² 시세 변화에 민감한 수원 지역 명망가는 이곳을 중심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활동은 읍내 중심에서 점차 외곽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아펜젤러(H.G. Appenzeller)의 권유로 개신교에 입교한 안종후

(安鍾厚)는 수원 제암리에 교회를 세웠다. 그는 동지를 규합하여 민지 계발을 위한 계몽 활동에 앞장섰다. 1902년과 이듬해에 각각 설립된 삼일여학당(三一女學堂)과 삼일학당(三一學堂), 1908년경에 조직된 수원엠틸(懿法)청년회의 활동을 통해 이곳에서 개신교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학교와 청년단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계몽활동을 양성·결집시키는 중요한 기반이었다.³ 1904년 전래된 성공회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일깨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초기 신앙활동은 사회적인 유대를 통해 상호 간 교류를 증진하는 등 소통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경부선 부설에 따른 수원역 설치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반하였다. 이로써 수원은 행정·상업·관광·문화 도시로서 점차 부각되는 계기를 맞았다. 도로와 통신망 정비에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추진되어 나갔다. 철도와 수원 읍내 신작로 개설을 통한 원활한 이동은 사회적인 통합을 위한 기제 중 하나였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정미업·양조업 등의 유망한 업종은 유통망을 확대시켰다. 일제시기에든 이러한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 2000, 44~59쪽.

3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34~39쪽;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75쪽.



수원역(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역 설치 이후 수원은 행정·산업·관광·문화 도시로서 부각되었다.

오히려 식민 지배체제 고착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⁴ 수원상업회의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 교통 발달은 상업적인 변영과 동시에 주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수원에는 1900년 일본인 이주 이래 집단적인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들의 수원 이주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에게 수원은 ‘제2고향’으로 인식되는 명승지였다. 식민지화가 강화되면서 수원의 일본인사회는 발전을 거듭하였다.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일본인소학교·은행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은 식민 지배의 성과물인 동시에 수탈 기반시설이었다.⁵ 식민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경성박람회(京城博覽會)에 출품된 농산물 상당수는 권업모범장에서 재배한 작물이었다. 일제강점기 각종 견학단 관람 등은 일제의 식민농정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08년 12월까지 50호가 발간된 『수원신보(水原新報)』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⁶ 일본인들은 고리대

4 장흥식, 「我國의 實業觀」, 『태극학보』 2, 태극학회, 1906, 50~53쪽; 김찬수,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 수원학연구소, 2005, 19~24쪽.

5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8~9쪽; 「口繪寫眞, 조선의 명승 수원 수유사」, 『조선공론』 2, 조선공론사, 1913; 酒井政之助, 『水原』, 酒井出版部, 1923, 11쪽; 이종일, 「임업의 필요」, 『대한자강회월보』 3, 대한자강회, 1906, 13~15쪽; 나홍석, 「論社會進化之原則야 以慰志士同胞」, 『대한홍학보』 1, 1906, 25~29쪽.

6 『수원신문』, 『황성신문』, 1908년 3월 10일 잡보; 「水原報의 更刊計劃」,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금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유통망 등을 차례로 장악하여 나갔다. 일부 지주들도 이에 편승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겼다.⁷

식민지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관서의 확대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켰다. 농촌경제 빈궁화는 지방관이나 지주의 자의적인 수탈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와이나 멕시코 이민행렬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들은 금의환향을 꿈 꾸면서 떠났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국제적인 '미아 신세'였다.⁸ 만성적인 굶주림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비판으로 중첩될 수밖에 없었다.

2. 계몽단체의 활동과 인식 변화

1) 계몽단체의 조직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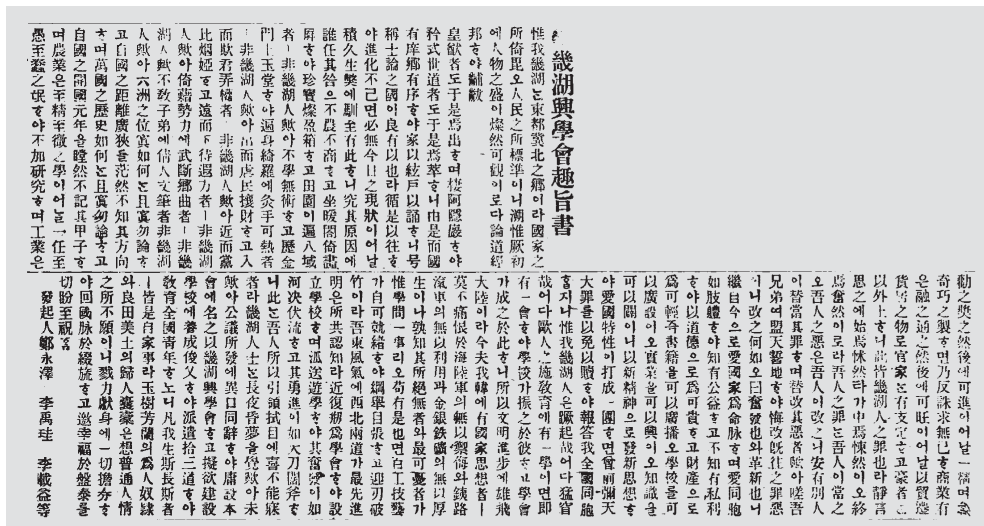
국망(國亡)에 대한 위기의식은 각종 계몽단체의 결성을 활성화하였다. 남양 지역 유자들은 대한자강회 남양지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수원 지역 활동가를 자극시키는 요인이었다. 기호흥학회 본회도 지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임원진의 부단한 노력으로 1909년 3월 말까지 광주·양근·강화 등 7개 지회가 설립되었다.⁹ 최성대(崔成大)·이하영(李夏榮) 등 39인은 「설립인가청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수원 지역의 근대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 김가진(金嘉鎭)과 평의원 조완구(趙琬九)를 특별위원으로 파견한 후 1908년 6월 14일 평의회에서 설립인가를 가결시켰다.

임원진은 지회장 김종한(金宗漢), 부회장 이계환(李啓煥), 총무 최동필(崔東弼), 서기 이하영, 회계 이용희(李容熙), 간사원 지하영(池河永)·최중순(崔鍾淳)·최송(崔松), 교육부장 박기양(朴箕陽), 재정부장 오철선(吳喆善), 평의원 이종악(李鍾岳)·최익환(崔翼煥) 등 14인이었다. 회원은 임원진을 포함하여 차유순(車裕舜)·나중석(羅重錫)·홍사훈(洪思勳)·이성우(李成雨) 등 55인에 달하였다. 흥학을 위하여 본회는 각지에 권유위원을 파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수원 지역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진전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¹⁰ 회원 중 오철선과 최성대는 인근 용인과 남양에 거주하는 외지인이었

7 정수일, 「米豆로 百萬長者된 話實, 愛人입코 墳塋에 米豆하여 20만원을 따. 수원에서 서고다니는 청년 일약하야 백만장자가 되어」, 『삼천리』 1, 삼천리사, 1929, 27~28쪽.

8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11쪽.

9 김형목, 「기호흥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한국중앙사학회, 2000, 72~75쪽.



기호흥학회 취지서(『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는데, 이들과의 교류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계몽운동을 추진하는 기반이 되었다.

2) 민지 계발과 인식 변화

노동학회 경기지회는 지방관의 주도와 지원으로 조직되었다. 임원진은 지회장 김사홍(金思洪)과 총무 송병두(宋秉斗) 등이었다. 개회식에서 관찰사 김사묵(金思默)과 관찰주사 김한묵(金漢睦), 수원군수 서병숙(徐丙肅) 등은 찬조연사로서 이들을 격려하였다. 장날에 개최된 축하식에는 5,000~6,000명이나 운집하였다. 동아개진교육회 수원지회도 근대교육 보급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장 김신묵(金信默)은 읍내 장안동을 중심으로 회원들 상호 간 친목 도모에 노력하였다.¹¹ 물론 일부 단체는 표방한 의도와 달리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각지에 설립된 노동야학은 시세 변화와 맞물려 발전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야학회 수원지회 창립은 근대사회 도래와 더불어

10 기호흥학회, 「지회임원급 회원명부(수원군)」, 『기호흥학회월보』 2, 1908, 61~62쪽; 기호흥학회, 「회중기사」, 『기호흥학회월보』 3, 1908, 50쪽; 「勸諭發行」, 『황성신문』, 1908년 6월 10일 잡보; 「勸諭委員派送議」, 『황성신문』, 1910년 2월 17일 잡보.

11 「開進教育研究」, 『만세보』, 1906년 8월 21일 잡보; 「開進支會」, 『황성신문』, 1908년 1월 31일 잡보; 「支會景況」, 『황성신문』, 1908년 8월 21일 잡보.

‘노동가치’를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회장 조영호(趙榮鎬)는 순종황제 즉위 1주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제등행렬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노동자의 각성과 아울러 민족정신, 국가정신 등을 북돋우는 계기였다. 단체활동은 다양한 경험 축적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론 임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불신감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다.¹²

조영호는 근대 통신의 상징인 수원우체사 주사로 처음 근무하였다. 당시에는 우편물을 가지고 도망하는 배달부가 적지 않았는데 그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절책을 농상공부에 건의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었다.¹³ 그 후 영변우체사와 전남 광주우체사 주사를 비롯하여 연변우체사 주사, 중추원 의관, 해민원 주사, 정주우체사 주사, 탁지부 세무 주사 등을 지낸 관료였다. 또한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평의원을 역임하는 등 수원 지역을 대표하는 계몽가였다.¹⁴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될 때에는 서병염(徐丙炎)·윤흥섭(尹興燮)·박규순(朴圭淳)·김영선(金永璿)·강인규(姜寅圭)·서상학(徐相鶴)·성인호(成寅鎬)·박승덕(朴勝惠)·김사홍(金思洪) 등과 국채보상중앙의무사를 조직하였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대한측량총관 경기지회도 자신의 집에 두는 등 시세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¹⁵

내적인 변화와 외부에서 유입된 이질적인 문화로 발생한 충격 등은 주민들의 현실인식을 크게 각성시키는 계기였다. 시세 변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강연회와 연설회 등 계몽활동은 주민들에게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동시에 시대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등 모순된 현실 타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하였다. 향학열 고조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확산을 거듭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과 근대교육운동 참여는 미약하나마 모순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였다.¹⁶

여성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기정(羅基貞)의 부인 최시의(崔是議)는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나섰다. 목적은 여성교육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에 있었으나¹⁷ 구체적인

12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2005, 295~296쪽.

13 『독립신문』, 1897년 7월 29일 외방통신.

14 기호흥학회, 「본회기사, 수원군」, 『기호흥학회월보』 2, 62쪽; 『독립신문』, 1898년 1월 8일 관보, 2월 12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899년 8월 24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899년 9월 12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6월 9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7월 17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2년 7월 18일 관보; 「서임급 사령」, 『황성신문』, 1903년 1월 9일 관보.

15 「國債報償布告文」, 『황성신문』, 1907년 3월 2일 잡보; 『황성신문』, 1909년 4월 21일 광고.

1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0~21쪽.

활동상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나혜석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일찍부터 수원의 삼일여학교를 거쳐 진명고등여학교에서 근대교육을 수혜받았다. 일부 여성들도 교회와 여학교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점차 자각하였다. 여성들에게 ‘유일한’ 사회 활동공간이었고 의견을 수렴하던 곳이었다. 자선부인회(慈善婦人會)의 조직과 활동은 여성들의 사회생활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¹⁸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질곡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에서 이질적인 새로움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하였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근대지식의 획득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이었다. 학교는 사회질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밑바탕이었다.¹⁹ 인간관계나 가치관도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학교는 근대사회를 상징하는 ‘상징’으로 다가왔다. 을사늑약 이후 사회진화론이 확산되고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근대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사립학교설립운동과 야학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3. 근대교육운동의 진전

1) 근대교육의 보급과 내실화

‘을사늑약’ 이후 점증하는 위기의식은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였다. 수원 지역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인 수원군공립소학교(현 신평초등학교)는 1896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근대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과과정 부실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²⁰ 공교육 부진은 결국 사립학교를 통한 근대교육의 시행과 진전으로 귀결되었다.

수원의 최초 사립학교는 1900년경 이미 신평동에 설립된 화성학교(華城學校)이다. 1902년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교사는 미와 세이치(三輪政一)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직접

17 「一家教育」, 『황성신문』, 1908년 12월 23일 잡보.

18 「水原陵幸에 節次及 盛況」, 『황성신문』, 1908년 10월 4일 잡보.

19 이지애, 「개화기 '배움터'의 변화와 '자아찾기'로의 일상성」, 『근대의 첫 경험 - 개화기 일상 문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157쪽.

20 박남훈, 「1896~1905년 경기도의 사립학교 현황과 성격」,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6, 494~496쪽.



삼일여학교 김메례 선생 송별회에 참석한 졸업생과 재학생들(독립기념관 소장)

가르치는 등 한국인과 친밀한 유대관계 조성에 앞장섰다. 구체적인 교과과정과 규모는 거의 파악할 수 없지만 설립자와 교사가 일본인이라는 사실로 볼 때 일본어 보급을 위한 ‘일어학교’임을 알 수 있다. 조선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勸助)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의연금을 회사 하였다.²¹ 이후 학교 임원진은 삼일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면수(林勉洙), 나홍석(羅弘錫), 나경석(羅景錫)은 모두 이 학교 출신이었다.²²

삼일여학당과 삼일남학당은 수원을 상징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1902년 설립된 삼일여학교의 운영 주체는 감리교 선교사와 전도사·교인 등이었다. 삼일여학교 교사 김메례(金袂禮)는 지식뿐만 아니라 시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인격 수양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향학열을 고취시키는 계기였다. 특히 강연회 개최를 통하여 가정교육의

21 한동민, 「근대 수원의 일본인 사회와 일본인학교 - 일어 화성학교와 수원소학교를 중심으로」, 『지배문화와 민중의식』, 한신대학교출판부, 2008.

22 『華校卒業』, 『황성신문』, 1905년 5월 9일 잡보.



삼일학교 남녀학생 (독립기념관 소장)

중요성도 학부형들에게 인식시켰다. 교사이자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그녀에 대한 존경심은 학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었다.²³

삼일남학교도 개신교 선교사와 신자 등에 의하여 1903년 설립되었다. 주요 발기인은 삼일여학당을 주도한 이하영·임면수·나중석·차유순·김제구·이성의 등이었다. 발전을 거듭하던 중 1906년 경비난으로 폐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신도들과 선교사와의 갈등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유지들은 학교 운영비 마련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²⁴ 수원을 대표하는 부호 강석호(姜錫鎬)는 1906년 5월 거금을 의연하는 한편, 학생들 면학 분위기 고취를 위한 '장학금'을 회사하였다.²⁵ 그는 내시로서 1890년대 이후 기울어가는 조선왕조를 가장 직접적으로 목격한 인물이었다. 을미사변·아관파천·헤이그특사사건·고종양위 등은 대표적인 경우였다. 나중석도 부지 900여 평을 기증하여 새로운

23 기호흥학회, 「학계회문, 女師高明」, 『기호흥학회월보』 7, 1909, 40쪽.

24 「광무 11년 6월일 수원삼일학교 찬성금액」,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광고.



구한국군 출신인 송세호

전기를 마련했는데, 이는 전 주민의 동참으로 이어져 삼일학교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다. 「사립학교령」 시행에 따른 탄압을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원종로교회로 학교 운영권을 이관하였다.

1906년 9월 1일 심상과와 고등과 개편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다. 1년 과정인 심상과 교과목은 성경·국어·역사·한문·산술·영어·체조 등이었다. 3년제인 고등과는 성경·한문·국어·수신·생리·광물·문리·산술·본국역사·본국지리·만국역사·만국지리·작문·도화·체조 등이었다. 교과과정 정비는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체조는 매우 중시된 교과목이었다. 군사훈련에 버금가는 병식체조와 행군은 학생들에게 상무정신을 고취시켰다. 담당교사는 구한국군 출신인 강건식(姜建植)에 이어 송세호(宋世鎬)가 맡았다. 교장 임면수도 관내 사립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등 교육가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주민들 청송은 그를 수원 계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시켰다.²⁶ 곧 삼일학교는 이곳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1904년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사는 오윤선(吳胤善)이었다. 그는 수원군수로 재직하면서 교사로 활동하는 등 흥학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서우학회 참여와 활동도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²⁷ 용주사도 승려 자질 향상과 인근 지역 청소년을 위해 명화(明化)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목은 보통과·일어 등이었고, 설립 초기 출석생은 50명에 달하였다. 특히

1904년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사는 오윤선(吳胤善)이었다. 그는 수원군수로 재직하면서 교사로 활동하는 등 흥학 분위기를 고취시켰다. 서우학회 참여와 활동도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²⁷ 용주사도 승려 자질 향상과 인근 지역 청소년을 위해 명화(明化)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목은 보통과·일어 등이었고, 설립 초기 출석생은 50명에 달하였다. 특히

25 기호흥학회, 「본회기사, 본회임원명부」, 『기호흥학회월보』 1, 1908, 50~54쪽; 「奉安復命」, 『황성신문』, 1901년 7월 10일 잡보; 「奉侍上奏」, 『황성신문』, 1904년 1월 15일 잡보; 「姜氏退去」, 『황성신문』, 1904년 2월 15일 잡보; 「膳免官」, 『황성신문』, 1904년 5월 7일 잡보; 「宮廷錄事」, 『황성신문』, 1904년 5월 10일 관보; 「姜家警衛」·「奉勅訓令」, 『황성신문』, 1906년 7월 5일 잡보; 「幸免橫罹」, 『황성신문』, 1906년 7월 6일 잡보; 「鮮釋無期」, 『황성신문』, 1906년 10월 26일 잡보; 「광무 11년 6월일 수원삼일학교 찬성금액」,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광고.

26 기호흥학회, 「학계회문, 학계헌신」, 『기호흥학회월보』 7, 1909, 39쪽;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65·73쪽.

27 「교수고빙」, 『대한매일신보』, 1905년 1월 24일 잡보. “平壤居有志 諸君子가 本社에 寄函함이 如左하니 敬啓者는 夫新聞은 非但全國之言權而乘天下之言權者也故客年十一月에 遭國家之大變하야 貴社에서 危機를 不避하고 直筆을 一하야 布告天下라가 遭此三四期刊之境故惟吾同胞가 貌然面牆하야 不知所之리니 天運이 循環하사 貴社를 復設하코 舌弊筆禿토록 警醒我耳目하니 大韓同胞之幸福歟新貨二圓冒汗伏幸幸勿却千萬仰祝仰祝 光武十年丙午陰正月二十二日 生 吳胤善.” (『有志寄函』, 『황성신문』, 1906년 2월 21일 잡보).

일어는 현지에 거주하는 기무라 단파쿠(木村淡泊)가 담당하는 등 문명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다.²⁸ 학생들은 그의 열정적인 강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수북면 전 참봉 서상천(徐相天)은 자본금을 모아 수성(須成)학교를 세웠다. 자신은 교장, 전 주사 서상균(徐相兢)은 교감, 일어교사는 변영헌(卞榮獻), 한문교사는 서상춘(徐相春), 군수 이완용(李完鎔)은 찬성원장, 관찰도참서관 김한묵은 협무장 등을 각각 맡았다. 출석생은 53명에 달하여 개학과 더불어 주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²⁹ 지원자 증가로 개학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학생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서진하(徐震河)는 남곡면에 보명의숙(普明義塾)을 설립하였다. 임원진은 교감 강필중(姜弼中), 학감 김동호(金東鎬), 총무 서진하, 교사 정기섭(鄭基燮) 등이었다. 서진하는 경비 일체를 자담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에 미야케 이와(三宅岩)는 명예교사로 자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설립 당시 호응한 학생은 30여 명이 있었다. 운영비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교사 정기섭은 임원회를 개최하여 유지방침을 강구하면서 교세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중장기적인 학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확고한 기반이었다. 이는 50여 명에 달하는 임원조직회 결성으로 이어졌다.³⁰ 특히 일어와 영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어학속성과 운영은 많은 호응을 받았다.

청호면 오산의 정한교(鄭漢敎)와 정재호는 인습 타파를 통한 문명사회 건설 방안으로 명진(明進)학교를 설립하였다. 근대교육 보급과 의식개혁은 이러한 가운데 진전을 거듭하였다. 50명 전교생의 단발(斷髮)은 현지인에게 변화상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군수의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은 시세 변화를 새삼 일깨우는 요인이었다. 상인들은 학교 운영비 조달책의 일환으로 우세 징수를 건의하였다. 이들은 군수에게 시장에서 매매되는 소 1마리당 20전의 세금을 '의무교육비'로 징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사립학교령」으로 운영난에 직면하자 오산(烏山)사숙(일명 一新學校)과 병합하여 내실화를 모색하였다. 명진학교도 설립된 이래 재정난으로 폐교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감 이용묵(李容默)의 헌신적인 활동과 학감 김진태(金鎭台)의 실지(實志) 장려로 교황(校況)은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맞았다. 향학열은 관내 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제로 작용하였다.³¹

유림계를 대표하는 맹보순(孟輔淳)도 근대교육에 동참하고 나섰다. 그는 전 판서 김종

28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147쪽.

29 「須成學校設立」, 『만세보』, 1907년 2월 3일 잡보; 「須校興旺」, 『만세보』, 1907년 4월 26일 잡보; 「須校日盛」, 『황성신문』, 1907년 2월 4일 잡보; 「學員日增」, 『대한매일신보』, 1907년 2월 19일 잡보.

30 김형묵,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5쪽.

31 김형묵,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5~26쪽.

한, 군수 서병숙, 유지신사 윤태익(尹泰翊) 등과 더불어 향교 내에 명륜학교를 설립하였다. 교과과정은 문학·실업·법률·유치 등 4개 전문과정이었다. 이 학교는 개학한 지 불과 2~3개월 만에 100여 명 출석으로 이어졌다. 시세 변화에 부응한 신·구학문 절충은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상업가 30인이 각각 1만 냥씩 기부하고 각 면이 1만 냥씩 모아 조성한 71만 냥은 학교 재정을 굳건하게 뒷받침하였다.³² 이는 사실상 ‘의무교육비’ 나 다름없었다.

나성규와 차유순 등은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삼일학교 후원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임원진은 더욱 분발하여 재정 확충과 중장기적인 발전책을 도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입학권을 부여하는 등 향학열을 고취시켰다.³³ 주민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들의 활동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교육기관 운영은 사회적인 책무이자 의무로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졸업생 환영회 개최는 근대교육 시행과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풍화당(風化堂) 노인 등은 관내 출신 졸업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 유학생 출신인 나홍석은 답사에서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주창하는 등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 유학 중에도 많은 글을 기고하여 민지 계발에 앞장섰다.³⁴ 교육열과 향학열은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널리 확산되었다. 나홍석은 동생인 나경석과 더불어 여동생인 나혜석·나지석 자매를 삼일여학교와 진명여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시킨 장본인이었다.³⁵ 한일합병 이전에 설립된 화양여학교·병설여학교·수원상업강습소 등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근대교육기관으로 야학 운영도 병행되었다. 관찰부 주사 임익상(林益相)과 군 주사 구자용(具滋鏞)은 삼일학교 내에 법률야학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명예교사로서 법률과 경제 지식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³⁶ 출석생은 100여 명에 달하여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실생활에 부합하는 교과목 편성은 향학열에 불타는 근로청소년에게 최대 관심사로서 다가왔다. 동교 내에 설치된 측량학교에 대한 호응은 이를 반증한다. 야학을 통한 근대교육 보급은 이러한 가운데 확산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15세인 삼일학교 학생 이대순(李大舜)은 1907년 가을 자기 집에 야학교를 설립하였다.

32 「尹氏創學」, 『황성신문』, 1909년 3월 30일 잡보.

33 「三堂如壺」,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9일 잡보; 「兩氏激論」,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9일 잡보.

34 나홍석, 「自任」, 『대한유학생회회보』 2, 대한유학생회, 1907, 34~36쪽; 나홍석, 「服從과 命令」, 『대한유학생회회보』 3, 6~8쪽; 나홍석, 「我同胞가 果是二千萬呼야」, 『대한학회월보』 9, 대한학회, 1908, 12~16쪽; 나홍석, 「論社會進化之原則 幸야 以慰我志士同胞」, 「卒業生歡迎」,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3일 학계.

35 김형목, 「나혜석 연보」,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그는 국문을 깨우친 수료생 8명에게 수료증서를 발급하고 보통과정 개설계획을 세웠다. 이에 급우인 차석우도 동참하여 열성을 아끼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서울 거주 윤창렬(尹昌烈)은 의연금을 회사하여 활동을 격려하고 나섰다.³⁷ 학생들의 참여는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무를 절감하게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경험은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이었다.

권업도모부장 부근인 서둔리는 민촌으로 실업과 교육의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수류양성소 기수 김광하(金光河)는 임시야학교를 설립한 후 명예교사로서 자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그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식 학교로 발전하기 위한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³⁸ 수원상업회의소 부설인 상업강습소 운영도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에서 비롯되었다. 수원군 관내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한말 수원 지역 근대교육기관 일람표³⁹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0	화성학교	읍내		일본어, 수신, 일반상식 등	황 1905. 5. 9: 1908. 2. 6. 大 1905. 2. 23.
1902	삼일여학당 (삼일여학교)	종로교회 내	교장: 이하영 교사: 김메레	다수/유치과, 보통과	황 1908. 2. 6: 1908. 12. 23. 大 1908. 11. 17: 1909. 1. 10: 1909. 6. 4. 『기호』 7, 39쪽; 『기호』 11, 49·50쪽
1903	삼일학교 (영어삼학당)	읍내	교장: 김한목 (임면수, 이하영)	120/심상과, 고등과	大 1907. 7. 14: 1907. 7. 18; 1908. 3. 6: 1908. 11. 29; 1908. 12. 6: 1909. 1. 9: 1909. 1. 10: 1. 15. 大 1907. 7. 16: 1907. 7. 17. 황 1908. 2. 6. 『기호』 7, 39쪽
	인공양장학교	읍내			황 1903. 6. 18: 1903. 8. 6: 1903. 11. 6.
1904	사립학교	읍내	교사: 오윤선		大 1905. 1. 24. 『영』, 13쪽
1905	오산사숙, 명진학교	청오 오도산장	정한교	30/한문, 국문, 지지, 역사, 산술	大 1907. 4. 20: 1907. 7. 10. 大 1907. 7. 10.

36 김형목, 「대한제국기 경기도 야학운동의 성격」,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5,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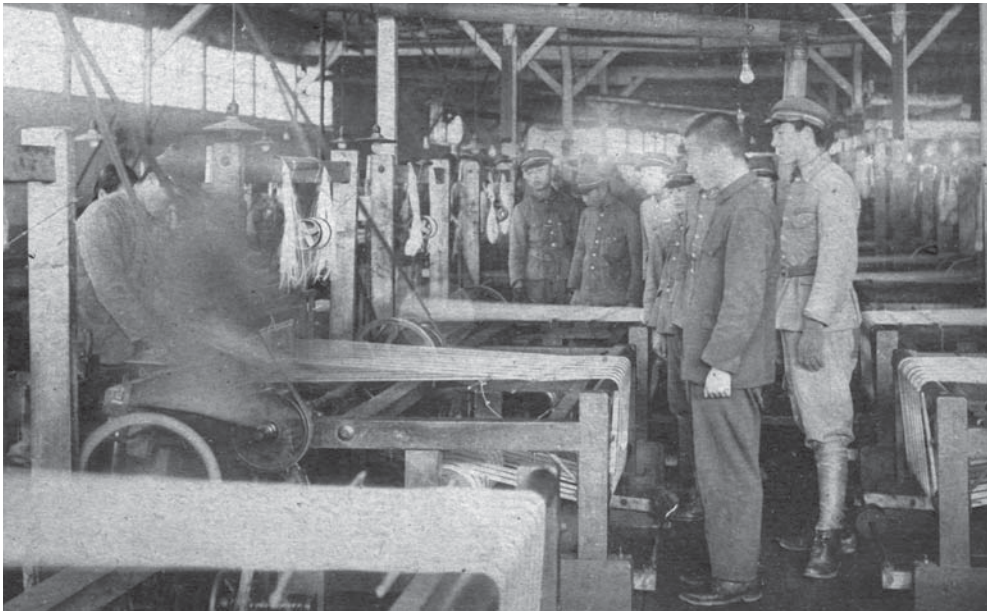
37 「寄附三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3월 6일 잡보.

38 「西屯設校」,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4일 잡보.

39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28-29쪽. 황은 『황성신문』, 대는 『대한매일신보』(국한문 혼용판), 대는 『대한매일신보』(한글판), 만은 『만세보』, 민은 『대한민보』, 동은 『동아일보』, 시는 『시대일보』, 『기호』는 『기호홍학회월보』, 『영』은 김영우 논문(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 1, 『교육연구』 1, 공주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4)을 의미한다.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 · 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6	광흥(廣興)학교	읍내	김영수(金英洙), 신억균(申億均)		大 1906. 5. 6. 「영」, 6쪽
	명화(明化)학교	수원 용주사 내	용주사 교장 : 차응허 (車應虛) 일어 : 기무라 (木村澁谷)	50/보통과, 일어	황 1906. 11. 26.
1907	명진(明進)학교	청호 오산 상하동	정한교, 정재호, 서병숙(군수)	50/보통과	大 1907. 4. 20; 1907. 7. 10; 1908. 1. 14; 1908. 1. 21; 1909. 1. 10; 1909. 1. 27. 황 1908. 1. 16; 1908. 3. 5; 1910. 5. 17. 대 1907. 7. 10; 1908. 1. 5. 「영」, 8쪽.
	화양(華陽) 여학교	읍내	이선익		大 1907. 6. 13. 황 1907. 10. 27. 「기호」 11, 49 · 50쪽 만 1907. 5. 26. 「영」, 8쪽
	수성학교	수북면 백봉	교 장 : 서상천 교 감 : 서상금 찬성장 : 이완용 협무장 : 김한묵 한 문 : 서상춘 일 어 : 변영현	70/보통과	大 1907. 2. 19. 황 1907. 2. 4. 만 1907. 2. 3; 1907. 4. 26. 「영」, 8쪽.
	야학교	북문 내 자기집	교사 : 이대순(삼 일학교생), 신석우	수십 명/보통과	大 1908. 3. 6.
	일신학교	청호 오산 상하 동	교사 : 김응서		大 1908.1.5, 1909.1.6, 1909.1.10. 황 1910.5.17.
	임시아학교	서둔리	김광해(수원수류 양성소 기수)	수십 명/국문과, 보통 과	大 1908.1.14.
	보명의숙, 보명학교	남곡면 귀일(래)동	교감 : 강필중 총무 : 서진하 학감 : 김동호 교사 : 정기섭, 미야케(三宅岩)	50/보교과정	大 1908. 9. 25; 1909. 5. 29; 1909. 6. 1; 1909. 6. 24; 1909. 11. 22; 1909. 11. 24; 1910. 1. 28. 황 1910. 1. 28. 「기호」 11, 49쪽; 「기호」 12, 44쪽. 「영」, 10쪽.
1908	명륜학교	읍내	맹보순, 김종한, 서병숙(군수), 윤태익, 양성관	100/문학 · 실업, 법률, 유치	大 1908. 11. 5; 1908. 11. 22; 1908. 12. 11. 황 1909. 3. 30. 「기호」 6, 52쪽.
	측량학교	읍내	삼일학교 교장 : 한규복	수학, 측량학	황 1908. 6. 10. 大 1908. 9. 27; 1908. 10. 7; 1909. 3. 18
	사범口흥소학 교	읍내 향교	윤태익(尹泰翊), 지홍갑(池弘甲)	사범양성/100	大 1908. 12. 8.
	법률야학	수원 읍내	삼일학교 교사	100/법률, 경제	민 1909. 12. 15. 대 1909. 12. 14. 大 1909. 12. 18. 황 1909. 12. 14.

연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교사진	규모/교과목	전거
1909	병설여학교	청호 오산	명신학교 부설		大 1909. 1. 10; 1. 27.
	수원상업 강습소	읍내 상공회의소 내	수원상공회의소	주야 100/상업, 부기, 상업대요	동 1921. 3. 17; 1922. 1. 27; 1923. 3. 25; 1927. 1. 17. 시 1924. 4. 22.
	명신학교	청호 오산	명진·일신학교 통합	남녀 100/보통과	황 1910. 5. 17. 大 1909. 1. 10.



화성학원 직조공장 견학(수원고등학교 소장) 수원상업강습소는 1916년에 화성학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표 1〉은 당시 설립된 모든 근대교육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른바 개량서당·의숙·시숙 등도 교과과정을 개편하거나 근대적인 교수법을 도입하는 등 탈바꿈하고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이다. 〈표 1〉에 나타난 사립학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1913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운영 중인 150여 개소에 달하는 서당은 이를 반증한다.⁴⁰ 이를 토대로 할 때 수원 지역 근대교육 특성은 다음과 같다.

40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17~18쪽; 이진호, 「수원 지방 서당사·성현서당을 중심으로」, 『경기향토사연구』 2,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1996.



화성학원 여학생 가사 실습(수원고등학교 소장)

첫째로 근대교육은 사립학교가 주도하였다. 이곳을 대표하는 삼일학교 · 수성학교 · 명진학교 · 보명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초기 근대교육은 선교사업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조원시 · 이하영 · 임면수 · 김제구 등은 선교사와 개신교 신자로서 이를 주도하였다. 1906년경에 발생한 삼일학교 재정난은 학교 운영을 둘러싼 임원진 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⁴¹ 수원상업강습소는 자본가로 성장한 상인층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이들의 대대적인 지원과 고조된 향학열 등이 맞물려 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둘째로 부기 · 상업대요 · 측량학 · 법률학 등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시세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업자본가의 성장은 수원상업강습소 운영에서 부분적이거나 엇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은 이를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자기 계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물론 양잠기술 보급 등 실업교육은 식민 통치에 부응하는 기술인 양성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경찰서는 각 이장을 소집하여 양잠의 중요성을 설명한 후 이를 시달하는 지침을 내렸다.⁴²

41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115쪽.

셋째로 여성교육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행되었다. 수원 최초의 여성사립학교인 삼일여학당은 이를 주도하였다. 이는 화성여학교·화양여학교·병설여학교 설립으로 진전되었다. 여학교 연합운동회 개최는 주민들에게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남문에 거주하는 이선익(李善益)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화양여학교와 삼일여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운동회를 개최하고 그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를 계기로 일변하였다. 여자교육회의 여학교 설립에 대한 찬사는 당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여 준다.⁴³

마지막으로 수학 능력을 고려한 전문강좌의 개설이다. 대부분은 유치과·국문과·보통과에 중점을 둔 초등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교육 내실화와 더불어 교과과정은 심상과·고등과, 보통과·일어과, 상학과·측량과, 국문과·보통과, 법률과·경제과 등으로 분화되었다. 명륜학교는 개교 당시부터 문학·법률·실업·유치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이는 부족한 중등교육기관을 보완하는 의미이다.

2) 계몽운동의 주요 활동가

계몽운동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추진하였다. 전·현직 관료와 자산가·목사·신부·의사·군인·교사·개신유학자 등이 주요 인사였다. 대부분은 수원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인물이었고 일부는 외지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한 인물이었다. 후자인 경우는 서울 등 부분적이거나 외부 세계의 변화를 수용하거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지인 대부분은 혼맥을 통해 강한 족적 관계를 맺고 특히 이들은 사회 변동에 부응하여 지주에서 근대적인 자산가로서 성장하는 계층이었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은 누구와 견줄 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다.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존스(Rev. George Heber Jones)는 1892년 인천 지역 감리사로 부임한 이래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44개 교회를 창설·관리하는 등 전도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부인은 부임 초기부터 내리교회에 영화여학교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⁴⁴ 삼일여학당 설립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사경회와 신학회를 운영하여

42 『蠶桑勸業』, 『황성신문』, 1910년 3월 6일 잡보.

43 기호흥학회, 『학계휘문, 妙年壯志』, 『기호흥학회월보』 11, 49~50쪽; 『女子의 教育』, 『황성신문』, 1908년 2월 6일 논설.

44 수원종로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2000, 66~69쪽.



존스와 존스 부인

협성신학교 개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한국 감리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신학 월보』와 『The Korean Repository』, 『The Korean Review』의 주필로서 한국 내 기독교인의 동정과 한국문화를 국외에 널리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는 1907년 군대해산 당시 선교사인 애비슨, 민휴 등과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⁴⁵

김종한은 서울 출신으로 187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래 부승지, 이조참의, 예조판서, 이조참판, 도승지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명성황후시해사건 직후 궁내부 협판이 되고 독립협회 활동 등 개혁·개방화에 가담할 정도였다. 그는 경강상인(京江商人)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조선은행·한성은행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철도용달회사와 철도회사도 설립하여 자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국채보상 총합회회소 부소장과 소장에 피선되어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서울 일신(日新)의숙장, 개성 배의(培義)학교장, 함흥 패향(沛鄉)학교장, 서울 광동(光東)학교 찬성장도 맡아 근대교육을 보급하였다.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장과 명륜학교 교주 활동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다. 한일합병을 전후로 하여 정우회(政友會) 총재와 대동문우회(大東文友會) 회장을 맡으며 친일단체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남작

45 『趙博士大慈善』, 『황성신문』, 1907년 8월 3일 잡보; 『美教師救療』,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3일 잡보.



삼일여학교 발전에 기여한 밀러 교장과 교사들(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爵) 작위를 수여받아 친일고위관료라는 비난을 받았다.⁴⁶

홍사훈은 보성중학교를 중퇴한 후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세류포목점을 경영하는 한편 용수농업주식회사 취체역, 수원극장 대표이사, 만종원 대표이사를 두루 역임한 수원의 대표적인 자산가였다. 이곳 유림계의 종장을 자처한 맹보순도 시세 변화와 근대교육 확산에 앞장섰다. 수원군수, 전의관 김종한, 수원상업회의소 부회두 양성관 등과 향교 내에 명륜학교를 설립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⁴⁷ 이는 유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후 구체적인 교육활동이나 민족운동 참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임면수는 일찍이 수원인공양잠학교와 화성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았다. 그는 수원종로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안장·김제구·이하영 등과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0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그는 맥

46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2007, 32~33쪽.

47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藏),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146쪽; 「유림계의 대경중」,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2일 잡보.



화성학원 설립자 홍사훈(수원고등학교 소장)

시코이민 모집 대리점을 운영하였다.⁴⁸ 현지에 대한 상황이나 사전 지식이 전무한 대다수 대리점 주인들의 인식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대한제국기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은 인천 내리교회 목사인 조원시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새로운 개척촌에서 독실한 신앙인을 양성함이었다. ‘노예노동’이나 다름없는 이민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었다. 수원에서 모집된 인원은 전체 1,033명 중 6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⁴⁹ 임면수는 삼일학교 발기인이자 학생으로서 영어공부에 열심이었다.

나기정은 경기관찰사 주사와 시흥군수, 용인군수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관료였다. 그는 삼일학교 창성원으로서 2,000냥의 의연금을 모집하면서 관내 근대교육 보급에 앞장섰다.⁵⁰ 나홍석은 나기정의 장남으로 화성학교에서 근대교육을 수학하고 와세다대학을 1909년 3월 졸업한 뒤 귀국하였다. 그후 삼일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1919년 수원청년구락부를 조직하는 한편 이듬해 수원면협의회에 선출되어 수원 지역 주요 인물로서 부각되었다. 1922년 서울로 이사하여 경성변리사로 활동하면서 중개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는 귀국 직후부터 최송·홍사선·최상훈 등과 수원 지역 근대교육 보급과 지원에 힘썼다.⁵¹

김관현은 군수로 부임한 이래 행정 일반은 물론 교육 진흥에 매진하였다. 그는 수원재무서의 결세(結稅) 부정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주민들의 권익 옹호에 노력을 기울였다. 청렴한 지방관인 그의 직무 수행은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관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을 효유하며 근대교육 확산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그는 한일합병 이후 초대 군수를 맡은 친일적인 인물이었는데 장기간 재직과 지속적인 승진은 이를 뒷받침한다.⁵²

48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45쪽.

49 이자경, 「멕시코 한인이민 모집과 송출의 불법성」, 『멕시코 이민 100년의 회상』, 인천광역시, 2005, 47쪽.

50 마키야마 고조,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160쪽; 「나씨열심」,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4일 잡보.

51 경성복심법원, 『倭政時代人物史料』 3, 1927, 97쪽.

52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21~22쪽.

최상훈은 일찍이 근대의학을 전공한 내과의사였다. 수원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한 그는 수원강습소 교사로 활동하며 교육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간사원이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계몽주의자였다. 구자용은 수원군청에 근무하는 주사였다.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관찰부주사 임익상과 삼일학교 내에 법률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⁵³ 청년 자제에 대한 근대교육 시행은 의무적인 사항으로 인식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남양군 서여제면장 최성대는 이장을 비롯한 주민 수십 명과 회합을 열어 생활공동체에 기반을 둔 염업회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홍언후(洪閼厚)와 남양상업회의소 설립추진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민족자본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⁵⁴ 다양한 활동은 지역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밑거름이나 마찬가지였다. 수원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는 이와 같은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혜석 모친 최씨의는 그의 딸이었다. 나기정은 그의 사위로서 이곳 계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김한묵은 시흥군수, 경기도관찰부 참서관, 경기관찰사 서리를 두루 역임한 관료였다.⁵⁵ 그는 영등포일여학교 설립자 겸 고문, 삼일학교장을 맡아 교육사업에 노력하였다. 근대교육은 그에게 문명사회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협성학교 협무장 취임과 활동도 이를 실천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운동 주체는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상당수는 전·현직관료와 자산가, 기독교인이었다. 자본은 시대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무기’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수원 지역 여론은 이들에 의하여 조성될 정도였다. 이들은 문명사회 건설을 추구하는 사회진화론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

4. 계몽운동의 성격

광무황제 양위 이후 의병전쟁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은 공립보통학교를 숙소로 이용하였다. 이는 개학 연기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이와 동시에 통감부는 발흥하는 사립학교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령을 입안하였다. ‘시세와 민도에 부합하는’

53 기호흥학회, 『기호흥학회월보』 2, 1908, 61쪽; 「兩氏有志」,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8일 학계.

54 「鹽會設立」,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0일 잡보; 「남양군상업회의소취지서」, 『대한매일신보』, 7월 24일 잡보.

55 마키야마 고조, 『조선신사명감』, 일본전보통신 경성지국, 1911, 208쪽; 「各道叅書新任」, 『한세보』, 1906년 11월 1일 잡보; 「始興倅願留」, 『한세보』, 1906년 11월 17일 잡보.

공립보통학교 확대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사립학교령」은 발흥하는 근대교육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통감부의 궁극적인 의도였다. 재정난으로 많은 사립학교는 통·폐합되는 비운을 맞았다. 더욱이 일본어 교육에 치중된 일어학교 성행은 정상적인 교과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⁵⁶ 일제 침탈에 따른 식민 사회로의 전략은 바야흐로 ‘일본어 만능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삼일학교 학생들은 일상사를 개선·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당시 성행하는 조혼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변화하는 가치관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근일 해교 생도들이 합석 결의하기를 우리 학생의 조혼함은 비단 교규(敎規)의 위반될 뿐만 아니라 실로 교육상에 대단히 방해가 되는 즉 우리는 졸업하기 전에는 결단코 취실(娶室)치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심한 후에 이미 결혼한 학도는 자기의 선사취처(先已娶妻)함을 한탄하며 정혼만 하고 아직 성례(成禮)치 아니한 학도는 즉시 과약(破約)하고 실상주과(實上做課)에만 전념한다더라.⁵⁷

학생들은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이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단순히 결의나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다수는 사회적인 책무로서 이를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춘추로 거행된 연합운동회는 주민들에게 시세 변화를 각인시키는 현장이었다. 1907년 삼일학교·화성여학교·공립소학교 등이 참여한 운동회는 초유의 대장관을 이루었다. 활발한 여학생들의 기상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⁵⁸ 이듬해 4월 20일에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개최되었다. 운동회 장소인 연무대에는 내외빈과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기생들조차도 음식물을 제공하여 학생들 사기를 진작시켰다. 오산에 거주하는 유지들은 명진학교와 일신학교 학생의 차비와 비용 일체를 제공하였다. 이는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칭송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이를 통하여 자신감과 아울러 자아를 성찰하는 계기였다. 경축행사도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현장이었다. 읍내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건원절 행사는 이를 반증한다.⁵⁹

56 「管轄私立學校」, 『만세보』, 1906월 8월 29일 잡보; 「華校懇話會」, 『황성신문』, 1907년 12월 15일 잡보; 「地方人民의 困難情況」,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논설; 「地方人民의 困難情況」,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私校維持協議」, 『황성신문』, 1910년 2월 18일 잡보; 「어학계의 추세」,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1일 논설.

57 「三校決心」,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8일 잡보.

58 「연합운동의 校況」,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13일 잡보.

59 「춘가운동」,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2일 잡보; 「一校盛況」,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3일 잡보; 「華民三祝」, 『황성신문』, 1908년 3월 15일 잡보; 「화성학교연합운동」, 『황성신문』, 1908년 4월 19일 잡보; 「기생과 酒商協議」, 『황성신문』, 1908년 4월 21일 잡보.

수원 권업모범장을 행행(行幸)한 순종은 관내 교육기관에 은사금을 하사하였다. 금액은 공립보통학교 100원과 사립학교 400원으로 상당한 액수였다. 이는 학생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켜 향학열 고취로 이어졌다. 측량학교 학도들은 행행을 즈음하여 일체 단발을 단행한 후 환영식에 참가하였다. 전교생 단발 실시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주요한 계기나 다름없었다.⁶⁰ 이들은 청결한 용모와 위생생활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 하기에 이르렀다.

외부세계와의 교류는 시세 변화를 절감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학교와 계몽단체·수원상업회의소 설립에 당시 외부 인사들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관료·선교사·교사·자본가 등이었다. 김중환·김한목·서병숙·조원시·부재열·이하영·송세호 등이 대표적이다. 계몽운동은 이들과 이곳 출신 명망가들이 추진하였다. 신·구학을 절충한 맹보순의 학교 운영은 세대 간 갈등을 부분적이거나 완화시키는 요인이었다.⁶¹

화성여학교 학생들에게 여학교연합운동회 참가를 위한 ‘서울나들이’는 새로운 변화를 절감하게 하는 계기였다. 이는 단순한 체육회 행사로 끝나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변모하는 실상을 직접 목도하는 가운데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연합운동회는 세인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킨 대단한 ‘사건’이었다. ‘운동가’는 학생들에게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던져 주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학부 신설로 이어졌다.⁶²

노동야학회 수원지회 창립은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는 노동자·농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데 기여하였다. 인습으로 잔존하던 신분 관념은 이러한 가운데 점차 해소되어 나갔다. 변혁을 지향한 사회운동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60 「水原行幸順序」,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4일 잡보; 「斷髮祇迎」,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7일 잡보.

61 이용건, 「명륜학교일기」, 『구성면지』, 용인향토문화연구소, 1998, 916쪽.

62 「여학교연합운동성황」, 『만세보』, 1907년 5월 26일 잡보; 「수원의 여학원모집」, 『매일신보』, 1911년 4월 26일 잡보.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한말 의병전쟁
2. 전기의병(을미의병)의 활동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1. 한말 의병전쟁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일제가 도발한 청일전쟁은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갑오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정간섭을 감행하는 양면 전략으로 한국 침략을 강화하였다. 갑오개혁이 재야의 유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 나아가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와 같이 일제 침략으로 야기된 긴박한 시국상황에서 항일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였다. 1895~1896년에 일어난 이 의병이 곧 전기 의병(을미의병)이다. 그 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제는 다시 한 번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급기야 망국조약인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난 의병이 곧 중기의병(을사의병)이다. 이어 1907년 중반기에 광무황제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강제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대일 전면전의 단계로 확대 격화되는 시기의 의병을 후기의병(정미의병)이라 한다. 이처럼 의병은 일제 침략의 강도



서울 거리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만행을 묘사한 삽화(『Le Petit Journal』, 1907년 8월 4일)

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형태로 항일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수원에서도 한말 일제 침략에 상응하여 전개된 항일투쟁 단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전의 정도와 동일한 궤적을 밟으면서 의병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즉 수원에서도 20여 년 전 기간에 의병은 세 단계에 걸쳐 조직적 또는 산발적으로 일제 군정을 상대로 활발한 항일전을 전개해 왔다.

수원은 경기도의 수부로서 중앙의 정치적 변화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반외세 반침략 의식의 각성도가 높았고 따라서 항일 적개심이 널리 팽배해 있던 지역이다. 항일전을 표방한 의병의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서울을 공략하여 일제 침략세력과 친일 주구배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의병의 항일전에 유리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서울의 길목에 해당하는 수원은 서울 진공 루트로서 의병들에게 특히 주목되는 요충지였다.

경기 지역의 의병투쟁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강화도와 황해도 연안의 경기 서북부 지역, 파주·포천 등 임진강 유역과 강원도 철원 등지를 잇는 경기 북동부 지역, 그리고 이천·용인·광주·수원·안성 등지로 연결되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수원의병은 경기 남부 지역의 활동권역에 포함되며, 수원과 인접한 안산·시흥·오산·평택(진위)·용인·안성·광주·여주·이천·양평 등지의 의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하였다.¹ 그리하여 수원 의병은 서쪽으로는 남양만의 의병, 동쪽으로는 용인·이천 지역의 의병, 남쪽으로는 안성·평택 지역의 의병 등과 연계하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연합전선의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수원 의병의 활동상을 구명하려면 먼저 경기도 의병전쟁의 전체 양상 속에서 살펴야 하고, 특히 경기 남부와 동부 지역을 무대로 한 의병들의 동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 출신의 의병이라 할지라도 그 활동 범위는 수원에 국한되지 않고 대체로 경기 남부와 동부 각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러한 인식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2. 전기의병(율미의병)의 활동

1) 역사적 배경

한말 의병전쟁과 관련하여 수원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과 조건이 특히 주목된다. 첫째, 수원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행정기관인 유수부(留守府)가 설치된 곳으로, 수원 사람들은 향토 수호와 충의의 근왕정신이 투철하였기 때문에 항일의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¹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44~45쪽.



화성유수부가 자리한 화성행궁(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유수부는 한성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인 행정기관이다.

에도 수원은 우국 선비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병활동이 두드러진 고장이었다. 특히 1592년 12월 수원 남쪽의 독성산성(秃城山城)과 삼천병마(三千兵馬)골을 근거지로 관군과 의병의 긴밀한 연계에 이루어진 승첩은 행주대첩과 함께 한양도성의 수복을 위한 육전에서의 기념비적 승첩이었다.

둘째, 수원은 1789년(정조 13)부터 국왕의 특별한 배려 아래 계획도시로 건설된 신도시로서, 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남다른 고장이었다. 정조의 남다른 열정과 실학자들의 탁월한 지혜와 노력이 어우러져 조선왕조 중흥의 저력과 왕권 강화의 상징물로서 화성행궁과 화성 성곽, 현룡원, 건릉 등이 세워졌으며 그 밖에 농업과 상공업 분야에서도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 결과 수원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탁월한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전통은 일제 침략세력을 철저하게 배척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²

셋째, 주민들 간에 지방관의 폭정과 착취에 항거하는 저항정신이 일찍부터 배양되어 있었다. 1862년 진주민란을 계기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30여 개 군현에서 농민이 봉기하였는데, 수원에서도 1889년 수백 명의 거주민들이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항거하여 관아를 습격하였고, 그 여파로 이웃 안성에서도 이듬해에 민란이 일어났다. 또한 1891년에는 현룡원 능참봉의 탐학과 토색으로 원군(園軍)이 봉기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전국을 휩쓸 때는 안승관(安承寬)과 김내현(金內鉉) 등이 지휘하는 5,000명의 농민군이 한때 수원부 관아를 점령하고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10월 1일 일본군의 공격으로 수원의 농민군은 패퇴하여 사산(四散)하고 안승관·김내현 등의 지도자는 처형되

2 최홍규, 「수원지방 3·1운동의 역사적 배경」, 『3·1독립운동과 민족정기』, 광복회 경기도지부, 1996, 42쪽.

었다.³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은 곧이어 봉기한 항일의병의 하부 병사들로 참여하였다. 전기의병이 일어날 때, 수원 지역은 그 지도부에 보수 유생층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동학농민전쟁에 가담한 농민군 잔여세력은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신상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반외세투쟁을 재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전기의병 투쟁

1895년 11월 17일(양력 1896년 1월 1일, 이하 양력) 단발령 공포 후 경기도에서는 1896년 1~2월에 광주·이천·여주·수원·용인·과천·안산·안성·포천·연천·양주 등 거의 전역에 걸쳐 의병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들 의병의 활약상을 알려 주는 사료는 단편적이어서, 의병의 실체와 활동 전모를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다만, 그 가운데 광주·이천 의병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의병세력이 연합하여 결성한 남한산성의병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의진(義陣)의 실체와 활동의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김하락(金河洛)을 중심으로 한 남한산성의병의 동향은 경기도, 특히 경기 남동부 지역 의병의 활동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여기에도 수원의병의 주도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수원의 의병이 남한산성의병에 합류한 사실만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수원의병이 가담한 남한산성의병은 단발령 공포 직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편성된 의진이었으며,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남한산성을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점거한 채 서울 진공을 눈앞에 두었을 정도로 명성을 크게 떨친 의진이다. 특히 서울의 인후인 남한산성을 점거한 그 자체나, 나아가 그 의진이 표방하였던 서울진공계획은 1908년 1월 13도창의군의 별동대가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한 사례와 같이 일제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었을 만큼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일본에서 간행되던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이 남한산성 점거 과정부터 해체 때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의병의 동향을 상세히 보도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한산성의병은 이천의병과 광주의병을 주축으로 수원 등지의 의병세력이 연합한 것이었다.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의병과 관군 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의병은 서울 진공을 활동목표로 설정하였다.⁴ 서울 진공은 실제로 많은 의진들이 표방하던 구호였

3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40(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7, 152쪽).

4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20~21쪽.

지만, 대개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의병의 경우에는 강력한 전력 면에서나 서울에 근접한 지리적 위치 면에서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진공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의 함락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관련하여 남한산성의병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서울 진공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었다.⁵ 수원과 인근 지역의 의병들은 서로 연합하여 서울 진공을 위해 먼저 제1단계로 수원을 점령하고, 이어 제2단계로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관군을 격파한 뒤 서울로 올라간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그 실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수원의 위급

경기도 안성, 충청도 온양, 장호원, 평택, 목천 등지에서 봉기했던 폭도는 그 세를 오미장에 집중해 광주, 즉 남한산성의 적도(賊徒)와 기맥을 통해 상합(相合)하여 장차 수원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있다. 이보다 먼저 강화도의 지방병 200여 명은 수원에 왔다가 그 방비에 임하고 있으나 남한산성의 정토(征討)를 위해 동지(同地)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목하 수원은 공허하여 전혀 수비를 결(缺)해 위태한 지경이다. 수일 전 수원은 이미 적수(賊手)에 함락되었다는 소문이 있다.⁶

위의 기사에 따르면, 남한산성의병과 연계된 경기 남부 지역의 연합의병세력은, 강화도에서 수원으로 파견된 200명의 관군이 남한산성으로 출동한 틈을 타 수비가 허술한 수원을 공략할 기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이미 수원이 의병의 수중에 떨어졌다는 소문까지 퍼졌다는 것이다. 위 기사는 그 무렵 수원 지역의 의병세력이 한창 기세를 떨치던 정황을 웅변해 주는 증좌라 할 수 있다.

1896년 3월에 들어와 수원 일대에서 이처럼 의병이 세력을 떨치게 되자, 그 여파가 인천까지 미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인천관찰사는 인천 주재 일본영사관과 병참감부 등을 방문하고 “수원부에 폭도가 돌입하여 부사를 쫓아내고 밤을 틈타 인천항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탐지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비하도록 주문하였다. 인천 주재 일본영사관에서는 이에 자국민 보호와 의병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순사 5명과 순검 3명을 수원 현지로 급파하여 그 실상을 파악토록 지시하였다.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은 1896년 3월 13일 인천으로 돌아와 수원과 그 인접한 경기 남부 지역의 의병 동향을 일본

5 서광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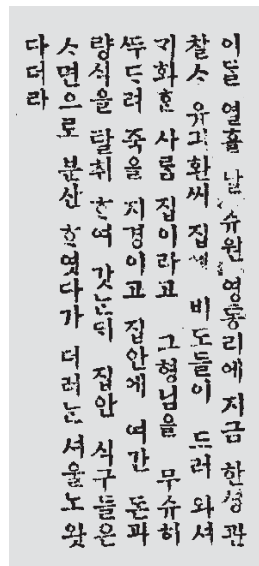
6 『東京朝日新聞』, 1896년 3월 31일.

영사관 사무대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수원에는 아직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의심스럽고 무서운 풍문이 도처에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물정이 흉흉하다고 할 뿐이고, 이미 폭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수원 근방인 천안·용인·안성 등지에는 수천 명의 폭도가 집합하여 폭행과 약탈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심지어는 천안군수를 죽여 그 목을 효수하기에 이르렀다. 폭도의 대부분은 순사 일행이 수원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이미 광주 지방으로 철수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무리는 여전히 때때로 진위(振威)·칠원(七原) 등지에 출몰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양식을 약탈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안성·금양(金陽)·목천·온양·평택·장원(長原) 등지에서부터 왔으며 수원 남쪽 40리 떨어진 진위 가도에 있는 오미장(五味場)에 집결하여 장차 수원을 습격하려는 모양이다. 수원군수는 이들 부근의 각지의 불온한 보고에 접하고 두려운 마음을 놓을 수 없어 강화 병사 200명으로 경계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1일 광주의 관군으로부터 수원을 수비하는 강화 병사는 모두 급히 광주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날 밤 바로 밤낮으로 달려가 광주에 도착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니 수원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다. 광주에 있는 관군도 대단히 불리하여 이 원병을 요청한 것이니, 강화 병사가 다시 그곳에서 실패한다면 폭도는 그들을 추적하여 곧바로 수원을 습격할 염려가 있다.⁷

위의 보고에서도 수원 부근 의병의 치열한 기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원의병이 안성과 진위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의병, 그리고 남한산성 주둔 의병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월 22일 남한산성 의병 와해를 계기로 수원에서도 의병의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그 이후 수원 일대에서는 의병이 간간히 단발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의병 와해 후 수원에서 의병이 활동한 사례는 5월 10일자 『독립신문』에 “수원 영통리에 있는 한성부 관찰사 유기환(兪箕煥)의 집을 의병들이 습격하였고, 수원부 포군이 출동하여 전투 끝에 의병 3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의병들은 유기환을 ‘왜관찰사’로 지목하여 처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의병의 영통리 한성관찰사 유기환 집 습격사건(『독립신문』, 1896년 5월 10일)

⁷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말의병자료』 2, 2001, 15~16쪽.

요컨대 전기의병 단계에서 수원의병은 남한산성에서 결성된 연합의병에 그 세력이 일부 가담하여 함께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남부, 특히 안성과 평택 일대의 의병 세력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기적 관계의 영향으로 결국 수원의병은 경기의병의 연합체인 남한산성의병이 3월 22일 와해됨으로써 그 대체적인 활동은 종료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에는 산발적이고도 간헐적으로 1896년 전반 기까지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3. 중기의병(을사의병)의 활동

1896년 전반기에 이르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전기의병은 유인석·민용호·김하락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는 그 활동이 거의 종식되었다. 그러나 의진 해산 이후에도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농민조직을 형성하여 동학농민전쟁의 의식이나 의병 의식을 고집하며, 특히 1862년 삼남민란 이래의 농민조직 계승자로서 해산을 거부하며 항쟁을 계속하였다. 활빈당(活貧黨) 활동으로 통칭되는, 전토(田土)에서 유리된 농민층을 주축으로 한 영학당(英學黨)·남학당(南學黨)·동학당(東學黨)·북대(北大)·남대(南大) 등의 항쟁조직이 그것이다. 1897년부터 중기의병(을사의병)이 재기하기 이전인 1904년까지 8년간에 걸친 이들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광무농민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한다.⁸

광무농민운동을 통하여 농민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 곧 농민들은 그들이 처해 온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 즉 동학농민전쟁, 전기의병, 광무농민운동의 경험 위에서 1904년부터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조직을 의병으로 전환시켜 간 것이다. 그동안 축적된 농민들의 역량은 1904년 러일전쟁과 함께 강요된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 그리고 철도 부설과 토지 약탈 혹은 황무지 개척권 요구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던 일련의 일제 침략에 대해 의병투쟁으로 승화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반봉건투쟁의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중기의병으로 재기하기 이전 과도기 단계의 투쟁이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들은 대개 해산의병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을 비롯하여 광주·안성 등지에 “당도(黨盜)가 횡행하며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을 약탈하여 백성들이 살기에 힘입지 아니하니

8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上)」, 『의병전쟁연구(상)』, 지식산업사, 1990, 230~232쪽.

민망하더라.”⁹라는 기록이 이러한 분위기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운동의 주동자나 투쟁 내용 등 그 실체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시기에 수원에서 일어난 농민운동의 사례는 관련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뒤 일제는 한반도 도처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역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하였다. 1904년 8월 평택·용인·시흥 등 경기도 일원에서는 역부 강제모집에 항의하여 민요(民擾)가 일어났다. 수원과 인접한 용인에서는 8월 20일 주민 4,000~5,000명이 관아 앞에 모여 역부의 강제징발에 항의하였고, 9월 14일에는 시흥에서도 항일 성향의 주민들이 역부 강제징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수원 경내의 남양만 일대에서는 1900년 무렵부터 활빈당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자, 일제 침략에 맞서 그 이전의 화적·비도(匪徒)의 성격이 아닌 의병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반제반침략의 민중저항전선을 형성하였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을사오적 처단을 요구하는 항거가 일어날 때,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안성 등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우편국을 습격하고 전선을 절단하거나 애자를 파손하여 일제의 통신을 방해하는 등의 항일투쟁을 벌였다.¹⁰

중기의병 단계에서 수원에서 의병이 처음 일어난 것은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반 년 전의 일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경부선 철도 역부 강제징발에 반발하여 1904년에 연이어 일어난 용인과 시흥의 시위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5년 4월 이인웅(李寅應)이 수원 남쪽 죽산에서 포군과 농민 23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킨 뒤 양성·양지·용인 등지를 거쳐 수원군 지경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이어 5월 초에는 박석여(朴錫汝) 부대가 죽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규모는 2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의병이 활동한 권역은 안산·수원 등지였고, 의병장 박석여 휘하에는 수원 출신의 최화실(崔化實)이 중군장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비교적 대부대를 거느렸고 박석여는 ‘척왜창의(斥倭倡義)’의 기치 아래 주민들로부터 전곡을 징발하였고, 관속을 결박하여 관물(官物)을 압류하였으며, 상인들에게는 말을 징발하였다.¹¹

일반적으로 이 무렵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은 농민 출신이 주축을 이루면서 경기도 일원의 활빈당세력과 기맥을 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일제 구축을

9 김윤식, 『속음청사(續陰晴史)』 제8권, 1896년 12월.

10 서평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40쪽.

11 『황성신문』, 1905년 5월 10일; 『황성신문』, 1905년 5월 15일; 『황성신문』, 1905년 6월 14일.

기치로 내세우고 항일전을 표방함으로써 투쟁 양상이 점차 전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1905년 11월 22일 일제의 특파대사로 대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대동하고 수원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경부철도로 귀경 중 안양역에서 원태우(元泰祐) 의사가 던진 돌에 부상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 무렵 끊어 오르던 민중의 항일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 것이다.

4. 후기의병(정미의병)의 활동

1) 수원의병의 항일전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특사 의거를 빌미로 삼은 일제는 곧 대한식민지화를 감행하기 위해 그해 7~8월에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로 의병전쟁은 전 민족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거의 전면전의 양상을 띤 후기의병(정미의병)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07년 8월의 군대해산은 의병전쟁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대, 고조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서울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참령 박승환(朴昇煥)의 자결로 비롯된 대한제국 군인들의 저항은 원주·여주·강화·진주·평양 등 전국으로 파급되어 갔다. 무장해제를 거부한 이들은 그대로 의병으로 전환됨으로써 대일 구국전에 강력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해산군인들이 독자적으로 부대를 편성하거나 기존에 활동하던 부대에 편입됨으로써 무기와 전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이후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국민 총력전의 단계로 승화된 후기의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의병 참여 신분층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전기의병과 중기의병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신분층의 의병 편중화 경향은 이 시기에 와서 완전히 극복되었으며, 양반관료나 유생 등 귀족 신분에서부터 해산군인 및 포수와 농민·상인, 심지어는 머슴 등 다양한 직업의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전 신분층이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의병전쟁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전쟁의 성격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¹²

12 박민영, 「구국의 성전, 의병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 2003, 235쪽.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독립기념관 소장)

수원에서 후기의병 단계의 의병 동향이 처음 포착되는 것은 군대해산 직전인 1907년 7월 말경 의병을 일으키자는 거의(舉義) 촉구 통문이 배포된 때이다. 이어 8월 1일 서울 시위대를 시작으로 그 뒤를 이어 8월 5일에는 원주진위대, 9일에는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가 각각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당시 수원에는 진위 제1대대 본부가 있었고, 수원진위대 휘하에 강화·개성·안성·북한산 분견대가 소속되어 있었다.¹³ 수원진위대는 8월 15일 해산되었으나, 그 소속 군인들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각지에서 의병 대열에 참가함으로써 경기도 의병전쟁의 확산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원진위대 해산 당일 격분한 일부 군인들과 시위군중들이 수원역에 모여 무장항거를 다짐하며 십수 발의 총격을 가하였다.

이제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수원 지역에서 의병들이 전개한 항일전의 개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산발적이고도 단편적인 자료의 한계로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부대

¹³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1969, 469쪽.

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병의 동향과 항일전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개황이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충남 당진 출신으로 용인·수원 등지를 무대로 의병을 일으킨 정주원(鄭周源) 부대는 1907년 8월 25일 안성에서 경기와 충청 각지에서 모인 통칭 7개 의진, 1만 명의 의병들과 함께 향후 항일전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의진 간의 연합전선 구축방안과 효과적인 항일전 수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의진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 하지만 지역 간, 의진 간 유기적인 연합세력 방안을 강구하려던 이 회합은 이후 항일전 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을 주도한 정주원 의병장은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안성·평택 등지를 전전하며 항일전을 벌여 중부 지방 의병전쟁을 선도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900명에 이르는 그의 부대에는 수원 주민들도 상당수 참가하고 있었는데, 그중 후술할 수원군 태촌면(台村面) 진안동(陳雁洞) 출신인 안춘경(安春敬)은 그 부대의 간부로 활동하였다.¹⁴ 1907년 9월 10일에는 병점역 서쪽 30리 떨어진 생장동에서 수원 의병 700명이 집결한 뒤,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오산역과 진위역을 차례로 습격하였다.

이 무렵, 서울시위대 출신의 해산군인으로 의병에 투신한 김재선(金在善)은 부하 50명을 이끌고 수원·광주·용인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수원의병 김군필은 남상목(南相穆), 정철리(鄭哲利) 부대와 연합하여 용인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제 군경을 상대로 항일전을 벌였다. 한편, 의병장 권중식(權仲植)은 수원의 경기관찰사 앞으로 9월 20일 의병 3,000명이 수원 용주사(龍珠寺)에 집결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백미 100석과 북어 200태 등 군수용품을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요구하는 통첩을 띄울 정도로 의병들이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¹⁵

10월 6일, 평택의병 30명이 진위군 동북 30리 지점에서 수원에서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한 뒤 용인 방면으로 철수하였으며, 10월 11일에는 남양군에서 이동해 온 의병들이 수원군 초장면(草長面) 소재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11월 말경에는 그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의병 50~60명이 수원군 정남면(正南面) 남곡(南谷)에 모여 군수물자와 군자금 조달 방안을 협의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인 1907년 12월 말에는 전국 의병의 연합체인 13도창의군이 결성되어 1만 명의 의병이 서울 진공을 위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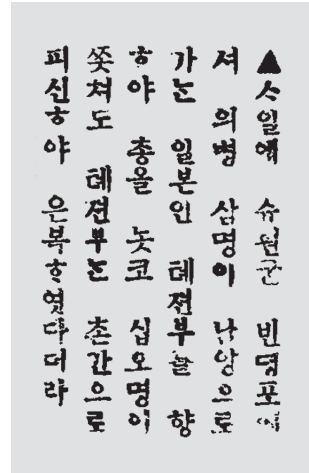
1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6』, 1987, 248·250쪽.

15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1일.

13도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李麟榮)이었는데, 그 휘하에는 수원 매곡(梅谷)에 살던 김창식(金昌植)이 우군장(右軍將)으로 활약하고 있었다.¹⁶ 1908년 1월에 13도창의군은 서울진공작전을 펼쳐 허위(許薦)가 거느리는 별동대 500명이 서울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결국 패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영향으로 경기도 의병의 기세는 일시 위축되었지만, 수원의병은 서해 도서 지역의 의병세력과 연계하여 항일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었다.¹⁷

1908년 1월 4일과 8일에는 의병 15명이 송동면(松洞面) 빈정포(濱汀浦)에서 우편물을 운반하던 우편 채송인(遞送人)을 공격하였다.¹⁸ 이어 1월 10일에는 수원군 공향면(貢香面) 발안장(發案場)에서 의병 80명이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고, 이튿날에도 의병 60명이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였다. 또한 1월 20일에는 의병 50명이 수원 남쪽 80리 떨어진 팔탄면(八灘面) 해창(海倉)에서 일본군 수원수비대와 교전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송탄 부근에서 역시 일제 군경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다. 이어 2월 21일에는 의병 6명이 남양군 음덕리(陰德里)에서 남양수비대 소속 일본군과 교전하였다.¹⁹ 이처럼 1908년에 들어와 수원과 그 인근 각지에서는 대소 단위의 의병들이 일제 군경을 상대로 크고 작은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다. 수원 지역의 이러한 항일전은 1908년 한 해 동안 끈임없이 펼쳐졌다.

3월 13일 의병 10명은 수원군 서신리면(西新里面) 어소(魚沼)에서 진위수비대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 3월 15일에는 정주원 의병 100명이 수원군 우정면 고온포(古溫浦)로 들어와 남양군 각처와 대부도 등지에서 유격전을 벌였다. 3월 19일에는 의병 26명이 수원군 송동면 원리(院里)에 나타나 일본척자를 처단하였고, 다음 날에는 의병 14명이 남양 북쪽 10리 떨어진 유지동(柳池洞)에서 남양수비대 소속 일본군과 2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또 같은 날 수원군 토진면(土津面) 판교(板橋)에서는 의병 20명이 일진회원 두 명을 체포하여 현장에서 처단하였다. 또한 3월 23일에는 의병 10명이 수원 남방 80리 떨어진



송동면 빈정포에서 전개된 의병활동(『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0일)

16 「김창식 등 예심종결결정서」, 경성지방법원, 1915년 3월 4일.

17 서광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47~448쪽.

18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0일.

19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8일.



안춘경의 의병활동을 보고한 문서

어진 안중장의 동북쪽 운촌 부근에서 수원수비대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였다.²⁰

1908년 5월에는 경기도 의병에 대한 일제 군정의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수원 및 인근 지역에서 의병의 항일전은 계속 벌어졌다. 5월 6일에는 의병 15명이 수원역 북쪽에서 선로를 파괴하려다가 군포와 수원 간 선로를 경계 중이던 수원수비대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고, 같은 날 의병 수십 명이 남양군 영흥도에 상륙하여 군수전 5,000냥을 군자금으로 수집해 갔다. 이어 5월 10일에는 의병 선박 1척이 남양군 서쪽에 나타나 선재도(仙才島)로 향하던 중 경찰 정찰대의 습격을 받아 퇴각하기도 했다. 5월 24일에도 12명의 의병이 남양 부근 해안에서 수원 및 남양 순사대와 격돌하여 교전 끝에 1명이 순국하였다. 이와 같이 수원 외곽의 남양만 일대에서 의병의 항일

전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6월 5일 군정 수색대를 보내 영종도·세어도·동사도·시도·용유도 등 해안 도서지역을 수색하고 항일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경기 도서지역의 병은 점차 그 기세를 잃고 활동이 위축되어 갔다.²¹

한편, 육지에서도 의병 탄압에 전력을 기울이던 일제 군정의 과상적 공세로 경기 각지의 의병세력은 크게 위축되어 갔다. 특히 7월에 들어와 수원을 비롯한 안성·용인 등지에서 큰 활약을 한 정주원 의병장이 성환수비대와 교전 끝에 체포됨으로써 이 지역 의병의 항일전에 큰 손실을 가져 왔다. 그뿐만 아니라 1909년에는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남부 지역인 용인·광주·안성 등지를 전전하며 휘하 의병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항일전을 전개하던 이익삼(李益三) 의병장이 일본군에 피체되었다. 1907년 8월부터 의병에 투신해 항일전을 벌여 온 이익삼은 용인군 모현면 용동전투를 끝으로 6월 2일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新院里) 전투에서 수원수비대 소속의 일본군에 체포됨으로써 2년 동안 끈질기게 전개해 온 항일전은 종료되고 말았다.²²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110쪽.

21 서광일, 「한말 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451~452쪽.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4』, 1985, 507쪽.

그 뒤 수원에서는 특기할 만한 항일전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수원군 태춘 출신의 안춘경은 정주원이 체포당한 이후 잔여 의병 40여 명을 규합하여 1909년 9월부터 수원 광덕면, 청룡면, 대미 등지를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7일 수원군 문시면(文市面) 병점역 부근에서 부하 서춘남(徐春南)과 함께 수원경찰서에서 출동한 일본인 순사에게 체포되고 말았다.²³ 곧 수원 지역의 의병투쟁은 1909년 12월 안춘경 의병부대의 활동을 끝으로 자료상 종언을 고한 것으로 보인다.

2) 홍원식(洪元植) 부대의 의병투쟁

수원의병은 위에서 보았듯이, 의병전쟁 20년에 걸쳐 수원과 인근 각지를 무대로 항일투쟁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경향에 비추어, 수원 출신의 의병 가운데 활동 내역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홍원식 의병장이라 할 수 있다.

홍원식 의병장은 본관이 남양으로 1877년 10월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서 태어났다. 그 뒤 그는 상경하여 서울시위대 제1대대 군인이 되어 서울 서소문 병영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1907년 8월, 앞에서 보았듯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그는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의병으로 전신(轉身)하여 항일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군대해산 직후 홍원식이 의병에 투신하여 항일전을 전개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황으로 보아 그는 1907년 하반기 이래 1908년 충남 당진의 소난지도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반 년 동안 고향 수원을 비롯하여 경기 남부 지방과 충남 일대를 전전하면서 도처에서 일제 군경을 상대로 항일전을 벌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항일전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 남부, 충청도 일대의 유력한 의진이었던 정주원 의병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원식 의병부대의 항일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08년 3월 15일 벌어진 당진 소난지도전투라 할 수 있다. 육지에 근접해 있는 소난지도는 일찍이 1906년 홍주 의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해상 의병의 근거지로 의병 출현이 잦은 곳이었다. 특히 1906년 8월에는 면천 출신의 최구현(崔九鉉) 의병장이 인솔하던 의병부대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격전을 치른 전력이 있던 곳이다. 항일전 수행 과정에서 충청남도 해안 도서지역을 내

²³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17』, 1988, 10쪽.

왕하던 홍원식은 이와 같은 소난지도를 활동 근거지로 몰색하여 1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그 섬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홍성경찰분서에서 당진 방향으로 출동한 15명의 일제 경찰대는 소난지도로 잠입한 홍원식 의병의 동향을 파악하고 3월 15일 소난지도로 배를 타고 들어갔다. 이에 홍원식 의병은 일제 경찰대를 맞아 9시간에 걸친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전력의 절대적 열세로 말미암아 수세에 몰린 의병 측은 의병 전원이 거의 몰살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²⁴

치열했던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홍주경찰분서장은 전투 직후인 3월 20일 통감부 경무국장에게 다음과 같이 상세히 보고하였다.

일행(일제 순사대 14명 : 필자주)은 당진군 고산면 해창(海倉)에서 한선(韓船) 한 척을 빌리고 다음날 15일 오전 6시 우선 소난지도에 도착하여 그 상황을 정찰함에, 적은 일본형 범선 1척과 조선형 범선 1척을 포구에 정박시키고 전부 상륙하여 촌락에 잠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복 순사로 하여금 상세히 정찰 중에 적은 이미 이를 인지하여 민가에 숨어서 좌우에서 발포하여 그 소재를 거의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순사 나춘삼이 적탄에 맞아 중상을 입고 우리 형세가 심히 불리하므로 상륙을 결행하여 그 촌락 후방의 고지를 점령(오전 7시)하고 촌락을 내려 보며 맹렬히 사격하자 적은 낭패하게 되어 촌락에서 달아나 서쪽 고지를 근거로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우리는 세력을 양분하여 양 진지에서 맹렬하게 포화를 퍼붓자 적은 오전 11시에 이르러 점차 위축하여 서쪽 절벽 아래로 도주함에 따라 추적하여 접전하기를 수십 번 하여 적의 대부분을 이 섬 동남의 돌각(突角)까지 추적하여 22명을 죽이고, 일단 상륙지점으로 돌아와 그 촌락의 가택 수색을 하였지만 소득이 없었다. 다시 오후 1시부터 온 섬에 걸쳐 대수색을 함에 북쪽 일대의 바위 동굴 속에 잠복한 적이 다시 맹렬히 사격함에 따라 접전을 벌여 그 가운데 5명을 죽이고 14명을 동쪽 돌각으로 압박하여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큰 손해를 주었다. 오후 3시에 적의 대장 홍원식(洪元植 : 경기도 안성 사람으로 나이 50세 정도)²⁵과 선봉장 박원석(朴元石 : 경기도 수원 사람으로 나이 30세 정도) 이하 모두 41명이 육상, 또는 부상 후 해상에서 죽었다. 기타 바다에 투신하여 행방불명된 적세는 상세히 알 수 없지만 50명 내외로, 바다 속에 숨은 자도 도저히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면 전멸한 것으로 인정된다.²⁶

홍원식 의병이 일제 경찰대의 대공세에 직면하여 작은 섬 안에서 접전, 패퇴, 은신, 일제

24 김상기, 「1908년 당진 소난지도 의병의 항일전」,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학회, 2004, 43~47쪽.

25 일제 측 자료에는 홍원식의 출신지가 안성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26 洪警秘 제143호, 1908년 3월 20일, 「홍주분서장 보고」, 『폭도에 관한 편책』(김상기, 「1908년 당진 소난지도 의병의 항일전」,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학회, 2004, 45~46쪽 재인용).

의 의병 색출, 그리고 학살로 연속되는 가운데 처참하게 희생되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 결과 역시 수원 출신인 선봉장 박원석을 비롯하여 의병들은 거의 전멸하고 말았다. 의병장과 선봉장이 모두 수원 출신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때 전사한 휘하 의병 대부분이 수원 주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일경은 전사한 것으로 단정하였지만, 의병장 홍원식은 이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상복으로 변장한 뒤 육지로 탈출했다고 전해진다.

그 뒤 한동안 행방이 묘연하던 의병장 홍원식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부상하게 되는 것은 1919년 3·1운동 때이다. 1914년 3월 고향 제암리로 돌아온 그는 제암교회의 권사로 서, 안중후·김성열 등과 ‘구국동지회’를 결성하고 서재(書齋)를 세워 계몽교육에 앞장섰다. 그러한 와중에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자 수원 지역에서는 3월 26일 송산면 만세시위에 이어 3월 31일에는 홍원식도 가담한 발안장 만세시위가 일어나 1,000여 명의 군중이 투석전을 펼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탄압에 나선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5일 제암리 주민 20여 명을 교회 안에 가둬 놓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채 불을 지르고 집중사격을 가해 학살한, 악명 높은 제암리사건을 일으켰다. 이때 홍원식도 희생되었으며 현장에 달려 온 부인 김씨도 일본군의 총격으로 함께 순국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홍원식은 1907년 일찍이 수원의병의 항일전에서 선봉에 섰던 의병장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서는 다시 종교운동을 통한 민족교육사업에 전념하였으며, 이어 1919년 3·1운동 때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함으로써 12년간에 걸쳐 장기지속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해 온 전형적 사례가 되었다.





제2부

일제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제2장 수원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제3장 수원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제4장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제5장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제6장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제7장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

제8장 수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

제9장 수원의 반일낙서사건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1. 수원면의 만세운동
2. 송산면의 만세운동과 순사의 처단
3. 발안장과 우정면 · 장안면의 만세운동
4. 기타 지역의 만세운동
5. ‘제암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



제1장

수원의 3·1운동 전개와 성격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일제 강점 초반 식민 통치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헌병경찰 통치기로 조선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식민지 경영을 위한 경제적 수탈이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경제적인 굴레 속에서 식민지주체가 강화되며 경제적 침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3·1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자 수원 지역의 많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 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 학생들, 상인들과 기생들까지 수원군의 전 계층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산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으나, 사전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산상에서 횃불을 올리며 독립 의지를 불태웠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 만세시위에서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철시투쟁을 벌여 나갔다. 수원 지역 3·1운동 과정에서는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파괴되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순사들이 처단되었다. 송산면 만세운동에서 일본 순사가 처단되었고, 우정면과 장안면의 연합시위는 지역의 천도교도와 기독교도, 유교세력이 사전계획을 세워 전 주민이 참여하며 만세의 함성과 횃불을 높이 치켜들

었다.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파괴되고, 화수주재소가 파괴되면서 순사도 처단되었다. 우정면과 장안면의 연합시위는 당시 발안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수춘리와 가재리, 제암리 주민들이 함께하였다.

수원 지역 만세운동의 격렬한 전개에 당황한 일제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진압활동을 전개하였다. 폭력적 진압활동의 결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암리 학살만행으로 나타났다.¹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사전계획을 통해 조직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격적인 특성을 보였다. 3·1운동에서 시위군중들은 일제 지배체제의 최하위 말단 행정기구인 면사무소를 집중 공격하였다.² 경기도 내에서 면사무소 4개소가 파괴되었는데, 수원 지역에서 우정면사무소와 장안면사무소가 완전 파괴되었다. 면사무소의 모든 서류들이 파괴되거나 소각된 것은 일제 통치의 근거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수원 지역에서는 순사 2명이 처단되었으며, 화수주재소와 발안주재소 등이 만세운동의 과정에서 파괴되었다. 수원 지역 주민들은 납세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였다. 일제의 지배정책을 수행하는 말단 행정기구에 대한 공격은 수원 지역 3·1운동의 공격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만큼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원 지역 3·1운동에는 종교조직과 다양한 계층이 참가하였다. 특히 종교조직은 운동의 조직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천도교와 기독교는 물론이고, 유교까지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그리고 농민, 상인, 학생, 노동자, 기생 등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던 수원 지역의 3·1운동을 크게 수원면, 송산면, 발안장과 우정면·장안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면별로 만세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본 뒤, 일제의 폭력적 탄압의 결과인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수원 지역의 3·1운동에 대한 주요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성주현, 「수원 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박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정신문화연구』 89호, 2002;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우정·장안면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7, 경기사학회, 2003; 박환, 「수원군 우정면 화수리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94호, 2004.

2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삼일운동편』 其二, 1992, 7-8쪽. 전국적으로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격을 당한 관공서는 군청 5개소, 면사무소 47개소, 경찰관서가 45개소였다. 면사무소 47개소 가운데 전부 불탄 것은 19개소, 일부 파손된 것은 28개소이고, 경찰관서 45개소 중에도 전부 불탄 것이 16개소, 일부 파손된 것이 29개소였다.

1. 수원면의 만세운동

수원면(水原面 : 현 수원 시내)에서는 3월 1일 화홍문 방화수류정(용두각) 부근에서 수백 명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다.³ 이날의 시위는 김세환(金世煥)을 중심으로 한 김노적(金露積), 박선태(朴善泰), 임순남(林順男), 최문순(崔文順), 이종상(李鍾祥), 김석호(金錫浩), 김병갑(金秉甲), 이희경(李熙景), 신용준(愼用俊), 이선경(李善卿)⁴ 등의 지역 엘리트층이었던 교사와 학생·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벌어졌다.

김세환은 기독교 측 대표로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명이었으며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노적도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이끌었던 지역 인물이었다. 박선태 외의 사람들은 모두 20세 안팎의 젊은 청년학생들이었다. 김세환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후 신문조서에서 떳떳하게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선언서를 각지에 배포했으며,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 세계의 대세로 파리강화회의에서도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줄 것으로 믿었고, 일본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였다.⁵ 김세환은 남양의 동석기(董錫琪) 목사, 오산의 김광식(金光植)과 독립운동에 대해 협의한 일이 있



김세환의 수형기록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기록이 부족한 관계로 수원면의 3월 1일의 시위에 대해서는 신병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3·1운동에서 민족대표 48인의 한 사람으로 수원 및 충청남도의 연락을 맡고 있던 김세환의 활동과 수원 지역에서의 김세환의 교사적 위치로 볼 때, 수원면의 3월 1일의 시위는 김세환의 지시로 김노적과 박선태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서울, 개성과 같은 날 오후에 만세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된다.

4 이들 중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등은 일본의 굴레를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며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救國民團)'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선경은 옥중에서 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채, 1921년 4월 12일 궐석재판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8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 풀려나 9일 만인 4월 21일 고향 수원에 서 순국하여 2012년 3월 건국포장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2, 탐구당, 1994, 120~122쪽.

6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726쪽.



민족대표 48인에 포함되어 있는 김세환(『동아일보』, 1920년 7월 12일)

었다.⁶ 김세환은 민족대표 48인이었기 때문에 3월 1일에는 경성에 올라가 있었다. 수원면의 3월 1일 시위는 김세환의 지시로 김노적과 박선태의 주도 아래 학생층이 중심이 되어 서울과 동시에 시작한 만세운동이었다.

한편 권업모범장 부속으로 운영 중이던 수원농림학교 기숙사생 36명이 3월 3일 밤 몰래 탈출하여 행선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일본 경찰은 이들이 만세를 부르러 경성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⁷ 그 후 수원면에서는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고, 팔달산 서장대와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

가지 종로를 통과하였다. 그러던 중 시위군중들은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에게 강제해산을 당했고, 주동자가 붙잡혀 갔다. 그러자 시내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철시투쟁을 벌여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었다.⁸ 이때의 시위는 수원 읍내에 거주하고 있던 상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일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권을 침탈당하고 있던 상인들의 피해의식은 매우 컸으며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월 23일 수원역 부근의 서호(西湖)에서는 700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과 헌병대 및 소방대의 제지를 받고 해산하였다.⁹ 이날의 시위가 수원역 부근과 서호에서 벌어진 이유는 이곳에 권업모범장을 비롯하여 일제가 운영하던 농장이 많았고,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군중들은 이러한 일제의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던 소작농들이었으며, 그들은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곳에서 독립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3월 25일 장날에 다시 청년학생이 주도가 되어 약 20명의 학생과 노동자가 시장에서 만세를 불렀고, 시위를 주동한 10명이 붙잡혀 갔다. 그 후 주민들은 3월 28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20~30명씩 모여 산발적으로 만세를 불렀다.

3월 29일에는 기생 약 30여 명이 건강검사를 받으러 가던 도중 자혜의원(慈惠醫院) 앞에서 만세를 불렀다. 이 시위는 기생 김향화(金香華 : 23세)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야간에는 상인과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곳곳에서 만세를 불렀고 일본인 상점에 투석하여 창유리를 파괴하였다.¹⁰ 이날 만세운동을 이끈 김향화는 기생들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들을 이끌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녀는 그 후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끝에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검사분국으로 넘겨져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8개월의 구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았다. 이 재판에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였다.¹¹ 김향화와 함께했던 기생들은 수원예기조합 소속의 서도홍(徐桃紅), 이금희(李錦姬), 손산홍(孫山紅) 등 33명이었다.¹²

수원 기생들의 3·1운동은 단순한 즉자적인 의기의 행동은 아니었다. 일제의 「기생단속령」 등과 같은 식민 통제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수원 기생들은 3·1운동을 일으키기

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其三, 1992, 11쪽.

8 이병현,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68쪽.

9 이정은, 「3·1운동의 전개」,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2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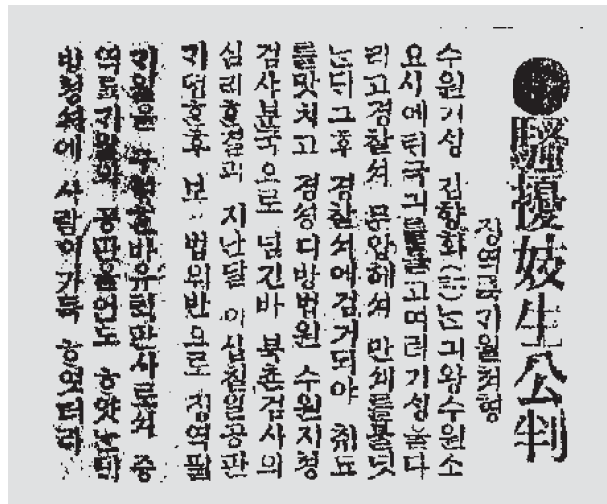
10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삼일운동편』 其三, 1992, 146쪽; 수원 지역 기생들의 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이동근, 「의기(義妓) 수원 기생들의 3·1운동」, 『수원 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2008 참조.

11 『매일신보』, 1919년 6월 20일.

12 靑柳綱太郎, 『朝鮮美人寶鑑』, 朝鮮研究會・新舊書林, 1918년 7월(2007, 민속원 영인본).



김향화(아오야나기 쓰나타로·지송옥, 『조선미인보 감』,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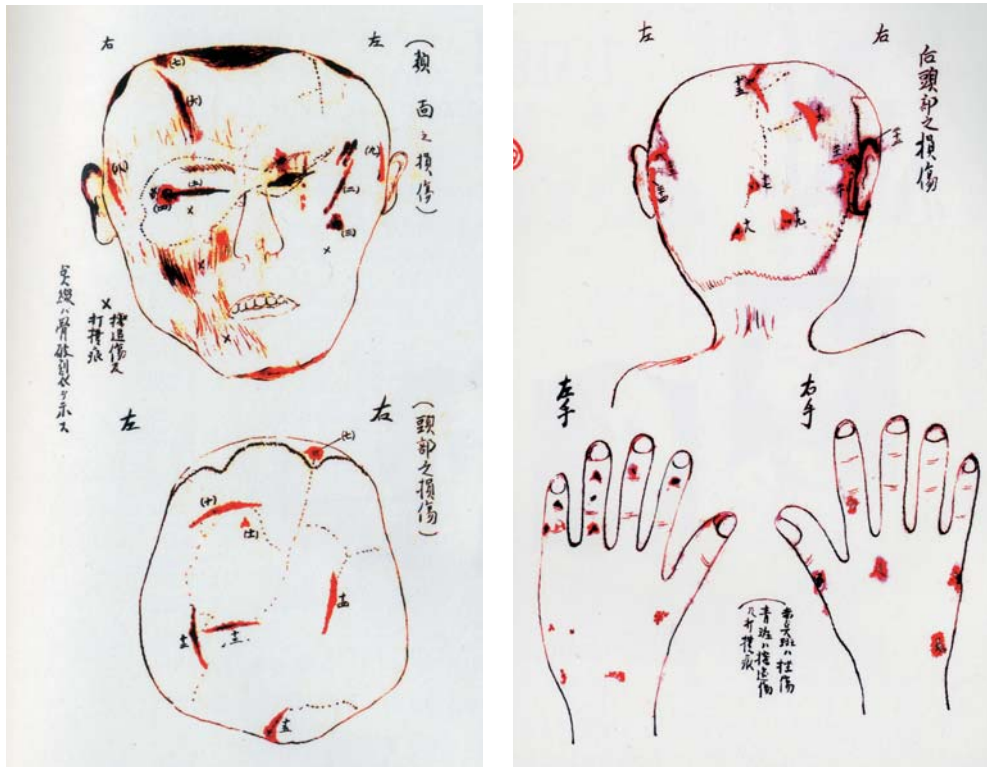


수원기생 공판기사(『매일신보』, 1919년 6월 20일)

전, 고종의 서거를 누구보다도 슬퍼하였다. 수원 기생들은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서거하자 가무를 중단하고 근신하였다. 그러다가 1월 27일 성복(成服)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원 기생 20여 명은 깃당목의 소복을 입고, 나무 비녀를 꽂고, 짚신을 신고, 오전 8시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대한문 앞에서 망곡을 하였다. 고종을 잃은 슬픔은 나라 잃은 슬픔과 함께 민족의 한이 되어 곡성으로 울려 퍼졌다.¹³ 이렇듯 수원 기생들은 고종이 돌아가신 슬픔과 나라 잃은 한을 다시 한 번 만세운동으로 승화시켰다.

수원면의 만세운동은 교사와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심을 이루었고, 일제의 농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던 소작농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일제에게 상권을 침탈당하고 있던 수원 읍내의 상인들도 적극적인 투쟁을 하였다. 여기에 일부의 노동자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기생들까지도 참여한 지역 주민 전 계층이 함께한 만세운동이었다.

13 『매일신보』, 1919년 1월 29일.



노구치 순사부장 검시도(화성시,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1운동과 항일영웅들』, 2005)

2. 송산면의 만세운동과 순사의 처단

송산면(松山面)에서는 주민들이 3월 26일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불렀다. 송산면의 만세운동은 홍면옥(洪冕玉 : 洪冕)과 홍효선(洪孝善), 왕광연(王光演 : 일명 王國臣), 홍명선(洪明先), 홍복룡(洪福龍), 김교창(金敎昌), 김용준(金用俊), 임팔용(林八龍) 등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26일 만세운동 직후 28일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과 그 부근에서 1,000여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대규모 만세운동을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송산면사무소에 출장 와 있던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가 시위를 주동한 홍면옥 외 2명을 체포했고, 이때 저항하는 홍면옥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 모습을 본 시위군중들은 격분하여 “일본 순사를 죽이자.”고 외치며 독립의 함성을 터뜨렸다. 이에 놀란 노구치 순사는 자전거를 타고 경찰관 주재소로 도망치기 시작하



수원사건 공판 기사(『동아일보』, 1920년 5월 16일)

였다. 군중들은 도망치는 노구치 순사를 뒤쫓아 가며 돌을 던져 자전거에서 떨어뜨렸고, 자전거에서 떨어진 노구치에게 수백 명의 주민들이 다가가서 돌과 몽둥이로 가격하여 그 자리에서 순사를 처단하였다.¹⁴

노구치 순사를 직접 가격하거나 돌을 던져 처단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흥면옥이 총에 맞아 동생이었던 홍준옥(洪琿玉)은 울부짖으며 문상익(文相翊)과 함께 면사무소를 나와 많은 시위군중들과 함께 노구치 순사를 뒤쫓았다. 왕광연, 김명제(金明濟), 임팔용, 홍명선, 차경현(車敬炫), 김교창, 홍남후(洪南厚), 최춘보(崔春甫), 박춘흥(朴春興), 홍문선(洪文善), 민용운(閔龍雲), 황칠성(黃七成), 홍관후(洪寬厚), 김용준, 전도선(田道善: 일명 田道山), 오광득(吳光得), 이윤식(李潤植), 안순원(安順元), 정군필(鄭君弼) 등이 순사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380~381쪽.

처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살인죄의 형을 선고 받았다.¹⁵

만세운동에 참여한 홍면옥이나 왕광연 등은 강력한 조선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조선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밝혔다. 또한 만세에 참여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만세를 부르자는 문서 등도 주고받아 일시적인 만세운동이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만세운동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¹⁶

송산면 3·1운동의 배경으로는 소작농들에 대한 경제적 침탈과 간척사업 등의 강제적 노동력 동원 등이 작용하였다. 송산면의 농민 중 소작농의 비율은 87.3%나 되었고,¹⁷ 이들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었다.



홍면옥(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 발안장과 우정면·장안면의 만세운동

향남면(鄉南面) 발안에서의 3·1운동은 우정면(雨汀面)·장안면(長安面)과 연계하고 있다. 수촌리의 백낙렬(白樂烈), 향남면 제암리의 안정옥(安政玉), 팔탄면 고주리의 김흥렬(金興烈)과 이정근(李正根)이 사전에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모의하였으며, 수촌리·고주리·제암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발안장에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발안만세운동의 주동자는 김흥렬과 이정근이다. 김흥렬은 우정면·장안면과도 연계하며 이 지역의 천도교도들을 동원하였고, 이정근은 백낙렬과 안정옥 등과도 자주 만나 정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도 거사할 것을 결정하고 제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385쪽.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385쪽.

17 酒井政之助, 『水原』, 1923, 24~26쪽.

3월 31일 발안장에는 1,000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날은 장이 열리는 날로 많은 사람들과 장꾼들이 모여들었다. 시위군중들은 연설을 하고 만세를 소리 높이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면서 길가의 일본인 가옥에 돌을 던졌다. 그리고 일본인 소학교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며 더욱더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¹⁸ 긴급히 출동한 일본 경찰과 보병은 진압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정근은 여러 제자들과 만세를 부르면서, 장꾼들에게는 장짐을 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들과 함께 발안장이 떠나가도록 만세를 부르며 앞장섰다. 일제의 총탄에 시위군중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결국 유학자 이정근도 일본 수비대장의 칼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발안장의 만세운동에서는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 날 4월 1일과 2일 밤에 주민들은 당제봉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산상햇불시위를 전개하였다.¹⁹

3·1운동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장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벌어진 시위와 산상시위가 주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적극적인 실행행사를 집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장터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정보 교환과 공유의 장소이기도 했다.

발안만세운동의 연계 속에 4월 3일 수원 지역 최대의 만세운동이 우정면과 장안면 주민들의 연합시위로 이어졌다. 우정면·장안면의 3·1운동은 백낙렬과 김홍렬의 주도 아래 천도교 전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전 조직되고 모의되었다. 천도교 전교실은 우정면·장안면의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기에 교도들과 주민들을 동원하기가 매우 좋았다.

백낙렬은 수춘리 구장(오늘날 이장)이면서 이 지역 천도교 책임자였다. 그는 천도교 전교실을 통하여 3·1운동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각 전교실의 책임자들을 만나 3·1운동에 대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또한 팔탄면 고주리에 거주하는 김홍렬, 팔탄면 가재리의 이정근과도 논의하였다. 김홍렬은 다시 제암리의 안종환(安鍾煥), 안정옥, 안종후 등과 상의하였다. 백낙렬은 독립운동 자금이 모자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3·1운동을 추진할 것을 결심하고, 김홍렬은 향남면·팔탄면을, 백낙렬은 우정면·장안면을 책임지기로 하고 3·1운동을 실행할 것을 결정하였다.²⁰

18 강덕상 편, 『3·1운동원(이)』, 東京:みすず書房, 국학자료원, 1977, 3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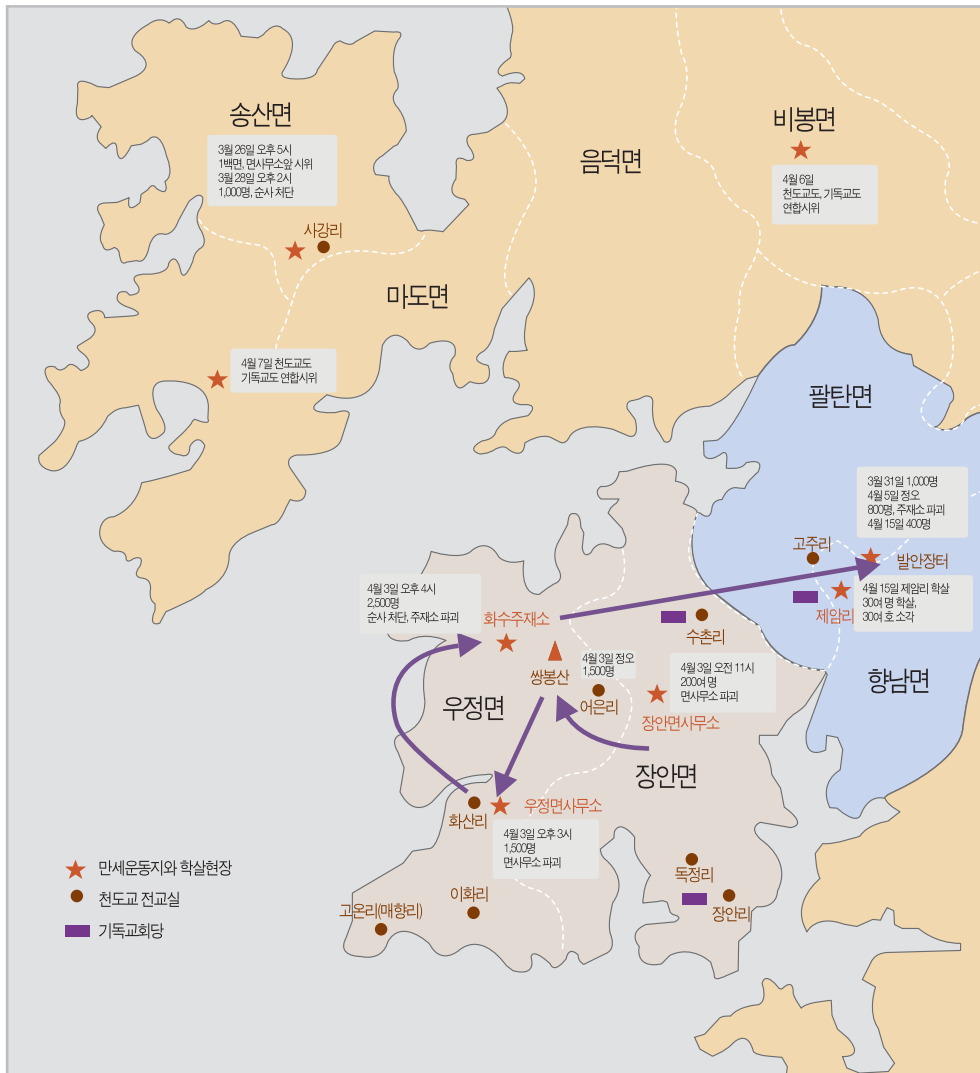
19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36~141쪽.

20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32~33쪽.



우정면 · 장안면 만세운동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이러한 사전 준비 끝에 우정면 · 장안면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은 서울보다 한 달 늦은 4월 1일 밤 7시에 수촌리 개죽산의 봉화를 신호로 하여 일제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4월 3일 오전 11시 장안면사무소에 200여 명이 모여 그동안 말단 식민행정을 행사했던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장안면장 김현묵(金賢默)을 앞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쌍봉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군중들은 수촌리 천도교 전교실에서 만든 태극기와 깃발 그리고 뭉뚱이를 들고 있었다. 그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억울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분노와 독립에 대한



우정면과 장안면 3·1운동 항쟁도

의지는 활활 불타올랐다. 쌍봉산에는 약 1,000명이 모여들었다. 군중들은 오후 3시경 우정면사무소로 가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서류와 집기류들을 파손하고 불에 태워 버렸다.²¹

의기에 찬 군중들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한 뒤 장안면장을 다시 앞세워 태극기를 들게

2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탐구당, 1994, 237~238쪽.



장안·우정면 3·1운동의 주역들(좌측은 석포리 구장 차병한, 우측은 수촌리와 제암리교회 담임전도사 김교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하고 군중의 선두에 세운 뒤,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오후 4시경에 화수주재소로 몰려갔다. 주재소 앞에서도 군중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돌을 던졌다. 이때 놀라 도망치는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郎) 순사가 권총을 발사하여 시위군중 1명이 넘어져 숨졌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가와바타 순사를 추격하였으며, 가와바타 순사가 도망가며 쏘아댄 총에 3명이 더 쓰러졌다. 도망가던 가와바타 순사는 곧 수십 명의 군중에 포위되었고, 차희식(車喜植), 장소진(張韶鎭), 이봉구(李鳳九) 등이 순사를 처단하였다.²² 1917년 장안면 화수리에 주재소가 설치되자 부임하였던 가와바타 순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였는데, 위생검사 등을 시행하여 모욕을 주고, 주민들이 모여 있으면 풍속단속을 핑계로 도박죄를 뒤집어씌워 끌고 가 모진 태형을 받게 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젊은 나이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하였다.²³

우정면·장안면을 포함한 남양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소작농의 처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강압으로 송충이를 잡는 데 동원되고, 바닷가의 간척공사 등에도 강제로 동원되었다.²⁴ 또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사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²⁵ 이렇듯 갖가

22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탐구당, 1994, 282쪽.

2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탐구당, 1994, 342쪽.

2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 탐구당, 1994, 77쪽.

25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0, 탐구당, 1994, 140~141쪽.

지 일제의 폭정에 지역민들은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정면과 장안면을 중심으로 한 남양군에서는 ‘염세저항운동’이 일어났다. 남양군의 염세저항운동은 우정면·장안면 3·1운동의 직접적인 한 원인이기도 하다. 3·1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염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과 강한 반일감정을 지니게 되었다. 일제의 경제적 침략으로 염업 등에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된 지역민들은 염세납부를 거부하는 적극적인 조세저항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은 3·1운동이 이 지역에서 격렬하게 전개되는 배경이 되었고, 그 조직력은 3·1운동에서 종교조직과 함께 하나가 되어 나타났다.²⁶

4. 기타 지역의 만세운동

동탄면(東灘面)에서는 3월 21일 오산리(梧山里) 천도교인 박두병(朴斗秉)·김재천(金在川)·김진성(金振聲)이 서로 합의한 후 인근 촌락과 연락하였고, 기독교인과의도 연락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만세를 불렀다. 극히 평온하게 시위운동을 전개하였기에 몇 명만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곧 풀려났다.²⁷

성호면(城湖面 : 현 오산시)에서는 3월 25일 오산리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만세운동은 보통학교 졸업자와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의 가옥을 파괴하며 전개되었다. 이때 일본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3명이 부상을 입었다.²⁸ 그 후 오산시장에서 3월 29일 오후 5시경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시장에 모여 있던 300여 명의 군중들을 유진홍(兪鎭弘)과 안낙순(安樂淳)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끌었다. 이들은 시장에서 출발하여 성호면사무소와 오산경찰주재소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다. 당시 현장에서 오산주재소의 순사 오오키(大木喜市)가 유진홍 등 수명의 주동자를 체포하였다. 유진홍 등이 체포되자 시위군중들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더욱 기세를 높였다. 이에 오오키 순사는 어쩔 수 없이 체포한 자들을 석방하였다. 시위군중들은 유진홍 등이 석방되자 시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거세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성구(李成九)·이규선(李圭

26 이동근,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 - 우정·장안면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제7호, 경기사학회, 2003, 200~204쪽.

27 이병현,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2쪽.

28 이정은, 「화성군 장안면·우정면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294쪽.

璇)·김경도(金敬道)·정규환(鄭奎煥)·유진홍·김용준(金用俊) 등이 다시 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 유진열(劉鎭烈)에 대해 “행동을 같이하지 않는 면장을 쳐 죽여라.”고 외치며 투석전을 전개하여 면사무소의 창유리와 창문 등을 파괴하였다. 군중들은 다시 오산우편소로 몰려가 이성구와 이규선 등이 우편소의 전화기 등을 파괴하고, 우편소 부근의 일본인 거주지로 몰려가 일본인 주택에 투석전을 전개하며 일본인 주택의 유리창, 판자 문 등을 파괴하면서 그 기세를 올렸다. 당시 시위군중들은 700~80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일본인 주택 11호 등을 파괴하면서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들은 계속하여 오산역을 습격하려고 행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과 보병이 합세하여 발포를 하자 시위군중들은 어쩔 수 없이 해산하였다.²⁹

양감면(楊甘面)에서도 3월 29일 수백 명이 평택군 청북면 율북리 주민들과 협력하여 산상에 횃불을 놓고 만세를 부른 후 각각 해산하였다. 태장면(台章面)에서는 3월 29일 오후 8시 남녀노소 군중이 일제히 등불과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며 산마다 횃불을 올렸고, 30일에는 새벽부터 만세를 불렀다.

안룡면(安龍面)에서도 30일 곳곳에서 시위군중들은 일제히 북을 치며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병점(餅店) 경부선 부근 산상에서(陽山 뒷산 산성과 태촌 筆峰 등) 수백 명씩 모여 만세를 불렀다.³⁰ 안룡면의 시위는 그 옛날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군들을 물리쳤던 독산성에서 벌어졌다. 산상시위는 다른 장소의 시위들과는 달리 일단 집합 장소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곳이었다. 산상의 시위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횃불을 치켜들었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은 메아리가 되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시 기능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는 과정에서 일제의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하였다 할지라도 산상으로 진압을 위해 오는 시간 동안 이미 만세를 부르거나 집단행동을 했던 주민들은 어디로든지 흩어져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의왕면(儀旺面)에서도 3월 31일 고천리에서 800명의 천도교도·기독교도·농민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군중들은 면사무소와 고천(古川)경찰관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를 불렀다.³¹ 당시 만세에 참여했던 이봉근에 따르면 만세운동은 사전에 계획되어 청계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4리의 책임자가 정해졌고, 집집마다 한 사람씩 동원하여 숲 밖 마을에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1, 343~348쪽.

30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0쪽.

31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삼일운동편』 其三, 1992, 147쪽.

집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세시위 때 태극기를 사용하기로 하고 7일간에 걸쳐 매일 밤마다 태극기를 제작하여 각 리마다 사전에 배포하였다. 이 같은 계획은 통문으로 각 마을의 이장에게 전달되었고, 이장의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한 집마다 한 사람씩 참가하도록 하였다. 만약 기밀을 누설하거나 불참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만세시위 후 방화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³² 의왕면의 3·1운동도 수원 지역의 다른 만세운동처럼 사전계획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월면(半月面)에서는 4월 1일 반월장에서 600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농민이 평화시위를 벌였다.³³ 비봉면(飛鳳面)에서는 4월 6일에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 다수가 합세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2명이 체포되었고, 군중들은 해산하였다. 마도면(麻道面)에서도 4월 7일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시위를 벌였다.³⁴

이와 같이 3월 초순부터 4월 중순 이후까지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계속되었다. 이를 일지로 작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많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 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 학생들, 상인들과 기생들까지 수원 지역의 전 계층이 참여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다. 때로는 산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위는 사전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요,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순사들도 처단하였다. 이렇게 공격적인 시위에 대해 일제는 살인·방화 등의 폭력적 탄압과 보복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수원 지역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물질 피해도 크게 입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 지역민들이 3·1운동에서 보여 준 적극적 저항은 이후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 민족해방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표 1> 수원 지역 3·1운동 일람표

일자	장소	운동 상황
3월 1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 부근	김세환·김노적 등의 지식인과 젊은 학생들의 주도로 수백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임. 서울의 3·1운동과 더불어 최초로 시작된 만세운동
3월 16일	수원면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이 벌어졌으며,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면서 시가지 종로를 통과하던 중 시위군중들은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대와 충돌, 주동자가 체포되자 석방을 요구하며 철시투쟁을 벌여 체포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남.

32 이승언 편저, 『의왕의 전통과 문화』, 1992, 104쪽.

33 이병헌, 『삼일운동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870쪽.

34 조병창, 『수원지방을 중심으로 삼일운동 소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71, 79쪽.

일자	장소	운동 상황
3월 21일	동탄면 오산리	오산리 천도교인 박두병·김재천·김진성 등이 인근 마을과 기독교인들과 연락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평화적으로 만세를 부름.
3월 23일	수원면 수원역 부근 서호	수원역과 서호 부근은 일본인과 지주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 소작농 등이 중심이 되어 700여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킴.
3월 25일	수원면	장날을 이용하여 청년학생들의 주도로 학생과 노동자 등이 만세를 부름.
	성호면	오산에서 보통학교 졸업생들과 천도교도들이 금융조합과 일본인, 중국인 가옥을 파괴하며 만세를 부름.
3월 26일	송산면 사강리	오후 5시경 송산면사무소 부근에서 주민 100여 명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만세를 부름.
3월 28일	송산면 사강리	오후 2시경 송산면사무소 뒷산 및 부근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순사 1명을 처단함.
3월 29일	수원면	김향화의 주도 아래 기생 3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자혜의원 앞에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아간에는 상인과 노동자 등이 합세하여 곳곳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 상점에 투석하여 창유리를 파괴함.
	성호면 오산리	오산장터에서 8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며 우편소,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파괴함.
	양감면	수백 명이 평택군 청북면 울복리 주민들과 협력하여 산상에 햇불을 놓고 만세를 부른 후 각각 해산
	태장면	등불과 태극기를 휘두르며 산상햇불시위를 전개함.
3월 30일	안룡면	군중 수백 명이 북을 치며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불렀고, 산상햇불시위를 전개함.
3월 31일	향남면 발안리	1,000여 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과 농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면서 일본인 가옥과 일본인 소학교를 파괴함.
	의왕면 고천리	고천리에서 800명의 천도교도·기독교도·농민 등이 면사무소와 고천경찰관주재소 앞에서 만세운동을 펼침.
4월 1일	반월면 반월장	600여 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농민이 평화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임.
4월 3일	우정면, 장안면	주민들과 천도교도, 기독교도가 주동이 되어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2,500명의 군중이 참여함. 시위군중들은 우정면·장안면 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경찰관주재소를 불태워 버렸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순사를 처단함.
4월 5일	향남면 발안리	4월 5일 발안 장날 800여 군중이 다시모여 만세운동을 벌이고 주재소를 파괴함.
4월 6일	비봉면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 다수가 합세하여 만세를 부름.
4월 7일	마도면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벌임.
4월 15일	향남면 발안리	발안장을 이용하여 400여 명이 만세운동을 펼침.
	향남면 제암리	우정면·장안면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순사들이 처단되자 일제는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하여 제암리교회에 무고한 주민 30여 명을 가둬 놓고 불을 질러 많은 희생자들을 낸 아만적 학살사건이 발생함.

5. ‘제암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

제암리학살사건은 수원군의 3·1운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는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일본 순사들이 시위군중들에게 처단되자, 일제가 저지른 엄청난 만행이었다. 이것은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이 폭력적 탄압에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일제는 3·1운동의 주동자 체포와 수색을 빙자하여 살인·방화·구타를 일삼았다.

일제의 폭력적 대응과 보복 상황을 보면, 3월 31일 발안시위가 있는 직후 경기도 장관과 수원군수 등이 군대 지원 요청을 하였다. 이에 경기도 경무부 경시 나가타니(長谷部巖) 대위를 중심으로 헌병과 경찰 혼성부대가 편성되어 3·1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³⁵ 실질적으로 발안시위에는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더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검거작전을 수행 중이던 4월 3일 화수리에서 두 번째로 일본인 순사가 살해당하자 토벌작전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날 시위를 주도했던 수촌리 기독교 지도자 김교철(金敎哲)과 천도교 지도자 백낙렬을 체포하기 위해 야간에 수촌리를 급습하여 김교철 이하 차인범(車仁範)·정순영(鄭淳榮)·이순모(李順模) 등을 체포하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한국인 가옥들을 방화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내었다.³⁶ 축소해 보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헌병 측 자료를 보더라도 4월 2일부터 14일까지 8개 면 29개 마을에서 소실된 가옥이 348호, 사망자가 46명, 부상자가 26명, 검거 인원이 442명에 이른다. 이 중 송산면에서는 사강리 외의 여러 마을에서 201호가 불에 탔으며, 장안면의 수촌리 등에서도 62호, 우정면의 조암리 등에서 35호가 불에 탔다. <표 2>에서 보면 3·1운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순사가 처단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송산면의 경우는 수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순사가 처단된 곳으로 일제는 보복심과 본보기로 다른 곳보다 많은 탄압을 가했으며, 일제의 폭력적 탄압이 극에 달한 제암리에서는 사망 인원이 23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제의 폭력적 탄압과 만세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 속에서 자행된 보복 탄압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선주차군 헌병사령관이 대신에게 보낸 보고의 내용에 “수원과 안성 지방의 시위주동자 검거 중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276호를 소각

35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48~49쪽.

36 이덕주, 「3·1운동과 제암리사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49쪽.



파괴된 수촌리(화성시,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1운동과 항일영웅들』, 2005)

하였는데, 이 중에는 검거반원이 보복심을 일으켜 방화한 것도 확인하였다.”고 했다.³⁷

이렇듯 일제의 폭력적 대응과 보복적 탄압이 극에 달한 것이 ‘제암리학살사건’이다. 일제는 우정면·장안면과 발안장의 시위가 연계되어, 이 지역이 내란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3·1운동의 주동자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월 13일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의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가 이끄는 보병 13명은 발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진압작전이 끝난 발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발안 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도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되었다. 발안시위를 주도했던 제암리 주도자들을 체포하지 못하자 아리타는 제암리 진압을 시작하였다. 아리타는 4월 15일 부하 11명과 순사 1명, 순사보 조희창과 사사카 등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하여, 3·1운동의 주동자로 인정한 천도교도와 기독교도들을 제암리교회에 모아 놓고 20여 명을 살상하고 촌락의 대부분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일반 가옥과 함께 수촌리의 천도교회당 1동과 제암리의 기독교교회당 1동이 불에 타 없어졌다.³⁸

37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삼일운동편』 其一, 1992, 143쪽.

38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 삼일운동편』 其三, 1992, 277쪽.

〈표 2〉 수원 지역 3·1운동 피해 현황³⁹⁾

면	리동	소실 호수	사망자	부상자	검거 인원
송산면	사강(沙江)	82		4	175
	마산(馬山)	1		1	
	육일(六一)	30			
	봉가(鳳歌)	47	1	1	
	삼존(三尊)	40			
	중송(中松)	1			
	계	201	1	6	
마도면	해문(海門)	7		2	
서신면	전곡(前谷)	2	1		
	상안(尙安)	2			
	계	11	1	2	
장안면	수촌(水村)	33	1	4	
	석포(石浦)	2			
	독정(篤亭)	2	1	1	
	장안(長安)		2		
	기린(麒麟)	12			
	어은(漁鰔)	12	1		
	사곡(沙谷)	1	1		
	계	62	6	5	
우정면	조암(朝巖)	11	1	1	204
	화산(花山)	1	2		
	한각(閑角)	1	1		
	화수(花樹)	22	3		
	계	35	7	1	
팔탄면	하저(下槎)		1	1	
	발안(發安)			5	
	창곡(昌谷)	1	1	1	
	기천리(箕川里)	1		1	
	고주리(古州里)	1	4		
	노하리(路下里)	1	1		
	가재리(佳才里)		1		
	계	4	8	8	
성호면	오산(烏山)			2	63
항남면	제암리(堤巖里)	28	23		
총계		348	46	26	442



제암리교회(화성시,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1운동과 항일영웅들』, 2005)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는 발안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으로 모두 33호의 농가가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천도교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은 감리교, 유교 순으로 모두 종교적 믿음이 강하였다. 특히 동학농민전쟁 이전 이 지역에 이미 동학이 포교되어 그 후 고주리의 김홍렬을 중심으로 천도교의 포교가 많이 되어 있었고, 감리교는 1905년 선교사 아펜젤러의 전도를 받아 입교한 안중후에 의해 전파되었다. 초가집의 교당이 제암리에 있었고 인근 지역을 합하여 15호의 신자 집이 있었다. 감리교인은 천도교에 비해 늦게 들어와 수적으로 천도교인에 비해 적었다.⁴⁰

제암리 희생자들은 기록이 불분명하여 주장하는 논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도교회월보』의 기록에서는 안중환, 김홍렬, 김기훈, 김기영, 안경순, 김성열, 홍순진, 안종린, 김기세, 안응순, 안상용, 안정옥, 안중형, 안중화, 김세열, 안자순, 안호순의 천도교도들이 숨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우정면·장안면의 3·1운동을 조직화

39 강덕상 편, 『3·1운동편(이)』 東京:みすず書房, 국학자료원, 1977, 312~318쪽 참고. 원래의 표는 '수원안성지방검거급순해일람표(水原安城地方檢舉及損害一覽表)'라고 되어 있는데 안성 지역을 제외하고 수원 지역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4월 17일 까지의 조사와 20일까지의 조사표로 나뉘어 있는데 합쳐 놓았다. 원래의 표에서는 제차 폭거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자가 1,202명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실 원래의 표는 일제가 작성한 것으로 실제보다 숫자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0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46쪽.



망연자실한 제암리 주민들(화성시,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1운동과 항일영웅들』, 2005)



학살당한 시신과 고아들(화성시,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1운동과 항일영웅들』, 2005)

하고 이끌어 갔던 주동자들이다. 현지의 순국기념탑에는 23명으로 되어 있다.

안정옥(安政玉), 안종린(安鍾麟), 안종악(安鍾樂), 안종환(安鍾煥), 안중후(安鍾厚), 안경순(安慶淳), 안무순(安武淳), 안진순(安珍淳), 안봉순(安鳳淳), 안유순(安有淳), 안중엽(安鍾燁), 안필순(安弼淳), 안명순(安明淳), 안관순(安官淳), 안상용(安相鎔), 조경칠(趙敬七), 홍순진(洪淳晉), 김정헌(金正憲), 김덕용(金德用), 강태성, 동 부인 김씨, 홍원식, 동 부인 김씨

연구자에 따라서 24명으로 보기도 하고, 고주리의 학살자 김흥렬(金興烈), 김성열(金聖烈), 김세열(金世烈), 김주업(金周業), 김주남(金周男), 김홍복(金興福) 6명을 포함하여 29명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당시 일제 측 자료도 20여 명에서 32명 등 정확하지 않다. 최근 연구에서는 희생자가 37명이라고도 보고 있다.⁴¹

수원 지역 만세운동의 물결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은 거침없이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수원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치며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해 나갔다.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 유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 학생들, 상인들과 기생들까지 수원군의 전 계층이 참여하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운 대표적인 만세항쟁이었다. 또한 사전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격렬한 투쟁양상을 보여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고, 갇은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순사들을 처단한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선봉이었다.

41 성주현, 「수원 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원, 2001, 143쪽.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수원 혈복단의 결성
2.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3.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성격



제2장

수원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1. 수원 혈복단의 결성

3·1운동 이후에도 수원 지역의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운동의 형태는 만세운동 때처럼 공개적이지는 않았으며 일제의 탄압이 강화됨에 따라 지하화하여 비밀리에 전개되었다. 한편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였으므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운동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 역시 만세운동 당시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겉으로는 일제에 순종하는 듯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전개하여 나갔던 것이다. 또한 운동의 형태도 만세운동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였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등이 그것이다.

3·1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자 수원 지역에서는 혈복단(血復團)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의 조직 과정은 서울에서 1919년부터 1920년까지 비밀결사로서 활동하였던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한독립애국단은 충남 논산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서울에서 기독교 계통의 교육사업에 종사하다가 3·1운동에 참여했던 신현구(申鉉九)가 주도하여 1919년 5월에 결성한 단체였다. 이 단체는

서울에 본부를 두었으며 주요 간부는 단장 신현구, 재무총장 김순호(金順皓), 재무감독 문봉의(文鳳儀) 등이었다. 구성원은 신교육을 받은 20대 청년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강원도·충청도·전라도 등지에 지단을 갖고 그 아래에 군단까지 두었던 임시정부 지원 단체였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전, 통신 연락, 자금 수합 등이었다.¹

애국단 구성원들은 단장 신현구가 1919년 11월 20일에 일정에 피체된 후 점차 조직이 와해되자 애국단의 조직을 계승한 혈복단에 의해 활동을 계속 전개해 갔다.² 혈복단은 임시정부 특과원 김태원(金泰源)과 애국단의 안교일(安敎一), 김교선(金敎善), 신봉균(申鳳均), 신상균(申相均), 이정방(李鼎邦) 등이 1919년 11월경에 종로구 5정목 김교선의 집에서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이 단체는 조선독립운동 자금의 모집과 독립을 위한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³

수원 혈복단이 중앙 혈복단의 하부조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우선 수원 혈복단에 참여한 윤익중(尹益重)이 서병철(徐丙轍)과 같은 애국단 및 혈복단의 인사와 교유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⁴ 다음으로는 서울에서 임시정부의 문서와 『독립신문』을 받아 와 배포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⁵

수원 혈복단을 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득수(李得壽 : 일명 李鍾祥, 1899~?)였다. 그는 경성기독교청년학관 학생으로 수원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학하고 있었다.⁶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그는 만세운동에 참가하다 본정(本町)경찰서에 체포되어 종로구치감에서 20일 동안 구류될 정도로 항일의식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임시정부와 연계를 맺게 된 것은 자신의 한문선생이었던 차관호(車寬鎬)를 통해서였다.⁷ 차관호는 당시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의 발간 및 배포에 관여하고 있던 인물이었다.⁸ 차관호는 제자인 이득수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독립신문』을 보내 이를 배포하도록 하였다.⁹ 이에 이득수는 동대문에 있는 부인병원의 박성환(朴聖煥)¹⁰으로부터 『독립신문』 수십 매를 인수받아 동지인 삼일여학교

1 장석홍, 「대한독립애국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182~192쪽.

2 장석홍, 「대한독립애국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183쪽.

3 『동아일보』, 1921년 6월 26일.

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7, 1978, 359~361쪽.

5 『매일신보』, 1921년 4월 6일.

6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7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8 국회도서관, 『한국민족독립운동사료(중국편)』, 1978, 153쪽.

9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10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여교사 차인재(車仁載)와 함께 1919년 8~9월경 수원군 수원면 내의 조선인 각 집에 배포하였다.¹¹

그러던 중 1919년 9월경 이득수는 휘문고등보통학교 4년생으로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하고 있던 박선태(朴善泰)를 만났다.¹² 당시 그는 상해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득수는 상해에 가지 말고 수원을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독립신문』과 『대한민보』 등을 배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박선태와 의논하였다.¹³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간행되었으며, 오로지 민족의 독립을 위한 민족정신의 양양과 독립 달성을 표방하고 있던 신문이었다.¹⁴ 그러므로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을 국내동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임시지방연통제와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을 통하여 국내에 전달되었다.¹⁵ 이에 박선태도 동조하여 이득수와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생각하고 1919년 말 수원 혈복단을 조직하였다.¹⁶

2.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수원 혈복단을 조직한 박선태와 이득수는 수원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이 조직의 결성에는 이득수의 한문선생이었던 차관호와 김보윤(金甫潤)이 후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차관호는 1919년 8월 15일 임시정부 내무부 특파원으로 경성으로 특파된 적이 있으며,¹⁷ 경성에서 이득수에게 『독립신문』의 수원 지역 배포를 위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상해에 있던 김보윤도 수원 지역의 비밀단체 조직에 일조를 하였다.¹⁸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차관호와 김보윤이 모두 상해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19년 12월경 대한적십자회에서는 병원 설립과 간호사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에 연락을 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때 김보윤은 독립대

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7쪽.

12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7쪽.

14 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론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166~168쪽.

15 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론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178~182쪽.

16 『매일신보』, 1920년 11월 13일에는 수원 혈복단이 1919년 9월경에 조직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 혈복단이 동년 11월에 조직된 것으로 보아 동년 연말쯤 조직된 것으로 추측된다.

17 문일민, 『한국독립운동사』, 애국동지원호회, 1956, 204쪽.

18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男女學生의 被促

가학수식을하며
한편으로 구인해

수원청내 북수리김홍근(水原城
內北水里金興根)은 수원천에 무
삼현의인지 수원경찰서에 검거
되어 취조를 받던바 그후 현하여
사오치의 가학수식을 행하며 급
월십삼일부터 일요일(女一八)을
시작하여 정성가 있는 산두리리선
경(女一八)은 자동차로 급하인

처하고 광교리 리추상(二〇)남
창리박선태(二〇)남수리최문순
(女一六)다섯명이 차례로 구인되
고 김홍근은 심오일에 방면되얏
는데 인차된다섯명은 정성에 투
박하는 남녀학생이 요사건은 자못
중대한 듯 하더라(수원)

구국민단 참여자들의 검거(『동아일보』, 1920년 8월 17일)

(獨立隊)의 대장으로서 안강근(安康根) 외 27명과 함께, 차관호는 십자대(十字隊)의 대장으로서는 이관수(李寬洙) 외 30명과 함께 적십자회원 모집에 적극적이었다.¹⁹ 그러므로 차관호와 김보윤은 이득수 등에게 『독립신문』의 수원 지역 배포는 물론, 적십자회원 모집을 위한 조직을 만들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득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6월경 여학생들을 가입시키기 위하여 차인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녀는 3명의 여학생을 소개하였다.²⁰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인 임순남(林順男 : 일명 林孝貞)과 최문순(崔文順),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3년생인 이선경(李善卿 : 1902~1921)²¹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원 거주 서울 통학생이며, 항일운동의 요람인 수원교회²²의 교사로서 활동하던 기독교인들이었다.²³ 그중 임순남은 수원의 삼일학교 졸업생이었고, 최문순은 수원공

립보통학교 졸업생이었다.²⁴ 이선경도 1918년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녀는 같은 해 4월 30일 사립 숙명여학교에 입학하여, 1919년 9월 1일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다.²⁵

1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1권 분책, 원서방, 1967, 238쪽.

20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21 이선경은 제적부와 학적부 그리고 그의 언니 이현경의 학적부에 따르면, 광주 이씨이며, 부친은 이학구(李鶴九)로 대금업자였다(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수원역사문화연구』 1, 수원박물관, 2011). 그녀의 동생인 이용성(李容成)은 죽구선수였으며(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200~201쪽), 1952년 수원시 초대 시의원에 피선되었다(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418쪽).

22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현재 명칭은 종로교회이다(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 왕도출판사, 1981, 140~142쪽).

23 이선경의 경우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적혀 있다.

24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25 이선경 숙명여학교 학적부 및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 참조. 이선경은 1920년 8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퇴학한 것으로 보인다(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수원박물관, 2011).

박선태와 이득수는 1920년 6월 7일 수원면 서호(西湖) 부근에서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등을 만나 혈복단을 구국민단으로 개칭하고,²⁶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을 조직하는 한편,²⁷ 단장에 박선태, 부단장에 이득수, 서무부장에 임순남, 재무부장에 최문순, 구제부장에 이선경,²⁸ 교제부장에 차인재²⁹를 각각 임명하였다.



구국민단에 참여했던 임순남

이들은 수원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로 통학하는 20세 안팎의 젊은 학생들이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수원 삼일학교 관련자들이 구국민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 지역의 여학생들을 가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차인재가 교사이며, 임순남 역시 이 학교의 졸업생인 것이다.³⁰ 이 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학교로 이항여, 임면수 등의 교사들이 독립사상이 철저한 애국지사들이었다.³¹ 즉 삼일학교는 수원 지역 항일운동의 요람이었던 것이다.

한편 구국민단의 결성에는 박선태의 영향 또한 컸던 것이 아닌가 한다. 박선태는 3·1운동 당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인 김세환·김노적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한 청년이었다. 그리고 이선경도 김노적·박선태와 같은 마을인 수원면 산루리 출신이다.³² 그뿐만 아니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선경은 3·1운동 발발 당시 김세환 밑에서 각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녀는 치마 속에 혹은 앞가슴에 비밀문서를 넣어 일제의 눈을 피해 대전·충주·안성 등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비밀지령을 전달하였다.³³ 그러므로 그녀는 3·1운동 당시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어 15일 동안 구류를 당하기도 하였다.³⁴

한편 조직원 선정을 마친 구국민단은 다음과 같은 2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26 『매일신보』, 1920년 11월 13일.

2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8쪽.

28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29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30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31 김세환,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삼일학원육십오년사편찬위원회, 1968, 52-55쪽.

32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306쪽. 경기도고 학적부에는 원적이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470번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루리 406번지에서 산루리 470번지로 이거한 것은 1916년 4월 5일의 일이다(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이현경」, 『수원역사문화연구』 1, 수원박물관, 2011).

3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306쪽.

34 『조선일보』, 1920년 8월 20일.



1920년대 삼일여학교 교사 전경(배향여자정보고등학교 소장) 구국민단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삼일여학교 관련자였다.

1. 한일합방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2.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³⁵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국민단 단원들은 1920년 7월경까지 1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수원 읍내 삼일학교에서 회합하여³⁶ 『독립신문』의 배포를 담당하기로 서약하고 또 기회를 보아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였다.³⁷ 특히 여학생 3명은 상해 임시정부 적십자회에 들어가 간호사가 되어 후일 미일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그 힘을 다하고자 하였다.³⁸ 아울러 당시의 활동 내역을 최문순이 암호일기로 작성하였다.³⁹

그러나 구국민단에서 가장 힘써 한 일은 『독립신문』의 배포였다. 이득수는 『독립신문』

3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8쪽.

36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3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8쪽.

38 송상도, 『기려수필(驥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55, 288쪽.

39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구국민단사건의 전개 과정을 다룬 신문기사(『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을 배포하기 위하여 일단 서울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신문을 입수하였으며, 그 비용은 박선태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이득수와 박선태는 1920년 6월경부터 여러 차례 『독립신문』과 창가집을 수원 민가에 배부하였다.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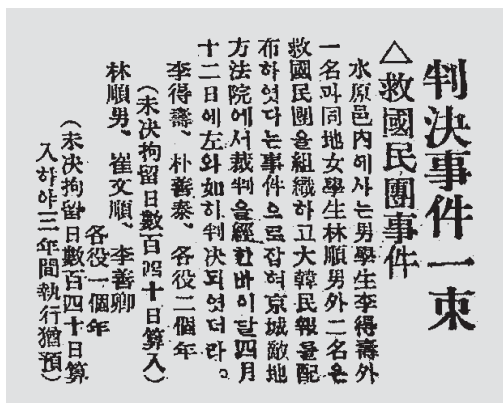
한편 조직의 확대를 위하여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김석호(金錫浩), 김노적,⁴¹ 윤구섭(尹龜燮), 김병갑(金秉甲), 이희경(李熙景), 신용준(愼用俊) 등에 대하여 동지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⁴² 또한 박선태는 청년운동을 통하여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수원에는 1908년 수원엠패청년회가 1908년 가을 창립되었다가 해산된 이후 체육회 또는 운동구락부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1917년에 다시 재조직되었다. 그 후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청년회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되는 데 모든 단체가 지·덕·체 삼육(三育)을 연마하고 나아가 그 지방의 풍습을 개량하며 산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⁴³

40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41 김노적은 1927년 10월 17일 신간회 수원지회 회장이 되었다(『조선일보』, 1927년 10월 20일).

4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378쪽.

43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767~768쪽.



구국민단사건 재판 결과를 알리는 신문기사(『독립신문』, 1921년 4월 30일)

이러한 시기에 박선태는 1920년 7월 11일 남문 밖 성공회에서 창립된 진명구락부(進明俱樂部)에서 운동부장으로 활동하였다.⁴⁴ 그때 그와 함께 활동한 인물은 도서부장으로 일한 김노적, 부장 김인순(金仁淳), 총무 조용호(趙鏞昊) 등이었다.⁴⁵ 진명구락부에서 활동한 박선태는 당시 수원군에 조직되어 활동하던 주요 청년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활동하고 있던 주요 청년단체로는 남양

청년회, 수원청년구락부, 수원애플청년회, 수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수원지부, 천주교 청년회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대체로 민족 개량적, 계몽적,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⁴⁶

당시 수원읍의 남자 인구가 5,000여 명으로 추정되던 시기에 학식 있는 청년은 몇 백 명도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한편 구국민단에서는 임순남을 통하여 여성청년단체와도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자 하였을 것이다. 임순남은 종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조직된 여성청년단체인 여보호회(女保護會)에서 1920년에 총무로 활동하였다. 그녀와 함께 이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회장 이신애(李信愛), 부회장 이화순(李華淳) 등을 들 수 있다.⁴⁷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박선태,⁴⁸ 이득수, 임순남, 이선경⁴⁹ 등은 1920년 8월에

44 이선경 역시 성공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녀의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 보증인이 세실(世實) 수녀로 되어 있다. 또한 언니 이현경 역시 성공회에서 운영했던 수원의 사립진명여자학교 졸업생이었다(이현경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 학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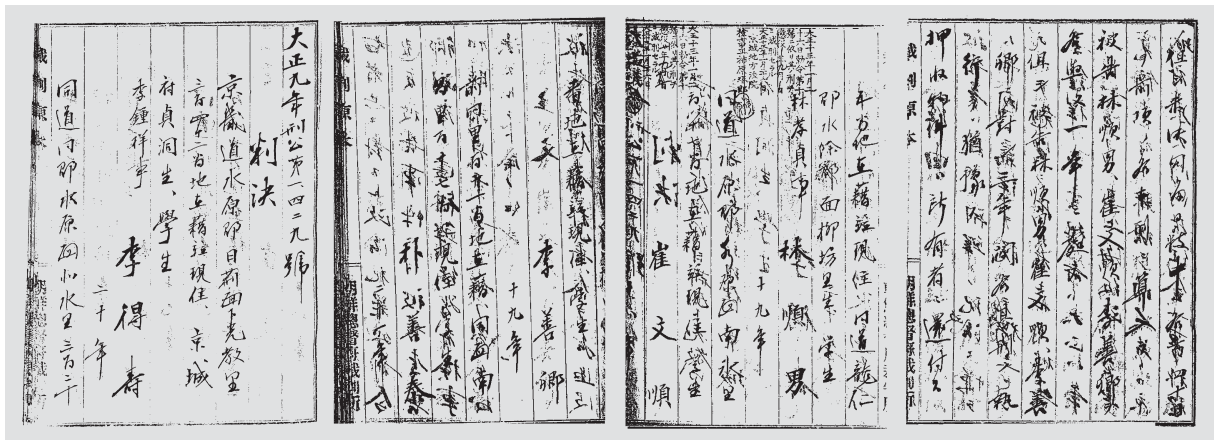
45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향일독립운동사』, 1995, 790쪽.

46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향일독립운동사』, 1995, 767쪽.

47 조찬석, 『청년운동』, 『경기도향일독립운동사』, 1995, 791쪽.

48 박선태는 1926년 식망된 후 중국 북경에 있는 해평대학(海平大學)에 유학하였다. 동 대학을 중도에 퇴교하고, 귀국하여 수원에서 청년동맹과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한편 그는 수원 종로에서 상신상회와 동일인쇄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수원체육협회 부회장(『동아일보』, 1929년 9월 5일; 『동아일보』, 1929년 9월 7일), 수원기자동맹 집행위원(『동아일보』, 1930년 3월 29일),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총무(『동아일보』, 1927년 1월 12일; 1932년 4월 25일), 근기기자대회 재정부 준비위원(『조선일보』, 1930년 4월 15일; 『동아일보』, 1930년 4월 14일), 수원체육회 이사(『동아일보』, 1935년 5월 4일) 등으로 활동하다가 1938년 7월 작고하였다(박선태의 장남 박춘만이 1977년 3월 작성한 공적서 참조).

49 이선경이 체포된 시점은 1920년 8월 10일 전후로 추정된다. 같은 해 8월 31일 이선경은 경기여고를 퇴학당하였다. 한편 학교 당국은 이선경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김백순 등 8명에게 퇴학조치를 하였다고 한다(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수원을 빛낸 향일독립운동가』, 수원박물관, 2011).



구국민단사건 판결문(국가기록원 소장)

체포되어,⁵⁰ 1921년 4월 박선태와 이득수⁵¹는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임순남,⁵² 최문순, 이선경 등 여학생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⁵³ 그중 이선경은 구류 9개월 동안 심한 고문으로 재판정에 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궐석재판으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일은 1921년 4월 12일이었다. 이날 방면된 이선경은 수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중에서 풀려난 지 9일 만인 1921년 4월 21일 오전 8시 수원면 매산리 119번지에서 19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⁵⁴

3.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성격

지금까지 비밀결사인 혈복단과 구국민단의 조직과 활동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두 단체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혈복단은 비록 소규모 조직이기는 하지만 3·1운동 이후 전국의 지방에서 조직된 최초의 학생비밀결사조직으로서 주목된다.⁵⁵ 이를 바탕으로 구국민단이 조직되었으며,

50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51 이득수는 1922년 5월 12일 가출옥하였다(『제소자 신분장 지문원지』).

52 임순남(임효정)은 그 후 친일활동을 하게 된다(정명희, 「신여성 임효정의 생애와 활동」, 『수원학연구』 8, 2011).

53 『동아일보』, 1921년 4월 13일.

54 사망 장소는 큰오빠인 이완성(李完成)의 집으로 추정된다(한동민, 「수원의 여성독립운동가 이선경-독립운동가 이선경과 사회주의 운동가 이현경」,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 수원박물관, 2011).

1920년대 중반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조선개척사 등이 조직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1925년까지 학생 조직으로서는 3·1운동 당시 학생동원을 위하여 개성에서 조선독립개성회가 만들어진 것 외에는 그 조직을 찾아 볼 수 없다.⁵⁶

둘째,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단체였다. 그러므로 이들 단체에서는 『독립신문』의 배포와 대한적십자회 가입 등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상해임시정부에 대한 당시의 기대와 지지도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공화주의 이념을 지지한 단체였다. 주요 구성원이 신식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었다는 점이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넷째,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다. 이득수가 그러하며,⁵⁷ 이 단체에 참여한 3명의 여학생 역시 수원 지역의 유능한 기독교인들이었다. 박선태의 경우 그의 부모가 기독교 신자였다.⁵⁸ 삼일학교가 이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 단체는 한말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수원 지역의 북감리교 세력이 모태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서울에 왕래가 많은 통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들은 수원에서 가장 엘리트 학생들이었다고 생각되며,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활동은 경기도 지역에 독립운동의 기운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여섯째, 수원 지역 3·1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만세운동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세환과 김노적 밑에 만세운동의 행동대로서 활약하였던 박선태와 이선경 등이 이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아마도 김노적 등을 연결고리로 하여 장년층 지도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이 단체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다. 이것은 바로 한말 애국계몽운동 시절부터 전개되어 왔던 교육운동이 3·1운동을 거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생운동이 1920년대 후반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학생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었다고 하겠다.

여덟째, 혈북단과 구국민단은 비밀결사라는 측면에서 수원군에서 1910년대에 조직된

55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228쪽.

5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516쪽.

57 『조선일보』, 1921년 4월 11일.

58 『조선일보』, 1921년 4월 11일.

구국동지회의 맥락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0년대 향남면 제암리에 조직된 구국동지회가 의병세력과 천도교세력, 기독교세력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것이라면 이 단체는 바로 기독교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당시 수원 지역에 있는 기타 청년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하였다. 진명구락부, 여보호회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혈복단과 구국민단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성도 지니고 있던 단체였다. 일단 무엇보다도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운동을 전개할 때 숫자의 다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직은 간부만 있고 조직원이 별로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조직에서도 학생들 외에 농민, 노동자 등 다른 계층과의 연대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복단과 구국민단은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에서 조직된 비밀결사로서 경기도 나아가 국내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한 단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 단체의 조직을 계기로 1920년대 중반 이후 수원 지역에서는 보다 활발한 학생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성운 경기대학교 강사

1.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2. 청년단체의 혁신과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3.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해소
4. 수원 청년운동의 특징



제3장

수원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1.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

1) '청년'의 성장

우리나라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세기 후반부터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에서는 1880년에 YMCA가 설립되었는데, 이를 기독교청년회라 번역하였고, 1887년에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신일본의 청년(新日本之青年)』을 출판하였다. 이렇게 19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조직한 청년단체는 1883년 일본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설립한 조선청년애국회라 알려져 있다.¹ 국내에서는 1897년 정

¹ 주진오, 「19세기 후반 개화개혁론의 구조와 전개-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14쪽에서 재인용.

동교회에서 청년회를 조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독립신문』에서 청년과 청년회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청년이라는 용어는 더욱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청년은 학생 혹은 30대 전후의 젊은 지식인이 그 중심이었다.

이와 같이 청년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것은 곧 청년에 대한 민족적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1905년 이래 신식교육을 받은 학생층의 성장과 각종 학회의 결성과 잡지의 발행, 그리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한 민중계몽은 청년층을 비롯한 민족 구성원의 민족정신과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1904년 상동청년학원, 1908년 청년학우회, 대동청년단 등의 청년단체가 결성되어 청년층의 조직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청년층이 주목받은 것은 이들이 교육과 계몽의 대상인 동시에 봉건적 질서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사상과 사회질서를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끌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청년을 식민지 조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주목한 것이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점은 청년층의 성장을 주춤하게 하였다. 그것은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그것은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층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즉 1910년대 근대 학교에서 성장한 학생층이 졸업 이후 청년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1917년 이복원, 이증각, 방정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경성청년구락부는 유광렬의 증언에 따르면 ‘비밀결사’적인 성격으로 조직되었다. 유광렬의 증언은 경성청년구락부 회장 이복원과 부회장 이증각이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단체 활동으로 체포, 구금되었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중 방정환은 보성전문을 중퇴하고 일본 도요대학에 청강생으로 유학하였으며, 이복원은 대한제국기 학부대신 이용직의 조카로 근대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증각은 잡지 『신청년』과 『신조선』의 기자로 활동할 정도의 지식인이었다.

이러한 청년의 성장은 경성을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경성과 가까운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경부선을 이용해 경성으로 통학하는 학생층과 수원농림학교, 또 3·1운동 이후 조직되기 시작한 청년단체의 활동을 통해 청년층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청년단체의 창립과 조직 구성

3·1운동 직후인 1920년경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은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20년에는 오상근(吳祥根)과 장덕수(張德秀) 등이 주축이 되어 조선청년회연합회(朝鮮青年會聯合會)가 조직되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지(知)·덕(德)·체(體)의 발달을 통하여 사회개조를 이룩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조직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전국의 청년단체들을 모아 청년운동의 통일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 속에 수원 지역에서도 청년단체들이 창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창립된 순서로 보면, 수원애플링청년회(1908년 가을 창립, 1910년 해체, 1917년 부활), 수원학생친목회(1917년 창립), 남양청년회(1920년 5월 18일 창립, 회장 김성달, 부회장 홍형준, 부장 황대창·박우영·홍승렬, 1921년에 남양애플링청년회로 개칭), 수원청년구락부(水原靑年俱樂部: 1920년 7월 3일 창립), 수원진명구락부(水原進明俱樂部: 1920년 7월 11일 창립, 발기인 具世實(영국인), 金仁淳, 金顯弼, 許榕, 安永基, 李麟榮), 천도교청년회(天道敎靑年會) 수원지회(1920년 창립, 날짜 미상), 천주교청년회(1921년 9월 11일 창립), 팔탄청년회(1922년경 조직)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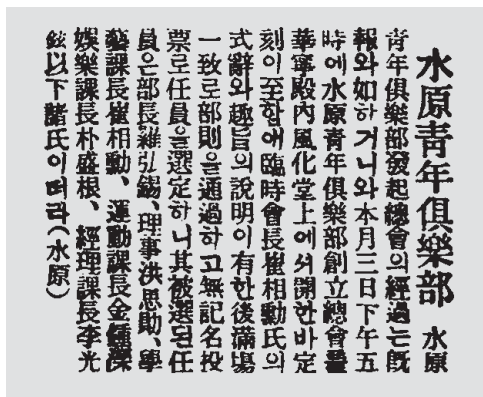
이 단체들은 창립 목적을 실력양성에 두고 있었다. 예를 들면 수원청년구락부는 지식 계발, 체육 진흥, 풍습 개선 등을 목표로 하였고,² 학예과·운동과·오락과·경리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양청년회는 문예부, 사회부, 운동부를 설치하였다.³ 또한 성공회 계통의 진명구락부는 덕성을 함양하고 예지를 계발하며 부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종교활동을 통해 피압박민족의 자주독립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부장 김인순(金仁淳), 총무 조용호(趙鏞昊), 도서부장 김노적(金露積), 운동부장 박선태(朴善泰) 등이 선임되었다.⁴ 이러한 부서의 명칭에서 볼 때 초기 수원 지역의 청년단체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수원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청년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한 1928년 이후 서무부, 재정부, 교양부, 조직부, 여자부, 소년부, 체육부를 설치⁵한 것과 비교된다. 즉 부서의 성격이 계층별 부서와 조직사업을 위주로 한 부서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로 보아 그 활동도 계급·계층별 활동을 점차 강화하

2 「水原靑年俱樂部組織」, 『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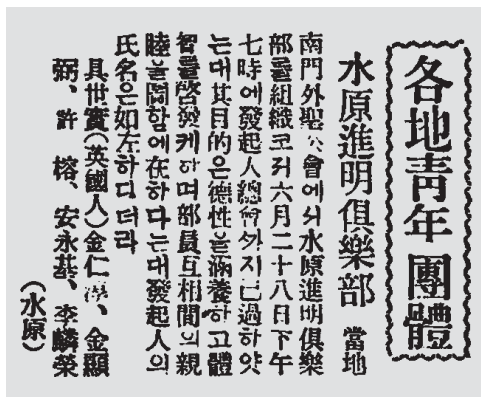
3 「南陽靑年會設立」, 『동아일보』, 1920년 6월 11일.

4 『동아일보』, 1930년 1월 1일.

5 「水原靑盟 執行委員會」, 『중외일보』, 1929년 11월 15일.



수원청년구락부 창립총회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0년 7월 8일)



수원진명구락부 발기인총회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1년 9월 18일)

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초반의 청년단체는 대개 회장제를 채택하였는데, 수원청년구락부와 진명구락부가 부장제(部長制)를 채택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수원 지역의 청년단체들 역시 회장제를 채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원청년구락부는 부장 아래에 과장을 두는 특이한 조직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회장(부장) 개인의 능력에 회의 운영과 장래가 좌우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수원청년구락부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의 활동은 자료의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 수원청년구락부는 수원청년간사회를 열어 1924년 수원청년회로 개칭하였다.⁶

수원청년구락부는 최상훈(崔相勳) 등의 주장에 따라 1920년 6월 6일 화령전(華寧殿) 풍화당(風化堂)에서 지식 계발, 체육 증진, 풍습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발기인은 최상훈, 지공숙(池公淑), 홍사훈(洪思勛), 박성근(朴盛根), 홍사안(洪思安), 이광현(李光鉉), 윤태은(尹泰殷), 이윤재(李允載),金玉현(金玉鉉), 유치설(俞致萬), 우성현(禹成鉉), 이교정(李教貞), 이완선(李完善), 오인영(吳寅泳), 최현영(崔顯榮), 조용환(曹容煥), 김종락(金鍾樂), 나상훈(羅相薰), 서정옥(徐廷玉), 고원근(高元根), 김세영(金世榮), 김영기(金泳基), 박종익(朴鍾益), 홍□(洪□), 문현승(文顯承), 고인관(高仁寬), 허용(許榕), 김정상(金慶祥) 등이었다.⁷ 그리고 1920년 7월 3일 창립 창회에서 피선된 임원은 부장 나홍석(羅

6 『동아일보』, 1924년 5월 7일. 「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6)」, 『동아일보』, 1927년 1월 19일. 이 당시 수원청년회의 회장은 홍사훈(洪思勛)이었는데 수원청년회의 개편과 홍사훈의 도협의원 진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홍사훈은 수원청년회를 자신의 도협의원 진출의 발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7 『水原靑年俱樂部組織』, 『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

弘錫), 이사 홍사훈, 학예과장 최상훈, 운동과장 김종심(金鍾深), 오락과장 박성근, 경리과장 이광현이었다.

부장인 나홍석은 시흥군수와 용인군수를 역임한 나기정(羅基貞)의 장남으로 1909년 3월 와세다(早稻田)대학 정치과를 졸업하였고, 1918년 수원금융조합 서기 그리고 1920년에는 수원면협의원에 선출되었다. 1922년에는 서울로 이사하여 중개업에 종사하였고, 1923년 2월 이후에는 각 조합 경성변리사(京城辨理士: 紹介業)의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재산상태는 당시 화폐로 동산 2,000원, 부동산 1만 3,000원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다. 그리고 최송(崔松)·최린(崔麟)·윤경중(尹敬重)·지공숙(池公淑)·최상훈·홍사선(洪思先)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⁸ 그는 일본 유학시절 1908년 1월 창립된 대한학회와 대한홍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대한홍학회의 기관지인 『대한홍학보』에 논설⁹을 게재하여 그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24년 결성된 친일단체인 각과유지연맹에도 참여하였다.

홍사훈은 수원 지역 3대 지주 중의 한 사람으로 경성 보성중학을 중퇴하고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다. 삼일학교 학무위원, 수원청년회장, 수원체육회장을 역임하였고, 수원상업강습소를 인수하여 화성학원을 창설하였다. 세류포목점을 경영하였으며, 용수농농주식회사 취체역, 수원극장 대표이사, 1932년 1월 창립한 만중원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¹⁰ 최상훈은 수원의원 내과의사,¹¹ 수원상업강습소 교사,¹² 동아일보사 기자를 역임하였다.¹³ 한편 최송은 기호홍학회 수원지회의 간사원¹⁴으로 개화자강운동에 가담하였던 인물이다. 홍사선은 일본 유학생이 조직한 대한학회의 회원인 것으로 보아 일본 유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¹⁵ 1930년 1월 현재 수원면협의원,¹⁶ 1932년 주식회사 만중원의 창립 시 대표이사, 1934년 수원실업협회 평의원¹⁷을 역임하였다. 이상의 인물들의 성향으로 보아 수원청년구락부는 수원 지역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¹⁸

8 『倭政時代人物史料』 3, 97쪽. 이 자료에는 나홍석이 수원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부장에 취임한 것이 1918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신문기사에 창립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수원청년구락부의 조직시기를 1920년으로 보았다.

9 『社會進化之原則』을 아以慰我志士同胞, 『대한홍학보』 제1호, 1909년 3월.

10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집』, 수원문화원, 1996, 93쪽.

11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집』, 수원문화원, 1996, 82쪽.

12 『水原商業講習所』, 『동아일보』, 1922년 1월 27일.

13 『사령』, 『동아일보』, 1920년 4월 1일.

14 『기호홍학회월보』 제2호, 61쪽(아세아문화사 영인, 1978).

15 『대한학회월보』 3, 1908년 4월, 61쪽.

16 『광고』, 『조선일보』, 1930년 1월 4일.

17 『水原實業協會定總』, 『조선중앙일보』 1934년 4월 29일.

18 수원 지역의 청년운동과 사립학교 설립과 관련한 일련의 분석 과정에서 수원 지역 초기 청년운동의 지도자들은 지역사회의 유지층이었고, 이들이 1920년대 말 무렵부터 산업자본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노적(앞줄 맨 왼쪽)과 수원 소년단원(수원박물관 소장)

그리고 진명구락부의 김노적은 수원상업강습소와 배재고보를 졸업하였다. 수원 지역의 3·1운동 당시 김세환의 지도하에 박선태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제에 저항하였으며 이후 구국민단, 수원구제회,¹⁹ 신간회 수원지회 지회장,²⁰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²¹ 박선태는 수원 지역 3·1운동의 핵심 인물이었고, 구국민단²²을 지도하였다. 또한 1930년 수원기자동맹 감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이후 수원실업협회 상의원이 된 것으로 보아 자본가로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조직원의 구성으로 볼 때 이들은 실력양성론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생각된다.

19 「水原救濟會」,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20 「金露積氏 送別宴」, 『동아일보』, 1927년 11월 26일.

21 李悌宰, 「水原地方 獨立運動의 先驅者 金露積先生」, 『畿甸文化』 10, 1992 참조.

22 구국민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박환, 「수원 혈북단과 구국민단의 결성과 활동」,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수원시사 8,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참조.

3) 청년단체의 활동

수원 지역의 초기 청년단체는 야학과 강습소의 운영, 강연회 등을 통한 계몽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먼저 남양엠플청년회는 문예부 주최로 야학회를 개설하여 조선어, 한문, 산술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쳤고, 수시로 상식과 수양에 필요한 학과를 교수하였다.²³ 또 스포츠에도 힘을 기울여 안성과 서울의 한성은행 등과 축구, 정구 친선경기를 갖기도 하였다.²⁴ 수원청년구락부는 1920년 7월 25일 제1회 강연회를 열어 장치완(「知識上の飢渴」), 김노적(「우리」), 최상훈(「今日 朝鮮人界의 衛生」), 나홍석(「吾人의 力量과 水原의 發展」) 등이 강연하였다.²⁵ 이 외에도 축구, 정구 등의 스포츠에도 상당한 정열을 가지고 임했다.²⁶

다른 한편 1922년 6월 17일 수원청년구락부와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이 후원하는 조선청년회연합회강연단(朝鮮青年會聯合會講演團)의 강연회가 수원상업강습소에서 개최되어, 고용환(高龍煥: 「時代的 生活」), 김철수(金喆壽: 「世界의 進運」), 정노식(鄭魯湜: 「聯合青年 第3回 總會延期案에 대하여」)이 강연하였다.²⁷ 이로 보아 수원청년구락부는 조선청년회연합회가 표방하던 문화운동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지식의 계발, 체육의 진흥, 풍습의 개선이라는 수원청년구락부의 창립 목표와 조선청년회연합회가 표방했던 7개 강령²⁸이 내용상 일치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상의 활동에서 볼 때 1920년대 초반 수원 지역의 청년단체들은 조선청년회연합회가 내세웠던 문화운동론에 입각하여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다른 지역 청년단체의 경우는 주로 야학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음에 반하여 수원 지역에서는 강연회와 스포츠 등을 통한 문화활동 위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특색이 있다. 이는 아마도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 華城學院)와 삼일학교³⁰라는 비교적 대규모의 무산아동 교육기관이 지역 내에 존재하였기 때

23 『동아일보』, 1921년 12월 21일.

24 『동아일보』, 1921년 6월 20일; 『동아일보』, 1921년 6월 29일; 『동아일보』, 1921년 9월 21일 참조.

25 「青年俱樂部講演會」, 『동아일보』, 1920년 7월 30일.

26 「水原遠征軍安城行」, 『동아일보』, 1921년 6월 20일; 「水原蹴球團來安」, 『동아일보』, 1921년 6월 29일; 「漢銀庭球團慘敗」, 『동아일보』, 1921년 9월 21일 등을 참조.

27 「聯合會講演團來水」,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

28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사회를 혁신할 사」, 「세계의 지식을 광구할 사」, 「건강한 사상으로 단결할 사」, 「덕의를 존중할 사」, 「건강은 증진할 사」, 「산업을 진흥할 사」, 「세계문화에 공헌할 사」의 7개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我聲』 제1호, 86~87쪽; 『동아일보』, 1920년 7월 15일).

29 조선청년회연합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안건호, 「조선청년회연합회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8, 1995 참조.

30 삼일학교는 1903년 이하영(李夏榮), 임면수(林勉洙), 나중석, 차유순(車裕舜), 최익환(崔翼煥), 홍건표(洪建杓), 이성익(李聖儀), 김계구(金濟九) 등이 설립하였다(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1968, 34~37쪽).

문이 아닌가 한다.³¹ 물론 이 학교들이 초기 청년단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학교들의 발기인이나 교사들은 각각 수원엠플청년회와 수원청년회, 수원청년구락부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다. 수원상업강습소는 1909년 양성관(梁聖寬), 홍건섭(洪健燮), 홍민섭(洪敏燮), 김흥선(金興善), 신준희(申駿熙) 등이 중심이 된 수원상업회의소에서 설립하였으나 1926년 홍사훈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경영하였다.³² 특히 홍사훈은 수원청년회의 회장을 비롯하여 수원청년구락부의 이사 등 초기 청년단체의 지도적인 인물 이었고, 교사로 있던 최상훈 역시 수원청년구락부의 학예과장이었다. 그리고 삼일학교는 수원종로교회 내에 위치하였는데, 종로교회는 미국 북감리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따라서 종로학원 내에 설립된 삼일학교의 교사진은 수원엠플청년회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2. 청년단체의 혁신과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1) 청년단체의 혁신

청년단체의 ‘혁신’이 이루어진 시기는 대략 1923~1924년경이다. 그리고 그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을 회장제에서 집단지도체제인 위원제 혹은 간사제로 변경하여 신진 청년층이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층과 청년층 사이의 대립을 반영하여 회원의 연령을 제한하며, 기존 강령을 사회주의적 지도 이념으로 변경하여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청년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³³

수원 지역에서도 이 시기에 청년단체의 혁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내용은 일반적인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시기 수원 지역에서 창립된 청년단체로는 갑자단(甲子團 : 1924년 조직)과 팔탄청년회(八灘靑年會 : 1923년경 조직),³⁴ 정남청년회(正南靑年會 :

31 삼일학교는 1911년 현재 전체 학생수가 400여 명이었고 화성학원은 1927년 현재 전체 학생수가 430명에 이를 만큼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였다(「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4)」, 『동아일보』, 1927년 1월 17일).

32 일제하 수원 지역에서 수원상업강습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컸다. 특히 삼일학교가 기독교세력이 중심이 된 학교라면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는 수원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토착 유지층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학교로 이후 수원 지역민의 열렬한 성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에 수원 지역의 유지 40여 명이 화성학원유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1만 235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였던 것이다(「萬餘圓基本金어든 華城學院曙光」, 『동아일보』, 1930년 1월 23일). 그리고 삼일학교와 수원상업강습소의 교사는 수시로 교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김세환, 김노적, 정준화 등의 이름을 수원상업강습소와 삼일학교의 교사 명단에서 볼 수 있다.

33 이준식, 『농촌 사회변동과 농민운동-일제침략기 함경남도의 경우』, 민영사, 1993;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이애숙, 「1920년대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1924년 8월 27일 창립), 혁화청년회(革華靑年會 : 1924년경 조직), 혁성단(革成團 : 1926년 창립) 등이 확인된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 성호면 오산에서 15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혁성단만이 수원 지역 유일의 사상단체³⁵였던 것으로 보아 수원 지역에서는 이 시기가 되어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년단체가 조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1926년 말에서 1927년 초반 시기에 사회주의가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 비하여 수원 지역은 이 시기가 되어야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성장이 여타 지역보다 늦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수원 지역에서 사회주의가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기는 1928년에 수원청년동맹을 조직하면서부터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수원 지역의 유지층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수원 지역의 유지들은 삼일학교나 화성학원 등 지역사회의 무산아동 교육기관에 거액을 기부하고 경영을 통해 이미지를 조작해 나갔다. 예를 들면 양성관과 강석호 같은 이는 삼일학원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었고, 나중석은 토지 900평을 기증하였다.³⁶ 그리고 홍사훈은 화성학원을 경영하였는데, 화성학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1930년 1월 16일 화성학원유지회가 설립되었다.³⁷ 이 중 확인 가능한 인물들의 성향을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화성학원유지회원의 성향

이름	학력	활동	비고
홍사훈	보성중학 중퇴,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 졸업	수원청년회장,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장,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수원체육회	수원 지역의 3대 지주, 용수흥농주식회사 취체역, 만종원 대표이사, 1933년 마름 폐지, 수릉수리조합장, 경기도평의원
양성관	명륜학교 졸업	수원상업강습소 설립 주도, 상무사 도중,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수원전기회사 취체역, 수원금융조합장, 적십자사 유효회원	수원 지역의 3대 지주, 화성흥산주식회사 대표
차유순		기호흥학회원, 삼일학교 설립촉성회위원	수원 지역의 3대 지주
윤윤희		수원상업강습소 교사, 수원실업협회 상의원	
박선태	휘문고등보통학교 졸업	구국민단 주도,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상업강습소 보조교사, 수원실업협회 상의원, 수원체육회	
김세환	한국외국어학교, 일본중앙대	수원상업강습소 교사, 삼일학교 교사, 수원실업협회 상의원, 수원체육회장	3·1운동 48인 중의 1인

34 『동아일보』, 1923년 12월 27일.

35 「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7)」,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36 김세환, 『삼일학원육십오년사』, 1968 참조.

37 「萬餘圓基本金어든 華城學院曙光」, 『동아일보』, 1930년 1월 23일.

이름	학력	활동	비고
윤태인	수원상업강습소 졸업		수원면협의원
이성의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삼일학교 설립축성회 위원, 삼일학교 교사	
최익환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삼일학교 설립축성회 위원, 상무사 도중	수원면협의원
김병호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기자동맹, 삼일학교 교사, 수원체육회	
차재운	삼일학교 졸업	수원읍의원	경남주조주식회사(1928년 10월), 소화직물 공장(1938년), 조선염직공장 대표
김행권		수원청년동맹, 수원체육회	해방 후 수원시축구협회장
최 송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간사원	
이각래		신간회 수원지회장	
엄주철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장, 수원유치원 설립발 기위원회 실행위원	
권대동		수원실업협회 상의원, 수원동화의원장	남양민립의원에 부임
홍사헌		수원실업협회 평의원	
박경근		수원실업협회 평의원	합자회사 수원정미소 대표
이완선		수원실업협회 평의원, 수원유치원설립발기 회 실행위원, 수원체육회	수원면협의원, 운곡의원장, 수원중등학교기 성회 상임이사
차태익		수원유치원설립발기회 실행위원	
홍철후			삼정흥업주식회사 대표(1934년 9월 창립)
홍사선		수원체육회	수원면협의원, 주식회사 만종원 대표(1932 년 1월 창립)
안영태			수원정미소 대표(1917년 9월 창립)
안거복			거복상회 대표

그리고 수원 지역 유지들은 1925년에 조직된 수원구제회³⁸를 통해 무산대중 및 불우 노인에 대한 구호활동, 그리고 사음(舍音) 혁파와 소작인조합(小作人組合)³⁹을 통해 농민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 농민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나홍석이 조선소작인상조회 수원지회의 회장으로서는 이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농민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의 주도권 확보가 늦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자가 청년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

38 「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7)」,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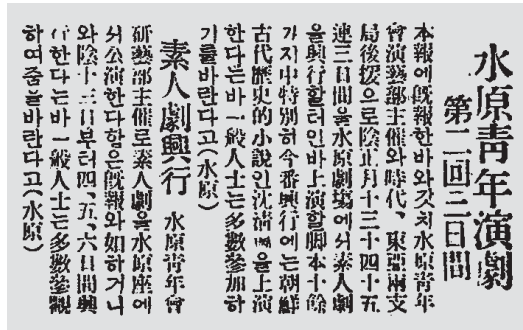
39 「舍音制全廢코 作人組合設置」, 『조선중앙일보』, 1933년 9월 12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1926년 무렵 수원 지역 최초의 사상단체인 혁성단이 조직되었고, 공석정이나 조명재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청년단체 내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청년단체의 활동은 이전 시기보다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수원엠플청년회는 1923년 5월 12일 소학생을 대상으로 현상토론회(懸賞討論會)를 개최하였고,⁴⁰ 1925년

12월 3~4일 양일간 교화영화대회(敎化映畫大會)를 개최하고자 하였다.⁴¹ 한편 수원학생친목회(水原學生親睦會)에서는 1924년 6월 21일 수원상업강연회(水原商業講演會)를 개최하였는데, 김강성(金將星)이 「사선(死線)으로 향하는 우리」, □윤범(□允範)이 「학생은 노력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⁴² 그리고 수원청년회에서는 1924년 단오절을 기하여 소인극(素人劇)을 공연하기로 하였으나,⁴³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24년 6월 8~9일 양일간 수원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공연은 현대 무산자의 상태를 연출하여 관중에게 감동을 주어 동정금 65원이 모금되었고 3명이 금일봉을 내기도 하였다.⁴⁴ 그리고 1925년에는 수원청년회 연예부(演藝部) 주최와 시대일보사 수원지국과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후원으로 심청전을 공연하였다.⁴⁵ 또한 1926년 2월 20일에는 기호가투대회(畿湖歌鬪大會 : 노래자랑)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⁴⁶ 그리고 오산에서 조직된 갑자단은 그 목적을 교육 보급에 두고 있었다.⁴⁷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유지층은 여전히 지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수원청년회의 활동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지층은 이전 시기보다 사회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926년에 혁성단과 같은 사회주의단체가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수원청년회 주최로 공연된 연극 「심청전」(『동아일보』, 1925년 2월 7일)

40 「少年懸賞討論會」, 『조선일보』, 1923년 5월 15일.

41 「엠플靑年主催 敎化映畫大會」, 『시대일보』, 1925년 11월 29일.

42 「學生親睦會講演」, 『시대일보』, 1924년 6월 25일.

43 「靑年素人劇」, 『시대일보』, 1924년 5월 26일.

44 「水原素人劇大會」, 『조선일보』, 1924년 6월 13일.

45 「水原靑年演劇 第二回 三日間」, 『동아일보』, 1925년 2월 7일.

46 「畿湖歌鬪大會盛況」, 『조선일보』, 1926년 2월 23일.

47 「甲子團組織」, 『조선일보』, 1924년 8월 26일.

시기 수원 지역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청년단체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원청년동맹의 결성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원 지역에서는 1920년대 중반까지도 사회주의세력은 지역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였고 사회운동도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26년에 혁성단이 조직되었고, 양감면의 반도청년회, 오산의 사-ㄴ청년동맹, 북진청년회, 발안의 발안청년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반도청년회 회장인 박승극과 사-ㄴ청년동맹의 공식정은 사회주의자로서 이후 수원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또한 사-ㄴ청년동맹⁴⁸은 수원 지역의 유일한 사상단체인 혁성단과 합동간친회를 개최⁴⁹한 것으로 보아 역시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수원 지역에서도 1926년 무렵에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단체나 인물들이 청년단체의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서 지역사회운동의 중심적인 위치로 성장하여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원 지역에서는 1927년 말부터 1928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수원청년동맹을 조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즉 1928년 1월 28일 진위·포천·오산·발안 등지의 청년운동가들이 모여 수원청년운동자간담회(水原靑年運動者懇談會)를 개최하였는데, 이 간담회에서 오산의 사-ㄴ청년동맹과 양감면의 반도청년회, 성호면의 광활청년회 등이 청년동맹을 조직하고 수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⁵⁰ 그리고 1923년 이래 침체상태에 빠져 1928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유명무실해진 수원청년회가 1928년 5월 15일 화성학원에서 3년 만에 전 회장인 홍사훈의 사회로 임시총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충(申忠), 상무위원에 권순증(權舜曾)을 선출하고 회원의 연령을 17~30세로 제한하였다.⁵¹ 이와 같이 회원의 연령 제한과 위원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1928년이였다. 이는 곧 사회주의적 성향의 신진 청년층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원청년회를 부활한 것은 수원청년동맹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수원청년회에서 1928년 8월 4일 수원군청년동맹준비위원회(水原郡靑年同盟準備委

48 사-ㄴ청년동맹은 오산의 성호면에 있던 갑자단과 혁화청년회가 1927년 봄에 합동하여 성립한 단체이다(「停車場 近處부터 日人이 蠶食(7)」,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49 「烏山靑年同盟 執行委員會」, 『조선일보』, 1927년 2월 8일.

50 「新年懇談 水原靑年들」, 『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51 「水原靑年復興」, 『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水原青年들 水原青年運動者懇談會는豫定한바와가리지
 廿八日下午三時에水原城內永樂館에서 멀리振威、抱川、烏山發安等地로부터參與한青年十餘人이한자리에모히먼저主催者인烏山에서青年同盟의孔錫政氏의開會辭를비롯하여楊甘而半島青年會의朴勝極氏의意味深長한現下朝鮮青年運動과水原青年運動의感想談을한後水原青年運動의未來方針에對하여는現在存立하여잇는楊甘半島青年會、烏山에서青年同盟、城湖而細教里光活青年會等으로하여금青年同盟을組織케한後水原에支部를두는것이조작다는意見이多數이엇다그러나警察當局에서青年運動懇談會와許諾하고青年運動에對한具體的方針과決議는絕對許諾치못한다는條件付로集合의許諾을바든主催側注意로何卒의緊張味가엄시곳食卓에나아가意味깊은우숨으로閉會하였다더라(水原)

수원청년운동자 간담회 개최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1월 31일)

員會)를 조직하여 간부 전원이 준비위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⁵² 그리고 1928년 7월 7일에는 제5회 정기대회를 열어 하계 소인극·강연·아동 강연 개최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는데, 회칙 개정에 관한 문제로 갑론을박이 있었다.⁵³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부흥 당시 임시 총회의 사회를 홍사훈이 보았다는 점, 회칙 개정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는 점과 앞에서 본 수원청년회 부흥 당시 집행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우성규(禹聖奎)와 최신복(崔信福)이 즉석에서 사임하였다는 점이다.⁵⁴ 특히 홍사훈이 부흥 총회에서 사회를 보았다는 것은 청년운동의 주도권이 초창기의 유지층 혹은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신진 청년층으로 비교적 순탄하게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신충, 권순증, 정광수(鄭光秀), 공석정(孔錫政), 이용성(李用成)과 같은 인물들이 새로이 지도적인 인물로 등장할 수 있었고 회원의 나이

水原青年同盟
 組織準備委員會
 水原青年會에서는오래前부터水原青年都同盟을組織하고자幹部들이쉬지안고活動해오든바지난四日下午九時華城學院에서第一次水原青年都同盟組織準備委員會를權順曾氏司會로開會하고그동안지내인經過報告가잇은後準備委員으로는現在青年會幹部七人이全部委員으로되엇스며同時에都同盟組織大會를來十二日로定하고各委員은그안에都內各青年團體를歴訪하게되어南陽發安等地로出發한다더라(水原)

수원청년동맹조직준비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28년 8월 8일)

52 「水原青年同盟 組織準備委員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8일.

53 「水原青年定總」, 『동아일보』, 1928년 7월 11일.

54 「水原青年復興」, 『동아일보』, 1928년 5월 18일.

제한문제도 큰 무리 없이 결정될 수 있었다.

특히 권순증은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1935년 사노 마나부(佐野學) 탈환계획사건의 주요 인물로 체포되어 도쿄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⁵⁵ 그는 1929년 11월경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수원청년동맹의 집행위원직을 사임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그는 곤도(近藤博), 다나베(田部), 이석영(李錫榮) 등의 별명을 사용하면서 전협관동자유노동조합(全協關東自由勞動組合)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⁵⁶ 그는 1932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6월에 도쿄시위원회 고토지구 조직원이 되었다. 7월에는 상부의 명을 받아 사노 마나부의 탈환을 위한 특별행동대 5명을 선정하고 권총 구입비용 580원을 교부받아 준비하던 중에 체포되었던 것이다.⁵⁷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원 지역의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 사이에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주의적 성향의 우성규가 사임하였다고 생각된다. 수원청년회의 새로운 지도자들 중 이후의 활동으로 보아 공석정과 권순증은 사회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운동 방향과 신충, 정광수, 이용성 등의 운동 방향이 대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1928년 5월 25일 수원청년회의 회장 신충을 비롯한 간부 6명이 수원경찰서에 검거되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본 1928년 임시총회 때에 채택한 선언과 강령이 이전의 그것과 다르며 선언문 중 “조선 민족의 ○○(자주: 인용자) 권을 획득”이라는 문구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신충은 “그 뜻을 넓게 해석하면 ○○○○(조선독립: 인용자)을 얻기까지”라는 대답을 하였던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⁵⁸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회칙 개정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군 단위 청년동맹의 조직 이후 기존 청년회는 청년동맹의 지부 또는 지회로 흡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원 지역에서는 발안청년회와 수원청년동맹준비위원회의 주력단체인 수원청년회가 수원청년동맹의 창립 이후인 1929년까지도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청년동맹에 흡수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안청년회는 1929년 10월 3일부터 노동야학을 개최하여 조선어, 국어(일본어), 산술 등을 교수하였다. 이로 보아 사회주의세력의 확대·강화에 대하여 유지세력이 대항하여 이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서 서술하듯이 청년동맹이 일제의 탄압으

55 「佐野學奪還の權舜會 5年役」, 『동아일보』, 1935년 1월 15일.

56 「全協關東自由勞動組合所屬鮮人と日本土木建築勞動組合東京支部結成との關係」, 『特高月報』, 1931년 4월, 369쪽.

57 『재일조선인관계집성』 2(1)권, 446쪽(국가보훈처 공훈사료관에서 인용).

58 「水原靑年會의 幹部突然檢舉」, 『동아일보』, 1928년 5월 29일.

로 조직되지 못했을 때 수원청년회와 발안청년회는 청년동맹조직준비위원회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갈등은 수원청년동맹운동장 사용문제에서 크게 드러났다. 즉 1929년 8월 30일 김세환을 위원장으로 하여 창립⁵⁹된 수원체육회에서는 같은 해 9월 28일 수원시민대운동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⁶⁰ 그러나 체육회가 운동회 장소로 수원청년동맹운동장을 청년회의 양해 없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단지 체육회에서 우리 회의 운동장을 빌어 시민운동회를 한다면 별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는 **우리 사회단체와 실질상 다른 것뿐만 아니라 본회에서 아무 허락도 없이** 사용한다는 것을 자의 광고한 것은 잘못이지요. 더구나 동회의 중요 간부이고 전자 청년회에도 묵은 책임을 가지고 있던 **모씨는 우리들 단체의 운동장 소유권까지 박탈하려던 야심이** 발로되었음으로 실상은 그것이 큰 문제(강조는 인용자)…….⁶¹

이로 보아 수원청년동맹운동장 사용 문제는 첫째 운동장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 둘째 운동장 사용의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 셋째 체육회와 청년동맹의 성격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성격 문제는 이 시기 수원 지역 청년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던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기존의 유지층 혹은 민족주의세력의 저항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원체육회의 회장인 김세환을 비롯하여 부회장인 박선태, 이사인 김병호, 홍사훈, 이완선, 홍사선 등 간부진⁶²의 성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노선 차이에서 운동장의 소유권 문제를 체육회 측에서 제기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문서에 따르면 수원청년동맹은 1929년 6월 9일 조직되어, 수원군 수원면 산루리 101번지에 사무실을 두었다.⁶³ 수원청년동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조선 청년 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59 「水原體育會 創立大會」, 『조선일보』, 1929년 9월 7일.

60 「水原에서 市民大運動會 體育會 主催로」, 『조선일보』, 1929년 9월 17일.

61 「水原靑年會運動場 使用紛糾後報 체육회 정식교섭으로 사용허락」, 『조선일보』, 1929년 10월 14일.

62 수원체육회의 간부진은 최소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표 1>에서 확인되듯이 이들은 지역사회의 유지층으로서 화성학원유지회와 수원실업협회에 참여한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졌거나 현실주의적인 성향의 인물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63 「附表, 重ナル團體表」, 『昭和9年3月 治安情況』(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승극(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 조선 청년 대중의 의식적 교양 및 훈련의 철자를 기함.

1. 조선청년 대중의 견고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⁶⁴

그러나 수원청년동맹이 순탄하게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즉 수원청년회에서는 권순증을 각 면과 리의 청년회에 파견하여 1928년 8월 12일을 수원청년동맹의 창립대회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수원경찰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창립대회를 열지 못했다가,⁶⁵ 1929년 6월 9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박승극(朴勝極)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⁶⁶ 그런데 조선총독부 문서에는 6월 9일이 창립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이날을 임시총회라 한 것이다. 이날이 임시총회라면 수원청년동맹은 1929년 6월 9일 이전에 조직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 발굴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청년동맹은 가맹금과 춘추기 회비로 운영되었다.⁶⁷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6월 9일 임시총회에서 오산청년동맹이 조선청년총동맹의 조직원칙인 1군 1동맹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스스로 해체한 후 수원청년동맹이라 개칭한 점이다.⁶⁸ 하지만 오산청년동맹이 수원청년동맹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수원청년동맹 지부로 가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원청년동맹으로 개칭한 직후 오산청년동맹이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로 개편되었기 때문이다.⁶⁹ 그러나 일제는 수원청년동맹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 권순증이 단순히 실업자라는 명목으로 구류 25일에 처해지기도 하였다.⁷⁰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창립대회일인 8월 12일에는 준비위원 10명 중 2명만이 출석하여 청년동맹이 조직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양감청년회(陽甘靑年會), 정남청년회(正南

64 「附表, 重ナル團體表」, 『昭和9年3月 治安情況』(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65 「交渉委員檢束 水原靑盟流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14일.

66 「水原靑盟大會」, 『동아일보』, 1929년 6월 13일.

67 「附表, 重ナル團體表」, 『昭和9年3月 治安情況』(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

68 「水原靑盟大會」, 『조선일보』, 1929년 6월 12일.

69 「水原靑年同盟 城湖支部創立」, 『조선일보』, 1929년 6월 12일.

70 「袖垣靑盟大會」, 『동아일보』, 1929년 6월 13일.

青年會), 인쇄공친목회(印刷工親睦會), 고등리청년회(高等里青年會) 등의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⁷¹ 이렇게 볼 때 이 단체들은 수원청년동맹의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원청년동맹은 당시 활동하고 있던 수원 지역 청년단체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수원청년동맹의 조직 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과 협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조선청년총동맹이 1927년에 채택한 ‘신운동방침’⁷²을 수용했고, 현실적으로도 유지층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수원 지역의 유지층은 한말 대한자강회 남양지회와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수원상업회의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유대감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회원들과 상업회의소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인 삼일학교와 수원상업강습소(화성학원)를 통하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었다. 더욱이 남양 지역은 1908년 일본인 금융조합 이사인 이로카와(色川元市)가 “이곳 지방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극히 악질로 배일사상이 가장 격렬한 곳이며 해안으로 남양반도의 전면에는 대부도를 주로 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있어 폭도가 잠복하거나 총기 등을 몰래 옮기기에 아주 편리한 곳이다.”⁷³고 하여 항일사상과 항일운동이 매우 강렬함을 보고한 지역이다. 더욱이 남양 지역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일찍부터 전파되었으며, 대한자강회 남양지회가 조직되어 활동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지역 정서 역시 의병운동과 애국계몽 계열의 항일운동정신을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유지층 혹은 민족주의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 생각된다.

이후 수원청년동맹은 1929년 8월 25일 제1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집행위원장에 박승극⁷⁴을 선출하는 한편 서무부장 엄익홍(嚴翼鴻), 재무부장 김행권, 교양부장 권순중, 조직부장 황응선, 조사부장 홍경춘, 여자부장 이연적(李年積), 소년부장 김도생(金道生), 체육부장 이용성(李容成), 감사위원장 공석정, 번기재⁷⁵를 선출하고 ‘조선청총집회 해금(解

71 「交渉委員檢束 水原靑盟流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14일.

72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에 대하여는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73 「남양관계서류(南陽關係書類)」(卍 22048).

74 박승극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 권영미, 「박승극의 문학연구」, 『수원문화사연구』 6, 2004;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제인식」, 『숭실사학』 22, 2009.

75 번기재는 1902년생으로서 오산공립학교를 졸업하고 인천공립상업학교에 입학했으나 학비난으로 1년 만에 중도퇴학하고 1925년 7월경 상경(渡日 : 인용자)하여 신문배달을 하면서 고학(苦學)하다가 1927년 4월 조선으로 돌아와 1928년 4월경부터 조선일보사 오산지국장이 되고 환성운송점오산영업소(丸星運送店烏山營業所)에 취직하였다.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 집행위원, 수진농민조합원으로 지역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邊基在에 대한 判決文」, 소화 7년 刑控 제519호).

禁)의 건'과 '사립교육기관협의동맹 축성(促成)의 건' 외 2개항을 결의하였다.⁷⁶ 같은 해 11월 9일 제3회 집행위원회에서 권순중의 사임원을 수리하는 한편, 신충(申忠)을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서무부장 김도생, 재무부장 강덕중(姜德仲), 교양부장 신충, 조직부장 엄익홍, 여자부장 이연적, 소년부장 홍경표(洪景杓), 체육부장 이용성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각 부의 부원으로 한창수(韓彰洙), 임범진(林凡辰), 홍정헌(貞憲), 장주문(張柱文), 이□□(李□□), 조명재(趙明載), 김행권(金幸權) 등이 선임되었다.⁷⁷ 그런데 1931년 조선총독부의 문서에 따르면 역원으로 박승극, 박해병(朴海秉), 장주문, 변기재, 이용성 등으로 되어 있어 창립 초기의 주요 간부진이 대체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시기 수원청년동맹에서 지역의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들이 점차 사회주의적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3. 수원청년동맹의 활동과 해소

1) 지부 설치 활동

이상과 같이 조직된 수원청년동맹은 1929년 7월 21일의 제1회 집행위원회에서 박승극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군내 고립 청년단체에 관한 건 등 8개 항을 결의⁷⁸하면서 단위의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 성호(城湖)지부, 양감(陽甘)지부, 오산(烏山)지부, 수원지부 등을 설치하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호지부는 1929년 6월 9일 창립되었으며, 수원지부는 1929년 8월 25일 정기대회 직후 표덕중(表德仲)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창립되었다.⁷⁹ 그러나 지부 설치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면서 일제의 탄압도 강해졌다. 즉 양감면지부의 경우는 일제의 집회 금지로 지부 설립이 늦어졌다. 반도청년회는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로 전환을 결의하고⁸⁰ 1928년 9월 1일 이를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제가 수원청년동맹 창립대회를 금지하자 양감청년회(楊甘靑年會)로 개칭⁸¹하여 활동하였다. 그 후에도 일제의 탄압은 지속되어 양감청년회가 경영하

76 「水原靑盟定總 지난 이십오일」, 『동아일보』, 1929년 8월 29일; 「水原靑年同盟 定期大會」, 『조선일보』, 1929년 8월 28일.

77 「水原靑盟執行委員會」, 『중외일보』, 1929년 11월 15일.

78 「水原靑盟委員會」, 『조선일보』, 1929년 7월 24일.

79 「水原靑年同盟 水原支部設置」, 『조선일보』, 1929년 8월 28일.

80 「半島靑年定總」, 『동아일보』, 1928년 8월 17일.

81 「半島靑年臨總」, 『동아일보』, 1928년 9월 9일.

던 노동강습회(勞農講習會)를 적화선전(赤化宣傳)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였다.⁸² 그리고 1929년 11월 9일 집행위원회에서 양감지부의 설치를 결의하였고,⁸³ 26일 설치하고자 했던 양감지부의 설치대회도 역시 금지하였다.⁸⁴ 그러다가 1930년 3월 20일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가 장주문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되었다.⁸⁵ 그리고 반(班)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⁸⁶ 또한 일제는 수진농민조합 양감지부의 설치도 역시 금지하였다.⁸⁷

이와 같이 일제가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의 설치를 방해한 이유는 첫째, 양감면은 수원 지역에서도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고, 둘째, 당시 양감면근검저축조합의 분규 문제⁸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양감면은 수원청년동맹위원장인 박승극이 출생한 지역이었고, 이미 1927년경에 반도청년회(양감청년회로 변경)가 조직되어 노동강습회를 운영하는 등 청년회의 활동이 활발하였던 지역이었다. 더욱이 박승극은 ‘매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1928년 7월 니혼(日本)대학 예과 1년을 중퇴하고 귀향하여 이원섭(李元燮), 장주문 등과 함께 선문리에 신흥학당(新興學堂), 용소리에 대화의숙(大化義塾), 사창리에 보신강습소(普信講習所)를 설치⁸⁹하여 무산교육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반에서 박승극은 양감면에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양감면지부의 창립을 극력 방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수원청년동맹의 지부 설립을 모두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1929년 6월 1일 오산청년동맹은 임시총회를 열어 동맹의 명칭을 수원청년동맹 오산지부로 변경하였던 것이다.⁹⁰ 그리고 설립시기는 알 수 없으나 수원지부와 성호지부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호지부는 1929년 11월 14일 제3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남반(正南班) 조직의 건’ 외 3개 항을 결의하였다.⁹¹ 이로 보아 수원청년동맹은 리 단위의 반조직이 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2 「楊甘青年經營의 勞農講習禁止」, 『중외일보』, 1928년 11월 7일.

83 「水原 各團體 委員會 開催」, 『조선일보』, 1929년 11월 14일.

84 「水靑楊甘支部 設置大會禁止」, 『동아일보』, 1929년 11월 26일.

85 「水原靑盟 楊甘支部設立」, 『중외일보』, 1930년 3월 25일. 양감지부는 서무계정부(崔海潭), 조직선전부(韓彰洙), 교양부(金觀培), 조사연구부(李鍾宜), 소년부(韓彰洙), 체육부(郭錦錫)와 반책임자(韓彰洙, 郭錦錫, 金贊鉉), 대의원(韓彰洙, 金聖培, 崔海潭, 張柱文)을 두었다.

86 「水原靑盟 楊甘支部大會」, 『중외일보』, 1930년 8월 20일.

87 「동아일보」, 1930년 10월 12일; 「水振農民組合 楊支設置禁止」, 『조선일보』, 1930년 10월 12일.

88 「水靑楊甘支部 設置 禁止」, 『조선일보』, 1929년 11월 26일.

89 水警高秘 第4782號,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關한 件」, 소화 6년 12월 28일(金旻一 編, 『韓國民族運動史資料集』 4).

90 「烏山靑盟臨總」, 『중외일보』, 1929년 6월 4일.

91 「水靑城支委員會」, 『조선일보』, 1929년 11월 19일.

이상과 같은 지부 설치의 활동과 함께 수원청년동맹은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수원청년동맹은 1930년 3월 8일 집행위원회 내에 상무집행위원회(常務執行委員會)를 설치하였다.⁹² 이후 수원청년동맹의 제반 사항은 상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부가 조직되지 않은 면에는 순회위원을 파견하여 지부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순회위원으로 안릉면·일형면에는 신충·황응선, 우정면·팔탄면에는 이덕곤·김도생·□□, 양감면에는 박승극·장주문이 선출되었다.⁹³ 그러나 이들 순회위원이 파견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수원청년동맹의 지부가 설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일반적인 활동

수원청년동맹은 자체적으로 야학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오산지부에서는 오산노동야학원을 운영하였으며,⁹⁴ 양감지부에서도 야학원 유지를 계획하였고,⁹⁵ 집행위원인 김도생(金道生)과 박봉득(朴鳳得)은 화성학원의 교사를 역임하였다.⁹⁶ 오산지부가 운영한 노동야학원의 운영 목적은 무산 농민 및 노동자의 자제들을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적 교양을 베풀어 계급투쟁 의식을 주입하여 공산주의운동의 투사로 양성하는 데 있었다.⁹⁷ 즉 공산주의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의식분자, 투쟁분자의 양성이 선결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문자보급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문자보급반을 인수하여 명칭을 ‘노동야학’이라 개칭하고 변기재, 이원식(李元植), 조명재(趙明載), 황경후(黃慶厚), 이수경(李秀經) 등이 교사가 되어 60여 명의 학생을 2개 조로 나누어⁹⁸ 교육하였다.

그리고 상식강좌⁹⁹와 강연회¹⁰⁰의 개최, 문고의 설치¹⁰¹를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하였고, 성호지부에서는 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⁰² 이로 보아 수원청년동맹이 운영하였던 야학이나 강연회 등은 그 내용이 학생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

92 「水原靑盟 定期大會召集 常務委員會組織」, 『중외일보』, 1930년 3월 12일.

93 「水原靑盟 定期大會召集」, 『중외일보』, 1930년 3월 12일.

94 「勞動夜學院에 寄贈」, 『조선일보』, 1930년 9월 8일.

95 「水原靑盟 楊甘支部設立」, 『중외일보』, 1930년 3월 25일.

96 「水原各社會團體員 七十名 一齊檢舉」, 『조선일보』, 1930년 10월 14일.

97 「邊基在에 대한 判決文」, 소화 7년 刑控 제519호.

98 「邊基在에 대한 判決文」, 소화 7년 刑控 제519호.

99 「城湖部臨時總會」, 『동아일보』, 1929년 7월 24일.

100 「水原靑盟 常務會禁止」, 『중외일보』, 1930년 1월 21일.

101 「水靑城湖支部 定期大會開催」, 『조선일보』, 1929년 8월 19일.

102 「畿湖少年庭球 烏山에서 試合」, 『조선일보』, 1929년 8월 7일.

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년동맹의 설치를 통해 소년운동을 지도하고자 하였으며,¹⁰³ 지역민의 일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즉 1930년 8월 16일 양감면 사창리의 김후봉(金後鳳)이 축우검사장에서 황소에게 받혀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개입하여 김후봉에 대한 치료 조치를 요구하였다.¹⁰⁴ 또한 기념일 투쟁도 전개하여 국제청년데이 기념을 계획하였고,¹⁰⁵ 메이데이를 기념하였다.¹⁰⁶

그리고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보였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제1회 정기대회에서 사립교육기관협의동맹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고, 양감지부의 창립대회에서도 사립교육기관 지지를 결의하였다.¹⁰⁷ 이는 화성학원이나 삼일학교를 비롯한 수원 지역의 대규모 사립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야학과 강습소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앞에서 보았듯이 수원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인 김도생과 박봉득이 화성학원의 교사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1년에 있었던 화성학원에 대한 수원청년동맹 운동장의 양도문제는 1934년 수원 지역 사회단체들의 해소가 의결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¹⁰⁸ 결국 운동장을 양도하던 1931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4년이 지난 후에야 사회문제화되었다. 이는 1931년에는 화성학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수원 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적 인물인 박승극이 수원 지역 민족주의 혹은 유지층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홍사훈의 화성학원에 운동장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1928년 7월 홍사훈이 수원청년회부흥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회의 주도권을 신진세력에게 이양한 것과 함께 수원 지역 사회운동세력이 이념을 초월하여 협동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¹⁰⁹ 이를 방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개최된 장소가 화성학원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1931년은 수원청년동맹에서 조선청년총동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즉 수원청년동맹은 노동·농민조합의 청년부로 해소할 것을 주장하는 계급·계층별 조직노선을 추구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1929년 8월 10일에 있었던 수원학생친목회 창립 12주년 기념 육상경기대회에서

103 「水靑城湖支部 定期大會開催」, 『조선일보』, 1929년 8월 19일.

104 「楊甘少年 重傷事件 水原畜組非難」, 『조선일보』, 1930년 9월 26일.

105 「水靑島山支部 月例會禁止」, 『조선일보』, 1930년 9월 13일.

106 「楊甘메테事件 全部釋放」, 『조선일보』, 1931년 5월 12일.

107 「水原靑盟 楊甘支部設立」, 『중의일보』, 1930년 3월 25일.

108 「水原社會團體 完全히 解消」, 『동아일보』, 1934년 9월 8일.

109 특히 홍사훈은 1927년에 실시된 도협의원선거에서 도협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그는 수원청년회의 부흥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회의 주도권을 신진세력에게 이양하였다.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화성학원 운동장(수원고등학교 소장)

발생한 사건은 지역사회의 명망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수원청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노동조합,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등은 경기도평의원인 홍모(洪思勛 : 인용자)가 대회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료배 위원장 아래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원장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주최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회를 보이코트한 사건이다.¹¹⁰ 이 사건은 사회주의세력이 유지 혹은 민족주의세력과 협력하고 있었다는 앞의 주장과 모순이랄 수도 있으나 이는 친일화하고 있는 유지층 혹은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견인의 의미라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원에서는 1930년 3월 29~30일에 걸쳐 양일간 제1회 조선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는데 수원청년동맹에서는 이를 후원하기도 하였고,¹¹¹ 성호지부에서는 경비를 충당하고자 명함인쇄업을 개시하기도 하였다.¹¹² 이로 보아 수원청년동맹의 운영은 그리 원활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청년동맹은 수원소년동맹원

110 「官僚委員長 밑에선 競技할 수 없다고 參加團體 一齊히 退場」, 『조선일보』, 1929년 8월 13일.

111 「水原靑盟 常務執行委員會」, 『중외일보』, 1930년 3월 21일.

112 「靑支名啣商開始」, 『동아일보』, 1929년 9월 5일.

들의 격문사건을 지도했다고 생각된다. 이 격문사건은 수원소년동맹원인 김장성(金長星)과 홍종근(洪鍾根)¹¹³이 화성학원의 운동회 날인 1930년 10월 12일 새벽에 「무산대중(無産大衆)에게 격(檄)함」이라는 격문을 수원 시내의 요지인 팔달문, 수구문(水口門), 조선곡자회사, 수원청년동맹 운동장 등지에 붙인 사건이다.¹¹⁴ 이 격문의 취지는 일제와 지주,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무산대중에게 격함

노동자 농민이여 일치단결하자.

전 민족적 대중투쟁을 꾀기하자.

자본가의 착취에 대해 최후까지 반항하자.

조선총독부 폭압정치를 타도하자.

무산자, 노동자, 농민 만세¹¹⁵

이 사건은 수원 지역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수원청년동맹을 비롯한 수원 지역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화성학원의 교사와 학생들까지 일제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았기 때문이다.¹¹⁶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화성학원의 운동회 날이었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김장성과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인 박봉득이 각각 화성학원의 학생과 교사였기 때문에 화성학원은 조선총독부 경찰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 조선청년총동맹 해소 활동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은 1929년 12월 중앙상무집행위원인 차재정을 비롯한 중앙 간부들이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대검거를 겪으면서 합법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총 산하의 지방단체들과 좌익은 청총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비판·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지에서는 청총의 중앙기관의 개선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30년 12월 14일 경상남도연맹을 시작으로 하여 인천·수원·의주·광주·평양의 청년동맹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첫째, 청년운동의 당면 임무가 변하였으며, 둘째, 청총과 청년동맹의 조직적 결함 때문이었다. 즉 노동조합·농

113 「金長星에 대한 判決文」, 소화 6년 刑控 제90호.

114 「水原各城門에 過激檄文을 貼付」, 『조선일보』, 1930년 10월 13일.

115 「金長星에 대한 判決文」, 소화 6년 刑控 제90호.

116 『조선일보』, 1930년 10월 14일. 「水原各社會團體員 七十名 一齊檢舉」.

민조합의 확대·강화라는 전술적 변화를 겪으면서 청년동맹을 노동조합·농민조합의 청년부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먼저 수원청년동맹은 1931년 1월 24일 청총의 중앙위원 개선문제 때문에 해소를 제의하게 되었다.¹¹⁷ 청총의 중앙위원 개선문제란 1929년 12월 청총의 중앙상무위원이던 차재정을 비롯한 중앙 간부들이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하여 대검거를 당한 후 신임 간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즉 청총은 창립 이래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던 정기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허정숙·차재정·박승극 외 3인을 집회해금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 일제 측과 교섭하였으나 실패하였다.¹¹⁸ 이에 청총은 1930년 11월 중 이른바 전설대회(傳說大會)를 통하여 중앙집행위원장 윤형식, 상무서기 김약천, 추병환을 비롯한 신임 간부를 선출하였다.¹¹⁹ 그러나 신임 간부진은 소위 공민권 획득을 주장한 ‘합법운동파’¹²⁰로서 우경화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원청년동맹을 비롯하여 중앙청년동맹과 인천청년동맹 등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¹²¹ 이에 앞서 1930년 3월 말경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장이 박승극은 함북 경성청년동맹(鏡城靑年同盟)이 제기했던 전국청년동맹대표자소집준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상경하였으나 발기단체인 경성청년동맹의 위원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연기되자 청총과 함북도연맹, 경성청맹(鏡城靑盟)에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¹²² 이 성명에는 장흥청년동맹(長興靑年同盟：金斗煥), 홍성청년동맹(洪城靑年同盟：金在翰), 강계청년동맹(江界靑年同盟：李松奎), 중앙청년동맹(中央靑年同盟：朴晸辰), 김제청년동맹(金堤靑年同盟：朴斗彦), 철원청년동맹(鐵原靑年同盟：林茂山), 전주청년동맹(全州靑年同盟：金文玉), 수원청년동맹(朴勝極)이 서명하였다. 그런데 홍성청년동맹의 김재한은 윤형식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하여 1931년에 성립한 청총 집행부의 핵심간부로서 우경화한 청총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930년 초부터 허일과 윤형식 등이 청총을 합법운동으로 이끌고자 계획했다는 일제의 기록¹²³과 비교하면 김재한이 이 성명에 서명한 것도 청총을 합법운동으로 이끌고자 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던 것이라 하겠다.

117 경기도경찰부, 『치안상황』, 1931년 7월(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 제6권, 441쪽); 「朝鮮靑總의 解消를 提議」, 『동아일보』, 1931년 1월 28일.

118 『동아일보』, 1929년 11월 27일.

119 경기도경찰부, 『치안상황』, 1931년 7월(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제6권, 432쪽).

120 ‘합법운동파’의 운동 논리에 대해서는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121 경기도경찰부, 『치안상황』, 1931년 7월(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제6권, 437쪽).

122 「靑盟地方代表者 聲明書 發表」, 『중외일보』, 1930년 3월 24일.

123 경기도경찰부, 『치안상황』, 1931년 7월(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제6권, 428쪽).

水原社會團體

完全히解消

◇일반관계 회원들은

朴氏의 獨單處理非難

【수원】수원청년동맹(水原靑
靑年同盟)은 지난 2일 소파수원
사에 해산계를 제출하여 청신으로
해체를 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
에 수원노소(水原勞組) 수진동소
지부(水振農組支部) 등 각단체도
해산을 하게 되었다.

이상 해산단체는 소와 5명이
래로 해소를 결정하고 혹은 전체상
래에 있다. 그자 정철담(鄭哲潭)으로
터 청신으로 해산계를 제출하되
청년대표 박승(朴勝修)씨로부
터 무조건으로 해산계를 제출하
자고 한다. 해산된 단체는 다음과 같
다.

一、新幹會水原支部 一、水原勞
組 一、水振農組(本部馬山) 一、
水原靑盟 一、水原少盟 一、水原
出版勞組 一、水原靑盟 一、朝鮮
平壤靑盟水原支部

그런데 일반회원들은 해산대회
를 열어 맹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해
산자 박승씨가 개인으로 해산
계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맹원들은
은 모두 불응을 가지고 있다 한다.

남어지문제

華城學院運動場

수원청년동맹이 청신으로 해소

되는데 따라 당시 화성원(華城
學院)운동장관리문제가 말쑥이
게 되었다. 동화성원은 운동장은
본래 청맹의 소유지였는데 청맹이
동맹이 침체상태에 빠지자 전기와
성하원이 재단법인(財團法人)으
로 되면 영영청맹이 소유권을 포기
하겠다는 조건으로 약 4백원으로
학원에 위임하고 관리권을 선
정하게 된다. 그러케한지 4년이 지
나지나 8월에 학원측에서 2명 청
맹에서 2명 시민회에서 3명 합
7명을 동화청맹 홍사(洪洪勳)
씨와 박승씨가 모이며 내정하
여 노고 하등의 청신조인이었는
데 박승씨가 모진투에 학원측
정장이 말하였다 하야 일반회원
들은 동화관리에 대하여 다시 문제가
연하게 되었다.

수원청년동맹의 해소를 알리는 신문기사(『동아일보』, 1934년 9월 8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윤형식 등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1930년 11월 전설대회의 형식으로 청총을 장악하였다. 이에 수원청년동맹은 1931년 1월 24일 청총의 해소를 주장하였는데 수원청년동맹이 청총의 해소를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¹²⁴

(경남도연맹, 함남북도연맹, 평남도연맹 등에 대하여) 도연맹(道聯盟) 주최로서 청총 간부를 개선하여 청총을 해소하고 노동·농민 단체에 청년부를 설치해서 단체의 확대강화를 도모(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청총의 해소논리는 1931년 초 신간회가 해소되고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이 확대·강화되던 시대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또한 신간회 해소 직전 조직된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에 수원의 박승극과 공석정(孔錫政)이 당선된 것으로 보아 신간회와 청년동맹의 해소에 수원 지역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청년운동이라 하더라도 중앙 차원의 논쟁이나 과벌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성격상 이들은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124 경기도경찰부, 『治安狀況』, 1931년 7월(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제6권, 441~442쪽).

가리지 않고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⁵ 신간회가 해소될 무렵인 1931년에 있었던 수원청년동맹 운동장의 화성학원에 대한 양도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력이 깨어질 시기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세력이 상호 협력하기도 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한편 수원청년동맹 회원들은 수진농민조합의 청년부 산하에 들어가 활동하였고, 집행위원장이었던 박승극은 1931년 수진농민조합이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4. 수원 청년운동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청년단체가 급속히 조직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원 지역에서도 청년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당시의 지적인 풍조 속에서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청년단체는 ‘혁신’을 꾀하게 되며 이는 청년운동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청년단체가 조직되는가 하면 기존의 청년단체에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수원 지역의 경우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청년단체가 최초로 조직되는 시기는 혁성단이 조직되는 1926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늦은 감이 있다. 이는 수원 지역의 유지층 혹은 민족주의세력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들에 의하여 주도된 청년단체의 활동이 1920년대 초반의 경우보다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회주의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1929년에는 군 단위 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이후 청년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 수원 지역의 청년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초반 수원 지역의 청년단체는 지식인, 지주, 상공인, 종교인 등이 주도하였고, 이들은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청년운동은 주로 교육과 강연회 등을 중심으로 한 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1924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서서히 청년단체의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1926년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

¹²⁵ 이와 관련하여서는 김일수의 연구(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와 이애숙의 연구(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한 청년단체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군 단위 청년동맹의 조직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은 1928년 중반에야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지층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세력 혹은 현실 순응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여타 지역보다 강했던 지역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사회주의세력의 늦은 성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청년단체의 혁신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였던 유지층과 청년층의 대립과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회주의자들이 조선청년총동맹의 조직원칙을 수용하면서 민족주의자들과 대립하지 않으려 하였다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개화운동이나 의병운동의 흐름을 이어받은 지역사회 유지층의 활발한 사회활동의 결과 민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년회 혁신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연령 제한과 회장제에서 위원제로의 변경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넷째, 중앙에서 전개되었던 논쟁이나 파벌투쟁이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도 수원 지역에서는 화성학원에 대한 수원청년동맹운동장의 양도와 같은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협력이 제한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이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군(동맹)-면(지부)-리(반)으로 이어지는 청년동맹의 조직체계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정남반의 조직에서 볼 수 있듯이 면 단위의 반조직이 설치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이 지역의 조건에 맞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조은정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1.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설립
2.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활동
3.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
4.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작품



제4장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1.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설립

1929년 4월 23일 오후 7시 “수원군 내에 흩어져” 있던 프로레타리아 동인들은 수원신간 회관에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를 설립하였다.¹ “흩어져 있던 프로레타리아 동인”이란 철원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오산 사-르 청년동맹에서 1927년 10월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공석정(孔錫政), 1928년 일본에서 돌아와 양감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승극(朴勝極)의 연합을 의미한다. 수원청년동맹은 1929년 1월경 조직되었지만 8월 12일로 예정된 창립대회를 열지 못한 채 6월 9일에 임시총회를 열었으므로,²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설치에 수원의 청년단체들을 규합하여 청년운동을 확대해 가는 조직의 결실인 것이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은 프로레타리아 예술을 무기로 1925년부터 1935년까지 활

1 「푸로예술동맹 수원지부설립」, 『동아일보』, 1929년 4월 27일.

2 조성운, 「1920년대 경기도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52쪽.

동한 사회예술운동 단체이다. 목적은 “부르주아 예술을 배격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고, 일반대중에게 대해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의식분자를 교양하고, 투사를 양성하고, 궁극에 있어서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사회 실현”이었다. 강령은 “우리는 무산계급 운동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고로, 무산계급 운동의 일부분인 무산계급 예술운동에 의해 봉건적 자본주의적 개념을 철저히 배격하고 전제적 세력과의 항쟁과 의식층의 양성운동의 수행을 기함”이었다.³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최초 구성원은 22명이었고 지도부는 김복진, 김기진, 이량, 박영희, 최승일, 안석주, 김정태 등이었으며 강령은 “우리는 단결로써 여명기에 있는 무산계급문화의 수립을 기함”이었다.⁴ 이는 송영, 이적효, 이호, 박세영, 김홍파 등의 염군사(焰群社)와 김복진, 김기진, 박영희, 이상화, 이익상, 김석송, 안학년, 안석주 등이 자신들의 이름이니셜을 따 파스큐라(PASKULA)라고 명명한 문학 중심 단체를 규합하여 만들었다. 염군사는 운동성이 강한 집단이었고 파스큐라는 일본 유학생들의 문학과 연극 단체인 토월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파스큐라가 지닌 예술과 효용에 대한 사상은 염군사와 결합되어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최초 기관지 『문예운동』의 집필을 맡은 것도 파스큐라 동인이었으므로,⁵ 조직을 이끌고 이념을 제공한 이들이 파스큐라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조선공산당 소속이었던 김복진은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이념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고 조직 구성에도 주요한 위치였다.⁶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1925년 8월 발족 당시부터 문학성이 강한 조직으로서, 선전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프롤레타리아예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미술부문의 활동은 문학에 비해 미미하였다. 각종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출판이나 등사 등을 통해 다소 사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학과 달리, 미술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각적 이미지의 특성 때문에 전시장 같은 공론의 장소에서 대중과 접촉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7년 이른바 후쿠모토주의(福本主義)에 영향을 받아 추진된 제1차 방향 전환 이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지부 구축에 주력하였고, 내용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드러내었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노선을 선회한 10월에 도쿄지부를 설립하고

3 「신건설 사건 1심 판결」, 『동아일보』, 1935년 12월 9일(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317쪽 재인용).

4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동아일보』, 1926년 12월 27일.

5 키다 에미코, 「한·일 프롤레타리아미술운동의 교류」,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140~141쪽.

6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에서 김복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윤범모, 『김복진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기관지 『예술운동』을 발간하였다. 『예술운동』 창간호에는 강령을 개정하여 “무산계급운동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역사적 필연을 정확히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산계급운동의 일부인 무산계급운동 예술운동”을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지부 설치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도쿄지부를 시작으로 함흥, 평양, 개성 등지에 지부가 설치되어 가던 중 지부 설치로서는 거의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1929년 4월에야 수원의 프롤레타리아 동인들이 결집하였다. 물론 지부가 설치되는 과정은 외적인 탄압과 함께 내부의 인적 구성에서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행동범위를 좁혀 왔다. 1927년 12월, 함흥에 거주하던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원 20여 명이 함흥청년회관에서 함흥지부 설치대회를 준비하자 함흥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소환하여 선언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사상이 불온하니 지부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 하지만 같은 시기 간도에서는 간도지부 설치 창립대회를 가질 수 있었고,⁸ 도쿄지부에서는 지부 설치를 위한 회의도 가졌다.⁹ 이는 국내에서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대한 탄압이 일본이나 간도에서보다 심했음을 의미한다.

이어 1928년 2월에 평양지부,¹⁰ 2월 17일에는 전라북도 금산지부, 4월에는 개성지부가 설치되었다. 목포지부는 5월부터 설립 준비를 하여¹¹ 12월에 설립하려 하였으나 1929년 1월에도 설립대회를 하지 못했다. 이유는 “강령이 불온한” 때문으로 조선 내에서는 지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¹² 해주와 원산에서도 어렵게 지부를 설치하였는데 경성의 본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원에서 지부 설치가 상당히 늦어진 것은 예술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박승극의 부각 시점과 연관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1929년 8월 12일 수원지부는 정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축하문서 6통이 낭독되지 못하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방해를 받으면서도 수원지부 결성에 많은 역할을 한 박승극을 위원장에 선임하고 서무부에 권순중, 교양부 공석정, 조직부 엄익홍, 조사부 황응선을 선출하였다. 결의 내용은 본부대회 축성, 연극공연, 기타 자체 내 개량주의자 숙출, 평양사건 상세조사의 건 등이었다.¹³ 이들은 수원지부의 결성 이후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 듯하다. 8월 10일 수원청년동맹운동장에서 수원학생친목회 창립 20주년

7 「푸로예술동맹 지부설치금지」, 『동아일보』, 1927년 12월 4일.

8 「동북지방」,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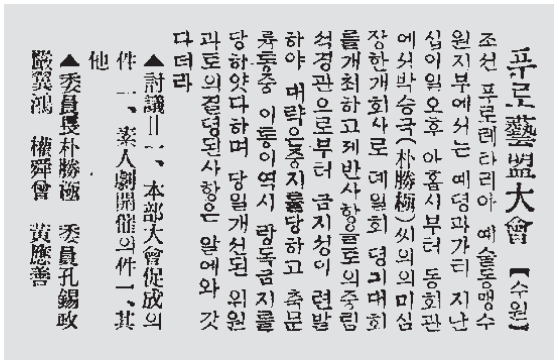
9 「푸로예술동맹 동경지부결의 조직테변경건의」, 『동아일보』, 1928년 2월 2일.

10 「푸로예술지부」, 『동아일보』, 1928년 2월 10일.

11 「푸로예술동맹 평양지부원검거」, 『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12 「예술지맹금지」, 『동아일보』, 1929년 1월 16일.

13 「푸로 예맹대회」, 『동아일보』, 1929년 8월 17일.



프로에맹 수원지부 제1회 정기대회(『동아일보』, 1929년 8월 17일)

기념경기를 치른 단체가 수원 신간회, 청년동맹,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노동조합의 4개 단체였기 때문이다.¹⁴

수원지부는 첫 집회에서 규약을 통과시킨 후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몇몇 안건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여기서 선출된 집행위원은 서무부 박승극, 교양부 공석정, 조직조사부 권순중이었으며 토의된 사항은

기관지 『무산자(無産者)』 지지에 관한 건, 문예강연 개최에 관한 건, 사무소에 관한 건, 맹원회원을 모집하는 건 등이었다.¹⁵ 조직을 만들고 집행위원 선정과 사무소 설치, 업무 논의와 단체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은 당연하지만 기관지 『무산자』 지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엠엘(ML)계 노선의 확정이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지적은 이후 수원지부와 일본 프롤레타리아동맹의 긴밀한 관계를 볼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¹⁶

실제로 1929년 3월 6일의 중앙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긴급회의 안건이 예술운동금후 방침과 더불어 기관지에 관한 건이었던 점은 이 시기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성격이 대중적 예술운동에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¹⁷ 1927년 11월에 창간한 기관지 『예술운동』이 1928년 2회로 막을 내리고 1929년 『무산자』를 채택한 것은 구성원의 변화도 변화지만, 명칭의 문제를 떠나 계급성이 강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방향 전환은 김복진이 주도하였다.¹⁸ 하지만 수원지부의 첫 행사에서 기관지 『무산자』를 선택한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8년 2월 17일에 있었던 전라북도 금산지부 설립대회 광경도 수원지부와 별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개회사, 경과보고, 내빈축사 등은 임석한 경관에게 제지당하였지만 축전은 낭독하였으며 강령과 규약을 통과시켰다. 강령은 본부에서 발표한

14 「학생경기에 사단체 퇴장 공적자 들었다고」, 『동아일보』, 1929년 8월 14일.

15 「푸로예술동맹 수원지부설립」, 『동아일보』, 1929년 4월 27일.

16 조성은, 「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327~328쪽.

17 「푸로예술동맹 긴급위원회」, 『동아일보』, 1929년 3월 8일.

18 기혜경, 「1920년대 미술과 문학의 교류연구—카프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 제8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0, 7~37쪽.

1차 수정된 강령의 내용과 동일하며 토의사항은 예산안에 관한 건, 기관지 발행에 관한 건, 맹원 모집에 관한 건이었다.¹⁹ 즉 기관지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하던 관행이 기관지 선택의 문제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29년 4월 당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공식 기관지는 『무산자』였다.²⁰ 하지만 기관지에 관한 건을 토의하는 다른 지부와 달리 ‘『무산자』 선택’을 명시한 점은 분명 주목되는 점이다.

2.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활동

수원지부의 설립대회에서는 동맹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경찰 탄압이 있는 자리에서도 강연회는 5월 4일에 개최하며, 연사는 당장 정하기 어려우니 경성의 본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²¹ 하지만 강연회는 예정보다 늦어져 5월 11일 오후 8시에 수원공회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졌으며 강연자와 연제(演題)는 ‘잡감(雜感)’ 김기진, ‘당면의 예술활동’ 윤기정, ‘예술의 효용’ 박영희, ‘근대문예사조에 대하여’ 박팔양으로 소개되었다.²² 더구나 정작 당일 행사는 8시 40분경에 시작되었고 김기진의 사회로 ‘근대예술사조에 대하여’를 박팔양이, ‘당면의 예술활동’을 윤기정이 강연을 펼치고 임화의 시낭독이 있는 후, 공석정이 폐회사를 하던 중 당국의 중지로 폐회되었다.²³

경찰의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결성에 대한 간섭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5월 7일에 수원 경찰은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규약이 출판허가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하면서 집행부 위원 박승극을 소환하여 고등계 주임과 장시간 문답이 있었다.²⁴ 출판물에 대한 총독부의 검열은 1905년의 「출판법」으로 이미 강제병합 이전부터 통제되었던 터였고,²⁵ 1920년대 후반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수원지부 결성에 대한 문건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뜰이나 마땅치 않은 수원지부 설립을 제재하는 데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박승극이

19 「프로예술지부 금산에서 설립」, 『동아일보』, 1928년 2월 22일.

20 『예술운동』과 『무산자』의 노선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은 다음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완식, 「프로레타리아시가의 대중화 문제소고(3)」, 『동아일보』, 1930년 1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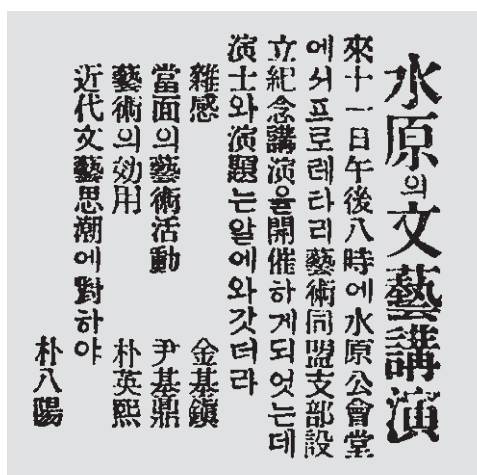
21 「조선프로예맹 수원지부설립」, 『중외일보』, 1929년 4월 28일.

22 「수원의 문예강연」, 『동아일보』, 1929년 5월 11일.

23 「수원프로예맹 문예강연성황」, 『중외일보』, 1929년 5월 14일; 「『프로』 예술수원지부의 기념강연 성황」, 『동아일보』, 1929년 5월 16일. 임화가 낭독한 시는 「우리 오빠와 火爐」였다(송영, 「수원행」, 『조선지광(朝鮮之光)』, 1929년 6월, 95쪽).

24 「수원프로예맹 규약전부압수」, 『중외일보』, 1929년 5월 9일.

25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사회와 역사』 64, 문학과 지성사, 2003, 5~46쪽.



수원 문예강연(『동아일보』, 1929년 5월 11일)

경찰에 불러 간 것은 그가 수원지부 조직의 주역이었던 데 이유가 있다.

동경의 '제3전선사'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동경지부로 해소 성립되고, 부산 흥원 목포 해주 금산 개성 평양 간도 안주 의주 등지에도 지부가 설치되었다. 이것을 전후한 1929년 4월 23일 수원지부도 성립되었다. 그때 나는 동경에 다녀와서 수원을 중심으로 신간회, 청년동맹 등에서 일을 보아왔었는데, 학생시대부터 문예방면에 취미를 가졌었고, 또 마침 수원에 '중성극우회'라는 소빨, 유한청년 및 기생층을 망라한 좋지 못한 예술단체가 조직되어서 급격히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지부를 두기로 한 것이다.²⁶

박승극은 자신이 학생 때부터 문예 방면에 취미를 가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박승극이 배재학교에 다니고 있던 1925년, 일본에서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김복진이 모교인 배재학교에 도화교사로 부임하였다. 김복진은 이 시기 사회주의사상에 심취하였고 젊은이들에게 당시 새로운 사조를 전파하고 있었다.²⁷ 박승극은 김복진에게 배웠으며, 배재교보를 4년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 기간에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을 지도하였던 김복진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승극의 귀국 시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1927년 10월에 귀국하여 반도청년회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고,²⁸ 1928년 7월에 귀국하였다고도 한다.²⁹ 1928년 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신간회와 청년동맹·노동조합 등 거의 모든 수원 지역 사회운동에 주요 위치를 차지하던 박승극에게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활동도 사회운동의 일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승극이 사회주의적 성향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복진이나 파스쿠라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원지부는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지부가 설치되면서 추진되던 문예운동의 수순을

26 박승극, 「예술동맹 해산에 제하어」, 『신조선』 4, 1935년 8월, 84쪽(조남현, 「박승극의 실천, 비평, 소설」, 『한국문화』 25, 2000에서 재인용;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송실사학』 제22집, 2009, 141쪽 재인용).

27 이 시기 김복진의 활동에 대해서는 조은정, 「김복진의 비평과 근대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제7집, 1999, 6-57쪽 참조.

28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송실사학』 제22집, 2009, 142쪽.

29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2002, 70쪽.

났아 나갔다. 설립을 알리는 행사이자 대중을 향한 강연회는 애초의 의도보다는 축약되었으나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기획하였던 극장에서의 프로연극은 8월 24일에 공연하기로 했으나,³⁰ 각본에 대한 검열이 늦어지는 바람에 연기되다가³¹ 결국 각본이 허가되지 않아 취소되고 말았다.³² 이때 기획된 작품은 「하차(荷車)」, 「순례(巡禮)」, 「양상군자(梁上君子)」로 알려져 있다.³³ 1929년 11월 11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서무부위원으로 정광수를 선임한 뒤에 노동조합 인공반(印工班)과 본부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³⁴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가장 큰 활동은 1930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였다. 그리 많은 대중이 관람한 전시는 아니었지만 국내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였으며, 일본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과의 연계성을 보여 주는 행사이기도 했다. 이듬해 이들은 다시 2회 미술전람회를 계획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경찰의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에 대한 강한 억압은 도쿄지부를 제외한 각 지부의 강연조차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 후 점차 운신의 폭이 좁아진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본부와 지부들처럼 수원지부 또한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다가 1934년 9월 2일 박승국이 수원청년동맹, 수원노동조합, 수원출판노동조합, 수진농민조합, 수원소년동맹을 비롯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해산계를 제출함으로써 조직은 사라졌다.³⁵

박승국은 1935년 5월 본부를 이끄는 임화(林和)의 제의를 수용하여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해산에 동의하였고, 이로써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원으로서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³⁶ 그 후 박승국이 개인적인 창작에 몰두하자 감옥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운동에 지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주요 인물로 참여한 김복진의 행보와 비교할 때 그의 창작활동 집중은 결코 이념적 후퇴가 아니었다. 즉 공산당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김복진은 1935년부터 활발하게 글도 쓰고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쯤 김기진이 통조림공장 등 사업을 하면서 무산자를 주창한 이념과 멀어져 갔을 때, 김복진은 자신이 가진 노동이라 할 작품 창작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었다.³⁷ 따라서 1935년 프롤

30 「水原프로藝盟의 프로演劇公演 오는 이십사일에」, 『조선일보』, 1929년 8월 15일.

31 「水原프로劇延期」, 『조선일보』, 1929년 8월 23일.

32 박승국, 「藝術同盟解散에 際하여」, 『신조선』, 1935년 8월, 84쪽.

33 「水原프로劇上演을 中止」, 『조선일보』, 1929년 12월 9일.

34 「水原各團體 委員會 開催」, 『조선일보』, 1929년 11월 14일.

35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해체에 대해서는 조성운, 「박승국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2002, 87~90쪽 참조.

36 박승국, 「藝術同盟解散에 際하여」, 『신조선』, 1935년 8월, 86쪽.

37 김기진, 「고 김복진 반생기」, 윤범모·최열 엮음, 『김복진전집』, 청년사, 1995, 255쪽; 김복진, 「조각생활 20년기」, 윤범모·최열 엮음, 『김복진전집』, 청년사, 1995, 228쪽.

레타리아예술동맹의 해산 후 박승극이 작품에 매진한 것은 사회적인 활동이 억압을 당하였을 때 택한 사회운동의 다른 방향이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동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에 중점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박승극이었으며, 그는 수원지부 결성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공석정·권순중·김봉회를 들었다. 공석정은 오산 지역의 핵심적 활동가로서 오산청년동맹, 수원청년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등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문예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수원청년회, 수원청년동맹 등의 활동가였던 권순중도 문예에 관심이 없었다. 이에 비해 권순중과 함께 1935년 8월 일본 형무소에서 복역한 김봉회는 열에 넘치는 문학애호가로 특히 박영희와 조명희의 글은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읽은 사람이라 하였다. 화성학원 출신 우성규는 수원기자동맹, 수원청년회, 수원소년군, 삼월회 같은 사회단체의 주요한 인물이었다. 변기재는 수원청년동맹과 신간회 수원지회, 수진농민조합에서 활동하였고 오산노동야학원사건에 관련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다. 황응선은 수원청년동맹과 수원노동조합의 집행위원을 역임하였고, 차재화는 수원소년동맹과 수원노동조합 집행위원이었다. 김정원은 형평사 수원지부의 집행위원장, 임범진은 수원노동조합의 집행위원, 엄익홍은 수원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이었다. 정광수는 시부(詩部) 집행위원이었으며 연극운동 시 검거되어 신체조사까지 받았다. 결국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수원의 문학이나 미술에 관심이 없는 이들까지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회운동가들의 집합체인 셈이었다.

3.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노선에서 예술의 효용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진 것은 1927년 노선을 선회한 이후였다. 이른바 카프미술은 김복진이 파스큐라에서 새로운 미술단체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미술부의 주요 인물이었던 강호조차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카프미술은 카프 창건자의 한 사람인 우리나라 조각계의 선구자 김복진 동무가 자기의 창작사업을 통하여 부르주아 미술의 소우 예술에서의 '초계급성'과 '순수미술' 등 반동적 이데올로기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실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맑스-레닌주의적 미학의 견지에서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게 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최초 시기에 있어 카프미술이 조각 한 부문의 창작활동에 국한되었다는 이 사실과 조각이 가지는 제약성 등으로 인하여 그가 여러 방면에 걸쳐 적

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미술이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으로서 실질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지 못하였다.³⁸



수원 프롤레타리아 전람회 기념사진(『중외일보』, 1930년 3월 31일)

문학에 대한 공통 관심으로 결집하고 연극을 통한 대중교육의 경험이 있으며 미술인들이 참여한 파스큐라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내부에서 노선의 변화에 따른 운동방향을 제시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술은 전시를 통하여 대중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으로 지지부진하던 때에 수원지부에서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열렸다. 프로미술전람회가 당시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본부가 소재한 경성이 아닌 수원에서, 실행주체도 수원지부였다는 것은 당시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탄압이 강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수원지부와 경성본부의 관계, 수원지부의 역량 등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어찌되었든 이 행사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거의 유일하게 이룬 미술적 성과였으며, 프롤레타리아예술운동이 국제적 연대를 이룬 활동이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한다.

1930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화성학원에서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열렸다. 먼저 수원지부는 신문 기사를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개최 주체와 작품의 범위에 대해 알리고 있다.

수원성 내 남수리 165번지에 있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에서는 제1회 미술전람회를 개최하리라는 데 다음과 같은 규정하에 동지들의 많은 작품 반송을 바란다더라. ▲ 종류 - 좌익적 서화, 만화, 포스타 조각 등 ▲ 기한 - 3월 27일 이내 ▲ 주의 - 출품동지의 주소 씨명 소속단체 등을 명기하고 작품 반송을 원하거나 또는 방기할 의향의 유무를 부기할 일³⁹

자신들이 위치한 주소와 출품규정을 밝힘으로써 전시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좌익적이며 작품 종류는 서화, 만화, 포스터, 조각 등을 표기하고 있다. 즉 순수

38 강호, 「카프미술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1957년 5월, 10쪽; 윤범모, 『김복진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335~336쪽.

39 「수원에서 프로미전 장관을 기대」, 『중외일보』, 1930년 3월 18일.



프롤레타리아 전람회에 출품된 「모스크바에서 조선의 동지들이 소비에트 12년제(年節)를 축하하는 모습」(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 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전기(戰旗)』에 게재되었던 작품으로, 모스크바에서 한글로 쓴 현수막을 장식하는 조선인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소비에트·조선·일본 간의 국경을 넘어 국제연대를 표방하는 내용이다.

미술 영역뿐만 아니라 대중적 계몽 차원에서 효과적인 만화와 포스터 등 조선미술전람회나 서화협회전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분야를 출품작의 종류로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튿날 신문에 실린 기사는 작품 출품요강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로 제1회 프로레타리아미술전람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는바 이미 작품은 경성 동지들의 많은 후원으로 다수 수집되어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지들도 규정에 의하여 다수 출품을 바란다며 ▲ 일시 3월 29일, 30 양일 ▲ 장소 수원화성학원강당 ▲ 종류 좌익적 서화, 만화, 사진, 포스터, 조각 등 단 미술적 가치보다 선전적 색채를 가진 것이면 하종류이든지 환영함.⁴⁰

단 하루 만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종류에 ‘사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주제로 ‘선전’적 색채를

명시하고 전시의 목적이 미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시하는 데 있지 않음을 또한 밝히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성격이 보다 명확히 ‘선전미술’로 규정되고, 이른바 미술적인 작품성보다도 내용 전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초기 선전미술의 양상이 다다 등을 통해서 포스터와 사진이 이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선전미술의 본류를 깨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민중에게 인지되기 쉬운 판화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사진’이 표기되고 있는 것은 1910년대 파쇼즘을 비판하는 「다다 파노라마」(한나 회히, 1919)에서 잡지 사진이 사용되는 데서 볼 수 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편집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포토몽타주는 반미학에 위

40 「프로레타리아 제1회 미술전람 예술동맹수원지부주최」, 『중외일보』, 1930년 3월 19일.

치하여 선전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시작품 공모요강은 결국 많은 작품들이 사진을 이용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케 한다. 또한 아방가르드미술의 모습으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미술의 양상을 짐작케 한다.

이 전람회는 수원 각 사회단체와 신문지국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⁴¹ 27일까지도 전국에서 작품이 수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박승극과 우성규가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터라 프로미술전람회를 후원하였다. 전시의 경과는 나중에 북한에서 강호가 증언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품작인 사이토 지로의 「짧은 맑스주의자」(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당시의 대표적 활동으로서는 31년에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가졌던 일인데 대체로 그때 작품들 가운데는 일본 동지들의 것도 있었고, 50~100호가 넘게 그린 대작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작품명으로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 「소년공」, 「파업투쟁」, 「전차파업」, 「농민」, 「빠라 공작」, 「우리에게 일을 달라」, 「짧은 맑스주의자」, 「말시 장」 등이 있었는데 틀을 모두 떼고 칸바스만 말아 가져 왔던 것인데 서울에서 전람회를 가지려고 2개월이나 노력을 했으나 검열이 심해 못 가지고 있던 차 마침 수원에서 박승극 동무가 올라와 수원에서 댈 수 있으리라고 해서 정하보가 등에 지고 내려가서 전람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일 만에 그만 중지당하고 말았습니다.⁴³

프로미술전람회를 수원지부에서 열게 된 이유는 검열이 심하여 경성에서 전람회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술에 대한 일본의 검열이 극심해진 것은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가 주도한 1920년대 후반기부터였다.⁴⁴ 미술작품에 대한 검열의 기준은 『조선출판경찰개요』 일반검열기준 제1항 안녕질서(치안) 방해의 사항에 나와 있다. “1조에서 7조까지는 황실, 신궁, 황릉, 신사 등 통치국인 일본의 존엄에 대해 모독하는 내용”이고 “8조에서 28조까지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의 이론 내지 전략 전술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 운동의

41 「프로미술전람 수원에서 개최」, 『동아일보』, 1930년 3월 28일.

42 「프로미전에 작품이 답지」, 『중외일보』, 1930년 3월 28일; 「수원우씨석방」, 『중외일보』, 1930년 4월 7일.

43 조선미술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미술』 제4호, 1957, 7쪽(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0쪽에서 재인용).

44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화』 39, 2007, 204쪽.

실행을 선동하는 사항, 납세 기타 국민의무를 부인하는 사항, 조선의 독립을 선동하거나, 조선 민족의식을 양양하는 사항 등 조선에서의 통치체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⁵ 정형민에 따르면, 총독부의 검열은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결성 이후 본격화되었다.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개인적 경향에서 집단적 경향으로 전환하였다고 파악되는 1927년 이후부터 검열이 가속화되었는데, 특히 1930년에 7건이 기록되고 있어 수원에서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있었던 해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⁴⁶

(일본의) 작품들이 서울에 도착되었을 때 카프 미술부는 즉시 전람회 개최를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처음에 종로경찰서 관할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불허가 되었고 본정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심지어 용산경찰서까지—이러한 순서로 허가를 신청했으나 한결같이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공장이나 농촌에 직접 들어가서 비합법적으로 전시하기에는 화폭이 너무나 컸다. 마침 카프 수원지부를 책임지고 있던 박승극 동무에 의하여 수원에서 전람회를 가지게 되었다. 시골 경찰서라 미술전람회를 가지겠다는 말에 특별한 주의가 없이 허가해 주었다.⁴⁷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경성본부는 일본에서 작품이 도착한 즉시 전람회 장소를 경성 여러 곳에서 물색하였으나,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원지부를 택하였다. 비밀리에 전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에서 온 작품의 크기가 작지 않은 데 있다. 그런데 전람회를 이끈 박승극은 정작 “일본으로부터 온 작품들은 내 손에 쥐어 보지도 못했다.”고 하였다.⁴⁸ 수원 경찰의 사전 검열에서 압수된 것도 있었지만 주최 측이 자진해서 작품을 경찰에 넘긴 것도 있었다. 이로 미루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는 경찰과의 마찰이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수원면 남수리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지부에 있어서 공식정 및 박승극 등이 발의자가 되어 3월 29일과 30일의 양일, 수원면 남수리 화성학원에서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당 경찰서는 개회에 앞서 출품 심사, 그리고 회장의 장식 등에 특히 주의했으나, 공안풍속을 해치는 위험성이 없는 것은 일단 공개를 허가하였다.

45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화』 39, 2007, 205쪽.

46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화』 39, 2007, 206~207쪽.

47 강호, 1957, 「카프 미술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제5호, 12쪽(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1쪽에서 재인용).

48 박승극, 「藝術同盟解散에 際하여」, 『신조선』, 1935년 8월, 85쪽.

1. 회월일시: 3월 29일, 30일 2일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 개최장소: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 사립 화성학원(華成學院)
3. 입장료 1인 5전 균일
4. 회장의 장식 기타 진열상황: 회장 입구 현관 및 회장에는 마분지로 만든 별표 위에 낫과 해머를 붙이고 색종이로 만든 사슬로 회장 내외를 장식하여 회화를 진열 배치했다. 단 이 장식에 대해서는 본 경찰서가 미리 엄중하게 주의해 둔 것이어서 임의로 제거시켰다.
5. 출품물의 일반상황 및 처치: 출품물은 주로 신문·잡지의 삽화, 그림을 오려낸 것 또한 그림엽서 같은 것이며 창작물은 적었지만 대체로 계급투쟁을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그중에는 유산계급자가 무산노동자의 살을 먹는 것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림도 있다. 그들이 생각하던 주의사상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 적지 않았다.

전시 개요는 이상과 같다. 심사결과는 별첨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출품을 희망해서 예비심사를 신청해 온 작품 120건, 그중 불온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은 진열을 금지시키고 주최자측이 스스로 제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 73건이나 있었다.

관람자 중에 단체관람은 없었으나 본 경찰서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복형사를 회장에 배치시켰다. 출품물에 대한 설명을 일체 금지시키고 감시 단속을 강화했는데 관람자는 입장하여 불과 2~3분 내지 5분 정도 지나 나가 버려서, 진지하게 관람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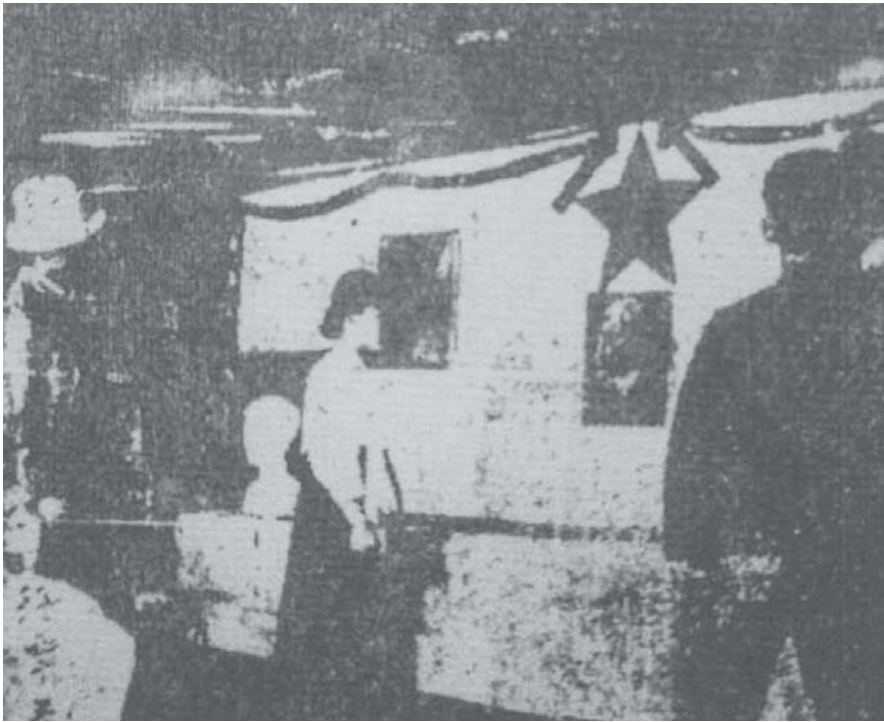
하지만 이 전람회를 빌미로 공석정, 박승극, 우성규는 4월 1일에 검거되어 며칠 동안 취조를 받다가 방면되었고, 서류가 들어 있는 상자와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 전부를 압수당하였다.⁵⁰ 경찰은 수원기자동맹 위원장과 동맹원의 신분인 공석정과 박승극을 검거하여 취조하면서 프로예술동맹 수원지부를 수색하였다. 이유는 프로미술전람회 건이었다.⁵¹ 그런데 “프로미술전은 당초에 경찰과 합법적 교섭을 거듭”하였던 탓에 정작 전시를 진행한 프로예술동맹 수원지부는 마음대로 모든 작품을 전시하지 못했다. 경찰과 전람회 전에 작품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결국 원활한 전람회를 위하여 타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경성에서 정정보가 등점으로 지어 나른 작품조차 검열을 받았고,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애썼으므로 자신 있게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경기도 소속의 경찰부원이 다시 와서 진열한 작품들과 전시장의 장식품을 철거하고 전시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개

49 水警高秘 제991호, 소화 5년 4월 1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미술전람회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첩』 제4책(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3쪽에서 재인용).

50 「수원기자동맹위원장 등 검거」, 『동아일보』, 1930년 4월 4일.

51 「수원기자동맹 3씨 무사 석방」, 『동아일보』, 1930년 4월 8일.



수원프롤레타리아 전람회장(『중외일보』, 1930년 4월 1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막았을 뿐만 아니라 중대범을 대하듯 공석정, 박승극, 우성규를 검거하였다가 먼저 우성규를 석방하였다.⁵² 그들은 수원지부 사무실을 수색하며 심지어 전람회 광경을 촬영한 사진까지 압수하였다.⁵³ 이로 미루어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에 대한 철저한 탄압은 미술전람회가 구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관람자는 3월 29일 조선인 65명, 30일 일본인 5명, 조선인 57명 도합 127명이었다. 외지 사람은 경성과 개성에서 온 3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수원 사람들이었으며 더구나 신간회원과 청년동맹원 등이었다.⁵⁴ 후에 강호가 전람회를 관람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였던 것은 북한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위하여

52 「검정허가한 미전을 중지시키고 검거, 자기네가 허가하고 다시 중지 그리고 또 관계자를 검거 취조 수원경찰의 괴태」, 『중외일보』, 1930년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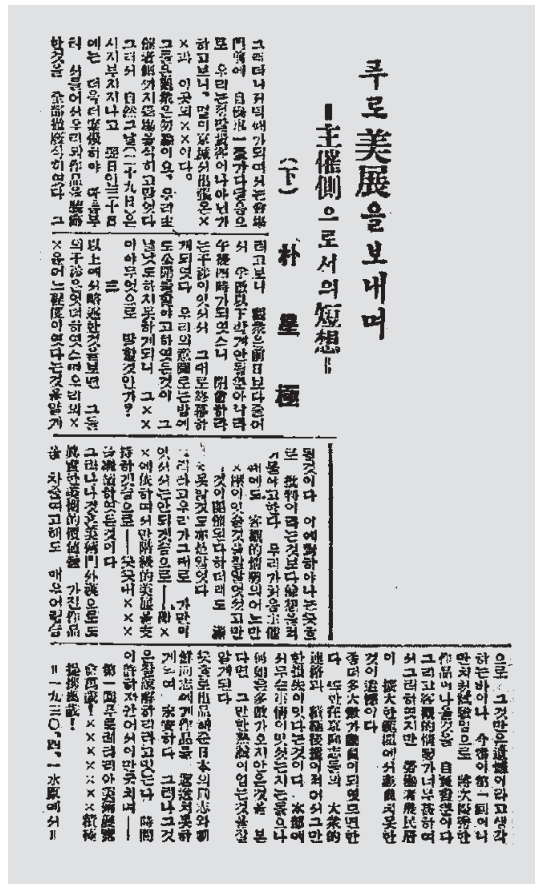
53 「수원경찰에서 미술사진압수」, 『중외일보』, 1930년 4월 4일.

54 水警高秘 제991호, 소화 5년 4월 1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미술전람회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4책(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3쪽에서 재인용).

전람회의 대중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⁵⁵

박승극은 「푸로미전을 보내며」라는 주최 측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글을 신문지상에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가 주장한 것은 수원에서 참여한 이들이 예술에 대한 교양이 너무나 없어서 '부루주아지와 예술가'들이 유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자신들은 '아지'나 '푸로'만 된다면 만족이라는 의미에서 '계급적 미술전람회'를 적극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아트는 공장이나 현장에서 절절한 것이어야 하므로 성공적인 전시라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일본에서 오기로 한 작품 12점은 전시일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지만 별, 망치, 낫 등으로 전시장을 장식하였고 첫째 날에는 200명이나 관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람회장에 붙인 포스터가 제거되고 「출판법」 위반으로 작품목록이 압수되었지만 경찰로부터 몸을 피하였다고 하였다.⁵⁷ 저녁 때 멀리 개성에서 자동차로 달려 온 이들은 큰 힘이 되었음에도 작품이 결국 압수되었고, 일본에서 출품해 준 이들과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제1회 푸로레타리아미술전람회 만세"를 외치며 주최 측의 감상을 맺고 있다.⁵⁸

제1회 프로미술전람회에 대한 전말은 이어 주최 측에서 발표한 「미술전람회 경과 전말」로 정리되고 있다.



박승극이 쓴 「푸로미전을 보내며」(『중외일보』, 1930년 4월 8일)

55 카다 에미코, 「한일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의 교류」,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91쪽.

56 박승극, 「푸로미전을 보내며, 주최측으로서의 단상(상)」, 『중외일보』, 1930년 4월 5일.

57 박승극, 「푸로미전을 보내며, 주최측으로서의 단상(중)」, 『중외일보』, 1930년 4월 6일.

58 박승극, 「푸로미전을 보내며, 주최측으로서의 단상(하)」, 『중외일보』, 1930년 4월 8일.

1. 총출품점수 150점

가. 유화 3점 나. 판화 145점 다. 조각 1점

1. 낙선 15점

1. 압수 70점

1. 출품 60점

1. 기념, 진열사 압수

1. 일본프로레타리아미술가동맹 출품 12점 도착 전 압수

1. 출품하였던 것 다시 전부 압수

1. 간부 검거

1. 회장 내 장식품 압수

등이 있었고 처음 기대와 떨어져서 유감이나 이것은 XX의 과정이니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출품동지에게 미안한 것은 작품 전부를 압수당하여 운송치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프로 미술가동맹에서 보낸 우수한 작품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압수당한 것이 미안하다. 그러나 이다음 우리 노동자 농민의 노력이 커짐을 따라서 미전도 일층 더 진전될 것이라고 믿는다.⁵⁹

한편 연구자 키다 에미코에 따르면 한국 프로미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일본 작가들이 보낸 작품은 정하보가 국내로 반입하였고, 경성 본부에서 전람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수원지부가 주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작품이 걸리기도 전에 압수되어 결국 일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지 못하자, 그해 가을 정하보가 독자적으로 프로미술전을 기획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⁶⁰ 전람회를 했음에도 다시 프로미술전람회를 열어 일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일본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과의 연대를 과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경찰이 일본 작가들의 작품을 압수하여 전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4.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의 작품

프롤레타리아 미술전의 작품은 전시가 되기도 전에 압수된 것이 상당수여서 전시작품과 전시되지 못한 작품을 모두 검토해야만 어떠한 작품들로 전람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던지 지형도를 완성할 수 있다.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였기 때문에 작품제목이나 작품의 내

59 「프로미전에 대한 경과전말을 발표 수원 동주최측에서」, 『중외일보』, 1930년 4월 10일.

60 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90쪽.

용이 공안풍속을 해할 이유가 없는 것만을 전시하였다. <표 1>은 경찰이 전시가 가능하다고 허가한 작품목록이고, <표 2>는 출품 금지된 작품이다.

공석정과 박승극 이외에도 임화는 주소를 일본 도쿄라고 하였고 이정현(李定鉉)은 해주, 김천영(金泉永)은 평양, 김천(金泉)은 원산, 이상대(李相大)와 강호(姜湖)는 경성, 곽병준(郭炳駿)·임범진(林凡辰)·변기재(邊基在)·우성규(禹聖奎)·김정원(金正元)·황응선(黃應善)·차재화(車在化)는 수원을 주소지로 기록하였다. 일본과 서울, 평양, 해주, 원산 등 지부에서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 지부에서 출품하지 못한 것은 지부의 활동이 침체되어 있거나 경성에서 시작해 보려던 전람회가 지부진해져서 각 지의 활동가가 작품을 제작하여 참여할 시간이 부족했던 때문이다. 갑자기 수원에서 전람회 개최가 결정되어 시간이 촉박했을 뿐더러 프롤레타리아미술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 존재하던 상황도 아니었다.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작품을 제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제작한 작품을 멀리 수원까지 출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활동가 몇몇의 작품과 본부의 작품 1점 외에 대부분 수원 지역 활동가들의 작품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미술인이 아니므로 ‘프로’라는 목적에 맞는 작품을 출품하는 데 목적을 두었을 것이다. 임화의 경우 일본의 프로미술전람회 포스터를 보내 왔는데, 주최 측 혹은 경찰은 이것을 임화 작품으로 기재하고 있다.

전시장에 진열된 작품 중 유일한 조각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본부에서 출품한 석고로 만든 「인물 반신상」이었다. 조각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제작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경성의 본부에서 활동한 조각가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작품 중에는 서예, 만화, 흑백으로 그린 그림 이외에 잡지의 표지화라든가 잡지에서 오려 낸 작품, 포스터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작품을 기록한 경찰의 비전문성으로 작품의 양상이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 일례로 ‘묵회(墨繪)’라고 기재한 경우 수묵화인지 검정 펜으로 그린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출품자 대부분은 잡지의 사진을 그대로 출품하기도 하고 오려 붙이기도 해서 포토몽타주 기법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 영웅이나 아나키스트의 초상사진을 선택하여 보여 주는 방식은 작품이 제작행위가 아니라 ‘선전’의 의미가 컸음을 보여 준다. 일본 프롤레타리아미술전에서는 전통적인 기법의 그림들이 출품되지 않았는데, 수원 프로미술전에서는 서예와 채색화 등이 출품되고 있다.⁶¹ 기존의 미학적 체계 아래서 생산한 미술과

61 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6쪽.



일본 프로미술전람회 포스터(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프로미술의 이념보다는 지식인들이 계몽적인 목적으로 전람회에 참여했던 것임을 알게 한다.

한편 일본 프로미술전람회에 「조선공산당 공판일」을 출품하였고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수원지부에서 개최하기로 했을 때 작품을 지고 수원으로 갔던 정하보의 작품은 목록에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보내 온 작품을 전시하기 위하여 조선에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열었으며, 미술 역량이 부족한 수원지부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술 분야에 비전문 지식인들이 급조한 작품들로 채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역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중시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1930년 가을에 정하보가 일본에서 가져온

많은 작품들이 수원에서 압수당하였지만 남은 작품으로라도 전람회를 하려고 한 이유가 기도 하다.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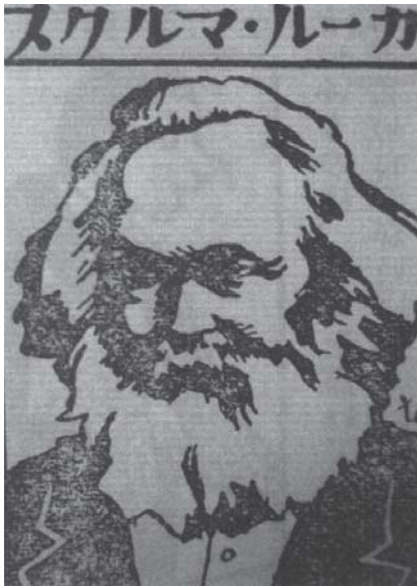
〈표 2〉에 나타난 출품 금지된 작품들은 대부분 “소비에트나 유럽의 프롤레타리아운동을 소개”하는 내용과 자본가가 노동자를 수탈하거나 노동자의 적으로 나타난 자본가들을 내용으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일본의 잡지 등에서 오려 낸 사진으로 만든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 키다 에미코는 이러한 선별원칙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국제적인 공조형태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 데 있다고 분석하였다.⁶³

제1회 전람회를 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는 미술전람회를 수원지부가 지속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1931년에 3월 28일과 29일에 수원성에서 열 예정이었던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터, 만화, 서화, 사진, 조각 등 작품을 공모하고⁶⁴ 규정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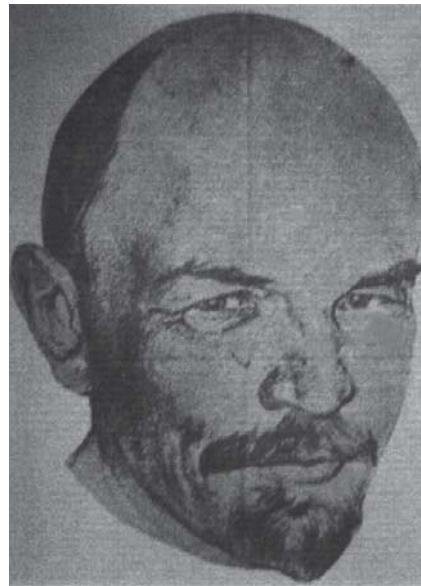
62 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90쪽.

63 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88쪽.

64 「수원미술전람회」, 『동아일보』, 1931년 3월 1일.



『마르크스』, 『소년전기(少年戰旗)』, 1929년 7월(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레닌』, 『소년전기(少年戰旗)』, 1929년 7월(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일: 3월 28일, 29일 양일

장소: 수원성 내

규정: 만화, 서화, 유화, 포스터, 사진, 조각 등

주의: 출품 동지의 주소, 성명, 연령, 소속 단체 등의 명기함

기타: 순차 발표함

수신: 수원성 내 북수리 34

후원: 재수원 각 사회단체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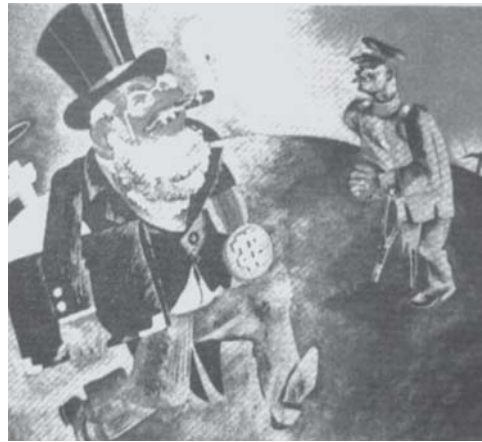
하지만 수원경찰서는 주최 측이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전에 책임자를 불러다가 전람회 금지를 통보하였다. “만반준비를 해노코 그 날자만 기다리든 주최자 측에서는 유감천만이나 부득이 중지”하고 말았다는 기사는 이들이 전람회를 감행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한다.⁶⁶ 작품 공모요강을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되어

65 「수원프로미전 상세 규정 발표」, 『조선일보』, 1931년 3월 4일.

66 「프로레타리아 미전 금지」, 『동아일보』, 1931년 3월 7일.



『철수하자』(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훈장을 살 수 있는 자와 훈장으로 먹지 못하는 자』(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무산자신문을 읽자』(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마츠야마 후미오, 「대중은 좌쪽으로」, 『전기』, 1930년 2월』(키다 에미코, 「수원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전람회 계획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제2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수원지부가 쉽게 포기한 것은 1931년 3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내부에 설치된 미술동맹이 전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⁶⁷ 하지만 1회 전람회를 끝으로 조선에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경성이 아닌 수원에서 단 이틀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의 수가 200여 명도 되지 않았던 전람회였음에도 그 규모에 비하여 근대 한국사와 항일항쟁사,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결코 작지 않다. 신문사와 관계 깊던 수원의 공석정, 우성규, 박승극은 인쇄매체에 미술전람회의 진행과정을 세세히 전하였다. 비록 압수와 검거로 점철된 전람회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의 계몽, 조선프롤레타리아 수원지부에 대한 인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전람회였다.

〈표 1〉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 전람회 출품표⁶⁸

번호	제목	출품자
1	무제(노동자와 농민의 단결을 표현한 흑백회화)	김천(金泉)
2	포스터(일본 프로미전의 선전 포스터)	임화(林和)
3	무제(노동자 1명이 깃발을 든 모습)	김□래(金□來)
4	포스터(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표현한 것)	이정현(李定鉉)
5	夜(노동자 2명이 夜火鉢로 따뜻하게 하는 현장), 흑백회화	이동호(李東鎬)
6	레닌 초상(흑백회화)	이동호
7	노동자(수목화의 노동자 2명)	이동호
8	어느 날 낮(노동자의 집합)	이동호
9	무제(석고 인물 반신상)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본부
10	무제(노동자 그림)	김천영(金泉永)
11	書(桑田碧海)	김천영
12	서(異子回歸)	김천영
13	노동가(別號譯文대로)	임범진(林凡辰)
14	잡지 절발화[切拔繪] * 국제부인운동의 빛나는 지도자인 아래 5명의 그림을 표현 - 크롭스카야(레닌 미망인) - 손일선(孫逸仙 : 孫文) 부인 - Clara Zetkin - Alexandra Kollontai - Roland-Holst	우성규(禹聖奎)

67 「이달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1년 3월(『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9권).

68 키다 에미코, 「수원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95~101 쪽까지의 별첨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번호	제목	출품자
15	一, Karl Heinrich Marx 二, Friedrich Engels 초상(잡지 절발화)	우성규
16	Vera Zasulich 초상(잡지 절발화)	박승극(朴勝極)
17	무제(노동자가 달리는 전차 안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 권두화 切拔)	우성규
18	무제(부인노동자의 집합, 잡지 권두화)	우성규
19	레닌 초상(초년시대와 장년시대, 잡지 절발)	우성규
20	레닌, 스탈린, Nikolai I Bukharin 3명의 초상	우성규
21	무제 一, 아동가정의 침실 二, 아동가정의 침실(잡지 권두화)	우성규
22	노동학교(학교의 학생 집합, 잡지 절발)	우성규
23	무제(아동 2명이 어깨에 손을 얹은 모습, 잡지 권두화)	우성규
24	무제(군축회의 각국 全權, 잡지 절발화)	우성규
25	Karl Heinrich Marx의 사진화	김정원(金正元)
26	무제(한 노동자가 철모를 세우고 이는 모습, 잡지 절발화)	변기재(邊基在)
27	무제(調子 이외의 오케스트라, 만화)	박승극
28	무제(단결을 나타냄, 잡지 절발화)	박승극
29	무제(노동자 다수의 집합)	우성규
30	무제(사회상황 만화), 잡지 절발	우성규
31	一, 사코와 반제티의 얼굴 표현된 잡지 절발	우성규
32	무제(대중의 좌측통행을 표현한 만화잡지 절발)	우성규
33	무제(스시를 쥔 사람의 손, 잡지 절발)	우성규
34	무제(勞農露國 건설 뒤의 시가, 잡지 절발)	우성규
35	실업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실업자의 만화, 岩松淳 作), 잡지 절발	우성규
36	세계혁명가 6명의 얼굴(잡지 절발) 一, Rosa Luxemburg 一, Plekhanov 一, Auguste Marie Joseph Jean Jaures 一, 프르노제 하미로프 一, F. Dzerzhinsky 一, Nicolai Bukharin	우성규
37	그림엽서 무제(부인 1명과 有産家인 듯한 남자 1명이 있는 것)	임화
38	그림엽서 무제(번사 1명이 대중에게 연설하고 있는 것)	임화
39	그림엽서 무제(베리를 뿌리고 있는 것)	임화
40	그림엽서(勞動葬)	임화
41	그림엽서(岩松淳의 작품 만화), 훈장을 살 수 있는 자와 훈장으로 먹지 못하는 자	임화
42	무제(책 위에 낫을 치켜든 팔이 있는 것), 권두화의 切拔	우성규
43	무제(만국 노동자의 단결을 표한 집회 모양, 잡지의 切拔)	우성규
44	무제(한 사람이 청중 앞에서 연설하고 있음, 잡지의 切拔)	우성규
45	Kollontai의 초상(잡지의 切拔, 顔面)	우성규

번호	제목	출품자
46	무제(낫, 벌, 망치, 톱니를 이용하여 그리고 쓴 달마크 모양), 흑백회화	김정원
47	무제(망원경모양 畵)	곽병준(郭炳駿)
48	무제(공장의 외경, 유화)	이상대(李相大)
49	무제(레닌 초상, 유화)	이상대
50	무제(노동자의 집합과 부인, 유화)	이상대
51	무제(노동자 집합, 사진엽서)	이상대
52	무제(두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춤추는 모습, 만화잡지 切拔)	우성규
53	祝文(指頭字) 별지의 번역문대로	인기□(殷熙松□)
54	무제(두 사람의 노동자가 악수하면서 낫과 망치를 진 모습)	형평사 수원지부
55	무제(한 노동자가 망치를 어깨에 맨 모습, 흑백회화)	우성규
56	무술리니, 만화 흑백회화	황응선(黃應善)
57	무제(교외 풍경화), 잡지 절발	우성규

〈표 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 전람회 진열금지 작품목록⁶⁹

번호	제목	출품자
1	무제 흑백회화(스타라이크 표현한 그림)	차재화(車在化)
2	同(계급투쟁을 표현한 모습)	이연적(李年積)
3	뽀뚜부르주아지 노래(別紙譯文과 같음)	공석정(孔錫政)
4	무제(지구 위에서 노동자 2명이 낫과 망치를 들고 모자를 쓰고 서서 투쟁하는 것을 표현한 흑백회화)	임범진(林凡辰)
5	묵인 노동자(노동자가 묵인 손을 내민 모습을 그린 그림)	이재화(李在化)
6	무제(노동자붉은깃발을 흔들고 선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표현한 그림)	김천
7	일본과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단결을 그린 그림	김천
8	무제(노동자가 집을 파괴하고 있는 그림)	이기현(李起鉉)
9	무제(노동자가 대포의 포문 앞에 서서 치켜들고 흔드는 그림)	이기현
10	잡지 권두화 11매 1. sciopero(伊, 파업) 2. 여명의 팔 3. 노동회관벽화 4. 미래의 동지 5. 피오닐의 적색소년이 길을 건너고 있는 곳 6. 메티에서의 청년, 행진하는 노동자의 용감한 데몬스트레이션 7. 파리 코뮌 58주년 8. 소비에트 러시아 붉은 광장의 적색소년군 9. 국민혁명군 광동을 점령하다. 10. 미래의 俺達의 투사들 11. 소비에트 정부 포스타	우성규

69 키다 에미코, 「수원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102~106쪽까지의 별첨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번호	제목	출품자
11	그림엽서 3매 1. 스트라이크 최후의 날 2. 스트라이크 선언 3. 철수하자	임화
12	포스터 2매 1. 좌익극장 2. 니코니코 노동자대회 좌익극장	임화
13	잡지 삽화 14매 1. 인신매매 2. 동아(東亞)만화 제07호 치안유지법 3. 동아만화 (언문) 저능 지주 4. 동아만화 노예의 떠남, 크레올사이 5. 동아만화 6. 동아만화 강연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7. 동아만화 여진과 파손 8. 동아만화 금지령을 낸 그자들의 주소는 어디인가 9. 우리들이 깃발을 세운 마조 10. ウルサク許リシテ呉レルネ 11. 낙엽이 모두 지면 꽃이 핀다 12. 철필화, 동쪽에서 출현한 노국(露國) 13. 시대 만화, 금지 14. 철필화, 지주와 소작인	변기재
14	잡지 절화(切書) 16매 1. 킬 부두에 도착한 우리들의 지도자 동지 渡邊政之助 2. 마를레스(프랑스) 3. 5법안과 투쟁 4. 朝日 무산계급만세 5. 노동농민을 위한 투쟁 뉴스 6. 勞農黨의 해산이유는 무엇인가 7. 쟁의 뉴스 8. 토츠카스베니 9. 無産 만화 10. 자 이번은 내 차례다 11. 六月十日ヲ期シ自由ノ○○ ○○○密集○○白衣大衆 12. 한 노동자 13. 간짜(독일) 인생의 의의 14. 여러분 공장으로 농장으로 15. アンクルサムあんな者と遊ぶからさ 16. 1. 그들을 감시하라 2. 정부 자본가의 노동조사	
15	빠라(조형미술) 읽기 일본의 유일한 프롤레타리아미술잡지	임화
16	백세청풍 그림, 채색화	이정현
17	무제(壯漢ガ砲ト劍數ヲ背負 ヘルモノ 흑백회화)	김천
18	무제(김해금긴축전일본실업자백만인돌파 글이 있는 만화)	강호
19	무제(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각 1명을 그리고 쓴 만화에 실업자 100만 인은 어디로 가 야 하나, 흑백회화)	강호
20	노동자와 국제단결(지구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약속하는 흑백회화)	이상대(李相大)
21	무제(공장 직공과 자본가의 상태를 표현, 노동자의 피를 착취하는 모양)	이상대
22	무제(노동자와 유산계급의 상황을 표현, 유산자는 주색에 빠지고 노동자는 접시 안에)	이상대
23	적도(赤都)의 노동제(잡지 절발화)	

번호	제목	출품자
24	잡지 절발화(모스크바에서 조선의 동지들이 소비에트 12년제를 축하하는 그림)	이상대
25	잡지 절발화 3매 1. 윗페케페노페(岩松淳 작) 2. 裏切者の獨語(松山文雄 작) 3. 투쟁뉴스 가이드집	변기재
26	포스터("노동자가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였다"고 쓴 깃발을 켜 모습)	박승극
27	포스터 4매 1. 무산자 신문을 읽다 2. 러시아혁명 10주년 기념제 3. 자유획득연설회(同 上野書店의 記入) 4. 마르크스 자본론 광고(도쿄 岩波書店의 기입)	수원노동조합



박 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의 조직 배경
2. 1920년대 학생비밀결사 _ 건아단과 조선개척사
3. 1930년대 수원고농 학생운동 _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제5장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와 학생운동

1.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의 조직 배경

1) 수원고농의 설립과 한국인 학생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는 1904년 9월 1일 경성에 설립된 관립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교는 실업교육을 강조하는 고종의 칙서에 의해 1899년 상공학교가 설립된 지 5년 후 농과를 대한제국 학부에서 증설하여 만들었다.¹ 그 후 1906년 9월 10일에 농상공학교에서 농과를 분리 독립시켜 농상공부 소관 농림학교가 되었고, 1906년 10월 15일에는 입학 속성과를 신설하는 한편 1907년 1월 8일에는 수원 서둔촌(西屯村)의 신축교사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농업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09년 6월 1일 「농상공부령」에 의한 교칙 개정으로 2년제에서 3년제 농림학교가 되었으며, 1910년 8

¹ 이기준, 『교육 한국경제학발달사』, 일조각, 1983, 99~103쪽.

월 29일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개칭되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되었다.²

수원농림학교는 전국 각지의 농촌 현장에서 일제의 농업정책을 실시해 나갈 조선인 말단 실무관리를 양성하는 정책적 교육기관이었다. 즉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 지도자, 지주제의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농민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완화시키는 ‘농촌계몽’의 지도자 교육이 학교 설립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일제는 일제의 침략적 농업정책과 일본 자본의 농업 진출 등이 조선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여 식민지 농정(農政)의 정당성을 주입시켰다.³

한편 일제는 1918년에 시작되는 제1차 산미증산계획 등 본격적인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한층 높은 수준의 농업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였다.⁴ 그리하여 각 지방에 중등 정도의 농업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농림학교를 한층 수준이 높은 농업 교육기관으로 승격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1918년에 신학기에 전문과를 설치하여 신입생을 뽑고 본과의 신입생은 모집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로써 1906년에 설립된 농림학교는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⁵

1918년 4월 15일 농림학교가 전문학교로 개교하자,⁶ 개교식에는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이 참석하여 고사(告辭)를 하였고, 당시 조선농회 회두 이완용(李完用), 이근택(李根澤),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 가와카미(川上) 등도 참여하여 축사를 할 정도로 일제는 이 학교를 중요하게 여겼다.⁷

수원농림학교는 전문과의 설치와 동시에 일본인에게도 입학할 허가하였으며, 일본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일본인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징집 유예의 특전을 부여하였다. 1918년 4월 5일에 전문과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응시자 143명 중 22명이 합격하였으며, 그중 일본인이 7명이었다. 이로써 수원농림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수학하는 농업계 고등교육기관이 되었다.⁸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전문학교 승격과 동시에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학무국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지금까지 특수관립학교로 존속되어 왔던 농림학교의 체제에서 벗어났다.

2 이춘영,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196~197쪽.

3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8쪽.

4 이춘영, 『한국농학사』, 민음사, 1989, 197쪽.

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29쪽.

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5쪽.

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0쪽.

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29쪽.



수원농림학교 교수진과 제9회 졸업생(조선총독부농림학교 교우회, 『조선총독부농림학교 교우회 회보』 9호, 1916)

그러나 교장만은 여전히 권업모범장이 겸임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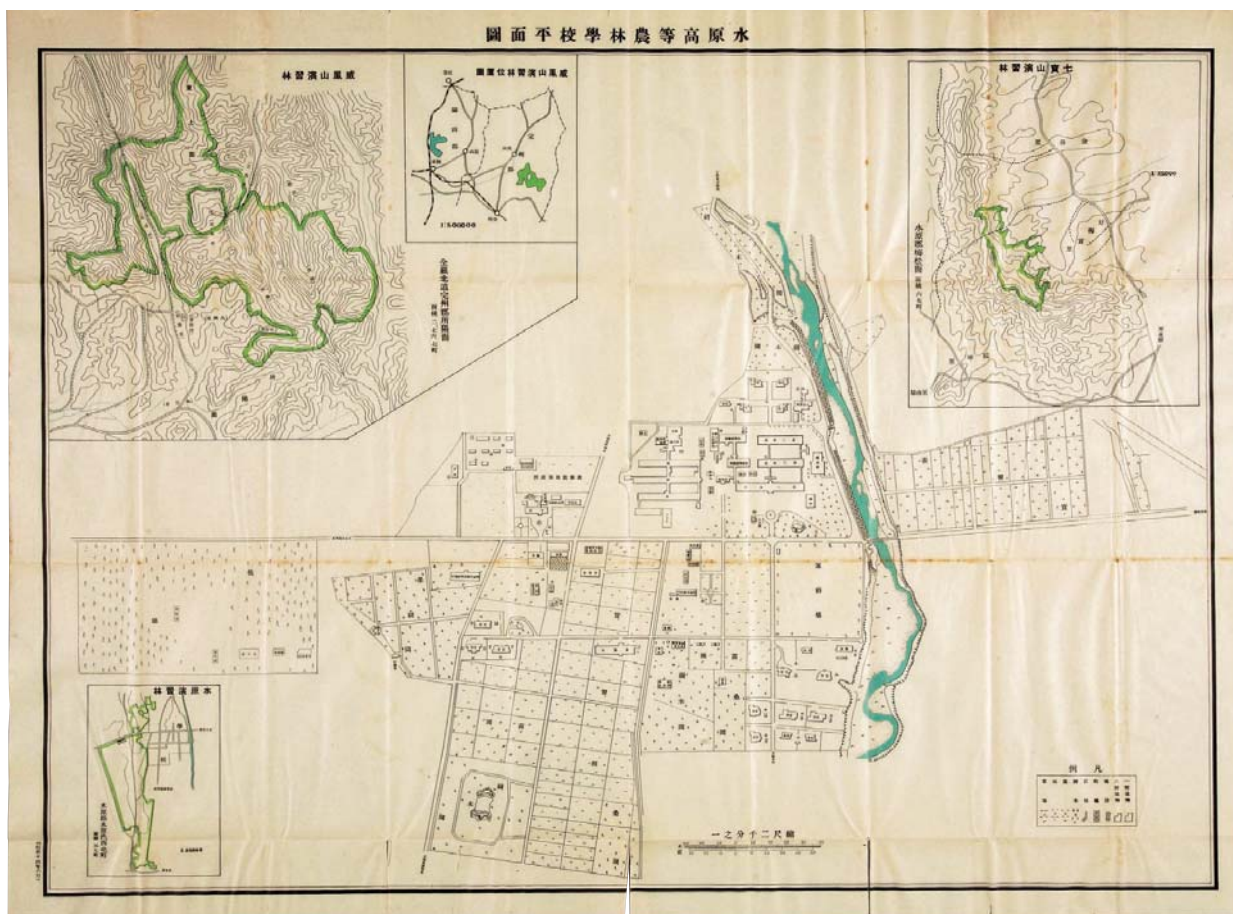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이하 수원고농)가 되었다.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였으므로¹⁰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는 학교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때부터 종래의 농학 단과제를 개정하여 농학과와 임학과로 분리되었으며,¹¹ 관비제가 자비제로 바뀌었다. 자비제는 수원농림학교에서 큰 변화였는데, 이 때문에 지원자수가 격감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도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여 2차 보결로 모집한 결과 농학과 25명, 특과¹² 5명, 임학과 17명, 특과 5명, 계 52명의 학생으로 수원고농이 개교하였다. 입학시험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었는데 특히 무시험검정은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농림학교 재학자로서 3개년을 통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었다. 무시험 입학 정원은 각 학과 모집 정원의 5분의 1로 하였다. 한국인 학생은 특

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0쪽.

1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8~39쪽.

11 小早川九郎,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朝鮮農會, 1944, 501쪽.

12 정식 학생으로 학비를 감면받는 학생을 말한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평면도」(『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 1939, 수원박물관 소장)

별히 반일사상이 없고 신체 건강한 학생 가운데 구술시험만으로 합격시켰다.¹³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학교에 입학한 한국인 학생들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집안의 자손들로 5년제 고등보통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수원고농 졸업생들에게는 특전이 있었다. 이들은 졸업 후 조선 내 사립학교 교원 자격을 받았다. 사립고보, 여고보 등에서 생물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1925년 3월 19일에는 무시험 검정학교로 지정되어 농학과 학생들은 중등학교 농학과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교원 자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¹³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9쪽.

전문학교 졸업자는 「문관임용령」 제6조 1호에 따라 판
임문관(判任文官)의 자격이 인정되었다.¹⁴

당시 학교 교수진 구성을 보면 1926년 3월 이래 농사
시험장을 겸임한 농학박사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가
교장이었고, 교수진은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다만 경기
도 출신의 조백현(趙伯顯)만이 한국인이었는데, 그는
1900년에 태어나 1916년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20
년 3월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1925년
3월 31일 규슈제국대학 학부 농예화학과를 졸업하고
1925년 10월 31일 수원고농 조교수로 부임하였으며,¹⁵
1925년 4월부터 사감으로서 화학, 토양학, 농산(農産)제
조학, 농예(農藝)화학 등을 강의하였다.¹⁶



1925년 이후 수원고농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였
던 조백현

교과과정을 보면 농학과와 임학과의 경우 공통으로 수신, 국어, 경제학, 법학통론 등을
교양으로 배우는 외에 각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였다. 다만 제2외국어로 농학과는
영어를, 임학과는 독일어를 공부하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교과과정 중 특히 주목되는 점
은 국어시간에 한국인 학생은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 학생은 한국어를 배웠는데, 후자
의 경우 일본 학생들이 농촌지도 때 한국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
전 말기에는 일본어의 강요로 한국어 강좌는 폐지되었다.¹⁷

〈표 1〉 1924~1928년 수원고농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수¹⁸

(단위 : 명, %)

구분	한국인		일본인	
	학생수	비중	학생수	비중
1924	56	28	144	72
1925	63	34	119	66
1926	65	38	108	62
1927	75	45	91	55
1928	58	38	93	62

1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9쪽.

15 유천, 「조학장 근속 25주년을 당하여」, 『상록』 창간호, 서울농대, 1950, 162쪽.

1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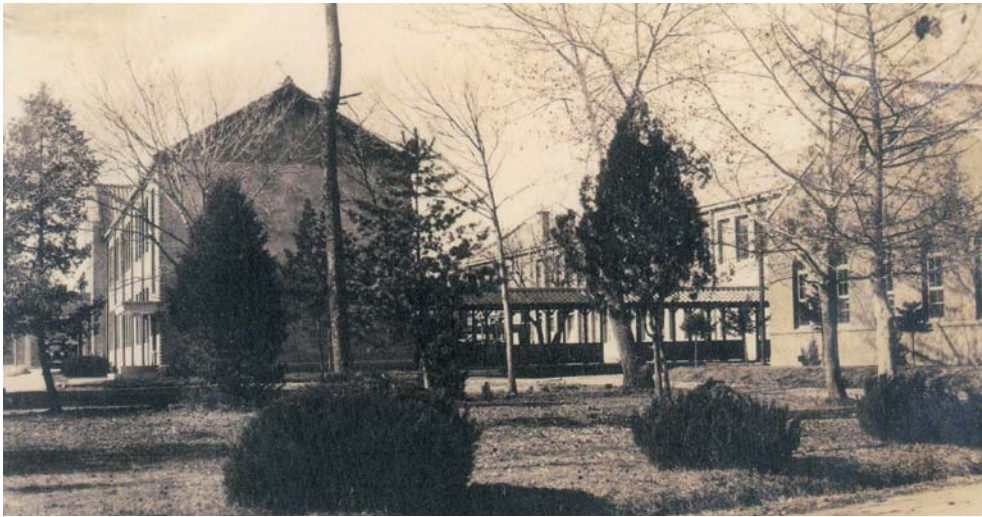
1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9~41쪽.

1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0쪽.

〈표 2〉 1926~1928년 농학과와 임학과 한국인 학생수¹⁹

(단위 : 명)

구분	1926		1927		1928	
	농학과	임학과	농학과	임학과	농학과	임학과
1학년	13(2)	8	23	15	14	6
2학년	15(2)	7(2)	15	7	17	4
3학년	5(6)	0(6)	16(2)	7	9	8



1930년대 수원고농 전경(수원박물관 소장)



수원고농 학생들

2) 수원고농 학생들의 민족의식 성장

1927년 6월 수원고농에 건아단이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되는데, 이는 그 이전부터 이 학교에서 계승되어 온 항일의식의 전통이 작용된 것 같다. 우선 1923년 5월 3일부터 수원고농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 전부가 학교에 7가지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동맹휴교를 단행한 일을 들 수 있다.²⁰ 또한 한국인 학생들은 1926년 순종의 인산 이후에 민족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고농사건의 중심인물의 한 사람인 김찬도(金燦道)는 1950년에 수원고농사건을 회상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단기 4259년 기억도 새로운 6·10만세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당시 동경을 거쳐 홍수처럼 밀려드는 좌익사조에 휩쓸린 고농학생 중엔 이에 열중된 4~5명이 일인의 공명학생과 더불어 독서구락부 같은 것을 조직하였었고, 또 한편 대부분의 학생은 마비된 국가의식의 가면을 쓴 채 민족적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고농을 졸업하고 일제 관문(官門)에 취직하면 단번에 판임관(判任官)을 얻는 형편이라, 고농생을 향하여 부를 때는 군(君)이나 상을 쓰지 않고 김 주사, 이 주사라고 불러 주었던 만큼 졸업 후의 관문 보증이 든든했던 까닭에 수원 시내 요정에 들어가서는 주사행세를 단단히 했고, 기생방 출입을 일삼은 학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민족정신과 실제적인 민족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인 단기 4259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말년의 왕 융희 순종의 인산을 당하여 우리들은 조국을 그리는 마음 끝에 자진 휴학을 결정했더니 학교 당국에서도 슬그머니 휴학을 인정해 주었고, 6월 10일 인산무전(因山武典)에도 상경 참석하여 조국의 비운에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기생집 출입을 일삼은 학생들의 반성을 바라면서 그들의 아침 늦잠 지는 버릇을 고쳐 주기 위하여 조기회를 조직했으며, 한인 학생들이 침거(寢居)하는 동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조기운동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방법을 썼으며, 농촌문화의 선진국인 정말식(丁抹式: 덴마크식 - 필자 주) 체조를 실시 여행(勵行)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을 두려워하는 일인 교수들은 번갈아가면서 새벽운동장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는 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²¹

즉 수원고농 학생들 사이에 민족의식이 확산되고 실제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26년 이후였다. 1926년 당시 수원고농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으로 자진 휴학을 결정하고 6월 10일 상경, 순종의 인산무전에 참여하였다.

1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0쪽. 괄호 안은 특과 학생수이다.

20 『동아일보』, 1923년 5월 6일.

21 김찬도, 「조국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0~171쪽.



제10회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 제5회 부치(附置)실업보습학교교원양성소 졸업생, 제2회 부치실업보습학교 졸업생(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교우회보』 86호, 1932)

이와 함께 1926년 6월 21일, 학생 20명이 학교 당국의 처사에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3개 항을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 생도에게 친절하게 하여 줄 것 - 무자격한 선생 타카키(高樹), 와다(和田), 사이토(齋藤)에 대한 배척.
1. 3학기제를 2학기제로 개정해 줄 것.
1. 교사를 신축해 줄 것.²²

학생들의 이러한 진정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응하지 않자 학생들은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는 전교생 150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고,²³ 기숙사 퇴거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학생들이 불응하면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

22 『동아일보』, 1926년 6월 28일; 『조선일보』, 1926년 6월 25일(석간).

23 『동아일보』, 1926년 6월 28일; 『조선일보』, 1926년 6월 27일(석간).

였다.²⁴ 이러한 학교 당국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하여 학생, 학부형, 일반 시민들은 분격하였고,²⁵ 수원군수와 졸업생들도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부형과 회합하여 다음과 같은 안을 학교 측에 제시하였다.

1. 교사 개축, 내용 충실 문제는 교장에게 일임할 것.
1. 생도의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1. 생도의 의지를 인정하고 교장이 모든 책임을 질 것.
1.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할 것.
1. 희생자를 내지 말 것.²⁶

이에 대해 1926년 7월 3일 오후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다. 다만 교수의 배척문제는 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²⁷ 동맹휴학은 학내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모두 참여한 사건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인 학생들이 단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고농의 주변 환경과 한국인 학생들만의 기숙사생활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인들만이 다니던 수원농림학교가 전문학교가 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학이 된 이후 대부분이 일본인 학생이었으며 한국인 학생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직원은 조백현 교수뿐이었다. 학교 내에서는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과 천시가 날로 가중되었다.²⁸ 특히 학교 당국은 한국인 학생들을 농장 인부 정도로 취급하였으며, 기숙사시설이나 기타 대우에서도 한국인을 차별하였다.²⁹

기숙사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은 각각 수용하였는데 한국인들이 머무는 곳은 동료(東寮), 일본인 학생들이 머무는 곳은 서료(西寮) 또는 홍료(虹寮)라고 하였다.³⁰ 한국인 학생들은 같은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단결해 나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유천(柳泉)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24 『조선일보』, 1926년 6월 29일(석간).

25 『동아일보』, 1926년 7월 1일.

26 『동아일보』, 1926년 7월 5일; 『조선일보』, 1926년 7월 4일(석간).

27 『조선일보』, 1926년 7월 5일(석간).

28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29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30 김예양, 「상록사(常綠畝)의 금석(今昔)」, 『상록』 창간호, 1950, 164쪽.



수원고농 기숙사(수원박물관 소장)

제국시대의 수원의 학원은 관립으로서 완전히 일인들의 학원이었다. 그러나 그속에 또 우리 동족으로 된 별개의 학원이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만의 기숙사 동료가 곧 그곳이다. 망국의 문복(問復), 이상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인 학생들의 투쟁의 전통이 그것이다. 실로 꾸준하고도 억척스러운 단결과 반정(反情)이 일관하여 끊이지 않았다. 선배의 빛나는 투쟁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한인으로서 욕됨이 없도록 활발히 싸웠다.³¹

한편 동료의 한국인 학생들과 서료의 일본인 학생들 사이에는 갈등도 심하였다. 이 같은 대립이 심할수록 한국인 학생들은 더욱 단결하였다.³² 그들은 기숙사에서 3·1절과 개천절에는 비밀리에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모일 때마다 다음과 같은 「동료의 노래」를 합창하였다.³³ 이 노래는 특히 수원고농사건의 중심인물인 김성원(金聲遠)이 「독립선언문」의 집필자인 최남선(崔南善)을 10여 차례나 방문하여 작사를 부탁해서 받는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독일 국가에 가사를 붙여 불렀는데,³⁴ 첫째 절과 후렴은 다음과 같다.³⁵

31 유천, 「조화장 근속 25주년을 당하여」, 『상록』 창간호, 1950, 161쪽.

32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33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34 김성원 면담(1995년 2월 11일 방배동 소재 흥진빌딩 4층 김성원의 사무실).

35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1995년 2월 11일 김성원과 대담할 때에도 그는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암송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 노래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수원고농 축구부(1942,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신축기숙사 내부(1942,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세계문화의 첫 빛은
 팽이 만든 날 생겼고
 단군(檀君)의 헤진 흠에서
 문명의 조선 나왔네.
 시원한 바람 팔달산(八達山)
 맑은 물 넘는 서호수(西湖水)
 수고한 하로 땀 씻을 때
 나날이 새론 희망 큰 만족

즉 학생들은 노래를 통하여 한국인임을 확인하면서 단합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같은 기숙사생활 속에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동료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밀약을 하였다.

1. 조기회(早起會)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
2. 강의시간 외에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 것.
3. 축구부 이외의 운동부에는 가입하지 말 것.
4. 경어를 쓸 것.
5. 깨다나 조리를 신지 말 것.
6. 규정된 석차(席次) 내에 들 것.³⁶

특히 축구부와 관련해서는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당시 수원고농에는 변론부 외에 야구부, 정구부, 검도부, 유도부, 축구부 등의 운동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축구부에만 가담하였다. 축구부는 동료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 전원이 동료생인 동시에 축구부 회원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한국인 학생들의 단결과 일제에 대한 투쟁력을 키워 주는 유일한 집합체였다.³⁷ 또한 당시 유일한 한국인 교수였던 조백현이 축구부 부장을 담당하고 있었다.³⁸

한편 1927년 12월 초순 동료의 남쪽에 일본식 다다미방의 기숙사를 신축하고 동료를 강제로 이동시켜 '남료'라 칭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동료라는 명칭을 고수하였다.³⁹

3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52쪽.

3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38 유천, 「조학장 근속 25주년을 당하여」, 『상록』 창간호, 1950, 161쪽.

39 김예양, 「상록사(常綠舍)의 금석(金昔)」, 『상록』 창간호, 1950, 164쪽.

2. 1920년대 학생비밀결사 _ 건아단과 조선개척사

1) 수양단과 건아단의 조직과 활동

(1) 수양단의 조직과 활동

1926년 4월 수원고농 농학과에 입학한 김찬도, 우중휘(禹鍾徽), 고재천(高在千), 권영선(權永善), 김봉일(金奉日), 김익수(金益洙), 임학과의 백세기(白世基), 육동백(陸東白) 등은⁴⁰ 1년 선배인 김성원을 중심으로 동료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인들 사이에 힘을 키우면서 단합하였다.⁴¹

김성원은 1906년 함남 함흥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던 『유년필독(幼年必讀)』을 읽고 일찍이 민족의식을 갖게 되어, 1919년 3·1운동 때 14살의 나이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1919년 함흥 시내 서호진(西湖津)국민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해 함흥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1학년 여름방학 때 함경남도 원산시 해변가에 있는 학농원이라는 과수원에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 농장은 1910년에 원산 시내에 살던 윤병수(尹秉秀)가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기증받은 사과나무 묘목 1,000주를 원산 바닷가 명사십리(明砂十里) 부근에 심어 가꾸어 온 것이었다. 김성원이 견학하였을 때는 이미 성목원이 되어 있어 그는 풍요로운 결실과정을 보면서 경탄하였고, 이를 계기로 과수재배를 연구할 것을 결심하였다. 1925년 함흥고보를 졸업한 그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원고농에 입학하였다.⁴² 아울러 1927년 4월에는 농학과에 황봉선(黃鳳善), 남영희(南榮熙), 김문찬(金汶贊), 임학과에 한전중(韓典鍾) 등이 입학하였는데,⁴³ 이들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단합하였다.

그들은 우선 한국인 학생들로 수양단(修養團)을 조직하여 단장에 김찬도(2년), 지도위원에 고재천(2년), 남영희(1년) 등을 뽑고 화랑도 수련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인 학생의 체위(體位) 향상, 정신개조, 학력증진을 목표로 유도, 검도, 등산, 냉수마찰, 조기운동 중 1가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래 타락한 생활에 빠진 학생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의 금지운동을 전개하였다.⁴⁴

40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회원씨명록」, 1926(서울대 농학도서관 소장).

41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42 김성원 면담(1995년 2월 11일 방배동 소재 흥진빌딩 4층 김성원의 사무실).

43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수원학보』 76호(제20권 1호), 1927년 7월, 115~116쪽.

44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학생들은 민족운동의 중심을 농민운동에 두었으나 재학 중 농민운동으로서는 농촌계몽운동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몽운동에 착수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수원의 서둔리, 고색리(古索里) 마을에 야학을 설치하고 순번으로 나가서 글 모르는 농촌 청년들과 아동들에게 국문과 산수, 한국역사를 가르쳤다. 때로는 농촌 인사들을 모아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야학전람회도 개최하여 농촌야학의 성과를 선전하기도 하였다.⁴⁵ 이 운동에는 상급생 김성원이 적극 가담하여 선도하였다.⁴⁶

아울러 학생들은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인근 제암리(堤岩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곳은 1919년 4월 5일 일제가 무고한 한국인을 집단으로 학살한 곳이었다.⁴⁷ 그들은 이곳을 방문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아울러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는 애국가를 합창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때의 감격을 김찬도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⁴⁸

기미년 독립운동에 수원사건으로 수백 명의 애국동포가 잔인무도한 일본 군병에게 화장당한 제암리도 단(團)을 지어 방문하였고, 료에 돌아오는 길에서는 애국가를 합창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불렀던 것입니다. 아! 그날의 감격은 아직도 나의 혈관에 불질러 줍니다.

(2) 수원고농과 조선농민사

수원고농 학생들은 1926년 여름 천도교계 조선농민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성환(李晟煥)이 수원고농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선농민사 지부를 수원고농 내에 설치하였다.⁴⁹ 천도교에서는 1925년 10월 조선농민사를 설립하여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⁵⁰ 조선농민사는 중앙이나 지방이나 공히 천도교인 외에도 농민운동에 가담한 농민 또는 사회인사를 망라한 당시 민족개량주의자들로 구성된 대표적인 농민계몽운동단체였다.⁵¹ 운동의 내용을 보면 1920년대에는 계몽운동을 주축으로 전개하였다.⁵²

조선농민사는 조선농민의 교양과 훈련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월간잡지 『조선농민』을 발행하였다. 또한 사우제(社友制)를 채택하여 사우는 연 1원을 부담하고 기관지를 받아 보았다.⁵³ 조선농민사는 설립되면서부터 야학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45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1쪽.

46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47 강신범, 1992, 『제암교회 3·1운동사』, 도서출판 공동체, 22~29쪽.

48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1쪽.

49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1쪽.

50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169쪽.

51 지수걸, 「조선농민사의 단체성격에 관한 연구-천도교 청년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06, 1985, 173쪽.

52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170쪽.

53 전조선농민사편집실, 「조선농민사의 연혁」, 『조선농민』, 1930년 6월호, 27쪽.

『조선농민』에서는 창간호부터 야학 교재로 『농민독본』, 『농민과학강좌』, 『위생강좌』, 『상식문답』 등을 연재하면서 농민야학과 귀농운동을 제창하였다.⁵⁴

이러한 조선농민사의 수원지부를 학교 내에 설치한 학생들은 특히 이 단체의 활동 중 야학활동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학생들이 가르치던 수원군 안룡면의 야학 외에 그 부근 각 면에 농민야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서로 순번을 정하여 야학에 참여하였는데, 김찬도가 지부장이 되고 권영선 외 4명의 학생이 간부가 되었다.⁵⁵ 이들이 추진한 야학 중 1927년에 만들어진 수원군 고색리 야학은 남학생이 89명이었고, 김성원과 김찬도 외 13명이 교사로 활동하였다. 수원군 서둔리 야학은 남학생이 106명이었고, 김성원과 김찬도 외 19명이 교사로 활동하였다.⁵⁶

(3) 건아단의 조직과 활동

이처럼 활발히 수양단 활동과 야학활동을 전개하던 학생들은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결사체의 조직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1927년 6월 동교 동료 안에 있는 한국 학생운동자들 사이에 건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농민대중의 계발을 통한 새로운 조선 건설을 강령으로 삼고 단군기원의 연호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⁷ 이에 그들은 1928년 봄 고농 제6회 졸업생들에게 기념으로 은메달에 졸업연호를 단기 4261년이라고 새겨 주었다.⁵⁸ 당시의 감격을 김찬도는 그의 회상기에서,

단기 4261년 고농 제6회 졸업생으로 학원을 떠나게 된 선배 제형들에게는 기념품으로 드리는 은메달에 졸업연도를 단기 4261년이라고 박아서 드렸든 것입니다. 제6회 졸업생 제형들이여! 그 기념의 메달을 그릇된 황민사상으로 버리신 분은 아니 계실 줄 믿습니다.

금일까지 귀중히 가지고 계시는지. 제형은 분명히 자랑꺼리의 기념품이 되실 것입니다.⁵⁹

라고 하여 당시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건아단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늦잠 자는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조기회를 조직하여 텐마크 체조를 하였다.⁶⁰ 또한 냉수욕 등도 실시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산대, 도보대,

54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9, 219쪽.

55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56 전조선농민사편집실, 『각지농민야학상황』, 『조선농민』, 1927년 12월호.

57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58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2쪽.

59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2쪽.

6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8쪽.

여행단 등을 조직하여 계속적으로 심신단련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동료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당시 한국어로 간행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과 『조선농민』 등 잡지를 비치하고 독서와 사상통일에 힘을 기울였다.⁶¹

또한 서울에서 명사를 초청하여 기숙사에서 강연회와 좌담회 등도 개최하였는데, 그때 초청된 인사로는 이대위(李大偉)와 홍병선(洪秉旋) 등을 들 수 있다.⁶² 이대위는 1919년 3·1운동 후 YMCA 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1927년 미국에서 귀국하여 기독교동우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중앙 YMCA연맹 학생부 간사로 취임하였으며, 기독교면려회 청년회 총무도 겸직하였다.⁶³ 홍병선은 1920년 YMCA 활동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1925년에는 남감리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YMCA 농촌부 간사로 취임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농촌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그는 1928년 덴마크의 농촌운동을 시찰하고 돌아온 뒤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였다.⁶⁴

즉 수원고농에 초청된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청년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내방은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이었던 김성원이 추진하였으며, 김성원은 1930년대 장로교 총회 초대 농촌부 기술간사로 조만식, 한경직, 안창호 등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다.⁶⁵ 이를 계기로 수원고농에서도 YMCA 운동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일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신간회에 가입하기도 하였다.⁶⁶

한편 건아단 회원들은 조선농민사 활동도 계속하였다. 즉 『조선농민』 1927년 8월호에 본사 수원사우회(水原社友會) 간부 김성원은 「화전농민탐방」이라는 제목으로 그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화전농민의 참담한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1주일 전에 함흥을 출발하여 풍산(豊山)까지 갔고, 여기서 다시 장진(長津)을 향하여 태백산 중의 화전농업과 농민 생활의 참담한 상황을 실지로 답사한 후 지상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김성원은 일찍이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에서 발행한 『수원학보』 76호(제20권 1호, 1927년 7월 10일 발행)에도 「조선농민의 경제생활」이라는 글을 발표하는 등 조선 농민의 경제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⁶⁷

61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62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7쪽.

63 채현석, 「이대위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 『수촌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1992, 1002쪽.

64 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홍병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5 김성원 면담(1995년 2월 11일 방배동 소재 흥진빌딩 4층 김성원의 사무실).

66 김찬도, 「조국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1쪽.

67 이 글이 『수원학보』에 실리게 된 것은 학보의 주간이 기독교인인 일본인 니시키(西龜)였는데, 그와 김성원이 같은 기독교인으로 친밀하였기 때문이라고 김성원은 회고하고 있다(김성원 면담).

조선은 농업국이다. 1925년 10월의 조사에 의하면 전 인구 1,952만 3천 명 중에서 농민의 수는 실로 1,464만 7천 명이다. 즉 전 인구의 약 7할 5푼이 농민이다. 따라서 조선의 실정에 접할 때 이들 조선농민생활의 경제적 실정을 등한시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들 농업에 관계하는 자는 그 입장 여하를 물을 것도 없이 우선 지금 그들의 생활에 일고를 요하는 것은 물론이다.⁶⁸

이러한 생각을 가진 김성원은 1927년 여름방학 동안 직접 화전민의 생활을 보기 위해 답사하였고 그 글을 기고하였던 것이다.

김성원은 이어 『조선농민』 제3권 11호(1927년 11월 발행)에 「화전민문제」라는 제목으로 ‘참중(慘中)의 화전농민생활’을 통해 화전민의 참담한 생활을 고발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불온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일부만 게재되었다. 또한 제3권 12호(1927년 12월 발행)에 게재 예정이던 김성원의 「화전민문제」는 전문이 삭제되었다. 김성원은 『조선농민』 1928년 1월호에 「토양에 대한 지식」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1928년 『청년』에 「우리들의 이상」(1928년 3월호)과 「농촌문제의 이론과 실제」(1928년 4월호)를 각각 발표하였는데, 전자는 불온하다는 이유로 전문이 삭제되었다. 그는 후자에서 “현하 조선의 정세는 모든 방면에서 총과떨당하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청년 더욱이 지식계급의 청년은 항상 조선의 현실을 저주하다 조선인이 된 비애와 불행을 자탄하게 됩니다.”라고 하여 조선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또한 김찬도는 1927년 11월호와 1928년 2월호에 「토양에 대한 지식」을 각각 발표하였고, 1928년 2월에는 우중회가 「식물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발표하였다.

건아단은 야학을 실시하였다. 야학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자인 김찬도, 교무책임자인 권영선 등의 활동이 주목된다. 김찬도와 권영선은 조선농민사 수원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룡면 고색리 야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김찬도는 야학을 통해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1927년 11월 하순부터 1928년 4월 하순까지 야학교에서 조선역사를 가르칠 때 갑반과 특별반의 학생 최기헌(崔基憲), 김이덕(金二德) 외 십수 명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권영선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고색리 야학에서 학생들의 성적품전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글을 짓게 하였다. 권영선은 특별반의 학생 김이덕(金二德)의 작문 중, “우리는 일본에 ○○된 ○○가 아니다.” 등 민족의식을 표현한 내용을 보고 수정을 가하여 “우리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소년 등은 ○○된 우리 입장. 우리는 지금이 ○○

68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수원학보』 76호(제20권 1호), 1927년 7월, 62쪽.

도 없는 ○행한 ○○인 것을 각오하고 다시 우리는 ○○건설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고쳐 주었다.⁶⁹ 또한 “태평양에는 만국기를 단 군함이 오고 가건만, 아 슬프다 태극기를 단 군함은 한 척도 보이지 않는구나.”라는 작품도 전람회에 출품하여 일반인의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권영선은 전람회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후일 형을 받았다.⁷⁰

건아단은 일본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조직한 조선농우연맹(朝鮮農友聯盟)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⁷¹ 조선농우연맹은 1928년 5월 27일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로 조직된 단체로 조선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직 조선인 스스로의 힘으로 팽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1. 하기 순회강연을 할 것.
2. 지방농업 상태를 조사할 것.
3. 하기 농업강좌를 개최할 것.
4. 조선농촌의 특수성을 조사 연구할 것.

조선농우연맹 집행위원은 강종무(姜琮武 : 駒場農大), 조병시(趙丙始 : 도쿄농대), 김억만(金億萬 : 도쿄高蠶), 김주건(金周健 : 千葉高園), 배일환(麻布獸醫) 등이었으며, 위원대표는 강종무였다.⁷² 조선농우연맹의 이러한 취지와 사업은 수원고농 건아단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건아단은 조선농우연맹에 가입하는 한편 지부를 수원고농에 설치하였다.⁷³

건아단에서는 수원지부 대표로 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한전종을 조선농우연맹의 조선 순회강연 때 파견하는 등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남부 지방 순회강연 중 도처에서 중지와 금지를 당하였다. 순회강연은 결국 조치원에서 해산되고 한전종은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당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교 당국에는 조선농우연맹의 지부가 수원고농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⁷⁴

69 『조선일보』, 1930년 3월 6일.

70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1쪽.

71 『조선일보』, 1930년 2월 22일.

72 『동아일보』, 1928년 6월 13일.

73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74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2) 조선개척사의 조직과 활동

(1) 조선개척사의 결성과 활동

1927년 7월 5일 수원고농 농과 2학년 김찬도·권영선 등 24명은 송강(松岡) 조백현 교수의 지도로 강원도 회양군(淮陽郡) 난곡(蘭谷), 강원도 평강군(平康郡) 고삽면(高插面) 세포리(洗浦里), 함경남도 함흥과 원산, 금강산 방면 등으로 8일간 수학여행을 다녀왔다.⁷⁵

그들은 그중 난곡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체포된 독일군 포로를 수용했던 농장에 가 보았다. 연합군으로 참가한 일제가 독일의 패전과 함께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에 주둔하던 독일인들을 체포해 난곡에 수용시키고 산간을 개간하여 농장을 일구었는데, 당시로는 농업 외에 축산과 과수원 등을 골고루 갖춘 근대식 농장이었다. 그 외 그들은 여러 곳에 있는 일본인 경영의 대규모 농장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이에 강한 자극을 받은 건아단 단원들은 조선의 많은 미간지를 개간하고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을 모아 일대 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⁷⁶

즉 건아단 단원들은 일본인 경영의 모범농장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평소부터 뜻하고 있던 독립주의를 조선에 널리 퍼기 위해서는 먼저 농민과 함께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깨달았다.⁷⁷ 그리하여 졸업 후의 농민운동계획에 골몰하고 있던 그들은 조선의 대중은 농민이 8할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민과 더불어 조선운동의 중추가 되어야겠다고 결의하고 1928년 6월 하순경 조선개척사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하였다. 당시 이 모임에 참가한 인물로는 김찬도, 육동백, 김익수, 황봉선, 김문찬, 남영희, 고재천, 권영선, 우종휘, 김봉일, 백세기 등을 들 수 있다.⁷⁸

그 후 그들은 조선개척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눈을 피하여 기숙사에서 3마장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산(麗妓山) 정상에 올라가 새벽 2시까지 의견을 교환하였다. 1928년 7월 여름방학으로 빈 기숙사 동료 제3호실, 학생 실습답, 서호 주변 독립정자(향미정), 여기산 등지에서 계속 토의한 결과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였다.⁷⁹ 이 계획안을 작성한 김찬도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5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본교회보」, 『수원학보』 77호(제20권 2호), 1927년 12월.

76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77 『동아일보』, 1928년 9월 16일.

78 『조선일보』, 1930년 2월 22일.

79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豫審取調三年만에 十一名中九名免訴

朝鮮開拓社秘社이라고
治罪法起訴한것이保安法으로適用된

◇水原高農生事件

水原高等農學校(高水) 학생 11名가 1929년 12월 21일 日帝(日本帝國)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 豫審(豫審) 取調(取調) 3年(3年) 만(만) 에 11名(11名) 中(中) 9名(9名) 免訴(免訴) された(された). 秘社(秘社) 開拓社(開拓社) 秘社(秘社) として 治罪法(治罪法) 起訴(起訴) された(された) 學生(學生) 11名(11名) 中(中) 9名(9名) 免訴(免訴) された(された). 秘社(秘社) 開拓社(開拓社) 秘社(秘社) として 治罪法(治罪法) 起訴(起訴) された(された) 學生(學生) 11名(11名) 中(中) 9名(9名) 免訴(免訴) された(された).

兩人만公判에

그들의성명은다 올라갔다
免訴者는今日出獄

保安違反으로

- ▲起訴者名
▲免訴者名
▲起訴者名
▲免訴者名

個人論文을 綱領으로誤認

開拓社는親睦機關

開拓社(開拓社)는親睦機關(親睦機關)으로 誤認(誤認) された(された). 個人論文(個人論文)을 綱領(綱領)으로 誤認(誤認) された(された).

興農社로改稱 某運動策

某運動策(某運動策)은 興農社(興農社)로 改稱(改稱) された(された). 運動策(運動策)은 興農社(興農社)로 改稱(改稱) された(された).

조선개척사의 조직 과정과 활동을 다룬 신문기사(『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개척사운동의 골자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집권의 체제로써 농민운동을 해 놓고 일본으로 하여금 외국과의 전단(戰端)을 이르기어 이 전란을 기회하여 농민봉기를 꾀하고 이로써 우리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획득해 보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후일 조선총독부의 인가인은 사업단체로 위장하기 위해서 개척사안(案)에 쓰여 있던 정치적 문구는 기교 있게 빼어 버리고 개척사안의 근본적인 목적 즉 민족적 독립운동을 목표로 삼고 농민으로서 흥기(興起)하겠다는 뜻으로 흥농사(興農社)라 개명하고 조직의 방법과 사업의 내용은 순개척사안 그대로 하여 훌륭한 농촌개척사업 단체인 흥농사안을 맨드러 놓고 결성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성한 흥농사는 틀림없이 개척사의 목적 즉 조선독립을 기도한 정치단체이었으며 아직 인가수속이 없었으니 비밀결사로 규정되어 동지 11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던 것입니다.⁸⁰

즉, 개척사는 일본이 외국과 전쟁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중앙집권적 체제하에 농민봉기를 전개,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

80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2쪽.

여 학생들은 개척사안에 쓰여 있는 정치적 문구를 제거하고 단체의 명칭도 농민을 흥기 시키겠다는 흥농사로 개명하였다. 즉 비밀조직인 개척사의 표면단체가 바로 흥농사였던 것이다. 표면단체이며 합법적인 단체인 흥농사는 계림흥농사(鷄林興農社)라고도 하였으며,⁸¹ 우중회가 중심이 되어 그 표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1. 이익배당 배제
2. 조직원 생활공동 보장
3. 조직원 자녀교육비 공동부담 실시
4. 국내 주요 적지(適地)에 공동출자 농장 설치

계림흥농사는 수원고농 출신 선배들과 당시 국내외에 산재한 모든 농학도를 포섭하여 전국 농촌에 광범하게 협동농장을 만들고 농촌기술 향상, 농촌 문화 및 경제 향상을 추진 하여 이상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의 대내적 책임은 김찬도가 담당하였으며, 대외적 책임은 우중회가 전담하였다.⁸²

흥농사는 취지문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한편,⁸³ 제일 먼저 문자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⁸⁴ 우선 수원군 안룡면 일대에 농민야학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배운 농림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국문교수 등 문자보급운동에도 전력을 다하였다. 또한 농민조합 같은 기관을 각 촌에 설치하게 하고 향리에 돌아가서도 귀농활동으로 각각 실제 운동에 종사하기를 기약하였다.⁸⁵

(2) 체포 경위와 학생들의 대응

계림흥농사 회원들은 졸업을 앞두고 각 방면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1928년 봄에 졸업하여 경남 김해 공립농업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던⁸⁶ 김성원이 체포된 것을 계기로 1928년 9월 1일 수원서에 검거되었다.⁸⁷ 김성원은 검거 당시의 상황과 계림흥농사가 탄로 난 이유에 대하여 회고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81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82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6쪽.

8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7~48쪽.

84 『조선일보』, 1930년 2월 22일.

85 『조선일보』, 1930년 2월 22일.

86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수원학보』 78호(제21권 1호), 1928년 6월, 121쪽.

87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1928년 필자가 경남 김해농업학교 재직 당시 그해 5월 1일에 김해읍에서 거행된 어린이날 축하대회에 초청되어 그 석상에서 축하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말이 좀 지나쳐서 일시 설화(舌禍)사건을 일으킨 것이 검찰의 주목을 끌게 되어, 그 후 저들의 미행과 내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동시에 가택 수색을 한 결과 수원에 있는 동창 우중휘 씨와 내왕한 서신 1매가 발각되어 이것이 도화선으로, 수원에 일대 검거의 선풍이 일어나게 된 것인바⁸⁸

또한 계림홍농사의 중심인물인 김찬도도 당시 자신들의 체포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단기 4261년 고농 제6회 졸업생으로 경남 김해공립농업학교 교원으로 가 있던 김성원 군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김군이 김농(金農)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는 것으로 보안법 위반이 되어 외금강(外金剛) 온정리(溫井里)에서 중등교원 하계강습을 받는 도중에 잡히었던 것입니다.

김군의 부친(金容濬 - 필자주)은 이 일을 알자 급히 김해로 달려가서 김군 숙소에 있는 소지품 중에서 불온하다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없애 버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서책(書冊) 속에서 우중휘 군이 보낸 서신이 끼어 있어서, 이것이 경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서신 중에는 우리가 홍농사를 결성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연하여 수원 경찰의 손이 빠치게 되었든 것이요, 우리들의 숙료(宿寮)를 검색(檢索)하고 보니 농촌야학전람회의 출품, 개척사 초안과 홍농사의 결성 절차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든 것입니다.⁸⁹

1928년 9월 1일 수원경찰서에 체포된 수원고농 학생 11명의 이름, 나이, 학과, 출신지 등을 보면 고재천(25세, 농과 3년, 전남 담양), 권영선(26세, 농과 3년, 황해 안악), 김문찬(27세, 농과 2년, 강원도 이천), 김봉일(25세, 농과 3년, 경남 고성), 김익수(25세, 농과 3년, 전남 나주), 김찬도(22세, 농과 3년, 황해도 황주), 남영희(24세, 농과 2년, 충남 아산), 우중휘(25세, 농과 3년, 함남 삼수), 황봉선(22세, 농과 3년, 충남 천안), 백세기(22세, 임과 3년, 충남 공주), 육동백(21세, 임과 3년, 충북 옥천)⁹⁰ 등이다. 체포된 학생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이며, 학과는 농과, 학년은 3학년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출신지는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88 김성원, 「회고담-세칭 수원고농사건」, 『상록』 6호, 서울농대, 1957, 8쪽.

89 김찬도, 「조국애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2~173쪽.

90 『동아일보』, 1928년 9월 16일.

한편 사태가 이에 이르자 학교 당국에서는 1928년 9월 17일 아침 비밀결사는 물론 학교가 공인한 조선인 학생으로 조직된 담화회 및 기숙사 안의 단체 회합 등에 해산을 명하였다. 아울러 동일 아침 교장은 조선인 학생 일동을 모아 놓고 약 2시간 동안 훈시를 하였고, 검속자 11명 중 5명은 퇴학, 6명은 무기정학에 처하였다.⁹¹ 교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를 들어 항의하였다.

1. 교장의 훈시는 군대와 경찰로서 생도를 위협한 교육자가 아닌 태도.
2. 9월 1일에 학생을 실습소에 보내고 경찰에 무단 수색하게 함.
3. 검거된 학생의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퇴학처분한 것.⁹²

그리고 9월 21일 오전 8시에 학생들은 연명 날인하여 학교 당국에 퇴학계를 제출하였다.⁹³ 아울러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장문의 성명서도 발표하였다.⁹⁴

학생들이 동맹퇴학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당황한 학교 당국에서는 그 지역 경찰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가 있는 학생들에게 복교하기를 권유하는 한편, 9월 25일 학생들 사이의 이간책으로 이미 퇴학원서를 제출한 임과 3년생 김영현(金寧炫)과 동 2년 한모 2명에게 퇴학처분을, 그리고 9월 30일에는 농과 3년생 장보라(張保羅), 동 3년생 이흥원(李興元), 동 1년생 홍도 등 4명에게 각각 제적처분을 내렸다.⁹⁵ 이러한 학교 당국의 압력으로 학생들은 하는 수 없이 20일 후에 전부 등교하였다.⁹⁶

한편 학교 당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학생의 입학정원을 더욱 감축하였으며, 사건의 관련자 중 함흥고등보통학교(김성원), 경신학교(김찬도, 우중휘),⁹⁷ 휘문고등보통학교(김문찬), 중앙고등보통학교(남영희) 등 사립학교 출신이⁹⁸ 많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출신은 더욱 입학하기 어렵게 되었다.⁹⁹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 심한 차별대우를 하였다.

수원고농의 학생사건은 아직도 세인의 기억에서 살아지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사건이 있는 후부

91 『동아일보』, 1928년 9월 18일.

92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 「1928년 9월 23일자 중외일보」, 「언문신문 차압기사집록」, 1932년 6월.

93 『동아일보』, 1928년 9월 22일; 『조선일보』, 1928년 9월 23일자.

94 『조선일보』, 1928년 9월 23일.

95 『동아일보』, 1928년 10월 3일; 『조선일보』, 1928년 10월 4일.

9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47쪽.

97 김성원 면담(1995년 2월 11일 방배동 소재 홍진빌딩 4층 김성원의 사무실).

98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수원학보』 76호(제20권 1호), 1927년 7월, 115쪽.

99 김찬도, 「조국에 빛나는 수원고농사건(개척사건)」, 『상록』 창간호, 1950, 173쪽.

터 학교 당국에서는 일중 조선 학생들에게 단속을 가하여 종래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따로 기숙하고 있던 동서료를 한곳에 합하여 놓았으며, 학교 당국에서는 기숙사에 있어서도 조선인 학생은 한방에 수십인 씩 모아 놓고 그뿐 아니라 책상도 안자서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게 하며 조선에서 발행하는 3가지 신문과 기타 잡지 구독도 일일이 허가를 얻어야 되나 그 반면에 일본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 방에 한 사람씩 있게 하며 책상도 높은 것으로써 겉터안자서 공부하게 되었으며 물론 외출이라든가 신문 잡지 구독도 다 자유로 할 수 있게 한다는 바 이에 대하여 조선인 학생들은 물론이며 일반도 그 차별적 대우에 분개하여 비난이 자못 비등한 중 수원 각 사회단체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방금 조사에 착수하였다는바, 점차 그 문제의 전개가 주목된다.¹⁰⁰

즉,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거점인 동료기숙사를 없애고 일본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게 하는 한편 기숙사생활, 책상의 지급, 신문과 잡지의 구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다. 이러한 학교 당국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인 학생은 물론 수원의 각 사회단체에서도 분개하였다.

김성원은 김해경찰서에 검거된 후 1928년 9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판결 받고 복역하다가,¹⁰¹ 소위 일제의 대전(大典) 감형으로 1년여 만에 출옥하였다.¹⁰² 한편 「치안유지법」 위반과 「보안법」 위반으로 피검된 11명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의 변호는 이인(李仁)을 비롯하여 김병로(金炳魯), 신태악(辛泰嶽), 김용무(金用茂) 등이 담당하였다. 이인의 변호에 힘입어 예심부터 판결을 받을 때까지 3년간 서대문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면소되고 김찬도와 권영선 2명만 기소되었다.¹⁰³ 김찬도와 권영선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¹⁰⁴ 그러나 이인은 이 변론으로 6개월의 징역처분을 받게 되었다.¹⁰⁵

일제는 그들이 믿었던 전문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비밀결사사건이 일어나자,¹⁰⁶ 당시 총독부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총독 유고(諭告)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그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을 3년이라는 장기간의 예심 동안 혹형(酷刑)을 가함으로써 학생운동 처벌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였다.¹⁰⁷

100 「수원고농 학생대우차별」, 『조선일보』, 1930년 4월 25일.

101 『동아일보』, 1929년 10월 15일.

102 『동아일보』, 1929년 12월 8일.

103 『동아일보』, 1930년 2월 21일; 『조선일보』, 1930년 2월 21일; 『조선일보』, 1930년 2월 22일.

104 『동아일보』, 1930년 3월 10일.

105 최영희 · 김호일, 『(애산)이인』, 애산학회, 1989, 114쪽.

106 『동아일보』, 1920년 9월 16일.

107 김승학, 『한국독립사』, 독립문화사, 1966, 228쪽.

3) 1920년대 ‘수원고농사건’의 특성

지금까지 1920년대 수원고농 학생들이 조직한 건아단, 조선개척사 등의 비밀결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고농 학생들이 조직한 비밀결사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조직된 전문학생 비밀결사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수원고농 학생들은 대부분 토착자본가 출신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안정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수원고농 학생들은 당시 조선이 농업국임을 깊이 인식하고 농민들을 계몽하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농민들의 봉기를 통하여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농민을 투쟁의 주체로 삼고 결국 해방된 후의 국가상으로 농업 중심의 이상국가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넷째, 수원고농 학생들은 서울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활동하였다. 건아단과 조선개척사는 서울의 조선농민사, YMCA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섯째, 수원고농의 비밀결사는 일본에 있는 조선농우연맹 등과 같이 같은 목적을 추진하고 있던 해외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1920년대 수원고농의 비밀결사운동은 1930년대로 계승 발전되어 갔다. 학생들은 재학생 김중수(金鍾壽)를 중심으로 수원 지역 일대에서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⁰⁸ 학기 중에는 전국 각지의 수원고농 졸업생들과 연결하여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도 전념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7월 졸업생 이용필(李容泌)이 김천고보(金泉高普)맹휴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것을 계기로 활동이 탄로 나게 되었다.¹⁰⁹ 이 혐의로 1936년 경북 김천에서 김중수(金鍾洙), 이용필(李容泌), 최홍기(崔弘基), 김광태(金光泰), 김준강(金俊綱), 김재곤(金在坤), 유재환(劉在煥) 등 7명이 공판에 회부되었고,¹¹⁰ 1937년 3월에는 이용필, 최홍기, 김광태는 징역 3년, 김준강, 유재환은 징역 2년 6월, 그리고 김중수는 징역 2년을 각각 언도받았다.¹¹¹

그 후에도 수원고농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1939년 신입생을 맞는 동료의 비밀회의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갈고 닦고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 즉 한글연구회를 조직할 것을

10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83, 697쪽.

10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50쪽; 『조선일보』, 1936년 11월 14일.

110 『동아일보』, 1936년 7월 3일.

111 『조선일보』, 1937년 3월 24일.

결의하고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¹¹² 그러던 중 김중면(金重冕)이 졸업 후 함남 갑산농업학교에서 수원고농 재학 시와 같은 학생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검거되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재학 시 주동인물이었던 임봉호(林鳳鎬), 박도병(朴道秉) 등 여러 명이 검거되어 복역하였다.¹¹³

3. 1930년대 수원고농 학생운동 _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1) 독서회의 조직 배경

1928년 조선개척사사건이 일어난 이후 수원고농에서는 동년 4월 농학과에 입학한 김중수(金鍾壽)¹¹⁴를 중심으로 상록수운동을 다시 전개하여 1차 수원고농사건 당시의 야학을 확충하였다. 개학 중에는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야학부를 설치하였고, 방학 중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농업지도자인 모교 졸업생과 제휴하여 농민의 문맹 퇴치와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¹¹⁵

교내에서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정신적 일체감 조성과 체력단련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민족정신을 발전시켜 나갔다.

1. 농촌지도를 위한 ‘새벽사람’이요 ‘여명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강조하고,
2. 동료기숙사 한국 학생들만의 자치적 생활을 영위하고,
3. 한인 선수만으로 구성된 축구부를 두어 정신 체력 단결 삼위일체로 총단결할 것.¹¹⁶

한층 두터워진 애국혼을 내세운 이들은 전국에 퍼져 있는 졸업생들과 함께 문맹 퇴치, 항일의식 고취라는 대전제를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당시 학생들의 한 달 용돈과 생활비는 평균 14~15원이었는데, 각자의 성의에 따라 2~3원씩 기숙사회비 명목으로 자금을 모았다. 사실 기숙사가 아니고서는 회의를 할 장소가 없었던 학생들은 1년에 두 차례씩 학교 근처의 화산에서 정기총회 형식의 비밀회의를 열었다. 또한 직접 농촌야학에 참석할

112 국가보훈처, 1988, 『독립유공자공훈록』 6, 313, 418쪽.

11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80~81쪽.

114 김중수는 1928년 10월 개척사사건으로 퇴학처분을 당하였다가, 1929년 4월에 재입학하였다.

115 이상섭,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에 대한 일고찰」, 동국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3~24쪽.

1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697쪽; 『수원고농 70년사』, 53쪽

수 없었던 이들은 고색리와 야목리 등 마을에서 교사를 고용하고, 신교육을 받은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야학을 운영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상록수운동을 보조해 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조국독립의 생취방안을 농민의 단결과 항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의 실천을 위한 동지 모집과 조직에 주력하였다.¹¹⁷

2) 독서회의 조직과 활동

(1) 독서회의 조직

수원고농에 사회주의 비밀결사인 독서회가 조직된 것은 1933년 10월 초순이었다. 이용필(李容泌), 최홍기(崔弘基), 김광태(金光泰), 김준강(金浚綱) 등이 중심인물이었는데 이 시기에 독서회를 조직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고농 3학년생인 김종수는 1931년 여름 일본 여행 중 오사카(大阪) 부근에서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의 생산분배 상황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¹¹⁸ 이때 김종수는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공명하게 된 것 같다. 그는 귀국 후 공산주의 활동에 적극 나섰다. 김종수는 1931년 11월, 그리고 1932년 2월에 수원고농에 재학 중인 친구 이용필과 조만원(趙萬元)에게 공산주의를 설명하고 동료 학생들에게도 계급의식을 주입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1931년 11월부터 수원군 일형면(日荊面)에 있는 무허가 화서(華西)야학원에서 생도들에게도 공산주의 이론을 강습하는 등¹¹⁹ 사상 전파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1932년 3월 졸업한 후 농민조직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검거되어 동년 11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김종수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점차 학교 내에 퍼지게 되고, 이윽고 1933년 10월 초순 김종수의 지도를 받은 이용필(李容泌), 최홍기(崔弘基), 김광태(金光泰), 김준강(金浚綱) 등을 중심으로 독서회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적극적으로 조직의 확대를 도모한 결과, 한 달 동안 이강열(李康烈), 유재환(劉載煥), 김재곤(金在琨), 이치영(李致榮), 최봉환(崔奉煥), 손창규(孫昌奎) 등을 회원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동지들과 함께 「공산당선언」의 부록을 참조하여 독서회의 강령과 규약을 완성하였다.

117 이현희, 「수원고농학생의 항일투쟁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1999, 21~23쪽.

118 대구지방법복심법원,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489호, 「수원고농독서회사건판결문」.

119 대구지방법복심법원,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489호, 「수원고농독서회사건판결문」.

(2) 독서회의 활동

독서회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이강열의 방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표하고 국제정세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공부를 심화시켜 나갔다. 아울러 교내에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야유회, 기숙사 모임, 식사자리 등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하였다. 김광태의 경우는 독서회의 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자료로 「논리학단편(論理學斷片)」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독서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귀납법, 연역법, 논리학의 추리법칙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은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일제의 황민화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즉 천황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독서회원이던 이용필은 1933년 7월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작성한 기행문에서, “유일인(唯一人)의 우상(偶像)” “유일(唯一)한 일인(一人)”, “이중교(二重橋)의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일본 천황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기숙사에 있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황민화정책을 비판하였다.

최흥기는 1934년 여름 남한 지역이 큰 수해를 입자, 이재민을 구출하기 위해 천황이 3만 5,000엔을 하사하였는데 과연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용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에 이용필은 “이중교 깊은 곳에 사는 사람은 무위도식하여도 일본 제1의 자본가이고, 무산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해도 빈곤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회의 모순이다.”라고 최흥기에게 천황을 비판하는 답장을 보냈던 것이다.¹²⁰

(3) 공산주의동맹으로의 발전

1933년 독서회가 조직된 후, 1934년 3월 김광태, 이용필, 최흥기 등이 수원고농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이용필은 김천군 농업 기수로, 최흥기는 경기도 장성군 농회 기수로, 김광태는 불이흥업주식회사 철원농장 기수로 각각 채용되어 교내에서 독서회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에 독서회는 재학생인 유재환, 김재곤 등이 책임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졸업 후에도 재학생과 졸업생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독서회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는 김광태의 경우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김광태는 졸업 후 러시아 공산혁명의 경과를 연보식으로 작성하여 독서회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아울러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¹²⁰ 대구지방법복심법원,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489호, 「수원고농독서회사건판결문」.

생인 이용필, 최흥기 등에게도 전달하였다. 김광태는 1934년 8월 중순에도 이강열의 방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교정(教程)』 중 「레닌주의 철학의 임무」에서 일부를 인쇄하여 독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와 같이 이론학습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서회는 김광태, 김준강, 최태환, 손창규, 이치영, 김경천 등이 모인 가운데 “미온적으로는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해산하였고,¹²¹ 졸업생과 재학생을 망라한 새로운 조직의 결성을 도모하였다. 1934년 10월 13일 졸업생 김광태는 수원고농 독서회 재학생들과 모여 독서회를 해산하고, 10월 14일 공산주의자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용필, 최흥기 등도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그 후 김천에서 활동하던 이용필은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김천그룹의 농민·학생 담당 나정운(羅鼎雲)과 연계하여 김천그룹에서 당 재건운동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리고 김천그룹은 이용필을 매개로 하여 수원고농 공산주의자동맹을 하부조직으로 두었다.¹²² 이들의 활동 경로는 수원고농을 연락본부로 하고 경성을 중심으로 하여 전 조선 각지에서 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하는 한편, 이용필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는 대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활동을 하였다.¹²³

3) 체포와 와해

졸업생과 재학생의 총단결로 치밀한 연락 속에 전국적으로 활동을 계속하던 중 졸업생 이용필이 김천고보맹휴사건을 조종하다가 1935년 7월 검거됨으로써 평소부터 요주의 학교였던 수원고농의 비밀결사항쟁이 발각되어 「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 및 불경죄 등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¹²⁴ 일본 경찰은 수원고농을 수색하여 11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7명을 구속시켰다. 당시 수원고농 비밀결사는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2년 4개월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었으므로 대서특필되었다.

수원고등농림(水原高等農林), 적색사건공판(赤色事件公判)

내월(來月) 십구일(十九日) 대구(大邱)서

수원고농적색(水原高農赤色) 사건의 관계자

121 조성운, 「일제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과 상록수운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118쪽.

122 대구지방법복심법원, 소화 11년 형공(刑控) 제489호, 「수원고농독서회사건판결문」.

123 「예심결정서」, 『동아일보』, 1936년 7월 3일.

124 이현희, 「수원고농학생의 항일투쟁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1999, 21~23쪽.

장성군 장성면 영천리	산업기수	김종수(金鍾壽, 27)
김천군 김천면 남산정	군농회기수	이용필(李容必, 29)
양주군 노해면 창동	농업	김광태(金光泰, 23)
순천군 순천읍 가곡리	미국생산비조사원	최흥기(崔弘基, 26)
경성부 중학정 육오	무직	김재곤(金在琨, 23)
수원군 안릉면 평리	수원고농생	유재환(劉載煥, 23)
경성부 장교정 이칠	농회고원	김준강(金浚綱, 26)

등에 대한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에토(江藤) 재판장 주심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피고들은 소화 9년 5월에 김천(金泉)서에 검거된 이래로 2년 4개월 만에 첫 공판에 부치였다고 한다.¹²⁵

일제는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고농 학생들의 활동을 ‘수원고등농림, 적색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는 대체로 수원고농 출신자 및 재학생들로, 출신지역은 서울, 경기, 전라, 경상 등 대부분 남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차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는 1936년 10월 19일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고, 속행 공판은 11월 9~11일에 개정되었다.

검거(檢擧)된 지 2년 만에 10일, 제1회 공판

6명엔 5년 역(役), 1명엔 2년 역(役)

세칭 수원고농사건 구형

2년 전 경북 김천(金泉)서에 검거되어 이래 대구지방법원에서 예심 중이었던 세칭 수원고농사건(水原高農事件)이라는 수원고등농림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동맹사건(共產主義者同盟事件)의 제1회 공판은 지난 10월 19일에 개정, 그 속행 공판은 지난 9일부터 금 11일까지 3일간 대구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에토(江藤) 재판장 주심과 센야(戰野) 검사 입회로 개정되어 김종수(金鍾壽) 외 6명의 사실심리를 계속하여 왔든바 김종수 외 수명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불경죄(不敬罪) 관계만은 방청을 금지하고 심리를 속행하여 11일 오전 중에 사실심리를 마치고 오후 전야 검사로부터 다음과 가티 피고 7명 중 6명 전부에게 5년이라는 엄청난 구형이 잇섯다. 그런데 판결언도는 오는 18일에 하기로 하엿다.

김종수(金鍾壽)	징역 2년
이용필(李容必)	징역 5년
최흥기(崔弘基)	징역 5년
김광태(金光泰)	징역 5년

¹²⁵ 『조선일보』, 1936년 10월 1일.

수원고농사건(水原高農事件)

6명 공소공판(控所公判)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수원고농사건의 공소 제1회 공판은 22일 오전 11시부터 대구복심법원 제3호 법정에서 요네타(米田) 재판장 주심, 아키다(秋田), 나카가와(中川) 양 판사 배석 사토(佐藤) 검사 관여 밑에 개정하였다. 피고 여섯 명은 제1심리에서 이용필(李容必, 27), 최홍기(崔弘基, 27), 김광태(金光泰, 24) 등의 세 명은 징역 3년, 김준강(金俊綱, 27), 유재환(劉載煥, 24) 두 명은 징역 2년 6개월, 김종수(金鍾壽, 26)는 징역 2년에 각각 미결 120일의 통산의 판결을 받고 불복 공소한 것이라 한다. 재판장으로부터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가족 등의 심리가 끝난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된 동기에 대하여 심문이 잇었는데 피고들은 조금도 가림이 없시 무산대 유산의 대립의 필연성을 공술하였는데 오후 3시에 폐정하였다. 속행공판은 4월 상순경이라 한다.¹²⁸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7년 3월 22일 수원고농 비밀결사에 대한 공소공판이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렸는데, 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필(27세), 최홍기(27세), 김광태(24세)	징역 3년
김준강(27세), 유재환(24세)	징역 2년 6월
김종수(28세), 김재곤(옥사)	징역 2년 ¹²⁹

재판정에서, 이용필은 “사회주의와 조선의 독립은 일개 불가분의 것”이라고 하고, 최홍기는 “공산주의의 의의에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포함”하며,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조선의 독립도 당연히 초래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¹³⁰

한편 그 외 이치락·최태환·손창규·임기즙 등 4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났고, 이필규·신근철·유달영 등 민족주의계 학생들은 교육사업에 열렬히 활동하였으나 사건이 너무 크므로 사회주의계 학생들만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옥고를 면하였고, 나중에 유달영은 다시 투옥되었다.¹³¹ 이 사건을 계기로 수원고농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졌지만 항일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1939년 동료 학생들은 비밀리에 우리말과 글을 갈고 닦아 우리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고 한글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활동하던 김중면이 함남

128 『조선일보』, 1937년 3월 24일.

129 『조선일보』, 1937년 3월 24일

130 조성운, 『일제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과 상록수운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120쪽.

131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 80년』, 1986, 50~51쪽.

갑산농업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원고농 재학 시와 같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한글과 항일독립정신을 고취시키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면서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재학 시 주동자였던 임봉호와 박도병 등이 검거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김중면은 3년을 선고받았다.¹³²

¹³² 『동아일보』, 1935년 10월 15일.



조성운 경기대학교 강사

1.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배경
2.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3.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
4. 신간회 수원지회 회원의 성격



제6장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과 활동

1.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배경

3·1운동 직후인 1920년경부터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회를 비롯한 각종 민족 혹은 사회 운동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이 단체들은 주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권을 회복한다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 오상근(吳祥根)과 장덕수(張德秀) 등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조선청년회연합회(朝鮮青年會聯合會)는 청년운동의 중심기관으로 자임하였다. 이는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한제국기 이래 수원 지역에는 다양한 민족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예를 들면 대한자강회 남양지회(1906년)와 기호흥학회 수원지회(1908년)가 조직되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01년 조원시(趙元時 : G. H. Jones)의 기부금 6원으로 설립된 보흥학교는 남양금융조합 이사였던 이로카와(色川元市)에게서 ‘폭도양성소’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배일사상이 철두철미하였다.¹ 그리고 수원 지역에는 1902년 삼일여학교, 1903년 삼일남학교, 1909년 수원상업강습소 등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이 외에도 수성학교, 양성학교, 보성소학

교, 명달의숙 등이 민족교육에 힘썼다.

수원 지역에는 동학이 일찍이 전파되었다. 1883년 수원 출신의 불교 승려인 서인주(徐仁周: 徐璋玉)가 호남 출신인 안교선과 함께 최시형을 방문하여 동학에 입도한 후 이들은 이듬해인 1884년 안승관과 김내현 등에게 포교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에 동학이 널리 포교되었다. 그리하여 수원 지역의 동학은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과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²

이와 같은 수원 지역 민족운동은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특히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의 김세환(金世煥)이 경기 남부 지역의 기독교를 대표하여 활동하였으며, 천도교의 이병헌(李炳憲)은 손병희를 수행하면서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그 투쟁 양상이나 투쟁 기간 등으로 보아 3·1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 수원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운동론이 대두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엿윳청년회, 수원학생친목회, 남양청년회, 수원청년구락부, 수원진명구락부,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 수원청년회, 천주교청년회, 팔탄청년회 등이 조직되었다.³ 이 중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수원청년구락부였다. 수원청년구락부는 지식의 계발, 체육의 진흥, 풍습의 개선⁴ 등을 목표로 수원 지역의 유지층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중심인물은 나홍석,⁵ 홍사훈,⁶ 최상훈,⁷ 김종심, 박성근, 이광현 등이었다. 이들은 수원 지역의 유지층으로서 1920년대 초반 수원의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의 지도적인 인물들이었다.⁸ 이들이 추구한 운동의 방

1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132쪽.

2 조성운, 「일제하 수원 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12~13쪽.

3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45~246쪽.

4 「수원청년구락조직」, 『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

5 나홍석은 한말과 일제시기에 시흥군수와 용인군수를 역임한 나기정(羅基貞)의 장남으로 1909년 와세다대학 정치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수원금융조합 서기, 1920년에는 수원면협의원이 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의 화폐로 동산 2,000원, 부동산 1만 3,000원을 가진 여유 있는 계층의 인물이었다. 또한 당시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의 간사를 역임한 최송(崔松)이 그의 절친한 친구였다(『왜정시대인물사료』 3, 97쪽). 그의 동생인 나경석(羅景錫)은 물산장려운동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유시현, 「나경석의 '생산증식' 론과 물산장려운동」, 『역사문제연구』 2), 여동생인 나혜석은 최초의 여류 화가로서 이름이 높으며, 그의 사촌인 나중석(羅重錫)은 기호흥학회 수원지회의 간부와 삼일학교 설립위원을 역임하였다(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사립학교의 성장」, 『일제하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참조). 따라서 나홍석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토호 출신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6 홍사훈은 수원 지역의 3대지주로서 서울의 보성중학을 중퇴하고 수원상업강습소 법상과를 졸업하였으며, 수원상업강습소를 인수하여 화성학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수흥수리조합의 조합장, 삼일학교 학무위원, 수원청년회장, 수원체육회장을 역임하였다(이승언, 『한말일제하기사색인집』, 수원문화원, 1996, 93쪽).

7 최상훈은 내과의사로서 수원의원에서 진료를 담당했고 수원상업강습소의 교사, 동아일보사 기자를 역임하였다(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48쪽).

8 이들에 대해서는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47~248쪽 참조.

향은 당시 유행했던 실력양성론에 입각해 있었다. 그리하여 야학, 강습소, 강연회 등을 통한 계몽활동을 위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홍사훈의 화성학원은 '수원 지역의 유일한 민족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 화성학원은 3·1운동 당시 이른바 '민족대표 48인'⁹ 중의 한 명인 김세환의 지도와 김노적과 박선태의 노력으로 수원 지역 3·1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수원시민대운동회, 제1회 전국야구대회,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의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신간회 수원지회나 청년동맹의 회의, 강연회 등을 화성학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¹⁰ 이와 같이 화성학원은 수원 지역의 사회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다른 한편 수원 지역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은 천도교, 기독교, 성공회 등 종교집단의 활동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수원 지역에는 대략 1880년대 중반 이후 동학이 전파되었다. 그 후 수원 지역의 동학은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운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천강(羅天綱)과 이민도(李敏道) 등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수원 지역의 동학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직전인 1917년에는 수원군 동탄면 방교리에 새로 전교실을 건축하는 등 교세가 확장되었다.¹¹ 이와 같은 교세의 확장에 따라 1920년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가 설립되어 이병헌(李炳憲)을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다.¹² 그리고 이후 순회강연, 특별대강연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교세의 확장을 도모하였다.¹³ 그러나 1925년 천도교가 신구파로 분열된 이래 구파의 영향을 받았던 수원 지역에서는 1928년 8월 1일 천도교청년동맹 수원동맹을 조직하였고,¹⁴ 남양동맹은 대략 1929년 4월경에 설립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천도교는 1920년을 전후로 하여 수원 지역에 교세를 확장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천도교와 지역사회의 운동을 연결한 인물은 홍종각(洪鍾珪)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천도교 수원교구 교구장(1911년), 수원교구 순회교사(1914년 6월), 수원교구 순회교사(1915년), 청수원교구 전교사(1917년 6월~1918년 8월)를 역임하였으며, 이병헌·이연숙·김유경 등과 함께 천도교청년회 수원지회를 창립(1920년)하였다. 이후 수

9 '민족대표 48인'이란 수원 지역의 김세환과 같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고 3·1운동 이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혹은 각 지방에 출장 중이어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못한 15인을 포함한 인물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제관을 받았다.

10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사립학교의 성장」,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월례발표회, 1999년 10월 참조.

11 「中央總部彙報」, 『天道教會月報』 통권 120호, 1920년 8월, 111~112쪽.

12 「水原郡宗理院沿革」, 『天道教會月報』 통권 191호, 1926년 11월, 30쪽.

13 「各支會의 狀況 一覽」, 『天道教青年會會報』 제3호, 1921년 12월, 16쪽(『韓國思想』 제16집, 한국사상연구회, 1978).

14 「中央彙報」, 『天道教會月報』 212호, 1928년 8월, 42~43쪽.

15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 천도교의 조직과 청년동맹」, 『경기사학』 4, 2000.

원총리원 성호면 종리사(1923년 5월 1일), 경기도연맹 집행위원(1929년 5월), 수원총리원 감사원(1930년 1월), 수원청년동맹 대표위원(1930년 7월~1939년), 수원총리원 포덕과 대표위원(1930년 1월), 관경포(觀敬布) 포덕사(1931년), 수원총리원 원장(1932년 4월), 수원교회 심계원(1934년 4월), 수원교회 교장(1936년) 등을 역임하였다.¹⁶ 이러한 교회 내의 위치를 바탕으로 신간회 수원지회 창립 시 총무간사로 참여했고 조직선전부 총무(1927년 12월 18일, 제1회 정기대회), 조직선전부 총무간사(1928년 12월 16일, 제2회 정기대회), 집행위원(1930년 4월 25일, 제4회 정기대회) 등을 역임하였다.¹⁷ 이는 그가 주로 조직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신간회와 천도교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김노적(金露積)은 성공회 신자로서 수원상업강습소와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3·1 운동에 참여하였으며,¹⁸ 성공회 계열의 진명구락부 도서부장을 역임하였고, 구국민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¹⁹ 그리고 화성학원과 삼일학교의 교사로서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요시찰인물로서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검거되었으나 그때마다 성공회의 신부가 구해 주었다고 한다.²⁰ 그리고 신간회 수원지회 설립 당시 회장을 역임하였다.²¹ 따라서 그는 성공회와 화성학원을 기반으로 운동을 전개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병호를 들 수 있다. 그는 감리교 신자로서 수원 삼일학교의 교사, 수원기자동맹, 수원엠플청년회, 3·1부인야학의 강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삼일학교가 북감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가 수원엠플청년회의 회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활동 기반은 감리교와 삼일학교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원 지역의 종교계는 지역사회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적 기반은 사회운동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수원 지역 3·1 운동의 경우 이병헌과 홍종각으로 대표되는 천도교, 김세환과 김병호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사실로 보아 천도교와 기독교는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민족운동 혹은 사회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원 지역에서도 1920년대 중

16 이동초 편, 『천도교인물사전』(미간본).

17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 천도교의 조직과 청년동맹」, 『정기사학』 4, 2000, 〈표 6〉에서 재인용.

18 수원 지역 3·1운동의 주모자 중의 1인으로 체포된 그는 수원경찰서의 스미가와(炭川)와 노구치(野口)의 고문으로 갈비뼈 4개와 왼팔이 부러지고 두개골이 깨졌다고 한다.

19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248쪽.

20 1999년 4월 24일 리제재와의 면담에서 청취. 리제재(1929년생)는 수원 출신으로 김노적에게 배웠다고 한다.

21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水原支會設置 十月 十七日」, 『조선일보』, 1927년 10월 20일.



천도교 계열의 이병헌



감리교 계열의 김병호



성공회 계열의 김노적



사회주의 계열의 박승극

반 이후 사회주의가 전파되면서 운동의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1928년 수원청년동맹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듬해인 1929년 초에 수원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²²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26년 사상단체인 혁성단이 조직되고 1928년 수원청년회의 부흥대회에서 신충, 권순증, 정광수, 공석정,²³ 이용성 등과 같은 인물이 청년운동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개된 변화였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1928년 니혼(日本)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한 박승극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⁴ 박승극은 1909년생으로 서울 배재고보를 다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니혼대학을 중퇴한 후 귀국하여 1928년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을 개설하였고, 수원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수원노동조합,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집행위원장 혹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활동가였다. 또한 그는 소설가, 평론가, 수필가로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수원 지역의 신간회는 홍종각·김병호·김노적 등의 종교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세력, 박승극·공석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세력이 합작하여 1927년 10월 17일 조직

22 수원청년동맹에 대해서는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참조.

23 공석정은 박승극과 함께 수원 지역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현재의 오산시 궐동에서 서당 훈장인 아버지 공재현(孔在憲)의 외아들로 태어나 한학을 수학하였다. 그는 6척 장신으로 장사였으며 운동신경이 뛰어났다고 한다. 1920년대 초반에 원주의 한 학교 교사로 수년간 재직하였고 퇴직 이후 고향에 내려와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오산대성학원을 설립하였고 오산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그리고 1930년을 전후로 한 무렵 수원 지역의 3대 지주인 차유순(車裕舜)의 딸과 연애결혼을 하였는데 이미 이 시기에는 결혼하여 자식을 둔 상태였고 그 후 두 번째 부인을 동반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2000년 10월 27일 孔信澤의 증언, 곡부 공씨 대중회 회장인 공신택은 1920년생으로 공석정과 같은 마을에 살아 어려서부터 그를 보았다고 한다).

24 박승극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바람.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권영미, 「박승극의 문학연구」, 『수원문화사연구』, 수원문화사연구회, 2004;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승실사학』 22, 승실사학회, 2009.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홍종각이 살던 세교리(細橋里)는 남양 홍씨(南陽 洪氏), 박승극의 정문리(旌門里)는 반남 박씨(潘南 朴氏), 공석정의 궐리(闕里)는 곡부 공씨(曲阜 孔氏)의 집성촌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 외에도 지역사회의 유지 혹은 토호로서의 기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공석정의 아버지는 서당의 훈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²⁵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석정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2.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신간회는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 전반기 민족해방운동세력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좌파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계급적 관점을 유보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민족해방을 위하여 협동해야 한다는 민족협동전선론²⁶에 입각하여 창립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49개의 지회가 설립²⁷ 된 당시 최대의 민족해방운동 단체라 할 수 있다.

수원 지역의 경우도 신간회가 1927년 10월 17일 조직되었는데,²⁸ 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7년 10월 8일 3·1운동 후 구국민단을 조직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과 수원의 유지들이 처음으로 북수리 천도교당에 모여 신간회 수원지회 조직문제를 논의하고 조직준비회를 조직하였다.²⁹ 여기에서 구국민단의 관계자들은 박선태, 이득수,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차인재 등이었다.³⁰ 구국민단은 주로 삼일학교 관련자들이 주도하였다.³¹ 이들 가운데 신간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인물은 박선태이다. 그는 3·1운동 당시 김세환, 김노적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진명구락부의 운동부장으로

25 2000년 10월 27일 공신택의 증언.

26 이균영, 「신간회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5쪽.

27 이균영, 「신간회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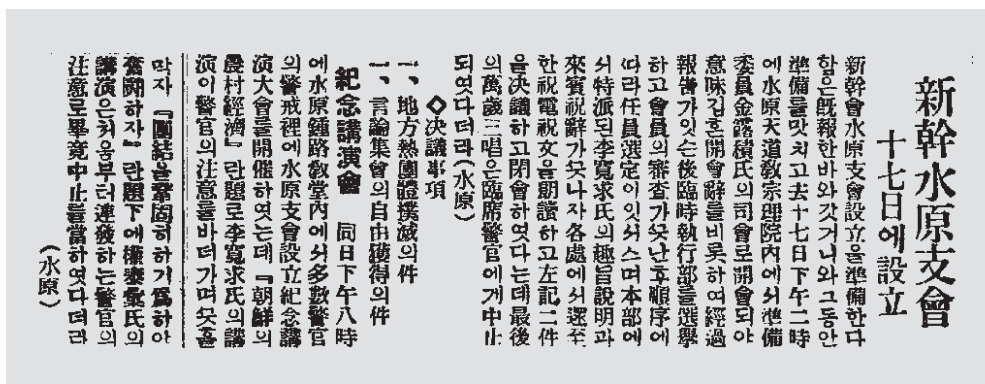
28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그런데 조선총독부의 문서에 따르면 신간회 수원지회가 본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것은 1927년 10월 13일이었으며, 회장은 조동호(趙東浩)였다(京鍾警高秘 제11090호-1, 「新幹會支會設置狀況ノ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30 「學生救國團의 檢舉」, 『동아일보』, 1920년 8월 20일.

31 박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경기사학』 2, 171~175쪽 참조.

32 「水原新幹委員會」, 『동아일보』, 1930년 9월 5일.



1927년 신간회 수원지회 설립(『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0년 신간회 수원지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³² 따라서 그는 학생·청년층을 대변하면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운동가들과의 연락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간회 수원지회 결성은 1927년 10월 17일 수원천도교당에서 김노적의 사회로 개최한 후 경과보고, 임시집행부 선거, 회원 심사, 임원 선정, 중앙본부에서 파견한 이관구의 취지 설명, 내빈 축사, 언론, 집회의 자유 획득 등 안건 결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때 선출된 임원은 회장 김노적, 서무부 총무간사 김병호, 서무부 상무 박영식, 재무부 총무간사 이각래, 재무부 상무 최신복,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공석정, 조사연구부 상무 우성규,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홍종각, 조직선전부 상무 박봉득, 간사 이연숙, 김현조 등이었다.³³ 이 중 김노적은 성공회, 김병호·최신복은 개신교, 공석정·우성규는 사회주의, 홍종각·이연숙·김현조는 천도교 관계자였다.³⁴ 또한 김노적, 우성규, 박봉득은 수원상업강습소의 졸업생 혹은 교사로 화성학원과 밀접한 관계를 지녔으며, 김병호는 삼일학교 교사였다. 이로 보아 신간회 수원지회는 성공회, 감리교, 천도교 등의 종교세력 및 화성학원과 삼일학교 관련자들의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합작으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된 신간회 수원지회는 반(班)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³⁵을 한 결과 1928년 양감면 일대를 중심으로 양감반, 성호면 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오산반, 태장면과 성호면

33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34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 천도교의 조직과 청년동맹」, 『정기사학』 4.

35 1928년 8월 19일 임시대회 후 신간 간사회에서는 반 조직의 건 외 3개항을 토의하였다(「水原新幹會大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북부 및 정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세교반, 장안면과 우정면 일대를 중심으로 장안반을 설치하기로 하였다.³⁶ 이러한 계획하에 신간회 수원지회 조직부에서는 회원 확보를 위해 관내 지역을 순회하였다.³⁷ 그 결과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안반(1929년 3월 19일), 마도반(1929년 3월 20일),³⁸ 오산반(1929년 3월 26일),³⁹ 성호반(1929년 3월 26일),⁴⁰ 남양반,⁴¹ 세교반,⁴² 양감반(1929년 2월 14일)⁴³ 등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장안반의 경우 설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반이 설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 구분은 양감면의 박승극과 세교리의 홍종각, 성호면의 공석정 등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간회 수원지회의 경우는 반 조직이 활발히 전개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⁴⁴

신간회는 반 조직이 활성화되면 따로 구역을 설정하여 분회(分會)로 승격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신간회 수원지회 역시 오산분회(성호·동탄·정남 3면), 남구분회(팔탄·향남·양감 3면), 삼괴분회(우정·장안 2면), 남양분회(비봉·음덕 2면), 서구분회(송산·마도·서신 3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⁵ 그러나 이 결정이 그대로 실천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마도반이 1929년 12월 12일 마도·송산·서신의 3면을 합하여 서구분회를 조직하였고,⁴⁶ 1930년 1월 초 정기대회를 금지당한 남양반에서는 서면대회를 통하여 남양분회로 조직체를 변경하였다.⁴⁷ 또한 오산반이 오산분회,⁴⁸ 성호반은 성호분회⁴⁹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남구분회와 삼괴분회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오산분회에 속한 성호면이 독립하여 성호분회를 조직한 것이 앞의 결정과 다르다.

수원 지역 신간회원의 수는 5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929년 북대표

36 「水原新幹支會 各區域班組織」, 『조선일보』, 1928년 12월 30일.

37 『조선일보』, 1920년 3월 2일.

38 「新幹水原支會 區域班 設置 發安과 麻道에」, 『조선일보』, 1929년 3월 24일.

39 「新幹水原支會 烏山班 지난 16일에 제3회 임시총회 개최」, 『조선일보』, 1929년 3월 30일. 반장 김기환(金基桓), 간사 이수경(李秀經), 이남수(李南壽), 김용식(金容式), 이원식(李元植).

40 『조선일보』, 1929년 3월 30일.

41 「南陽新幹班 총회를 금지」, 『조선일보』, 1929년 12월 22일.

42 「細橋禁止」, 『동아일보』, 1929년 12월 18일.

43 「新幹楊甘班設置」, 『동아일보』, 1929년 2월 21일. 반장 장주문(張柱文), 간사 한창수(韓彰洙), 이종환(李鍾煥).

44 이균영, 「신간회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0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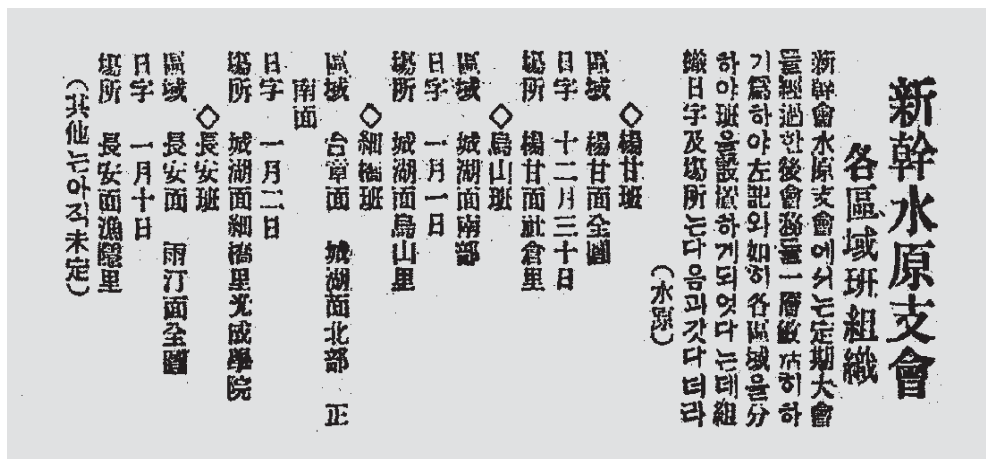
45 「水原 各團體 委員會 開催」, 『조선일보』, 1929년 11월 14일.

46 「水原新幹支會 서구분회설치」, 『조선일보』, 1929년 12월 23일. 이때 선출된 임원은 분회장 지영태(池泳泰), 위원 최수영(崔壽英), 배재무(裴在務), 대표회원 지영태(池泳泰), 최수영(崔壽英), 허운(許潤), 김창록(金昌錄) 등이었으며 반조직체 변경의 건, 구역반 조직의 건, 회비 징수의 건, 회원 모집의 건, 기타 사항을 토의하였다.

47 「水原新幹支會 남양분회설치」, 『조선일보』, 1930년 1월 10일. 이때 선출된 임원은 분회장 박상훈(朴商勳), 집행위원 이병일(李秉日), 박상창(朴商昌), 대표회원 박순원(朴舜遠), 박상훈(朴商勳), 이병일(李秉日), 박상익(朴商益), 박상창(朴商昌) 등이었다.

48 「新幹烏山分會大會」, 『동아일보』, 1930년 4월 8일.

49 「兩團 聯合委員會 新幹會와 수원청년 성호지부」, 『동아일보』, 1929년 8월 10일.



신간회 수원지회의 반조직 구성(『조선일보』, 1928년 12월 30일)

회의가 개최될 당시 5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지회는 1소구로 간주⁵⁰하였는데 수원지회는 광주지회, 인천지회, 안성지회, 강화지회와 함께 소구역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30년 9월 23~25일 개최 예정이던 신간회 전체대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 지회에서 신간회 본부에 보고한 회원의 수를 보면 신간회 수원지회의 회원은 242명이었다.⁵¹ 참고로 1929년 11월 현재 신간회 전체 회원은 3만 7,309명이며, 지회의 회원수는 <표 1>과 같다.⁵²

<표 1> 1929년 신간회 회원 규모별 지회수

회원수	지회수(개소)	회원수	지회수(개소)
100명 이상	53	500명 이상	15
200명 이상	35	600명 이상	5
300명 이상	16	800명 이상	2
400명 이상	10	1,500명 이상	1
계		137	

50 警鍾警高秘 제6015호, 소화 4년 5월 8일, 「新幹會本部ノ通文郵送ニ關スル件」.

51 警鍾警高秘 제14794호, 소화 5년 10월 11일, 「新幹會代表會員選舉狀況ニ關スル件」.

52 「支會問題 等 滿場一致 承認」, 『동아일보』, 1929년 11월 25일.

한편 신간회 수원지회는 1929년 5월 17일 인천, 강화, 여주, 안성 등 4개 지회 대표회원의 참석하에 신간회 소구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복대표회원으로 수원의 공식정, 후보로 인천의 곽상훈(郭尙勳)을 선출하였다.⁵³

3.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

신간회 수원지회는 지역사회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간회의 활동은 대중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 지역민의 일상 이익을 옹호하고 획득하기 위한 활동, 회무에 관계된 일상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민족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신간회 수원지회는 1928년 1월 31일 제4회 간사회에서 본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행동강령 표현의 건, 파벌주의 배격의 건을 채택하였다.⁵⁴ 또한 1928년 12월 22일 제7회 간사회에서 수원청년동맹을 조직하기 위하여 수원청년회를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조사위원으로 공식정과 엄익홍을 선임하였다.⁵⁵ 이 두 번에 걸친 간사회의 내용을 볼 때 지역사회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활동 결과 수원청년회가 부흥하였으며 수원청년회 간부들이 전원 수원청년동맹설립운동의 준비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⁵⁶ 또한 같은 날 화성학원에서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수원의 각 단체를 망라하여 송년회를 개최하였다.⁵⁷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신간회 수원지회는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1928년 8월 19일 임시대회에서는 본부대 동경지회에 대한 건을 결의하였다.⁵⁸ 1929년 4월 7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천도교청년당 진남포부에서 「축견폐월(蜀犬吠月)하는 소위 천도교선천청년동맹의 물각을 조(嘲)함」이란 제목으로 신간회의 총역량 집중에 손(損)이 되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장시간 토의하다가 경고문을 진남포 천도교청년당에 송치하기로 가결하였다.⁵⁹ 또한 1930년 4월 25일에 있었던 임시대회에서는 천도교 분쟁사건에 관한

53 「新幹會 小區域會 近畿五支會」, 『조선일보』, 1929년 1월 22일.

54 「水原支會 幹事會」,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 「水原支會 幹事會」, 『조선일보』, 1928년 2월 5일.

55 「新幹會 水原支會 第7回 幹事會」,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56 이에 대해서는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참조.

57 「感想談이 不穩타고 靑年二名檢舉」, 『동아일보』, 1928년 12월 27일; 「水原忘年會 感想談 끝에 2名을 檢舉」,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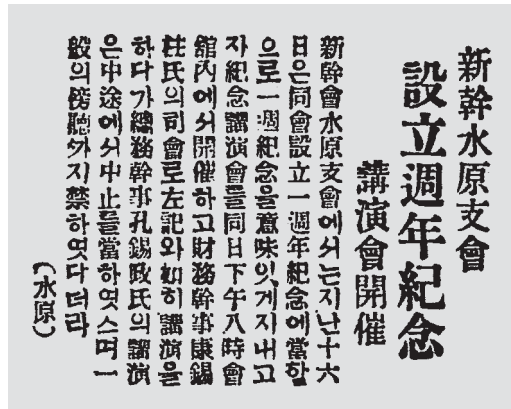
58 「水原新幹會大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59 「水原新幹會大會」, 『동아일보』, 1929년 4월 10일.

건, 『별건곤(別乾坤)』 비매동맹(非賣同盟)에 관한 건, 『북선일보(北鮮日報)』 조선인 상해사건에 관한 건,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획득에 관한 건, 수원 고등농림학교에서 조일(朝日)학생 대우 차별문제에 관한 건 등을 토의하였다.⁶⁰ 또한 신간회 수원지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를 위해 신간회 수원지회는 민족의 일상이익을 옹호하고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강연회, 야학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였다. 지회 설립 시에는 이관구(「조선인 농촌 경제의 이면」)와 권태휘(「우리는 단결을 견고히 하자」)의 강연이 있었고,⁶¹ 지회 설립 1주년에는 김병호(「신간수원지회 설립 1주년기념에 대하여」)와 공석정(「인류진화법칙의 역사적 고찰」)의 강연이 있었다.⁶² 또한 1929년 10월 17일 설립 2주년 기념강연을 계획하였는데 연사는 본부 인사 1인과 김병호, 공석정, 박승극 등으로 정하였다.⁶³ 그리고 신간회 수원지회는 야학을 직간접으로 경영하거나 후원하였다. 즉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과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의 주최로 야학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농번기이므로 상식장작로 대체하였다.⁶⁴ 또한 노동야학을 후원하였다.⁶⁵ 오산의 대성학원은 공석정이 설립하였고, 수원의 화성학원은 신간회의 회의장소로 개최될 만큼 신간회와 밀접하였다. 그리고 양감반의 경우에는 1929년 10월경 면장 이광우(李光雨)가 농민 공유의 저축계 공금을 구장들의 박람회 경비로 사용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행하고 면장에게 경고문을 발송하였다.⁶⁶ 또한 오산천 사방공사장의 파업은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도 하였다.⁶⁷ 1929년 4월 7일 간사회에서는 미신타파가 결의되었다.⁶⁸

셋째, 신간회의 일상적인 회무 활동으로 회비 징수, 회관 건립, 회원 모집 등을 들 수 있



신간회 수원지회 설립 주간 기념강연회(『조선일보』, 1928년 10월 24일)

60 「注意, 中止中 會議依順進行」, 『중외일보』, 1930년 4월 27일.

61 「新幹水原支會 17일에 설립」,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62 「新幹會 水原支會 設立週年紀念 講演會 開催」, 『조선일보』, 1928년 10월 24일.

63 「新幹水原支會 設置二週紀念 오는 십칠일에」, 『조선일보』, 1929년 10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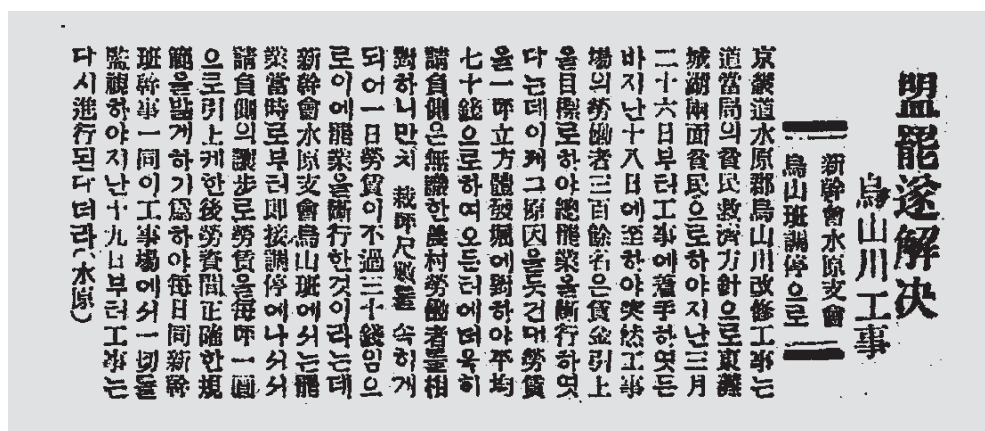
64 「常識講座開催」, 『동아일보』, 1929년 6월 29일.

65 「新幹烏山支會 第1回 定期大會」, 『중외일보』, 1930년 4월 6일.

66 「水原楊甘面長에게 警告文을 發送 新幹支會 楊甘班에서」, 『조선일보』, 1929년 11월 1일.

67 「盟罷遂解決 烏山川工事」, 『조선일보』, 1929년 4월 25일.

68 「水原新幹大會」, 『동아일보』, 1929년 4월 10일.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의 노력으로 해결된 오산천 사방공사장의 파업(『조선일보』, 1929년 4월 25일)

다. 회무에 관한 활동은 신간회가 민족통일전선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간회 수원지회는 회무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의 대중단체들과 연락을 도모하였다. 수원청년동맹과 연합회의를 진행한다거나 회관 건립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성회를 조직하는 등의 활동⁶⁹이 그것이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상식강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신간회 수원지회와 수원청년동맹은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간회 수원지회는 회원 모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928년 12월 22일 간사회에서는 신입회원 36명을 공식정의 보증으로 입회시키기도 하였다.⁷⁰ 또한 회비 징수를 위한 활동도 하였는데 회비는 의무금이라 하여 강제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928년 예산을 2,050원으로 결정한 것⁷¹과 유급 간사를 두기로 하고 공식정을 임명한 것⁷²은,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29년 7월 22일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과 간부 개선 등을 토의⁷³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수원청년동맹 주최로 신간회와 수원청년동맹의 간담회가 개최되

69 「新幹과 靑盟 聯合會館建築」, 『조선일보』, 1929년 8월 19일.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분회와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가 1929년 8월 15일 연합건축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서를 분담하였다. 위원장은 김웅섭(金雄燮), 규약기초 및 설계위원 김웅섭(金雄燮), 김기환(金基桓), 임종식(林鍾植), 박근실(朴謹實), 변기재(邊基在), 박정오(朴正吳), 이원식(李元植), 조명재(趙明載), 이덕만(李德萬), 이수경(李秀經), 부지교섭위원 이규경(李庚庚), 이남수(李南秀), 김웅섭(金雄燮), 김기환(金基桓), 임종식(林鍾植), 변기재(邊基在) 등이 선임되었다.

70 『동아일보』, 1928년 12월 27일.

71 「水原支會 幹事會」,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 「水原支會 幹事會」, 『조선일보』, 1928년 2월 5일.

72 「水原新幹大會 지난 7일에」, 『동아일보』, 1929년 4월 10일; 「水原新幹會大會」,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73 「新幹水原大會」, 『동아일보』, 1929년 7월 22일; 「新幹水原支會 臨時大會」, 『조선일보』, 1929년 7월 18일.



신간회 수원지부 집행위원장이었던 염석주(홍석창, 『최용신과 샘골마을 사람들』)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염석주이다.

었다.⁷⁴ 그러나 신간회를 포함하여 이 시기 수원 지역의 사회운동은 그리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⁵ 그리하여 1929년 11월 9일 집행위원장 염석주의 사회로 개최된 신간회 수원지회를 비롯하여 수원청년동맹, 수원노동조합,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등의 각 단체들이 일제히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이상과 같은 수원지회의 활동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먼저 신간회 수원지회는 창립 직후인 1927년 10월 31일 정기대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일본 경찰이 계출(届出)을 하지 않고는 개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개최 시간 전에 계출하였더니, 일본 경찰은 금일은 계출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인들의 연습대전(鍊習大戰)이 있는 날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의를 30분으로 한정하여 집회를 허가하였다. 그리하여 개최한 지 28분 만에 ① 형편상 회관과 사무실 분리의 건, ② 수원청년회 부흥 촉진의 건, ③ 오산사회운동 선구자인 김기선

74 「兩靑年檢束」, 『동아일보』, 1929년 7월 25일.

75 「水原各團體執行委員會」, 『조선일보』, 1929년 11월 5일.

76 「水原各團體委員會開催」, 『조선일보』, 1929년 11월 14일.

(金基宣)의 추도회에 본회 대표 파견의 건 등을 결의하고 산회하였다.⁷⁷ 이 외에도 일제는 1928년 12월 22일 신간회 수원지회의 송년회 자리에서 인쇄공인 김재덕과 김학봉의 감상담을 이유로 이들을 취조하였다. 즉 김재덕은 직공생활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다가 임석한 경관의 제지를 당하였고, 김학봉은 조선 농촌의 소감을 들어 사회 불평을 말하다가 금지당하였다.⁷⁸ 그리고 1929년 3월 10일 임시 간사회에서 본부대회의 건의안을 작성하던 중 임석한 경관의 제지로 3개 항이 삭제되었고,⁷⁹ 7월 22일에는 수원청년동맹이 신간회 수원지회를 연무대에 초대하여 만찬을 하던 중 임석한 경관이 해산을 명하였다. 이에 수원청년동맹과 신간회는 신간회 지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경찰이 거기까지 찾아와 해산을 명하자 이에 항의하다 김영일과 권순중이 검속되었다.⁸⁰ 또한 1929년 10월 신간회 수원지회가 설립기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일제의 집회 금지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⁸¹ 서기장이었던 박승극이 검거되기도 하였다.⁸² 이에 신간회 수원지회는 일제와의 교섭을 통하여 10월 17일 지회 설립 제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⁸³ 이외는 다른 경우이지만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에 대한 반동이 일반 사회에서도 있었던 듯하다. 즉, 1929년 3월 23일 임시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의제는 서무부 총무간사인 공석정이 사임원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공석정은 자신이 사임원을 제출한 이유로 중성극단(衆聲劇團)⁸⁴ 표모(表某) 일파의 폭행사건으로 신간회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폐회하였다.⁸⁵

1. 서무부 총무간사 사임원 수리의 건.
1. 중성극단의 경고문(警告文)을 의미한 주의문(注意文)을 발할 일.
1. 조사부 간사 이각래(李珏來) 씨로 서무부 총무간사 겸무의 건.

77 「新幹水原支會例會」, 『동아일보』, 1927년 11월 3일.

78 「水原新幹支會幹事會」, 『동아일보』, 1928년 12월 27일.

79 「水原新幹幹事會」, 『동아일보』, 1929년 3월 15일.

80 「兩靑年檢束」, 『동아일보』, 1929년 7월 25일.

81 「新幹水原支會設立紀念禁止」, 『조선일보』, 1929년 10월 15일.

82 「빠라는 押收 紀念, 講演 다 禁止 신간 수원지회의 살풍경」, 『중외일보』, 1929년 10월 18일.

83 「新幹水原支會設置二週紀念」, 『조선일보』, 1929년 10월 17일.

84 중성극단은 고인관, 박선태, 이용성 등이 1929년 3월 10일 조직한 극단이다. 중성극지회라 한 것이라 보아 중성극단의 수원지회가 아닌가 한다. 이 극단의 창립총회 때 공석정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들과 공석정을 대표로 한 신간회 혹은 사회주의세력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炬火會臨總會」, 『중외일보』, 1929년 3월 14일).

85 「水原新幹幹事會」, 『동아일보』, 1929년 3월 28일.

4. 신간회 수원지회 회원의 성격

신간회 수원지회는 1927년 10월 17일 조직된 이래 몇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층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다음의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해 보자.

<표 2> 신간회 수원지회 조직 개편

시기	부서 및 간부	출처
설립대회 1927. 10. 17.	회장 김노적, 서무부 총무간사 김병호, 상무 박영식, 재무부 총무간사 이각래, 상무 최신복,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공석정, 상무 우성규,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홍종각, 상무 박봉득, 간사 이연숙, 김한설(조)	『조선일보』, 1927년 10월 20일 『동아일보』, 1927년 10월 20일
제1회 정기대회 1927. 12. 18.	지회장 유보, 총무 김병호, 서무부 총무 김병호, 상무 이봉득(박봉득), 재무부 총무 이각래, 상무 박영식, 조사연구부 총무 공석정, 상무 최신복, 조직선전부 총무 홍종각, 상무 우성규, 간사 이연숙, 윤준흠	『조선일보』, 1927년 12월 21일
임시대회 1928. 8. 19.	지회장 김세환, 상무간사 공석정, 이하 간사 확인 불명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제3회 정기대회 1928. 12. 16.	지회장 김세환, 부회장 엄석주, 서무부 총무간사 공석정, 간사 김봉희, 김상근, 재무부 총무간사 이건상, 간사 엄익홍, 김용준,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홍종각, 간사 박승극, 이연숙,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김병호, 간사 표덕중, 김현조, 기타 김도생, 광병준	『조선일보』, 1928년 12월 23일 『조선일보』, 1928년 12월 25일
제2회 임시대회 1929. 4. 7.	지회장 이각래, 부지회장 엄석주, 서무재정부 박승극, 이건상, 정치문화부 공석정, 김봉희, 조직선전부 엄익홍, 이연숙, 조사연구부 김병호, 김재덕	『조선일보』, 1929년 4월 10일
임시대회 1930. 4. 25.	집행위원장 박선태, 위원 김병호, 홍종각, 김기환, 민홍식, 장주문, 이수경, 우성규, 박상훈, 황응선, 이연숙, 변기재, 박봉득, 박해병, 박승극, 공석정, 이원식, 후보 조명재, 김재덕, 이용성, 감사위원 김세환, 나전강, 이창용, 박근실, 이각래, 대의원 공석정, 박승극, 후보 민홍식, 서기장 민홍식, 재정부장 김병호, 조직부장 홍종각, 감사부장 우성규, 선전부장 공석정, 교육부장 박봉득, 연락부장 박승극, 감사위원장 이각래(상무집행위원은 전기 부장으로 함)	『중외일보』, 1930년 4월 27일
집행위원회 1930. 8. 31.	집행위원장 결원, 서기장 변기재, 회계 김병호, 조직부장 홍종각, 교육부장 박봉득, 조사부장 우성규, 연락부장 박승극, 전국대회 대표의원 박승극, 김병호, 후보 변기재, 경기도연합회대표 박승극, 김병호, 변기재	『중외일보』, 1930년 9월 5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변기재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

<표 3> 신간회 수원지회 주요 활동가의 활동 사항

이름	주요 활동	성향
김노적	수원상업강습소, 배재고보 졸업, 3·1운동 참가, 국구민단, 임시정부, 진명구락부	성공회
김병호	3·1부인야학, 수원애향청년회, 수원기자동맹, 삼일학교 교사	감리교
이각래	화성학원유지회원, 조선일보사 기자, 수원기자단	
최신복	수원청년회	
공석정	오산 대성학원 설립, 사·교청년동맹, 수원청년동맹, 수원기자동맹, 수원노동조합, 카프 수원지부, 1930년대 초 만주로 망명	사회주의

이름	주요 활동	성향
우성규	화성학원 졸업, 수원청년회, 수원기자동맹, 카프 수원지부, 경기도소년연맹, 조선소년총연맹, 화성학원 교우회	사회주의
홍종각	천도교 수원청년동맹, 천도교청년동맹 경기도연맹,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
박봉득	화성학원 교사, 수원청년동맹	사회주의
이연숙	천도교 수원청년동맹	천도교
김현조	천도교 순회교사	천도교
김세환	3·1운동 48인 중 1명, 수원상업강습소 소장, 삼일학교 교사, 수원실업협회, 수원체육회	감리교
김봉희	수원청년동맹, 카프 수원지부, 사노 마나부(佐野學) 탈환투쟁으로 복역	사회주의
김상근	수원청년동맹, 천도교 종리사	천도교
김재덕	수원노동조합	사회주의
박승극	수진농민조합, 수원청년동맹, 수원노동조합, 카프 수원지부, 수원기자동맹, 민주주의 민족전선	사회주의
장주문	수진농민조합, 수원청년동맹, 보도연맹 가입	사회주의
이수경	수원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사회주의
박상훈	천도교 남양청년동맹	천도교
황응선	수원노동조합, 카프 수원지부, 수원청년동맹	사회주의
변기재	수원청년동맹, 오산노동야학원 사건으로 복역, 수원기자동맹	사회주의
이원식	수진농민조합	사회주의
조명재	수원청년동맹, 오산노동야학원 사건으로 복역	사회주의
이용성	수원청년동맹	성공회
나천강	동학농민운동 참가	천도교
김도생	화성학원 교사, 수원청년동맹	
박선태	휘문고보 졸업, 3·1운동 참가, 구국민단, 수원기자동맹, 수원실업협회, 혈복단, 수원체육회, 중성극지회(衆星劇支會)	성공회

〈표 2〉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립대회 당시에는 성공회의 김노적, 기독교의 김병호, 천도교의 홍종각, 이연숙, 김현조 등의 민족주의세력과 박승극, 공석정, 우성규 등의 사회주의세력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1928년 12월 16일 제3회 정기대회에서는 공석정, 김봉희, 엄익홍, 박승극 등의 사회주의자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1929년 제2회 임시대회에서는 박승극, 공석정, 엄익홍 등이 각각 서무재정부, 정치문화부, 조직선전부의 간사를 차지함으로써 사회주의세력이 지회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30년 임시대회에서는 장주문, 이수경, 우성규, 변기재, 박승극, 공석정, 이원식, 조명재 등의 사회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지회를 장악하였다. 이들은 모두 수원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등 수원 지역 대중단체의 구성원들이었다. 특히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였던 박승극이 신간회 수원지회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 시기는 그가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인 1928년 8월 19일 임시대회부터라 할 수 있다.⁸⁶ 그는 이 대회에서 임시의장을

말마 회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이로 보아 그는 귀국 이후부터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 수원지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민족주의세력은 그 역할이 약해졌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홍종각은 1930년 임시대회에서도 조직부장에 선임되어 천도교 측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홍종각과 이연숙 외에 나천강과 박상훈이 최초로 신간회 수원지회의 간부가 됨으로써 오히려 천도교의 영향력은 강화된 느낌이 있다. 특히 신간회 수원지회가 설립되면서부터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1930년 중반까지 천도교 측에서 조직부(조직선전부)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천도교 조직이 신간회의 반 혹은 분회 조직의 설치 및 확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구분회와 남양분회는 천도교인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회와 기독교 측에서는 김병호 이외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있어 이들 세력이 신간회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들은 각기 화성학원(김노적·우성규·박봉득·김세환·김도생·박선태)과 삼일학교(김병호·김세환), 오산노동야학원(변기재·조명재) 등의 교육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수원 지역에서 이러한 학교들은 신간회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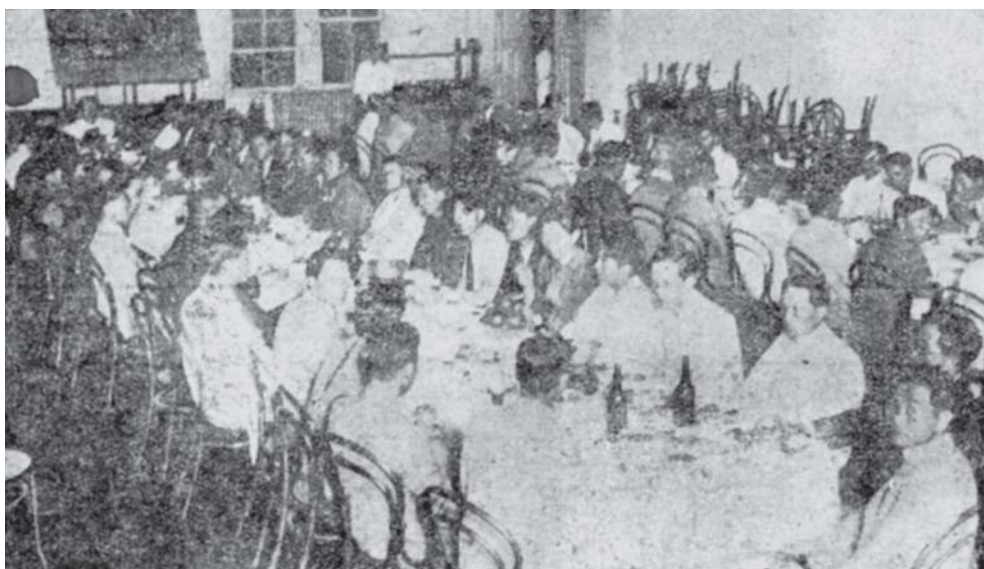
다만 이와 관련하여 1931년 신간회 해소 당시 수원지회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회는 처음에 해소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후에 이를 번복하여 해소를 결의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신간회 수원지회 구성원들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세력들이 신간회의 해소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이 민족주의세력이 신간회 해소를 반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원 지역의 민족주의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때문이라 하겠다.⁸⁷ 그러나 민족주의세력의 반대는 박승극과 공석정 등의 활동으로 번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박승극과 공석정은 신간회 해소대회에 수원 지역을 대표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참석하였다.⁸⁸ 이들의 해소 논리는 박승극이 남긴 조선청년총동맹과 카프의 해소논리를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즉 이들은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청년부로 귀속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수원 지역에서 전개된 신간회의 활동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86 「수원신간회대회」, 『동아일보』, 1928년 8월 22일.

87 조성운,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 참조 바람.

88 경기도경찰부, 『치안상황』, 1931년 7월, 426쪽(박경식 편, 『조선연구자료집』 제6권, 아세아문제연구소).



1931년 5월 16일 신간회 제2회 전체대회(『동아일보』, 1931년 5월 18일) 수원지회를 대표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이 대회에 참석한 박승극과 공석정은 신간회 해소안에 찬성하였다.

첫째, 신간회 수원지회는 천도교(홍종각), 감리교(김병호), 성공회(김노직) 등 종교세력과 화성학원, 삼일학교, 오산노동야학원 등 교육기관에 관련된 민족주의 성향의 인물들 및 박승극, 공석정, 우성규, 박봉득 등 사회주의세력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민족운동을 사실상 이끌어 오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 신간회 수원지회는 초기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세력 균형을 이루며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28년 후반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신간회 수원지회의 대표회원으로 신간회 본부의 회의에 참여하였고 집행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며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천도교 계열의 홍종각과 감리교 계열의 김병호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원 지역에서는 민족주의자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신간회 수원지회는 대중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 민족의 일상이익을 옹호하고 획득하기 위한 활동, 일반적인 회무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신간회 수원지회가 중점적으로 전개한 것은 지역사회의 대중운동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원청년동맹의 조직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원청년동맹이 조직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넷째, 신간회 수원지회의 활동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일제는 신간회 대회를 금지시키고 반 혹은 분회 조직을 억압하는 등 신간회의 결성을 위한 활동을 탄압하였다. 이러한 탄압은 특히 수원 지역 민족운동의 중심인물인 박승극과 공석정이 살던 양감면과 오산에서 더욱 심하였다.

다섯째,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천도교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신간회 수원지회의 조직 이후 천도교는 계속해서 조직부(조직선전부)를 담당하였다. 이로 보아 천도교의 종교조직이 신간회의 조직 확산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수원 지역의 천도교가 구과계열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간회 수원지회는 1931년 신간회 해소 당시 해소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박승극과 공석정이 해소대회 당시 신간회 중앙본부의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수원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의 해소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신간회 수원지회의 해소 논리를 알려 주는 글이 현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조선 청년총동맹과 카프의 해소를 주장하는 박승극의 글이 남아 있어 이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이들 역시 합법적인 대중단체를 해소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청년부로 귀속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조성운 경기대학교 강사

1. 수진농민조합의 결성
2. 수진농민조합의 주요 활동가
3.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
4.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방침
5. 수진농민조합운동의 성격



제7장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화하여 전개되었다.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은 때로는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운동을 발전시켰는데, 1927년에 창립된 신간회는 좌우합작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산한 뒤 국내에서는 사회주의계열의 민중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등장한 민중운동 가운데 특히 수진농민조합을 통해 1920년대 말부터 대두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진농민조합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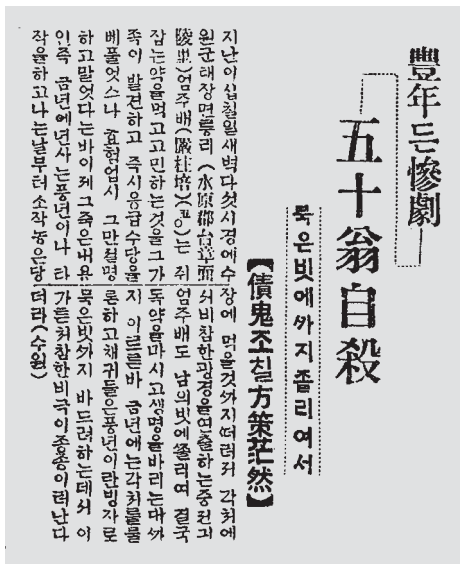
첫째, 수진농민조합은 수원과 진위 두 개의 군이 하나의 농민조합으로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군이 하나의 농민조합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예는 수진농민조합이 유일하다. 둘째, 수원 지역은 민족주의세력이 비교적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 지역의 운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의 농민조합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운동의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셋째, 운동 과정에서 일제가 운동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있다. 즉, 해방 후 수원군인민위원회

의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시중의 증언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수원 지역은 당시 한국 농업의 중심지로서 수원고등농림학교와 수원공립농업고등학교가 있어서 농업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역이다. 이상의 몇 가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제하 수원 지역에서 이루어진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성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수진농민조합의 결성

수원과 평택 지역의 농민운동은 이미 1920년대 초반 소작쟁의로 시작되었으나 조직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은 것 같다. 수원의 경우 1922년 11월 수원 동척(東拓)농장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수원군 향남면 하길리 동척농장을 관리하는 농감 김상철과 부농감 임종식이 중간에서 소작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횡령하는 등 많은 횡포를 부리자 1922년 11월 소작인 19명이 이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진정하였다.¹ 또한 1927년에는 소작인 엄주배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엄주배는 그해가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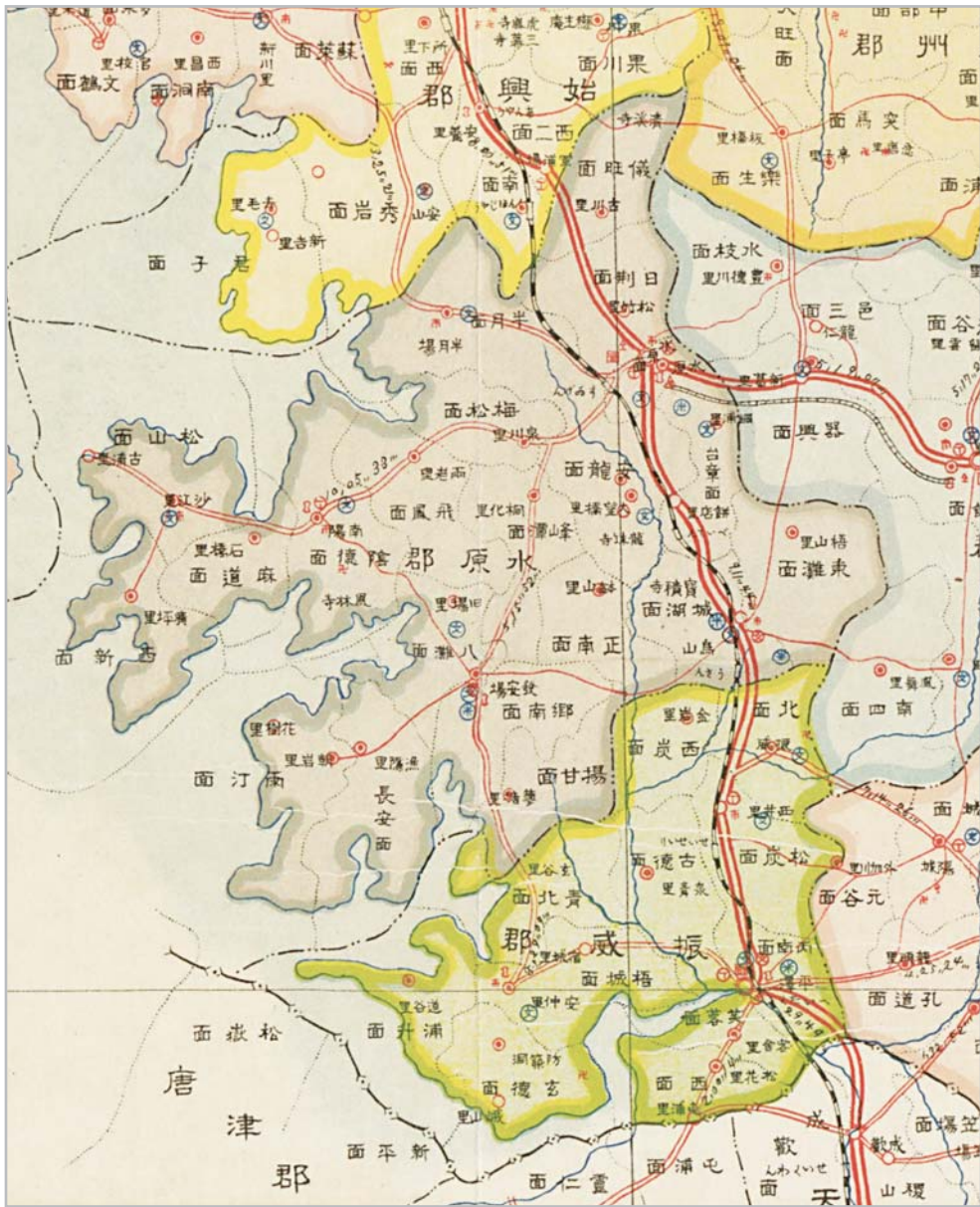
부하고 나니 먹을 양식도 없고 밋도 갇을 수 없어서 자살하였다.² 한편 평택 지역의 경우는 1923년 수원군 신평리에 사는 이모라는 사람이 고리대금을 하는데 진위군 포승면 석정리에 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가 갚지 못하자 그의 토지 40여 필을 경매에 넘겨 토지를 차지한 후 이를 소작을 주었다. 원래 그 토지에서는 200석밖에 추수하지 못하는데도 마을의 여러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300석의 도지를 받도록 만들었고, 1923년 12월 9일경 타작관 외 50여 명을 보내어 그 토지의 마름과 협력하여 추수한 곡식을 전부 빼앗았다. 그런데 그해는 흉년이라 추수한 곡식이 불과 300석밖에 되지 않아 소작



소작인 자살사건(『동아일보』, 1927년 11월 29일)

1 『동아일보』, 1922년 11월 20일.

2 『동아일보』, 1927년 11월 29일.



수진농민조합의 활동 지역인 수원군과 진위군(『경기도관내도』, 수원박물관 소장)

인들은 사정을 봐주기를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사정하는 소작인들을 밧줄로 묶고 곡식을 모두 강탈하여 소작인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³

이 같은 소작인에 대한 지주의 수탈은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러한 소작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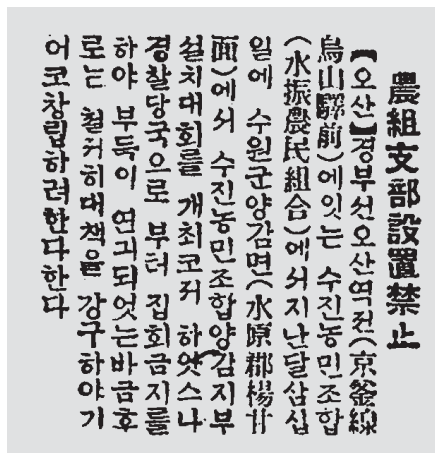
탈곡하는 수원의 농민들(조선총독부, 『생활상태 조사-수원군』, 1929)



농민가옥(조선총독부, 『생활상태 조사-수원군』, 1929)

하기 위해 수원군과 진위군을 묶어 수진농민 조합이 1929년⁴ 창립되었다. 그런데 수진농민 조합은 농민조합운동에서 유일하게 수원과 진 위의 두 군에 걸쳐 창립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농민조합운동의 1군 1조합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황구지천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황구지리와 용소리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나 생활권의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수진농민조합이 두 개 군에 걸쳐 조직된 이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군에 걸쳐 농민 조합이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주요한 활동무대는 수원 지역이었다. 이는 진위 지역이 수원에 그 생활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농민조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두 군에 걸쳐 농민조합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창립 이후 수진농민조합은 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여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집회 금지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지는 못하였다.⁵ 그 예로써 1930년 9월 30일 수진농민조합 양감지부(楊甘支部)의 창립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의 금지로 창립대회를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그리하여 수진농민조합은 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자 일련의 모색을 하였는데 1931년 2월 8일에는 집행위원회를 열었으며,⁷ 2월 20일에는 진위군 북면 하북리 권윤수(權允洙)의 집에서 제3회 집행위원회를 열어 강우형(姜友馨)을 의장에 선출한 후 조합원 정리에 들어갔다. 조직부장 김기환(金基桓)을 제명 처분하고 이원식(李元植), 조명재(趙明載), 박정오(朴正吾), 변기재(邊基在), 장주문(張柱文), 박승극(朴承極), 남상환(南相煥), 김영상(金榮相), 박두희(朴斗喜) 등을 신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⁸ 이때 선출된 집행위원은 수원과 평택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들로서 이후 이 지역에서 운동의 주역이 된다.



수진농민조합 양감지부 설치대회 집회금지(『동아일보』, 1930년 10월 12일)

3 『동아일보』, 1923년 1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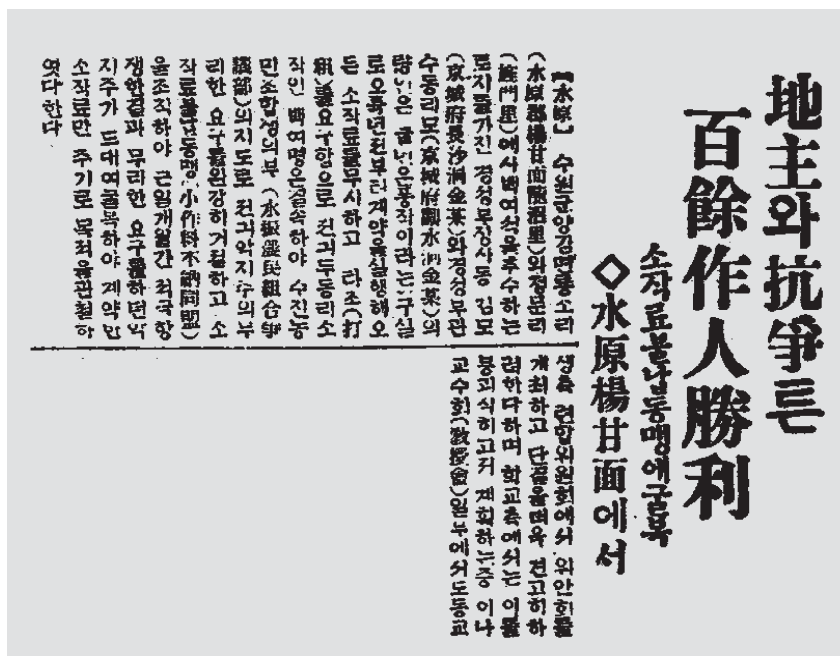
4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5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6 『동아일보』, 1930년 10월 12일.

7 『동아일보』, 1931년 2월 18일.

8 『동아일보』, 1931년 2월 25일.



수진농민조합에서 지원한 소작료 불납운동(『조선일보』, 1930년 10월 27일)

이상과 같이 수진농민조합은 일제의 탄압으로 그 활동이 부진하였으나 1930년 5월에 경성에 사는 지주 이모의 수원군 정남면 제기리 토지를 관리하여 오던 마름 김준식이 소작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작권을 임의로 이동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수진농민조합 쟁의부는 김기환과 이수경을 파견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⁹ 또 1930년 10월 100여 명의 양감면 소작인들이 지주의 과도한 소작료 징수에 항의하여 소작쟁의를 일으키자 수진농민조합에서는 소작료 불납동맹을 지도하여 지주를 굴복시키고 소작인들이 승리하는 데 기여하였다.¹⁰ 진위군 고덕면 문곡리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작권을 이동하여 일시에 생계가 어려워진 소작인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수진농민조합 쟁의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¹¹

이 점은 수진농민조합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자 일제가 이를 탄압하면서 수진농민조합의 활동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9 『중외일보』, 1930년 5월 9일.

10 『조선일보』, 1930년 10월 27일.

11 『조선일보』, 1931년 3월 27일.

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진농민조합은 집행위원을 바꾸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김영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운동의 방향전환을 꾀하였다. 즉 김영상과 남상환은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 당시 검거에서 벗어나 국외로 도피 중인 이종림(李宗林)과 함께 활동하던 심인택(沈仁澤)이 1931년 5월 1일 고향인 진위군 고덕면 읍포리에 망모(亡母)의 3주기를 맞아 내려온 것을 알고 5월 7일 그를 찾아가 농민운동에 대한 지도를 부탁하였다. 이에 심인택은 김영상·남상환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약 2시간에 걸쳐 농민운동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심인택의 주도하에 지금까지의 운동방침을 폐기하고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기로 농민운동의 지도방침을 정하였다.

이와 같이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기로 한 이들은 동지 획득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책임자로 선임된 김영상은 1931년 5월 20일 양감면 용소리(龍沼里) 청룡산(靑龍山)에서 장주문·이원섭과 회합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획득하였다.¹² 김영상은 이들을 동지로 획득한 후 이원섭에게 박승극을 동지로 획득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이원섭은 5월 27일 박승극을 만나 심인택이 작성한 문서를 박승극에게 제시하면서 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박승극은 7월 초순 서정리에서 김영상을 만나 조합 가입을 승낙받았다. 이상과 같이 김영상은 이원섭, 장주문, 박승극을 동지로 획득한 후 10월 초순 심인택을 이남룡(李南龍)의 집에서 만나 중앙조직의 완성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부서를 정하였다.¹³

지도	심인택
조직책임	김영상
조원	남상환, 박승극, 이원섭, 장주문

이상과 같이 조직을 정비한 후 이들은 농민조합의 확대, 강화를 위해 지부를 조직하고자 용소리에서 소작쟁의를 지도하였다. 즉 이들은 용소리의 토지관리인인 사카모토(坂本)와 소작인 간의 소작계약을 문제 삼아 1931년 10월 초순 소작쟁의를 준비하였다. 10월 27일에는 박승극·장주문·김영상이 황구지리(黃口池里)의 천변(川邊)에서 지부조직의 실천투쟁방법을 협의한 결과 한 마을에서부터 투쟁을 통해 지부를 결성하기로 하고, 장주문을 황구지리에 보내 소작인 측의 동향을 살피도록 하였다. 박승극은 장주문과 이원

12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 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13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 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수진농민조합의 활동무대였던 황구지천과 황구지리 일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섭을 황구지리 소작쟁의의 책임자로 정하고, 홍건표(洪建杓)와 이종국(李鍾國) 등에게 22일 밤 동리의 야학교에 학부형회라 칭하고 소작인을 모아 소작인회를 개최하여 소작쟁의를 선동하는 한편, 소작인 측의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다음날인 23일에는 토지관리인인 사카모토의 집에서 시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박승국은 소작쟁의를 정치투쟁으로 이끌기 위하여 11월 24일 김영상을 방문하여 투쟁방침을 협의한 결과 “소작인 측의 요구 전부를 관철시키자면 소작인이 결속하여 인락(飢落)시킬 것, 그리고 불납동맹을 감행하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나라에 불지를 것”이라 결정하고 김영상은 이를 홍건표에게 지령하였다.¹⁴ 이리하여 수진농민조합은 황구지리의 소작쟁의사건을 계기로 일제에 그 실체가 노출되었다. 즉 일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소리와 황구지리의 소작쟁의 과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함경도 방면에서 격화되었던 소작쟁의에 방불”¹⁵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수진농민조합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던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14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15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2. 수진농민조합의 주요 활동가

수진농민조합을 지도하였던 인물들의 성향을 통해 이들이 지향했던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관계자를 <표 1>을 통해 알아보자.

<표 1> 수진농민조합사건 관계자¹⁶

이름	나이	직업	본적 또는 주소	기소여부
박승극	22	신문기자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579	기소
김영상	24	신문기자	진위군 고덕면 두릉리	기소
장주문	26	농업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8	기소
남상환	28	신문기자	진위군 송탄면 서정리	기소
이원섭	28	농업	수원군 양감면 용소리	기소
홍건표	27	농업	진위군 서탄면 황구지리	불기소
이종국	30	농업	진위군 서탄면 황구지리	불기소
심인택	22	무	진위군 고덕면 울포리	기소중지

먼저 박승극은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 1928년 3월 도쿄의 니혼대학 예과 1학년에 입학했으나 재학 당시부터 좌익 출판물을 탐독하여 공산주의에 공명하였고 부르조아교육을 혐오(嫌惡)해서 같은 해 7월 동교를 그만두었다. 그 후 조선에 돌아와 수원에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을 경영하고, 이원섭·장주문과 함께 선문리(旋門里)에 신흥학당(新興學堂), 용소리에 대화의숙(大化義塾), 사창리에 보신강습소(普新講習所) 등을 운영하며 무산교육을 실시하였다.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기자동맹, 수원청년동맹,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수진농민조합 등을 창립하여 활동하였고, 1930년에는 수원에서 조선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농촌 청년에게 혁명의식을 교양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 25회나 경찰에 구금된 경력이 있다.

김영상은 중류의 가정에서 태어나 평택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30년 3월 남상환으로부터 조선일보사 서정리분국을 양수(讓受)받은 이래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되었다. 그 후 남상환의 추천으로 진위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등 사상단체의

16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 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간부로 활동하였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상환의 지시로 1930년 여름부터 사창리에서 야학강습소를 설립하여 미취학 아동 50여 명에게 『노동독본』과 기타 사회과학을 기초로 무산교육을 실시하고 혁명의식을 교양, 훈련시키기에 힘썼다.

장주문은 빈곤한 농가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15세에 서울 사립중등학교 별과에 입학했으나 학비가 부족하여 2년 만에 중퇴하고 향리로 내려와 소작농이 되었다. 그리고 가정의 빈곤과 자기의 불우가 사회제도의 모순 때문이라 생각하여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간회 수원지회, 수원청년동맹, 수진농민조합 등 사상단체의 간부로 활약하였다. 또한 박승극, 이원섭과 함께 선문리에 신흥학당, 용소리에 대화의숙, 사창리에 보신강습소를 창립하여 미취학 아동 50~60명을 수용하여 『노동독본』등을 교재로 무산교육을 실시하고 빈농층 자제에게 공산주의 혁명의식을 교양, 훈련시켰다.

남상환은 1924년 서울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동대문시장에서 미곡상을 하다가 실패하여 자산을 탕진한 이래 생활상의 궁박은 현 사회제도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공산주의에 공명하였다. 그 후 서정리로 이사하여 조선일보사 분국을 경영하였고 현 사회제도를 변혁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서정리에 사립야학교를 설치하여 미취학 아동에게 무산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진위소년동맹, 진위청년동맹, 서정리노동조합, 수진농민조합 등의 사상단체를 창립하여 지도자가 되어 각 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 청소년을 공산주의적 혁명의식으로 교양, 훈련시키기에 힘썼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20여 회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원섭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서울에서 고학당(苦學堂)을 전전하면서 고학을 하던 중 현 사회제도에 불만을 품고 공산주의에 공명하였다. 그 후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동아일보사 경동지국, 중외일보사 경동지국 등을 경영하면서 신간회 경동지국과 중앙청년동맹의 간부로 활동하였고, 1930년 3월 귀향 이후 박승극·장주문과 함께 공산교육에 열중하여 빈농층 자제에게 공산주의적 혁명의식을 교양, 훈련하였다.

심인택은 1930년 경성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한 후 시흥군 영등포에서 중외일보사 영등포지국을 경영하던 중 조선공산당의 간부로 종래 수차에 걸친 대검거를 피해 해외로 망명한 이종림(李宗林)과 교류하면서 공산주의에 공명하게 되었다. 그는 1930년 8월 이종림의 지도에 따라 남상환과 함께 서정리를 중심으로 진위소년동맹, 진위청년동맹 등을 창립하였다. 표현단체에 의한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수원경찰서가 그 집회를 금지하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가 없었다. 그 후 그는 1931년 2월 중외일보사 영등포지국을 경영한 때문에 폐업한 후 심인택이 150원, 이종림이 부족 자금을 내어 영등

포역 앞에서 미곡상으로 위장한 후 이종립의 지도하에 서울, 영등포,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 공산주의운동에 분주하였다.¹⁷

이상에서 보면 수진농민조합을 이면에서 지도하였던 인물들 중 박승극·심인택은 전문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며, 김영상·남상환·장주문 등은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로는 교육을 받은 층에 속하는 인물이었었고 특히 박승극의 경우는 일본에 유학을 갈 정도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박승극과 심인택은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듯하지만, 김영상은 중류

층에서, 장주문·이원섭·남상환은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수진농민조합의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진농민조합이라는 틀 속에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교육받은 청년·학생으로서 민족해방에 대한 진보적 성향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진농민조합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일제와 일부 지주층의 무자비한 수탈과 농민운동에 대한 탄압에 기인한다. 이는 당시 수원 지역의 정서가 사회주의가 발흥하는 형세라 하여도 여전히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에서 막강하였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수진농민조합이 함경도나 전라도 등과 같은 지역과는 달리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박승극 등이 수진농민조합의 이면에서 운동을 지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일제에 의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던 박승극, 김영상, 장주문, 이원섭 등은 1933년 3월 28일 증거가 불충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석방되었다.¹⁸ 그리고 재판 이전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던 남상환은 출감 후 병으로 사망하였고, 남상환을 제외한 박승극·김영상·장주문은 미결구류 하루에 1원 이상 5원 이하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내어¹⁹ 일제에 대한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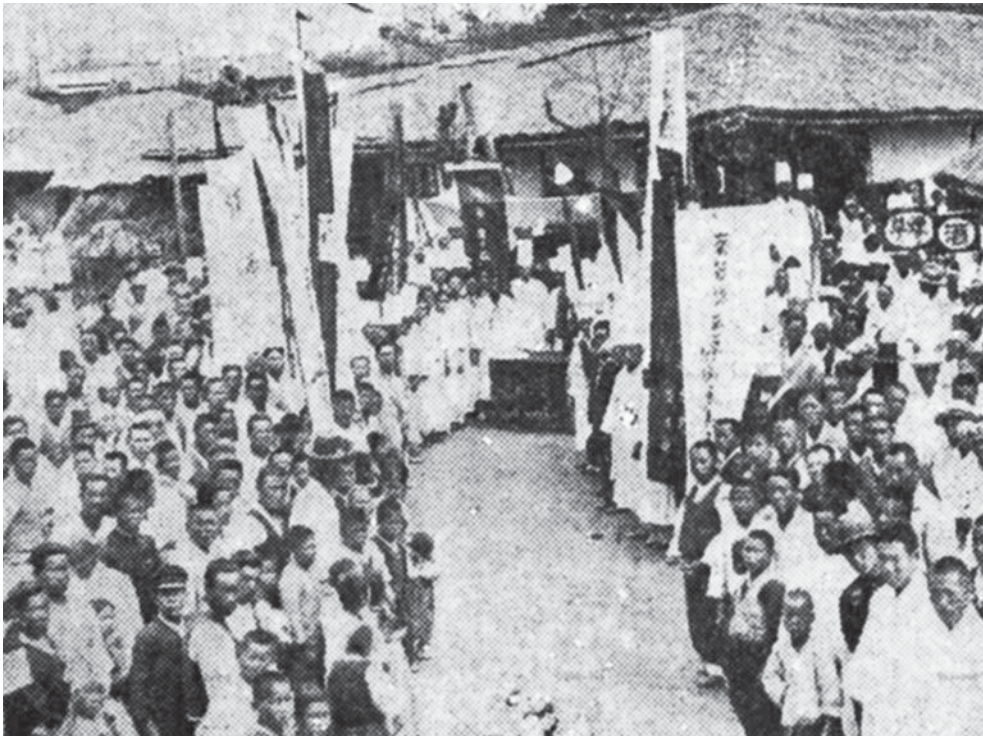


수진농민조합 사건 공판기사(『동아일보』, 1933년 1월 17일)

17 水警高秘 제4782호, 소화 6년 12월 28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組織計劃에 관한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 제4권).

18 『동아일보』, 1933년 3월 28일.

19 『동아일보』, 1933년 6월 4일.



수진농민조합사건으로 피검되었다가 출감 후 사망한 남상환의 정례식(『동아일보』, 1933년 5월 2일)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박승극과 같은 동네에 살던 김시중은 수진농민조합사건이 일제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당시 수진농민조합은 조합 이름을 걸고 힘들게 조직사업을 하고 있었을 뿐 이렇다 할 조합의 내·외적 위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동맹원으로 농조일도 함께 보았던 이원섭이 일제의 경찰 끄나풀로서 양감면에 파견되어 와 있던 고등계 형사와 짜고서 '농민조합의 전투적 투쟁계획서'라는 문서를 날조하여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날조 과정의 희생양으로서 적색농조의 관련자로서 실행까지 받게 되어 버린 이원섭이 법정에서 조작 과정을 폭로함으로써 밝혀졌지요.²⁰

이상의 증언을 토대로 박승극 등 관련자들이 무죄로 석방된 사실로 볼 때 수진농민조합 사건은 일제의 조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제가 이 사건을

20 한상구, 「남로당 지방당조직 어떻게 와해되었나」, 『역사비평』, 1989년 봄호, 328쪽.

조작하였다는 것은 곧 수원 지역에서 운동이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은 여타 농민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수진농민조합이 강령과 규약으로 간주하였던 다음 내용과 그 활동에서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을 찾을 수 있다.

1. 수진농민조합이라는 표현단체의 별도체로서 그 이면에 비합법조직을 결성할 것. 그리고 이 적색농민조합에 집합한 각 동지는 김영상을 조직책임자로 해서 박승극, 장주문, 이원섭을 끌어들이 것.
2. 적색농민조합은 지하운동에 의해 그 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진농민조합이라는 표현단체의 이니셔티브를 획득하여 활발한 적색농민투쟁을 전개할 것.
3. 적색농민조합은 각 부락마다 그 지부 또는 반을 결성하는 전술로서 현재 각 부락에 있는 친목회 혹은 두레(農旗會) 등을 이용하여 그 이면에서부터 프락션운동에 의해 소작쟁의 기타 투쟁을 선동하여 격발시켜 투쟁을 통하여 지부 또는 반의 조직을 결성할 것.
4. 적색농민조합의 제 임무
 - ① 부분적 일상투쟁의 형성, 격발
 - ②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의 연락
 - ③ 원칙적 요구투쟁에서 부분적 요구투쟁으로(원칙적에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에서 원칙적으로)
 - ④ 노동동맹의 사상(국제주의의 보급, 선전) - 농민해계모니주의 = 애국배외주의(愛國排外主義)의 배격
 - ⑤ 개량주의 제유형의 폭로, 축출
 - ⑥ 지주 및 관제 제산업조합의 반동 폭로
 - ⑦ 하층계급으로부터의 통일전선 전개
 - ⑧ 재개량주의 농민조합 내에서의 좌익적 반대파의 형성
 - ⑨ 농민조합 창립의 의미에서 소비조합운동²¹

먼저 수진농민조합은 운동의 주체를 하층계급, 즉 빈농에 두었다. 이는 수진농민조합이

21 한상구, 「남로당 지방당조직 어떻게 와해되었나」, 『역사비평』, 1989년 봄호, 328쪽.

빈농 우위의 원칙을 농민조합 조직의 기본방침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빈농 우위의 원칙은 당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했던 주체들의 일관된 운동방침이었다. 이러한 운동방침은 1925년 조선공산당의 창건 이후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했던 인사들의 활동이 소부르주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빈농층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라는 ‘12월 테제’를 기초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에 활동하던 이론가나 실제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하던 활동가들이 농촌 내의 계급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통해 그들이 왜 빈농을 운동의 주체로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의 이론가나 활동가들은 농촌사회의 계급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²²

- ① 지주: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입을 소작료에 의존하는 농민층
- ② 부농(대농): 농업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점에서는 농촌 내부에서 자본가적인 존재이지만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점에서는 소생산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일본제국주의, 대토지소유자, 고리대적 자본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농민층
- ③ 중농: 토지를 소유하지만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며 1년간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엇비슷하여 풍흉에 따른 농업 경영의 성적에 따라 가계의 운용이 이루어지는 농민층
- ④ 빈농: 적은 면적의 토지를 경작하지만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계절노동이나 고리대금의 차용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농민층
- ⑤ 농업노동자: 자신의 소유토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층

그런데 이상의 분류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부농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3차 명천농민조합에서 나온 문건²³에 따르면 당시에 부농을 둘러싸고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빈농과 중농이 동맹하여 부농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빈농과 중농이 동맹하여 부농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검토한 후, 빈농과 중농이 동맹하여 부농을 참가시키지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두 번에 걸친 농민조합운동의 실패를 경험한 명천 지역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의된 내용이므로 당시 각 지

22 당시 이론가나 활동가들의 농민 계급 분석에 관하여는 광우, 「조선의 토지문제와 (공산)당의 토지강령」, 『조선혁명론』; 농조 명천좌익출판부, 「농민조합 재건운동과 농민문제」, 1936년 9월; 적색노동조합 원산좌익위원회, 「자본민주주의혁명과 조선노동자계급의 임무」, 『노동자신문』 제3호, 1937년 1월; 이운혁, 「현하 조선 경제와 혁명의 특질에 관한 테제」 등이 있다. 이상의 글은 신주백 편,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 I, 새길, 1989 등을 참조 바람.

23 농조명천좌익출판부, 「농민조합 재건운동과 농민문제」, 1936년 9월(신주백 편,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론연구』 I, 새길, 1989).

역의 활동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와 같은 논의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주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부농포섭론과 부농배제론에 대한 논의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보이던 좌편향적인 성격을 불식하는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수진농민조합의 경우는 빈농 우위의 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수진농민조합의 운동방침은 앞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지주 및 관제 제조합의 반동 폭로’라 하여 지주를 타도의 대상으로 분명히 하였으나 부농과 중농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1930년대 초반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부농 배제의 원칙이 일반적²⁴이었기에 수진농민조합의 경우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수진농민조합의 투쟁이 좌편향적이었는지의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진농민조합은 용소리와 황구지리의 소작쟁의를 통하여 볼 때 좌편향적이라 할 수는 없다. 즉 이들의 대표적인 투쟁이라 할 수 있는 용소리와 황구지리의 소작쟁의도 ‘부분적 일상투쟁의 격발’을 통하여 수진농민조합을 조직하려고 했던 운동이었고 이는 실제 투쟁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수진농민조합이 운동방침에서 표방했던 반제투쟁과 반봉건투쟁의 결합 방침이라든지 원칙적 요구투쟁에서 부분적 요구투쟁으로, 부분적 요구투쟁에서 원칙적 요구투쟁으로라는 방침(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방침), 농민조합 창립의 의미로서 소비조합운동이라는 방침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천도교 민족주의, 전조선농민조합의 농민사회주의(인민주의적 경향), 협동조합의 평화적 개량주의, 지주 및 관제 산업조합을 개량주의로 지목하고 이들과의 투쟁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수진농민조합은 이와 같은 단체 내에서 좌익적 반대파를 형성하고 농민조합의 표면조직으로서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개량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농민조합의 투쟁조직의 활동은 반드시 농민조합의 주도권 아래 두도록 하였다.²⁵

24 하원호,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농업·농민론」,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189쪽.

25 水警高秘 第4682號-1, 소화 7년(1931) 1월 7일, 「秘密結社 赤色農民組合 組織計劃에 관한 件」(김경일 편, 『한국민족해방운동 사자료집』 4).

4.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방침

다음으로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방침을 보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했던 대부분의 농민조합이 그러했듯이 역시 투쟁을 통한 조직방침을 채택하였다. 즉 이들은 투쟁을 통하여 민중의 정치의식을 자각하고 이를 농민조합의 확대, 강화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용소리와 황구지리의 소작쟁의를 수진농민조합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였고, 같은 논리로 각 리에 지부 또는 반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결국 수진농민조합은 군 단위의 중앙조직을 먼저 결성한 이후 면과 리 단위의 지부 또는 반을 조직하는 하향식 조직방침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전위정치조직을 결성하고 그것을 매개로 혁명적 농민조합을 건설하고자 했던 방침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진농민조합의 경우에는 소년부, 청년부, 부인부 등 계급별 계층별 독자적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수진농민조합이 혁명적 농민조합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합법적 농민조합의 이면에서 운동을 프랙션(fraction : 당원 조직)을 통하여 지도한다는 한계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족주의 세력이 아직까지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수원 지역의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것이다. 즉 수원 지역의 민족주의자들은 화성학원과 삼일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과 사회시설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기독교세력이 컸던 당시의 사회적 조건²⁶을 고려한다면 청년동맹을 비롯한 부문운동 단체들에 대한 지도권을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진농민조합은 청년동맹, 소년동맹 등의 부문운동 단체들을 농민조합의 독자적인 부서로 흡수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진농민조합은 빈농 우위의 원칙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계급과 계층별 독자적 부서를 설치하지 못한 조직 상황과 비교할 때 모순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 전망을 그와 같이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신간회의 해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인 1931년 4월 18일 경성사회 임시대회에서 정희찬이 낭독했던 문건²⁷에 따르면 신간회 해소 이후 소작인과 빈농을 본위로 하는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농민은 농민조합에 편입시키고, 부인과

26 1930년을 전후로 한 시기의 수원 지역 기독교 신자의 수는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우며, 천주교의 경우는 1930년 현재 본당이 1개소가 있었고 신자의 수는 70여 명에 이르렀다. 개신교의 경우는 이보다 신자가 많은 듯한데 1893년 3월 2일 세워진 수원 지역 최초의 교회라 생각되는 장지내교회의 경우 1901년 5월 59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1932년까지 종로교회, 고색교회, 금곡교회 등이 세워지면서 교세가 신장되었다. 더욱이 삼일여학교와 삼일학교는 수원 최고의 학교로서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것이었고, 수원 지역 3·1운동의 주역인 김세환이 당시 삼일여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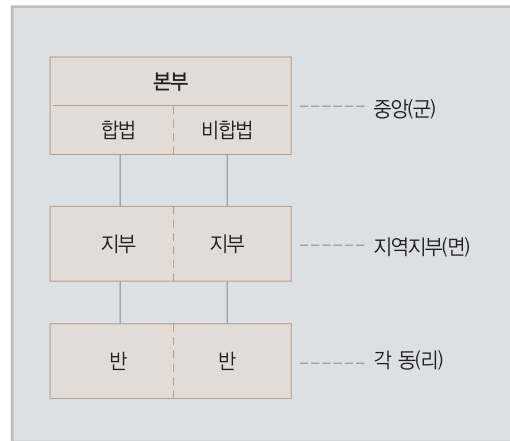
27 경기도경찰부, 「해소 문제의 원인」, 『치안상황』(박경식 편, 『조선연구자료집』 6,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404쪽).

청년은 노동조합의 부인부와 청년부에 편입시켜, 그들이 일반 대중을 혁명적으로 영도하기 위하여 조합 내의 해당 위원회의 대표로서 각지의 노력부인위원회와 노력청년위원회를 조직하여 계급 전위의 지도하에 둘 것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소문제 직전에 개선된 신간회 임원진에 수원 지역의 박승극과 공석정의 이름이 보인다.²⁸ 박승극이 위원장으로 있던 수원청년동맹은 1931년 1월 24일 조선청년동맹 경남도연맹, 함남북도연맹, 평남도연맹 등에 「도연맹이 주체가 되어 청충간부를 개선하여 청충을 해소하고, 노동·농민 단체에 청년부를 설치하여 단체의 확대·강화를 도모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청년동맹 해소운동의 선봉에 서면서, 3월 29일 수원청년동맹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동맹 해소문제를 제의·결정하였다고 한다.²⁹ 이렇게 보면 수진농민조합은 역시 계급과 계층별 독자적 부서의 조직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 수진농민조합의 조직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수진농민조합의 조직체계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수진농민조합은 합법적 농민조합의 이면에서 프락션을 조직하여 농민조합을 혁명적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둘째, 군·면·리의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을 짜하였다. 셋째, 아직까지 농민조합의 참모부서나 계급과 계층별 독자적인 부서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다른 한편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관련 문제로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재건운동세력과 연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대부분의 혁명적 농민조합이 재건운동세력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수원 지역의 경우도 그와 같은 연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종립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다는 심인택의 활동이 확인된다면 이 문제는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진농민조합의 조직체계

28 경기도경찰부, 「해소 문제의 원인」, 『치안상황』(박경식 편, 『조선연구자료집』 6,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426쪽).

29 경기도경찰부, 「해소 문제의 원인」, 『치안상황』(박경식 편, 『조선연구자료집』 6, 아세아문제연구소, 1982, 442쪽).

5. 수진농민조합운동의 성격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수진농민조합은 창립 이후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가 이와 같은 수진농민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상, 박승극 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진농민조합을 혁명적으로 개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둘째, 수진농민조합은 비교적 민족주의세력이 강했던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민족주의세력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양산의 경우처럼 민족주의자들이 농민조합을 지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사회운동의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협력한 정황을 볼 수 있다. 수원청년동맹의 위원장이면서 수진농민조합의 간부로 활동한 바 있던 박승극이 민족주의자인 홍사훈이 경영하던 화성학원에 청년동맹의 운동장을 양도한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결국 수원 지역의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의 중심인물이 당시 수원 지역의 유일한 민족교육기관으로 평가받으면서도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던 화성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했던 것이다. 이 점은 민족주의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지역의 특성에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수진농민조합은 수원과 진위 두 개 군을 하나의 농민조합 안에 포용하였다는 점에서 행정 단위별로 농민조합을 조직하고자 한 1군 1조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즉 같은 생활권인 진위와 수원을 하나로 묶었고 또 활동에서도 황구지천을 경계로 서로 마주하는 용소리와 황구지리에서 소작쟁의를 지도한 것이다. 이는 수원 지역의 활동가들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 혁명적 농민조합의 한계로 인정되던 지역적인 고립성을 극복하고자 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조직과 운동에서 지역적인 한계를 타파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사전에 봉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혁명적 농민조합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조직방침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진농민조합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하향식 조직방침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수진농민조합의 경우도 운동방침에서 하층계급으로부터의 통일전선 전개를 선언하여 아래로부터의 조직방침을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실제 운동 과정에서는 군 단위의 중앙조직을 먼저 건설한 후 면과 리 단위의 하부조직을 결성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

원 지역의 대중적 조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운동을 급진적으로 이행하려 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 연구³⁰⁾에 따르면 대중적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하향식 조직방침이 채택되기도 하였지만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대중적 기반이 미약하면서도 하향식 조직방침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지역에서는 지역 전위 정치기구의 성립과 그 활동에 의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이 성립하거나 그 성격이 전환하는 것에 비추어 수진농민조합의 경우에는 전위 정치기구의 성립 없이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듯이 수진농민조합의 경우에도 빈농 우위의 원칙을 조직의 방침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진농민조합은 부농이나 중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1930년대 초반의 혁명적 농민조합이 취했던 방침이 부농 배제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수진농민조합의 입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30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 331쪽.



박철하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 노동조건과 생활상태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3.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



제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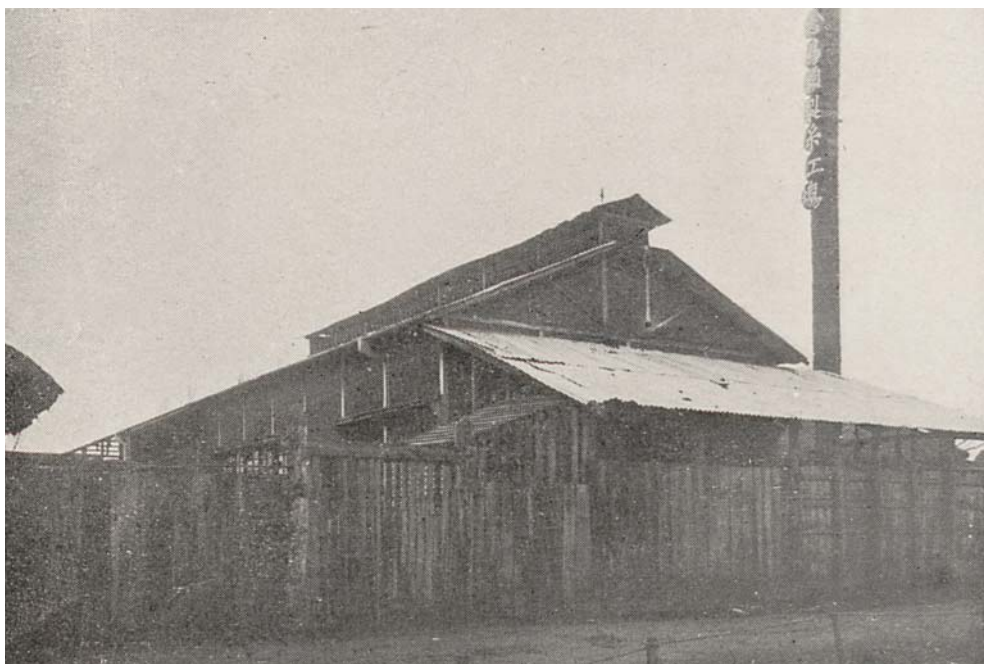
수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

1. 노동조건과 생활상태

수원 지역은 지주제가 강고한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상대적으로 과잉인구가 포진되어 공업화를 위한 노동력 공급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1920년대 수원의 공업 수준은 이러한 농촌의 과잉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궁핍한 농민에 대한 고리대금업은 수원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수원 성 안 3,000여 호 가운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가 2,400호나 되었다고 한다. 가난한 농민과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양산해 냈다.

수원 지역 자산가들의 공업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이었다. 이는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기자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공업(工業) 아직 보잘 것이 없으니 수원 인사로는 항상 개탄하는 바이며 소위 유산계급(有産階級)은 이 점에 대하여 등한시 하는 것은 다시 말 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꿈도 안 꾸는 것을 어찌하리오. 간혹 가다가 식자(識者) 간에 무엇을 하겠다고 발기를 해 놓으면 유산자 그네들은 한다



안룡면 제사공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일제시기 팔달문 밖 상가(수원박물관 소장)

는 소리가 되지 않을 일을 하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낮잠이나 자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하여 물리치니 아무리 하고 싶은들 맨주먹으로 어찌 성사가 되리요. 공장 대신 날로 늘어가는 것은 고리대금업자며 걸인 때밖에는 없다.¹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따르면 1920년대 수원 지역 산업은 농림업, 양조업, 운수창고, 인쇄업, 상업, 금융신탁, 전기 관련 공장 등의 회사와 상점들이었다. 1926년 말 현재 공장의 수는 수원제지공장 외 12개소에 공장 건평이 1,022평, 자본금이 34만 8,000원, 종업원의 수는 178명에 불과하였다.² 근대적 공업 발전이 매우 저조한 반면 수공업에서는 전통적 숙련노동과 개인경영 형태로 지속되고 있었다.³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920년대 말 이후 세계대공황으로 중산계급이 급격히 몰락해 갔다. 수원군 전 호수 2만 7,000여 호 가운데 80% 이상이 빈곤민으로 분류되고, 전 군민의 50% 가까이가 채무에 허덕였으며, 이 가운데 20%는 무산계급이나 다름없었다.⁴ 1940년대 초반까지 수원에는 성냥, 인쇄, 양조, 제탄 등의 회사가 있었지만 철도·성냥회사와 일부 양조회사를 제외하고는 영세한 회사들이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큰 회사들이 수원 지역에 공장 신설을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그것도 몇몇 직물공장과 성냥공장뿐이었다.

수원 지역에서 일반 노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먼저 1920년대 후반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29세의 노동자 김모 씨의 경우를 보겠다.

그는 어떠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본어도 모르고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도 보지 못한다. 부동산이나 동산도 없으며, 고용주의 집에서 먹고 잤다. 그런데도 부채로 50원을 빚지고 있는데, 매월 1원 50전의 이자를 내야 한다. 김모 씨의 1년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자. 수입은 오로지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면서 1년에 받는 60원이 전부다. 그런데 지출을 살펴보면, 술과 담배 값으로 36원(월 평균 3원), 옷값 10원, 이자 20원과 잡비 30원 등 모두 96원이었다. 즉 1년에 36원이 적자인 것이다. 그는 취미나 오락을 하는 것도 없으며, 밤에는 등불이 없어서 캄캄한 채로 살아야 했다.⁵

노동으로 살아가는 55세의 한 가장인 홍모 씨를 살펴보겠다. 그는 40대 후반에 아내와

1 「순회탐방(198)-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3)」, 『동아일보』, 1927년 1월 16일.

2 「순회탐방(198)-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3)」, 『동아일보』 1927년 1월 16일.

3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산업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통권 1호), 수원박물관, 2011 참조.

4 「부유한 수원군도 중산계급은 몰락, 토지경병열과 이식 부담이 과중, 부채를 매인당 천여 원」, 『매일신보』, 1932년 8월 27일.

5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기1) 수원군』(조사자료 제28집), 1929, 221~225쪽.



1920년대 북문 밖 노동자가옥(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사별하고 홀아비로 지내면서 각각 17살과 9살 난 아들 둘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모두 아무런 학력을 갖지 못하였다. 다섯 칸짜리 낡은 초가집에 30원가량 값어치를 갖는 가구와 각종 일상집기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부채는 없었다. 그는 1년에 약 300일을 노동하고 임금으로 90원의 수입을 얻었다. 큰아들은 다른 농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며 50원을 받았다. 이 외 40여 일간의 잉여노동으로 얻은 15원을 포함하여 1년 수입이 155원이었다. 하지만 1년 지출금액을 따져 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즉 1년에 세 식구가 식비로 80원, 술과 담배 값 15원, 집수리비 15원, 의복 20원, 세금 60전, 잡비 24원 40전을 사용하였다. 특히 식비의 경우 세 사람이 쌀 1가마와 잡곡 3가마로 끼니를 해결하였다. 주식은 잡곡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초 2개를 가지고 불을 밝히고 살았다. 물은 가까이에 있는 공동우물을 이용하였다. 화장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결하였다.⁶

수원 지역의 20대 청년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다. 1939년 2월 2일 오후 6시 80여 명의 청년노동자들이 수원역에서 멀리 서울행 기차를 탔다. 먹고 살기 위해 부모, 처자식과 작별하고 일자리를 찾아 멀리 함북 성진을 향하는 청년들이었다.

6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기1) 수원군』(조사자료 제28집), 1929, 225~229쪽.

이들은 십장 두 명의 감독하에 모집되어 성진항의 수력전기공장으로 “하루에 1원 내지 1원 50전의 품삯에 팔려 가는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기자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그리운 고향의 부모와 처자를 두고 차마 떠나기 어렵다는 애처로운 하소연을 넉넉히 읽을 수 있었다.”고 썼다.⁷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이용한 취직 사기도 기승을 부렸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939년 2월 3일 수원군 안릉면 오목천리 524번지 최금옥(崔金玉 : 17)의 집에 25~26세가량의 홍재춘(洪在春)이란 청년이 찾아왔다. 그는 경성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는데 소학교를 졸업한 얌전한 점원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 말에 솔깃한 최금옥의 부모들은 아들의 취직을 부탁했고, 홍재춘은 자기 상점에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에 가면 처음에 돈이 필요하라며 현금 5원과 졸업장을 받아 최금옥을 데리고 떠났다. 그러나 홍재춘은 서울로 가던 도중에 시흥에 이르러 자취를 감췄고, 최금옥은 돈과 졸업장을 빼앗긴 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였다.⁸

수원의 젊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현실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검거된 청년노동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음악과 영화 등 예술을 좋아하는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⁹ 그 구성원들은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고향을 떠나 함경도로, 심지어는 만주로 가야 했던 고통받는 식민지 청년들이었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용범의 경우를 보겠다. 그는 자작농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생활상 곤란하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용인군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하였다가 수원에 정착하였다. 사립 삼일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영등포로 전학하였으나 결국 공립보통학교만 졸업하고 학자금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였다. 그는 15살 때부터 일급 50전을 받고 영등포의 맥주회사를 다녔다. 1939년 서울의 경성철공장에서 일급 70전을 받고 일하다가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다시 수원으로 내려와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 종축업을 경영하였으나 실적 없이 운영하다가 일

7 『조선일보』, 1939년 2월 4일. 고명복(高明福), 최사남(崔四男) 2명의 십장의 감독 아래 모집된 청년들로 조암에 사는 박순성(朴順成 : 28세) 외 80명이었다.

8 『조선일보』, 1939년 2월 9일(조간).

9 수원예술호연구락부에 대해서는 박철하,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통권 1호), 수원박물관, 2011, 303~335쪽 참조.

제 경찰에 체포되었다.¹⁰

다음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 김길준을 보자. 당시 김길준의 아버지는 수원목재배급통제조합의 장작배달부로 빈곤한 생활을 하였다. 김길준은 신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립 삼일학교 고등과에 입학했으나 가정형편상 2학년 1학기 때 중퇴하였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땅고르기 작업, 수원천 개수공사 현장을 등을 따라다녔다. 수원 농사시험장, 약방, 주식회사 부국원 등에서도 잠깐 일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을 하면서 1939년 11월부터 1940년 2월까지 매일신보사 수원지국의 배달부로 근무하였다. 1941년 3월 수원을 평정의 수원농기구주식회사에 견습공으로 일급 80전을 받고 일하다가 회사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해고되었다. 결국 1941년 7월 고향을 떠나 함경남도 흥남에 가서 경성 구산출장소(丘山出張所) 수도공사장 직공으로 일급 1원 20전을 받고 일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¹¹

식민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에서 민족차별은 뚜렷하였다. 당시 전반적으로 어느 부문에서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임금격차는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였다.¹² 주식회사 부국원과 수원 곤도(近藤)인쇄소에서 문선공으로 일한 적이 있는 차준석과 김길준의 경우를 보자.¹³

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볼 때마다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어느 관청이나 회사에서도 일본인은 상석을 차지하고 조선인은 항상 아래쪽에 있다. 또한 월급도 일본인은 많이 받고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항상 적게 받는다. 따라서 나는 내선인의 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 때는 수원을 본정 3정목 곤도인쇄소에서 문선공으로 일급 17전을 받을 때였다(1938~1939년).¹⁴

내선일체(內鮮一體)라고 하지만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차별이 있고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농사시험장에 고용되었을 때의 일이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인의 급료는 월 45원 정도인데 우리는 일급 25전 정도였다. 그리고 일도 우리 조선인에게는 상당히 무리하여 우리를 노예 취급하였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¹⁵

10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 1941년 10월 15일.

11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1941년 10월 30일.

12 김경일,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9 - 노동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37쪽.

13 박철하, 「일제하 전시체제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통권 1호), 수원박물관, 2011, 316쪽.

14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년 10월 30일.

15 「(김길준) 피의자 신문조서」, 1941년 10월 30일.

위의 차준석과 김길준은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에 연루되었던 청년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민족차별로 계급의식과 함께 반일독립의식이 형성되었다.

2.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일반적으로 소도시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노동조합이 먼저 결성되었다. 이에 는 지역 내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망라되었다. 1920년대 전반 전국적 범위의 노동조직들이 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1920년에 결성된 조선노동대회, 조선노동공제회 와 1922년에 결성된 조선노동연맹회 등을 들 수 있다. 점차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 조직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의 결성을 보았다. 이는 급속히 확산된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과 노동운동가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수원의 공업 발전은 저조했고 따라서 공장노동자층의 형성은 매우 미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한 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였다. 수원 지역에서는 인쇄회사 노동자들이 직업별 노동자단체를 먼저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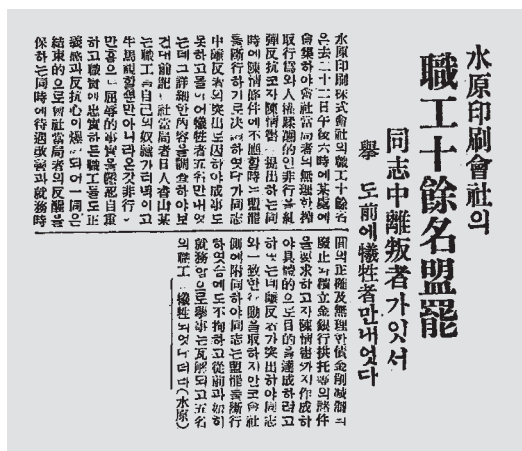
수원 시가지 내의 인쇄노동자들은 수원 지역 노동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노동자 조직의 출발은 친목회 형태였다. 1926년 7월 4일 수원인쇄주식회사를 필두로 중앙인쇄소 와 곤도인쇄소 등 대표적인 3개 인쇄회사 노동자 30여 명이 힘을 모아 수원인쇄직공친목 회(水原印刷職工親睦會)를 결성하였다.¹⁶ 친목회는 “상애상조(相愛相助)하고 환난구제 (患難救濟) 및 상호 동지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다.¹⁷ 이 시기는 1926년 ‘6·10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수원에서는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200여 명이 일제히 동맹휴학을 전개하여 수원 지역에서도 일제의 식민 지배정책에 대한 저항의식이 고조되는 때였다.

인쇄직공친목회가 결성되고 8개월 후 대우 개선과 임금 삭감 반대를 내세우며 조선인쇄주식회사 인쇄직공의 동맹파업이 일어났다.¹⁸ 인쇄직공친목회는 수원 지역사회와 함께 활동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연회(講演會)’를 추진하였다. 강연회는 1928년 4월 30일로 계획되었으며,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수원지국의 후원을 받았다. 연사로서 신간회 수원

16 「부표, 중요한 단체표(수원노동조합)」,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순회탐방(202)-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잠식(7)』,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수원인공친목 사일에 창립』, 『시대일보』, 1926년 7월 6일. 초기 수원인쇄직공친목회는 회장 송원갑(宋元甲) 외 회원이 27명이었다고 한다.

17 친목회의 목적이 “호상친목을 도모하며 직공의 의견을 상합(相合)하여 불만이 없도록 의사의 소통을 도(圖)하여 일치단결로 진취코자 함”에 있다고 하였다(『매일신보』, 1926년 7월 7일).

18 「수원인쇄회사의 직공 10여 명 파파」, 『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수원인쇄회사 직공의 파업(『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지회 조사부 총무간사인 공석정(孔錫政)을 섭외하였다.¹⁹ 그러나 수원경찰당국은 한창 준비 중인 강연회를 금지시켰다. 인쇄직공친목회는 노동단체이며, 강연회 다음날이 5월 1일 ‘메이데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²⁰

1928년에 들어서면서 수원 지역의 사회운동은 급격히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수원청년동맹과 신간회 수원지회의 결성과정에서 보인 각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수원인쇄직공친목회를 비롯

한 수원 지역의 노동자들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단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곧 수원 지역 노동운동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갈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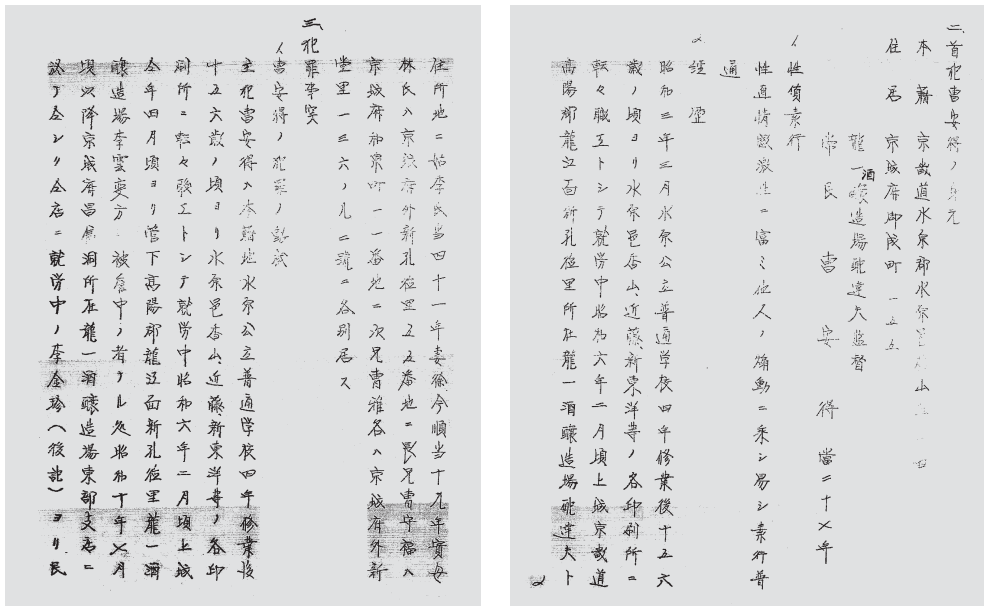
1929년 1월 2일 화성학원에서 수원인쇄직공친목회 제6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대중의 절실한 요구로서 수원의 노동운동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조직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총회에서는 수원인쇄직공친목회의 조직체를 수원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일반 노동자들도 가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별 노조에서 지역별 노조로 개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령과 규약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 노동조합은 수원면 산루리 101번지에 사무소를 두었으며, 조합원이 매월 20전씩 나눠 내는 돈으로 유지하였다.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최수억
- 부위원장 : 이태형
- 집행위원 : 임범진, 권태□, 조천복, 차재성, 박경학, 김영화, 이종화, 유순중²¹

19 「수원인공친목 강연회 개최」, 『조선일보』, 1928년 4월 26일.

20 「수원인공강연 금지로 연기」, 『조선일보』, 1928년 5월 3일.

21 「부표, 중한 단체표(수원노동조합)」,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원인공친목 수원노조로 조직 변경」, 『조선일보』, 1929년 1월 6일. 1929년 1월 2일 개최된 수원인쇄직공친목회 제6회 총회의 임시집행부로 의장 김영화(金永和), 서기 이태형(李台衡), 사찰 최수억(崔水億) 등이 선출되었다.



수원인쇄직공친목회 임원 조천복의 동생 조안득 재판기록(경기도 경찰부장, 京高特秘 제243호, 1936년 2월 6일, 「총독암살계획자검거에 관한 건」)

임원들 가운데 임범진과 이중화, 조천복 등은 인쇄직공이었다. 그들은 특히 1936년 ‘조선총독암살계획사건’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게 되는 조안득(曹安得)과 긴밀한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조안득은 수원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5~16세 때부터 수원 시내의 가야마(香山), 곤도(近藤), 신동양(新東洋) 등의 인쇄소에서 직공으로 근무하면서 임범진 등과 교류하였다. 조안득은 1935년 이후 민족의식이 농후하면서도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1936년 당시 조천복은 편장인쇄직공으로 일했는데 조안득의 친형이다.²²

수원노동조합은 1929년 2월 4일 ‘원산노동자대과업’에 동정하여 원산노동연합회 맹과 단에게 격려문을 발송하고, 조합원 모두가 술과 담배를 절약하여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동정금을 보냈다.²³ 이에 대해 수원경찰서에서는 2월 7일 수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수억과 집행위원 김영화를 소환·취조하고 각각 5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²⁴

22 경기도경찰부장, 京高特秘 제243호, 1936년 2월 6일, 「총독암살계획자검거에 관한 건」, 『경찰정보사(부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안득은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하던 이금진(李金珍)의 영향을 받았다. 이금진은 조선공산청년동맹제건운동 관계자인 김태호(金兌鎬)의 지도하에 있는 사회주의독서회그룹의 구성원으로 조안득과 함께 당시 경성부 창신동 소재 용일주양조장 동무지점에 근무하면서 동맹과업을 이끌었다.

23 「수원노조는 금주로 동정」, 『조선일보』, 1929년 2월 7일.

수원노동조합은 1929년 6월 2일 화성학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변경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다. 중앙집권적 조직 강화와 함께 지도부 내에 수원 지역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노동조합에 대거 참여하였다. 변경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행위원장 : 공석정
- 중앙집행위원 : 박승극, 임범진, 윤수산, 김영화, 김유덕, 김□□, 홍은석, 이원철, 주봉출, 권순중, 차재화, □□□, 김정원, 박태호, 이원학, □□□, 김봉희, 송병일, 이종화
- 중앙검사위원 : 이진상, 김정순, 공석환²⁵

새로운 임원의 면면을 보면, 신간회 수원지회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는 공석정·박승극·김봉희·이진상, 수원청년동맹의 주요 임원으로 활동하는 권순중·홍은석·임범진 등이 확인된다. 중앙집행위원장 공석정과 중앙집행위원 박승극은 수원청년동맹과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의 주요 지도자로 수원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었다. 주봉출과 차재화는 당시 우성규·최신복 등과 함께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소년운동 지도자였으며, 그들과 함께 조선소년총동맹과 그 산하 경기연맹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홍은석과 공석환(오산분국 사진기자)은 동아일보사 수원지국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1929년에 들어오면서 수원 지역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수원노동조합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수원노동조합은 조선노동총동맹의 가맹단체로 가입한 이후 지역별로 지부를 결성하고 직업별로 반조직을 구성하였다. 조합 구제알선부에서는 화남이발관(華南理髮館)을 조합원 지정 이발관으로 정하고, 시내 남창리에 있는 수원의원(水原醫院)을 조합 지정의원으로 정하였다. 특히 지정의원의 경우 근육노동자들과 일반 조합원들이 불시에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²⁶

수원노동조합은 1929년 8월 20일 수원공회당에서 공석정의 사회로 임시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임시집행부를 구성하고 회록 낭독, 각부 보고, 축문 낭독, 규칙 수정, 임원 개선, 각 지부 조직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신임 집행위원회를 열고

24 「연초 절약한 돈 동정금 송치를 과료(料料), 도리어 생색내어서 답변 가혹한 수원서(水原署) 태도」, 『조선일보』, 1929년 2월 9일. 가혹한 수원경찰서의 태도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사 기자가 질문하자 고등계주임 아키하라(秋原)는, 격려문이 불온해서도 아니고 동정금도 합법적으로 보내진 것은 인정하나 “원산에서 맹파의 소동이 일어나자 이곳에서 격려하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대답하였다.

25 「수원노조 임종」, 『조선일보』, 1929년 6월 7일.

26 「수원노동조합 지정의원 설치」, 『조선일보』, 1929년 6월 24일.

지부별 위원을 선임하였다. 임원과 지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

- 위 원 장 : 공석정
- 집행위원 : 홍경표(洪景杓), 김유덕(金裕德), 김학봉(金學鵬), 차재화(車在化), 안병일(安炳一), 김영화(金永和), 김창순(金昌順), 황응선, 이원학(李元學), 김칠봉(金七奉), □태혁(□泰赫), 홍중근(洪鍾根), 임범진(林凡辰), 김정원(金正元), 이종화(李鍾和), 김학선(金學善), 이준상(李俊祥), 최명중(崔明鍾), 윤태현(尹台鉉)
- 감사위원 : 김경순(金景淳), 정돈(鄭沌), 윤수산(尹壽山)

지부

- 성동지부 : 위원장 김학선, 위원 김칠봉, 이성인(李聖仁)
- 성서지부 : 위원장 한석명(韓奭命), 위원 박태호(朴泰浩), 한성용(韓聖龍), 심철구(沈喆求)
- 성내지부 : 위원장 김유덕, 위원 주봉출(朱奉出), 송원철(宋元喆), 박수산(朴壽山)
- 성북지부 : 위원장 이원행(李元行), 위원 김경순, 김희영(金義榮)
- 성남지부 : 위원장 이병익(李炳翊), 위원 김정원, 이경서(李景西), 신동섭(申同攝)²⁷

1929년 8월 집행위원회 결과 새로이 선임된 간부들 가운데 홍경표는 1929년 11월 수원 청년동맹 소년부장, 임범진은 수원청년동맹 재무부 위원, 김학봉은 신간회 수원지회 회원(용인군 기흥면), 차재화는 1930년 3월 수원소년동맹 집행위원(성북지부 책임자), 박수산은 1930년 수원소년동맹 집행위원(성남지부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수원노동조합에 수원군의 사회운동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연대 활동 또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본 경찰의 탄압이 강화되었다. 1929년 9월 21일 제4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수원경찰서에서 조선박람회를 이유로 금지하였다. 같은 해 10월 수원노동조합은 동지단체인 수원청년동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함께 남수리로 회관을 이전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수원노동조합 본부 위원과 지부 일반위원을 망라한 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무리한 금지로 중지되었고, 1930년에 들어와서도 계속된 수원경찰의 집행위원회 금지로 말미암아 조직활동은 쉽지 않았다. 실제 1929년 11월 이후 수원 지역의 사회단체들, 즉 신간회 수원지회 대회 및 지회 각 반 총회, 수원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확대위원회, 수원청년동맹 집행위원회와 각 지부 위원회, 수

27 「수원노동조합 임시대회」, 『조선일보』, 1929년 8월 24일.

名 稱	團體	水原芳勝組合
趣旨	一、本會は相慶相助に慈善救及相互同志同親睦ヲ圖ルヲ以テ目的トス	
役員	正会長 元米水京邸 印刷職工親睦会ト称シ専ラ印刷職工ヲ糾合組織シ其後昭和四年一月定款大會於テ本會組織ヲ推テ一般芳勝有志ヲ加盟セリントレ共ニ宗旨ニ水原芳勝組合皮祿再興淺澤ナル活動ヲ續クマツリテ昭和六年秋至今解散決議。契機トセラズ故に取降メテ今行動ニ覺悟ヲたス結果最近見エ之ヲ活動ナレ	
設立	會員 四九五名	
代表	維持方法 元金庫長とシテ維持ス	
住所	入会者皆ハ全奎及倉員ヨリ毎月千大正十五年七月四日	
事業	ナレ	
役員	李朴英 李朴ヲル 健凡 嚴元勝 韋錫 相辰 錫華 杜山 政	
事務所	水原郡水原面山樺里一〇一	

원청년동맹 양감지부 설치대회, 수원소년동맹 집행위원회 및 동화대회 등 일체의 집회들이 수원경찰서의 고압적인 '무조건 집회금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수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고 탄압이 심화되는 가운데, 조선노동총동맹 산하 수원노동조합은 산업별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출판과 인쇄 분야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수원노동조합 내 인쇄직공반은 1930년 5월 27일 집합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 수원출판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 이어 6월 17일 제1회 임시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의 각 부서와 임원을 구성하였다.

집행위원장: 김경순
서무부장: 차재화, 부원 이태형
재정부장: 차재성, 부원 황석근
교양부장: 이종화, 부원 유순종
조사쟁의부장: 임범진, 부원 조천복
검사위원: 김영하, 최수익²⁸

그러나 1930년 이후 수원 지역 노동단체의 활동은 약화되었다. 1930년 3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주최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사건, 10월에 발생한 ‘격문사건’ 이후 수원경찰서의 수원 지역 사회단체에 대한 감시와 집회금지 상황은 더 심

28 「수원출판노조 창립대회」, 『조선일보』, 1930년 6월 5일; 「수원출판노조 임시대회 개최」, 『조선일보』, 1930년 6월 23일. 6월 17일 임시대회에서는 자체교양의 건, 회관문제에 관한 건, 미가입 인공(印工)에 관한 건, 조합비 정수에 관한 건 등을 결의하였다. 대회진행 중 입석경관은 수원 각 우의단체의 출사를 금지하고, 폐회 이후 간담회도 집회로 규정하여 금지시켰다.

화되었다. 1931년 신간회 해소결의를 계기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수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특별한 활동이 없이 유명무실화되어 갔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4년 3월까지의 치안정황에서 수원노동조합의 정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34년 3월 현재 이렇다 할 활동이 보이지 않으며 회원 495명, 간부는 공석정·윤수산·박승극·이원학·황은석·임범진·이건상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3. 노동쟁의의 전개 양상

수원 지역에서 노동쟁의는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산업 발전이 미진한 상황에서 토목건설노동자와 도축노동자의 파업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수원 지역의 노동쟁의는 인쇄노동자와 자동차운전수의 동맹파업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수원에 조면공장의 증가와 함께 노동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직물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개입 양상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인쇄노동자들의 경우 수원 지역에서는 일찍 친목회 형태의 노동자단체를 구성하였고, 지역별 노조로써 수원노동조합 안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산업별 노조로 출판노동조합 결성으로 나아갔지만 파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파업의 주요 내용은 대체로 임금문제와 대우 개선에 있었다. 파업은 대부분 단기간에 끝났지만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거듭 반복되는 상황을 보였다. 오산 지역 토목건설노동자 파업 때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경우도 있었다. 도축노동자의 경우 조선형평사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파업은 수원경찰서의 조정과 개입으로 중단되었으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업주에게 묵살되기 일쑤였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다음과 같다.

29 「부표, 중요한 단체표(수원노동조합)」,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 토목건설노동자 파업

수원 지역에서는 도로나 수리공사 등 토목공사에 종사하는 자유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 많았다. 1929년 4월 18일 오산천 개수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노동자 300여 명이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개수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경기도에서 빈민구제 일환으로 고용한 동탄면과 성호면 지역의 빈민들이었다. 그들은 3월 26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청부업자 측에서 1평방(체)에 노임을 70전으로 계약하고도 “무식한 농촌노동자”라고 면적을 속이고, 노임도 하루에 30전밖에 지불하지 않으므로 파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파업은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에서 적극 조정에 나섰고 노임은 평당 1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양측이 서로 정한 규범을 잘 이행하도록 오산반 간사들이 매일 공사장에서 일체를 감시함으로써 공사는 다시 진행되었다.³⁰

2) 인쇄직공 파업

1927년 3월 22일 수원인쇄직공주식회사 직공 10여 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려 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인쇄직공들은 회사 간부의 무리한 착취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사 간부 가야마(香山)는 직공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여기고 ‘우마시(牛馬視)’ 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행이 많았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그의 이러한 행위에 굴욕감을 느꼈고, 성실하게 일하던 직공들조차 “정의감과 반항심이 폭발”하였다. 그들은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가야마의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우 개선, 근무시간 엄수, 무리한 임금삭감제 폐지, 적립금 은행공탁 등이었다. 직공들은 계획대로 파업을 단행하였는데, 일부 직공이 파업 결의를 배반하고 회사 측에 부하뇌동함으로써 오히려 5명의 직공이 희생당하고 말았다.³¹ 1936년 1월에는 문화당인쇄소 직공 10명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대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 가불을 요구했는데, 이에 업주 측이 응하지 않자 직공들이 결속하여 파업을 전개하였다.³² 이때 조선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는데, 이에 대하여 수원경찰서에서는 조직적으로 연계된 동맹파업

30 「맹과 수(濛)해결, 오산천공사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 조정으로」, 『조선일보』, 1929년 4월 25일.

31 「수원인쇄회사의 직공 10여 명 맹파, 동지 중 이반자가 있어 거사도 전에 희생자만 내었다」, 『조선일보』, 1927년 3월 30일.

32 「구정, 수원에서 양처(兩處) 파업 돌발, 자동차회사와 인쇄공」, 『동아일보』, 1936년 1월 26일.

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엄밀히 조사하는 한편 다른 회사에 파급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³³

1937년 7월 수원 중앙인쇄소에서는 인쇄직공 7명에게 정업(停業)을 선언하였다. 이에 직공들은 자신들이 취직하는 동안 임시생활비를 보조해 주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곳으로 갈 만한 여비라도 보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인쇄직공 7명은 급작스런 정업 선언으로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우리들

은 어찌하란 말인가.” “임시생활비도 줄 수 없고 타처로 갈 여비도 줄 수 없다 하니 우리들 보고는 죽어 버리란 말이 아납니까.” 하며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³⁴ 그러나 업주 측에서는 인쇄재료의 폭등과 불경기로 공장 일부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정업을 선언한 것이며, 회사의 다른 계획이 실현되면 다시 취업시킬 예정임을 밝히며, 직공들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업의 대책으로 인쇄소의 문방구에 있는 물품들을 판매하여 구급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나 직공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자동차운전수 파업

1931년 1월 수원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 8명이 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하였다. 당시 운전수의 일급이 90전이었는데, 1930년 여름부터 1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업주 측에서는 그해 말까지 기다리라고 하고는 이듬해까지 아무런 성의 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분개한 운전수들은 결속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파업이 진



중앙인쇄소의 정업(『동아일보』, 1937년 7월 18일)

33 「수원읍내에 양 파업 사건」, 『조선중앙일보』, 1936년 1월 26일.

34 「인쇄소직공의 정업소동」, 『동아일보』, 1937년 7월 18일.

행되자 업주 측은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새로 운전수 1명을 고용하는 등 운전수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였다.³⁵ 이 파업은 수원경찰서에서 파업에 참여한 운전수들을 방문하여 “요구조건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자 운전수 8명 모두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³⁶

1935년 9월 수원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여전히 운전수들의 임금은 70~80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수가 변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운전수들은 9월 20일 임금을 인상시켜 줄 것과 사고 발생 시 회사 측이 변상을 부담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연서하여 회사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 측은 10월 5일 「진정서」 끝에다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운전수 과실로 일으키는 것이니 운전수 등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문구를 써 넣고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였다. 운전수들은 회사 측이 “어린이 취급하듯 함에 분개하여” 응하지 않았다.³⁷ 특히 임금 인상 문제는 연말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이듬해에 들어서서도 회사 측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1936년 1월 설날 직전에 또다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8명의 운전수들이 동맹파업을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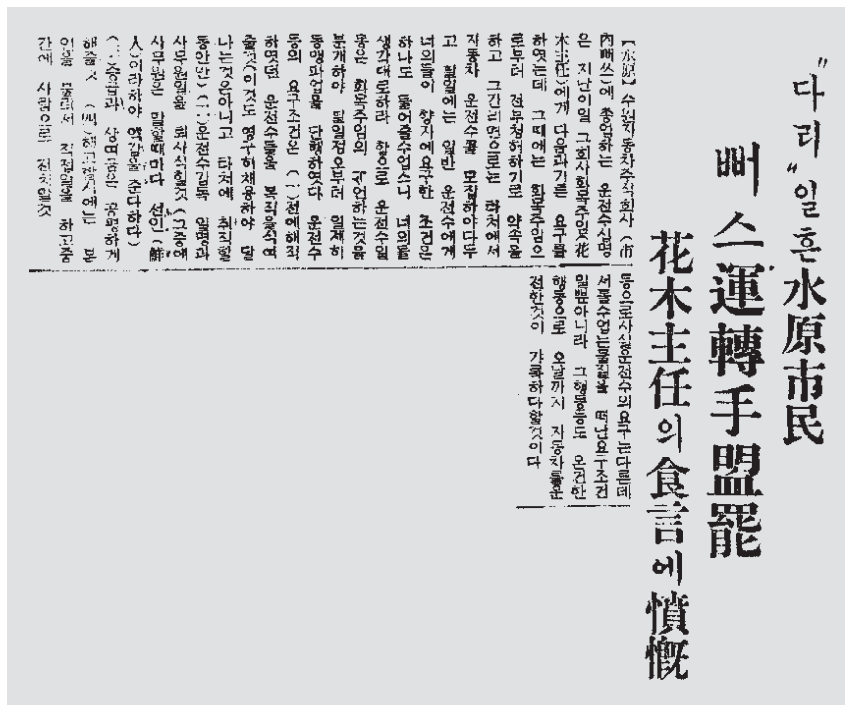
1937년 7월에도 수원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 수십 명이 동맹파업을 전개하였다. 수원자동차주식회사에서는 조회시간에 갑자기 운전수 2명과 차장 1명을 해고시켰다. 이에 운전수들은 일본인 하나키(花木) 주임에게 4가지 내용을 요구하며 태업에 들어갔다. 요구사항은 ① 해직 운전수와 차장을 복직시킬 것, ② 운전수 감독 1명과 사무원 1명을 퇴사시킬 것, ③ 승급과 상여금을 공평하게 할 것, ④ 해고할 때는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말고 본인을 불러서 직접 말할 것 등이다. 특히 이상의 요구에서도 해고자 복직의 경우 영구 채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직할 때까지라도 복직시켜 줄 것을 원하였다.

이에 대해 처음에 주임은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운전수 감독과 차장 감독이 해고됨으로써 3시간 만에 동정태업은 끝이 났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운전수 감독과 차장 감독을 복직시키고 기존 운전수와 차장을 그대로 해고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심지어 이면으로는 자동차 운전수를 모집하였고, 운전수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며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분개한 운전수들은 곧바로 해고된 운전수와 차장의 복직과 운전수 감독과 차장 감독의 해고 없이

35 「구정, 수원에서 양처(兩處) 파업 돌발, 자동차회사와 인쇄공」, 『동아일보』, 1936년 1월 26일.

36 「맹파 원만해결, 경찰 앞선으로」, 『동아일보』, 1936년 1월 28일.

37 「자동차운전수 회사측과 대립, 임금인상 문제」,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16일.



수원자동차주식회사 파업(『조선일보』, 1937년 7월 11일)

는 절대로 종업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당일 수원경찰서 고등계에서 현장에 급하게 출동하였으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³⁸ 당시 『동아일보』 1937년 7월 9일자에 보도된 회사 측과 운전수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키(花木) 주임 : 어찌되었거나 회사에서 일단 해고시킨 사람을 운전수들의 강요에 의하여 다시 복직시킨다는 것은 회사 위신상 큰 문제이므로 어디까지든지 회사방침대로 진행할 방침이올시다. 두 감독을 절대로 보호하는 것도 아니요, 두 운전수와 차장을 절대로 미워하는 것도 아니니 위신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동요로 일반에게까지 교통상 불편을 느끼게 한 것은 심히 미안합니다.

모 운전수 : 우리들은 결코 회사를 손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회사에서 일단 원만히 해

38 「수원자동차의 종업원 동요」, 『동아일보』, 1937년 7월 9일; 「자동차 태업 확대, 쌍방 태도가 악화, 쌍방간의 주장합이 서로 달라, 수원서 사태를 주시」, 『동아일보』, 1937년 7월 9일; 「다리 잃은 수원 시민, 버스 운전수 맹파, 화목주임의 식인에 분개」, 『조선일보』, 1937년 7월 11일.

결시킨 것을 다시 번복시키려고 하니 무리하게 해고를 당한 동무를 위하여 또는 (전망)이 없는 운전수 감독과 차장감독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일 할 수가 없어 이리 하는 것이올시다. 해결된 사건을 다시 번복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 조선자동차주식회사 운전수들의 파업에 대해 수원의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민 모씨: 그 회사는 우리 시민들의 유일한 교통기관으로서 누구의 잘잘못을 불문하고 일체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 그러한 자동차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택시는 이용하지 아니할 예정이올시다.

수원경찰서 고등계에서는 수원자동차주식회사의 하나키 주임과 운전수를 소환하여 협의에 들어갔고, 결국 7월 9일 양측의 타결을 보았다. 하지만 매우 불완전한 형태로 결론이 났다. 즉 해고된 운전수와 차장의 복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명의 감독은 1주일 내 외에 해고시키는 조건으로 파업에 참가한 운전수들은 모두 복직시키고 임시 운전수는 해고되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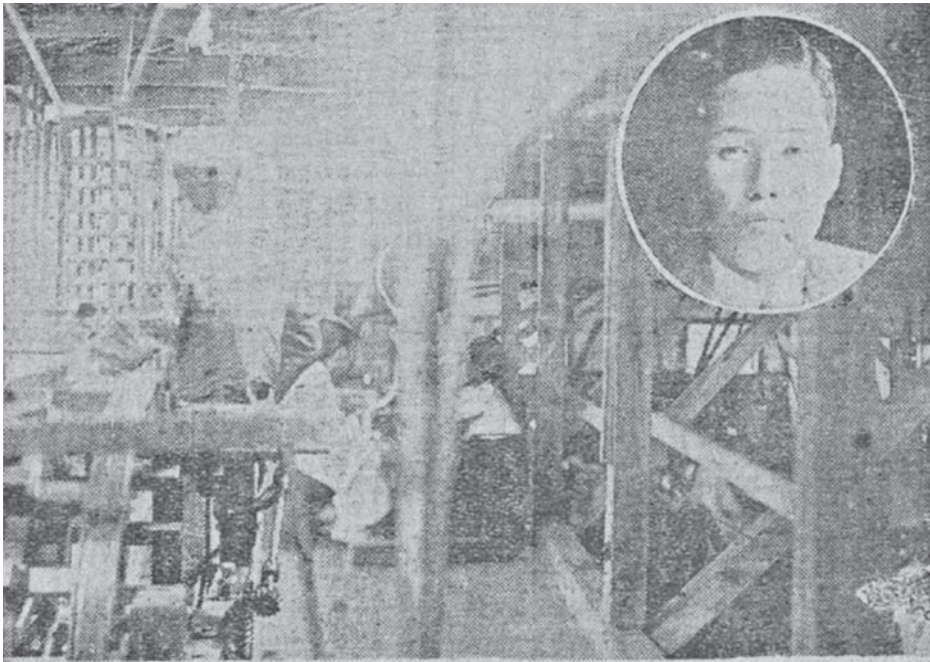
4) 직물 여자직공 파업

1930년대부터 수원 지역에 직물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여성 공장노동자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8월 김학배는 수원에 직물공장을 설치하여 30여 명의 부녀자들을 직공으로 하여 매일 50전 이상의 임금을 주어 실업구제는 물론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⁴⁰ 1935년에는 남북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이 설립되었고, 이어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잠사부 부속의 제사공장이 들어섰다. 그 후 수원 지역의 직물공장은 급격히 증가하여 1940년대에는 동아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소화직물공장,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등이 활발하게 경영되고 있었다. 특히 100대 전후의 직기를 소유한 신경직물, 선일직물공장, 수원직물공장, 동흥직물공장이 운영되는 등 직물업이 발전하였다.⁴¹

39 「수원자동차 태업 경찰 알선으로 해결」, 『동아일보』, 1937년 7월 11일.

40 「수원에 직물공장, 국민부녀 구제, 김학배씨 사업」, 『매일신보』, 1932년 8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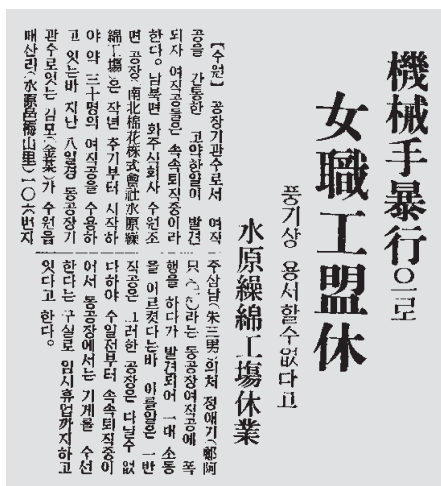
41 김인호, 「근대도시 수원의 산업적 변화와 특징」,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통권 1호), 수원박물관, 2011, 143~153쪽 참조.



김학배가 운영하던 직물공장(『매일신보』, 1934년 6월 6일)



1940년대 선경직물 직원(김채현 외, 『선경: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기계수의 폭행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수원조면공장 맹휴(『동아일보』, 1936년 2월 18일)

이러한 가운데 1936년 2월 남북면화주식회사 수원조면공장의 여직공들이 파업을 벌였다. 수원공장에는 약 30명의 여직공들이 일하고 있었다. 2월 8일 수원공장 기관수로 있는 한국인 김모 씨가 수원읍 매산리에 사는 주부 여직공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직공들은 회사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을 단행하였다. 결국 수원조면공장은 기계를 수선한다는 구실로 임시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⁴²

5) 도축(屠夫)노동자 파업

일제강점기 도축노동자들은 여전히 ‘백정’이라 하여 보통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를 조직하고 지방마다 분사(分社)를 두었다. 수원에는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었고, 따라서 도축노동자(屠夫)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1923년 겨울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신분해방’을 부르짖으며 조선형평사 수원지사가 설립되었다.

1924년 4월 조선형평사 수원지사의 사원 20여 명은 도축노동자들의 급료 인상을 주장하며 동맹파업을 벌였다. 종래 급료가 1개월에 30원이었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20원도 채 되지 않아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대안으로 소 한 마리에 대한 수수료를 2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⁴³

1924년 5월 수원 장날 한 도박상습자가 용인군 기흥면 신갈리에서 장사하기 위해 수원에 온 형평사원 박순근(朴順根: 26)을 ‘백정놈’이라 하며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른 형평사원이 수원경찰서에 알렸으나 오히려 경찰관에게 힐책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곧 서울의 조선형평사에 전달되었다. 조선형평운동의 지도자 장지필(張志弼: 조선형평사 위원장)은 그 이튿날 수원경찰서장인 하라(原八郎)를 방문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선후책을 협의하고 당국의 충분한 보호를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수원에서는 도부 종사자들에 대한 ‘난폭한 행동’이 계속 이어졌다. 이에 조선형평사 수원지부의 형평

42 「기계수 폭행으로 여직공 맹휴」, 『동아일보』, 1936년 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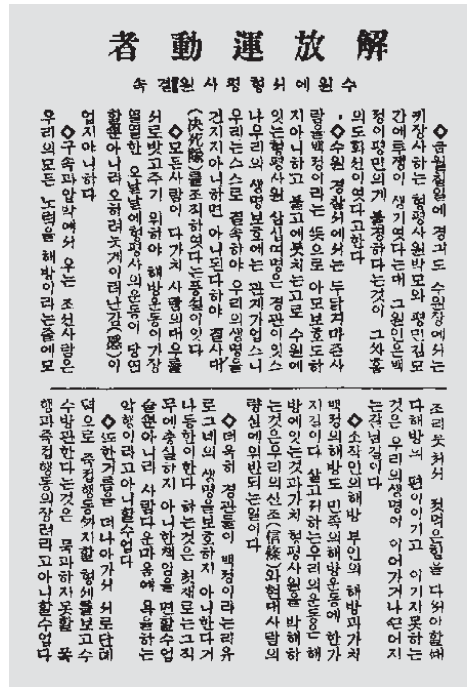
43 「형평사원 맹파, 수원지사에서」, 『조선일보』, 1924년 4월 14일.

사원 70여 명은 정당한 자위책으로 “최후적 투를 하려는 내부결사”까지 조직하였다고 한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장지필은 경기도 경찰부장을 찾아가 수원경찰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시 수원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원 지역 형평사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였다.⁴⁴

1926년 가을 조선형평사 수원지사는 중앙과 독립하고 명칭도 수원형평사로 개칭하였다. 1926년 말 현재 회원은 30여 명이며, 수원형평사장은 김정봉(金正奉)이다.⁴⁵ 1927년 다시 수원형평사는 조선형평사총연맹이 조직체를 조선형평사총본부로 변경하면서 조선형평사 수원지사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28년 4월 서울의 경운동 천도교당 내에서 ‘조선형평사 제6회 전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형평사원에 대한 차별 및 희생자 가족 후원문제와 함께 일반 사회문제로 전 민족적 단일협동전선당 적극 지지, 노동농민운동과 유기적 연락, 봉건적 사상을 지지하는 기관 적극적 반대 등이 논의되었다. 이 대회에 수원 지역에서는 이평준(李平俊)과 이순영(李順英)이 참석하였다.⁴⁶

1930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수원면 도수장(屠獸場)의 도축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다. 당시 수원면 도수장에는 지정도부(指定屠夫)와 일반도부를 합하여 10명이 공동노동을 해 왔다. 그런데 수원면에서 지정도부에게는 수당으로 매달 45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없이 도수장에서 도살되는 소 한 마리당 도살료 5원 가운데 4원은 면 수입으로 가져가고 남은 1원을 가지고 8명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에 일반도부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지정도부 한 사람이 사망하자 일반도부 8명은 지



수원형평사원 구타사건(『동아일보』, 1924년 5월 26일)

44 「형평사원의 분기, 수원에서 생긴 형평사원과의 싸움」, 『동아일보』, 1924년 5월 26일.

45 「순회탐방(202)-정거장 근처부터 일인이 잡식(7)」, 『동아일보』, 1927년 1월 20일.

46 종로경찰서장, 京鍾警高秘 제4697-6호, 「조선형평사 제6회 전선대회 상황보고」, 1928년 4월 30일,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水原屠殺夫들의

盟罷解決杏然

책이온당국의 무반성으로

【一般은當局考慮企待】

【水原】수원도수장의부속도부류평은 재작년 이래 수차의 명파로써 읍장국자와 지정도부 두사람의반성을요구하였으나 오글것하등의반정하는 태도가업시오하여 지정도부의인관한행동은 날로더하여감으로 부속도부류평은그모히 사활신용압해두고읍장국과 지정도부를상대로지나온관착된 첫날이심사할부관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는바그를노조구조건이며첫사람의생활조건을 무시하고 오죽두사람만의 특수의권을주는 지정도부제를 철폐하거나 그러치안하면도부조약을 실행할라이나 지정도부를 조약으로 지정하여달라는것이바【당국에서는】의하여 지정도부두사람만을 옹호하누래도안기필요임으로사건해결의전도가 아득도 보일한다

수원 도부들의 파업(『조선일보』, 1932년 3월 15일)

지정도부의 충원을 잠시 보류하고, 당시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생활이 매우 곤궁하므로 지정도부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자신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수원면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지정도부를 채용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지정도부는 상당한 음식점 영업자로 생활이 풍부한 자였다. 이에 일반도부들은 “생활이 곤란하여 그날그날 지내는 자기들에게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 하여 동맹파업을 전개했던 것이다.⁴⁷

그런데 도수장의 지정도부 문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1930년 이래 일반도부들은 수원읍 당국자와 지정도부에게 반성을 촉구해 왔으나 불공평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마침내 1932년 초 동맹파업을 벌였다. 이는 당시 지정도부 2명의 경우,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수육관매업을 하면서 동시에 지정도부 수입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지만, 일반 도부 6명은 오직 도수장에서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일반 도축노동자들은 6

47 「屠夫의同盟罷業」, 『경성일보』, 1930년 12월 16일; 「수원면 도수장 屠夫들 맹파」, 『매일신보』, 1930년 12월 16일.

명의 생활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2명의 지정도부에게만 특수 이권을 주는 지정도부제를 철폐할 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부조합’을 설립할 것이며 이때 지정도부를 조합으로 지정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단행했던 것이다.⁴⁸

48 「수원 도살부들의 맹파 해결 묘언」, 『조선일보』, 1932년 3월 15일.



박철하 의왕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 '반일낙서(反日落書)' 활동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제9장

수원의 반일낙서사건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 활동

1937년 일제의 중국침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면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 일본의 군국주의와 천황제 파시즘을 기반으로 한 ‘황국신민화’ 정책과 물적·인적 총동원 정책을 추진, 강화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서울을 비롯해 도시를 중심으로 낙서를 통한 조선 민중의 반일의식과 독립 의지의 표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의 청년들이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며 활동하였다. 이러한 양상들은 수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반일독립을 추구하며 자신의 열망을 뽐낸 수원 주민들의 ‘반일낙서’ 활동과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반일낙서(反日落書)’ 활동

일제 측의 기록에 따르면,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에서 발행한 『사상회보』 제15호(1938년 7월)와 제24호(1940년 9월)에 각각 ‘불온낙서’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1941

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239건의 ‘불온낙서’가 적발되었다.¹ 1941년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인에 대한 강제 동원과 억압이 보다 심화된 상황에서 일제를 비판하는 낙서는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다.

낙서를 하는 장소는 대부분이 변소였다. 이 외에도 열차에도 있었고, 노동자의 경우 공장 건물 벽에, 농촌에서는 등산로 등의 바위에 쓰거나 새겼다. 공원이나 길가, 지폐에도 낙서를 하였다. 낙서는 일반적으로 연필로 하는 것이 많았고, 백묵을 사용하는가 하면, 펜이나 크레용, 못 등은 물론 혈서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온낙서’ 들은 대부분 작성 시기나 작성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일제 당국에 발각된 보고를 통해 대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으며, 발견되면 실제로 ‘불온낙서사건’으로 검거되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낙서의 성격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적인 것은 물론 공산주의적인 것도 많았으며, 반전적(反戰的)인 것, 불경(不敬)한 것도 있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불온낙서’를 통한 반일의식의 표출이 있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화장실 벽을 이용하여 수원의 민중들에게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조선을 독립시키자’는 열망을 표현하였다. 중일전쟁 직후 수원 지역에서 발견된 ‘불온낙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수원읍 수원극장 변소³

보라.

보라, 조선독립 만세, 조선을 독립, 조선을 일으켜 세우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먹고사는 것만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 조선을 독립시키자.

수원군 성호면 오산시장 공동변소⁴

보라 5천만 동포여, 우리는 언제 독립할까.

이 글을 보고 창을 바로 하자, 이 글은 조선왕 폐하가 쓴 글이다.

1 조선총독부 경무국,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1941.12)』. 이 자료는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大野綠一郎 관계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체제기 조선 민중들의 ‘불온낙서’에 대해서는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불온낙서 연구』(『한국문화』 55, 2011, 309~344쪽)를 참조하였다.

2 수원 지역 ‘불온낙서’ 현황은 앞의 변은진의 연구 결과에서 인용하였다.

3 경기도경찰부, 『유언비어, 조언비어, 기타 불온언동자취체상황』, 『치안정황』, 1938년 9월.

4 경기도경찰부, 『유언비어, 조언비어, 기타 불온언동자취체상황』, 『치안정황』, 1938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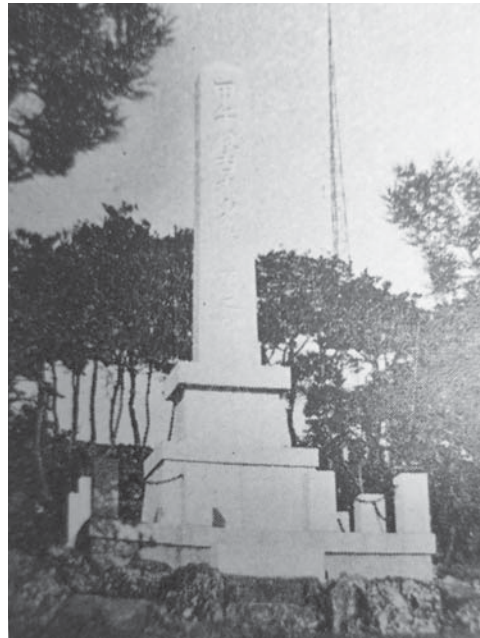
수원을 복수정 공동변소⁵

민중들아, 듣고 보라, 세계는 비관하니 어찌서인가, 조선민중아, 협력일치 회복에 노력하자, 우리 조선민중은 누구나 이때를 잘 자각해 보라, 우리 조선을 이제 한 번 회복해 보지 않겠는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 한국독립만세.

특히 1941년 봄 수원 읍내는 ‘불온낙서’ 사건으로 발각 뒤집혔다. 같은 해 4월 29일 팔달산 중턱에 건립된 「고시소좌의사지비(古志少佐義死之碑)」, 4월 30일 장안정 소재 장안문 누상, 5월 1일 다시 고시소좌비에서 연속하여 ‘불온낙서’가 발견되었다. 수원경찰서에서는 그 작성자를 찾아내고자 예의 주시하던 중 그해 8월 15일 오전 팔달산 등산로에서 그림도구를 휴대하고 하산하는 ‘거동불온자’를 수원경찰서 사찰원이 임의동행하여 취조하고, 가택을 수색하여 다수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하였다.⁶ ‘거동불온자’는 바로 당시 수원읍 본정 2정목 102번지에 사는 21세의 나석균(羅奭均)이었다.

나석균은 1921년 9월 12일 나홍석(羅弘錫)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홍석은 나기정의 아들로 나혜석의 큰오빠이기도 하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강제 합병 이후 조선총독부 관리를 지냈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 이후 독립운동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사직하였으나 1924년 3월 25일에 결성된 친일단체 각파유지연맹(各派有志聯盟)에 조선소작인상조회 소속으로 참여하여 연맹의 간사로 선임되기도 했다.⁷

나석균은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당시 만주국 봉황성(鳳凰城)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계관산(鷄冠山)소학교 봉황성분교장에서 4년을 마치고 계관산소학교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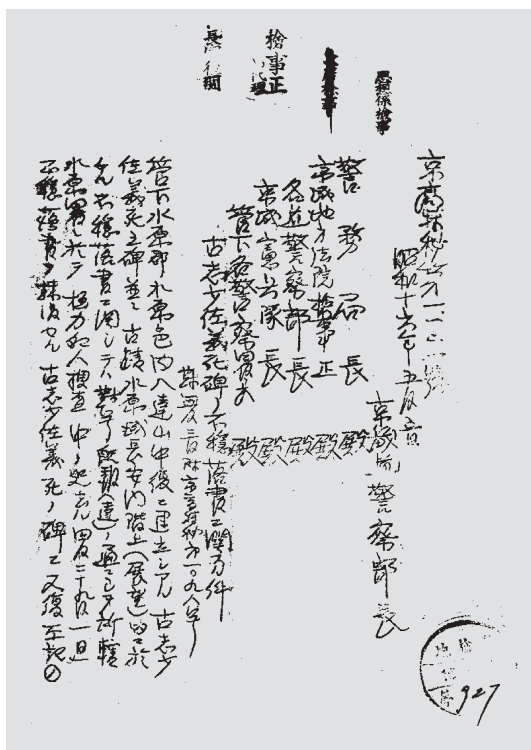


「고시소좌의사지비」(경기도, 『경기지방의 명승사적』, 1937)

5 경기도경찰부, 「유언비어, 조언비어, 기타 불온언동자취체상황」, 『치안정황』, 1938년 9월.

6 경고특비 제1098호, 「고적 장안문 내 및 석비의 불온낙서 발견에 관한 건(1942.2.3)」, 『사상에 관한 정보(14)』. 이하 나석균의 이력과 불온낙서에 대한 내용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7 경본고비 제2048호, 「대동연맹회 발회식에 관한 건(1924. 3. 26)」,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각파유지연맹은 내선융화(內鮮融和)를 표방한 친일단체의 연합체이다.



나석균의 고시소좌비낙서 사건(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학하였는데, 6학년에서 다니다가 다시 작은아버지 나경석(羅景錫)이 있는 봉천(奉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34년 3월 봉천 부도(敷島)소학교를 졸업한 뒤 봉천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아버지가 길림으로 이주하자 아버지의 사숙(私塾)에서 일본어를 배우다가 다시 1935년 9월 귀국하여 서울에서 점원으로 일하였다. 1936년 3월 21일 아버지 나홍석이 사망하고, 1938년 병이 생기자 수원으로 내려왔다. 1939년 2월부터는 숙부 나경석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나석균은 한일합병의 원인에 대해 대한제국기 고위고관들이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고자 민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병합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일본인 학교

에서 역사를 배운 아버지는 한일합병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수원의 가족들은 '다다나(多多羅)'로 창씨를 하였으나 이는 강요된 것으로 총독정치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작 그 자신은 창씨의 의사가 없었다.

나석균은 1941년 4월부터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수원읍사(水原邑史)』를 편하고자 조선의 역사 연구에 몰두하였다. 수원성의 유적지를 답사하며 점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당시 조선총독의 시정방침인 “국체명칭, 내선일체, 창씨제도” 등을 조선총독의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진 나석균은 자신의 생각을 ‘낙서’의 형식을 빌려 표명하기로 결의하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 동안 팔달산 「고시소좌 의사자비」와 장안문 계단에 흑색 크레용을 사용하여 반일낙서를 실행에 옮겼다. 낙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8 조선총독부 경무국, 「제79회 제국의회 설명자료(1941. 12)」, (변은진, 「일제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민중의 불온낙서 연구」, 『한국문화』 55, 2011, 309~344쪽 재인용).

팔달산 고시소좌의사자비

타도 왜놈의 비(碑)

남차랑(南次郎)아, 우리 지사(志士)를 잊지 마라, 한 독립지사

모한지비(侮韓之碑)

타도 일본, 타도 왜놈

대한제국만세지비

수원 화성 장안문 계단

떨쳐 일어나 한국청년아

저주하자 남차랑을, 성씨를 바꾸게 한 놈을 때려죽이자

성을 바꾼 놈은 짐승이다

대한독립의 비(碑)

황국신민서사를 부르짖는 ○○○○ ○○○○ 청년단

타도 일본

주살(呪殺) 남차랑

대한 만세

타도 일본, 일어나 한국 청년아

황국신민이란 무엇이나?

우리는 대한국민이다, 일사(一死)로 일본을 타도하자

우리는 대한국민이다, 일치단결하여 남차랑을 때려죽이자

죽이자, 남차랑놈을

대한독립만세, 타도 구적(仇敵) 일본

이와 같이 ‘불온낙서’들은 일반 민중들이 민족적 반감이나 저항의식을 넘어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을 비판하고, 나아가 ‘대한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으로 나아가자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결성⁹

1939년 예술에 관심이 많은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모였다. 최용범(崔龍範), 차준석(車濬

⁹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박철하, 「일제하 전시체제기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과 역사적 성격」(『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2011, 303~329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哲), 김길준(金吉俊), 최태종(崔泰鍾), 홍종철(洪鍾哲), 맹승재(孟升在), 강성문(姜聖文) 등 7명이 그들이다. 그들은 영화나 연극, 음악을 좋아했으며, 음악 중에서도 성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해 여름부터 수원극장 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내 운동장에 모여 일제의 민족차별을 비판하고 조선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최용범은 수원극장에 근무하던 홍종철과 여러 가지 예술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사상가, 공산주의자, 조선독립운동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에게 ‘사상가’란 공산주의자나 조선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공산주의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사회제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조선독립운동’은 일본의 속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최용범은 홍종철과 교류하면서 반일 독립의식과 공산주의 사회제도 실현의 의지를 점차 강화시켜 나갔다.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축구를 매우 좋아하였다. 그들은 경성전기 수원지점 안에 있는 넓은 광장에서 자주 축구 연습을 했다. 최용범과 차준석은 축구를 함께 하고, 수원극장으로 영화나 연극을 보러 다니면서 더욱 친해졌다.

차준석은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 성씨 가운데 하나인 연안 차씨의 후손이었다. 차준석은 김길준, 강성문과 함께 1937년 3월 신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소꿉친구였다. 그들은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차준석을 통해 최용범을 소개받았다. 축구를 하다가 쉬는 중에 최용범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후 의견을 같이하며 자주 만나면서 독립의식이 깊어 갔다.

또한 차준석은 1939년 6월경 수원읍 궁정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국원(富國園)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맹승재도 함께 일하게 되면서 친해졌다. 일본인의 차별대우로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맹승재는 차준석의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에 찬성하였다. 그해 8월경 맹승재는 차준석을 통해 최용범, 김길준과도 알게 되었고, 결국 동지가 되었다.

최태종은 최용범이 한때 수원을 남부정에 살 때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수원극장에 자주 가면서 친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최태종은 차준석과도 친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친했기 때문에 1938년경부터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1939년 7월경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강성문은 친구들과 함께 경성전기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했다. 휴식시간 중에 최용범과 김길준은 친구들에게 조선독립에 대해 얘기하였다. 당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일본인에게 노예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두 동의하였다.

이후 자주 만나 조선의 독립 문제를 얘기하던 최용범과 김길준, 차준석 등 세 명은 1939년 10월 초순 오전 11시경 팔달공원 팔달사진관 옆으로 오르는 휴게소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길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조선인은 참으로 비참하다.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정말 가엾다. 조선도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조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최용범은 “언젠가 조선도 독립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조선인이란 정신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곧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도 조선인의 정신으로써 그 운동에 참가하자.”고 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예술을 연구하면서 ‘동지’를 모집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정신을 주입시켜 나가는 데 마음이 합치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지를 모으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실은 곧바로 그 다음 모임이던 1939년 10월 중순 차준석의 집에서 이뤄졌다. 당일 오후 4시경 차준석의 집 건넌방에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곧이어 최태중도 합류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이전부터 수원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면서, 또는 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내 광장에서 축구연습을 하면서 조선의 독립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 온 동지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용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예술에 정진함과 동시에 동지를 모아 동지의 결속과 예술연구를 하자. 이를 위해서는 예술연구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붙여야 하는데 예술호연구락부(藝術互研俱樂部)라고 이름 하는 것이 어떻가.

그 자리에 함께한 동지들은 모두 최용범의 말에 찬성하였다. 최용범은 곧바로 폭 20cm, 길이 80cm 정도 되는 백지(白紙)에 묵필(墨筆)로 ‘(수원)예술호연구락부’라고 썼다. 명칭 우측에는 함께한 동지 최용범, 차준석, 김길준, 최태중의 이름을 썼다. 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차준석의 방 벽에다 붙였다.¹⁰ 마침내 1939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무 살 전후의 청년들은 예술연구와 조선의 독립운동 준비를 목적으로 한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10 「(차준석)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년 10월 30일.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조직했을 때, 그들은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특별히 형식적인 규약이나 강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엄수하기로 약속하였다.¹¹

1. 우리는 서로 예술을 연구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운동의 뜻을 굳게 할 것
2. 우리는 서로 비밀을 엄수하고, 친형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누설하지 않고 돈벌이를 하면서 구락부의 자금으로 하고 최용범에게 맡길 것
3. 최용범이 모임의 지도자이므로 최용범이 말한 것을 실행할 것
4. 서로 조선독립운동을 위해 동지를 획득하면 최용범에게 소개할 것
5.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용범에게 알릴 것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사건 관계자들의 신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술호연구락부의 지도자는 최용범이었다. 함께한 동지들은 하나같이 최용범이 지도자였음을 말하였다. 간부로는 김길준과 차준석이 그 역할을 맡았으며, 그 외 최태종, 홍종철, 맹승재, 강성문은 동지이자 구락부의 구성원이었다.

〈표 1〉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현황(1941년)

이름	생년월일/나이	주소	비고
최용범	1923. 8. 20. /19세	본적 : 경성부 신길정 229 ¹² 주거 :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 287	지도자
차준석	1922. 12. 23. /20세	본적 : 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리) 28 주거 : 상동	간부
김길준	1923. 6. 18. /19세	본적 : 수원군 수원읍 영정(산루리) 38 주거 : 함남 함주군 홍남읍 흥덕리 52	간부
강성문	1924. 10. 15. /18세	본적 : 수원군 수원읍 영정 30 주거 : 함남 함주군 홍남읍 흥덕리 52	
최태종	1920. 10. 23. /22세	본적 : 수원군 수원읍 남부정 11 주거 : 수원군 수원읍 궁정 114	
맹승재	(1925.) 5. 27. /17세 ¹³	본적 :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452 ¹⁴ 주거 : 상동	

11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6회), 1941년 11월 8일; 「(맹승재)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1941년 11월 6일.

12 최용범은 용인군 구읍내에서 태어났다. 출생 직후 서울로 이사했다가 7살 때 수원읍 남부정(당시 안룡면)으로 이사하였다. 이후 부모님은 수원읍 지야정 93번지에 살았다.

13 호적에는 1925년 5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23년에 출생하였다고 한다(「(맹승재)피의자조서」(제6회), 1941년 12월 13일).

이름	생년월일/나이	주소	비고
홍중철	1920. 3. 26. /22세	본적 : 수원군 수원읍 인계정 813 주거 : 상동	
박인중	1922. 12. 28. /20세	본적 : 평택군 북면 야막리 56 ¹⁵ 주거 : 만주국 신경시 길아정 3정목 6	(제외)
용헌식	1915. 12. 29. /27세	본적 : 수원군 일왕면 송죽리 408 주거 : 상동	(제외)

〈표 2〉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관련자 학력과 취미

이름	학력	취미
최용범	1930.~1935. 1. 삼일학교(1941년 현재 팔달학교) 6학년 1월 전학 1936. 3. 영등포공립보통학교 졸업	성악, 연극, 영화, 축구
차준석	1937. 3. 신흥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검극(劍劇), ¹⁶ 음악, 축구
김길준	1937. 3. 신흥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1938. 7. 사립 삼일학교 고등과 2학년 1학기 중퇴	성악, 축구
강성문	1937. 3. 신흥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영화, 축구
최태종	1934. 3. 신흥공립보통학교 졸업(6년) 1936. 4.~1938. 7. 수원고등공립농업학교 3학년 중퇴	성악, 음악
맹승재	1939. 3. 충남 당진군 당진면 순성면 순성소학교 졸업(6년)	영화, 운동
홍중철	1927. 4.~1928. 경성부 관철동 관철공립보통학교 2학년 전학 1928~1930 수원 신흥공립보통학교 4학년 1학기 중퇴	음악, 무용, 성악
박인중	1930. 4.~1933. 수원 사립 삼일학교 4학년 2학기 전학 1933.~1934. 10. 평택군 북면공립보통학교 5학년 2학기 중퇴	성악, 음악, 권투
용헌식	1931. 3. 수원 사립 화성학원 졸업(6년) 1934.~1938.3. 수원 공립청년훈련소 졸업	검도, 영화

14 맹승재는 충남 당진군 당진면 사기소리 출생이다. 1939년에 수원읍 남부정 22번지 양금산(매형)의 집으로 왔다.

15 박인중은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 출생이다. 어머니를 따라 수원읍 본정 1정목 209번지 작은아버지 댁에서 생활하였다.

16 일본의 시대극의 하나로 일명 '잔바라 영화'라고 하며, 사무라이 영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강성문(康聖文)



김길준(金吉俊)



맹승재(孟升在)



차준식(車濟皙)



홍종철(洪鍾哲)



최태종(崔泰鍾)



박인종(朴仁鍾)



용헌식(龍憲植)



최용범(崔龍範)

수원예술호연구박물관 관련자(수원박물관, 『수원역사문화연구』 창간호, 2011)

3.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활동

1) 현실인식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차별대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같은 일을 하고도 조선인보다 일본인들이 훨씬 많은 급료를 받았다(차준석, 김길준). “조선인은 눈을 피해 몰래 훔치고 놀기만 한다.”고 모욕을 받으며, 심지어 노예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상급학생에게 결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원 지역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대우로 생긴 반감은 반일의식으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독립운동과 계급해방으로까지 인식의 확장을 보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원극장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한 홍종철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적은 급료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자본가들이 자신처럼 “빈핍한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김길준은 동지들을 만나면 “현재의 조선인은 정말 참혹하다. 내선인의 구별이 너무 심하다.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조선을 속히 독립시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차준석 또한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인만으로 정치를 집행하면 일본인에게 조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제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며, 이는 조선의 독립의 실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최용범은 동지들에게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 병력은 약화될 것이고, 앞으로 소련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일본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조선 독립운동을 전개하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매일신보』나 라디오 등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거짓된 보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2) 동지 획득과 연락

조선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함께하는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수원극장, 맹승재의 집, 차준석의 집 등을 오가며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연무대, 수원천 주변 저수지 등 야외를 오가며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고 동지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다.

동지 획득에는 최용범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 최용범이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동지는 박인종과 용현식이다. 박인종은 사립 삼일학교 재학 당시 최용범과 동급 학생이었다. 학교를 마친 뒤 수원 읍내에서 상점원, 곤도인쇄소 문선공으로 잠깐 일하였다. 이후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는가 하면 서울로 가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물상 일을 돕기도 했다. 그는 1939년 12월 최용범에 의해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에게 소개되었다. 당시는 제지연합주식회사의 종이상자 제조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다. 박인종은 동지들 앞에서 “현재 (일본이) 내선일체를 부르짖고 있지만 어떠한 회사나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은 상당히 많은 급료를 받고 있는 데 반해 조선인의 급료는 일본인에 비해 적고 일도 무리한 일을 주는 등 조선인을 노예 취급한다. 현재 조선의 제도는 무리가 있다.”며 조선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였다.

최용범은 1940년 초 수원읍 영화정에서 수원군 일왕면 정자리(현 장안구 정자동)로 이사하였다. 최용범은 이곳에서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용현식을 만났다. 당시 용현식은 일 자리를 찾아 중국 간도(間島)와 천진(天津) 등지에 갔다가 늑막염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1941년 2월 중순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해 3월 수원극장에서 조선 영화 「집 없는 천사」를 상영하고 있었다. 최용범과 용현식은 함께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 얘기를 나눈 이후 동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개최하고, 종축업(種畜業)을 경영하면서 그들에게 “조선인의 정신을 주입”시켜 민족의식을 심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용범과 그의 구락부 동지들은 일제 경찰에 발각되던 당시까지는 박인종과 용현식을 동지, 즉 구락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동지들과 연락의 중심은 최용범이었다. 주요 연락 방법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었다. 최용범은 1941년 7월 이후 함경남도 함주군 홍남읍 홍덕리 구산출장소(丘山出張所) 소속의 수도공사장 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구락부의 동지 김길준·강성문과 서신 연락을 주고받았다. 편지를 통해 멀리 가 있더라도 동지들과 약속을 잊지 말고 조선의 독

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박인종이 만주국 신경(현 지린성 장춘)에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내 향후 만주에서의 활동을 대비하기도 했다. 또한 동지로서의 약속을 잊지 않고, 투쟁의식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자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한 최태종에게도 편지를 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3) 독립운동 방략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제의 언론보도가 대부분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본의 열악한 군사력과 일본의 사기 저하, 일본 국내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대립 등을 통해 일본이 머지않아 패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곧 조선독립의 시기와 연계되어 이해되었고, 이때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면 조선의 독립이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독립운동 방략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였다.

1939년 12월 중순경 수원 읍내 팔달문 근처 맹승재의 임시 거처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 6명의 동지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차준석은 만주로 가서 조선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 일본은 지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국내는 올해 한발이 와서 쌀을 취하기 곤란하다. 소련과 만주국의 국경에 국경경비를 위해 일본의 군대와 만주국의 군대가 많이 집결해 있고, 또한 만주국 내에는 마적이 왕성하게 출몰하여 곤란한 지경이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만주에 가서 마적이 되어 대장 김일성과 연락을 가지고 조선독립운동을 하자.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다시 모였을 때, 최용범은 일본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김일성 부대에 들어가 일본과 전쟁을 하면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뉴스, 영화에서 보면 일본군의 행동은 매우 원기가 없다. 조선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전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본군에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지나의 장개석을 상대로 싸워 일찍이 남경과 한구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장개석은 중경에 있으면서 쉽게 항복하지 않고 있다. 사변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 일본군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일본은 다시 소련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 즉 조선의 독립도 빠르게 실현될 것이다.

동지들 가운데 차준석과 김길준은 만주의 김일성 무장부대에 합류하기 위해 여비를 마련하려고 주식회사 부국원에 들어가 일하기도 했다. 만주로 가는 도중 헌병이나 경찰관

에게 취조를 받더라도 조선독립이나 동지들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 것, 자기 집이나 친족 및 지인에게도 일체 통신을 하지 않기로 다짐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뚜렷한 실천 방안을 확립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중지되고 말았다.

최용범은 소련군대와 연락을 하여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에트로 가서 소련군대를 빌려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켜 빨리 실현하는 생각은 어떨까?” 하고 동지들에게 제안하였다. 신문(訊問)을 받는 중에 답하기를, 소련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갈 수만 있다면 스탈린을 만나 현재 조선의 고통 받는 사정을 전하고 소련군대를 빌려 조선의 독립운동을 실행할 생각이었다고 말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본 도쿄(東京)에 동지를 파견하여 일본의 국내사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최용범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먼저 일본 국내의 정세를 탐지해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그 임무는 도쿄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던 맹승재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비 문제가 여의치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김길준은 실제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낮은 단계나마 마을 주민들과 폭동을 일으키자고 제안하였다. 1941년 봄 김길준은 최용범, 차준석과 함께 수원천 저수지로 가는 도중 공동묘지 옆 커다란 바위 밑에 구멍을 파서 ‘군용품’을 숨기고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 사용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최용범은 농촌으로 들어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의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선독립운동이 실행될 때 주민들과 함께 호미와 팽이를 들고 싸우는 것도 좋은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용범과 용현식은 당시 일왕면 정자리에 야학회를 열었다. 집 없는 사람이나 고아들을 보살피고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어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야학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야학회에서는 일본어, 조선어, 산술, 수신(修身) 등을 가르쳤다. 야학 선생으로는 최용범과 용현식 외에도 정자리에 사는 조재헌(趙在憲), 조상호(趙商鎬) 두 사람도 함께하였다. 용현식은 일본어와 수신을 가르쳤고, 최용범은 조선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쳤다. 최용범은 조선어를 통해 조선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

4.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역사적 성격

수원예술호연구락부 사건에 연루된 최용범 외 8명의 최종 판결은 1942년 7월 27일에 가

서야 이뤄졌다. 그 결과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최용범과 차준석, 김길준 3명은 각각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맹승재와 강성문은 각각 징역 단기 2년 장기 4년, 박인중은 단기 1년 장기 3년, 홍종철과 최태중, 용헌식 3명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용범과 김길준, 차준석 3명은 죄가 추가되었다. 김길준은 불경죄가, 최용범은 불경죄 및 육해군 형법 위반이 추가되어 각각 단기 1년 장기 2년이 더 중형되었고, 차준석은 육군 형법 위반이 추가되어 단기 1년 장기 2년이 중형되었다.¹⁷

수원예술호연구락부는 예술에 대한 연구를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차별에서 반일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민족차별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에 기인함을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사유재산제도에 기반한 현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 이후에는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구성원들은 비밀 회합을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몇 가지 독립운동의 방략을 계획하거나 실제 추진하였다.

먼저,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소련과 일본의 전쟁을 예견하면서 결국에는 일본군이 약화되어 패망할 것이므로 이때를 대비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독립이 되면 조선에 공산주의 사회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의 패전을 확신한 그들은 비밀결사 수원예술호연구락부를 결성하고 예술의 연구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이는 동지를 획득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으며,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있었다.

둘째,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1939~1940년경부터 중일전쟁이 점차 태평양전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동지들은 만주의 '김일성 부대'에 대한 동결심을 가지고 직접 만주로 가서 그들과 연락하여 일본과 전쟁을 통해 조선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셋째,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으로 들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조선인이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민족의식을 일깨워,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이들이 호매와 팽이를 들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양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종축업을 경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고아들을 보살피

17 「소화 17년 刑公 제9호 판결」; 「소화 17년 刑公 제10호 판결」.

昭和十七年海公第 九號 判 決 東京府新吉町二百二十九番地 本 籍 京畿道水原郡日旺面孝子里二百八十七番地 住 居 養育院 山 岡 龍 範 當二十年六月二十日生 本籍及住居 京畿道水原郡水原邑榮町二十八番地 會社員 中 川 博 哲 當二十年十一月二十日生 本籍 京畿道水原郡水原邑榮町三十八番地 住 居 咸鏡南道咸州郡興南邑興德里五十二番地 職 江 幸 海 吉 俊 當二十年六月十八日生 本籍 京畿道水原郡水原邑榮町三十番地 住 居 咸鏡南道咸州郡興南邑興德里五十二番地 職 工 松 岡 聖 文 當十九年十月十五日生 本籍 京畿道平澤郡北面野添里五十六番地 住 居 滿洲國新京市官野町三丁目六番地 雇 人 新 井 仁 輔	
當二十年十二月二十八日生 本籍及住居 忠清南道唐津郡順城面鳳凰里四百五十二番地 雇 養 院 松 原 一 秀 當十八年五月二十七日生 本籍及住居 京畿道水原郡水原邑仁興町八百十三番地 無 職 洪 原 龜 哲 當二十三年 本籍 京畿道水原郡水原邑南部町十一番地 住 居 京畿道水原郡水原邑官町百十四番地 農 業 高 山 泰 鐘 當二十三年 本籍及住居 京畿道水原郡日旺面松竹里四百八番地 養 育 院 松 本 應 植 當二十八年 右欄告人等ニ對スル治安維持法違反各罪等事件ニ付朝鮮總督府檢察松岡益人 關與審理判決スルコト左ノ如シ 主 文 被告入山岡龍範同中川博哲同金海吉俊ヲ各三年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被告入松原一秀同松岡龜文ヲ各二年以上四年以下ノ懲役ニ處ス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판결문(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수원예술호연구락부의 구성원들이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은 당시 독립과 민족해방운동에서 제기되고 있던 ‘무장투쟁’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전국적·통일적으로 지도할 중심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민족의식과 계급의식을 조직화하여 조선의 독립과 계급해방을 전망하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한편, 수원예술호연구락부 관련자들은 수원경찰서 최종 신문과정에서 일제히 조선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을 위한 자신들의 활동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한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장래에는 일본의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열심히 일할 각오”임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는 그들을 선처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던 것이다.

지도자 최용범은 1941년 10월 25일 제5회 신문 때까지도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제도의 실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독립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주의·사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⁸ 그는 다른 어느 동지들보다도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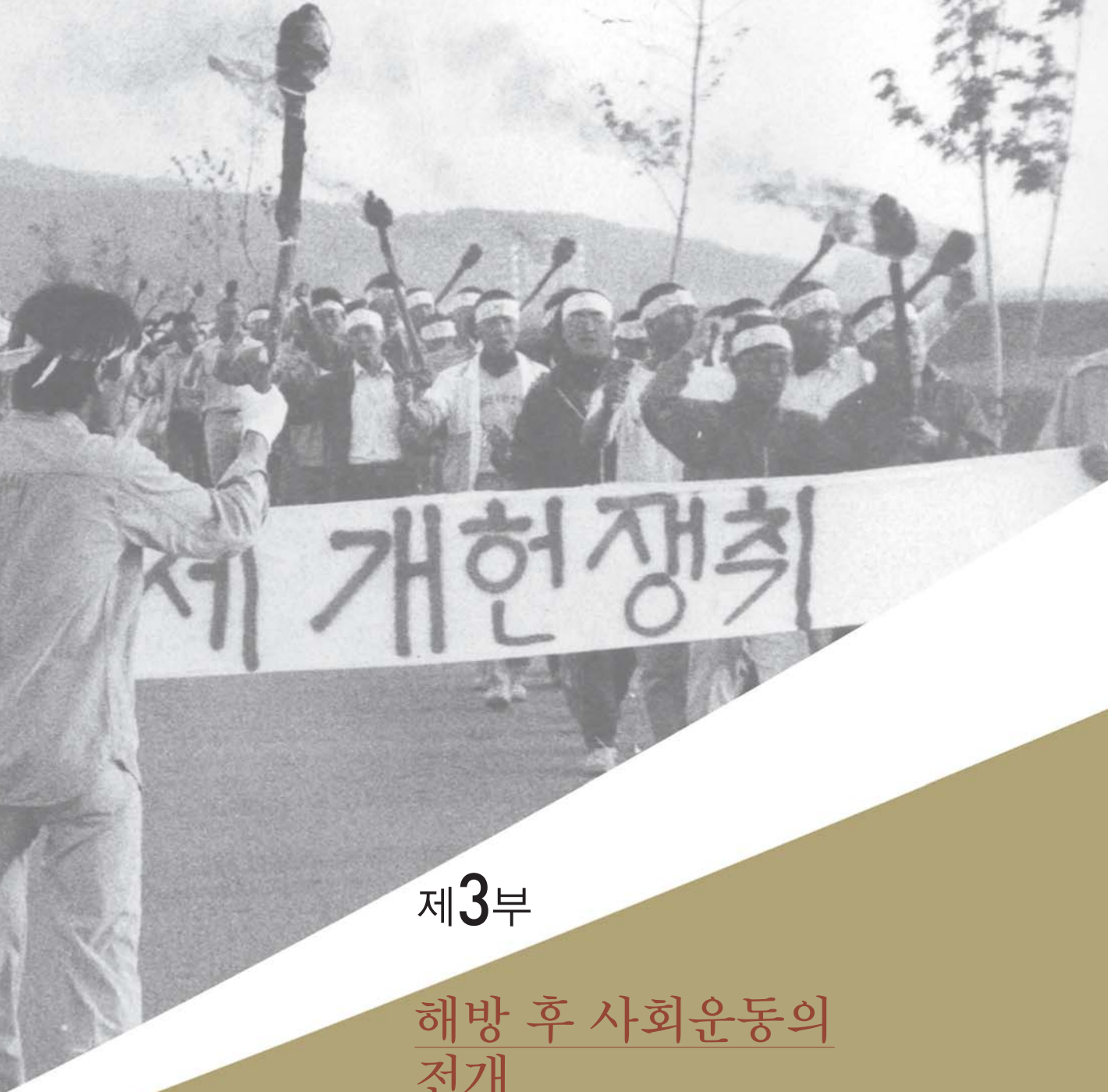
한편, 최용범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원 공판 전 1942년 3월 20일부로 판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즉, 60여 세의 아버지가 중병으로 생명이 위독하니 가족의 유일한 보호자인 자식을 집행유예로라도 관대하게 처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최용범은 1942년 7월 13일 경성지방법원 공판 법정에서, 집에 계신 노모를 염려하며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갱생할 각오”라는 표현으로 관대한 처분을 원해야 했다.¹⁹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용현식과 최태종은 일제의 전향정책에 따라 전향문을 제출하고 가출옥하였다. 용현식과 최태종은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대구형무소장은 1944년 4월 16일 잔여 형기 2개월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조선총독에게 최태종과 용현식의 가출옥을 신청하였다.²⁰ 이미 최태종은 1943년 1월 8일자로 「감상문」을 제출하였고, 용현식은 1942년 9월에 「감상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두 사람은 1943년 4월 29일자로 가출옥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마지막 경찰 신문과정과 최종 공판 판사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황국신민’으로 살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야 했다.

18 「(최용범) 피의자 신문조서」(제5회), 1941년 10월 25일.

19 「공판조서」, 1942년 7월 13일.

20 대구형무소장, 大邱刑秘 제123호, 「假出獄具申」, 1944년 4월 16일; 대구형무소장, 大邱刑秘 제124호, 「假出獄執行濟ノ件報告」, 1944년 4월 29일.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제1장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제2장 1970~1990년대 수원의 학생운동

제3장 1980~1990년대 수원의 노동운동

제4장 1980~1990년대 수원의 통일운동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1. 4·19혁명부터 1980년까지 민주화운동
2.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
3.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제1장

1960~1990년대 수원의 민주화운동 —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수원 시민정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정신이 발현되어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 한다. 즉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¹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시민정신은 수원에서도 멈추지 않고 발휘되었다. 이에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을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4·19혁명에서 1980년 초반까지,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마지막으로 6월민주항쟁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4·19혁명부터 1980년까지 민주화운동

1) 학생들의 4·19투쟁

수원 지역에서 전개된 4·19혁명과 6·3사태, 삼선개헌 반대와 유신반대 등 독재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은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1960년 자유당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참여하였다. 1970년 이전까지 수원 지역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유일하게 존재하였기에, 이 당시 대학생들이 펼친 민주화운동은 서울대 농대생들의 활동이었다. 1970년 이후 아주대학교, 수원공업전문대학 등이 개교하면서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대학과 학생의 수는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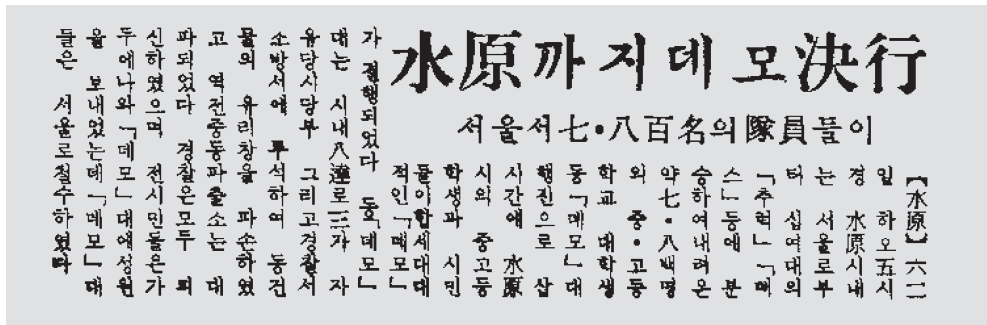
먼저 1960년 4·19혁명 시기의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는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면 수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안익승 : (4·19 때는) 데모가 심했죠. 그런데 학생들은 안 하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 보니까 음식점 종업원이 많이 와서 하더군요. 역전과 남문에서 많이 했죠.

박창균 : 4·19 때는 대단했어요.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실 때도 참 대단했습니다. …… 수원에서는 농대 학생들이 들고 있어났어요. 고등학교도 일부 나오고 그랬어요.



수원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의 복문 앞 시위(『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서울에서 내려온 데모대와 합세한 수원 학생과 시민들의 데모(『동아일보』, 1960년 4월 27일)

1960년 3·15부정선거를 5일 앞둔 2월 28일에 대구에서 전개된 중고등학생들의 시위에 뒤이어 수원에서는 3월 10일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3월 10일 수원공설운동장(현 경기도청 자리)에서 개최되는 장면 부통령 후보자의 연설회에 참여하기 위해 수원농림고 등학생 300여 명이 복문을 지나 수원극장까지 행진을 벌이다가 수원극장 앞에서 경찰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들은 “학원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배격한다.”와 “부통령대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면서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²

4월 20일에는 서울대 농대생 500여 명이 규탄대회를 열고 시내로 진출하여 수원역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고, 다시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수원 시내 중동과출소 앞까지 진출한 후 경찰의 봉쇄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과 합세하여 남문 앞까지 행진하며 시민들과 함께 이승만 독재타도를 외쳤다.³

장면이 사임하던 4월 23일 수원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오자 경찰과 교사들이 사력을 다해 저지했지만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수원농림고등학교 학생과 북중학교 학생들이 영화동을 거쳐 복문으로 진출하였고, 수성고등학교 학생과 수성중학교 학생들 역시 복문을 거쳐 남문으로 대열을 같이하였다. 종로에 나와 있던 삼일실업고등학교 학생과 매향여자중·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에 합류하였고, 남문을 향해 올라오던 수원중고등학교 학생과 수원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

2 「전국에 번지는 학생 데모」, 『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연거푸 학생 데모」, 『동아일보』, 1960년 3월 13일.

3 『서울농대 100주년 자료집』.



수원농림고등학교 학생들의 복문 앞 시위(『동아일보』, 1960년 3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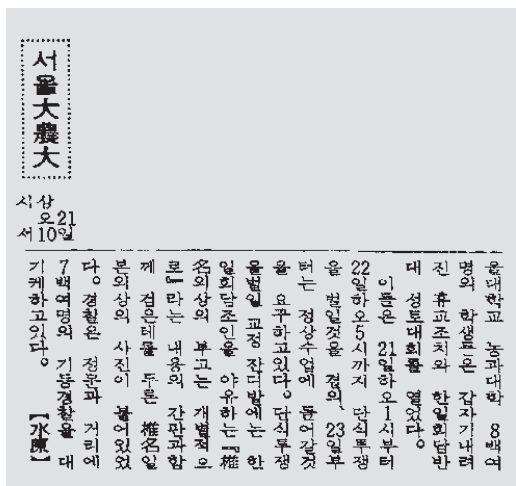
도 하나가 되었다. 시위대는 역전광장과 북문을 돌아 계속 행진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생들은 23일 새벽 서울중앙청까지 강행군에 돌입하였다. 경찰은 서둔동 육교에서 이들을 제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800여 명으로 구성된 데모 행렬은 서문, 북문을 거쳐 지지대고개에 이르렀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상경시위는 이것이 처음이었다.⁴

2) 서울대 농대생들의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유신 반대투쟁

4·19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면서 5·16군사쿠데타 이후 한일협정 체결, 삼선개헌, 유신헌법 제정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되었지만 민주화운동 또한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다.

서울대 농대생들은 1964년 3월 9일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발족 직후인 3월 26일 본격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내에 집결하여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와 수원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벌였다. 또한 6월 3일에는 광화문까지 도보시위를 하기 위해 교정에 집결하여 한일협정 반대집회를 가진 후 서울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날 도보시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한일국교정상화의 기만성과 군사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아울러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일협정 반대투쟁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날 수원 서둔동에 있던 상록캠퍼스의 서울대 농대생들은 전격적인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으나 정부의 조기방학 명령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서울대 농대가 수원에 있었던 시절, 서울대 농대생의 민주화운동사에서 가



서울대 농대 학생들의 한일회담반대 성토대회(『경향신문』, 1965년 6월 21일)

4 수원사랑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수원청년』 제2호, 1988.

「양심선언문」

……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고 한다. 들으라! 동지여! 우리의 숭고한 피를 흘뿌려 이 땅에서 영원한 민주주의의 푸른 잎사귀가 번성하도록 할 용기를 그대들은 주저하고 있는가!

학우여!

아는개! 민주주의는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금일 우리는 어제를 통탄하기 전에, 내일을 체념하기 전에, 치밀한 이성과 굳은 신념으로 이 처참한 일당독재의 아성을 향해 불퇴전의 결의로 진격하자. 민족사의 새날은 밝아오고 있다. ……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내! 소리 없이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1975년 4월 11일

서울대 농대 축산학과 4학년 김상진

장 중요한 인물은 ‘김상진’이다. 1975년 4월 11일 오전 11시, 대강당 앞 잔디밭에서 농대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성토대회에서 세 번째 연사로 나선 그는 침착한 자세로, 그러나 정열적인 어조로 「양심선언문」을 읽어 나가다가 11시 30분쯤,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라는 대목을 읽으며 품 안에서 20cm 길이의 과도를 꺼내 할복 자결하였다. ‘김상진’이란 이름과 그의 「양심선언문」은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고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3) 수원양서조합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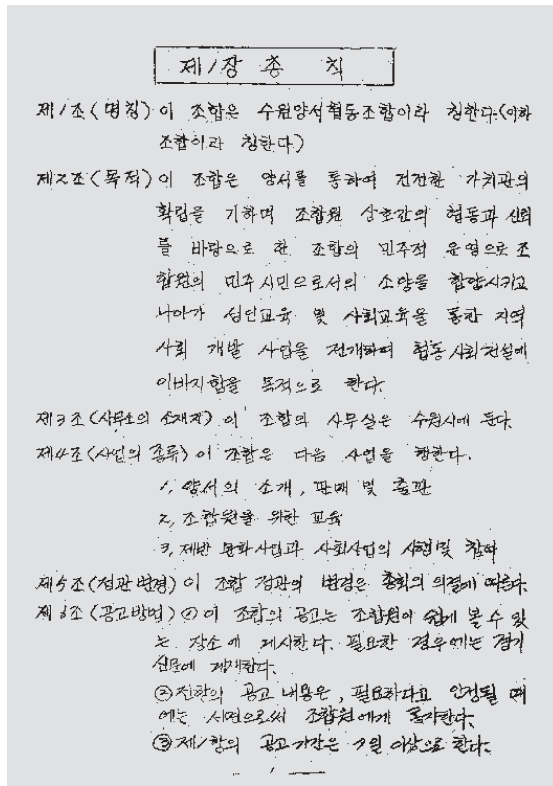
수원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수원양서협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양서협동조합운동은 1970년대 말 부산에서 시작되어 마산, 대구, 서울, 울산, 수원, 광주 등의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인천과 청주 지역에

서도 설립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운동은 ① 신리와 협동의 인간 관계를 기초로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이며, ②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시민문화운동체이며, ③ 인간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인간회복운동체였다.⁵

수원에서 양서협동조합은 1979년 늦여름에 창립하여 1981년 말경에 해산하였다. 햇수로 2년 5개월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서울양협 다음으로 장기간 유지된 것이다. 수원양서협동조합(이하 수원양협)의 창립을 주도하였던 고정석과 한경호는 사회운동의 불모지였던 수원에 수원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의식화된 시민모임을 조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조직화의 대상이었던

대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현 팔달구 매산동) 부근에 직영서점을 개설하였다.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의식을 고취하기보다는 소모임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금서인 사회과학 서적들의 유통 등을 통해 젊은 대학생 조합원들의 의식화 교육을 우선했고 조합원 교육은 시국토론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에 상황을 정리하여 고정석이 기초한 「내가 본 광주의 진실」이라는 글을 유동민과 김영기 등이 등사하여 수원 시내에 몰래 배포하기도 했다.

수원양협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노골적인 경찰의 탄압과 조합원 확대가 어려워지고 초기 적자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1981년 말에 해산했지만,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씨앗을 뿌리고 그 역사를 마감하였다. 수원양협이 이룬 성과는 수원 지역에서 수원 사람 중심의 운동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청년학생들을 올바르게 의식화한 것이



수원양서협동조합 정관 초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5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양서협동조합운동』, 당대, 2011.

다. 조합원 중 강석찬, 양원주, 김대권, 이재완 등은 이후 수원과 그 인근 지역에서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⁶ 2대 전무를 맡았던 유동민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 준다.

…… (수원양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 생각이 맑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 상당수가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기여했다.

4) 야학 활동

1980년대를 지나면서 양협운동과 함께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의 씨앗을 뿌린 활동은 야학활동이었다. 야학은 대학생인 교사와 노동자인 학생이 만나는 공간이다. 대학생 친구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던 전태일 열사를 떠올려 보면 야학이 어떻게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며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과 권익 옹호를 통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제시기에 이어 1950년대 중반 다시 개설된 서둔야학, 1963년 개교한 제일야학과 1972년 개교한 화홍야학은 1980년대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 관련법을 가르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학교 모두 이러한 내용이 공식적인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대학생인 교사와의 상담활동과 생활수업(제일야학의 경우)을 통해 노동법과 사회의식을 가르쳤다. 노동교육은 교사인 대학생들에게는 사회현실을 깨닫게 하는 자각의 계기가, 학생인 노동자들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⁷

화홍야학과 제일야학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원 지역에서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처음으로 정리한 구본주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부독제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은 몇몇 학생들의 희생을 통한 유인물 배포와 그에 따른 단발적인 시위형식으로 변해 갔고,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자 점 조직화된 소규모 학습모임을 통한 사상 무장 구축을 꾀하면서 한편으로는 뜻있는 청년, 학생들이 노동현장으로 눈을 돌려 야학에 참여하게 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탄생한 것이 화홍야학이었으며, 제일야학도 김정고시 위주의 교육에서 주

6 고정석 · 유동민 · 한경호, 「수원양서협동조합의 역사와 의의」, 『양서협동조합운동』, 당대, 2011.

7 1975년부터 1985년 폐교 당시까지 화홍야학 교장으로 활동하였던 정우영의 증언과 제일야학 편집부 편, 『제일금샘』, 1986; 제일야학 깃발 편집부 편, 『깃발』, 1988 참조.



수원제일야간중학교 제10회 졸업식 기념사진(수원제일평생학교 소장)

체적인 노동자로 변화시키는 교육방향을 통해 야학운동의 첫발을 내딛는다.⁸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수원 지역에는 1987년에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설립한 '샘터 청소년학교'와 신갈 지역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신갈야학'이 '제일야학'과 함께 '수원 지역 야학교사 체육대회'를 1월과 9월에 개최하며 연대활동을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수원지역야학협의회' (수야협)를 창립하여 공동 교사연수, 체육대회, 학생회 교류회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제5공화국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까지 민주화운동

1987년 6월민주항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하나이다.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앞선 운동들과는 달리 결정

8 구본주, 「수원 지역 6월 민주화운동」, 수원 지역 6월민주화운동 20주년기념사업회 토론회 자료집, 2007.

적인 반전을 겪지 않음으로써 남한에서 민주화의 대세를 확립하였다.⁹ 수원 지역의 6월민주항쟁은 종교인을 필두로 하여 청년학생과 시민들이 함께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이 있기까지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다. 종교인들과 청년학생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밑거름이 되었으며, 점차 민주주의식으로 각성된 시민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6월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에서 기념비적인 영광을 얻게 되었다. 1987년까지 전개된 민주화운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일자별로 소개한다.

먼저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 민주화운동은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그리고 4월혁명부터 5·16쿠데타까지의 ‘4·19정국’을 거치면서 거의 명맥이 끊긴 진보적, 저항적 민중운동이 1970년대 이후 재등장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는 지적은 학생운동과 함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종교인의 기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기독교청년들의 활동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원 지역 기독교청년들은 1981년 수원YMCA에 탈춤반, 기타반 등의 동아리모임을 결성하고 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교회의 청년과 학생들을 조직하고 민주주의식으로 교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조직화 노력은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수원지방연합회 창립(1980년),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수원시찰연합회 창립(1983년), 수원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수원EYC) 창립(1984년)¹¹ 등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들 조직은 각종 기도회, 발표회, 연대모임을 개최하여 군부독재가 저지른 광주학살의 실상과 민주화운동 탄압사례를 폭로하면서 교회의 사회참여를 꾸준히 강조하였다.

1981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원종로감리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감리회청년회 수원지방연합회 임원수련회 자료를 보면 김동완 목사의 주제 강연 제목이 ‘한국사회현실과 교회의 과제’로 되어 있어 기독교청년들이 조심스럽게 사회문제에 접근하면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수원EYC는 1985년 광주순례단을 조직하여 30여 명이 광주를 다녀오며 관련 유인물을

9 백낙청, 「6월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1997년 5월 26일,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2, 2009, 411쪽.

11 역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1984년 회장 이정복, 총무 김대권, 1985년 회장 박찬정, 총무 구본주, 1987년 회장 염태영, 총무 장용환, 1991년 회장 이재경, 총무 이상명, 1992년 회장 이종근, 총무 이상명 등이다.

12 「수원·안양·오산지방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회 임원수련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444294).

지속적으로 수원에 배포하였으며,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노동계와 연대하여 수원 광고산에서 개최하였다.¹³

또한 수원EYC에서 발간한 『수원지역소식』 제2호(1986년 8월 30일)를 보면 「80년대의 한미관계」, 「권양도 내 딸이다. 강간정권 처단하자」 등의 글을 통해 대미종속과 자주권 쟁취, 성고문 폭로와 독재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고, 「수원소식」란에는 7월 29일 수원 남문에서 진행된 KBS시청료 거부 가두캠페인, 삼성코닝 소식지 1호 『단결의 함성』 발행, 「인문 사회과학서적 압수수색」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수원지역소식』 제3호는 1986년 9월 30일자로 발행되었는데 「수원소식」란에 1980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시민이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시위를 벌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9월 4일 ‘경기지구 목회 시국대책 기도회’로 모인 목회자 150여 명은 동수원감리교회에서 김지길 목사(NCC 위원장) 설교, 이문영 교수의 강연, 김동완 목사의 사례보고 등의 순서로 시국대책기도회를 마치고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강간경찰 사육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경제침략 사행하는 미, 일의 세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남문과 동방생명 앞 2곳에서 시위를 벌인 후 수원교회로 행진하였다.

이 외에도 1986년 7월 29일 KBS TV시청료거부 가두캠페인 활동,¹⁴ 노점상 김유태 분신사건 대응 활동¹⁵ 등 개신교단은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대책위



1985년 4월 기청협 사무실 개관예배(강석우 제공)

송정포

16일 18:00 ~ 접수
 18:30 ~ 개회예배
 19:20 ~ 저녁식사
 20:00 ~ 특강 "예수의 목숨과 영혼"
 — 예수운동의 사립: 경제학이해 —
 강사: 이 상문목사 (동대문)
 21:10 ~ 주제강연 "한국사회의 현실과 교회의 과제"
 강사: 김 동원목사
 22:20 ~ 청년학제 "지방연립회 활성화 방안"
 발제자: 김 성 복 (전국연립회부회장)
 23:00 ~ 토론회 "지방연립회 활성화 방안"
 (각 지방별 1명)
 23:40 ~ 침례의 시간
 24:30 ~ 결단의 시간 및 기도회

개회예배 (16일 18:00) 사립: 김공복(수원동부)

개회사	목도	찬송	기도	찬송	말씀	남독	감고	찬송	축도
				565	감정신앙 고백문		382		
	다같이	"	정태영(목수원)	다같이	안희경목사님	이난희(목수원)	서평문(수원강림리)	다같이	안희경목사님

- X -

기독교감리회청년회 수원지방연합회 임원수련회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13 구분주, 「수원 지역 6월 민주화운동」, 『수원 지역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사업회 토론회 자료집』, 2007.

14 수원지구 인권위원회 목사 10여 명과 수원EYC 회원 30여 명 참가, “관제언론 철폐하고 민주언론 쟁취하자.” “언론자유 탄압하는 군부독재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과 스티커를 배포하였다(수원EYC, 『수원지역소식』 2호, 1986년 8월 30일).

“김유태씨는 왜 분신 하셨을까?”

1986년 12월 16일 노점상 단속에 참여하였다. 시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덕후한 김유태씨도 원래 도립병원 316호실에서 고문여 목격범 지고 있다.

하루 날이 지루하고 열악한 지는 노점상들의 고문여 이력 발표, 표현할 수 없었던 점 유태씨의 분신은 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김유태씨는 복언과 개체적 한 달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노점~~ 행위를 격려해 되었다. 이리 해서 저리 해서 행위가 좋아지 선택 했겠는가

이러한 것 다해보고도 공여 억울한 것 없기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노점상은 어느 개인에 대한 것이나 관적으로 보거나 현상이 아니라, 영자리를 갖고 있어도 배워진 기술이 있고, 넓은 속이고 이론하는 습성이, 복속한 생각과 등이 없거나, 선 본산을 가적으로, 인건비로 권할 수 있는 적자영생에서 나타난 어떤 수 없는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노점상을 어느 누가 권리 어떤이 못하고 지은 것이라고 해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죄책은 존재물이라고 회피해 버리려고 할 수 있는가?

유리론이 적어도, 관련 장만할 수 있지 서쪽할 있었던 것은, 실적을 습하게, 어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현상이다.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물론 노점이 본래에 복속을 주고 도시 인구에 전업을 두리는 일차적인 목적점을 모르면 바는 아니지만, 유태씨가 여의치 않고, 일자리를 회피, 일론 현상에서 노점상은 노점이 유한한 점지수단이 되고, 회피하며 다른 이들에 대해 없이 지속한, 장다는 것은 일어난 생존력이 박탈된 것이다.

노점상이라는 이주만으로 봤을, 이러한 형식과 재해석에, 지속이라는 경지이며, 이중 삼중의 생존권 외장을 밝힌 권 유태씨는 격렬한 대책을 요구한다.

위인론 안에서 형식하고 말한다. 다른 모든 것은 위인론에서 ---

그러나 형식 복지 사회를 내치우는 현상적, 해면적이지 아니한 일에, 형식이라도 재해석한다. 발발되는 노점상에 대한 점수들이 작은 내, 외리적, 단속 외에는 적절한 대책을, 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한, 무적적, 유속에 한미하고, 대책을 세워 갈라선, 한 노점상의 정당한 요구를, 복속 한 해, 위인론에서 보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판치한 것은, 위인론이하에, 처정함을 연설하, 중정하는 것이 아니기 그 역설이정인가?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한 김유태 사건 관련 문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소장)

원회를 구성하여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가톨릭계의 민주화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가톨릭농민회의 활동 내용은 1984년 8월 10일 발행된 소식지 『들녘』에 실린 소식란과 조원규(수원교구 사무국장) 신부가 쓴 「농민회에 바란다」라는 축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소식란에는 안성지역협의회 야유회, 임원연수 안내, 토산품 바자회 안내 등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노동사목위원회의 활동은 지역 노동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민주화운동 참여 또한 다른 조직들에 비해 적극적이었다.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수원을 포함하여 경기 남부 지역 노동운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연대할 사

업을 논의하였으며, 원곡 노동사목(안산),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등 직접 운영하는 기관과 관련 단체 활동을 공유하였다. 1988년 11월 3일 월례회의 자료를 보면, “경기남부노동협 단체들이 노조협의회 건설, 노동법 개정투쟁, 노조민주화 지원 등 지역 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하고 긴밀히 결합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다. 지역 노동운동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우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남부 지역 노동운동에서 개신교 계열의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기노련)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면 가톨릭 쪽에서는 노동사목위원회가 많은 기여를 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수원교구연합회는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였다. 1986년 2월에 있었던 조여옥(까리타스) 노동사목 담당자와 계인선(글라라) 가톨릭

15 1986년 12월 16일 오후 1시경 남문 신한은행 앞에서 분신, 도립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7일 도립병원 방문 이후 18일 김유태군·영위원회 결성, 19일 『속보』 1호 발행, 22일 수원인권위원회에서 「노점상 김유태씨 분신에 붙여」 성명서 발표, 27일 『속보』 2호를 배포하던 기독교청년 이종근 연행, 1987년 1월 7일 경기지구 목회자들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2개 단체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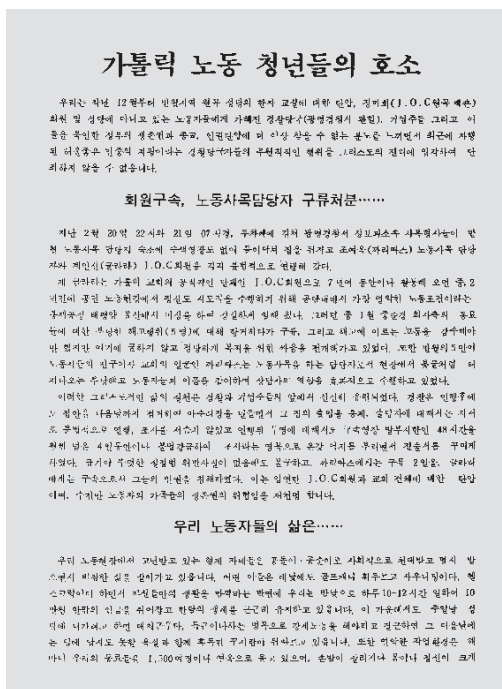
노동청년회 회원의 불법연행에 항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톨릭 노동 청년들의 호소」를 보면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986년 3월 9일자로 발표된 호소문은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전원 복직시켜라.” “계인선(글라라)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카톨릭 노동청년은 진정으로 민중이 주인 되는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이 사회의 어떠한 악의 무리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어떠한 고난도 이기면서 나아갈 것이다.”¹⁶ 라고 끝을 맺고 있다.

천주교수원교구사제단의 박철, 방상복 신부는 1987년 4월 13일 호헌발표가 나온 후 5월 6일부터 단식기도회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5월 8일에는 마침내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수원교구 사제단의 단식기도에 적극 동참합시다-교형자매 여러분의 나눔과 일치를 당부하면서」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대중적 운동으로 6월민주항쟁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수원 지역의 상황을 주요 단체와 인사, 활동내용 3단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6월항쟁은 1월 박종철의 고문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바탕이 되



조원규 신부의 「노동청년회에 바란다」(『들녘』, 1984년 8월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소장)



「가톨릭 노동 청년들의 호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소장)

고(1단계), 4·13호헌조치로 종교계를 비롯한 교수, 문화,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이 조직되면서 동력을 만들어 냈으며(2단계), 6월 10일 국민대회를 통해 폭발하여 국민적 행동으로 이어져 승리한 국민운동이다(3단계).

〈표 1〉 수원 지역 6월 민주항쟁 활동일지

단계	일자	주요 활동내용
1단계 : 박종철군 고문살인 대응	1월 26일	·수원지역인권위원회, 수원EYC, '고 박종철군 추모기도회'로 투쟁 시작
	2월 7일	·수원지역인권위원회, 수원EYC, 목회자, 야학, 대학생 등이 2·7교문 철폐투쟁을 시작으로 조직적 연대의 단초 마련
	3월 1일	·수원EYC, 청년학생, '박종철군 49제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 유인물 배포 및 시위 전개
	3월 3일	·박영모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택 연금, 구본주(수원EYC 상임총무)와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경찰에 연행 후 이천 등지에서 석방
2단계 : 호헌조치 반대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4·13호헌조치
	4월 14일	·수원인권위원회, 수원EYC, 4·13호헌 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위한 성명서 발표 ·4·13호헌 철폐를 위한 수원 지역 목회자 식발단식기도회(박영모, 도준순, 이종철, 전규일, 강인호 목사)
	5월 6일	·천주교수원교구사제단 단식기도회(박철, 방상복 신부)
3단계 : 국민행동 및 민주항쟁의 승리	6월 3일	·한국교회협의회 수원지역인권위원회, 수원 성공회성당에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경기지구 평화대행진 준비위원회' 조직(13개 조직 참가) ¹⁷⁾
	6월 10일	·수원 시민, 목회자, 신부, 청년학생 등 3,000여 명이 기도회와 미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와 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영동시장 입구, 화서동 사거리, 수원역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 전개 ·박영모 목사 외 137명이 경찰 연행, 강인한 목사(안경 파손으로 눈 부상)와 40여 명의 시민 학생 부상
	6월 11일	·수원 경기대생 철야농성, 서울농대에서는 동맹휴학을 촉구하며 총학생회가 단식농성 시작, 김재연(서울대 농대) 심한 화상
	6월 14일	·남문 근처에서 5,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중 집회를 하였고 한신대생은 기숙사에서 심야 토론 진행
	6월 15일	·아주대 2,000여 명 학생이 시민과 함께 동수원호텔 앞 연좌시위
		·서울대 농대생, 동맹휴업 돌입
		·성균관대 2,000여 명이 비상총회 후 가두 진출, 경찰과 화염병과 투석전
	6월 16일	·아주대, 오후 3시 2,000여 명이 교문 앞 진출을 시도하며 시위 ·종로거리 3,000여 명 시민과 학생이 정치집회 개최 ·수원역 시민과 학생 등 1만여 명 대중집회와 시국토론 진행
	6월 18일	·동수원감리교회에서 최루탄 추방과 민주쟁취를 위한 기도회 개최 ·수원역 광장 1만 명의 시위대가 "평화집회 보장하라,"며 시위
	6월 22일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 철폐 경기지구 평화대행진 준비위원회'의 각 대표들이 모여 '경기도민주헌법쟁취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6월 26일 투쟁방침 수립 ·오후 7시 10분, 인계동 외환은행 수원지점 앞 200여 명 산발적인 시위
	6월 26일	·'6·26평화대행진' 남문과 북수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하여 수원역 7,000명 집결 집회

16 「가톨릭 노동 청년들의 호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124428).

17 경기북부 인권위원회, 강화지역 인권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연합회, 감리교 중부지구 민주화선교협의회, 기독교장로회수원시찰위원회, 대한성공회 남부교무부, 감리교 중부연회 농촌선교목회자협의회, 가톨릭 여성위원회, 수원EYC, 장기집권저지 및 호헌책동분쇄 수원지구 학생공동대책위원회, 통일민주당 수원지구당.



수원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개된 1987년 6월민주항쟁(강석우 제공)

6월민주항쟁의 특징을 이전 운동사례와 비교해 보면 ① 전국 각 도시에서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② 각계각층이 들고 일어났으며, ③ 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고, ④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거나 동조하였다. ⑤ 또한 6월민주항쟁은 3·1운동, 4월혁명, 부마항쟁, 5·18민중항쟁보다 조직적이었고, 처음부터 목적의식이 뚜렷했고, ⑥ 어느 때보다도 정치인과 재야·학생 간에 민주대연합이 잘 이루어졌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로는 ① 정치에서의 상당 부분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② 지방자치도 30여 년 만에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실현되었다. ③ 이 항쟁의 후속으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일어나고, 농민운동과 빈민운동도 활발해졌다. ④ 대학을 비롯하여 사회단체나 조직, 기관에서 민주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⑤ 언론, 교육, 학문, 예술의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다. ⑥ 1988년부터 통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¹⁸

¹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347~349쪽 재정리.

3.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단기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권위주의적 사회체제를 완전하게 해체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6월민주항쟁 이후에도 정치, 노동, 사회, 문화, 교육 등 한국사회 각 부문에서는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수원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이 각 부문에서 나타났다.

먼저 1988년 당시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의 현황을 소개한 다음 글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자와 농민 등 각 부문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첫째, 노동 및 농민운동단체로는 수원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 노동상담소, 화성군 농민협회 등이 있는데 수원 지역의 특징이 농민과 노동자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조직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

둘째, 종교단체로는 수원기독교청년협의회라는 개신교 여러 교파의 청년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기구가 있는데, 종교운동의 확장으로서, 사회 및 민족 모순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대학생불교연합이란 대학생 불교신자들의 모임도, 민중 불교적 시각에서 노동 및 농민, 도시빈민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셋째, 청년단체로는 수원사랑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가 지방자치제의 반동화를 막아 내고 보다 광범위한 청년대중의 전반적 의식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여 창립준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체로서 수원지구 8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회원인 수대협이 있는데, 자주, 민주 및 통일을 위해 청년학도의 세대적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고자 조직되었다 한다. ……

넷째, 여성운동단체로는 가톨릭여성연합, YWCA 등이 있고 그 외 수원여민회가 87년 하반기부터 창립 준비 중이며, 기존 여성운동의 계급적, 소시민적 속성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각가지 사업을 구상 실천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운동도 계급운동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역 내 민주, 민족, 통일운동 단체와 연대작업을 점차 해 보려 하고 있다.

다섯째, 문화단체 및 기타 조직으로 우선,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이 있고,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쟁취국민운동수원본부, 경기남부민통련, 평화민주통일연구소 등이 있다.¹⁹⁾

1988년 이후 노동계를 시작으로 각 부문별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동행동을 위한 연대운동이 활발하게 모색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정기적인 회의체계를 갖춘 연대들을 만들어 냈다. 이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수원지부'를 결성(1991년 12월

19 채윤기, 「지역활동단체 소개」, 『백성』 2호,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1988.

1일)하여 노동조합 결성 지원, 쌀 수입 개방 반대운동, 북녘동포돕기운동 등 개별 부문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민주화운동의 과제를 연대운동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였다. 수원지부에는 수원기노련 등 13개 단체가 참가하였다.²⁰

진보정당운동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87년 대선 이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다가 1991년 11월 23일 민중당 수원시 권선구 갑지구당 창당대회를 수원극장 앞 행복예식장에서 개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중당은 이관돌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992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민중의 소리』라는 이름의 신문을 발행하며 ‘치솟는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좌담을 개최하였다. 특

별좌담회는 1992년 2월 13일 당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이관돌(위원장), 이득성(1991년 민주후보 추대, 광역의회선거 출마자), 황군자(경기서적 대표), 이진숙(수원의료원 노조위원장), 임종범(일진정밀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사회는 이창모(지구당 사무장)가 맡았다. 민중당 이관돌 후보는 제14대 총선에서 수원 권선갑선거구에 출마하여 4,332표(5.32%)를 득표하였다.²¹ 총선 이후에도 진보정당운동은 지속되었으며 각종 집회와 노동



『민중의 소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20 수원연합의 창립 당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이관돌, 상임의장 도영호.

중집위원: 고정호, 이상호, 최근호, 임준섭, 이기원, 이용선, 허선, 하준태, 손태원, 박민선, 황상현, 이광재, 위광재, 홍성이, 한기운.

중앙위원: 차준미, 임미숙, 원현호, 김봉수, 박동우, 동준현, 정원민, 권영진, 홍진국, 이성호, 한은경.

감사: 송옥섭, 강효남.

대의원: 이가영, 임수빈, 전병일, 봉선미, 김현철, 이상국, 박민수, 임길례, 윤영경, 안은정, 박명순, 최형구, 오현직, 이선용, 이세호, 권성택, 홍인미, 유병규, 한동근, 박영철, 나미정, 최진아, 문정인, 오경숙, 임철훈, 김은영, 유문중, 김대권, 박윤정, 윤석천, 전효순, 정순옥, 이주영, 정형숙, 안재범, 장두석, 정영덕, 조종현, 안수진, 안미진, 김지영, 박기현, 이동기, 최희철, 박상준, 허봉행.

자문위원: 강효남, 김칠준, 김대권, 김승제, 권용택, 김정태, 박영진, 박현호, 서정문, 안제세, 염태영, 유용근, 전규일, 전영찬, 최준일, 황현섭, 허선.

21 당선자는 2만 3,842표(29.3%)를 얻은 민주자유당 김인영 후보였고 차점자는 2만 2,919표(28.2%)를 얻은 민주당 김정태 후보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통계시스템).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가 발간한 '참교육' 창간호(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조합 투쟁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을 각 부문별로 간략하게 보면 먼저 교사들의 민주화운동이 있다. 수원 지역에서 교사운동이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시작된 것은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수교협)가 매교동성당에서 창립된 1988년 9월 10일로 볼 수 있다.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가 창립되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1986년 5월 YMCA 중등교사회에서 민주화선언이 있는 후 1987년 9월 전국교사협의회가 창립되었고 그해 10월 경기교사협의회가 부천 산들교회에서 창립했으며 11월에 동서남북 네 지역으로 나누어 교사협의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원, 용인, 안양, 안성, 평택, 화성 등 남부 지역 교사 10여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학습 활동과 교육현장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회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주요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주요 활동

시기	활동 내용
1987년 12월 말	경기교협 주최의 교사 한마당 참석
1988년 5월 14일	남부교사협의회 주최로 교사 한마당 행사에 100여 명이 참석
1988년 5월 15일	경인교협 주최 놀이마당 참석
1988년 8월 16일	수원 지지대고개에서 남부 교사 놀이마당 행사 개최, 시군별 지역교사협의회를 창립 결의
1988년 9월 10일	수원 매교동성당에서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원교사협의회, 평택교사협의회, 화성교사협의회, 안성교사협의회 창립 ²²

22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참교육』 창간호, 1988년 10월 6일, 4쪽.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는 “① 각 학교 민주화에 힘쓸 것이다. ② 민주 교육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③ 교원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사립학교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 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철폐 되도록 힘쓸 것이다. ⑥ 바르고 참된 교육을 위해 학부모 단체와 계속적인 협조체계를 가질 것이다. ⑦ 교육의 전문성확립과 참교육 실천을 위해 교원의 연수와 수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소식지, 신문 등을 발행한다. ⑧ 수교협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경기교사협의회, 전국교사협의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²³는 8가지 역할을 밝히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는 창립 이후 학교별로 평교사회를 조직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대되어 나갔다. 평교사회는 교사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단위학교 민주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 틀이며, 지시일변도의 관료적 행정체계를 거부하고, 교사가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출발점이었다.²⁴ 『참교육』 3호에서 밝히고 있는 수원 지역 평교사회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수원 지역 평교사회 조직 현황

학 교	명 칭	창립일자	회원수	회장	교련탈퇴자수
이 목 중	교육발전연구회	9. 19.	29/43	김홍묵	37
수일여중	교사회	10. 27.	24/69	김석우	34
수원여고	교사협의회	11. 23.	25/90	정해준	13
동성여중	교사회	11. 26.	34/53	신승철	27
수원여중	교사회	12. 9.	25/54	최상찬	2
권 선 중	교육발전협의회	미창립	-	-	-

당시 활동하였던 각 학교의 평교사회 중 수일여중교사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신문은 각자 집에서 구독토록 한다. - 희망자에 한하여 구독기로 합의
- ② 학습지도안은 자율적으로 쓰고 검열은 받지 않는다. - 3월 말 검열 시 몇몇의 비회원 교사만 제출
- ③ 육성회 임원은 육성회에서 선출토록 한다. - 답입은 명단만 제출
- ④ 새마을 어머니회의 '새마을' 자는 빼도록 하고 선출방식은 육성회와 동일
- ⑤ 학생적금은 은행에서 직접 받아가도록 한다. - 농협 측의 선물(가위 등)을 거부하고 거부이유서 배포

23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참교육』 창간호, 1988년 10월, 6~7쪽.

24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참교육』 3호, 1988년 12월.

⑥ 자율학습은 학생 자율로 실시한다.²⁵

1989년 5월 4일 발행된 『참교육』 제6호에는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임원진 명단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표 4〉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임원진

직책	성명	직책	성명
회장	김홍묵(이목중)	편집실장	성대성(동성여중)
부회장	신승철(동성여중), 이순열(연무국교)	총무부장	곽재호(수일여중)
대의원의장	조찬용(영복여중)	조직부장	김병훈(권선중)
유치원위원회	김화영(지동국교)	교권부장	장순철 (수원여중)
초등위원회	안호준 (교색국교)	여성부장	황해성(서광학교)
사립위원회	미정	교육홍보부장	김경식(수일중)
사무국장	홍기석(수일여중)	문화부장	홍인미(동수원국교)

교사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조직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1989년 5월 28일 교원 임의단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좀 더 조직적인 교육민주화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참교육의 기치로 표방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하였다. 전교조 결성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면서 그해 12월 말 파면 170명, 해임 949명, 직권면직 393명, 정직 7명 등 총 1,517명의 교사가 징계 조치되었다.²⁶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는 전교조 창립에 따라 전교조 수원지부로 조직을 전환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전교조 탄압에 맞서 민주화운동 세력은 1989년 8월 5일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천을 위한 경기남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집회와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전교조 활동을 지원하였다. 참여단체는 경기남부민련(수원, 안양지부, 노동운동단체협의회),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수원, 안양, 안산 18개 노조), 수원지역야학연합회(제일야학, 샘터야학, 신갈야학), 학생(성대 외 7개 대학교), 도시목회자협의회, 정의평화실천목회자협의회, 민주교수협의회경기지부준비위원회, 수원민주시민실천협회준비위원회, 수원EYC, 평민련 수원지부 등이었다. 이날 발표된 결성선언문은 “전교조 사수하여 참교육을 실현하자!

25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참교육』 5호, 1989년 4월, 7쪽.

26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20년사』, 2009, 55쪽.

참교육 하자는데 파면 해임 웬말이나! 전교조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지키면 참교육, 못 지키면 노예교육! 전교조 사수하여 민주사회 앞당기자!”라는 구호로 마무리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이를 지키려는 민주화운동세력의 팽팽한 대립을 느낄 수 있는 구호이다.

문화부문의 민주화운동으로는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과 수원미술인협의회 활동이 있다. 1987년 6월항쟁 시기 수원 지역 문화운동의 역량은 취약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영역에 있어서 전국적 수준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었으며 특히 민주적, 민족적 문화운동은 거의 불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라는 채윤기의 표현은 자신이 참여하여 창립한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의 출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허사가 아니었다. 1981년 말에 해산한 ‘수원양서협동조합’ 활동 이후 민주화운동 사건과 단체 활동 기록을 보면 1986년 사회과학서점 탄압사건으로 아주대 앞 서점(대표 채윤기)과 니콜라스점(대표 황군자) 등 서점 두 곳이 탄압을 받았던 사건 이외에는 문화운동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 지역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해 나간 단체는 1987년 11월 28일 창립한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수문연, 초대회장 김쾌상)이다.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은 시각예술위원회, 공연예술위원회, 민족문학위원회 등 매체별 위원회를 기본 조직으로 하여 활동의 초점은 민중예술의 창조와 보급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예술적 전문기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즉 비전문인도 받아들여 활동을 시작하였다.²⁷

창립 이후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풍물교실, 수원시민 미술학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일야학, 성빈센트병원노조, 필립스전자노조, 수원의료원노조, 신호제지노조, 장안대, 한신대, 수기노, 경기노련 등에 풍물강습, 관화강습, 걸개 제작을 지원하면서 민족문화와 민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988년 2월 15일부터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신문을 발행하여 수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과 정보를 교류하였다.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신문 1호에는 1988년 1월 30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렸던 ‘명노열군 고문 규탄 수원시민결의대회’ (민주쟁취국민운동 경기수원본부 주최)에 대한 소식, 경기남부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 2월 5일 수원시 북수동 126-1번지 소재의 사무실로 입주하였다는 소식, 안양민요연구회가 개최하는 행사 소개, 민족미술인협회(민미협) 주최의 「민족미술 예쁜 그림」전 소개,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풍물교회 수강생 모집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27 채윤기,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의 활동과 전망」, 『백성』 제2호, 수문연, 1988.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백성』 창간호, 1988년 9월)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참여자의 작품 '집으로 가는 길'(『백성』 창간호, 1988년 9월)

3월 15일 발행된 2호에는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산하 '노태우집권 결사저지 투쟁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학살원흉 노태우 부정집권분쇄 국민대회'가 수원역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서 전개되었음을 소개하고 영동시장 내에 아리랑교회(담임전도사 서정문)가 3월 6일 창립예배를 가졌다는 소식, 3월 1일 동수원감리교회에서 열린 기념식과 강연회(강사는 강만길 고려대 교수)에 150여 명의 정치인, 목사, 운동단체 회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청년, 학생, 노인, 주부들까지 참여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1990년 4월부터는 『일구는 수문연, 피는 자주문화 수문연 소식』의 제호를 가진 회원용 회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신문보다는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소식지이지만 내용은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 회원의 날을 비롯한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단체와 전국 문화운동 관련 단체와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은 조직을 해소하고 1996년 1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수원지부로 전환하였다. 이런 변화 속에서 문화공간 삶터(대표 임준섭)가 1993년 11월 4일 창립하면서

전문 풍물굿패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삶터는 창립 이후 1995년 제1회 수원 시민통일한마당을 시작으로 수원 지역의 거의 모든 통일행사와 노동자투쟁 지원집회, 수원연합 등 연대조직의 총회와 수련회 등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면서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는 풍물굿패 삶터(대표 이성호)로 이름을 변경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과 인적 구성에서 겹치기도 하지만 수원미술인협의회(수미협, 초대 대표 최춘일, 사무국장 김영기)²⁸는 문화운동과 지역 민주화운동, 환경·시민운동에

28 2000년 이후 '수원민족미술협회' (대표 박일훈)로 개칭하여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문연 시각예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최춘일, 이주영, 이병렬, 김영기, 손문상 등은 전문성과 자기전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미술전문 동인 새벽’ (회장 이달훈, 총무 김영기)을 1989년 결성하고 창립전으로 「오늘 이 땅」이라는 전시회를 열어 수원 지역 젊은 미술인들을 결집시켜 나갔다. 새벽은 사회적 현실문제와 비판성을 가지고 작업을 전개하며 1990년에 제2회 정기전 「정치, 정치, 정치」를 열었다. 동인모임으로 1990년 광주 망월동 순례를 실시하였고, 안양에서 개최된 「우리들의 땅」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수원시민송년문화대잔치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91년 4월 20일 선화랑에서 수원미술인협의회 창립전을 열어 본격적인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매년 정기전과 함께 환경문제를 주제로 환경전을 개최하고, 미술이라는 매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자칫 경직되기 쉬운 각종 집회와 행사에 더 많은 감동과 재미를 만들어 주었다.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98년까지 수원미술인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표 5〉 1992~1998년 수원미술인협의회 임원

연도	대표	사무국장
1992	이주영	김영기
1993	주영광	박경수
1994	김영기	신경숙
1995	권용택	이오연
1996	권용택	이오연
1997	이오연	류승우
1998	이오연	류승우

마지막으로 수원 지역 청년운동을 보면 6월민주항쟁 전후 시기에는 수원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수원EYC)에 소속된 교회청년들이 주도해 나갔으나 1987년 이후 수원사랑민주청년회(수민청),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수원민청련) 등이 결성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기독교청년운동가들이 노동단체, 청년단체, 문화단체 등으로 진출하면서²⁹ 점차 수원사랑민주청년회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가 주도해 나가게 되었다. 청년단체 활동가들 또한 초기 단계에는 교회청년활동가나 학생운동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이 확대되면서 청년운동의 기반을

29 초기 기독교청년운동을 주도하였던 김대권은 노동단체로, 장용환은 청년단체로, 염태영은 환경단체로, 구본주는 문화단체로, 이재경은 여성단체로, 이상명은 시민단체로 각각 이전하면서 지역 민주화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소식지 『수원청년』 창간호(1989년 3월 23일)

넓혀 나갔다. 그런데 기독교청년운동은 목회자와 교회신도와 교회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므로 청년운동의 독자적인 목표와 활동기반을 구축해 나간 것은 수원사랑민주청년회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로 보아야 한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는 수원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민주적 소양을 기르고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였다. 대중사업으로는 민주교실 등 교실사업과 공연사업을 꼽을 수 있다. 교실사업은 청년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치·경제·통일·노동 등의 주제로 진행된 수원사랑민주교실, 예비대학

생·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푸른교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교실, 문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작가와의 만남 등이 있다. 특히 수원사랑민주교실은 수원사랑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시절부터 매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지속적 운영과 성과 속에서 1995년에는 수원사랑청년 문화학교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원 지역 일반청년들의 민주적 의식 함양에 일조하였으며, 수원사랑민주청년회 회원조직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는 통일운동 확산을 위해 1992년 통일노래공연을 개최하였다. 당시 수원 지역에서는 대규모 문화공연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그나마 대학축제 때만 대규모 공연이 진행되는 실정이었다. 당시 통일운동의 대중적 참여와 확산을 목표로 개최한 1992년 통일노래만마당 공연은 수원 지역 최초로 수많은 수원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통일이란 단어를 운동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의 활동을 보자.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초대의장 진해운, 해산 당시 의장 강효남)는 1989년 1월 13일에 창립하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의 창립은 수원사랑민주청년회보다 1년여가 뒤이지만 활동시기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 3월경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1월 20일 원일관지 파업투쟁 지지방문에 회원 5명이,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란토르코리아 파업투쟁 지지방문 및 규찰과 노래지도 활동에 준비위원장과 회원 4명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는 창립 이후 청년들을 모으고 교육하기 위한 청년강좌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청년강좌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삶과 인생관, 한국근현대 민중운동사, 통일운동과 전망, 1992년 대선에서의 민주정부수립 방안 등이었다.³⁰ 특히 이 강좌의 졸업여행은 광주순례로 되어 있어 청년들에게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성이 강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는 1992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본부가 발전적으로 해소한 뒤 해체되었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는 1998년 청년운동의 주요 활동방향을 자원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운동으로 설정하면서 한국청년연합회 수원지부(수원KYC)로 조직 명칭과 활동내용을 전환하면서 해산하였다. 1990년대 초 중반 수원 지역 청년운동을 주도하였던 두 단체의 해산과 전환 이후 통일사랑청년회, 새시대청년연대, 수원불교청년회, 팔달사청년회, 대승원청년회, 수원KYC 등 각 단체가 고유 활동방향을 유지하면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다.

30 수원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제3회 청년강좌(1992년 4월 14일-5월 15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871809).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1. 1980년대 수원 지역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의 사회인식
2.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운동
3.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4. 수대협과 경기남부총련 활동



제2장

1970~1990년대 수원의 학생운동

한국 학생운동은 식민지시기에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야학운동을 통한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고 독서회 활동이나 동맹휴학 등의 투쟁을 벌였다. 해방 후부터 1980년대 이전에는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운동과 남북통일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 학생운동은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즉 소수 학생운동가 중심의 비합법적인 사회체제 변혁운동이었던 학생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다수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기구(총학생회와 서클)와 매체(교지와 신문 등)를 통해 대중적인 합법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중심 주체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연대하여 다수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려는 목표를 가졌다.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촉발하고 이후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이 성장하여 수원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학생운동은 제일의 운동 동력이었으며, 각 부문운동에 활동가를 배출하여 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학생운동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으며, 학생운동을 통해 자각된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은 여

리 지역단체로 들어가 활동력을 증가시키고 지역단체들을 새로 결성하면서 지역 민주화 운동의 활동인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대한 인적 자원의 저수지였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 학생운동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사회변혁운동을 지향하려는 대학생들의 고민과 열정을 1980년 초반에 배포된 학생운동 유인물과 중반에 발간된 교지의 발간사를 통해 검토하고, 수원 지역 학생운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하 서울대 농대, 현재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학생운동을 소개하겠다.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서울대 농대는 1970년 이전까지 수원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면서 매우 활발하게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던 대학이다. 특히 일제하 민족운동의 흐름을 이어 가며, 농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학생운동 전 기간에 걸쳐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한신대와 경기대 학생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수원 지역 학생운동에서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나갔던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수대협)와 경기남부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경기남부총련)을 지역 연대활동 중심으로 소개한다. 경기남부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에는 수원뿐만 아니라 안산, 안양, 평택의 대학이 소속되었기에 수원 지역에서 진행된 활동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1987년에서 1998년까지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의 주류 학생운동 흐름과는 다르게 노동자, 도시빈민 등 소위 '민중' 생존권을 옹호하고 진보적 정당 건설을 주된 과제로 요구하였던 그룹의 활동을 소개한다.

1. 1980년대 수원 지역 학생운동 참여 대학생의 사회인식

4·19혁명과 한일회담 반대투쟁, 삼선개헌 반대투쟁, 유신체제 반대투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학생운동의 역할은 다른 부문운동과 비교하면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의 역할은 6월민주항쟁을 통해 확연하게 다시 한 번 드러났으며, 학생운동은 이후 10여 년의 평화적 권력교체기까지 민중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사회와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통일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시기 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던 대학생의 사회인식은 모순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성인의 책임감, 민중의 삶에서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다는 부채의식, 역사의 합법칙성을 믿으며 자신들이 꿈꾸는 새로운 이상사회 도래를 확신하는 강한 신념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었다. 대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수많은 이념서클을 통해서 대중들

1981. 11월 10일. 8대. 9월

학원 민주화를 벌인다는 수원형제에게

앞쪽과 정국이 강요되는 우리의 엄중한 시대상황에 우리 지성은
문제와 고충과 그해결을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왔다.

더욱 진리탐구와 사회혁신을 도내를로 하는 대학은 그 동안
학원의 민주화를 쟁취 하기 위하여 용무임처 왔던가?

이제 작년 5월 우리 5대 수원인의 과감한 돌진과 희생적인
합심 속에서 기쁘고 민중과 자유의 꽃을 피워냈다는 우리의 표어문
등장속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았던가?

보라
더욱 흔들려져 가는 팽배집단의 강요한 음모는 아침내 우리와
사위 지켜온 학원의 이름까지 왜곡 및 앞사키려한다 (한문가)
우리 수원형제는 이미 팽배집단과 그에관한 대판 승전후인
상성재판의 이종적음으로 막대한 희생물이 되버렸으며 거대한 수
원교복퇴농간에 돌아나는 학교영구와 수원평화노의 무분별한 학원
정책과 학원의 질을 향상시키게 보려는 한적규학대에인, 통학각
그동안 영리적독점 앞에 아전대적지 않은수 없다
그대수 수원학우여 우리는 도끼머했다가
학원내 강요된 청옥과 밤판독이 그로다 조장된 독감적인 오학동규이
결정에 걸려 우리더 벼락뚫 현실상황을 알라 한채 우리 국위를
찾아버렸던 순간의 기억은 없는가

이제 학교는 공포와 상호불신안이 만연하며 더욱더 그 자신의
이념마저 포기한채 그들이 뿌려 주는 마취성독약에 살이 썩는
고통아저 잊어 버린것은 아닌가

자 이제 우리 수원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작도 이차가는 현상속에서 선을 하는 우리 수원형제들의 깃털이
은 가슴을 기억해내야 한다.

그리고 오랜동안 수리를 외우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광교
과감히 뺏쳐나와 이론전별판에 우리의 오목과 비뚤을
씻어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학우여 이제도 늦지 않다. 우리는 주체하여 광교의 오목이

『학원민주화를 열망하는 수원형제에게』(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속에 진보적인 사상을 널리 전파하였다.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학교)에서의 접촉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미 틀을 증폭하고 확장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운동은 한편으로는 급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신성을 제공하면서 사회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81년 10월 6일과 11월 6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에 뿌려진 두 장의 유인물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하고 민주화운동으로 나서는 대학생의 사회인식을 볼 수 있다.

「학원민주화를 열망하는 수원형제에게」

암흑과 침묵에 강요되는 우리의 암울한 이 상황에 우리 지성은 문제의 고찰과 그 해결을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

자 이제 우리 수원은 잠에서 깨어야 한다. ……

학우여 이제 참고 참아 왔던 우리의 울분을 이 울전 벌판에 토해 보자. 그리고 소리쳐 외쳐 보자. 타도하자
팃쇼정권!! 쟁취하자 학원민주!!¹

「반파쇼 학원민주화 선언」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서클 및 학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 시대착오적 착상인 졸업정원제를 즉각 폐지하라.
- 파쇼 악법 폐지하라.
- 노동자 농민 권익을 쟁취하라.
- 전두환 파쇼집단은 민족 앞에 사죄하라.

타도 파쇼의 선봉 성균인 일동²

다음으로 「수원시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1983년 10월 29일 서울대 농대 민주학우 일동이란 명의로 함께 민주학우 장수원, 노광준 등의 실명이 적힌 유인물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민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전 정권의 민주, 정의, 복지는 이제 독재, 불의, 궁핍임에 다름 아닙니다. 민족의 평화와 진정한 정의사회의 실현, 그리고 국민의 복지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한 민주수호 투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피 끓는 민주학도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주의 만세!!!

1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민주학우일동, 「학원민주화를 열망하는 수원형제에게」, 198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067166).

2 성균인 일동, 「반파쇼 학원민주화 선언」, 198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080391).

우리의 주장

- 독재악법 철폐하라.
- 서민생활 보장하라.
- 정치해금 실시하라.
- 추곡수매가 인상하라.
- 부정부패 척결하라.
- 학원탄압 중지하라.
- 언론자유 보장하라.
- 전두환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어서 한신대 학생들이 발간한 교지의 발간사를 통해 1980년대 당시 대학생들이 갖고 있던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신념, 민중에 대한 애정과 헌신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저 찬란한 우리의 소망들이 이 땅 속속이 뿌리박는 그날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의 불길이 그치는 그날을 향하여 수많은 장벽을 뚫고 손을 잡아야 하리라. 우리의 분노와 울분이 환희와 승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향하여, 찢기우고 빼앗긴 사람들이 웃음으로, 웃음으로 얼싸안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모두의 싸움은 시작되어야 하리라.

민주여! 통일여! 오라! 비겁함도 없이 좌절도 없이 당신 앞에 모두가 겸허하게 자신을 던지게 하라.³

2. 서울대학교 농대 학생운동

서울대 농대 학생운동의 역사는 수원 지역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이다. 서울대 농대 학생운동사는 수원 지역 민족·민주화운동 역사와 곧바로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농대는 1960년대 당시 수원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었다. 그러므로 농촌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수원이나 화성 지역에서 문화적인 리더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 이러한 서구 문물은 농대를 통해 수원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카니발, 트위스트, 청바지 등 근대화 시절 젊은이의 문화 상징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현상은 농대에 가장 먼

3 한신대학교, 「민주주의여,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한신』, 1985.

저 들어와 농대를 통해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미식축구가 들어온 것도 농대를 통해서였는데 서울과의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수용이 얼마나 빨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⁴라는 글을 통해 서울대 농대의 역사, 특히 학생운동사와 지역 민주화운동사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서울대 농대의 학생운동사는 서울대 농대 100주년을 맞아 발간한 『농학교육 100년』 중에서 각 시기별로 정리된 학생운동사를 수원 지역 활동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 상록수정신을 이어받은 야학운동

서울대 농대의 야학운동은 1926년부터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절 서둔리와 고색리에 처음으로 ‘서둔야학’과 ‘고색야학’이 조직되었다. 서둔야학과 고색야학은 1926년 당시 조선농민사의 이성환 편집주간이 수원고등농림학교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조선농민사 수원지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농대생들의 야학운동은 더욱 활기를 띠어 1950년대 중반부터 서둔야학(서둔동), 화서야학(화서동), 탑일야학(탑동) 등을 시작으로, 1960년대 중반에는 고색1리와 고색2리의 고색야학, 평동야학(평동), 북문야학 등 6~7개의 야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1926년 김성원과 김찬도 등이 설립하여 1983년 폐교될 때까지 6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서둔야학은 농대생들의 상록정신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대표적인 야학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잠시 맥이 끊어진 서둔야학은 1954년 1월 31일 서둔교회에서 조직한 ‘성경구락부’에서 다시 출발되었다. 성경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된 성경구락부가 공민학교의 인가를 받아 서둔공민학교로 되면서 농대생들이 교사로 참여하여 별개의 야학교로 발전시킨 것이다. 1980년 전두환정권의 등장으로 탄압이 심해지며 모든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철저히 통제되고 야학을 위한 모임 또한 집회로 규정되어 금지가 된 상황에서도 교사들은 야학을 강행하며 끈기있게 운영하였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운영된 서둔야학은 1980년 2학기에 들어 농대 목장에서 서둔야학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전신주가 부러져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촛불 수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그해

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교육 100년』, 2006, 130쪽.



1970년대 서둔야학교 교사와 학생들(박덕원 제공)



서둔야학 졸업식(박덕원 제공)

11월 교사회의를 거쳐 폐교를 결정하였다. 그 후 1981년 최윤재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학생들을 모집하고 야학을 재개하였으나 학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맥을 잇지 못하다가 1983년 폐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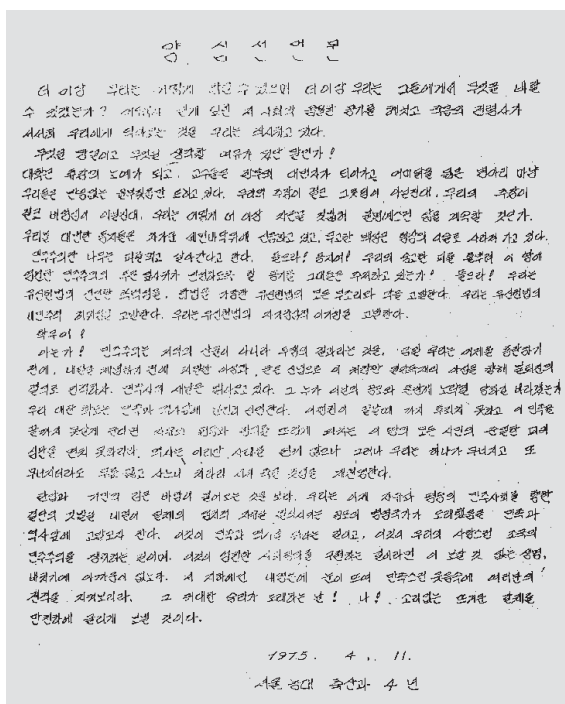
2) 유신시대에 맞선 김상진 열사

1975년 4월 11일 오전 11시, 수원의 서울대 농대 대강당 앞 잔디밭에서는 농대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 성토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성토대회는 4월 4일 농대의 제2차 비상총회 후 시위를 주동하다가 구속된 축산과 4학년 김명섭과 학생회장 황연수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975년 봄 전국의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보조를 같이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날 서울대 농대의 시국성토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11시 20분쯤 김상진이 세 번째 연사로 등장하였다. 신사복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던 그는 침착한 자세로, 그러나 정열적인 어조로 「양심선언문」을 읽어 나가다가 11시 30분쯤, 그는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라는 대목을 읽으며 품 안에서 20cm 길이의 과도를 꺼내 할복 자결하였다.

5월 22일 학생들은 장례식



김상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김상진 열사가 쓴 '양심선언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을 강행하였다. 교직원과 기관원들의 제지로 난투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장례 선언문」과 「반독재 선언문」을 낭독한 학생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500여 명이 스크림을 짜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곧 해산되었다. 이날 시위에는 민중가요로 유명한 「농민가」가 대중적으로 불리면서 전파되었다. 지금도 시위현장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농민가」는 농사단가이자 당시 농대 이념서클에서 자주 불리던 노래였다. 「농민가」의 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3,000만 국민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일어나 농민 형제와 새 역사를 함께 쓰자는 농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표출되어 있다.

3) 1980년대 학생운동

1980년 4월 11일 학원민주화투쟁과 함께 농대생들은 할복의거로 유신체제에 항거한 김상진 열사의 장례식을 치렀다. 할복의거 발생 만 5년이 지난 후에야 치러진 이날 장례식에는 농대 학생 전체가 참여하여 숭고한 청년 농학도의 우국충정의 정신을 기렸다. 4·11 추모식을 통해 계엄해제 요구와 함께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제기하였다. 그 후 농대는 적극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학생들은 농대만의 학생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것은 '농법 개정' 운동이었다. 농업 관련 법령들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지는 취지의 이 운동은 새 시대 농업 분야 운동에 서울대 농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983년 서울대 농대는 다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농대생들은 대외적으로는 학원의 자율화와 5·18광주민중항쟁 진상조사를, 대내적으로는 졸업정원제와 상대평가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펼쳐 나갔다. 1983년 10월 7일의 학내 시위에서는 5명의 학생이 제명되었고, 8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인 1984년, 농대생들은 학기초에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2학기 들어 학생회장을 제명하자 이를 계기로 학생들과 학교 당국 간의 충돌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농대생들의 투쟁은 1985년에도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신입 학생회를 구성하고 학원안정법 제정반대 등을 이슈로 집회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는 1986년까지 지속되었다.

4)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농대 이전투쟁

서울대 농대는 전대협과 한총련이 대대적으로 전개한 농활을 주도적으로 전담하였다. 아울러 농활을 대중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여 학생운동에서 농활이 큰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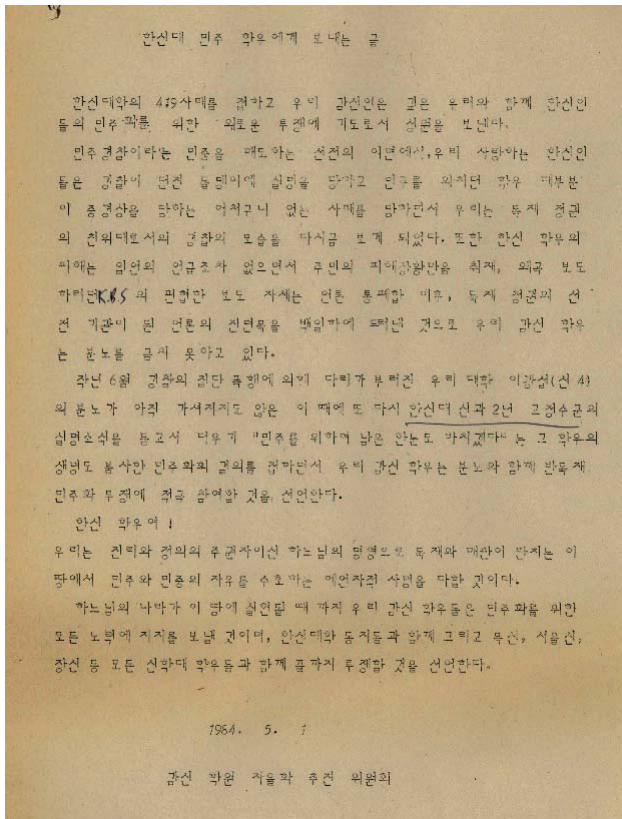
하게 하였다. 특히 1994년 전국 27개 농과 계열을 연합하여 ‘전국농학계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농대협)를 결성하고 주요 사업으로 북한의 원산농대와 교류사업을 하는 등 ‘통일 농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다른 대학과는 달리 어려운 시기에도 조직적인 농활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다.

한편 1990년대 전개된 농대 이전투쟁은 민족농업 혁신과 농업 사수, 농대 혁신의 3대 기치 아래 추진되었다. 1992년 대선을 계기로 각 정당의 후보를 초청하여 농업에 대한 대안과 농민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 등 미래와 전망에 대한 고민과 토론 끝에 농대 이전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1999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농대 이전투쟁을 시작하였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생들은 1992년 농대 이전투쟁의 경험을 살려 캠퍼스 이전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다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내에서는 이전의 합당성을 적극 알리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관악구청 인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이동투쟁을 전개하였다. 자전거 이동투쟁은 농대생들의 혁신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 결과물이었다. 학생회에서 주도한 이 투쟁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3시간여 동안 자전거를 타고 관악캠퍼스로 이동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또한 신속한 예산 집행과 건축허가를 촉구하며 교수들과 대학원생들까지 의지를 모아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 결과 마침내 1999년 12월 관악캠퍼스에 농생대 신축 교사가 착공되었고, 완공 후 2003년 8월 캠퍼스를 서울로 완전히 이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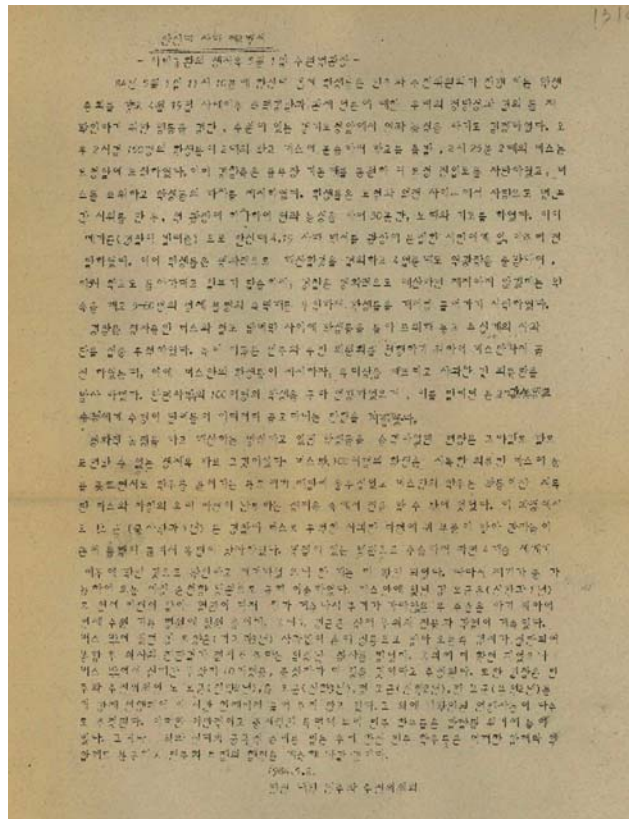
3. 한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학생운동

한신대학교는 1981년 병점캠퍼스 시대를 열면서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84년 개교기념일 행사 관련 시위운동, 1985년 11월 12일 수원노동부 사무실 점거 사건⁵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다. 1984년 개교기념일 시위운동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85년 11월 12일 전학련 중부지역평의회(민중민주 민족통일 헌법쟁취위원회) 소속으로 성균관대 수원배움터 김건성(21, 낙농과 4년 휴학) 등 11명, 서울대 농대 이영훈(22, 축산과 4년) 등 8명, 한신대 박찬호(21, 기독교육과 4년) 등 6명 모두 25명이 오전 11시 30분까지 인근 삼, 아름 다방 등에 분산 집합해 있다가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틈타 사무실을 점거하고 출입구를 책상, 서가 등으로 막고 농성에 들어가 ‘노동3권 보장하라’ 등 현수막을 창밖으로 내걸고 준비한 유인물 등을 뿌리고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985년 11월 12일 오후 2시 10분경, 경찰은 소방차를 동원하여 학생들이 점거한 2층 서무과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강제해산에 들어가 창밖으로 뛰어 내린 학생 25명을 모두 검거하여 연행하였다.



「한신대 민주 학우에게 보내는 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한신대 사대 제2백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1984년 5월 1일 한신대학 민주화추진위원회 학생총회에서 4·19사태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개최하였다.

〈표 1〉 1984년 한신대학교 개교기념일 시위운동 일지

일시	활동 내용
1984. 4. 19.	밤 8시 오산배움터에서 개교기념행사를 마치고 행진하던 50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의 최루탄과 돌 세례를 받음. 한신대 학생들 수십 명 부상자 생김.
1984. 4. 25.	오후 4시 30분경 한국방송이 취재하면서 주민들과 경찰의 피해만 조사해 학생들이 분노.
1984. 4. 29.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성명 「반폭력을 위한 성전」 발표
1984. 5. 1.	11시 10분 한신대학 민주화추진위원회 학생총회, 4·19사태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청 앞 연좌농성 결성
	오후 2시경 150명의 학생들이 2대의 학교버스에 분승하여 학교를 출발
1984. 5. 2.	오후 2시 25분 2대의 버스는 경기도청 앞에 도착, 몇 분간 평화집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경찰이 폭력배를 동원, 학생 등 100여 명을 구타 연행하고 일부 교수를 구타함.
	한신대학 민주화추진위원회 성명 「한신대 사대 제2백서」 발표



1987년 한신대학교 학생들의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쟁취투쟁(강석우 제공)



한신대학교 앞에 출동한 전투경찰(강석우 제공)

1987년 6월 민주항쟁 시기에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 여학생 3명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삭발을 하면서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⁶ 투쟁을 시작으로 각종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6 『동아일보』, 1987년 5월 16일.



시위 중 부상을 입은 한신대학교 학생(강석우 제공)



1989년 경기대학교 학생시위(경인일보사, 『경기군현대사진전』, 2010)

경기대학교의 학생운동은 사학비리 재단을 퇴진시키고 학원민주화를 이루려는 싸움이 주목을 받았다. 1985년부터 시작된 학원민주화투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학원민주화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1988~1990년 일지를 보면 당시의 치열한 갈등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표 2〉 경기대학교 학원민주화운동 일지

시기	내용
1988	7. 18. (수원)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총장실 점거
	7. 19. (수원) 학생대표 총장과 면담
	7. 21. 교수협의회 총장퇴진 권고, 재단 이사회 총장 직위해제
	7. 22. 김한주 총장 자진 사퇴표명
	7. 25. 우영섭 기획실장 총무직무 대행
	7. 26. 학생들 농성해제
	8. 27. 교수협의회 후임 총장후보 직접, 비밀선거로 정해운(법학과), 나민수(경제학과) 선출, 수원, 서울 총학생회 - 총장후보 선출 무효주장
	9. 9. (수원) 예비역연합회 발대식
	9. 19. 교수협의회 4차 평의회에서 9월 30일 이전에 선임할 것을 촉구
	9. 21. (수원) 예비역연합회 및 (서울) 학회장 일동 후임총장 선출 부당성 강조
	10. 20. (서울) 대의원회, (수원) 예비역연합회 총장후보 2인의 악력 및 비리 공표
	10. 23. 교수협의회 회장, 손종국 이사장과 만나 강경대응 통보
	11. 28.~12. 9. 총장후보 재선거 실시요구, (수원) 예비역연합회 총장실 점거 농성
	12. 7.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재단퇴진 요구하며 철야농성 돌입
	12. 9. 재단 이사회에서 나민수 총장 선임
1989	12. 20. 문교부 나민수 총장 승인
	1. 29. 나민수 총장 취임
	3. 13. 교수자녀 부정입학 진상조사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발족
	4. 12. (수원)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이하 학자투위) 정식 발족(위원장 권금택)
	5. 6. 수원, 서울 총학생회 손종국 이사장과 김한주 전 총장 기부금 관련 검찰고발
	5. 16. 서울, 수원 공동으로 국회감사권 발동을 위한 국회방문 투쟁, 박석무 의원 제기로 경기대 특별감사 문공위원회에서 결정
	5. 19.~6. 1. 문교부 특별 기강감사 실시
	6. 13.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학원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7. 31. 나민수 총장 면직 처분 - 박노우 총장서리 임명
	8. 31. 학생들 총무처 집기 끌어내고 무기한 점거
	9. 20. 수원지검 학내비리 수사 착수 - 총무처장 등 관계자 소환
	9. 21. 나민수 총장 명의 국민은행 등록계좌 신설, 민주납부투쟁 실시
	10. 11. 민주총장 사수와 사학비리 척결 경기, 세종 결의대회에서 운동부연합회가 집회방해
	10. 26. 교수총회 시한부 집단휴강 결의, 학생들 총장실 집기방화 및 각 처장실 집기파손 / 손종국 이사장 모의 장례식에서 운동부 연합회와 충돌
	11. 28.~29. 운동부연합회 70여 명 서울교정에서 폭력난동
1990	12. 15. 총파업 250일째 권금택 학자투위원장 연행구속
	2. 24. 경기대학교 졸업식날 학생들 150여 명 '재단이사진 퇴진' 주장하며 퇴장해, 졸업식 중단사태 발생
	7. 11. 서울교정에서 열린 박노우 총장 취임식에서 총장취임을 반대하는 학생과 운동부, 교직원 간의 몸싸움과 최루탄 투척 및 자해사건 발생
	8. 22. 학생들 재단이사진 퇴진과 직선총장선출을 주장하며 등록거부

4. 수대협과 경기남부총련 활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학생운동은 개별 학교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분산적으로 전개되거나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등 비공개 협의를 통해 학생운동가 중심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활동내용이 전달되다가, 집회나 거리시위, 가두투쟁 등을 통하여 조직 명칭이나 주장들이 공개되곤 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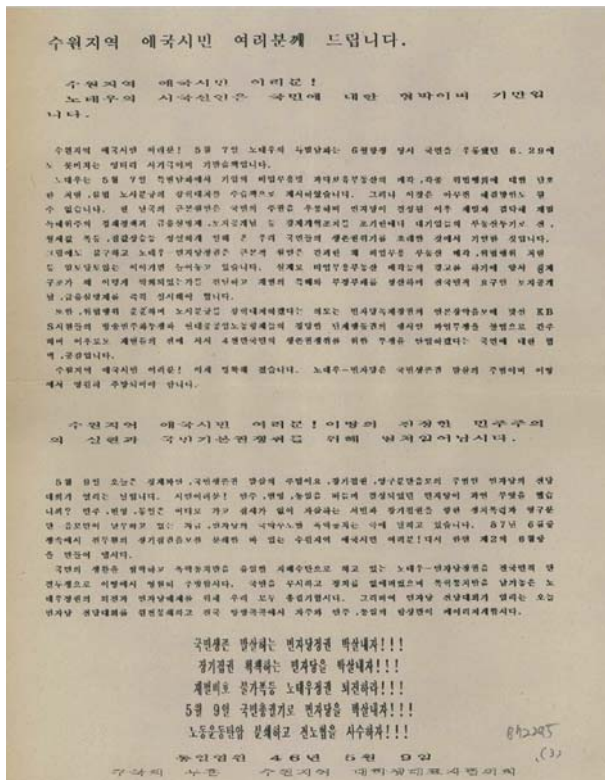
수원 지역 학생운동 또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투쟁위원회 명의로 집회나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1987년 가을 이후에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수대협) 명의로 유인물이 나왔다. 1986년 8월 15일 하오 7시 20분께 “헌법특위 분쇄하고 미일외세 축출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동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는 기습시위를 ‘민민투 수원지역 평의회’ 소속 한신대, 서울대 농대, 아주대, 성균관대 대학생 100여 명이 실행하였다.⁸ 또한 9월 26일 하오 7시 30분경 ‘아시안게임 반대를 위한 청년 학도투쟁위원회’ 소속 수원 지역 4개 대학생 50여 명이 화서동 서문로터리에서 햇불을 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애국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7 이상언, 『한국 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8, 283~284쪽 참조.

8 수원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 『수원 지역소식』 제2호, 1986년 8월 30일.



『수원지역 애국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고 10여 분 동안 가두시위를 벌였다.⁹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명의로 확인 가능한 유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배포된 것은 1987년 가을에 뿌려진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애국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다. 주요 내용은 노태우 당시 대선후보자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을 규탄하며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유인물에는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8개 대학 총학생회의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그 후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명의로 유인물에는 학교명이나 전화번호 등은 표기되지 않았고, 지역단체의 전화번호나 성금모금을 위한 통장계좌번호가 소개되곤 하였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의장은 정근우 서울대 농대 회장이었으며, 마지막 제6기 의장은 신윤관(한양대)이었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결성 이후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 낙선운동,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매년 8월 15일을 최고점으로 하는 통일운동을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해 나갔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한 농촌활동, 5월 전후로는 광주학살자 처벌투쟁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신두섭(용인성남지역조국통일특별위원장, 친구대 줄, 1988년 9월 7일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이내창(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1989년 8월 의문사), 강경대(명지대학교 학생, 1991년 4월 26일 시위도

9 수원지구기독청년협의회, 『수원 지역소식』 제3호, 1986년 9월 30일.

천만농민
단결하여
농민세상
이룩하자!

농촌활동

제 2 호

발행처: 영동군 농촌활동
농민·학생 공동추진위원회
발행일: 1988년 7월 5일

“덩기덕”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영동읍 장터서 농민학생 대동제 열려



농활 토막소식

*한신대가 농촌활동을 하고있는 용산면 한곡리에서 7월 2일 풍물패가 마당극을 공연하는 도중 비로 인해 분위기가 차갑 되었다. 이때,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마당극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풍물패 공연을 방해했다.

그러나, 마을청년들이 중심이되어, 장소를 창고로 옮기고 마당극을 마쳤다. 이후, 막걸리 등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

* 7월 3일 양강면 고림리에서 농촌활동을 하던 서울대 이천용군은 땅벌에 쏘여 병원에 입원하는 분상사가 일어났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농촌활동을 벌이는 영동읍에서는 마을이장이 농민들에 의해 할바받은 일이 있었다. 이장은 면담회 이장회의에서 결정을 사항에 따라, 학생들의 농촌활동을 일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며 이때, 얼마동안 전광덕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사람들이 이장의 독단적인 처사에 항의했던 것이다.

*한양대가 들어가 있는 삼천면에서는, 6월 30일 고당리에 갔던 농활대가 마을 이장님과 아주머니들의 「일거리가 없으니,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장소를 옮겨, 초강리에서 농촌활동을 하고있다. 고당리의 마을어른들이 학생들을 다시 부르려 했으나, 초강리의 일이 너무 바빠서 가지 못했다.

영동군 일대에서 농촌활동에 일하고 있는 수원지역 대학생들은 7월 4일(월) 영동장터를 맞아 영동시장에서 「농민·학생 대동제」를 열었다.

각 마을별 대학생 2인씩 참가하고, 영동군민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동제는 수원지역 대학생 풍물대연합의 주도하에 즐거운 한때를 함께했다.

대동제는 오전 9시 40분 진눈이를 시작으로, 마당극, 판굿, 민요 같이 부르기, 북춤으로 이어졌으며, 흥에 겨운 영동군민은 오후

1시가 넘도록 떠날줄 모르고 민요도 부르고, 춤도 추었다.

이날 공연된 마당극은 「충남 영동후계자 오한섭씨」의 이야기를 극화한 것으로 축산부농을 꿈꾸며 열심히 열심히 소를 키웠지만 수입개방 자유화로 소수입이 규제없이 이루어지자 소값은 개값만도 못해지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산더미 같아 이러한 정부의 농촌정책에 배반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농촌 현실을 그리고 있다.

마당극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사뭇 진지했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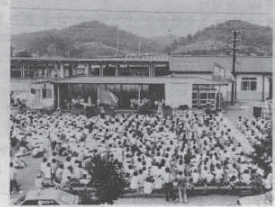
한편 대동제가 진행되고 있는 영동시장 주변에는 「수입개방」, 「의료보험」, 「정주학살」 등의 대자보가 붙어 있어 대동제에 참석한 농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수원지역 대학생 농촌활동 출정식 및 영동군 농촌활동 농민·학생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 가저

수원지역 대학생 1000여명은 6월 30일 오전 11시 「충북 영동군 일대로 농촌활동 출정식」을 서울농대에서 가졌다.

출정식에서는 농촌활동 준비 경과보고 및 각 대학 농촌활동추진위 장들을 소개, 농촌활동기간 중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권의를 다졌다.

당일 오후 3시 30분 충북 영동군 영동역에 도착한 학생들은 이 지역 농민들과 함께 「영동군 농촌활동 농민·학생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농민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날 발대식에서 농민·학생 공동 입장을 밝히고 「농민·학생들은 이땅의 진정한 주인을 실현하고 함께 싸워나갈것」과 이번 농촌활동이 「농민·학생 단결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발대식이 끝난 후 문화패의 풍물놀이로 순서를 모두 마치



고 오후 4시경 각 활동지역으로 출발했다.

절골리 공연 소개

문화선전대



8:30분경에 진눈이를 시작하여 30여분간 진눈이를 한후 잠시 공연 준비 시간을 가졌다. 이때 연세가 70여 되신 할아버지가 직접 판과리를 치시고 이 장면에 맞춰 풍물패의 한 여학생이 장구를 치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잠시후 사회자의 소개로 이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농촌활동대는 마을 어르신들께 큰 절로 인사를 올렸다. 이어 농활대 대표의 농촌활동의 목적에의 의의선명- 농촌활동을 통한 제향을 통하여 농민들의 아픔과 생활을 직접 느끼며 지금껏 학생과 농민 사이에 있었던 괴리감을 극복한다-와 풍물패의 인사로 공연이 시작 되었다.

공연 시작전 잠시 보여준 아동반 어린이들의 감성적 노래와 율동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잠시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는듯 하였다. 아동반의 노래와 율동이 끝난후 민요부르기 시간은 「밀양아리랑」 「용해야」 등을 모두 함께 손뼉치며 흥겹게 불렀으며 특히 할머니들이 흥겹게 노래 부르시며 즐거워 하셨다. 이어 사회자의 설명 - 즉방을 즐기는 백제시대부터 유래한 우리 고유의 놀이로서 조선시대 보부

상들에 의해 즐겨 행해졌으며, 조선말 일제의 침탈로 보부상들이 모습을 감추고 우리들의 곁에서 사라짐-과 함께 시작된 즉방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주위를 집중시키고 환호성을 자아 내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는 속에 농촌의 의료보험제도의 부당성-특히 조합주의의 부당성-의 폭로와 해결방안(통합주의) 모색을 내용으로 하는 마당극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풍채스럽게 공연 되었다. 마당극 공연이 끝나자 무렵 막걸리 술잔이 들고 공연이 끝난후 풍물패의 사물놀이로 흥을 더욱 높였다. 이런 흥겨움속에 주민들과 학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어깨춤을 추며 한탄, 출판을 벌였다.

이렇게 진행된 절골리 문화대 공연은 40여분의 주민들과 30여어린이들,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농민과 학생이 하나 될 수 있음을 확신 시켜준 장이었다고 생각한다.

중 사망)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은 학생들을 위한 투쟁을 독재정권 타도투쟁과 결합하여 전개하였다.

1988년 4월 총선에서는 '수원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민주연합'을 수기노, 수원민주분화운동연합(수문연), 수원EYC 등과 연대하여 결성하여 민정당 후보 낙선운동을 진행하였다. 1990년 5월에는 9일에 개최되는 민자당 전당대회를 맞아 「수원 지역 애국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991년 5월에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수원역에서 ‘광주항쟁 계승과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 제2차 국민대회’를 주도하였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생존권 확보와 지원 투쟁에도 적극 나섰다.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장례식 투쟁(1991년 5월)을 비롯하여 파업 중인 노동조합 지지방문과 회사 측이 고용한 구사대의 폭력으로부터 노조원을 보호하는 규찰활동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노동자와 연대하였다.

농민과의 연대를 위해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매년 봄, 여름, 가을 세 차례 농활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여름농활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1988년 여름 농활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실시하였다. 수원 지역 대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한 농활기간에 3회의 신문을 발행하며 각 학교별, 마을별 활동소식을 공유하였다. 「밀려오는 외국 농축산물에 죽어 가는 우리 농민」(2호), 「제5공화국을 다시 생각한다」(2호), 「농민운동이란」(3호), 「광주학살은 비인간적 반민족적 범행」(3호) 등의 내용으로 참가한 학생과 농활지역 농민들에게 광주학살의 진상과 농민문제의 본질 등을 알렸다. 농촌활동을 추진하는 방식도 학생회와 농민회에서 농촌활동공동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도록 하여 상호 협력하며 배워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1988년 여름 농활의 학생 측 공동의장은 서울대 농대 학생회장인 이형규가 맡았다.¹⁰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결성과 함께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경기남부총련)으로 발전한다. 발전이라 표현하는 것은 대표자들의 협의체에서 각 대학의 단과대학이 연대사업의 주체로 나서고 학문적 특수성에 기초한 단대 간 계열연대체제와 이를 전체 학생회의 연대 역량으로 모아 나가고, 단대가 학간 연대의 책임 단위(단대장이 대의원으로)로 보장될 수 있는 총학생회 연합이기 때문이다.

10 영동군 농촌활동 농민학생공동추진위원회, 『농촌활동』 2호, 1988년 7월 7일; 영동군 농촌활동 농민학생공동추진위원회, 『농촌활동』 3호, 1988년 7월 8일.



1991년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남부지구 통일한마당(강석우 제공)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 의장 김재용 수배
충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남총련) 의장 오창규 검거경
남총련 전·노 체포경시대 대질 나문희 검거경
5월 31일 새벽 3시에 연세대, 고려대 학원침탈

김영삼 정권의 폭력을 폭로합니다.
 25년 광주학살의 진배우변인 안두희가 노태우의 구속처분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연희봉으로 가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난사하고 군용을 쏘는 등 폭리적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명 인하여 나니는 한 학우는 전쟁 놀의 무차별적인 군용세례의 폭력에 살피며 4대나 가지고 제인 배에 의하여 제에는 구멍이 들어 지를 사를 해라고 있으며, 사를 놓아 한 학우는 직격피탄을 맞아 신명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수한 학생들이 조직화투입의 군용에 의하여 피습음에도 불구하고 인명과 인명에게서는 적정함이 부당당한 것만 보더라도 학생 놀의 직격피탄에 맞아 살피며가 나가고 눈에 맞아 신명탈 위기에 처한 상황들은 알 리지 않고 학생유상을 좌정폭력으로 때리고 TV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폭력과 모습의 일방만을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개혁의 의지가 없습니다.
 한총련과 100년 청년학생들은 5월을 맞이하여 13년째 광주에서 무차별적인 학살 을 지명되었던 국안장도한 살인사건에 대해 구속처분을 온 국민들과 함께 강력심판에 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대안은 역시가 없었기 때문, 상대적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총련의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부에게 5월간 국민들의 요구를 서명운동과 제에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요구하였 는데 한총련 출범식을 맞이하여 공안대를 동원한 살인적으로 노골의 학살을 일삼고 자학음으로 정변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출범식이후 한총련 학생을 비롯한 청년학생들 이 대한 수배령을 내렸는데, 이는 5.18진상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드러나지는 것을 두려워한 김영삼 정권이 의상규명, 책임자 처벌의 본질적인 해결을 회피하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때맞춘 민주실현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5.18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총련에 대한 대안을 통하여 자신들의 민주적인 개혁 의 본질이 불충하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는 학생들을 정죄함과 동시에 자신들 대안을 채택 하고, 이를테면이던 폭도하여 학생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만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노선입니다. 나시 발아 김영삼정권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확신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들의 민주적 개혁의식을 불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은 어떠한 개혁도 뒤 주실현도 이루어하지는 것이 아니, 어떤 국제적과 일하는 것은, 한 정부는 국민을 계속적으로 청년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지명된이던 청년학생들은 한 정부는 국민을 계속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안전시키는 것으로 인 양하고 부당한 것만을 정변에 앞뒤니 다.

성사! 6.12판문점 회담 실현! 조국통일

경기남부지구 총학생회 연합
 (한선대, 경거대, 청군대, 대선대, 중원대,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 아주대, 숙원대)

1993년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의 6·12판문점 회담 실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또한 미가입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경기 남부 청년학생들과 연대의지를 표명하고 참여하였다. 부문계열을 포괄하는 조직사업 담당 부서를 만들고, 이 부서의 주체들이 각급 단위 부문계열 조직의 정책 주체 혹은 간사와 일정한 연대활동을 수행해 나가며 부문계열의 요구가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의 골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나갔다. 그리고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의 사업이 진행될 시 총련 사업공간에서 부문계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하였다.¹¹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은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시기와 비교해 보면 조직 체계와 활동력에서도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사무국과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지주소 위원회, 선전국, 투쟁국, 전문대사업국, 문화국 등 각 분야별로 실무활동 인력을 배치하며 활동해 나갔다. 출범 첫해인 1993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진행된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보면 3~4월에는 주요 과제로 학생회 출범, 교육재정 확보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 팀스피리트훈련 반대투쟁과 통일일꾼전진대회, 경기남부연합과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등을 설정하였다. 5~6월에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청년학생 집중투쟁, 봄농활, 백만 학도의 결집체인 한총련 출범식, 대동제와 5월 투쟁을, 7~8월에는 조국통일 투쟁, 방학 중 간부교육, 농활을 설정하고 있다. 9~11월에는 정기국회를 고리로 한 민생민권투쟁과 민중연대투쟁을, 12~2월에는 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은 출범과 함께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투쟁(1993년), 쌀 및 기초농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1994년),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운동(1994~1995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1996~1997년),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투쟁(1993~1998년), 지방자치제 선거지원투쟁(1995년), 총선에서의 전국연합 지지후보 당선운동(1996년)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들 주류적 흐름과는 다른 지향을 가진 학생운동 그룹의 활동도 있었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 즉 주류적 학생운동이 통일운동과 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였다면 이들 소수파의 활동은 노동자와 빈민 등 억압받는 약한 자들의 삶을 지지하고 이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려는 활동에 집중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과의 연대보다는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였다. 이들의 학생운동은 1987년 6월민중항쟁 이후부터 대표적 운동조직 없이 ‘총선 민중후보 지원과 민중진영 독자정당 지지 선거투쟁연합’(선투련, 1992년 1월 발족),

11 한양대학교 안산배움터, 『'92 하반기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대회자료집(1992년 9월 18~19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전국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진보학생연합’(진학련), ‘한국적 사회주의를 위한 전국학생정치연대’(전학정련), ‘진보학생정치연합’(진학청련), ‘수도권 민중회의 학생위원회’(수민학위) 등을 구성하며 활동해 나갔다.¹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수와 수원 지역 학생운동도 여러 조직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도시빈민, 철거민과 노점상 등 민중 지원투쟁에 집중하였다. 또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백기완 후보 지지를 시작으로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자계급 혹은 민중의 독자적 정당과 후보출마운동을 전개하며 계급정당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이 통일운동에 집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통일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찍부터 일부 그룹들은 북한에 대해 봉건적, 반민중적 정권임을 비판하며 주류계 학생운동 진영과 대립하였다.

경희대 학생연대, 서울대 농수의대 새날, 수원대 학생연대(추) 등 3개 조직이 참여한 ‘104주년 세계 노동절 투쟁을 위한 노동, 연대, 투쟁 수원 지역 청년학생 연석회의’는 ‘청년학생 제3자 개입을 선언합니다’라는 유인물에서 김영삼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와의 연대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노동자이며 사회진보의 일꾼이 되어야 할 청년학생, 우리들은 이제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 민중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제3자 개입을 선언합니다. 1994년 봄,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모아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논리를 깨뜨리고 노동하는 인간들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청년들의 몸짓이 물결칠 것이다.¹³

1995년 봄에 뿌려진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학생연대 서울·수원추진위원회’가 작성한 「한판 붙어보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은 3월 8일 분신한 노점상 최정환과 같은 달 16일에 분신한 철거민 박균백의 사연을 소개하며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면서 “노동자 민중연대 투쟁으로 민중생존 압살하는 김영삼정권 박살내자.”라는 구호로 끝을 맺고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민중후보 백기완을 지지하였던 소수와 학생운동 진영은 이후 줄기차게 독자적 민중세력의 정당 건설을 위해 매진하였다. 건설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차

12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476쪽.

13 104주년세계노동절투쟁을위한노동·연대·투쟁수원지역청년학생연석회의, 「청년 학생 제3자 개입을 선언합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125476).

비(非)국가학생회연대, 대중운동의 실물적 구축으로 21C를 예비하는 학생운동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시작하자.

학생운동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한 방안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 ^{비국학생회}정전과 사생, 치열한 학생시정 논의하자. 또한 가운데서 정파적색을 극복하자.

1. 혁신을 운운하는 세력은 있으며 진정으로 혁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력은 사라진 시대

그럼시는 '위기관'였지만 지나갔는데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했다. 학생운동의 위기를 고민하는 사람부터 위기의 현재적 모습은 '전대협-한총련 11년의 역사'가 일가에 물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요, 이를 대체 할 학생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나 '새로움을 트리트드 마트인'을 운운하는 운동세력은 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그들 자신의 근지에서 주워올린 형이상학적 관념적 학을 되뇌일 뿐이다. 아니려니한 것은 혁신의 내용은 이렇듯 단일하게 구성되어있어도 그 실내용은 언제나 '해아될 것' 정도로써 치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거쳐 '혁신을 운운하는 세력은 있으며 혁신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세력이 사라진 시대'라고 규정한다한들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언젠가 「한겨레21」에 마광수교수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쓴 것을 기억한 다.

“제우면서 달아간다고들 하는데 학생운동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피소와 싸우면서 그와 동일한 질서를 구축하고 그와 싸웠던 학생들이 지금 보이는 '포력성, 비민주성, 전두적인 조직형태' 등은 결코 학생운동이 잃지 않아야 할 것을 달아버렸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혹여나 우리는 그러한 학생운동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만 좋겠지만, 그런 길조차도 학생운동내에 구축되어진 세력관계속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현재에서 '새로움'을 운운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학생운동의 재구성성에 관한 말들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관념의 소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글이 가지는 의의는 단지 주장으로써가 아니라 현실의 실천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현실의 학생운동의 세력관계속에서 일정한 개입과 더 나아가서 두정을 하고자 함이다.

하기에 새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움을 실천하지 않는자가 있다면 또는 혁신이란 담론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대중과 유리된 그들의 정수를 - 아무리 이름 정지라 미화한다고 하더라도 정수에 다름 아니다 - 일삼는 자가 있다면 단호히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

좀 심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행동모색이 불가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널리 심대해지고 있는 위기의 학생을 건다나 못해 그것을 우회하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하나의 마력자의 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현시기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심대없이 매우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는 '학생운동 혁신의 방향성'을 가능한 수순내에서 최대한 정초해내고 이에 입각해 당장에 상급적인 행동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과 실천을 모아내는 것이다.

이글은 기간 한총련운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운동의 재구성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가급적 한총련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글의 소서는 '첫째, 개략적인 정세분석 둘째, 기간 학생운동에 대한 평가 셋째, 현재적으로 학생운동에게 요구되는바 넷째, 학생운동의 재구성을 위한 방향의 순으로 서술되어있다.

1998년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제정한 새로운 학생운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소장)

이로 분립과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좌파진영의 단결을 호소하며 연대체를 형성하면서 지난한 과정을 보내 왔다. 1992년 제14대 총선을 통해 민중당이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민중당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참여를 유보하는 그룹도 있었다. 199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원 지역의 민중민주 학우일동' 명의의 유인물은 「4천만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 지인 독점 자본가 권력 민자당 파쇼정권에 대한 대대적 정치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파쇼 권력 타도, 민중권력 수립의 깃발을 내걸자!!!」라는 긴 제목을 달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현재의 민중당은 노동계급의 전위 부대로서의, 전체 변혁운동의 전위 그룹으로서의 당과는 질을 달리하는 것이다.”라며 기존의 민중당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할 정당은 “민중당과는 다른 건설 방식을, 다른 계급적, 정치적 내용을 가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주류계 학생운동 진영은 연호를 ‘통일염원 ○○년’으로 표기하지만 이들 학생운동 진영은 ‘광주민중항쟁 ○○년’으로 쓰는 것도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인식과 운동의 목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수원 지역에서 소수와 학생운동세력은 상대적으로 수원대학교가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이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어느 대학보다 이들 진영의 총학생회장이 많이 당선되었다. 김태균(1989년)과 안병주(1992년) 등이 소수와 학생운동 진영의 총학생회장이었다. 1998년 수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비국가 학생회연대, 대중운동의 실물적 구축으로 21C를 예비하는 학생운동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학생회로 제한되지 않는 대중운동 단위의 독자적 질서 구축과 학생의 직접행동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며 새로운 학생운동의 시작을 제안하였다.



이창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1. 대학생 · 종교인과 노동자
2. 노동운동단체의 태동과 수원 지역 노동운동
3. 전국적 연대조직의 탄생 _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제3장

1980~1990년대 수원의 노동운동

해방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 속에서 수원 지역 노동운동을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원은 삼성 같은 대공장이 존재했지만 비교적 안정되고 치밀하게 통제된 노무체제로 노동운동의 싹이 생성되기 어려웠다. 그리고 울산이나 마산처럼 공단이 밀집된 지역도 아니었다. 수원 지역 노동운동의 의미 있는 흐름은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투쟁을 거치면서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교류와 연대에 밑바탕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루는 수원 지역 노동운동은 1980년대 이후 노동자 운동의 주체형성 과정과 주요 행위자 그룹의 활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수원 지역 노동운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상호연관 속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초기 종교인과 학생과 노동자의 교류 속에서 형성되는 낮은 차원의 연대이다. 둘째, 운동가 또는 운동 조직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선진적 노동자들이 형성되는 하나의 흐름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 정도에 따라 자주적 대중조직과 연대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첫 번째 흐름에서는 야학에 참여한 학생들과 개혁적인 종교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두 번째 시기는 학생

출신 현장 활동가와 운동조직의 역할이 주요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노동조합의 자립 능력과 자활 능력이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자주적인 역할이 높아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 글은 1987년부터 1999년까지를 주된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노동운동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노동운동의 대폭발과 노동운동 지형의 변화기로 1987년 여름에서 1989년까지의 기간이다. 제2기는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좌절의 시기로 1990년에서 1995년까지이다. 제3기는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때로서 1995년 이후가 해당된다.¹ 이 글은 민주화운동이라는 넓은 범주 속에서 독자성을 가진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세 시기 수월 지역 노동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학생·종교인과 노동자

박정희 개발독재체제와 유신체제에서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고 개혁적인 종교계의 지원을 받았다. 197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았다. 또한 반공과 분단이 남긴 상흔으로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안보국가와 발전국가체제 아래에서 일체의 정부 비판과 권리 주장은 좌익으로 치부되었다. 배제적인 국가조합주의 노동통제는 노동자들이 공식적인 노동조합 조직(한국노총) 외부에서 출구를 찾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민 곳은 종교계였다.

교회조직은 1970년대 노동운동의 발전에 몇 가지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도 진보적인 교회들은 노동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문제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피난처와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간헐적인 시위가 아니라 자주적 노동조합(노조) 결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도왔다. 교회가 후원하는 소집단 활동가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은 그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라고 배웠다.² 1970년대 초반부터 도시산업선교회나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한 노동자와 기층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노조의 제도적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1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 배규식·조성재,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

2 구해근 저, 신광영 옮김,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151~152쪽.

결과 이들이 조직한 노조는 회사 지배적인 노조와 한국노총에 대항하면서 국가에 의해 조직된 공식적인 노조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³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종교기관과 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이었다. 1970년 11월 전태일의 분신은 단순히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문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야학을 통해 노동자를 의식화하려는 시도들도 나타난다. 이것이 1975년경부터 등장한 노동야학이었다. 노동야학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부터 일부 학생운동가들 사이에서 제기된 현장론과도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 야학은 학생이 노동자와 만남을 통해 현장감을 익히고 현장 이전을 준비하는 장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노동야학은 1970년대 후반에 급속히 확대된다. 초보적인 노동교육 학습이 이루어졌지만 대학생과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에게 배우고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에서 상호 의식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부 노동야학에서는 졸업 후 정기적인 후속모임을 시도하였고 성공적인 곳에서는 소모임이 잘 운영되면서 의식이 뛰어난 노동자가 배출되기도 하였다. 노동야학 중에서는 민주노조와 연결을 가지며 조합의 역량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곳도 있었다. 1980년에는 야학협의회가 결성되어 야학의 방향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공동 교재편찬도 시도되었다.⁴

수원 지역의 화홍야학과 제일야학이 이런 흐름에 해당한다. 화홍야학에서 활동했던 염태영은 “화홍야학은 수원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들었는데,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수업과 함께 사회현실에 눈뜨게 하는 교육도 함께 하였다.”고 말한다. 당시 수원에는 서울대 농대와 아주대 그리고 간호전문학교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서울 소재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1982년부터 시위로 지명수배를 받은 교사들이 늘면서 1983년에는 한꺼번에 서너 명이 수배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1983년을 전후로 화홍야학은 수원경찰서 정보과가 주목하는 ‘불순단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노동야학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른바 ‘야학연합회사건’)도 강화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야학문제대책위원회는 이를 “민주적 야학운동을 좌경사회주의운동으로 매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당국이 불법장기연금과 폭력 수사로 만들어 낸 관제사회주의 조작사건”으로 규탄(1983년 12월 11일)하였다.

수원 지역의 종교계도 사회문제와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980년대 초반 수원YMCA는 동아리 모임(탈춤반과 기타반 등)을 통해 민중문화를 고취하고, 수원지구기독교

3 홍현영, 「도시산업선교회와 1970년대 노동운동」,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375쪽.

4 한국기독교산업개발연구원, 1988, 182쪽.



제일야학(수원제일평생학교 소장)



화홍야학(<http://blog.daum.net/lovesuwon/756>)

청년협의회(수원EYC)가 창립(1984년)되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소속된 동수원감리교회 등은 1986년 7월 29일에 KBS TV시청료거부가 두캠페인 활동, 노점상 김유태 분신사건⁵ 대응활동을 전개하며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

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일상적 지원이나 결합과는 거리가 있었다.

지역 노동운동과의 결합은 오히려 대학을 다닌(타 지역이나 수원 지역의 대학)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었다. 대학생들은 유신체제기 산업화의 그늘을 목도하면서 1970년대 내부논쟁(현장준비론, 정치투쟁우위론)을 치열하게 전개했고 여기에 더해 1980년 5·18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노학연대를 주요한 전략으로 삼게 되면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부는 대학을 중퇴했고, 일부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또 일부는 불법적인 반정부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제적당하였다. 1983년부터 1986년 사이 한 해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갔다. 일례로 수원 지역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참여했던 유덕화의 경험은 당대 학생운동가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수원에서 나고 자란 유덕화 씨는 83년 대학(수원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총여학생회의 전신이 된 여성위원회를 건설하였다. 85년 학내 교수의 여학생 성추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덕화 씨는 오랜 단식투쟁까지 벌여내며, 문제가 된 3명의 교수를 학교에서 끌어냈고 자신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 그 후 유 후보는 바로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4년여간 노동현장에 투신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주도해 공안당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장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후보는 경찰에 수배를 받았고 결국 구속을 당하였다. 그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4년여간 노동현장에 투신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주도해 공안당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사업장(수원 한일전장)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 후보는 경찰에 수배를 받았고 결국 구속을 당하였다. 이렇게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제적과 구속으로 10여 년을 보낸 그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당의 필요성을 항상 절실하게 느꼈다.”며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민중들에게 권력이 있었다면 박태순이 그렇게 의문사를 당했겠느냐.”며 옛 동료의 의문스런 죽음도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들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⁶

학생 출신 노동자들은 고달픈 공장생활에 적응하고 동료 노동자들에게 진실하고 신뢰

5 1986년 12월 16일 오후 1시경 남문 신한은행 앞에서 화장지를 팔던 김유태가 수원시청 단속반원에 의해 장사를 못하게 되자 시청 위민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거듭 시장경비에 쫓겨나고 항의를 위해 시청을 찾아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4시 30분경 위민실에서 분신하였다. 수원도립병원에 입원한 김유태(당시 27세)는 끝내 사망하였다. 경기지구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NCC 수원지역인권위원회 등 12개 종교단체는 「분신 노점상 김유태 씨를 위한 기도회 봉쇄 및 폭력고문 사건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6 「유덕화 한국정치에 나서다」, 『오마이뉴스』, 2004년 3월 9일.



『노동운동가 박태순 동지 추모비』(http://blog.naver.com/go_hanshin/110169381130)

할 수 있는 동료로 인정받기 위해서 힘든 적응의 시기를 거쳐야 했다. 그런 다음 학습과 토론, 여가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계급 정체성과 계급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모아 소그룹을 조직하였다. 1980년대 전반부에 경인 지역에서 약 2,000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여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⁷ 대체로 전두환정권 초기에는 개별 기업에서의 기초작업을 강조한 소그룹

운동노선이 우위를 차지하였다면, 이후에는 생산지 지역 수준에서 노동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정권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정치투쟁을 도모하였다. 일명 ‘학출’이라고 불린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 지역 종교단체 또는 노동운동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학생운동 출신들의 노동현장 투신이 노동운동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다. 다만, 이들이 견지했던 민중에 대한 애정과 헌신은 폄하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장 투신 과정에서 많은 학출 활동가들은 구속과 수배, 고문과 투옥을 경험하였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다. 일례로 박태순은 한신대 재학 중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1991년 8월 2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⁸ 박태순의 추모비와 추모 시비는 그가 다녔던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한신대 학생회관 앞에 있다.

7 구해근 저, 신광영 옮김,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160~161쪽.

8 1985년 3월 한신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후 재학 중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권익을 위한 민중운동을 지향하는 언더서클에 가입하여 각종 시위 등에 참가하였다. 1989년 5월 20일 수원지검 점거농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출감 후 1991년 2월 19일 군 입대 영장의 수취를 거부하였다(1992년에도 입영거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다시 위장취업을 하였으나 신분계약으로 노조 설립 등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병역기피와 비합법 조직운동 참여로 공안기관의 미행과 감시를 심하게 받게 되었다. 공안기관에 의해 추적당하던 중 1992년 8월 29일 부천시 수영기계에서 퇴근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박태순은 1992년 8월 29일 당시 시흥역 내 열차사고 사망자의 지문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고 박태순의 시신은 신원불명의 번사자로 분류되어 가매장된 후 용미리 무연고자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다가 2002년 마석모란공원민주열사묘역으로 다시 안장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clemo.or.kr/site/notification/event/1065>).

2. 노동운동단체의 태동과 수원 지역 노동운동

1987년 노동자투쟁을 전후로 하여 합법적인 노동자대중단체가 만들어지는 한편, 지역 간 연대활동을 통해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경기노련)과 같은 조합연대조직이 결성되었다. 경수지역노동자연합(경수노련) 출신들이 주축이 된 경기남부노동운동단체협의회(경기남부노동협)와 수원노동상담소, 용인기흥노동상담소와 자주계열 성향의 한국기독노동자 수원지역연맹(수기노 : 이후 수원민주노동자회로 개칭), PD성향의 수원노동교육연구소 등의 대중운동단체들이 개별적·집단적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이다.

초기에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의의 주축이었고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파였다. 원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는 “전국적이며 공개적인 상설공동투쟁체, 민주노조운동을 지원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보다 한발 앞서가는 자주적 공동체, 노동운동단체의 전국적 단일대오의 과도기적 형태”를 목표로 노동운동단체가 정파를 초월하여 1988년 6월 7일에 결성한 단체이다.⁹ 민족민주운동의 상설공동투쟁체 건설을 제안하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1989년 1월 21일)을 창설하는 데 기여하였고, 나아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회의의 모태가 된 ‘지역업종전국회의’(전국회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1988년 11월 13일 개최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이나 전국사업장에 실무집행력을 파견할 만큼의 의식과 조직 역량을 갖춘 노동조합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¹⁰ 전국투본과 지역투본은 거의 모든 실무집행력을 전적으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전국적으로 13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실무집행력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의가 거의 전적으로 감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¹

경기도와 수원에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경수지역노동자연합은 1991년 3월 14일 경기

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회의를 결성하는 데는 1987년부터 형성되는 노동운동의 세 가지 흐름이 바탕이 되었다. 하나는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노동자위원회’(국본노위)의 결성과 활동, 1987년 대통령선거 시기의 수도권 지역 중심의 ‘노동자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의 활동과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수도권노동운동협의회’의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1988년 초 현대엔진투쟁을 계기로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공동대책협의회’(전국공대협) 결성에 참여하고 전국노운협을 결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253~254쪽).

10 전국노동조합협의회회의가 창립되던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회 상근 활동가는 총 44명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각 지역노조협의회회의의 상근 활동가 수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95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회의 해산 당시 지역노조협의회회의 전체 상근 활동가 총수가 79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상근활동가 현황에 대해서는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 백서 01-08』, 논장, 1997, 532~534쪽 참조.

11 김창우, 「전노협 창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4~27쪽.

경수지역 노동자 연합 강령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6월 민중항쟁의 위대한 승리를 딛고 우리 노동자들은 전국의 공장, 광산, 부두,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단결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하나의 공장에서부터 전국의 1천만이 하나가 되는 일로 뭉쳐 나가고 있으며 군부 독재정권과 가진자들의 거짓과 폭력적 탄압을 깨뜨리고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가 가난과 멸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민족이 자주독립되며 남북이 통일되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천만 민중과 함께하는 전민중적인 전진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우리 경수지역 노동자연합은 이러한 도도한 흐름에 발맞추어 1천만 노동자와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나아가기 위하여 경수지역의 여러 노동자 조직들이 함께 뭉친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굳세게 더욱 크게 뭉쳐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친 힘으로 우리 노동자의 절실하고 정당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싸워나가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단결된 힘으로써 이루고야 할 것입니다.

1. 산업, 휴야 안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워낙 기본임금이 적기 때문에 산업, 특근, 휴야를 받더라도 사팍다운 생활을 누리는 커녕 먹고 사는데도 조들라고 있다.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기본임금이 생계비만큼 인상되어야 한다.

2. 1일 8시간 노동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에만 1일 8시간제가 적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휴식하고, 8시간은 자기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8시간노동제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노동자에 대한 인간차별은 단호히 없어야 한다./

기름밥 먹는 말단이라고 함부로 반말하고, 결핵하면 시발서나 강요하고, 발줄 사르는 등 노동자를 멸시, 천대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 호령하는 사장이나 편대 굴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말쑥한 일하는 노동자끼리 존중되어야 하며, 노동자에 대한 인간차별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근절되어야 한다.

4. 세계최고의 산업재해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신진조국인데 선진화면서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다. 우리는 결핵하면 손가락 잡히기 일쑤이고 일년에 2천여명이 위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문 살인이다.

정부와 기업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재해로 불구가 된 노동자에게는 평생의 생계대책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5. 노동자의 생명인 단결과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또 여차하면 파업으로써 기업주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악덕 세력은 기업주전 노동부전 불령결함자전 모조리 척결되어야 한다.

경수지역노동자연합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도경의 탄압으로 주요 간부가 구속되고 수배되는 사태¹²를 맞이하게 된다. 경기도경은 “경수노련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노동해방 등 7대 강령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를 수행하고 노동쟁의를 배후 조정한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수지

12 구속자는 이용석, 김진훈, 장기영, 김태연, 김창숙, 현미경이다. 이 사건으로 수배를 받은 사람은 김승호, 이찬배, 이장호, 조상수, 박승호, 김영곤, 국철희, 송수근, 강구웅이다.

역노동자연합 조직원인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의 일부 간부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산하단체인 수원노동상담소, 반월공단노동상담소 등 노동단체 간부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수배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경수지역노동자연합을 이적단체로 조작하기 위해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일례로 피서픽니교노조 김태연 교육부장이 강압수사에 항의하며 자신의 왼쪽 팔 동맥을 칼로 끊고 자살을 기도해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경수지역노동자연합의 주도성이 상당 부분 관철되었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1990년을 거치면서 노동운동단체의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내부 논쟁(합법정당)의 여파를 비롯하여 내부 정파 간 갈등이 불거져 1990년 11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 축을 이루었던 PD계열의 정파조직들이 탈퇴함으로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분열은 시작된다. PD계열의 일부 정파들이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해소하고 민중당으로 결합하면서 1990년 11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분리되고 만다. 민중당에 참여하지 않은 일단의 그룹은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차 분화는 이 단체에서 분리해 나온 전국노동단체연합(1991년 7월 14일 발족)에서 한국사회주의노동당(한노당) 세력이 빠져 나가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서 자주계열 노동운동의 흐름이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한노협, 1994년)로 다시 분리되는 2차 분화로 마감되었다. 그 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특정 정파조직으로 인식되고 왜소화된다. 여기에 더해 199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 논의과정에서 논쟁은 더욱 심화된다. 당시 쟁점은 NL과 PD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신 계승과 지역의 역할이 중심이었다. 일반적으로 경수지역노동자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정신 계승과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내용적으로 특정 지역의 자율성보다는 전체 운동의 위계적 통합을 강조했던 산별노조 방안과 충돌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입장은 중소기업장과 지역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틀이 전체 노동세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권화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또 다른 쟁점은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운동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장악에만 치중하는 패권성, 상층 엘리트 중심주의, 투쟁을 선호하는 전투적 기풍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투적인 투쟁을 부담스러워 했던 현장에 이러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에 대한 비판은 쉽게 파고들 수 있었다.

수원 지역에서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한노협) 소속으로 노동운동과 전선운동을 수행해 온 단체가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이다.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은 “6월항쟁에 이은 7·8·9월 노동자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심리적 공간이 확보된 반면 수원

지역에는 단 하나의 공개 노동운동단체가 없다.”는 자성 속에서 1987년 9월 20일 창립되었다.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은 창립 이후 노동자교육과 조합지원활동을 포함 자주통일운동에 전념하였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수원지부(수원연합)에서 수민청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¹³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출범 이전에 존재했던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과 국민연합 두 축은 1991년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의문사 진상규명투쟁, 6월 광역선거, 그리고 7~8월 조국통일투쟁의 일련의 과정에서 단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상설연합추진 제2차 전국회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12차례 걸친 추진회의를 통하여 대중적·조직적 결의의 과정을 거쳐서 1991년 11월 7일 ‘상설연합 경기남부지역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곧이어 1991년 12월 11일 성균관대학교 수원교정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창립대의원대회를 갖는다. 창립 당시 의장단으로는 경기 남부의 지역운동과 부문운동을 대표하는 김쾌상·양규현·정진후를 선출하고, 김쾌상 의장을 상임의장으로 추대하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대의원은 총 131명이며, 중앙위원은 총 29명이었다. 창립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의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안양 대우전자부품, 안산 대성합섬 등 28개 노조
-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 전교조 경기지부
- 전국노동단체연합 경기지부: 안산노동자의집, 안양노동상담소, 수원노동교육연구소
- 경기남부노동운동단체협의회
-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수원지부: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수원민청련, 수원문화운동연합, 수원기독교노동자연맹, 노동교육연구소, 전교조 수원지회, 경기노련 수원지구협의회와 한신대, 아주대, 경기대, 서울대 농대, 수원대, 기독교청년협의회
-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안산지부: 안산노동상담소, 전교조 안산·시흥지회, 노동사목, 한양대, 경기노련 안산지구협의회, 노동자의집
-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안양지부: 안양노동자회, 안양민청련, 민요연구회, 노동상담소, 노련안산지구협의회, 전교조 안양지회, 성균관대학교
-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평택지부: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위한 시민모임, 전교조 평택·송탄지회, 한사랑청년회, 안성노동자농민문제연구소, 평택농민회, 중앙대, 노동자문화연구회 한사위, 안성농업전문대 동아리연합회

13 NL계열 가운데 석탑계열로 인근 오산근로자회관과 안산노동교육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석탑계열은 『내일신문』 창간 이후 언론과 주민운동으로 전환한다. 1990년 중반 이후 수원 지역 NL운동은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으로 중심이 이동한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1992년 제1기 사업평가(안)

1. 활동내용 및 일정

(1) 투쟁사업

- 1) 총선투쟁
- 2) 4.25/ 고 강경대열사 1주기 추모식과 5월투쟁 선포식
 - 성대에서 8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수원역전에서 선전투쟁 전개
- 3) 5. 9/ 홍익일금제 저자, 92임투승리 고 박창수열사 1주기 추모대회
 - 안양 대신대에서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 8시 30분부터 가두행진후 안양병원앞에서 악식집회가짐
- 4) 5.17/ 광주순례단사업
 - 수원, 안산, 평택, 안양지부 250여명이 참여
- 5) 5.19/ "민자당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대회"
 - 수원에서 5천여명이 역전광장에 집결하여 투쟁
 - 집회후 남문까지 가두행진, 남문서 마무리집회
- 6) 6.13/ 6월항쟁계승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시민 결의대회
 - 안양역전의 원천봉쇄로 안양 벽산쇼핑열 도로에서 시민, 학생 1000여명이 모여 6시부터 8시까지 대회를 가진후 안양 시내 곳곳에서 밤늦게까지 집단선동을 함.
- 7) 각종서명운동
 - 지지제와 악법철폐를 위한 서명을 수대협을 중심으로 전개
 - 문익환 목사님 노벨상 수상을 위한 후원회사업
- 8) 6.28/ 범민족대화성과 조국통일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동반대회
- 9) 경기남부범추본결성 및 범민족대화 성과 투쟁
- 10) 경기남부범서본 결성 및 사업
- 11) 관권선거 규탄 및 지지계 연내심사투쟁
- 12) 제3차 간부수련회 개최(10/13-14) : 대선투쟁방침
- 13) 대선투쟁
 - 지역 및 경기남부 국민회의 조직
 - 반민자당투쟁, 공정선거실천활동조직, 후보지지, 지원활동
- 14) 1월 27일-28일 안산에서 제4차 간부수련회 개최

(2) 조직사업

- 1) 경기노련가입
- 2) 국민회의 건설
 - 총선시기에 수원, 안양, 평택에서 국민회의를 구성 사업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1992년 제1기 사업평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은 변화된 정세에 대한 운동진영의 자기혁신을 둘러싼 논의(정치조직·통일운동)와, 이에 뿌리를 둔 1997년 대선 이후 대통령선거방침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과 분열이 있기까지 경기 남부 지역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은 김영삼정권 출범 이후 연합운동의 선진역량이 보수정치권으로 편입하고, 주요 정치적 조직

적 방침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운동으로 급속히 분화되면서 지도집행력의 상당부분이 약화되었다. 경수지역노동자연합 등 부문조직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통일운동을 둘러싼 학생운동의 이견과 원심력이 확대되고, 지역 시민운동의 성장과 이에 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의 부족과 전체 운동(민중/시민)에 대한 포괄력이 약화되면서 특정 정파의 조직으로 인식되게 된다. 결국 1997년 대선을 거치면서 연합 내부에서 제기된 전선운동 강화론과 새로운 정치(정당)조직 건설론이 대립하면서 해소를 선언하게 된다.¹⁴ 그러나 수원민주노동자회를 비롯한 자주계열 운동그룹은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에 남아 활동을 이어 나가다 출범 17년이 되는 2008년 2월 22일 전국연합 해소와 함께 자동 해소된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협의회로 노조운동이 재편되면서 수원민주노동자회(수민노회, 전신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를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의 역할도 축소되었다. 특히, 노조운동 자체 역량의 성장으로 외곽 지원단체의 역할(법률 상담, 교육, 홍보, 조합설립 지원 등)도 적어지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수원민주노동자회는 노동조합 사업보다는 주민운동을 담당하는 지역 정치조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2001년 전국연합 9월테제(일명 '군자산의 약속')¹⁵이후 민주노동당 사업에 주력한다.

수원 지역에서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PD계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민중당 건설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다양한 경력이나 노선을 지닌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선 민중당 이전의 경력을 보면, 1987년 대선 당시 백기완을 후보로 추대했던 독자 후보파에 속하면서 1988년 총선 이후 민중정당 재건에 참여한 인사들, 1987~1988년 당시 후보단일화파나 민주대연합파(한겨레민주당 참여)이면서 전민련에 참여하였다가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1989년 9월 말 전민련에서 이탈하여 새 정당 임시사무소를 설치한 인사들, 3당합당 이후 공안정국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 무력화됨에 따라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중정당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를 건설하거나 참여한 인사들, 노동운동진영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를 건설한 인사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비합법 노동운동을 전개하다가 합법정당운동으로 전환한 뒤 민중당이 건설된 이후 합당한 노

14 이창언,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수원사랑민주청년회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동우회, 2007.

15 1990년대 후반 NL정파조직으로 위상과 규모가 축소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지역연합은 2001년 9월 22~23일 충북 보람원 수련원에서 개최된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이른바 '9월테제' (별칭 '군자산의 약속')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정 이후 대거 민주노동당에 입당한다.

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1992년 1월에는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속했던 인사들이다.

이 가운데 민중당의 중심을 이루었던 그룹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했던 이들로, 반합법전선체운동(전민련)을 하다가 그 한계를 인식하고 합법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이탈한 이들이었다. 비합법(또는 반합법)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그룹(전노추 또는 한노당 창준위)은 선진 노동자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노협이나 업종회의 또는 대기업노조 등의 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의 농민조합 등 기층 대중조직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지 못해 민중당과 통합한 뒤에는 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념적 성향과 노선을 보면, 대체로 PD적 성향이 강하면서 의회주의노선 또는 합법정당노선을 지지한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념이나 노선에 대한 충실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선거전술이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운동의 전개방식에 대한 입장차도 컸다. 후자의 문제는 주로 1960~1970년대 민주화투쟁에 참여한 중진급 인사들과 19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재야운동에 합류한 소장층 인사들 사이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자는 후자보다 선거와 의회를 통한 변혁 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전자는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한 반면 후자는 실리보다는 명분이나 이념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¹⁶

수원 지역에서 민중당은 1991년 11월 23일 수원시 권선갑지구당 창당대회를 수원극장 앞 행복예식장에서 개최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민중당 중앙당은 1992년 1월 6일에서 3월 5일까지 14대 총선에 출마할 51명의 공천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총선유세와 선전활동을 펼쳤다.¹⁷ 수원 권선갑선거구에 출마한 민중당 이관돌 후보는 반공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투표, 보수야당의 경계나 사표논리, 운동진영의 비판적 지지 움직임 등에도 불구하고 4,332표(5.32%)를 득표하였다. 하지만 민중당은 전국득표 31만 2,666명 1.5%(출마지역 평균 6.45%)에 그쳐 법적 해산을 하게 되었다.

1989~1991년 소련과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수원과 경기 지역 일각의 PD 계열은 급진주의노선을 폐기하고 노선전환을 하였다. 경실련노동자회(또는 경실련)나 시

16 정영태, 「제1장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 1956년의 진보당에 1990년 민중당까지」,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234~237쪽.

17 경기도의 1차 공천자는 다음과 같다. △성남·중원·분당=임동현 △안양갑=송운학 △부천중갑=신철영 △부천중을=임동엽 △광명=유인열 △안산·옹진=전성 △과천·의왕=김장식 △시흥·군포=박재영 △미금·남양주=전광표 △이천=전후근 △수원권선갑=이관돌(『동아일보』, 1992년 2월 15일).

민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PD계열의 다른 흐름들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탈퇴한 PD계열 노동운동가들은 1991년 7월 14일 전국노동단체연합(이하 전국노련)을 창립하였다. 회원 단체는 총 27개 단체로서 경기 남부권역은 수원노동교육연구소(유덕화), 안양노동상담소, 안산노동자의집 등이었다. 전국노동단체연합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수와 지지엄호, ILO공대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과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한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3. 전국적 연대조직의 탄생 _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출범

1)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삼성 노동자의 민주노조 건설 시도

1987년 투쟁의 성과로 생겨난 민주노조운동은 곧이어 상급조직 건설을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하였다. 1987년 11월 사무전문직노동조합협의회를 시작으로 사무직 노동자는 업종노조협의회(업종협)로 결집하고 제조업 노동자는 1987년 12월 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수원의 노동자투쟁은 8월 11일 한일합섬 수원공장, 12일 수원시 성일운수(택시), 19일 태평양화학 수원공장, 20일 새생활보일러 등에서 농성이 진행되었다. 수원의 경우 삼성그룹 산하 대기업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평택의 금성사, 한일합섬 등 극히 소수의 대공장에서만 투쟁이 전개되었다. 대공장의 노동자투쟁이 저조한 데에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삼성 등 대기업의 강력한 노동자 감시와 탄압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1986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상호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간 중 냉열부 사업부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협박에 맞서 투쟁을 벌여 관리자의 사과를 받아 냈다. 이를 계기로 1988년 3월 10일 사측은 이상호를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로 발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봉고차에 실어 역전에 버리고 가기도 하였다. 4월 11일 삼성전자는 이상호가 노조를 만들려고 했고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 사무실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하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삼성전자는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 의장 도영호에게도 살해 협박을 자행하기도 했다.

다음 글은 삼성전자 냉열기 사업부가공과 도장반에서 근무한 이상호의 자필 호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단지 삼성전관(수원)에서는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4차례에 걸친 노

국 아래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삼성노동자 소식』이라는 유인물을 13호까지 발간하였다. 1989년 노조 설립을 시도했으나 이장호 등 다수 노동자가 해고, 구속되며 실패하였다. 1991년 4월 삼성전관 생산3과 ITC직에 근무하던 김병무 등 3명이 작업 도중 숨진 것을 계기로 폭발해 3일에 걸쳐 약 1,500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여 삼성이 결코 노동운동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결국 김용주와 백내섭 두 사람이 해고 구속되고, 복직실천위원회 활동을 하던 유제현과 윤권영 두 사람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¹⁸ 1992년 9월 22일 법원은 삼성전관이 법원의 유제현에 대한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삼성전관 총무과 컴퓨터 60대에 차압 딱지를 붙였다. 1999년 12월에는 수원 삼성전관 노조 설립과 관련된 고영선 외 4명이 강제 사직되었고, 삼성코닝(수원)에서도 1999년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다.

2) 경기 남부 노동조합운동의 중심, 경기노련의 출범

삼성의 노동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원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연대투쟁도 강화되고 있었다. 1988년 수원지구에서는 아주파이프와 천지산업에 대한 지원투쟁이 결실을 보아 승리를 거두면서 연대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초보적 연대활동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은 1988년 임금투쟁을 앞두고 조직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 임금인상대책위원회(임대위)’였다.

1988년 1월 11일에 결성된 ‘임대위’는 안양지구의 경원제지, 수원지구의 풍원산업, 안산지구의 삼양금속, 덕부진흥 등을 ‘간사 노조’로 선출하고 주변 노동조합과 지역 내 노동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임금투쟁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임대위’는 임투를 앞둔 준비기간에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각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지원했지만, 정작 임금인상투쟁에 돌입하자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 임금인상대책위원회, 1988년 7월 ‘안양전자 공장이전 철회투쟁’을 계기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경기노련 추진위)가 결성되게 된다.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는 1988년 7월 22일 안양지구에서 먼저 결성되었고, 8월 12에는 안산지구, 11월 24일에는 수원지구에서 결성됨으로써 1988년 말에 각

18 「4년째 삼성전관 복직투쟁 유제현 씨」, 『한겨레』, 1992년 4월 22일.



아주파이프 노동자투쟁(『백성』 창간호, 1988년 9월)

지구별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각 지구별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는 하반기 동안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공동으로 지원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10월 들어 『경기노협 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공동교육과 일상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업종노조협의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에서 합법성을 얻으려 한 것과 달리 지역 노조협의회는 반노총적 성향이 뚜렷하였다. 경기노련 추진위는 공단이라는 지역적 밀집성을 배경으로 제조업 부문의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노동탄압에 대한 공동대응과 노조 운영의 지원을 통해 조직되게 된다.



1989년 경기 남부 노동자들의 연대투쟁(『경기노련신문』 4호, 1989년 5월 20일)

1988년 「노동법」 개정투쟁¹⁹은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건설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

19 지역노조협의회, 업종노조협의회는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개정투쟁을 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 전국노동조합특별위원회'를 건설한다. 노동운동단체들은 현대엔진노조 탄압 저지를 위해 전국조직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두 조직은 1988년 8월 '전국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조직, 1988년 11월 13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연세대에서 열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노동자 대중집회를 개최한다.



『경기노련신문, 제3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하였다. 즉 전국노동자 등반대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경기 남부 지역 노동자들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참가하면서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국노동자대회에는 800여 명이나 참가하였다. 이러한 하반기 사업을 치른 후 1988년 12월 28일 32개 노조 78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을 창립하였다. 각 지구별 참가 현황을 보면 안양지구 14개 노조 3,000여 명, 수원지구 8개 노조 3,000여 명, 안산지구 10개 노조 2,000여 명, 총 32개 노조 8,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은 독립성이 강한 3개의 지구를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추진세력들 사이에 민주노조의 실질적인 역량을 둘러싸고 결성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주요한 쟁점은 지구협의회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며,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의 성격을 연합체로 할 것인가? 협의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결국 현실적인 역량을 고려하여 “각 지구의 독자적인 활동과 운영을 인정하되 전 지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조직 성격은 “협의회적 수준을 인정하되 연합적 성격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연합’의 명칭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각 지구마다 독자적인 사무실과 집행체계를 갖추고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에는 총무국과 선전국이라는 최소한의 체계만을 두었으며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였다.²⁰

20 전노협핵심발간위원회, 『전노협 백서 01-08』, 논장, 1997, 418~420쪽. 시기별로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의 주요한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① 1990년~1991년 10월(전노협 건설과 II공대위 구성) ② 1991년~1993년 6월(전노대 결성) ③ 1993년~1994년 11월(민주노총준비위 결성) ④ 1994년~1995년 12월(민주노총 건설과 전노협 해산) 4시기로 나눌 수 있다.

3) 전노협을 둘러싼 조직 논쟁과 전노협의 출범

1988년 노동자투쟁의 성과로 1988년 12월,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는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구성한다.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는 임금투쟁 시기에는 임금인상투쟁본부를 구성하면서 1989년 임금투쟁을 지도하고 관장하는 한편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 나간다. 그 성과로 1989년 7월에 ‘전노협 건설 준비소위’가 구성되고, 12월 창립준비위가 발족하여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건설된다. 그러나 전국조직 건설을 둘러싸고 조직노선 논쟁에 휩싸여 수원 지역 노동운동단체 내부에서도 격론이 일기도 하였다. 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조직노선 논쟁은 1988년 8월 이후에 제기된 노동악법 개정 논쟁 및 투쟁과 결합되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법 개정 논쟁은 노동조합 3조 5항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철폐여부를 중심으로 쟁점화되었다. 이 쟁점은 ‘민주적인 전국노동조합조직 건설’ 방법론(‘노총 민주화론’, ‘제2노총론(민주노총론)’, ‘노총 와해론’)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노동조합 전국조직 논의-전노협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노총민주화론은 집행부 교체를 통한 노총 민주화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2노총론은 광범위한 중간적·후진적 대중을 방기하고 반동적인 노조 어용집행부 세력과의 정면투쟁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한 요구도 26조의 총회 소집권자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노총론은 전노협 건설을 제2노총으로 가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총 와해론은 ‘노총 민주화론’에 대해서는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비판하고 ‘제2노총론’에 대해서는 ‘간부 중심의 사고방식’을 이유로 역시 비판하였다. 이들은 단위사업장 노조를 강화하여 기존 노총을 밑으로부터 허물어 버리고 노총시협의회 및 산별연맹(중간허리)을 안팎으로 공략해 나가며 민주대연합을 실현시키는 것을 제기하였다. 이 주장은 민주노조의 독자적인 조직활동과 노총체계에서 활동하는 것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점을 회피하고 절충시키는 것으로 비판받았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민주노조 건설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은 민주노조 건설(사업장별)-지역별·산별 노조 건설을 통해 제2노총(민주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²¹ 한편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존속을 주장하는 존속론

21 이목희, 「복수노조 제2노총, 민주노동운동의 확고한 토대를」, 『노동자의 벗』 제14호, 중원문화사, 1988; 인천지역민주노동자 연맹, 「7·8월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노동조합운동의 당면과제」, 『노동자의 길』 제31호, 1988; 임삼진, 「시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창작과 비평』 62호(겨울), 1988.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결성대회(박용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제공)

은 금지조항의 철폐가 오히려 자본 측에 의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무기로, 민주노조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입장은 노총을 민주화하자는 ‘노총 민주화론’의 입장과 연결되어 있다.²² 「노동법」 개정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생산직 노동운동과 사무직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격 차이와 이에 따른 대중의식의 차이, 그리고 양대 부문의 노조 지도부의 성향 차이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었다. 또한 당시 노동운동 조직 간의 서로 다른 입장 대립이 끼친 영향도 주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경험하면서 이미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었던 활동가운동 조직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뉘어 있었다. PD로 분류되던 계급주의적 정파들은 한편으로는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과정에서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조직, 결국에는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반면 NL계열의 정파들은 현장과 결합한 대중사업에 복무하는 일을 더 주요하게 보고 있었다.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에도 이 두 정파의 노동조직과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사무직 노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NL계열은 노총 민주화론을, 노운협 활동가들은 제2노총론을 지지했으며 상층 논의 과정에 PD계열도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전국조직 건설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노태우정권은 공안합수부를 발족한다. 4월 16일 수원지검 공안합수반(반장 제갈용우)은 새벽 4시부터 수원, 안양, 안산, 용인 등 경기 지역 노동상담소와 청년회 등 7개 단체를 수색하여 20명을 연행하였다. 이들 중 정금채, 조영표, 박승호, 이동일, 박종균, 이장호, 조철우, 한규봉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구속되었다. 이어 1989년 8월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임석순 의장도 같은 혐

22 강상호, 「노워크 노페이, 노조대표권시비, 그리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 『새벽』 제2호, 석담, 1988; 한종구,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백산서당, 1989; 우리노동문제연구원, 「노총민주화론과 제2노총론의 비판적 검토」,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산서당, 1989; 이영민, 「민주노조 및 공장활동 조직과 관련하여」,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1988.

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987년 대투쟁의 성과를 전국조직 건설로 수렴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1990년 1월 22일 공권력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단병호)가 건설된 것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봉쇄로 불가능해지자 수원의 성균관대학교 자연대캠퍼스로 변경하여 창립대회를 기습 강행하였다. 경찰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회가 끝날 무렵 행사장에 병력을 투입, 노동자·학생 등 141명을 연행하였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준비위원과 노동자, 대학생 등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창립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이제 이 땅의 노동자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조직을 갖게 됐다고 선언하고 경제사회구조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자주화·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민주세력과 연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투입되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 준비위원 등 핵심간부들은 대부분 학교 뒷산 등을 통해 빠져 나갔으며 일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의자와 책상 등을 던지며 격렬히 맞섰다. 수원지검과 수원경찰서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연행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과정과 창립대회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90~1991년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하고 자본과 정권의 지속적인 탄압에 맞서 탄압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을 사수하는 데 주력했던 시기였다. 정부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창립되자 1990년에는 업무조사, 노조전임자 임금 불지급, 공권력 투입, 지도부 구속, 수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와해공작을 강화하였다. 1990년 2월 업무조사 대상 사업장은 총 129개였고, 경기노련 수원지구 신호제지, 풍원산업, 동성섬유, 일신정밀, 충남방직 등이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현대중공업노조 파업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기점으로 5월 1일 역사적인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1990년에 이어 1991년에도 박창수,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을 계기로 조성된 범국민적 5월투쟁과 결합하여 노동운동 탄압저지와 반민자당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90년 창립 이후 지속적인 탄압으로 조직력이 일정 정도 약화되었지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와 민주화된 대기업노조들과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전개하고, 1990년 11월 노동자대회를 업종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1991년 하반기에는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국내외 노동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ILO 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단결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후 투쟁



1991년 전노협 제2기 정기대의원대회(박용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제공)



1992년 전노협 2주년 기념식에서 노동악법 철폐를 외치는 조합원들(경향신문사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제공)

의 성과로 결성된 최초의 노동자 전국 조직으로 600여 개의 노조와 20만 명의 조합원, 14개의 지역노조협의회와 3개의 업종협의회가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 진영의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와 노동 진영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간에 투쟁이 시작되었다.

4) 민주노총의 출범과 두 개의 민주노총

수원 지역 노동조합(경기노련 수원지구협의회)도 1991년 「노동법」 개정투쟁의 목표를 ‘노동악법 개악저지와 대중적 인식의 확산, 민주노조 총단결’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각 지구 및 단위 사업장별로 노동교실을 통해 「노동법」 개정투쟁 교육과 슬라이드 상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1년 10월 10일 안산, 안양, 수원 등의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3개 지구 노조 대표자와 노동운동단체 대표 150명이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당사(안양, 수원), 민중당사(안산)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1992년은 전국적으로 420여 개의 노조가 모여 ‘총액임금제 분쇄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새로운 임금억제정책과 맞섰다.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은 11월 전국 16개 지역의 50개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단체 공동실천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꾸준히 어용노총 해체·탈퇴 투쟁과 함께 임금인상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를 위해 1993년 6월 1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가 구성되었다. 1994년 상반기 철도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한국통신노동조합의 민주화, 조폐공사노조의 파업투쟁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11월 14일 142개 노조 21만 조합원을 포괄하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를 결성하였다. 대중적인 어용노총 탈퇴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조합운동의 조직적 구심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민주노조 사수라는 방어적 투쟁과 시기집중적인 소극적 전술을 넘어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실질적인 투쟁전선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업별 노조의 틀로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4년 11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1995년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은 금속산업연대회의, 화학산업연대회의, 안양민주택시노조협의회, 병원노련경기지부 등을 최대한 결집하여 ‘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경기 공투본)를 구성하였다. 임금가이드라인 규탄 성명과 성금모금에서 수원의 삼희약품은 조합원 1일당 1만원 쟁의기금모금을 결의하였고, 수원 21개 노조는 44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총 61개 노조가 참여하여 123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경기남부지역 화학산업노조 연대회의는 4월 17일 대표자회를 열고 16개 금속산업노조와 10개 화학산업노조가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금속산업노조의 평균 요구액은 9만 1,221원(16.25%)이고 화학산업노조의 평균 요구액은 9만 2,026원(16.48%)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원 11개 노조, 안양 6개 노조, 안산 10개 노조가 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평균 요구액은 수원이 8만 5,741원(15.13%)로 경기 남부 지역은 평균 9만 5,161원, 16.34%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1995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노총 원년 노동절 기념대회(박용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 제공)

노동운동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11월 11일 업종·지역·그룹의 50만 노동자를 포괄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수원을 포함하여 경기남부 지역은 1994~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방안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었다.²³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해산을 반대한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는 경수지역노동자연합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범외노조 경기남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남부와 경기남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분열과 함께 IMF경제위기를 맞아 진행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은 특히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of 쇠퇴를 가져왔고, 이는 지역 노동운동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지구협체제로 재편시켰다. 경기남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해산 논의를 시작해서 2001년 발전적으로 해소된다.

23 당시 논쟁의 핵심주제는 이른바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문제였다. 투쟁일변도의 최대강령주의 노선에 입각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노선은 노동운동을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위기를 자초한 주체적인 요인이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비판이 그것이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비판은 노동운동의 위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투적 노동조합운동노선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김진균, 「민중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가을호, 1992; 김동춘,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조직화의 실패」, 『경제와 사회』, 겨울, 1993; 박승호,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 『노동운동』 7월호, 1992; 최규업,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 『노동운동』 7월호, 1992; 김익진, 「퇴조기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노동운동』 9월호, 1992). 이 논쟁은 노동운동계 내부에서 당시로서는 활동가 운동조직들 간의 마지막 노선투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의 정황을 기준으로 하면, 이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노협' 노선의 폐기 내지는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전노협 중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내부정치적 목표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ILO공대위'에서 사실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전노대)'로 전화해 가는 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총노선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참여의 폭을 확대되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생산적 노조 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그 배경에 있었다. 둘째는 노동자 정치운동(정당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조직에서 그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세력, 즉 전노협과 전국노운협 지도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공세의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학계에서의 논의 확산과는 별개로 이 소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논쟁은 결과적으로 한국노동운동의 총노선의 이념적 하향평준화의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가을호, 1992, 183~184쪽). 이는 전노협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노동운동 일반이 지닌 약한 전투성, 업종, 연대회의 그리고 전노협 등으로 분화된 대중적 민주노조운동의 분화, 나아가 노동자정치운동의 대중운동과의 분리 등 노동운동의 현실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 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49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노동운동관련 문헌해제』, 2003, 142~144쪽).

5) 노동운동의 혁신과 전망

1996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자 이에 맞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전국적인 정치적 총파업이었다.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적극적 노력으로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도 이루어 졌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출범 이후 노동운동의 규모는 커졌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는 <표 1>과 같이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시군지부 조직 현황

(2009년 12월 31일 현재)

시군지부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비율(%)
	노조, 지부, 지회, 분회, 분소 (시군)	분회, 분소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149	18	32,736	37.39
평택안성지부	43	9	5,574	6.37
안산지부	52	8	6,088	6.95
부천시흥김포지부	55	6	5,640	6.45
경기중부지부	89	10	14,149	16.16
성남하남광주지부	63	2	5,279	6.03
이천여주양평지부	25	5	1,877	2.15
경기북부지부	82	21	7,075	8.08
고양파주지부	59	5	6,342	7.24
기타(미확인)	1		2,784	3.18
총계	618	84	87,544	100.00

출처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http://kgrc.nodong.org>).

비고 : 노조, 지부, 지회, 분회, 분소(시·군)·지역본부(지부) 결합 시·군 단위
분회·분소·지역본부(지부) 결합단위의 산하단위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장한 만큼 노동자대중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 고용불안, 건강, 산업재해, 직무불안, 직무적응, 작업장 환경, 현장통제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대한 체감 정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자대중의 이러한 현실적 요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향과 실천 사이에는 다양한 모순점들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의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비례한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불만과 부딪친다. 그리고 핵발전소 폐기라는 궁극적 목표는 핵발전소 노동자

의 고용불안문제와 부딪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는 비정규직을 통해 항시적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정규직의 요구와 모순된다. 2000년대 노동운동은 취업자와 실업자, 노동과 생태환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고용상태, 업종, 지역, 규모, 성별, 나이, 조직화, 생태 환경적 관심 등에 따른 노동자대중 내부의 다양한 요구를 서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면서 보편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심의 노동자 조직들이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편중된 활동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대중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적·진보적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은 지역에서 활동한 노동운동가 양규현(전 경기노련, 전노협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노동운동의 성찰과 혁신, 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대단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1980년대 말에는 전노협이라는 중앙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좀 좋아진다는 기대가 있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들이 주장했듯이, 많은 숫자들이 한 조직으로 모여서 우리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상태나 운동이 그때보다 사실 더 어려워요. 이전에는 노동자 계급 전체가 자본의 어떤 억압에 대항하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자본의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노동자 계급 내부를 경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공장 정규직이 자신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난 재들(비정규직)보다 우월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치 적이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양상이 지금 운동을 80년대, 90년대보다 더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전망을 찾기 어렵다고 보죠²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은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장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우리 시대 노동운동이 기존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이익을 넘어서 보다 다양한 요구와 일반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전체 노동자에게 개방하고 아울러 그 노동조합의 의제설정도 계급 보편성을 갖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조합이기주의 경향이 심화되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은 개방성과 계급 보편성을 위한 내부혁신과 관련한

24 유경순, 「전(前) 전노협 위원장 양규현에게 듣다: 알려지지 않은 1970~1980년대 노동운동, 그리고 전노협을 돌아보다」, 『내일을 여는 역사』 제27호, 2007, 264쪽.

여 내부의 일반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간의 유기적 연대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당운동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지난 10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정치세력화는 소수의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운영권한을 획득한 뒤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일방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진보정당의 ‘노동할당제’는 이러한 관행을 유지시키면서 노조간부가 진보정당의 간부나 의회로 진출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략한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내부의 혁신 동력은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관료적인 관행과 단절하고 내부 혁신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성과 계급 보편성을 목표로 노동조합 내부를 혁신하고자 하는 노동활동가들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교육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결합하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기업의 경계 내에 갇혀 있는 고용, 임금, 복지를 지역과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²⁵

25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진보정치 10년의 성과와 전망』, 2009를 참고하라.



유문종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1. 6월민주항쟁 이후 통일운동
2. 1990년대 통일운동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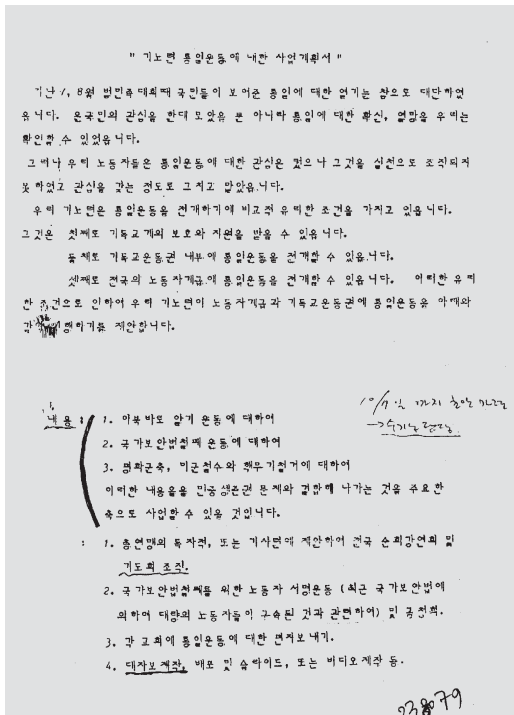
1980~1990년대 수원의 통일운동

1. 6월민주항쟁 이후 통일운동

6월민주항쟁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면서 과거 금기시되었던 통일 욕구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의 진전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분단 문제에 눈뜨게 한 것이다.¹ 수원 지역에서도 6월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과 청년, 노동, 문화, 여성, 종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6월민주항쟁 이후 수원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이 통일운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동했는지는 이 당시에 결성된 단체들의 창립선언문 등 관련 문서와 회칙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수원사랑민주청년회(수민청) 창립선언문에는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위해 몸 바쳐 오신 선배 청년들의 뜻을 이어받아 …… 이상의 목적 달성과 함께 조국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모색하여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수원여민회도 창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923쪽.



「기노련 통일운동에 대한 사업계획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립결의문에 “모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완전한 민족자주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밝히며 자주적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통일 열기는 연도 표기를 할 때 1945년을 통일염원 원년으로 보면서 1988년을 통일염원 44년, 1991년을 통일염원 47년으로 하는 등 상징화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90년 9월에 작성된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수기노) 내부문건인 「기노련 통일운동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통일운동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문건에는 ‘1. 이북바로알기 운동에 대하여, 2.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 대하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교육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등반대회 때 통일을 주제로 하여

여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통일운동에 대한 노동자교육용 자료제작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²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 있게 통일운동을 제기하고 실천해 나갔던 부문은 학생운동이었다. 수원에서도 6월민주항쟁 직후인 1987년 8월 15일에 수원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수원EYC)와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수대협) 건설준비위는 수원역 광장에서 시민 300여 명과 함께 8·15광복절 기념식을 갖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우리 손 맞잡고 통일’이란 주제로 길놀이, 대동놀이,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988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김중기는 ‘남북한 대학생 체육대회’와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제안하면서 통일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리고 6월민주항쟁 1주년을 맞이하여 학생운동은 1960년 당시 내걸었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2 「기노련 통일운동에 대한 사업계획서(1990년 9월 15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00338079).

213939



백만학도 통일대장정(강석우 제공)

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강연회에는 500명 정도가 참석하여 네 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북한사진전과 6월항쟁 사진전시회가 곁들여져 수원에 통일열기를 가져 왔다. 7월 28일과 29일에는 수대협이 주최하는 시민학생민족자주학교가 서울대 농대 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 11일과 12일 이들 동안에 아주대학교에서 ‘공동올림픽쟁취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경인지역 10만 학도 국토순례대행진 출정식’이 개최되는 등 각 대학에서도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에 구성하여 학내에서의 통일운동뿐만 아니라 수원역 등 거리시위를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이 출정식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문점 남북학생회담과 함께 공동올림픽 개최요구 투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남북한 유일팀 출전을 통해 통일의 여건을 넓히자고 1985년 7월 북한의 정준기 부총리가 제안한 이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는 IOC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사마란치 위원장의 중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열렸지만 성사되지는 못하였다.³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요구는 수원 지역에서도 강하게 일어났다. 이미 1988

"수원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 민주연합" 결성 !!!

4. 26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정종식이라는 4000만 국민의 소망을 백주데낮에 도둑맞은 지 낙담만에 또다시 미국-청와대독재와의 한판 결전의 장이 임박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4월은 우리 민족에게 꿈틀거리는 용기를 주는 계절입니다. 4.19

민주 혁명이 그러하고, 80년 5월의 시발점이 4월 투쟁에서 시작되었고, 6. 10 대항쟁도 처절한 4월 투쟁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패배의 치욕스런 겨울은 지나고 한반도 민족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사회와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

농민 형제들이 전국 각지에서 "스스로의 정당한 임금 인상, 민주 노조 사수 투쟁 수세 거부 투쟁, 수입개방 반대 투쟁,으로 떨쳐일어서고 있고 바야흐로, 제2의

4. 19. 제2의 6. 10항쟁을 향한 힘찬 진군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정과 협잡으로도 36%의 지지를 밖에 조작하지 못한 노태우 정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정당한 민중들의 이와 같은 투쟁을 구사대 폭력및 언론 조작을 통해 철저히 탄압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비뚤임을 드러내는 전경환 새마을 비 미사건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허약한 정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관권,군권,폭력으로 민정당의 다수 안정석 확보를 위한 돈잔치-선거를 시작 했습니다. 이에 학살연흥의 소굴, 부정 축재의 온상지,대

국 도당 민정당을 반대하고 "민주"에 살고자하는 수원의 애국 민주세력이 모여 지난 4월 15일 "수원 지역 반민정당 총선 투쟁 민주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모든 정파와 이념, 소속과 파벌의 차이를 떠나 민정당을 격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52만 수원 시민과 한몸이 되어 싸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현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주모자 처벌,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 조사권 발동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입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특히 수원 지역에서 퍼져 나오는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 입니다.

셋째, 현 정권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는 집시법,언론 기본법,동 계반 악법과 안기부등 폭력기구를 철폐하는 싸움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우리는 올림픽이 민족 대화합의 장과 민족 통일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함을 선언하며 그를 위한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해 힘껏 나설 것입니다.

다섯째,우리는 수입개방 압력,정치적 간섭등 미국의 모든 침략적 군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옹호하는데 나설 것입니다,

수원 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 민주연합 결성을 알리는 유인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년 4월에 뿌려진 수원 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 민주연합 결성을 알리는 유인물에는 5개 항의 투쟁 내용이 적혀 있는데 네 번째가 “우리는 올림픽이 민족 대화합의 장과 민족통일의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그를 위한 ‘공동올림픽 쟁취’를 위해 힘껏 나설 것입니다.”였다.⁴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924쪽.

4 “수원 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 민주연합” 결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883873).

2. 1990년대 통일운동

수원 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통일운동은 일찍부터 여타 지역의 주목을 받았다. 1991년부터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경기남부통일한마당(제1회 행사, 아주대)을 진행하면서 청년학생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문화예술인, 종교인, 여성, 교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통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지역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수원을 비롯하여 화성의 농촌지역, 안산의 공장지대 등을 돌면서 범민족대회를 선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홍보하였다. 통일선봉대는 대학생들이 중심이었지만 1992년부터는 청년들과 노동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남부 통일한마당과 지역통일선봉대 활동사례는 곧바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92년부터 많은 지역에서 다채로운 방식과 내용으로 통일한마당행사를 진행하고 통일선봉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예를 들면 ‘부천시민통일한마당’(1993년 8월 8일, 춘의레포츠평원, 부천시민통일한마당 준비위원회 주최), ‘93통일염원 인천시민 문화대동제’(1993년 8월 8일, 백운공원,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인천시민모임 주최) 등이다.⁵

1995년은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해의 8월 15일은 여느 해와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수원 지역 통일운동세력 또한 해방 50주년이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를 적극 살리면서 광범위한 통일행사를 개최하여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해방 50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 행사위원회’에는 총 28개 단체와 학교가 참여하였다.⁶ 진보적 민주화운동 단체들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방 50주년 기념 그림전(7월 21~25일, 경기서적 4층 이벤트홀), 행사위원회 출범식 및 초청강연회(7월 27일, 경기서적 4층 이벤트홀, 강사 : 김홍신), 통일대토론회(8월 12일), 해방 50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8월 12일, 효원공원) 등 다양한 통일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이들 행사뿐만이 아니라 7월 23일 ‘통일의 숨소리 역사의 현장 철원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통일기행을 다녀왔으며 ‘해방 50년 7천만 겨레 통일 선언운동’을 전개하여 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⁷

5 「93범민족대회 자료모음」, 『제4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제4부 지역활동보고서』, 1993.

6 참가단체는 수원경실련, 수원시민광장, 수원미술인협회, 수원YMCA시민중계실, 수원YW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수원불교청년회, 팔달사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경기지부, 민주화실현을 위한 교수협의회, 원불교 경인교구 청년연합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수원연합,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수원민주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수원지구기독청년협의회, 문화공간 삶터, 다산인권상담실, 전교조 수원지회, 아주대, 경기대, 서울대 농대, 협성대, 한신대, 성균관대, 수원대, 수원여전 등이다.

7 해방50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 행사위원회, 「95년 사업평가」, 『통일맞이 기행 자료집』, 수원사랑민주청년회 제8기 정기총회 자료집, 1995.



1991년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남부지역 통일노래한마당(강석우 제공)



제6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의 무대공연(박용수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제공)

1995년 대중적 통일운동의 변화 중 자전거통일 파발마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자전거파발마 경기 남부 지역 순회활동(활동대장 안용정)은 지난 시기 통일선봉대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농촌지역까지 통일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자전거 순례단을 조직, 운용하였던 사례로, 용인, 이천, 여주, 안성, 평택, 화성군 등 농촌지역을 순례하며 농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화성군 기아자동차공장 안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동자통일운동도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통일운동을 정부와의 투쟁보다는 국민들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생활 속으로 확대되는 통일운동의 한 전형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시작된 범시민적 통일행사는 매년 이어지면서 새로운 내용과 형식들이 추가되어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다. 1996년 통일맞이 수원시민한마당 행사에는 '21세기 여성개발원', '새롭게 사는 사람들', '그린네트', 경기남부 민주노총건설과 96임단투 승리를 위한 수원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승원청년회, 용주사청년회, 사단법인 민족예술인총연합 수원지부 등 총 31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이 행사를 후원하였다. 행사위원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상임공동대표는 김종오(수원경실련 공동대표), 도영호(민주주의민족통일수원연합 의장), 박천우(수원시민광장 회장)의 3인이, 공동대표는 조동기(수원YMCA) 외 9명이, 감사는 김동균 변호사가, 집행위원장은 당시 시의원이었다고 수기노 회원이었던 김현철, 사무국장은 안용정(민주주의민족통일수원연합 사무국장)이었다.

1996년 통일한마당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통일노래한마당(수원YMCA 주관), 통일비나리(수원민예총 풍물굿위원회), 탈춤(21세기여성개발원), 테너 조원삼, 대중가수 권진원, 경기남부청년노래단 천리마, 민중가수 김영남 등의 공연과 수원연합 문예단의 종합공연 '한민족 한겨레 북한수해동포에게 따스한 손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민중가요 그룹 꽃다지와 민요모임 아라리오의 초청공연, 풍물판굿, 길쌈놀이, 통일강강술래로 마무리되었다. 이전의 통일행사가 대학생 중심의 노래공연과 집체극, 풍물공연이 주를 이루었다면 1995년 이후 대중화된 통일행사의 프로그램은 다수 시민들이 즐기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96년 이후 북한의 수해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수해피해를 입은 북녘동포돕기 활동이 통일행사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한 통일운동은 8월 한여름에 집중되었던 운동의 계절성을 극복하면서 주민참여형 통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96년 북녘동포돕기 쌀모으기운동을 시작으로 통일운동은 비로소 광범위한 국민 속으로 확대되었다. 거리집회보다는 호별 방문

을, 정치적 구호보다는 동포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통일운동가의 일방적 선전보다는 주민참여형 통일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가, 통일운동에 꾸준히 참여하였던 단체 이외에도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많은 성과를 남겼다.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더욱 밀착되어 고등동(1996년 8월 4일), 구운공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연무동(1997년 8월)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수원시민통일노래자랑’(한마당 행사위원회 주최, 수원연합 주관) 행사로 발전하였다. 50년이 넘게 강요된 반복의식을 걷어 내고 북한 동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흥겨운 노래를 통해 이웃들과 화합하는 통일노래자랑 행사는 통일운동이 더 이상 대학생과 일부 과격한 종교인만이 참여하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였다. 1997년 행사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수원지부 소속단체와 수원불교청년연합, 수원시민광장, 희망동아리 등으로 참여단체가 대폭 축소되었다. 상임공동대표는 박천우(수원시민광장 대표), 도영호(수원연합 의장), 공동대표는 노정희(다산인권상담소장) 외 7명이, 집행위원장은 유문중(수원사랑민주청년회장)이 맡았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으로 민간 통일운동은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발전시켜 나갔다. 수원 지역에서도 매년 정기적인 통일한마당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원 시민들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과 연대·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통일한마당 행사는 2009년부터는 8월에서 6월로 옮겨져 개최되고 있다.

“도심형 마을만들기

2012
수원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

주 최 :



수원

후 원 : 경기도, 수원시



기의 롤 모델로~”

을근네기상인 주간행사

원시

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기업

제4부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제1장 수원의 시민운동

제2장 수원의 환경운동

제3장 수원의 마을공동체운동

제4장 수원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이상명 수원외제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

1. 시민운동 태동기(1987~1993년)
2. 시민운동 성장기(1994~2002년)
3. 시민운동 위축기(2003~2009년)
4. 시민운동 활성화기(2010년 이후)
5. 수원 지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제1장

수원의 시민운동

수원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 노동자, 지식인들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싹을 틔웠다. 특히 6·29선언을 이끌어 낸 1987년 6월민주항쟁에는 수원의 학생, 노동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등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있었다. 1980년대 산업사회에서는 부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투쟁으로서 이념적 학생, 노동, 농민 등의 대중운동이 활발했다면, 1990년대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해 추방(수질, 공기, 소음 등), 교통 및 주거문제, 청소년·노인·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와 관련된 주민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정의, 평화, 평등, 인권이 존중되는 ‘좋은 사회’의 가치를 품은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은 수원이라는 공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수원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체(모임)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시민운동의 활동 대상은 권위적이고 부조리한 정치와 행정의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행정의 문턱을 넘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지배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1991년 시·도의원 선거와 1995년 시장·도지사 등 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선거는 수원 시민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성숙시키는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수원시장과 시의원들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영향력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지방자치는 소수의 지역 엘리트에게 권력을 독점하도록 방임하여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사회를 이진투구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수원 지역 시민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시민사회’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결사적 삶의 토대)이었으며, 큰 목표의 세부 목표들과 수단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틀(공공 영역)이었다.

1990년대에 대거 출현한 수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지방행정과 시장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협치(governance)방식의 도입을 촉구함으로써 견제와 비판의 축을 담당하였고, 경제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일부 계층에게 왜곡되게 배분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펼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시장의 책임에서 소외된 곳에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차원에서는 나눔과 돌봄, 신뢰와 배려,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배양과 확충에 힘을 써 왔다.

1. 시민운동 태동기(1987~1993년)

1) 시민운동의 태동

1980년에 31만여 명으로 출발한 수원시 인구는 1985년에 43만여 명, 1990년에는 64만여 명, 1995년에는 75만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중앙정부가 추진한 도시개발정책은 많은 국민들에게 개발이 곧 성장이며 발전이라는 의식을 전파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수원 시민들의 여론과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선출된 단체장들에게 당장 시민들의 눈에 보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임기 내에 빨리 마쳐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동수원권 개발과 함께 수원시청사의 이전, 남문시장 부근의 뉴코아백화점 건설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대형 유통마트의 등장은 영세한 전통시장들의 활력을 급속하게 잠식하며 수원 전통 상권과 구도심의 몰락을 가져왔다.

6월민주항쟁을 거치며 생겨난 시민단체들은 정치적·경제적 거대권력을 견제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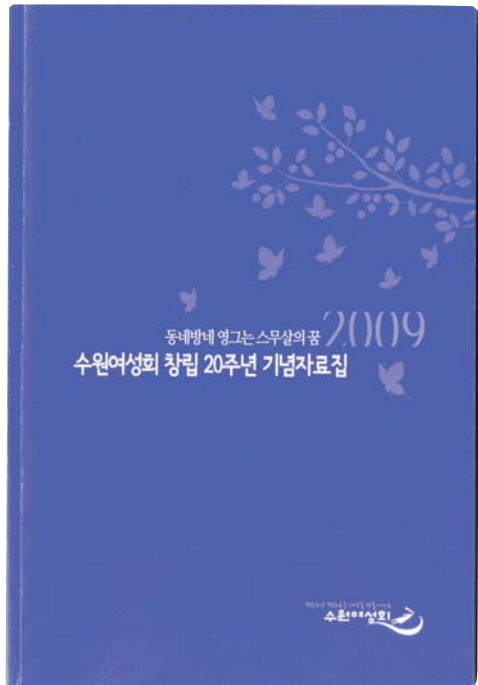
수원 시민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1987년 6월 수원 민주화항쟁(강석우 제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창립 1주년 기념식



수원사람민주청년회 회지인 '수원청년' 창간호(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수원여성회 창립 20주년 기념자료집

는 가능성이 오직 시민들의 결집된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방 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공권력에 맞섰던 개별 시민운동단체들은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어, 줄곧 비판과 저항의 모습으로 지방권력을 대하게 되었다. 이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단체들은 연대해야 했다.

또 수원 지역사회는 '보수성이 강한 사회'의 면모를 보였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수원권의 개발로 빠르게 외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과생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활발한 시민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당시 태동한 시민운동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수원 시민운동단체들은 1968년과 1969년에 창립한 수원기독교청년회(YMCA)와 수원여자기독교청년회(YWCA), 1984년에 창립한 수원기독교청년협의회(EY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987년 민주화항쟁을 거치며 창립하게 된다. 흥사단 수원지부가 1987년 4월에, 수원민중문화운동연합이 11월에, 수원여성회가 1989년 3월에, 수원사랑민주청년회가 3월에, 수원가정법률상담소가 1990년 5월에, 다산인권센터가 1992년 8월에,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이 1993년 1월에, 수원환경운동센터가 1994년 5월에, 수원여성의전화가 1994년 9월

에, 수원시민광장이 1995년 9월에, 그리고 수원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창립하였다.

2) 1990년대 초반 시민운동 연대활동

수원 시민운동단체들을 조직하고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 학생, 노동자, 직장인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원 지역사회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학습과 토론, 연대활동을 펼쳤다.

민주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성서모임을 하던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과 수원 지역의 20여 단체 운동가들은, 1992년과 1993년에 광고저수지 옆에 위치해 있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와 수원내일의집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수원 지역사회의 미래와 연대운동을 모색하는 대화모임을 진행하였다. 당시 참여한 단체들은 수원YMCA, 수원YWC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수원지역 목회자 공동체성서연구모임, 한국교회협의회 수원지역인권위원회, 수원기독교노동자회, 수원기독교청년협의회, 환경을 살리는 여성의 모임, 홍사단 수원분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유권자연맹, 수원여성회,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한겨레신문 가족모임 등이었다. 참가자들은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나 재정 면에서 세가 강하지 못하지만 점차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해 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또 ‘지역공동체’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면서 “우리는 수원 시민이다.”라는 유대감과 일체감을 가지면서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특징으로 ‘자율성’, ‘협동성’, ‘다원적 성격·다양성 인정 및 존중’, ‘공평한 기회의 존중’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수원 지역 시민운동은 공정한 선거와 더불어 환경문제를 해결해 가는 연대와 협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90년대 초에는 근대 산업문명의 폐해들이 가시화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하천의 수질오염을 비롯, 쓰레기문제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 수원 시민단체들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소모임을 조직하여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환경보전운동의 역량을 높여 가고 있었는데, 1992년 6월 ‘제1회 수원시민환경한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수원 지역 시민연대운동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는 1992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온 ‘수원시민통일한마당’, ‘지구의 날 기념행사’ 등이 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연대행사를 통해 수원 시민들과 시기별 당면한 지역문제를 알리고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으려 했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지방자치와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의 장으로 삼았다. 아울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매년 연대



1994년 제3회 수원시민환경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고 관련 수원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공동학습의 기회를 가지며 역량을 키워 갈 수 있었다.

수원 지역의 시민운동가들은 ‘좋은’ 수원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치인’이 선거를 통해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추진해 온 활동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시민운동에 참여해 온 ‘좋은 후보’들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운동단체의 이름으로 직접 후보를 내거나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금기’ 영역이 이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

1991년 6월 21일 시·도의원 선거에서 수원교도소 이전 및 구치소 설립반대운동을 펼쳐 온 주민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주민 지도자였던 이수연을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과 이수연 의원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 수원시 행정 및 의정감시활동을 펼치기 위해 1991년 의원 선거 이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수원시의회의 활동은 의원들의

찾은 비리 연류 및 이권 개입,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제공, 의원 입법발의 저조 등으로 시민과 시민운동단체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공약화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가 약했다. 또한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부재는 한 동안 수원시의회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였다.

2. 시민운동 성장기 (1994~2002년)

1) 시민운동의 성장과 지역 정치

21세기를 앞둔 1990년대는 소련의 몰락으로 미·소 간 이념체제가 붕괴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기업들의 세계시장 공략이 거세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원 시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실업, 파산, 임금체불,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의 단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1995년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심재덕 시장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며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하였다. 시장이 사용하던 관사를 수원시립어린이집으로 바꾸고, 매월 1회씩 지역 현안을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화요일에 만납시다’, ‘1일 명예 공무원제’, ‘여성 움브즈만’, ‘명예 공사 감독관 임명’, 행정종합정보센터의 설치 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시민참여정책이 시정에 도입되었다. 또 수원시연 화장 이전, 쓰레기소각장 건설, 1996년 수원축성 200주년을 맞은 화성행궁 등 대대적인 문화재 복원, 2002 월드컵경기 개최 준비활동 등이 있었다.

1993년에 작성된 2011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1년 인구 수요를 150만 명으로 잡았는데, 이를 근거로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에 2095수원발전기획단의 ‘수원시 종합발전 구상’, ‘수원의제21’ 작성과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비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IMF경제위기 이후 야기된 대량실업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실업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역 실업대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의 지원을 통한 실업극복운동이 펼쳐졌다. 수원시 차원의 ‘수원시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되어 경제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구직·구인활동을 돕는 활동을 민관이 협력하여 펼쳤다. 1998년에는 삼

“시민의 힘모아 공명선거 실현하자”



1992년 수원의 공명선거실천운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성전자 백색가전 이전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2000년 7월 30일에는 ‘수원외국인노동자협회’가 개소되어 수원 및 인근 지역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노력하며, 종교와 국경 그리고 인종을 넘어선 평등한 노동과 인간다운 삶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수원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조직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학연, 지연에 의한 선거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방송사 및 신문사와 ‘시장후보자초청토론회’를 진행해 공약 검증 및 공약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심재덕 시장은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노력을 펼치며 수원천복개반대운동을 하던 시민운동단체들과 입장을 같이했는데,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하는 개혁적인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며 시민운동가들의 시정참여를 도왔다.

한편 1998년 6·4지방선거를 통해 수원EYC와 수원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하며 민주화운동, 진보운동에 활동해 온 김현철이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3번에 걸쳐 당선되어 수원시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그리고 1998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기우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수원시민광장 사무국장 등을 맡아 수원 지역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2000년 수원총선시민연대활동은 금권과 불법선거에 편승한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깨끗한 정치,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뇌물수수로 구속된 바 있던 자민련 이태섭 후보를 낙선 대상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쳐 결국 낙선시켰다. 당시 수도권 낙선 대상자 20명 중 19명을 낙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2002년 4월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후보들에 맞섰던 도의원 이기우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수원 정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지역문제와 시민운동

수원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환경운동이 자리를 잡았다.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



1995년 시장 후보에게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2000년 수원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로 및 주차장 등 자동차 이용 공간을 확대하면서 축소되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공간을 지키고 대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 했다.

‘수원 팔달산 동서 간 터널설치’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은 199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안되어 1994년 수원시가 추진했는데, 문화유산인 화성을 훼손한다는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1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팔달산터널반대 수원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심재덕 시장의 당선으로 중단되었다.

1995년 6월 27일 민선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천 복개’는 뜨거운 선거쟁점이 되었다. 역시 수원 지역의 교통난 해소가 명분이었다. 1995년 12월 수원 지역 15개 단체들이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본부장 박천우 장안대 교수)’를 결성한 후, 1996년 1월 ‘수원천 복개공사 중단, 남수문 복원’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다양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수원 지역 시민운동은 수원천 복개를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던 심재덕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1996년 5월 21일 ‘수원천 복개공사 중단’ 발표를 이끌어 냈다. 심재덕 수원시장은 ‘수원천 되살리기운동’의 경험에 이어 IMF경제위기 해소와 2002년 월드컵 수원 유치 등 수원시 주요 정책을 집행하고 비전을 모색하는 데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길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수원시 한가운데 위치한 팔달산과 문화유산인 화성을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여겨 왔던 시민들의 생각과 수원시 정책을 전환하도록 했고, 수원을 대표할 상징으로 더욱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마침내 1997년 유네스코는 수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자료집

1994년부터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수원경실련에서는 수원시가 ‘지방의제21’을 작성·실행해 환경친화적인 수원 발전을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였고, 1995년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 의해 그 추진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1996년에는 수원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추진 논의에 들어갔다.

‘수원의제21(Local Agenda 21

in Suwon City)’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에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현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이 조직은 수원 지역발전의 가치와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원 지역의 경제와 사회, 환경을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 지역사회를 개발해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1998년 6월 「환경선언문」 발표, 1999년 2월 22일 관련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지표와 실천 지침인 ‘희망수원21’은 지속가능한 수원의 미래 비전과 실행계획을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협치)를 이루어 추진하도록 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현대 도시의 팽창은 급격한 인구와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 왔다. 수원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70년 1,700여 대를 시작으로 1980년 5,700여 대, 1990년 5만 5,000여 대, 1995년 말에는 15만 6,417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조직, 학교 앞 어린이 안전지도 활동을 펼쳤다.

1994년부터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을 펼친 수원YMCA,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모니터링, 교육, 토론회를 매년 추진하여 수원시 정책방향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1995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였다. 1999년부터 수원YMCA를 비롯한 노인회, 교통장애인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수원경실련,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는 ‘수원 지역 보행권네트워크’를 조직하였고, 공무원, 교통 전문가, 시의원과 함께하는 분기별 1회 토론회를 통해, 2001년 수원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수원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하였다.

IMF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무한경쟁의 심화 및 실업과 비정규직화에 따른 빈곤층의 양산은, 회원 회비에 의존해 오던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의 재정구조를 악화시켰고 활동 역량도 약화되었다. 또한 환경보전을 바라는 목소리가 주춤해지고 경제성장 위주의 공약을 내건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을 얻어 당선되면서, ‘환경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한 수원 지역 시민단체연대의 영향력도 약화되었다. 그만큼 IMF경제위기의 그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도 여실히 반영되었다.

2000년대 초 수원시는 시민들의 쓰레기 저감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을 높게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쓰레기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일시에 높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민에게 청소행정 비용의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반대하던 타 시민단체 간의 입장 차이는 수원 지역 시민운동단체의 연대의 힘을 약화시켰

고 내적 갈등을 확대시켰다.

1994년 남편에게 구타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에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수원시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에 편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또 1987년 이후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교육, 집회를 해 왔는데, 1995년에는 경찰의 삼엄한 긴장 속에서 시민 및 민중단체, 대학생들은 수원시민통일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매년 토론회, 캠페인, 한마당 행사 등을 펼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하자부실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활동을 수원 YMCA와 법무법인 다산 등에서 진행하고, 아파트관리비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펼쳤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펼치려는 노력도 진행하였는데 구운동 ‘삼환아파트’의 사례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아파트운동으로 소개되었다.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행정에 의존하는 주민의 의식과 관행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바꾸고, 권위적인 정치와 주민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행정문화를 행정과 주민 간의 건강한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여겨 수원 지역 시민운동가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었다.

1999년 송죽동 등 3개동을 시작으로, 2001년도에는 수원시 전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실제 운영 책임은 관(동장)이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만 담당하게 되어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아파트공동체운동

수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아파트 난방연료를 댕커C에서 경유로 바꿨다. 그렇자, 32평짜리 아파트의 한 달 관리비가 갑자기 10만원이 더 나오더니—

지난 2월 중기 수원시 구운동 삼환아파트 15개동 1천여세대가 7천여 주민들은 1월 아파트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주민들은 속마음을 갖고 4월초부터 일일 주민대표로 전문을 세 단위로 삼아냈다.

그 후 석달에 6월, 7월 아파트 관리비를 1억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타선을 마련했다고

아파트 관리비 약도 제정했다. 주민대표 직선, 각종 공사나 물자 구입의 공개경쟁 입찰 원칙 등이 바로 그 것. 언제든지 주민대표수의 찬성으로 공동회장을 재입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 도입했다. 부녀회 등이 수익사업을 통해 버는

수원 구운동 삼환아파트 열린분회교실의 한자수업시간.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기가 쓴 한자노트를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있다. 수원-송죽동기자

“관리비-私교육비가 줄어요”

관리비 직원은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삼환동역의 경우 지난해 평균 1백20원에 수의제에했던 것을 6월 부터 평균 1백40원에 대로 계약했다. 난방비는 1달 관리도가 3백 20원 정도라는 점을, 현상으로 13월80원까지 사였다. 경유는 1년에 약 2천7백만원, 경유는 1년에 약 5천만원쯤 절감하게 되는 셈. 송죽동도 평균 50원에서 40원으로 내려 계약할 예정이다. 1년에 6백만원이 더 절감된다. 삼환아파트(48대)관리비는 1대당 평균 2만5천원에서 훨씬 적잖게 줄어들 수 있다. 건물 도난도 해인 트를 구입한 후 인부들 고용에서 할 예정이다.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에 비해 비싸지만 총액으로는 분, 절감의 비율은 현대로 1/3로 줄었다.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인 분회기 세무사 설계사 주택공사리 등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주효했다.

모든 입주들은 특별추진추진단으로 별도 조직 했다. 반상회도 자치회로 바꿨다. 관리사무소의 넓은 공간은 열린 분회교실로 활용한다. 5월 19일부터 초등학생과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개강한 이 교실에는 총액 100여명이 참여했다. 초등학생 강좌는 한자 미술 영어 쓰기 바둑, 주부들 강좌로는 단란호춤 사에 한 국어를 사물놀이 불교가교교과 등이 있다. 이 중 영어와 단란호춤이 최고 인기. 전부 무료다. 강사진은

모든 아파트 주민들 중 자취봉사자들, 한자는 전지 교수, 영어는 이 화에대 연봉과 출신의 전문학을 회 회강사 등 모두 2개반에 총 20명만 전문강사이다. 앞으로는 송죽동들의 자습을 위해 아래 열린 분회교실을 2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주부 최영순씨(41)는 「초등학생을 한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가 수 십만원까지 들어간다고 말했다. 입주대표위원회에 백문부회장(44)은 「초등학생과 교사는 「초등학생

은 이강고까지 불리는 아파트관리비와 주수현상을 막는 것을 비롯해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줄 아는 주민대표들의 관리비는 임대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한달에 30만원, 관리소장이 20만원, 공동회가 한달에 한 번 회의를 하는 주민들이 전부다. 수원-송죽동기자

삼환아파트 공동체운동(『동아일보』, 1997년 6월 12일)

결정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확립될 수 없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져 이전보다 학습동아리들이 활성화되었고 자원봉사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2000년 10월 9개 시민단체는 수원주민자치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수원시 각 구를 순회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연찬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또 수원YMCA의 마을학교, 수원여성회의 방과후교실, 수원환경운동센터의 주민환경교육프로그램, 고동동의 주민참여 재건축 마을설계안 만들기, 인계동의 주민의 마을신문 『인도래』 발간, 연무동의 광고산 유기농단지조성사업이 있었다.

1997년 김대중정부로부터 2002년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크게 성장했지만, 수원 지역의 시민운동은 오히려 ‘상징’과 ‘구심점’ 없이 그 영향력이 점점 고갈되었다. 1년에 한 번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교류의 장을 마련했던 ‘수원시민사회단체 체육대회’도 2000년 개최 이후 2005년 8월 20일에 다시 개최될 때까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 및 지역 내 문제에 대한 공유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가졌던 ‘수원시민사회단체 월례회의’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사무국 단체에 지역의 연대업무가 몰려들어 책임이 가중될 뿐 전 시민단체들의 활동력이 떨어졌으며, 지역 사회의 비전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보다 관행적으로 치르는 행사 위주의 연대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3. 시민운동 위축기 (2003~2009년)

1) 민관협력의 위축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행정 영역에 시민운동의 창의성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을 하던 민선 1~2기와 다르게 민선 3~4기에는 수원시정과 시민단체의 관계가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에 머무르며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교통체증 해소를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설정했던 민선 3기 수원시와 이에 반대하던 수원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차이로 그동안 펼쳐 온 ‘거버넌스’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003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등 수원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만고가차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펼친 ‘수원시 환경, 교통정책 장례식’은 승용차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수원시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하는 행사였다. 시민단체 실무자와 아파트 대표가 구속되고 10여 명의 사람들이 재산 가압류를 당했으며, 30여 명이 동원된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2002년 7월 새로 바뀐 민선 3기의 수원의제21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민관거버넌스에 찬물을 끼얹었다. 9개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체계는 민선 3기 시장 및 행정의 지방의제21운동에 대한 몰이해로 상당 기간 불안정하게 운영되었고 수원시 환경정책부서의 민간사업 담당 정도로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설립,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으로 국고보조금의 상당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추진된 수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결성,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 역시 수원시의 민관협력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2006년 12월 수원시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움으로 이주노동자 지원과 다문화사업을 전개해 오던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에 대한 지원을 끊어 갈등을 겪었다. 기존의 자원 활동가들과 이주민들의 노력으로 2007년 2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수원이주민센터’로 개소하였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을 고위직에 집중 배치하는 시장의 인사, 수원시 재정을 집중 투자한 고가도로 및 지하철도 등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의정에 대한 감시활동과 부패방지운동은 조직적이거나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주민들을 대리해 그 문제들을 시 행정과 시의회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 제도권 내에 정치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민운동 방식이 등장하는 등 시민운동에 변화의 조짐도 생겨났다. 이른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중심에 둔 자율적, 개인적, 탈권위적 네트워크가 시민사회운동과 독립적으로 혹은 연계되어 표출되었다. ‘노사모’,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녹색가게, 공부방, 생활협동조합 등이 그 사례들이다.

또한 이슈적인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해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시민운동이 부각되었다. 2002년 수원체육문화센터를 수원시로부터 위탁 받은 수원YWCA와 2006년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을 위탁 받은 수원YMCA에 대해 시정에 대한 수원 지역 시민운동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시민운동단체들의 비판, 수원 지역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왔던 수원경실련의 소극적인 연대활동 참여와 독자적인 활동 표명 등이 있었다.

약화되던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관계는 2005년 8월부터 매월 모임을 개최해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수원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토론하고 개별 단체활동이나 활동가들 개인적인 시각을 넘어 지역사회를 바라볼 포괄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수원 지역운동의 중장기 비전을 담는 시민단체 연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또 민주노동당의 창당과 진보신당의 등장으로 진보적인 시민들과 청년들이 정당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고,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반대운동,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원역에서 꾸준히 펼쳐지며 지역운동의 다양성을 키워 갔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김용서 시장에 맞서 초창기 수원 지역 시민사회운동을 펼쳐 온 시민환경운동가이며, 한국사회에 지방의제21운동을 펼치고 참여정부 정책비서관으로 일해 온 염태영이 시장 후보로 나서 선전했으나 낙선하였다. 당시 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운동에 참여해 온 염태영의 출마에 공개적인 지지표명과 당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입장과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해 온 선거중립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주요 활동으로 5·31지방선거 좋은 정책 만들기 운동이었던 '33대 수원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수원시장 및 시의원 후보자들과 '공명선거 및 공약이행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또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수원KYC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우만고가차도 설치반대운동을 펼쳤던 김명욱, 수원여성회 및 학교급식운동, 민주노동당 활동을 펼쳐 온 윤경선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개혁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2) 사안별 시민운동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까지 '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수원운동본부'를 결성해, 우리 농산물 사용, 위탁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식재료 검사의무화, 급식비용의 경기도 및 지자체 예산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해 수원 지역을 포함 총 14만 명의 경기 도민이 서명한 주민 발의방식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또 2004년 10월 18일 수원운동본부의 조직을 확대·개편한 후 12월 수원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2005년 6월 20일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및 2만 2,909명이 참여한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다. 수원시는 7월 서명 유효자 1만 6,655명으로 수원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 수리 결정을 통보하였다. 2006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수원시청 앞 천막농성과 시민 캠페인을 펼쳐 4

월 26일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5월 19일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조례」로 공포되어, 수원시 첫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다.

‘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시작되어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소개되었다. 수원경실련은 오랫동안 의정 및 예산감시운동을 해 왔는데, 2005년 시의원·시장 공약사항 이행평가, 관공비 사용내역 분석,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불요불급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쳤다. 또 수원 시내버스의 불법운행과 수원시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개선하도록 운동을 펼쳤다. 수원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경기복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요구 예산 반영의 노력이 꾸준히 펼쳐졌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공동방청단을 구성해 활동한 이후 2006년 수원 지역 시민단체 9개 단체로 ‘수원 참여예산연대’를 구성하였다.

2007년 1월 경기도감사를 통해 드러난 수원시 공무원 333억 원 추가근무수당 불법 수령에 대해,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6월 수원시장을 비롯한 복무관리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수원지검에 고발 접수하였다.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고, 검찰은 “초과근무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나, 관행에 의한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관련 책임자 23명이 감봉 훈계 등의 경징계조치를 받았고, 일부 부당수령금 환수, 재발방지 차원의 지문인식기 활용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수원비행장은 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에 장애를 주었고 서수원권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요인이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반전평화운동 및 군축운동으로 ‘수원공군비행장 문제’를 인식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펼쳤고, 기지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음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하였다. 아울러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운동 및 기지 내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의지구택지개발지역은 수원시 녹지의 중심인 광교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러나 2002년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의 취임 이후 ‘수원 이의지구 행정타운 및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이 입안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의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과 보존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토지주, 건설업계, 경기도(경기도시공사) 및 수원시가 연합해 추진한 개발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2003년 8월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의동 개발계획 반대 및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작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11월 15일부터 '이의동 난개발 반대' 및 광고산 녹지축 보존을 위한 범시민서명운동,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부당성을 알려 나갔다. 결국 시민단체들의 '광고산 녹지축 보존' 요청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금 이 지역의 45.7%를 녹지로 보전하라는 조건부 통과결정을 이끌어 냈다.

효율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던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80:20 사회로 대변되는 빈곤층과 실업자가 양산됨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정책으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다. '수원지역자활센터' 등 수원 지역 내 3개의 자활후견기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간병,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여성일용가사도우미 사업,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활공동체들은 2007년 정부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는데, (주)함께 일하는 세상, (주)짜로사랑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들에 의한 조직을 육성하는 '마을만들기운동'이 대두되었다. 이는 풀뿌리 자치운동이며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운동이고, 경제적으로 순환과 나눔의 공생운동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수원시 금곡동의 칠보산도토리교실을 중심으로 한 '두꺼비논 운영' 및 생태환경교육, 공동육아 및 교육에 관심을 둔 주민들의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칠보산 자유학교 운영 등은 탄탄한 공동체 정신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두레생협, 황구지천 살리기, 칠보농악 전수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KYC,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등은 광고산 생태마을 만들기, 행궁동 마을만들기, 탄소가스(CO₂) 제로마을 만들기운동을 펼쳐 마을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주민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4. 시민운동 활성화기(2010년 이후)

1)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수원시정 참여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환경운동가로 수원 지역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염태영의 수원시장 당선과 '시민참여 거버넌스에 의한 수원시정' 운영 천명은 수원 지역 시민운

동단체들에게 지역 시민운동을 펼치는 데 큰 활력을 주었다.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가 설립되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거버넌스 기구들의 민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또 수원시는 마을르네상스운동, 주민참여제안제, 시민배심원제 등의 시민참여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 이를 추진할 조직을 구성하였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가 한국사회에도 밀려들면서 자활공동체 이외에도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2012년 예비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사회적 기업이 43개, 협동조합이 8개, 마을기업이 3개가 운영되면서 유·무형의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수원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2011년 12월 ‘수원시 사회적 경제 토론회’ 이후 수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영역과 거버넌스 기구들이 함께하여 ‘수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교류활동을 전개하였고 ‘사회적경제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있다.

2) 수원 지역 시민운동 연대와 시민운동

1987년 수원 지역 6월민주항쟁은 ‘자율적, 자치적, 지역적’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시민들을 본격적으로 수원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을 보내며 ‘지역사회가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2010년 8월 이후 ‘수원 지역의 소통을 위한 활동가 모임’을 진행하고, 연대체 추진을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 2011년 3월 3일 ‘수원시민단체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창립 제안문을 통해 “수원 지역의 풀뿌리 운동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의 연대를 더욱더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단결하여 수원 지역을 바꾸고 한국사회를 바꾸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활동 목표를 밝혔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는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수원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YMCA, 수원YWCA, 수원KYC, 수원홍사단,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민주희망광장,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나눔의집, 수원문화360, (사)한국민예총 수원지부, 풍물굿패 삶터, 극단 성, 수원새날의료생협, 수원생협,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수원지부, 수원정실련,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활동가 워크숍(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공)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설명회

수원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점차 선거 중립의 한계를 깨닫고 좋은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는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2009년 4월 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학교급식 의무화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건 김상곤 후보를, 2009년 장안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찬열 후보’를 지지하였다. 아직 정치적 중립을 근간으로 하는 단체들도 많지만, 지역정치에 대해 단체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좋은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당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월 10일 제5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의 야5당과 27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6·2수원지방자치희망연대’를 조직해 정책간담회, 시민정책과제 선포식 및 후보자 협약식, 좋은 후보 지지,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의원에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는데, 수원시민광장 및 수원민예총, 원천천살리기모임에서 활동해 온 김상희가 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선 5기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다. 수원여성회와 수원경실련, 다산인권센터 등 10여 개 단체는 이 정책을 위해 2010년 9월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수원추진본부’는 2010년 5월 11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후보자 정책협약식’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9월 17일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2012년 3월 수원시가 ‘수원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하도록 촉진하였다.

5. 수원 지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20여 년간 펼쳐 온 수원 지역 시민사회운동은 ‘좋은’ 지역사회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는 과정이었다.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존중해 정책을 기획하는 정치인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시각에서 사건과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대안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방송과 언론, 물질만능과 무한경쟁을 통한 사적 이윤 추구를 넘어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자연 ‘생명’을 해치지 않고 이웃을 성, 피부색, 학력, 직업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수원, 그런 지역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20년간 변화해 온 수원 지역사회를 ‘좋은’ 시민사회의 목표에서, 시장과 국가로

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결사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가 성숙해 가고 있는지 회고해 보면 우리의 현실은 험난하다. 수원시의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도록 도로 개설에 앞장서되 보행, 자전거, 버스교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인색하였다. 가난한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안락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원의 변두리와 밖으로 퇴출되었다. 심지어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채 공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IMF경제위기 이후 경쟁과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조류가 수원 지역사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시민들은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나 지역모임에 참여해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들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독재와 전체주의의 위험에서 멀어지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역동성을 발휘하게 된다. 규모와 영향력이 큰 단체들 이외에도 주민 공동체모임이나 종교기관과 같은 크고 작은 모임들, 그리고 온·오프라인의 시민적 연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시민적 공론장을 키워 갈 때, 수원 지역사회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가꾸어 갈 수 있다.

현재 수원 지역의 시민운동은 위기인가? 관료제로 인한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과 이윤추구에 집중하는 시장경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견제할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시민단체 내부와 외부로부터 들려온다. 그 내용은 첫째,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전쟁과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나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의존하고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민간위탁사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은 부연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시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시민단체(시민결사체)들이 자신들만의 결속을 강화하고 다른 이념, 가치,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배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단체들과 정책적인 민관 협력을 해 갈 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현실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단체 혹은 시민활동가 자신의 이상적인 가치를 고수하려고 해 협상과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는 중장기적으로 기획에서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용두사미가 되어 서로 상처를 받거나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거버넌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시민결사체로서의 시민단체를 가장하여 공권력이나 시장권력의 손과



민관 거버넌스-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창립 기념식

발 역할을 하며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혼란시키는 이익단체들의 등장이다. 국가(지방정부) 기능의 축소 및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정당화하여 공공성을 취약하게 만들어온 예이다.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원칙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행정’은 정책기획과 집행, 평가과정 전체를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들이 해 왔던 지방정부 운영에, 시민단체와 주민조직체를 중간조직(매개)으로 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운동,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수원시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 폐쇄적이고 성과주의를 앞세운 행정의 벽과 관행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조정과 합의하는 기간이 길어져 정책집행의 속도가 느리고, 때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옳은’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내기도 한다. 또 민관 거버넌스를 앞세운 현 시정에 우호적인 시민

단체나 주민조직 활동가 몇몇이 참여할 뿐,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민선 5기에 다양한 거버넌스기구(중간조직)에 참여한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 전문성과 봉사성 사이의 딜레마에 봉착할 수도 있다. 사회의 전문성 요구에 화답하다 보면 전문적인 일부 사람들(실무자 등)에 의한 기구화, 제도화로 이어져 오히려 시민들과 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으며 책임의식을 높여 갈 것인가? 결국 시민단체들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단체 활동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책임역량,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이다.

수원 지역 시민운동은 앞으로 세 갈래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시민단체들이 해 온 전문성을 살려 수원시 행정에서 운영하던 환경 및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영역보다 공익적 시민단체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간다면 지역사회의 ‘공공성’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민단체들은 협동사회경제영역과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거나 중장기적인 민관협력의 제도 틀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식의 매년 정산 및 성과 보고의 일시적, 단기적 프로젝트로는 수원 지역사회의 비전을 완성해 가는데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운동 등에 참여하여 주민들을 교육하고 역량을 높여 가는 ‘중간조직’ 으로서의 역할 또한 요청될 것이다. 셋째로 시민단체들은 2010년 지방자치선거 이후 정치중립에서 벗어나 시민단체들의 공익을 실현해 갈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를 검증해 지지하거나 시민단체 활동가나 회원 중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중립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해될 때 시민단체의 생명력도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 정신에 반하는 폐쇄성과 분파성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거부감도 존재하지만,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당개혁운동이나 정치 관련 시민운동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려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충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

1. 환경운동의 태동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한 환경운동의 발전
3. 새로운 모색 _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수도 만들기



제2장

수원의 환경운동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듯, 수원 지역 환경운동의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록 짧은 역사를 지녔지만 수원의 환경운동은 풀뿌리운동의 모범으로서, 하천 살리기 운동의 모델로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왔다. 수원의 환경운동은 수원이 갖고 있는 지형적·사회문화적 특징, 그리고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물,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환경운동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 환경운동의 흐름을 태동기, 발전기, 새로운 모색기 3단계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환경운동의 태동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

먼저 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에 앞서 수원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수원의 지형적 특징은 북고남저의 형태로, 광교산과 도심이 경사도가 매우 가파르고, 사방이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상업이 발달하고, 사통

팔달의 교통중심의 도시, 그리고 역사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높고 경기 남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수원 지역의 환경운동은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산업폐기물매립지 침출수 유출에 따른 기형가축의 발생과 공업단지였던 원천리천의 물고기 폐죽을 사건을 계기로 1991년 수원미술인협회의에서 환경미술전을 개최하여 공해문제를 고발하는 문화예술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예술운동은 매년 환경미술전을 개최하고 1996년 전국환경미술전으로 이어지며 환경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원YMCA, YWCA는 1990년대 초반부터 폐우유팩, 폐지모으기 운동 등 재활용운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환경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환경운동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였다. 수원YWCA는 적극적인 재활용운동을 펼치기 위해 1991년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1996년 전국환경미술제

1 수원미술인협회의(수미협)는 1991년 창립(회장 최춘일)되어 기획전으로는 환경미술전(선화랑), 사진분과전(선화랑), 1992년 환경전과 함께 환경 그리기대회를 주관하고, 재활용품바자회전(매단공원),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창립대회 야외전(성공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3년 수원미술인협회의는 기존의 환경미술전을 강화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와의 연대의 틀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



1992년 우유팩으로 재생용지 만들기 강습



1991년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아나바다 장터

쓰고, 바뀐 쓰고, 다시 쓰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환경운동에 전념하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원 지역의 환경운동을 이끌어 가기에는 미흡하였다.

수원에서 환경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시민운동의 조직체가 구성된 것은 1990년 9월 고등교회(박희영목사) 환경선교회이다. 고등교회 환경선교회는 합성세제, 일회용품 등의 소비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며, 이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발족하였다.² 이러한 교회의 환경운동은 교회신도를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1992년 환경을살리는여성들³의 발족을 견인하게 된다. 1992년 수원미술인협회의회에서 개최한 야외환경미술전(성공회)에 찬조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원 최초의 환경운동 시민단체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물론 주부들로 구성된 조직의 한계는 있지만 본격적인 환경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듯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주부환경단체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나갔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세계환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리우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의 환경운동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반공해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 변화를 시작하였다. 수원 지역도 제1회 환경한마당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실천방안을 제기함으로써 환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3년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시민환경감시단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녹색회(회장 이형진)를 발족하는 등 환경 관련 시민운동이 태동하게 된다.

수원 환경운동의 대중화는 1993년 제2회 시민환경한마당 행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원 지역의 15개 단체가 모여 시민환경한마당행사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기관과 기업의 협찬과 후원을 얻어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의 환경축제이자 시민환경교육의 공간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주제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및 환경운동을 전개하였

2 이성복, 「『고등교회』 - 선교지탐방 11」, 『안동교회보』 36, 1990년 12월.

3 환경을살리는여성들(회장 김현숙)은 1990년 창립되어 재활용운동, 주부환경교실 등 생활 속 주부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였고, 1999년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통합하였다.

다. 2009년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기까지 수원 지역의 가장 주요한 환경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1993년 환경한마당 행사는 수원 지역 전문환경단체의 출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5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존의 지역 환경운동을 질적·양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환경단체의 설립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이후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원 지역 환경운동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모아 시민단체들의 연대에 기초하여 수원환경운동센터를 1994년 5월 7일 창립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 풀뿌리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녹색연합 장원 사무처장, 환경개발센터의 이진아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지역 환경운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수원환경운동센터⁴는 “수원 지역 환경의 파수꾼이 되고 지킴이가 되어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고,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고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 1992년부터 수원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1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시민환경한마당 행사를 개최 …… 그로부터 2년 뒤 시민단체들의 발전적 제안으로 전문적인 환경전문단체 …… 설립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소개 글과 같이 지역에 새로운 풀뿌리 환경운동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한 환경운동의 발전

지역 환경단체가 창립된 후 10여 년 동안 수원 지역의 환경운동은 격동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수원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수원시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과와 한계를 통해 지역 환경운동이 발전했으며, 지방의제21이라는 거버넌스 조직의 출범, 그리고 수원환경운동연합(2002년 발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⁴ 수원환경운동센터는 1994년 5월 7일 창립, 공동대표 박경조, 박희영, 정춘자, 사무국장 염태영, 운영위원은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물환경모니터링단의 정수장 방문(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1) 환경오염조사와 정책 제안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의 창립을 계기로 수원 지역에서는 다양한 조사활동이 펼쳐졌고, 수원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이 실시되었다. 1993년부터 수원시 토양오염도 조사, 하천 수질오염도 조사, 1994년부터는 대기오염도 조사, 수돗물 잔류염소량 조사, 생태계조사 등 수원의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알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참여를 이끌어 냈다.

당시 지역일간지에서는 대기오염도 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수원시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기사화하기도 했고, 경인일보사는 공동으로 하천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조사로 끝나지 않았고, 수원시정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샛강 살리기, 대기오염 줄이기, 쓰레기 감량화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영통대로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

2) 수원 지역의 흐름을 바꾼 지역환경운동

1994년 수원시(시장 이호선)는 도심교통체증 해소책의 하나로 팔달산에 관통터널을 뚫겠다는 정책이 입안되었고, 이에 대해 수원의 환경단체들은 팔달산 관통터널 반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펼치게 된다. 팔달산 생태계 보호와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제시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으로 결국 백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는 수원 지역에서 최초로 개발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 성공한 사례이다. 이러한 성공은 지역의 환경운동에 커다란 힘을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 가장 큰 환경문제는 하천의 오염과 그에 따른 주민 민원이었다. 하천에는 거의 생명체가 없거나 붉은 실지렁이 같이 오염된 곳에 서식하는 생물 뿐이었고, 연탄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하천과 호수의 물고기 폐죽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1991년부터 수원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수원 도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천 복개공사는 시작되었다.



1995년과 1996년 2년에 걸쳐 수원 지역에서는 수원천의 복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역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이었다. 1990년 매햄교-매향교 1,200m를 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91년부터 1994년까지 1단계 매햄교-지동교 790m를 복개하였으나 1995년부터 2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23%의 공정률을 보인 수원천 복개공사에 대해 15개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의 대대적인 복개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수원천 복개반대운동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시작된다. 1995년 민선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에게 수원천 복개 찬반 의견을 했고, 2명의 후보가 복개 반대의지를 피력하였다. 결국 복개 반대를 표명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복개가 당연히 중단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행정은 이러한 바람과는 반대로 흐르게 되었다. 복개를 찬성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복개 축구를 요구했으며, 시의회 또한 복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과정에서 시의원 간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

였다.

1995년 12월 5일 8개단체가 모여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성명서 발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청원서 제출,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시민 토론회, 서명운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환경쟁점으로 부각시켰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었다. 수원천 복개에 대한 방송국,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는 하천 살리기 운동의 새 역사를 쓰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러한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의 복개반대운동은 결국 1996년 5월 시의회에서 심재덕 시장이 문화재를 지키고 수원천을 살리기 위해 수원천의 복개를 철회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하천 살리기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지금까지도 강 살리기운동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3) 미완의 쓰레기 시민운동

그동안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운동을 했던 시민환경단체와 시민들에게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쓰레기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던 수원시 쓰레기를 자체 처리시설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반입 중단할 수 있다는 주민대책위의 강경발언은 수원 지역의 쓰레기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씨를 던졌다. 1993년 12월 30일 수원시의회가 영통택지개발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1,0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의결하자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1994년 5월 31일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비롯한 수원 시민단체들은 대형소각장 건설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원시의 소각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수원시는 6월, 매립비용보다 소각처리비용이 많아 경제적 효율성이 없고, 800억 원의 민자 유치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각장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고, 6월 11일 수원환경운동센터는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원시의회는 의회 통과 사안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소각장 건설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로써 소각장 건설은 결국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의 타협으로 600t/일 규모로 축소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어 결국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원시의회의 결정은 이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영통택지개발지구는 시군 간 경계조정을 통해 화성군, 용인시의 일부가 수원시에 편입된 지역이며, 주민들 또한 수원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수원시의회는 당시 택지개발지구에 필요한 소각용량을 뛰어넘는 대형소각장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결정된 소각장은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에서 발간한 홍보책자에는 거의 누락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입주민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⁵ 결국 이는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기름을 붓게 된다. 소각장은 1996년 6월 24일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들의 빗속 반대시위와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에 이른다. 1998년 소각장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영통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고, 입주민들이 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1999년 1월 영통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소각장 관련 합의서 작성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는 분열되었고, 결국 소각장은 건설하게

⁵ 수원환경운동센터, 「분양고지 누락 조사 보고 자료」, 『활동보고서』, 1996.



영통 소각장 가동 반대시위

된다. 그러나 시험가동 중에 소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대책위 또한 통합되어 소각장문제에 대한 새로운 행정기관과 주민의 협의가 진행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조사 시 가동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결국 수원시는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들의 격렬한 소각장 반대운동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수원시는 주민대책위가 요구한 것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000년 4월 17일 최초의 수원소각장 주민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⁶ 이렇듯 격렬한 분쟁 속에 매듭을 지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협약서 세부규정에 담겨 있는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환경운동은 2000년 4월 17일 협약서 체결로 매듭을 지었지만,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분열의 씨앗이 잉태되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여성, 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었다. 117%의 과격적 인상안

6 수원시장과 주민대책위원장이 협약 서명을 했고, 남경필 국회의원과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이 서명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시민단체들은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와 종량제에 따른 부담은 정당하다는 논리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의 필요함을 제기함으로써 지역시민단체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게 되고 결국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은 철회되고, 재조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환경운동은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시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환경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생태보전운동

(1) 광교산 보전운동

광교산은 한남정맥의 주요 산으로 수원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는 숲이며, 생태계의 보고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교산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광교 골프연습장 철거 운동, 그리고 광교산 등산로 훼손 실태에 대한 고발을 통해 광교산 땅 한 평 갖기 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광교산의 중요성은 사단법인 광교산의 발족과 함께 매년 광교산 축제와 포럼, 그리고 숲속 학교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광교산에 대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광교산 통나무집을 매개로한 광교산 생태학교, 광교산 등산로 실태조사, 광교산 생태마을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2) 칠보산 습지 보전운동

칠보산 습지보전운동은 안산시 사사동 지역에 습지가 발견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분별한 습지식물 채취로 습지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 경인일보사, 안영희 교수(중앙대), 안산과 수원의 환경단체들이 칠보산습지보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습지탐방과 습지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은 미흡하였다. 2000년 칠보산습지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간담회, 워크숍을 진행하고 칠보산 습지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나 안산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고, 수원 지역은 과천-봉담고속도로 칠보산 절단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원시 소재 습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칠보산도토리교실을 중심으로 두꺼비는 조성과 칠보산 습지 보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광교산 생태복원 알림판



광교산 생태학교 에너지교육(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3) 청명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운동

청명산은 영통신도시 주민에게는 산책로이며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용인 수지 지역과 화성 동탄 지역 개발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는 양재-영덕 고속도로에 이어 화성 동탄과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동탄과 서울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7월 영통 주민들은 이에 대한 청명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운동을 제기하였다. 청명산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결국 건설교통부가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수원 시민들의 숲보전운동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

(4) 여기산 백로서식지 보전운동⁷

여기산 백로서식지 보전을 위해 수성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수원 지역의 생태보전운동에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호의 수질오염과 함께 주변 농경지들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잠식당하면서 자연생태계는 큰 영향을 받았다. 서호와 여기산 주변에는 정자·화서지구 등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콘크리트 숲으로 덮이면서 자연생태환경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서호 옆 여기산에 집단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백로들의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수성고등학교 강창수 교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여기산 백로 집단서식지 기초생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기산 백로의 수는 2001년 180마리, 2002년 157마리, 2003년 107마리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백로의 종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까지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황로, 해오라기 등 6종이 관찰됐으나 2003년에는 황로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통해 “백로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백로 서식지 주변의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므로 백로의 주된 먹이공급처인 서호의 수질오염과 서호 주변 농경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백로서식지 보전운동은 광고산 반딧불이 보전운동, 칠보산 두꺼비 서식처 보전운동, 현재 수원청개구리 등 깃대종 살리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7 『수원일보』, 2004년 9월 7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

5) 도시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

급격한 도시화와 경기 남부 지역의 도시 연담화 현상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시민들의 여가공간과 생태계 서식공간이 훼손되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음을 환경단체들은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도시개발을 둘러싼 대응은 계획수립 시 문제제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로 행정의 의지로 어느 정도의 시기조절만 있을 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집행된 사례로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

2001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농생대) 이전 결정으로 11월 환경단체들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농생대 부지를 ‘시민의 숲으로’라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농생대 부지는 재정부 자산관리공사의 관리로 넘어갔고, 결국 농생대 부지의 오래된 나무와 의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로 토지의 매각을 추진했던 중앙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와 경기도의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와 토지 유찰로

이 부지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왔다. 2002년 제11회 수원시민환경한마당 행사의 주제로 시민의 숲 조성을 선정하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비롯한 수원 지역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대 농대가 지금까지 지역에서 지녀 온 의미를 살리고, 100여 년 동안 잘 가꾸어진 다양한 식생들의 귀중한 가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시민의 숲 공원”⁸ 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10년 만에 경기도는 경인교육대학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수원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시민의 숲으로, 생태문화공간으로 다시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2)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우만고가차도 건설

2003년 수원시의 가장 큰 환경 현안인 우만고가차도 건설은 도시환경문제의 축소판이었다. 수원시는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번 국도 입체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사업계획에 우만사거리 고가차도 건설도 포함되었다. 2003년 새해 벽두부터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고가차도 철거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고가차도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대운동을 펼쳤지만, 우만고가차도의 건설은 추진되었다. 이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주었다.

교통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공사의 불가피성만을 역설하고 결국 공사방해, 폭력행위 등의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김인호 대책위원장과 김명욱(당시 녹색환경연구소 연구원)이 구속되고, 10여 명이 불구속되는 등 수원시와 S건설사에 의한 고발로 주민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 “수원시 우만고가차도 건설과 관련, 시의 공사강행과 주민의 공사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와 시공사, 주민들이 서로 상대를 업무방해와 폭력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마찰이 법정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⁹ 라는 신문보도는 수원시 도시개발을 둘러싼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2005년 우만고가차도반대주민대책위와 수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15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수원시민환경한마당 행사로 고가차도 건설을 강행한 수원시의 환경정책의 사망을 선고하며 상여를 메고 수원시청 앞에서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이후 우만고가대책위원회는 인우회 모임을 결성하여 우만고가차도가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8 『제11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수원시민환경한마당 자료집』, 2002년 6월 2일 참조.

9 『수원일보』, 2003년 4월 23일.



우만고가차도 건설 반대 주민 시위 현장



완공된 우만고가차도

(3) 장밋빛 신도시, 광고 개발

광고신도시 추진은 1996년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과 3,200세대 아파트 건설이 맹아이다. 2002년 민선 3기에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의동 일원을 신도시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11월 경기도와 수원시는 행정타운을 조건으로 이의동개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다. 수원 이의동 일대 337만 평에 녹지비율 41.4%, 인구밀도 68.7인/ha로 가장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2003년 3월 25일 수원시의 반환경적이고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백지화시키고, 수원 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과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100만 수원 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기 위해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¹⁰ 결성하고, 이의동 개발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12월 30일 경기도와 건교부는 수원 이의동 일대 337만 평을 '경기 첨단 행정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12월 31일 시민환경단체는 이의동 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광고산 녹지축 등의 훼손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대한 반대와 도시 연담화, 교통문제 유발,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행정타운 건설 등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였다.

하지만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고신도시는 '선 환경계획, 후 도시개발' 발표와 2만 600세대와 행정타운 건설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2007년 1월 6일 시민환경단체는 경기도가 3만 1,000세대로 증가하여 건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택난과 세대별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증가요인이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의 이유였다. 민관협의 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아파트 추가건설에 대해 추호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던 경기도의 허구성을 보여 준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라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그린플랜과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던 광고녹지축 보전과 저밀도 개발의 내용은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개발사업 추진은 2011년 「수원시장에게 바란다」에 많은 광고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대책위는 2003년 3월 25일 개혁국민정당수원시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수원경실련, 민예총수원지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이 참가하여 결성했으며, 개발계획 백지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광교신도시 개발지역

(4)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운동과 교도소 부지 개발

2001년 하반기부터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었다. 신규 택지개발과 기존의 재건축개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조정이 핵심 내용이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소화해야 수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체증, 대기오염, 환경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적극적인 도시기본조례 개정에 참여하였다. 신규택지 개발 시 용적률 200%, 재건축 개발 시 250%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들은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토론회 자체를 물리적으로 무산시키는 등 주민들의 사적 침해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도시기본조례는 신축 230%, 개축 280%로 조정됐지만 사회기반시설의 부족, 그리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사회문화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원시는 1990년 초반부터 10여 년 사이에 금곡지구, 영통신도시, 정자 율천지구, 권선 3지구, 매탄4지구, 원천지구, 신영통(망포, 신동지구) 개발 등 수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30여 만의 인구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편중된 도시 개발은 지역 간 소외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외된 지역의 새로운 개발욕구를 야기하였다.

신영통지구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교통체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반대 1인 시위(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중과 주민들의 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정자 율천 지구의 경우에도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택지개발이 시행됨으로써 공장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기업과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겨, 공장은 이전되고 택지개발로 일자리의 부족과 인구과밀화만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 외에도 많은 소규모 개발, 그리고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다. 2000년 3월 13일 수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으로 고층 고밀도 아파트 개발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은 법무부가 수원교도소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하는 비용과 여주교도소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2001년 2월 14일 수원환경운동센터의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도심 공원을 원했던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용적률 5%를 줄여 239.9%의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켰던 동수원사거리의 대책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공사비를 건설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재개발이 수원시 곳곳에서 추진되었다. 인계주공, 천천주공, 구매탄지구, 신매

탄지구, 그리고 권선주공 1, 2, 3차 등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이로써 국지적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심화되었다.

6) 현재진행형인 항공기 소음문제

서수원 지역은 항공기 소음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서수원 지역 주민의 가장 큰 민원은 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문제이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은 우울증, 심장질환, 청각장애 등 각종 소음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고색동청년회는 항공기 소음도 조사를 실시했고, 1995년 11월 22일 수원공군비행장 주변 지역 항공소음도 영향 측정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지역보다 수원공군비행장의 주변 지역 평균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서울대 농대 이전의 직접적 계기가 될 만큼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1999년 아주대 산업의학교실에 의뢰해 ‘수원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음 노출지역의 주민들이 소음을 스트레스로 여기며, 만성적인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7년 1월 31일 수원시의회는 소음 피해대책과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특위를 구성했고, 평동, 구운동지역의 시의원과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따른 법적 소송을 진행하였다. 소송결과 첫 배상판결이 이루어졌다. “2008년 7월 3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일 서수원 지역 주민 4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 20여만 명이 3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온 첫 판결이었다.”¹¹

이러한 주민소송 외에도 시민환경단체들은 공익소송을 전개하였다. ‘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04년 12월 수원비행장 이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음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5년 6월 시민환경단체는 수원 지역 군사기지와 관련한 ‘반전평화 의제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비행장 소음 소송과 관련해 논의했

11 『중앙일보』, 2007년 7월 4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시민보고대회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지역 내 초·중·고 교장 초청간담회

고, 2005년 9월 차궁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이 표면화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이 소송이 단순히 소음피해를 금액으로 보상하는 소송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익소송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10월 24일 오전 11시 수원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비행장 폐쇄와 소음피해대책 및 배상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본부' 구성과 공익소송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¹²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소음도에 따른 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비행장으로 인한 서수원권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환경현안이 지속되고 있다.

7) 환경교육,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지역이 변화한다

1990년대 초반 수원 지역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기는 했지만 사회문제 강좌의 한 부분 또는 일회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성이 담보되지는 않았다. YMCA, YWCA 등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재활용 운동을 통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1993년 환경을살리는여성들의 주부환경교실, 수원경실련의 시민환경감시단 교육이 초기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으로 여러 강좌로 개설된 것이 수원 환경교육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환경교육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특히 주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레기문제, 물 문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낙동강 폐놀사건의 영향 때문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역의 환경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의식과 주민의 대응 방법, 그리고 운동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환경교육의 형태는 환경단체에서 행해졌던 학자중심의 공개강좌나 단기간 답사형태의 현장교육, 초·중·고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캠프 등 행사성 위주의 일회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에서도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¹³ 이는 1990년대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이며, 초기 수원 지역 환경교육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1990년대는 대부분의 환경교육이 실내 중심의 교육이 많았으며, 실외교육은 환경기초

12 『수원일보』, 2005년 10월 19일.

13 수원환경운동센터, 『바람직한 환경교육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

시설 방문, 하천탐사, 숲속기행 등 견학, 탐사, 기행 등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이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공해교육 중심에서 새로운 대안교육으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교육이 심각한 공해문제를 통한 접근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대한 교육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¹⁴는 문제의식처럼 당시 환경교육은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목적이었다.

1996년에 들어서 수원환경운동센터는 환경운동으로서 환경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환경교육 모색을 위한 ‘초중등교사 환경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수 이후 수원 지역환경교사모임이 구성되었고 또한 2박 3일의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환경들살이학교’를 기획하여 환경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환경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지역 환경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서울대 산림자원학과와 함께 환경체험교육을 위해 PLT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2000년 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도자가 양성되면서 환경교육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교육을 이수한 주부들이 모여 생태교육을 위한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이 모임은 향후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환경교육의 주요한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역량의 증대는 그동안 소수 중심의 환경교육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프로그램 개발의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결성(경기도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정보의 공유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교육은 실내 교육, 그리고 탐사, 기행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00년 수원환경운동센터 소모임으로 초록세상이 만들어졌고, 이후 환경운동연합 소모임 온새미로 등 지역에 생태교육을 지향하는 모임들이 발족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펼치고 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수원환경교사모임은 2002년 칠보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모임으로 칠보산도토리교실을 만들어 두꺼비논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 생태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를 개발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4 이인식, 『환경교육의 의미와 실천』, 1996.

3. 새로운 모색 _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수도 만들기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환경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 주었다. 우호적이기만 했던 언론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환경단체의 활동방식에 대한 내부의 비판도 거세졌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으로는 환경운동이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원 환경운동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 변화에 새로운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는 시화호, 동강댐,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사업, 그리고 수원 지역의 고가차도 건설, 택지개발 등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따라서 수원 지역 환경운동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행정과 협력을 통한 시정의 변화, 그리고 정치적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1) 지방의제21 _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환경운동의 지평 확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열린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의 하나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이 등장하였다.

1997년 4월 22일 수원시 조례에 근거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가 창립된다. 창립된 후 1년여 기간에 걸쳐 의제작성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98년 『수원의제21 연구보고서』를 발간되었다. 지방의제21은 민관거버넌스의 기구로 민관이 함께 의제를 작성하고 각 주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시정의 환경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리우정상회의를 통해 제안된 지방의제21의 실현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민간사무국을 구성하였고, 민관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지방의제21을 통해 관 주도, 전문가 중심의 개발 계획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시민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결성 초기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의제가 설정되었지만, 2001년 의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주민자치, 여성,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의제들이 확대되었고, 2006년 이후 광교산 유기농단지 조성과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민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벽화 골목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환경운동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다양한 주체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본 경험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는 민과 관의 참여 당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 수도 수원 만들기 모색은 이러한 지방의제의 거버넌스의 경험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2)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_ 하천살리기 운동의 중심 역할에 나서다

1995~1996년 수원천복개반대운동과 1996~2001년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 그리고 1996년 삼성전자 · 아주대 · 수원환경운동센터 · 수원시가 공동으로 원천천 수질개선대책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하천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행정기관의 협력체계가 구축



2012년 한국 강의 날 수원대회 수원시 홍보부스(수원환경운동센터 제공)

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시는 하천관리의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2004년 「수원시 물관리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2005년 수원시중소하천 유역네트워크(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사무국 운영)를 발족시켰다. 네트워크 산하에 수원시의 4개 하천(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 소유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교와 시민환경단체,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모니터링, 정화활동, 교육, 하천축제 등을 개최하여 하천 살리기 운동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2008년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원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심의 통과되어 민관협력뿐만 아니라 물관리 일원화 방안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은 2010년 한국 강의 날 안동대회에서 KYC도시생태농업지킴이가 최우수상, 2012년 한국 강의 날 수원대회에서 '서호천의 친구'들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천운동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2월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는 재창립하게 된다. 별도의 사무국을 구성하여 하천 관련 전담 인력을 두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통합 민관협력 하천 살리기 운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의 4대 구청 간담회, 행정기관과 하천조사, 그리고 국제 행사로 2011년에는 한일청소년물포럼, 2012년에는 아시아태평양청소년물포럼을 개최하

고, 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을 유치하여 한국의 강 살리기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수원 지역 시민환경운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3)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 수도 지향과 과제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로 민선 5기가 발족하면서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수도를 표방하고, 세부추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녹색거버넌스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하천유역네트워크의 경험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2011년 2월 좋은시정위원회 환경수도전문위원회 발족, 그리고 2011년 9월 26일 '환경 수도 수원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수원시 정책의 변화로 수원 지역 환경운동은 양적·질적 변화와 새로운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 비판과 견제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백화점식,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수원 지역 환경운동은 정체되고 퇴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 지역 환경단체는 2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사무실과 상근인력이 확보되고 지속적인 활동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는 곳은 50%에 불과하다. 물론 환경운동이 작은 것, 작은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을 지향하지만 환경수도, 환경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의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2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수원 지역 환경운동은 전국적인 이슈인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을 반대하는 해상시위, 동강을 살리기 위한 도보순례, 새만금 삼보일배, 천성산 살리기 등에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풀뿌리 환경운동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수원천 복개 반대 운동을 통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이끌어 내고, 결국 복개구간을 다시 복원시켜 환경운동의 모범을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 수원의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녹색거버넌스를 통해 환경수도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유문중 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소장

1. '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 이란 무엇인가?
2. 마을공동체운동의 출발 _ 아파트공동체운동과 2000년대 초·중반 마을만들기운동
3. 마을공동체운동의 정착 _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의 마을공동체 활동
4. 마을공동체운동의 개화 _ '마을르네상스' 활동



제3장

수원의 마을공동체운동

‘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변화를 주게 되어 광주 북구청(2004년 3월), 안산시(2007년 9월)를 필두로 확산되어 가던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수원시(2010년 12월)를 비롯하여 남양주시(2011년 4월), 하남시(2011년 5월), 강릉시(2012년 4월) 등의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서울시(2012년 3월), 부산시(2012년 7월), 경기도(2012년 8월)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 명칭¹은 다르나 그 내용은 ‘마을’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책무와 역할 규정,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추진사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에서도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과 관련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1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등이 있다.



마을만들기 현장 선포식

전개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곧이어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1년 6월에는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마을공동체운동의 여러 영역 중에서 수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아파트공동체운동과 200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의 마을만들기운동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개별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마을만들기운동이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구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이하 수원의제21)’가 주도하는 ‘마을의제21’사업과 연계되면서 지역적·내용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검토해 본다. 이와 함께 수원의제21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운동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운동에 대해 ‘마을르네상스센터’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이란 무엇인가?

‘마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나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예전에, 관리나 벼슬아치가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곳을 이르던 말’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² 이를 통해 ‘마을’은 과거와 시골에 대한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화가 90% 이상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마을’과 ‘마을공동체’는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60~1970년대 개인적 이동을 넘어 1980년대 이후 가족단위의 이동이 확산되고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지역 마을공동체의 파괴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공동체가 유지해 온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사망노인의 장기간 방치, 주차시비로 생긴 다툼, 청소년 성 범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치안과 청소년교육, 노인복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무질서한 도시 확장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을 비롯하여 도시경관, 안전, 주민자치 활동 등 도시의 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에는 39.1%였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2005년에 90.1%로 급증하였으며, 수원 시민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73%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공동체’운동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수원에서 마을공동체운동은 1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121km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려는 도시민들의 운동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³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만들기운동은 조례에 의해 그 목적과 추진방향, 추진사업 등이 결정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최근에 제정된 서울시의 조례는 명칭에서부터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나타난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마을(공동체)만들기 운동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2 ‘마실’을 ‘마을’의 방언으로 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실’은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강원, 경상, 충청 지역의 방언 또는 북한어라고 한다.

3 이 글에서는 마을공동체운동을 마을만들기운동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수원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운동은 물리적 공간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명시적이든 혹은 암묵적이든 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할 것이며, 문맥에 따라 선택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

- 1항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 2항 “좋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1항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항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응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3항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항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2항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3항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항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2. 마을공동체운동의 출발

— 아파트공동체운동과 2000년대 초·중반 마을만들기운동

1) 아파트공동체운동

한국에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은 1998년 2월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가 창립되어 중앙 언론에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⁴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철준이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소장으로 참여하면서 이 연구소가 주관하는 ‘아파



아파트공동체운동을 벌인 구운동 삼환아파트

트공동체 시민학교'가 수원·서울·고양 등지에서 개설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구·청주·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에서는 구운동에 있는 삼환아파트에서 당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아파트관리비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리 관리업체를 추방하고, 동대표 자회의를 통해 자주적인 아파트 관리 활동을 펼쳐 가면서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구운동 삼환아파트 활동사례는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중앙일간지와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다.⁵ 자치운동 2년을 맞아 연합뉴스에 소개된 기사는 삼환아파트 활동을 짧지만 잘 전달하고 있다.

4 심현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부소장, 「아파트공동체운동의 과제와 전망」, 『청주시민회 아파트공동체운동 강의의 모음집』, 1999년 11월(<http://www.citizen.or.kr/>).

5 「관리비-사교육비가 줄었어요」, 『동아일보』, 1997년 6월 2일; 「아파트관리, 이제 주민의 손으로」, 『동아일보』, 1998년 4월 7일; 「제5의 힘, 시민운동코너 '아파트주민감시단' 관리비리, 우리가 해결, NGO인터뷰 장안대 박천우교수(전 삼환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회의장), 뒷돈 없애고 경쟁입찰로 경비절감」, 『동아일보』, 1999년 4월 6일; 「아파트를 확 바꿨다. 주민자치혁명, 수원 삼환아파트 자치 1돌」, 『한겨레신문』, 1998년 4월 1일.

주민자치로 아파트관리비 5억 5천 만 원 절감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직접 참여해 2년 만에 무려 5억 5천만 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지난 97년 아파트 주민자치운동을 시작했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전국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22일 97~98년 관리비용 결산 명세서를 받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97년 4억 1천 970만 원, 지난해 1억 3천 980만 원 등 모두 5억 5천 950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했기 때문이다. 가구(1천 680가구)당 33만 3천 원꼴이다.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 공동운영에 나선 것은 가구당 평균 15만 원대이던 관리비가 97년 2월 갑자기 25만 원대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측에 상세한 관리비 내역을 요구했고 자체조사결과 청소비, 소독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관리인과 업체 사이의 리베이트-수수 관행이 있어 왔던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곧바로 ‘아파트 관리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관리소장을 해임한 뒤 직접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뽑아 아파트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유류·자재 등을 구입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했고 10~30%에 이르던 관행적인 리베이트는 아예 없었다. 한 주민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해 아예 관리사무소에 서무로 취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난방용 유류는 공장도가보다 1당 10원이 낮은 가격에 구입해 2년간 2억 9천 38만 원을, 아파트 청소비는 평당 192원에서 133원으로 낮춰 4천 389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다. 또 지난해에는 기관실, 전기실 관리인도 18명에서 4명을 줄여 7천 912만 원을, 불필요한 전등, 기계설비 교체도 꼼꼼히 살펴 5천 734만 원을 각각 아꼈다. 아파트에 대한 전체-화재보험료도 관리인의 관행이던 리베이트 30%를 받지 않는 대신 381만 원을 덜 냈고 정화조청소의 경우 오물수거트럭이 오물을 가득 퍼 담았는가를 일일이 확인, 398만 원을 절약하기도 했다. 주민 최병순(46, 여) 씨는 “관리비 운영 정상화로 시작된 주민자치 운동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로 이어졌다”며 “각종 잡수입을 모아 아파트 단지 안에 ‘열린 문화교실’을 개설했고 단지 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발레 등의 강좌도 열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달 말까지 직접선거로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단을 뽑은 뒤 녹색가게, 아파트 가꾸기 모임 등 공동체 문화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신희준(51, 사업) 씨는 “아파트 관리인과 업자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돈으로 연결돼 있다.”며 “흔히 ‘눈먼 돈’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1999년 3월 22일〉

수원 지역에서도 아파트공동체운동은 김칠준 소장의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02년 봄에 수원에서는 아파트공동체시민학교가 개설되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제1강이 아파트공동체운동의 비전과 전략(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 제2강이 아파트 관련 분쟁의 유형과 해결(최명준 변호사, 다산 아파트법률센터 소장), 제3강이 스스로 찾는 입주자의 권리(강영모,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실행위원)였다.⁶

6 다산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아파트시민학교 자료집』, 2002(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료실).

2)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마을만들기운동

수원 지역에서 마을만들기운동은 수원YMCA에 개최한 마을학교와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한 주민복지 활동, 수원KYC에서 추진한 서둔동·구운동 마을만들기 활동에서 시작되어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현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가 여러 단체 활동들을 지원하며 추진한 '마을의제21' 사업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개별 단체에서 추진되던 마을만들기운동이 수원 지역에서 여러 단체와 사례들을 모아 토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0년 3월 8일, 수원시청에서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이호(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주제강의를 시작으로 '마을학교'를 통한 마을만들기운동 사례발표(이상명 수원YMCA 시민사회계발부장), '주민복지 사례' 발표(황재경 수원시우만사회복지관 과장), '서둔동·구운동 마을만들기' 사례발표(안용정 수원KYC 참여자치센터 소장)가 이어졌다.

수원YMCA가 진행한 마을학교는 만석공원 마을학교(1999년 10월, 송죽동사무소 문화의 집), 여우골 마을학교(1999년 11월, 효성초등학교 시청각실), 영통 황골 마을학교(2000년 3월, 황곡초등학교)이다. 마을학교에서 강의된 주요 내용은 '함께 배우는 곤충의 노래와 생활'(우건석 서울농생대 교수), '도자기를 만들며 가족 간의 대화, 이웃 간의 정을 나눈다'(안승근 도예가), '가족과 함께 부르는 노래'(황곡초등학교 중창단), '세계문화유산 화성기행'(염상균 수원YMCA 시민문화위원), '신갈나무 이야기'(차윤정) 등이다. 마을에 있는 곤충과 수원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웃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마을학교가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 중 지역복지활동은 "지역 주민에 대한 자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과 소득보장을 위해 힘쓰며, 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힘쓴다."라는 상위목표에 "지역 주민에게 자주, 협동의식을 불어넣고 각종 정보와 지식을 보급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하위목표를 두고 마을만들기 운동에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복지관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복지봉사회, 새힘자립단 및 자조집단을 구성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활동이었다. '우만 RE-BANK' 사업은 "저소득층 빈곤의 원인 중 무학, 무자본, 무경험의

7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0, 12~14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로 일하는 마을금고 형성, 생산공동체(숨씨뱅크, 맛누리뱅크, 그린뱅크) 형성, 푸드뱅크 운영, 자활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⁸

수원KYC에서 추진한 서둔동·구운동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이웃을 알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을로 만들어 가고, 이에 맞는 주민들의 의식도 함께 변화해 간다.
- ②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태마을의 모형을 만들어 간다.
- ③ 2~3가지 마을의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

이에 따라 마을을 흐르는 서호천을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한 정화활동, 서울대 농대 이전에 따른 향후 이용방안 모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⁹

이렇듯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진행된 마을만들기운동은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 주변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시민운동 초창기에 각종 다양한 이슈를 개발, 언론을 통해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할 수 있었으나, 시민운동은 점점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전락되어 갔다. 솔직히 ‘외치기만’ 하는 대상화되는 운동에서 나도 참여하여 변화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¹⁰는 표현 속에서 읽을 수 있듯이 시민을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우면서 활동가 자신도 변화하고 마을도 변화시키려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운동, 주민자치운동의 발전 과정으로 마을만들기운동을 개념 짓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위 워크숍 주제 강의를 하였던 이호의 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운동이라는 용어는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는 주민운동의 특정한 한 영역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다. …… 물리적인 공간과 주민들의 공동체적 의식은 실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

8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0, 19~21쪽.

9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0, 22~24쪽.

10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0, 11쪽.

의 공동체적인 의식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을만들기와 공동체적인 물리공간을 배제한 공동체적인 의식의 성숙은 한쪽도 그 내용을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쪽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양쪽 측면 모두가 불가능한 것이다.¹¹

3) 2000년대 중반 마을공동체운동

2000년대 초반을 지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서둔동 지역의 마을만들기운동을 시작하였던 수원KYC는 이후 인계동 마을신문 만들기, 광고산 유기농단지 조성사업, 행궁동 마을만들기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환경단체에서는 녹색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칠보산도토리교실(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 문화운동단체에서는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인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문화공간 삶터)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후 '마을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수원의제 활동과 연계되거나 이 단체의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운동을 소개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 운동은 절대로 어느 단체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되거나 발전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처음 사업제안과 추진은 시민단체나 협의회에서 할 수는 있으나 이 운동을 지속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힘은 주민들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마을만들기운동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례는 이러한 주민주체가 성장하여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이며, 반대로 한때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반짝이는 불빛처럼 사라졌던 사례는 주민 주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삼환아파트의 아파트공동체운동 사례와 이후 소개할 행궁동 만들기운동 사례가 좋은 대비를 보여 준다. 삼환아파트 사례가 몇 년 동안은 지속되다가 활동주체들의 변화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진 반면에 칠보산과 행궁동 사례는 1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오히려 점점 더 넓고 깊게 운동이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칠보산과 행궁동에서 활동하는 주민 주체들의 성장 속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칠보산이나 행궁동은 물론이고 이후 소개할 모든 마을만들기운동 사례들이 현재 진행형이며 여러 활동주체들이 각각의 소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¹²

2000년대 중반에 전개된 마을공동체운동에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사례들 중에서 주목

11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자료집』, 2000, 3쪽.

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표 1>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표 1> 2000년대 중반 마을공동체운동

사업명(지역)	활동목표	추진경과	주요 추진단체
광고산 유기농단지 조성사업 (광고산 일대)	• 광고산 유기농 단지화 • 주민생활 안정화 • 광고산 주민과 시민협력	• 2001년부터 사업 시작 • 저농산물예약구매운동 • 저농약재배지 견학 • 시민생태농장 분양 • 광고산 와인 만들기	• 광고산 주민조직 • 수원KYC • 수원의제21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금호동)	•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계승 • 시민이 만드는 축제 정착	• 2005년부터 시작 •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축제위원회 구성 추진 • 전통문화체험마당 • 공연과 대동놀이마당	• 칠보산달집축제행사위원회 • 문화공간 샅터 • 수원의제21
행궁길마을만들기 (행궁동)	•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마을 조성 • 주민-NGO-전문가-관 거버넌스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 모델 창출	• 2007년 수원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개시 • 한데울물길 정비사업 • 창작촌 조성→행궁동 레지던시 사업 발전 • 주민축제 개최	• 행궁길발전위원회 • 수원의제21 • 활동별 주민조직
칠보산친환경 마을만들기 (칠보산 금곡동)	• 도토리 교실은 자연을 배우는 곳입니다. • 도토리 교실은 작은 자연공방입니다. • 도토리 교실은 참나무 숲을 꿈꿉니다.¹³	• 2002년부터 수원환경운동센터 회원(임종길 교사 등) 중심으로 활동 시작 • 칠보산 자연학교 운영 • 노작공방 운영 및 전시 • 무농약 '두꺼비 논' 농사짓기	• 칠보산도토리교실 • 수원환경운동센터 • 수원의제21 •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3. 마을공동체운동의 정착

_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마을공동체 활동

수원의제21은 2000년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 이후 ‘녹색마을만들기’, ‘마을의제21’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2년 ‘녹색마을 서둔동 만들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녹색마을만들기를 하나의 사업분야로 설정하고

12 이 글에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주체들의 실명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칠보산이나 행궁동은 물론이고 이후 소개할 모든 마을만들기운동 사례들이 현재 진행형이며 여러 활동주체들이 각각의 소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그 단체의 임원, 활동과정에서 소개해야 할 강사나 진행자 등에 국한하여 실명을 표기하도록 한다.

13 칠보산 자연생태와 추진하는 활동, 목표로 하는 친환경 마을에 대한 소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대로 소개한다(칠보산도토리교실 카페(<http://cafe.daum.net/dotoliroom>)).



마을공동체활동에 중심 역할을 하는 수원의제21의 활동보고회 및 송년회

‘녹색도시를 위한 마을의제21 워크숍’ 등 7개 사업을 지역 수원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일반 시민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사업으로 전환하고, 일회적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운동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 후 칠보산·광교산·행궁동 등에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수원KYC·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YMCA 등 초기부터 ‘마을’ 사업에 참여하였던 단체들의 활동 덕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뿌리를 내리던 마을별 마을공동체운동은 수원의제21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착해 나갔다. 수원의제21은 의제실천사업으로 칠보산 도토리교실 활동지원, 칠보산 정월대보름 달집 축제, 행궁동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들 활동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교산 유기농단지 조성사업을 자체 기획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수원의제21의 이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수원에서 마을공동체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주민지도력을 준비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시행착오를 통해 마을공동체운동의 르네상스를 예비하였다.

수원의제21은 또한 개별 단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나 주민자치력 향상을 통해 마을공동체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주목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1차 : 2000년 8월 21일, 수원의제21 사무실, 2차 : 10월 13일,



지동마을 되살림 발전소 개소식

선경도서관), 3개 구 순회 민관합동 연찬회(장안구 : 9월 19일, 권선구 : 9월 21일, 팔달구 : 9월 22일, 구청 회의실), 자치센터 운영장교육(2001년 5월 4일, 선경도서관)을 개최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실태 조사 및 정책제안 토론회(2004년 2월 25일, 수원시민회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가 마을공동체운동의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계동 외 1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이근호(수원KYC 사무국장), 김종태(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 권미영(수원YWCA 부장), 안용정(수원의제21 사무국장) 등의 조사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문중(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999년 송죽동 시범운영 후 2000년부터 수원시 모든 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김대중정부 당시 행정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기형적으로 탄생하였지만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 수원의제21은 지속적으로 교육과 정책 제안활동을 진행하였다.

4. 마을공동체운동의 개화 - '마을르네상스' 활동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도시지역 마을공동체운동의 수원형 별칭이다. 마을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려는 수원시의 마을르네상스 활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년여 활동 과정을 바탕으로 충분히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성과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진행과정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이 활동의 성과는 다음 시기로 미루기로 한다.

먼저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즉 이 활동을 통해 실현해 보려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2011년 6월에 개최된 '수원 마을르네상스 시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에



2011년 마을르네상스센터 개소식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의 가치를 복원하면서 인류가 이루어 온 물질적 풍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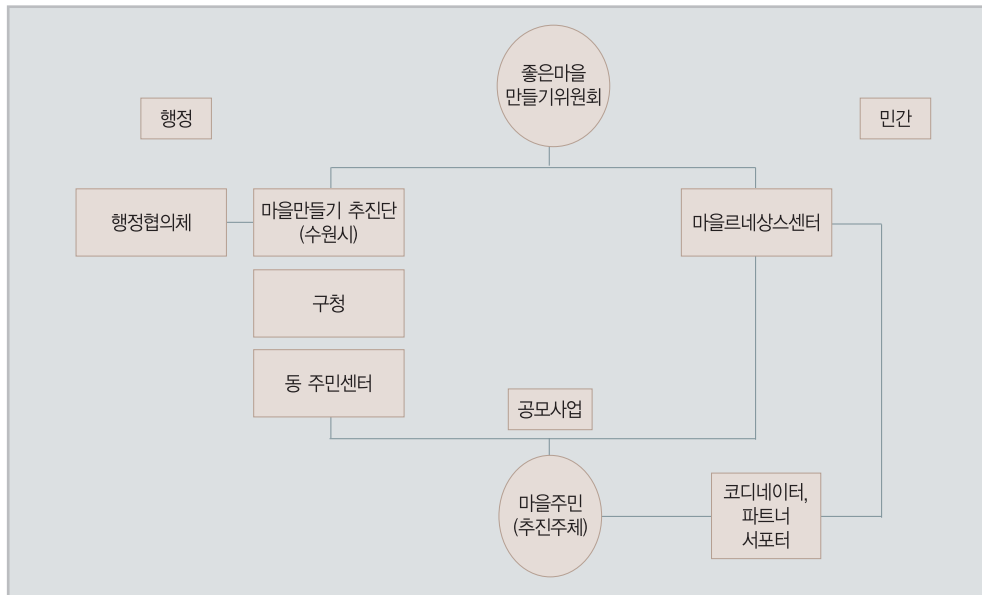
먼저 ‘수원 마을르네상스’는 산업화, 근대화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가 만들어 낸 물신(物神)을 극복하고 ‘사람’의 가치를 복원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러나 물신을 극복하는 활동이 물질적 삶을 부정하는 정신운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을 억압하던 하나님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신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빵이 없어도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사람’과 ‘물’의 관계를 역전시킨다는 것, 즉 피지배와 수동의 역할에서 있던 사람이 주체적으로 물을 이용하고 가꾸어 나가는 관계로의 변화를 말한다. ‘마을르네상스’를 통해 도달하려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은 인류가 이루어 놓은 과학문명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사회제도적 유산을 실정에 맞게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르네상스 활동은 주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활동의 주요 행위자는 마을 주민이고 지원조직으로 행정은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이며,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으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인 ‘좋은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다.

마을르네상스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마을주체들이 기획하여 참여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은 ① 마을공동체 회복, ② 마을계획의 실천, ③ 마을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며, 주민 요구와 역량에 맞는 사업추진, 공익성과 시대성의 반영, 마을



2012년 마을르네상스 주간 행사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추진체계

르네상스 정체성 확립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행된다.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 모두 세 차례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총 261건의 사업이 공모를 신청하여 188건에 총 16억 6,970만 5,000을 지원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공모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공동체	시설공간	공동체	시설공간	공동체	시설공간	기획
장안구	5/8	5/10	12/13	10/11	11/14	3/6	1/1
권선구	8/9	4/10	15/15	5/6	9/3	1/2	
팔달구	14/16	8/16	17/19	7/8	9/0	5/8	7/9
영통구	3/7	7/14	7/11	6/10	9/2		
계	30/40	24/50	51/58	28/35	37/49	10/16	8/10
	54/90		79/93		55/75		

비고 : 추진(완료)건수/신청건수.

다음으로 공모사업을 사업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98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개인의 인격 향상이 57개 사업, 환경의 질 향상이 45개 사업 순으로 집계된다. 공모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주민이 바라는 마을공동체운동의 방향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운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표 2>에서 소개한다.

<표 2>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의 사업목적 및 참여주체 현황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 세부
① 공동체 활성화	주민 단합 및 결속력 강화, 주민 간 소통, 외부와 지역 간 소통,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에 대한 애착심, 지역정보 및 사회문제 공유, 나눔문화 확산, 다문화에 대한 이해
② 개인의 인격 향상	예의범절, 경로효친, 창의력, 개성발휘, 건전한 청소년문화, 독서문화 활성화, 주민의식, 민주시민 양성, 참여의식, 식생활교육, 자신감, 남녀평등, 노인자활, 정서함양, 문화생활, 대인관계, 체력증진, 건강
③ 환경의 질 향상	카페 만들기, 쉼터, 휴식공간, 문화공간, 녹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공간 조성, (구도심)환경개선
④ 지역 활성화	재래시장 이미지 쇄신, 인지도 향상, 상가의 활력 증진, 경제 활성화, 편리한 이용, 특화거리 조성, 마을명소 만들기

사업목적 구분	사업목적 : 세부
⑤ 지역 정체성, 전통문화 제고	지명유래 공유, 역사적 유래 공유, 역사적 인물 공유, 전통문화의 우수성 공유
⑥ 사회 격차 해소	교육·문화 격차해소, 저소득층(노인) 음식나누기, 일자리 창출, 이웃돕기, 삶의 질 향상
⑦ 친환경	자전거 이용, 친환경 농업교육, 자원 재활용, 빗물 재이용, 에너지 절약, 저탄소 마을만들기
⑧ 관광 활성화	볼거리 제공, 관광명소 만들기, 밝고 깨끗한 이미지
⑨ 주민의견 수렴	지역 주민의 욕구 수렴, 지역 주민의 의견 대변
⑩ 안전, 안심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보행로 조성, 우범지역 문제 해결
⑪ 홍보	연극을 통한 마을르네상스 홍보

‘마을’과 ‘마을공동체’가 사라진 도시에서 이웃과의 관계망을 복원하고 쾌적하고 즐거운 삶을 만들어 살기 좋은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도시 지역 마을공동체 운동은 수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를 지나면서 뿌리를 내리며 확산되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역단체, 수원의 제21의 지원과 협력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르네상스 활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운동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마을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음 글로 전달한다.

옛것을 배우고 익히며 새것을 창조해 나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수원 마을르네상스’가 만들어 나가려는 마을은 정조대왕의 ‘인본주의’ 정신과 개혁사상¹⁴을 바탕으로 선조들의 마을공동체성이 되살아나는 사람들의 마을이다. 아빠는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이웃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이웃 아저씨들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개최되는 사계절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말에는 마을 공터에 조성된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는 마을이다. 초등학교는 학교로 가는 등굣길이 안전하고 즐거워 친구들과 손잡고 노래 부르며 가고, 방과 후에는 자신들이 설계하고 꾸며 놓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다가 주말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어려운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마을이다. 엄마는 집안 청소를 마치고 이웃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위해 옆집 아주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저녁시간에는 마을회관이나 아파트단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논어』 강좌를 듣고 토론하며, 주말에는 텃밭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마을이다. 매달 개최되는 정기 마을회의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마을신문 발행 점검, 독거 노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협의, 새로 이주해 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환영회 계획, 마을 청년들이 새로 설립한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곧 개원하게 될 공동 보육원에서 일하게 될 선생님들의 면접

14 1797년(정조 21) 정월 29일(음력) 화성행궁에서 했다는 “호호부실인인화락(戶戶富實人人和樂 : 집집마다 부유하게 하고 사람마다 즐겁게)”의 말 속에는 ‘수원 마을르네상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2011년 6월 10일에 개최된 ‘수원 마을르네상스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염상균의 발표 내용).

일정 등등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마을이다. 언제든지 친구들을 수원 화성으로 초대하여 자랑스럽게 수원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팔달산, 원천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에 살고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며,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교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지구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력하며 자원순환사회, 탄소에너지 사용 최소화를 실천하고 마을에서 살고 있는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고 고쳐 나가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¹⁵

15 유문종, 「마을르네상스로 수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 시민대토론회, 2011.



서정리 아이쿱생협연합회 팀장

1. 1980~1990년대 경인 지역 생활협동조합
2.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과 활동
3.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4. 생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과 제정 활동



제4장

수원의 생활협동조합운동

1. 1980~1990년대 경인 지역 생활협동조합

1980년대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격랑을 겪으면서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많은 지역에서 단위 생활협동조합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지향을 갖고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만들고자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는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쇠퇴일로에 있던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공분과 농약이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남용, 빈번한 식품 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농업이나 식품안전 문제와 같이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과제에 관심을 갖는 고학력 전업주부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0~1990년대에 활발하게 조직된 지역의 생활협동조합들은 사회적 과제에 대한 의식은 높았으나 조합원에게 명확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조직이라는 경영 마인드는 미약하였

고 경험도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의 단위생활협동조합들이 경영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66.7%가 넘는 생활협동조합이 사라졌다. 생활협동조합은 시민사회에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운동조직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의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생활협동조합들이 물류사업을 중심으로 사업통합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1997년에 ‘수도권사업연합(현 두레생활협동조합)’ 이, 1998년에 ‘21세기생활협동조합연대(현 iCOOP생활협동조합)’ 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사업은 연합했으나 단위생활협동조합을 통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관리’ 를 중요한 운영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쉽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비로소 생활협동조합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단위의 성장, 지역단위 생활협동조합들의 지역사회와 결합한 다양한 조합원 활동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동체, 주민자치, 환경, 생명 등 가치지향적인 의미에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시작하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유통을 하였지만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사업적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의 공급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조합원 5인이 1개 반을 만들어 공동체를 구성해야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물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욕구, 도농상생 등 공동체 정신에 기꺼이 호응했던 여성 조합원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나름대로 효율성을 갖춘 방식이라 초창기 생활협동조합들이 물류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이 방식은 일정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와 차량, 판매장 등이 전제조건으로 필요했고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높은 가격과 반 조직이라는 사업시스템은 구매층을 일정 소득이 있는 중상류층으로 편중시켰고, 구입하기 편한 매장의 매출액이 많아졌다.

그 이후 2002년 사회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생활협동조합’ 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2005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요인은 친환경 물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구매력 향상, 친환경 농산물시장 성장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도 있지만, 주체적 요인으로는 전국단위 물류시스템과 지역생활협동조합 전업주부 활동가들의 자주적이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활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이 친환경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중산층 주부 중심의 조합원 조직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출자로 협동조합 매장을 1~3개소 설립하여 인터넷 공급까지 더해 공급의 양적 확대를 꾀했



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지기 회의(아이쿱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공) 생활협동조합은 친환경 물품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전하였다.

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학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는 여성이자 전업주부 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대한 높은 책임성이 발현된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시민단체의 성격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이 친환경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함에 따라, 환경과 농업,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는 것을 생활협동조합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시민운동의 성격이 더 분명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로 범벅이 된 농축산물을 먹고, 불량한 첨가제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먹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나와 우리 가족은 생활협동조합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먹겠다는 조합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식탁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공익을 생각하는 시민단체”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바탕으로 조직되고 있으므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단체에 비하여 튼튼한 회원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협동조합의 특성은 보다 강력한 시민단체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생활협동조합들은 매장 등 사업체를 중심으로 자립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폭넓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의 공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역활동으로 전개하여 풀뿌리정치인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깨어 있는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2.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과 활동

1)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출범

초기 생활협동조합 매장은 협동조합의 원칙대로 하면 매장 개소와 운영을 위한 자본금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조합원의 출자로 자금을 조성한 매장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자본금을 임원이나 특정인 몇몇에게 의존하여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거나 무리한 외부 차입과 외상 구매로 부실경영을 면치 못하였다.

수원생활협동조합은 1995년 5월 손도연과 최진원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판매장을 팔달구 매탄동에 개설하였다. 판매장이라기 보다 사무실과 물류창고 기능이 더 컸다. 조합원에게는 필요할 때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지만 운영에서는 매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고 관리 비용, 재고 물자에 대한 부담이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다.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이 어려웠던 것은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 방식 때문이었다. 이 시기 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형태는 소규모의 직거래로 유기농산물의 수집과 매입·배송까지 전부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통과정의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구조로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소비자가 생활협동조합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는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운동을 확산하려고 해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유통산업 이외의 조직사업에 전념할 여유가 없었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생활협동조합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생활협동조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생활협동조합의

물품 구입활동이 일상적인 생활과는 다른 형태로 조합원에게 다가왔고, 물품 가격 역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수원생활협동조합은 1995년 11월 생활협동조합중앙회에 가입하여 일일이 산지와 거래하는 수고를 줄이고, 생활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다른 지역생활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등 경영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에 1996년 1월부터는 각 가정에서 주문 전화와 주문서를 통한 개별 공급을 주2회로 하였다.

당시 생활협동조합은 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부분 물품 공급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향을 잡지 못하였다. 소모임 활동이나 주부 활동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자치활동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으나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역할은 조합활동보다 생활협동조합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었고, 생활협동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대의명분밖에 없었다. 초기에 이사장과 상근자들의 개인적인 차입으로 누증적자의 일부를 보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생활협동조합 매장의 재무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정까지 조합원들은 생활협동조합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이 생활협동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거나 걱정을 표했으나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조합원 자치 원칙은 하나의 '이상'일 뿐이었다.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의 물류구조, 그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의 경영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조합활동의 문제는 개별 생활협동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 점차 공감하였다.

1997년 8월 물류센터 역할을 하던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사업부가 그해 7월에 설립된 수도권사업연합회에 인수되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합들이 합류를 거부당했다. 이에 그동안 꾸준히 물자교류를 진행한 부평생활협동조합, 부천생활협동조합, 한밭생활협동조합, 안산생활협동조합, 별내생활협동조합, 수원생활협동조합은 함께 (가칭)경인지역 생활협동조합연대(이후 1998년 21세기생활협동조합연대, 현 iCOOP생활협동조합)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물류사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수원생활협동조합 초대 손도연 이사장이 사임하고, 조합원 조직을 담당하던 상근자가 그만두면서 초창기부터 열심히 활동했던 주부이사와 조합원 등이 점차 활동을 접게 되었다. 이후 수원생활협동조합은 남아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1년 5월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하여 조합의 활동 재개를 알리



iCOOP생활협동조합 물류센터 전경(수원생활협동조합 제공)

면서, 6월 영통동 마을모임을 시작으로 조합원 자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2002년 4월 이사회 구성하여 제2차 정기총회 개최를 개최하여 제2대 박영주 이사장을 선출하였다. 2002년은 사회적으로 ‘환경’, ‘안전한 먹을거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였고,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를 조명하면서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조합원이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으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2) 법인 창립과 매장사업의 재도전

1999년 「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생활협동조합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연합회 기능의 부족, 여론 주도층의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분위기의 미성숙, 생활협동조합 단체들 간의 연합회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시선 등으로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은 계속 좌절되었고, 「친환경농산물육성법」에 근거한 생활협동조합의 한정적인 사업은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장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났다. 지역생활협동조합



수원생활협동조합 망포점 개점 (수원생활협동조합 제공)

들은 연합회 법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활협동조합 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공신력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형성하며,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넘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계획하고 법인 설립에 들어갔다. 법인이 된다는 것은 중산층 주부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동체나 모임의 틀을 확장하여 공식적인 법적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협동조합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생활협동조합은 법인 설립 이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매장사업의 재도전을 선언하였다. 이미 수원의 여러 생활협동조합들이 다양한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조합원들이 매장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유는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가정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시스템에 대한 불편함과 3일 전 공급시스템에 대한 불편함 때문이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컸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바로 써야 하는 물품의 직접 구매 요구가 컸다. 2008년 12월 영통동에 조합원들의 출자로 수원생활협동조합 1호점을 개장하였다.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매장사업은 그동안 생활협동조합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 시작하여 실패한 매장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2007년부터는 적정규모의 매장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와 연합조직의 안정적인



생활협동조합 매장 내부(수원생활협동조합 제공)



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자동 매장 2주년 기념행사 홍보물(수원생활협동조합 제공)

물류시스템, 물품의 수, 매장 사업의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안정화에 힘썼다. 수원생활협동조합 영통매장은 수원에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알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주부들의 고용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매장사업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여 수원 지역 식품안전지수를 높이고, 매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사업이다. 또한 일정규모의 자본을 은행의 대출이나 개인의 투자가 아닌 조합원의 10%가 스스로 출자하여 만들어 냈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힘을 보여준 것이었다.

3)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활동

수원생활협동조합은 2007년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한 대형마트 앞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광우병의 위험을 지역의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이 함께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는 시민단체도 아닌 평범한 엄마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점과 그 주제가 광우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은 지역에서 잔잔한 소문의 대상이 되었고, 좋은 먹을거리만 선호하는 이기적인 집단에서 식품안전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인식되었다. 이것은 수원생활협동조합에게 낯설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 이후 수원에서는 먹을거리 안전과 인권에 관심 있는 14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원감시단(이하 수원감시단)을 만들었고, 수원생활협동조합도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다른 단체들은 광우병이나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iCOOP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온 생활협동조합의 내부 활동과 준비들이 수원감시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활동을 하지 않았던 수원생활협동조합은 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보며 조합 내부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에서의 촛불집회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주부의 촛불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 주부는 서울에서 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두 자녀와 함께 가기에 너무 멀고 힘들어 혼자라도 수원에서 촛불을 들어 보자고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드디어 수원역 광장에서 수원감시단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였고,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 많았다. 마을모임이 없던 지역에서도 촛불과 광우병 현수막을 전달하면서 마을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마을촛불집회를 수원 최초로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에 지역 내 식품안전 의식도 높아져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마을을 만들기 관심을 보이며,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주부들의 요구가 커졌다. 주부들이 중심인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현실적인 여건상 저녁시간대의 연속적인 집회는 부담이 많이 되어 많은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생활협동조합이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안전지대임을 조합원 스스로 느끼게 되었고, 수원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기간 생활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언론에서 확인하고 조합에 직접 가입하거나, 생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수원감시단 촛불집회(『수원시민신문』
(<http://www.urisuwon.com>), 2008년 5월 7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수원생활협동조합 제공)

활협동조합을 소개할 때 훨씬 수월해지는 등 조합원 확대에도 큰 성과를 보였다. 광우병 문제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원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전강좌도 추진하는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생활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활협동조합이 그런 요구들을 받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느끼게 해 주고, 활동가들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수원의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단체 활동가들의 문제의식 공유에 지나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부족했음을 인식하였다. 즉 수원생활협동조합은 창립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외부 활동보다는 조합 내부 활동에 전념하며, 지역문제에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다가 광우병 문제와 촛불집회를 계기로 수원 시민단체로서의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

1)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힘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7년 10월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건설을 위한 첫 모임을 시작으로 준비모임과 준비위원회를 거쳐, 2008년 2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이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조합원 건강 강좌 및 교육' 등을 진행하며, 1년간의 노력을 거쳐 2009년 3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생활품 강좌(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제공)

거로 하여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를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생활협동조합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 치료에 힘쓰는 의료보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치의, 건강증진활동, 각종 소모임을 통한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수원 지역 최초의 주민참여형 병의원인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의 병원 설립은 양·한방 협진병원으로 개원하기에는 준비가 미약하여 한의원을 우선 개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을 준비하였다. 한의원 개원 전 일상적인 건강상담과 진료를 통해 조합원의 검진과 치료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고, 진료소의 모습을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격주로 정기 한방검진을 진행하였다. 참여 조합원의 80%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새날한의원(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제공)

이상이 진료 만족도를 보이며, 건강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였다. 이후 1년간 노력 끝에 2010년 10월 23일 매탄동에 수원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개원 준비의 가장 큰 과제인 설립기금 마련을 위하여 지역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단체협약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게 된 것은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성과이며, 이후 수원협동조합 네트워크 결성, 수원시 식생활교육조례 제정활동, 식생활교육 수원네트워크 설립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는 안양에 본부를 둔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의 지역위원회로서 2007년 3월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조합원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 금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8년 9월 영통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정자동, 권선동, 영통동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햇살모임을 진행하여 조합원과의 결속을 높이고, 한살림을 지역에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서호천생명축제 건강한 먹거리 나눔행사(아이쿱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공)

2010년 특히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대회를 개최하여 심미정 지부장을 선출하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한 시작을 알렸다.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금호동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동네 초록장터를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을 금곡동 청소년 교육문화나눔터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물품 후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영통어린이 단오공원에서 열린 한살림 경기남부 유기데이 행사
(<http://cafe.naver.com/hansalimsuwon/506>)

3) iCOOP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수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조합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향한 요구가 강해졌다. 보다 활발한 조합원 활동과 지역적인 이동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서수원 지역의 수원생활협동조합 활동가들이 2008년부터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권영숙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11명의 주부 활동가들이 iCOOP생활협동조합 안의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하고, 조합 홍보를 시작하여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iCOOP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법인으로 창립하였다. 현재 수원 장안구, 팔달구 조합원들이 정자동 매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다.

4) 두레사업연합회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구

두레사업연합회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구는 안산의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의 지역위원회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원 활동이 매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부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바른생활협동조합 아나바다 장터(바른생활협동조합 제공)



천천바른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의 만남(바른생활협동조합 제공)

5) 바른생활협동조합

바른생활협동조합은 안양에 본부를 두고, 2003년 5월 31일 영통매장을 개장하면서 수원지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2007년 7월 11일, 천천동에 천천매장을 개점하고 8월부터 수원지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 매탄동에 매탄매장을 개설하고, 3개의 매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홍보활동,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소모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6)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창립

2009년 4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대안사회를 만들어 가는 생활협동조합'을 가치로 한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창립하였다.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사람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앞으로의 사회변혁운동은 생명·생태운동까지도 포괄하여야 하며, 나아가 활동가들이 외부의 조건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환경 물품 공급사업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생활협동조합'임을 강조하고 있다.

7)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는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고민하면서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수원지역 대표자들이 먼저 만나 각 생활협동조합 또는 협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기총회(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공)



2011년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대표자들(수원새날의료협동조합 제공)



식생활교육 수원네트워크 창립(아이쿱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공)

동조합들의 정체성이나 물류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동하여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발전과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첫 공동사업으로 한 여성의 아름다운 귀농을 그린 다큐멘터리 「땅의 여자」를 수원화성

박물관에서 공동상영회를 하였다. 이후 수원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각 생활협동조합의 대중강좌를 공동으로 소개하고, 각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일부터, 식생활교육수원네트워크 설립의 후원 조직으로, 수원시 식생활 교육조례 제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4. 생활협동조합 관련 법 개정과 제정 활동

1) 「생활협동조합법」 개정

1999년 「생활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법」이 아닌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7개 특별법에 더하여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에 위기를 느낀 슈퍼마켓연합회 등 중소 소매유통업자들의 반대로 원래의 「생활협동조합법」 취지가 왜곡된 기형적인 법이 만들어졌다. 사업의 종류가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공급으로 한정되어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활협동조합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를 법에 반영하였다.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사업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사업, 연합회 규정 등이 개정되어 생활협동조합의 공공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규제 중심의 인식이 개정된 「생활협



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창립총회(아이쿱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공)

동조합법」에도 남아 있다. 즉 규제조항 강화와 자율적인 사항도 법안으로 명문화하여 20여 년 동안 자율적으로 해 온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근거가 확대되었으며, 원외이용의 문제, 출자배당 금지의 문제는 「생활협동조합법」 추가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다.

개정된 「생활협동조합법」은 사업범위의 확대, 공제사업 기능,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 및 공공단체의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명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병기하도록 하여 조합들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의 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운동은 2011년 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비공식 협동조합 진영과 생활협동조합 진영을 대표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논의를 이끌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첫째,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났다. 기존에는 1차 산업과 금융·소비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금융과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협동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낮춰졌다. 기존에 설립이 가능했던 협동조합도 조합원이나 출자금 등의 설립기준이 높아 자유로운 설립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출자금 규모에 관계없이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활협동조합법」 개정과 「협동조합법」 제정은 수원 지역의 생활협동조합 활동과 협동조합 설립의 물고를 뜨고, 특히 사회적 경제로서의 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과제는 먼저 설립된 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선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생활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사업체 설립에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제1부 한말 농민항쟁과 국권수립운동의 전개

제2장 수원의 국채보상운동

-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신문』; 『대한자강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 수원문화원, 1996.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100주년기념자료집』 1-5,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대구홍사단, 2007.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항일독립운동사』, 199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한말)』 6, 2004.
 대구상공회의소, 『국채보상운동사』, 1997.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김형목, 『나랏빛 청산으로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꿈꾼 주역, 김광제·서상돈』, 『이달(2월)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처, 2007.
 김형목, 『대한제국기 화성지역 계몽운동의 성격』, 『동국사학』 45, 동국사학회, 2008.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김형목, 『나랏빛은 땅국임을 일깨운 선각자, 김광제·서상돈』, 『순국』 242,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11.
 이동언,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깃발을 세운 김광제』, 『대구의 문화인물』 1, 대구광역시, 2006.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차선훈,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경기도사(한말)』 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4.

제3장 수원의 애국계몽운동

-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신문』; 『천도교월보』; 『기호흥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 『대한자강회월보』.
 이승언, 『한말일제하수원기사색인』, 수원문화원, 1996.
 牧山耕藏, 『朝鮮紳士明鑑』, 1910, 일본전보통신사.
 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일한인쇄주식회사, 1914.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교육사 1883~1959』 상, 197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항일독립운동사』, 1995.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1-3, 2005.

- 김세한, 『삼일학원육십오년사』, 수원동중학교, 1968.
- 김형목,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 수원종로교회사편찬위원회, 『수원종로교회사 1899~1950』, 수원종로교회, 2000.
- 이창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 김형목, 「기호홍학회 경기도 지회 현황과 성격」, 『중앙사론』 12·13, 한국중앙사학회, 2000.
- 김형목, 「한말 야학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한국중앙사학회, 2005.
- 김형목, 「한말 수원지역 계몽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 김형목, 「『을사늑약』 이전 경기지방 사립학교의 성격」, 『중앙사론』 26, 한국중앙사학회, 2007.
- 김형목, 「대한제국기 화성지역 계몽운동의 성격」, 『동국사학』 45, 동국사학회, 2008.
- 김형목, 「3·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2008.
- 김형목, 「한말 경기도 사립학교설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박남훈, 「1896~1905년 경기도의 사립학교 현황과 성격」, 『덕봉오환일교수정년기념 사학논총』, 동간행위원회, 2006.

제4장 수원의 의병전쟁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17), 1985-1988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말의병자료』 2, 200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1, 1969.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편,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유한철, 「김하락의진의 의병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上)」, 『의병전쟁연구(상)』, 지식산업사, 1990.
- 서평일, 「한말의병전쟁과 수원지방」, 『한신대학교논문집』 13, 1996.
- 박민영, 「구국의 성전, 의병전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나남, 2003.
- 김상기, 「1908년 당진 소난지도 의병의 항일전」, 『한국근현대사연구』 28, 한국근현대학회, 2004.

제2부 일제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제4장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와 프로레타리아 미술전람회

-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 水警高秘 제991호, 소화 5년 4월 1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미술전람회에 관한 건」,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4책.
- 「이달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서」,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1931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9권).
- 박승극, 「예술동맹 해산에 제하여」, 『신조선』 4, 1935년 8월.
- 송영, 「수원행」, 『조선지광』, 1929년 6월.
- 강호, 「카프미술의 조직과 활동」, 『조선미술』 5호, 1957년 5월.
-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 기혜경, 「1920년대의 미술과 문학의 교류연구-카프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 제8집, 한국

- 근대미술사학회, 2000.
- 성주현, 「일제강점기 박승극의 활동과 재인식」, 『승실사학』 제22집, 2009.
- 윤범모, 『김복진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윤범모·최열 엮음, 『김복진전집』, 청년사, 1995.
-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사회와 역사』 64, 문학과 지성사, 2003.
- 정형민, 「1920-30년대 총독부의 미술검열」, 『한국문화』 39, 2007.
- 조남현, 「박승극의 실천, 비평, 소설」, 『한국문화』 25, 2000.
- 조성운, 「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1.
-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2003.
- 조은정, 「김복진의 비평과 근대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제7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999, 6~57쪽.
- 키다 에미코, 「수원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를 통해 본 미술개념」, 『한국근대미술사학』,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 키다 에미코, 「한일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의 교류」, 『한국근대미술과 시각문화』, 조형교육, 2002.

제3부 해방 후 사회운동의 전개

제3장 1980~1990년대 수원의 노동운동

-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 강상호, 「노워크 노페이, 노조대표권시비, 그리고 복수노조 문제에 대하여」, 『새벽』 제2호, 석탑, 1988.
- 구해근 지, 신광영 옮김,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 김동춘,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조직화의 실패」, 『경제와 사회』, 겨울, 1993.
- 김용기·임영일, 「한국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노동운동」, 『경제와 사회』 3, 1989.
- 김익진, 「『퇴조기론』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노동운동』 9월호, 1992.
-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1989.
- 김진균, 「민중민주주의의 전망」,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김창우,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200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2006.
- 박승호,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하자」, 『노동운동』 7월호, 1992.
- 배규식·조성재,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2003.
- 우리노동문제연구원, 「노총민주화론과 제2노총론의 비판적 검토」,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백사서당, 1989.
- 유경순, 「전(前) 전노협 위원장 양규헌에게 듣다: 알려지지 않은 1970~1980년대 노동운동, 그리고 전노협을 돌아보다」, 『내일을 여는 역사』 제27호, 2007.
- 이광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 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영민, 「민주노조 및 공장활동 조직과 관련하여」,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1988.
- 이창언, 「민주주의 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수원사랑민주청년회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동우회, 2007.
- 임영일, 「정세변화와 노동운동의 과제」, 『경제와 사회』 가을호, 1992.
-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전노협 백서 01-08』, 논장, 1997.
- 정영태, 「제1장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 - 1956년의 진보당에 1990년 민중당까지」,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 진보신당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2009.
- 최규업,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 『노동운동』 7월호, 1992.
-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중구,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백서서당, 1989.
- 홍현영, 「도시산업선교회와 1970년대 노동운동」,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5.

제4부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제3장 수원의 마을공동체운동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연찬회 자료집』, 2000.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센터 관련자료 모음집』, 2002.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 지역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 자료집』, 2000.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99 수원의제 21 활동보고서』, 1999.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0 수원의제21 활동보고서』, 2000.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1 수원의제21 활동보고서』, 2001.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2 수원의제21 활동보고서』, 2003.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3 수원의제21 활동보고서』, 2004.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4년 정기총회 자료집』, 2004.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6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정기총회 자료집』, 2006.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6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활동보고서』, 2007.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2007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정기총회 자료집』, 2007.
-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2008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활동보고서』, 2009.
- 수원KYC, 『21차 수원KYC 정기총회 가슴으로 품은 수원KYC 1%성찰, 1%나눔, 1%참여 3%를 표현하라!』, 2009.
- 수원KYC, 『수원KYC정기총회 자료집』, 2003.
- 수원KYC, 『2011년 수원KYC 정기총회 수원시민 3%에게 3%실천으로 응답하라!!!』, 2011.
- 수원KYC, 『제22차 수원KYC정기총회 '나와 세상을 바꾸는 3%실천, 온몸으로 표현하라!'』, 2010.
-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2011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보고서』, 2012.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의제21 실천사업 2009 주민자치의제 사업보고서 경기지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수준 지표 모니터링 외』, 2009.
-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수원의제 재작성을 위한 시민공청회 2001년 수원의제21 재작성사업 보고서』, 2001.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제6회 푸른경기21 도시대학 결과보고서 도시대학 6년의 여정』, 2009.
-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마을의제21 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 2003.
- 수원시, 『2012수원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르네상스 학술 및 사례발표 자료집』, 2012.
-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수원 지역 주민운동 활동가 자료집』.

| 찾아보기 |

-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郎) 113
- 가와카미(川上) 192
- 가재리 102, 110
- 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392
- 가토 시게토모(加藤茂苞) 195
- 가톨릭노동청년회 320, 360
- 가톨릭노동청년회 수원교구연합회 320
- 가톨릭농민회 320
- 가톨릭여성연합 324
- 각파유지연맹 291
- 감리교 228, 242
- 감산농업학교 216
- 감오개혁 81
- 갑자단 144, 147
- 강건식 66
- 강경대 350, 379
- 강덕중 154
- 강만길 330
- 강살리네트워크 449
- 강석찬 316
- 강석호 65, 145
- 강성문 294, 296, 303
- 강영모 456
- 강우형 249
- 강인규 62
- 강인호 322
- 강인환 322
- 강종무 208
- 강창수 435
- 강태성 123
- 강필중 67, 70
- 강호 172, 175, 181
- 강화분견대 91
- 강효남 333
- 개신교 54, 58
- 개죽산 111
- 개항 17
- 거버넌스 415, 446, 447
- 건아단 197, 203, 205, 207, 208, 209
- 격문사건 276
- 경기 83
- 경기 공투본 381
- 경기교사협의회 326
- 경기남부 민주노동건설과 96임단투 승리를 위한 수원 지역 공동대책위원회 394
- 경기남부노동운동단체협의회 365, 368
- 경기남부노동협 320
- 경기남부민련 328
-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 368
- 경기남부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329
- 경기남부민통련 324
- 경기남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82
-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 354, 352, 355
- 경기남부지역화학산업노조 연대회의 381
-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328, 365, 367, 376, 378
- 경기남부지역노동조합연합 추진위원회 374, 375
- 경기남부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336
- 경기남부총련 349
- 경기남부통일한마당 392
- 경기노련 374
- 경기노련 수원지구 379
- 경기노련 수원지구협의회 368, 381
- 경기노련 안산지구협의회 368
- 경기노련 추진위 375
- 경기대 336, 368, 392
- 경기대학교 347, 348
-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350
- 경기도경 365
- 경기도관찰부 77
- 경기도관찰사 46
- 경기도교육감 418
- 경기도교육청 418
- 경기도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445
- 경기도민주헌법쟁취협의회 322
- 경기도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수원 운동본부 413
- 경기복지시민연대 414
- 경기서적 325, 392
- 경기의병 88
- 경부선 58, 115
- 경성박람회 59
- 경성상업회의소 52
- 경성전기주식회사 수원지점 294, 295
-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105
- 경수노련 366
- 경수지역노동자연합 365, 367, 370, 382
- 경실련 371
- 경실련노동자회 371
- 경원제지 374
- 경인교협 326
- 경인일보사 433
- 경인지역 생활협동조합연대 473
-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380
- 계림홍농사 211, 212
- 계몽운동 73, 77
- 계인선 320, 321

- 고덕면 250, 251
 고등교회 환경선교회 426
 고등리청년회 153
 고색동청년회 442
 고색리 204, 217
 고색리 야학 207
 고색야학 340
 「고시소좌의사자비」 291, 293
 고온포 93
 고용환 143
 고원근 140
 고인관 140
 고재천 203, 209, 212
 고종 106
 고종양위 65
 고주리 109, 110, 118
 고천경찰관주재소 115
 고천리 115
 곤도인쇄소 270, 271, 300
 공립협회 45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406
 공산당사건 171
 「공산당선언」 217
 공산주의 217, 254
 공산주의동맹 156, 218, 258
 공산주의자동맹 219
 공산주의자동맹사건 221
 공석정 147, 149, 153, 161, 165, 168,
 172, 177, 181, 185, 187, 229, 232,
 234, 238, 240, 243, 272, 274, 277
 공석환 274
 긍정선거감시단 350
 공주교조신원운동 29
 공향면 93
 광병준 181, 187, 239
 광상훈 234
 광재호 328
 관립수원농림학교 48, 53
 광교산 423
 광교산 반딧불이 보전운동 435
 광교산 보전운동 433
 광교산 생태마을 만들기 415
 광교산 유기농단지 446
 광교신도시 439
 광무농민운동 88
 광산 김씨 47
 광우병 477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413
 광주민란 20
 광주순례단 318
 광주의병 85
 광주집 29
 광주학생운동 159, 160
 광화문교조신원운동 29
 광활청년회 148
 광흥학교 70
 괴산관아 36
 교조신원운동 23, 28, 226, 227
 교통장애인협회 409
 구국동지회 97, 135
 구국민단 125, 127, 129, 132, 134, 135,
 142, 228, 230
 구본주 322
 구자용 68, 77
 국권회복운동 54
 국민연합 368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 46
 국채보상기성회 44
 국채보상운동 41, 43, 44, 45, 46, 47,
 50, 51, 52, 53, 54, 62, 69
 국채보상의연금 50
 국채보상중앙의무사 44, 62
 「국채보상취지서」 45, 46, 53, 54
 「국채보상포고문」 44
 국채보상회 50
 「국채1천3백만원보상취지서」 43
 군자산의 약속 370
 권금택 348
 권미영 462
 권선중 327
 권순중 148, 149, 150, 152, 153, 154,
 167, 168, 172, 229, 238, 274
 권업모범장 59, 69, 78, 192
 권영선 203, 207, 209, 212, 214
 권영숙 481
 권윤수 249
 권중식 92
 권태동 146
 권태희 235
 켈리 230
 규슈제국대학 195
 그린네트 394
 극단 성 416
 근대교육 63
 근대교육기관 69
 근대교육운동 63
 금성사 372
 금속산업연대회의 381
 금주단연운동 55
 금주운동 48
 기노련 320
 기독교 228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수원지방연
 합회 31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403
 기독교장로회청년회 수원시찰연합회
 318
 기독교청년회 137
 기독교청년협의회 368
 기무라 단과쿠(木村淡泊) 67
 기생 105
 기생단속령 105
 기아자동차공장 394
 기호가투대회 147
 기호흥학회 60
 기호흥학회 수원지회 54, 62, 77, 141,
 153, 225
 김가진 54, 60
 김경도 115
 김경상 140
 김경순 275, 276
 김경식 328
 김경천 219
 김경태 166
 김관현 76
 김광식 103
 김광제 43, 45
 김광태 215, 217, 218, 219, 220, 222
 김광하 69, 70
 김교선 126
 김교창 107, 108
 김교철 118

김구섭 31
 김군필 92
 김기선 237
 김기세 121
 김기순 51
 김기영 121
 김기진 166, 169, 171
 김기환 239, 249, 250
 김기훈 121
 김길준 270, 271, 294, 295, 296, 299, 302, 303
 김내현 27, 28, 35, 38, 84, 226
 김노적 103, 104, 129, 131, 132, 139, 142, 143, 227, 228, 229, 230, 231, 239, 240, 241, 242
 김대권 316
 김택용 123
 김도생 153, 154, 156, 157, 239, 241
 김동균 394
 김동환 318, 319
 김동호 67, 70
 김두현 48, 50
 김량장 48
 김만준 50
 김명기 20
 김명섭 342
 김명수 35
 김명옥 413, 437
 김명제 108
 김명현 51
 김메레 64
 김문옥 50
 김문찬 203, 209, 212, 213
 김병갑 103, 131
 김병로 214
 김병무 374
 김병천 51
 김병호 146, 151, 228, 229, 231, 235, 239, 240, 241, 242
 김병훈 328
 김보윤 127, 128
 김복진 166, 170, 171, 172
 김봉일 203, 209, 212
 김봉희 172, 239, 240, 274

김사목 61
 김사홍 61, 62
 김상곤 418
 김상근 239
 김상만 44
 김상진 314, 342, 343
 김상철 246
 김상호 27
 김상희 418
 김석송 166
 김석호 103, 131
 김성달 139
 김성열 97, 121, 123
 김성원 200, 203, 206, 211, 214
 김성희 44
 김세열 121, 123
 김세영 140
 김세환 103, 104, 129, 142, 145, 151, 226, 227, 230, 241
 김순원 51
 김순호 126
 김시중 246, 256
 김신목 61
 김약천 160
 김억만 208
 김연국 27
 김영근 28
 김영기 140, 315, 330, 331
 김영상 249, 251, 253, 255, 262
 김영선 62
 김영수 70
 김영식 27
 김영일 238
 김영현 213
 김영화 273, 275, 276
 김옥현 140
 김용규 21
 김용무 214
 김용삼 50
 김용서 413
 김용주 374
 김용준 107, 108, 115, 239
 김용희 31
 김운삼 51

김유경 227
 김유덕 275
 김유태 분신사건 319
 김은경 27
 김응서 70
 김이덕 207
 김익수 203, 209, 212
 김인순 132, 139
 김인호 437
 김일성 무장부대 301
 김장성 147, 159
 김재곤 215, 217, 218, 220, 221, 222
 김재덕 238, 239
 김재면 50
 김재선 92
 김재연 322
 김재천 114
 김정봉 285
 김정원 172, 181, 186, 275
 김정현 123
 김제구 46, 65, 72, 75
 김종락 140
 김종수 215, 216, 217, 220, 222
 김종심 141
 김종심 226
 김종오 394
 김종태 462
 김종환 60, 67, 70, 74, 75, 79
 김주건 208
 김주남 123
 김주서 25
 김주엽 123
 김준강 215, 217, 219, 220, 222
 김준기 21
 김준식 250
 김중면 216, 222
 김지길 319
 김진성 114
 김진태 67
 김찬도 197, 203, 205, 207, 209, 211, 212, 213, 214
 김찬수 51
 김창근 50
 김창순 275

김창식 93
 김천 181, 187
 김천고보 맹휴사건 215, 219
 김천영 181
 김철수 143
 김철칠 51
 김철봉 275
 김철준 456, 456
 김쾌상 329, 368
 김태균 357
 김태연 367
 김태원 126
 김하락 85, 88
 김학배 282
 김학봉 238, 275
 김학선 275
 김한목 46, 53, 61, 67, 77, 79
 김한주 348
 김해경찰서 214
 김해농업학교 212
 김행권 146, 153, 154
 김향화 105
 김현목 111
 김현영 51
 김현조 231, 239, 240
 김현철 394, 406
 김형식 31
 김혜경 53
 김홍신 392
 김홍집 20
 김홍파 166
 김화영 328
 김후봉 157
 김홍렬 109, 110, 121, 123
 김홍목 328
 김홍복 123
 김홍선 144
 김희경 53
 김희영 275

ㄴ 나가타니(長谷部巖) 118
 나경석 64, 68, 291, 292
 나기정 46, 53, 54, 62, 76, 141, 291

나민수 348
 나상훈 140
 나석균 291, 292
 나성규 46, 50, 68
 나정환 28
 나정운 219
 나중석 60, 65, 145
 나지석 68
 나천강 28, 227, 239, 241
 나춘삼 96
 나학연 51
 나혜석 63, 68, 291
 나홍석 64, 68, 76, 140, 141, 143, 226, 291, 292
 낙동강 폐물사건 444
 낙선운동 406
 남계천 25
 남곡 92
 남곡면 67
 남료 202
 남북면업주식회사 수원공장 282
 남북면화주식회사 수원조면공장 284
 남상목 92
 남상환 249, 251, 253, 254, 255
 남양 53, 103, 113
 남양군 93, 94, 114
 남양금융조합 225
 남양상업회의소 77
 남양수비대 93
 남양엠티청년회 139, 143
 남양청년회 132, 139, 226
 남영희 203, 209, 212, 213
 남한산성 85
 남한산성의병 85, 86, 87, 88
 내리교회 73, 76
 내포 32
 노광준 338
 노구치 고조(野口廣三) 107, 109
 노동교육연구소 368
 노동법 개정과 민주대개혁을 위한 노동운동단체 공동실천위원회 381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 354
 노동사목 368

노동상담소 324, 368
 노동야학 150, 235
 노동야학회 수원지회 61, 79
 노동운동 265, 272, 359, 360, 364
 노동자 272, 360
 노동자문화연구회 한사위 368
 노동자의집 368
 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370
 노동자투쟁 359
 노동쟁의 277
 노동조합 265
 노동학회 경기지회 61
 노동현장 364
 노련 안산지구협의회 368
 노인회 409
 노점상 김유태 분신사건 362
 노정희 395
 노태우 350
 노태우 후보 낙선운동 350
 녹색어머니연합회 409
 녹색연합 427
 녹색회 426
 농대 이천투쟁 343
 농립학교 191
 농민야학 211
 농민운동 88, 89, 246
 농민조합운동 249
 농민항쟁 18
 농상공학교 191
 농활 343
 니콜라서점 329

ㄷ 다산인권상담실 392
 다산인권센터 402, 418
 단발령 85
 단병호 379
 단연운동 48
 당동 36
 당동전투 36
 당제봉 110
 대구광문사 43
 대구민의회 43
 대동광문회 43

대미 95
 대성학원 235
 대성합섬 368
 대승원청년회 333, 394
 대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482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313
 대한독립애국단 125
 대한매일신보사 44
 대한민국임시정부 126, 127, 228
 대한자강회 45
 대한자강회 남양지회 60, 153, 225
 대한적십자회 127
 대한측량총관 경기지회 62
 대한학회 141
 대한홍학회 141
 대화의숙 155, 254
 덕부진흥 374
 도수장 285, 286
 도시목회자협의회 328
 도시산업선교회 360
 도영호 372, 394, 395
 도준순 322
 도축노동자 284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85
 독립대 127
 『독립신문』 126
 독산성 115
 독서회 216, 217, 218
 독성산성 84
 동료 199, 200, 202, 209
 동맹파업 280, 281, 285
 동사도 94
 동석기 103
 동성섬유 379
 동성여중 327
 동수원감리교회 319, 322, 330, 362
 동아개진교육회 수원지회 61
 동아일보사 141
 동아일보사 경동지국 254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143, 147, 274
 동아직물공장 282
 동양척식주식회사 192
 동척농장 246

동탄면 114, 278
 동학 17, 22, 23, 28, 121, 226
 동학 교조신원운동 29
 동학군 30, 31, 32, 34, 35, 37, 38
 동학군도벌대 34
 동학농민군 85
 동학농민운동 226, 227
 동학농민전쟁 81, 84, 121
 동학농민혁명 17, 18, 23, 30, 37
 동흥직물공장 282
 두레사업연합회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국 481
 두레생협 415
 두레생활협동조합 470

㉔ 란토르코리아 파업투쟁 333
 러시아 공산혁명 218
 러일전쟁 41, 52, 59, 81, 88
 리우회의 426

㉑ 마도면 116, 120
 마르크스주의 166
 마쓰모토 30
 마을공동체 만들기운동 453
 마을공동체운동 450, 452, 454, 459, 460
 마을르네상스 462, 465
 마을르네상스센터 452, 463
 마을만들기운동 415, 457
 마을의제21 457, 459
 마창노련 372
 마즈이(宋井慶四郎) 31
 마희손 21
 만석공원 마을학교 457
 만세운동 101, 106, 107, 109, 114
 만종원 75, 141
 만주 301
 망월동 331
 매교동성당 326
 매산리 133
 매일신보사 수원지국 270
 맹보순 67, 70
 맹승재 294, 296, 300, 301, 303

메가타 슈타로(目賀田種太郎) 43
 메이데이 272
 명노열군 고문규탄 수원시민결의대회 329
 명달의숙 226
 명륜학교 68, 70, 73, 75
 명신학교 67, 71
 명진학교 67, 69, 70, 72, 78
 명화학교 66
 모현면 94
 『무산자』 168
 무장투쟁 301
 문봉의 126
 문상의 108
 문시면 95
 문익환 389
 문현승 140
 문화공간 샵터 330, 392, 459
 문화당인쇄소 278
 물류센터 473
 물산장려운동 55
 미국 북감리회 144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원감시단 477
 미군기지 반환운동 414
 미군기지 이전반대를 위한 시민모임 368
 미술전문 동인 새벽 331
 미야케 이와(三宅岩) 67, 70
 미와 세이치(三輪政一) 63
 민공익 35
 민란 17, 20
 민민투 수원지역평의회 349
 민병성 20, 21
 민보군 34
 민예총 330
 민요연구회 368
 민용운 108
 민용호 88
 민자당 352
 민족대표 48인 104, 227
 민족미술인협회 329
 민족예술인총연합 수원지부 394
 민족운동 228
 민족주의 149, 151, 240, 241

민족해방운동 230

민족협동전선론 230

민주교수협의회경기지부준비위원회 328

민주교육추진수원교사협의회 326, 327, 328

민주노조운동 360

민주노총 372, 38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시군지부 383

민주연합추진위원회(민연추) 370

민주쟁취국민운동 경기수원본부 329

민주쟁취국민운동 수원본부 324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369, 370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수원지부 324, 368, 392, 395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안산지부 368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안양지부 368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평택지부 368

민주주의민족통일수원연합 39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36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324, 389

민주화실현을 위한 교수협의회 392

민주화운동 309, 317, 326, 329, 335, 336, 337, 360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수원지부 331, 333

민중당 325, 367, 370, 371

민중당 청년학생위원회와 진보학생연합(진학련) 355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대통령 후보 추대를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 355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중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국학생연대 서울·수원추진위원회 354

민중정당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전노추) 370

민중후보 추대를 위한 전국학생추진위원회(학추위) 355

민홍식 239

ㅂ 바른생활협동조합 482

박경근 146

박경학 272

박규순 44, 62

박균백 355

박근실 239

박기양 60

박노우 348

박도병 216, 223

박두병 114

박두희 249

박봉득 156, 157, 159, 231, 239, 241, 242

박상훈 239, 241

박석여 부대 89

박선태 103, 104, 127, 131, 133, 139, 142, 145, 151, 227, 230, 239, 241

박성근 140, 226

박성환 126

박세영 166

박수산 275

박순근 284

박승극 148, 152, 154, 156, 157, 160, 162, 165, 168, 170, 172, 175, 177, 179, 185, 186, 229, 232, 235, 239, 240, 242, 249, 251, 253, 254, 256, 261, 262, 277

박승덕 62

박승호 378

박승환 90

박영모 322

박영식 231, 239

박영주 474

박영희 166, 169

박용태 51

박우영 139

박원석 96

박윤석 22

박인중 297, 300, 303

박인호 27

박정오 249

박정희 313, 360

박종균 378

박종익 140

박종철 322

박종철 고문살인사건 321

박진상 21

박창수 352, 368

박천우 394, 395, 408

박철 321

박춘홍 108

박치백 50

박태순 364

박태호 275

박팔양 169

박해병 154, 239

박희영 426

반도청년회 148, 155, 170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 349

반월공단노동상당소 367

반월면 116

반일낙서사건 289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349

발안 48, 109, 148

발안만세운동 102, 109, 110

발안장 93

발안장 만세시위 97

발안주재소 102

발안청년회 148, 150, 151

방교리 227

방상복 321

방화수류정 101, 103

배일환 208

백기완 355, 370

백낙렬 109, 110, 118

백난수 28

백내섭 374

104주년 세계 노동절 투쟁을 위한 노동, 연대, 투쟁 수원 지역 청년학생 연석회의 355

백세기 203, 209, 212

범민족대회 392

범불야학 70

범법법인 다산 410, 456

변기재 153, 154, 172, 181, 186, 239, 240, 241, 249

변영현 67
 병설여학교 68, 71
 병원노련경기지부 381
 병점 115
 병점역 92
 보명의숙 67, 70
 보명학교 70, 72
 보성소학교 225
 보신강습소 155, 254
 보안법 214
 보은관아 29
 보은집회 23
 보흥학교 225
 부국원 270, 294, 301
 부재열 47, 50, 53, 79
 부천 산들교회 326
 복문 70
 복수동성당 322
 복수리 230
 복수정 291
 복실전투 37
 복진청년회 148
 불온낙서 290
 비밀결사 191
 비밀결사운동 215
 비봉면 116
 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442
 빈정포 93

人 사노 마나부(佐野學) 탈환계획사건 150
 사단법인 광고산 433
 사-르 청년동맹 148
 사립학교설립운동 66, 77
 사마야나기(正柳好彬) 45
 사메시마(鯨島彌入) 30
 사무전문직노동조합협의회 372
 사사가 119
 4·19혁명 309, 310, 313
 4·13호헌조치 32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 지회 416
 사창리 155

사카모토(坂本) 251
 (사)한국민예총 수원지부 416
 사회과학서점 탄압사건 329
 사회변혁운동 336
 사회주의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62, 217
 사회주의단체 147
 사회주의세력 240
 사회주의운동 157
 산루리 129, 151
 산미증산계획 192
 삼남민란 88
 삼례교조신원운동 29
 삼선개헌 310, 313
 삼성그룹 372
 삼성전관 372
 삼성전관 가천공장 373
 삼성전자 372
 삼성전자단지 복직실천위원회(복실위) 373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반대운동 405
 삼성코닝 374
 삼양금속 374
 삼월회 172
 삼일남학교 46, 65, 225
 삼일남학당 64
 3·1부인야학 228
 삼일여학교 63, 64, 69, 73, 103, 126, 225
 삼일여학당 58, 64, 65, 69, 73
 3·15부정선거 310, 311
 3·1운동 55, 97, 101, 110, 114, 116, 120, 125, 135, 203, 225, 227, 230, 245
 삼일학교 54, 68, 72, 76, 78, 128, 130, 134, 141, 143, 153, 157, 228, 230, 241, 260, 269, 300
 삼일학당 58
 삼일학원 145
 「삼정이정절목」 18
 삼정이정청 18
 삼천병마골 84
 삼환아파트 410, 455
 삼희약품 381
 상동청년학원사무소 44
 상록수운동 215, 216

상무사 47, 51
 상설연합 경기남부지역 준비위원회 368
 상해임시정부 134
 상흥남면 47
 새날 355
 새롭게 사는 사람들 394
 새벽 331
 새생활보일러 372
 새시대청년연대 333
 샘터청소년학교 317
 생태보전운동 433
 생활협동조합 469, 471, 478, 484
 생활협동조합운동 469, 470
 생활협동조합중앙회 473
 서도홍 105
 서둔공민학교 340
 서둔교회 340
 서둔리 69, 70, 204
 서둔야학 316, 340
 서료 199, 200
 서병규 45
 서병숙 61, 68, 70, 79
 서병엽 44, 62
 서병철 126
 서병학 28, 29
 서상금 67
 서상돈 43
 서상천 67
 서상춘 67
 서상학 62
 서상환 50
 서소문 병영 95
 서신리면 93
 서신면 120
 서우학회 66
 서울대 농대 313, 336, 338, 339, 340, 342, 343, 349, 352, 368, 389, 392, 44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농생대) 31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436
 서울시위대 90
 서울올림픽 390
 서울 진궁 86, 92

- 서울진공계획 85
- 서울진공작전 93
- 서인주 27, 29, 226
- 서장대 104
- 서정리 251
- 서정리노동조합 254
- 서정문 330
- 서정옥 140
- 서진하 67, 70
- 서춘근 51
- 서춘남 95
- 서학균 45
- 서호 105, 129, 209
- 서호천 448, 458
- 선경직물 282
- 선만주단 수원직물공장 282
- 선문리 155
- 선일직물공장 282
- 선재도 94
- 성공회 47, 54, 132, 228, 242
- 성균관대 322, 349, 392, 406
-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337
- 성균관대학교 368
- 성대상 328
- 성인호 62
- 성일운수 372
- 성하영 35
- 성호면 114, 120, 145, 148, 231, 232, 278, 290
- 성호면사무소 114
- 세교리 230, 232
- 세류포목점 141
- 세어도 94
- 소각장 반대운동 432
- 소난지도 96
- 소난지도전투 95
- 소비조합운동 55
- 소음문제 442
- 소음피해 442
- 소작료 246
- 소작인 247
- 소작쟁의 246, 252
- 소화직물공장 282
- 손도연 472, 473
- 손문상 331
- 손병희 27, 37, 226
- 손산홍 105
- 손종국 348
- 손창규 217, 219, 222
- 손천민 27
- 송동면 93
- 송병두 61
- 송산면 107, 120
- 송산면 만세운동 101
- 송산면사무소 107
- 송세호 66, 79
- 송영 166
- 송원철 275
- 송윤명 47, 50
- 송학보 32
- 송학산 32
- 수구문 159
- 수기노 351
- 수대협 324, 349
- 수도권 민중회의 학생위원회(수민학위) 355
- 수도권사업연합회 473
- 수미협 330
- 수북면 67
- 수북면 백봉 70
- 수성고등학교 435
- 수성학교 67, 70, 72, 225
- 수양단 203, 205
- 수원 28, 50, 246
- 수원가정법률상담소 402, 403
- 수원가톨릭농민회 324
- 수원강습소 77
- 수원경찰련 392, 394, 408, 409, 412, 416, 418, 444
-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6
-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 402, 403
- 수원경찰서 95, 150, 183, 212, 273, 275, 276, 277, 278, 280, 281, 282, 285, 291, 305, 361, 379
- 수원고농 195, 197, 199, 203, 204, 206, 208, 209, 212, 213, 215, 216, 217, 218, 219
- 수원고농 공산주의자동맹 219
- 수원고농사건 197, 215, 221
- 수원고농 비밀결사 222
- 수원고농 학생비밀결사 220
- 수원고등농림학교 134, 191, 193, 235, 246, 340
-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 206
- 수원공군비행장 442
- 수원공립보통학교 48, 53, 128, 273
- 수원공설운동장 311
- 수원공회당 169, 274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21
- 수원교도소 441
- 수원교도소 이전 및 구치소 설립반대 운동 404
- 수원교사협의회 326
- 수원교회 128, 228, 319
- 수원구제회 142, 146
- 수원군 248
- 수원군공립소학교 63
- 수원군인민위원회 245
- 「수원군종리원혁」 30
- 수원군청 77
- 수원군청년동맹준비위원회 148
- 수원극장 75, 141, 147, 290, 294, 299, 300, 311, 371
- 수원금융조합 141
- 수원기노련 325
- 수원기독교청년회(YMCA) 402
- 수원기독교노동자연맹 368
- 수원기독교노동자회 403
- 수원기독교청년협의회 324, 402, 403
- 수원기자동맹 142, 172, 177, 228
- 수원나눔의집 416
- 수원내일의집 403
- 수원노동교육연구소 365, 368, 372
- 수원노동상담소 365, 367
- 수원노동조합 158, 171, 172, 189, 229, 237, 272, 273, 274, 275, 276, 277
- 수원농기구주식회사 270
- 수원농림고등학교 311
- 수원농림전문학교 192, 193
- 수원농림학교 104, 192, 199
- 수원대 368, 392
- 수원대학교 363

-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357
수원 마을르네상스 463
수원 매곡 93
수원면 101, 103, 129
수원면협의회 76
수원목재배급통제조합 270
수원문화 360 416
수원문화운동연합 368
수원미술인협의회 329, 330, 331, 392, 424, 426
수원민예총 418
수원민주노동자회 370, 392, 406
수원민주문화운동연합 324, 329, 330, 351
수원민주시민실천협의회준비위원회 328
수원민주희망광장 416
수원민중문화운동연합 402
수원민청련 368
수원부 31, 32, 84, 86
수원부인회 53, 54
수원불교청년연합 395
수원불교청년회 333, 392
수원비행장 414, 444
수원비행장 폐쇄와 소음피해대책 및 배상을 위한 공익소송 추진본부 444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문제 444
수원사랑민주청년회 331, 333, 368, 387, 392, 402
수원사랑민주청년회준비위원회 324
수원사우회 206
수원상공회의소 54, 68, 71, 72, 103, 141, 142, 143, 144, 153, 225, 228, 231
수원상업회의소 59, 75, 79, 144, 153
수원새날의료생협 416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478, 479, 482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416
수원생협 416
수원생활협동조합 472, 473, 475, 477
수원소년군 172
수원소년동맹 171, 172, 275, 276
수원소년동맹원 158
수원수류양성소 70
수원수비대 93
수원시경제살리기협의회 405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조례 440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 463
수원시민광장 392, 394, 395, 403, 406, 418
수원시민단체협의회 416
수원시민대운동회 151, 227
수원시민통일노래자랑 395
수원시민환경한마당 403
수원시연화장 405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412
수원시의회 406, 431, 442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442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412
수원시자원봉사센터 412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 452
수원시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 448
수원시참여예산네트워크 418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 414
수원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418
수원 신간회 168
수원신간회관 165
『수원신보(水原新報)』 59
수원실업협회 141, 142
수원양서조합운동 314
수원양서협동조합 314, 315, 329
수원엠패(懿法)청년회 58, 131, 132, 139, 144, 147, 226, 228
수원여고 327
수원여민회 324, 387
수원여성노동자회 416
수원여성의전화 392, 402, 416
수원여성회 392, 402, 403, 411, 413, 416, 418
수원여자기독교청년회(YWCA) 402
수원여전 392
수원여중 327
수원역 58, 91, 94, 105, 268, 311
수원예기조합 105
수원예술호연구락부 269, 270, 289, 293, 296, 299, 300, 301, 302, 303, 305
수원예술호연구락부사건 269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406, 412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 383
수원우체사 62
수원유권자연맹 403
수원유수 20
수원읍 290
수원 이의동 개발계획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439
수원이주민센터 412
수원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403
수원인공양잠학교 75
수원인쇄주식회사 271
수원인쇄직공주식회사 278
수원인쇄직공친목회 271, 272
수원일하는여성회 416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478
수원의병 83, 85, 87, 88, 90, 95, 97
수원의원 76, 141, 274
수원의제21 408, 452, 460, 461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409, 415, 452, 457, 460
수원자동차주식회사 279, 280
수원재무서 76
수원절 29, 30
수원제지공장 267
수원종로감리교회 318
수원종로교회 66, 75, 144
수원종리원 228
수원주민자치네트워크 411
수원지검 379
수원지검 공안합수반 378
수원지구기독교청년협의회 318, 331, 361, 388, 392
수원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30, 336, 349, 350, 352, 354, 355, 368, 388, 389
수원지역목회자연대 416
수원지역 목회자 공동체성서연구모임 403
수원지역 반민정당 총선투쟁민주연합 351
수원 지역 보행권네트워크 409
『수원지역소식』 319

- 수원지역야학연합회 328
수원지역야학협의회 317
수원지역인권위원회 322
수원 지역의 소통을 위한 활동가 모임 416
수원지역자활센터 415
수원직물공장 282
수원진명구락부 139, 226
수원진위대 91
수원참여예산연대 414
수원천 448
수원천도교당 231
수원천되살리기시민운동본부 408, 430
수원천 복개공사 429
수원천 복개반대운동 406, 430, 447
수원청개구리 등 깃대종 살리기 운동 435
수원청년간사회 140
수원청년구락부 76, 132, 139, 140, 141, 143, 144, 226
수원청년동맹 137, 144, 148, 150, 153, 154, 157, 158, 159, 162, 165, 172, 228, 229, 234, 236, 238, 240, 242, 261, 272, 275
수원청년동맹 성호지부 152, 235
수원청년동맹 양감지부 154, 155, 276
수원청년동맹운동장 151
수원청년동맹준비위원회 150
수원청년운동자간담회 148
수원청년회 132, 140, 144, 147, 148, 149, 150, 151, 152, 172, 226, 229, 234
수원체육문화센터 412
수원체육회 151
수원총선시민연대 406
수원출판노동조합 171
수원 컨벤션센터 439
수원택탄내일 416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447, 448
『수원학보』 206
수원학생친목회 139, 147, 157, 167, 226
수원협동조합네트워크 482
수원 혈복단 126
수원형평사 285
수원환경교사모임 445
수원환경운동센터 392, 402, 408, 409, 411, 413, 415, 416, 427, 428, 431, 441, 442, 445, 459, 461
수원환경운동연합 414, 416, 427
수원홍사단 416
수원EYC 318, 319, 322, 328, 351, 406
수원KYC 411, 413, 415, 416, 457, 458, 459, 461
수원YMCA 318, 361, 394, 403, 409, 410, 416, 424, 457, 461
수원YMCA시민중계실 392
수원YWCA 392, 403, 412, 416, 424
수일여중 327
수진농민조합 162, 171, 172, 229, 240, 245, 249, 252, 253, 256, 257, 259, 262
수진농민조합 양감지부 155, 249
수촌리 102, 109, 110, 111, 118
스기무라(杉村) 32
시대일보사 수원지국 147
시민단체 399
시민사회단체 400
시민사회운동 413
시민운동 399, 400, 403, 405, 406, 411, 413, 415
시민운동단체 402, 418
시민환경운동 447
시민환경한마당 426
시위 311
식생활교육수원네트워크 484
신간회 161, 163, 170, 245, 260
신간회 경동지국 254
신간회 수원지회 142, 158, 172, 225, 227, 228, 230, 231, 232,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72, 274, 275, 277
신간회 수원지회 오산반 235
신갈야학 317
신경 301
신규식 28
신근철 222
신기장 48
신덕보 36
신동섭 275
신두섭 350
신봉균 126
신상균 126
신석우 70
신석현 50
신승철 328
신억균 70
신용구 28, 30
신용준 103, 131
신원리 전투 94
신윤관 350
신익희 310
신정희 34
신준희 144
신천동 48, 50, 54
신철우 51
신충 148, 149, 150, 154, 156, 229
신태악 214
신평공업보통학교 294
신평동 63
신평초등학교 63
신흥구 125, 126
신희제지 379
신희학당 155, 254
심미경 481
심인택 251, 253, 254, 255, 261
심재덕 405, 406, 408
심철구 275
13도창의군 85, 92, 93
12월 테제 258
십자대 128
쌀 및 기초농산물수입개방 저지투쟁 354
쌍봉산 111, 112
쓰레기소각장 405
아관파천 41, 65
아나바다 424
아리랑교회 330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119
아시아태평양청소년물포럼 448
아시아게임 반대를 위한 청년학도투쟁 위원회 349
아주대 349, 368, 392

- 아주파이프 374
아파트공동체시민학교 456
아파트공동체운동 454
아펜젤러 58, 121
안강근 127
안거복 146
안경순 121, 123
안관순 123
안교선 27, 226
안교일 126
안낙순 114
안룡면 115, 156, 205, 211
안마리아 53
안명순 123
안무순 123
안병일 275
안병주 357
안봉순 123
안산노동상담소 368
안산노동자의집 368, 372
안상용 121, 123
안석주 166
안성교사협의회 326
안성노동자농민문제연구소 368
안성농업전문대 동아리연합회 368
안순원 108
안승관 27, 28, 38, 84, 226
안승근 457
안양노동상담소 368, 372
안양노동자회 368
안양 대우전자부품 368
안양민요연구회 329
안양민주택시노조협의회 381
안양민청련 368
안양역 90
안양전자 공장이전 철회투쟁 374
안영태 146
안영희 433
안용정 394, 457, 462
안유순 123
안웅순 121
안익명 27
안자순 121
안정옥 109, 110, 121, 123
안종린 121, 123
안종악 123
안종엽 123
안종형 121
안종화 121
안종환 110, 121, 123
안종후 58, 97, 110, 121, 123
안중 48
안진순 123
안창호 206
안춘경 92
안춘경 의병부대 95
안치서 31
안필순 123
안학년 166
안호순 121
안호준 328
애국계몽운동 57, 134
야목리 217
야학 316, 361
야학교 70
야학연합회사건 361
야학운동 340
야학협의회 361
양감면 115, 148, 156, 157, 165, 231, 232, 250
양감면 용소리 251
양감면근거지축조합 155
양감청년회 152, 154
양규현 368, 384
양성관 48, 51, 70, 75, 144, 145
양성학교 225
「양심선언문」 314, 342
양원주 316
양주집 29
양지읍 35
양필환 50
양호도순무영 34
어윤중 29
엄익홍 153, 154, 167, 172, 234, 239, 240
엄주배 246
엄주철 146
엄종노조합의회(엄종협) 372
여규덕 27
여규신 27
여기산 209
여기산 백로서식지 보전운동 435
여보호회 132, 135
여우골 마을학교 457
연무대 78, 104, 238
염군사 166
염상균 457
염석주 237, 239
염세저항운동 114
염태영 361, 413, 415
영어삼학당 46, 69
영중도 94
영통리 87
영통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431
영통 황골 마을학교 457
영해교조신원운동 26
영화여학교 73
영흥도 94
오광득 108
오산 48, 67, 70, 103, 145, 148, 172
오산경찰주재소 114
오산노동야학원 156, 241, 242
오산노동야학원사건 172
오산동 32
오산리 114
오산 사·크청년동맹 165
오산사숙 67, 69
오산시장 114, 290
오산역 92, 115
오산우편소 115
오산주재소 114
오산청년동맹 152, 155, 172
오상근 139, 225
오시마(大島) 32
오오키(大木喜市) 114
오윤선 66
오인영 140
5·16군사쿠데타 313
5·18광주민중화운동 333
5·18광주민중항쟁 343
5·18광주항쟁 363
5·18민주화운동 315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투쟁 354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운동 354
 오철선 60
 온새미로 445
 왕광연 107, 108, 109
 왜관찰사 87
 용동전투 94
 용소리 155, 249, 252
 용수농농주식회사 75, 141
 용유도 94
 용인 29
 용인군 94
 용인기흥노동상담소 365
 용인집 29
 용주사 47, 53, 54, 66, 92
 용주사청년회 394
 융현식 297, 300, 302, 303, 305
 우건석 457
 우금치전투 37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469
 우만고가대채위원회 437
 우만고가차도 437
 우만고가차도 설치반대운동 413
 우만종합사회복지관 457
 우성규 149, 150, 172, 175, 177, 178, 181, 185, 186, 187, 231, 239, 240, 241, 242, 274
 우성칠 35
 우성현 140
 우영섭 348
 우정면 93, 101, 102, 109, 110, 113, 119, 120, 156, 232
 우정면사무소 102, 112
 우종휘 203, 209, 211, 212, 213
 원곡 노동사목 320
 원불교 경인교구 청년연합회 392
 원산노동연합회 273
 원산노동자대파업 273
 원일관지 파업투쟁 333
 원주진위대 91
 원천리천 424, 448
 원천천살리기모임 418
 원태우 90

유경선 27
 유관오 51
 유기환 87
 유달영 222
 유덕화 363, 372
 유동민 315
 유문종 395, 462
 유수부 83
 유순종 272, 276
 유신 반대투쟁 313
 유신헌법 313
 유엔환경개발회의 446
 6월민주항쟁 309, 317, 318, 321, 323, 324, 331, 335, 354, 387, 399, 400, 416
 6월항쟁 359
 유인석 88
 유재환 215, 217, 218, 220, 222
 유제현 374
 유지동 93
 유진열 115
 유진홍 114
 유천 199
 유치설 140
 육동백 203, 209, 212
 6·3사태 310
 6·10만세사건 197
 6·29선언 399
 윤경선 413
 윤경중 141
 윤구섭 131
 윤권영 374
 윤기정 169
 윤병수 203
 윤병장 50
 윤상오 27
 윤수산 275, 277
 윤수영 20
 윤영신 21
 윤용희 145
 윤익중 126
 윤준흠 239
 윤창렬 69
 윤태은 140
 윤태익 68, 70

윤태인 146
 윤태중 50
 윤태현 275
 윤형식 160, 161
 윤홍만 21
 윤홍섭 44, 62
 을미사변 65
 을미의병 81, 83
 을사늑약 63, 138
 을사의병 81, 88
 을사조약 81, 89
 의병 83, 85
 의병전쟁 77, 81, 83, 92
 의병투쟁 83
 의성회 53
 의왕면 115
 이각래 146, 231, 239
 이강열 217, 218, 219
 이건상 239, 274, 277
 이경서 275
 이계환 51, 60
 이관구 231, 235
 이관수 128
 이광우 235
 이광현 140, 141, 226
 이교정 140
 이규선 114, 115
 이규식 28
 이규태 34
 이근택 192
 이근호 462
 이금희 105
 이기우 406
 이기현 187
 이남룡 251
 이내창 350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32
 이달훈 331
 이대순 68, 70
 이대위 206
 이덕곤 156
 이동근 50
 이동일 378
 이두황 부대 34

이득성 325
 이득수 126, 127, 129, 130, 131, 132, 133, 134, 230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반대운동 413
 이량 166
 이로카와(色川元市) 153, 225
 이면구 51
 이명삼 50
 이목중 327
 이문영 319
 이민고 20
 이민도 28, 227
 이병렬 331
 이병익 275
 이병현 226, 227, 228
 이봉구 113
 이봉근 115
 이삼준 34, 35
 이상대 181, 187
 이상명 457
 이상호 372
 이상화 166
 이선경 103, 128, 129, 132, 133, 230
 이선익 70, 73
 이성구 114, 115
 이성모 27
 이성우 60
 이성의 65, 146
 이성인 275
 이성호 330
 이성환 204
 이수경 156, 239, 240, 250
 이수연 404
 이순모 118
 이순열 328
 이순영 285
 이순하 54
 이신애 132
 이신의 51
 21세기생활협동조합연대 470, 473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409, 446, 452, 457
 21세기여성개발원 394

이연숙 227, 231, 239, 240, 241
 이연적 153, 154, 187
 이완선 140, 146, 151
 이완용 67, 192
 이용목 67
 이용성 149, 150, 153, 154, 229, 239
 이용익 34, 35
 이용필 215, 217, 220, 222
 이용훈 51
 이용희 60
 이원섭 155, 251, 253, 255
 이원식 156, 239, 240, 249
 이원용 21
 이원학 275, 277
 이원행 275
 이윤식 108
 이윤재 140
 이의동 414
 이의동 개발반대운동 439
 이익삼 94, 166
 이인 214
 이인영 93
 이인웅 89
 이일원 27
 이장호 374, 378
 이재완 316
 이재화 187
 이적효 166
 이정근 109, 110
 이정방 126
 이정현 181
 이종국 252, 253
 이종림 251, 254, 261
 이종상 103
 이종악 60
 이종철 322
 이종필 442
 이종화 272, 273, 275, 276
 이종훈 37
 이주영 35, 331
 이준상 275
 이진숙 325
 이진아 427
 이찬열 418

이창구 32
 이창모 325
 이창선 25
 이창용 239
 이천의병 85
 이창학 36
 이치락 222
 이치영 217, 219
 이태섭 406
 이태형 272, 276
 이토(伊藤祐義) 31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90
 이관돌 325, 371
 이광준 285
 이필규 222
 이하영 46, 54, 60, 65, 72, 75, 79
 이학중 50
 이한익 50
 이항여 129
 이형규 352
 이형진 426
 이호 166, 457, 458
 이호선 429
 이화순 132
 이흥완 20
 이흥원 213
 이회경 103, 131
 인공양잠학교 69
 『인도래』 411
 인쇄공친목회 153
 인우회 437
 인천항 86
 일본공산당 150
 일본군 32, 34, 35, 36, 84
 일본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171, 180
 일신정밀 379
 일신학교 70, 78
 1995년 지방선거 405
 1987년 노동자대투쟁 372, 378
 1987년 노동자투쟁 365
 1987년 대통령선거 355
 1987년 민주화항쟁 402
 일형면 156, 217
 임금인상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동

투쟁본부 381
 임기증 222
 임면수 46, 64, 65, 72, 75, 76, 129
 임범진 154, 172, 181, 187, 273, 274, 275, 276, 277
 임병승 28
 임봉호 216, 223
 임석순 378
 임순남 103, 128, 129, 132, 133, 230
 임술민란 17
 임시아학교 70
 임시지방교통사무국 127
 임시지방연통제 127
 임익상 68, 77
 임종범 325
 임종식 246
 임준섭 330
 임진애란 83
 임팔용 107, 108
 임화 171, 186
 임홍수 47, 50

㉠

자민련 406
 자선부인회 63
 자혜의원 105
 장덕수 139, 225
 장만수 28
 장면 311
 장보라 213
 장소진 113
 장수원 338
 장순철 328
 장안대 408
 장안동 61
 장안면 101, 102, 109, 110, 113, 119, 120, 232
 장안면사무소 102
 장안문 291
 장안정 291
 장원 427
 장주문 154, 155, 156, 239, 240, 249, 251, 253, 254, 255
 장지연 44

장지필 284
 장치완 143
 재활용운동 431
 적색농민조합 251
 적조암 26
 전교조 경기지부 368
 전교조 수원지부 328, 368
 전교조 수원지회 392
 전교조 안산·시흥지회 368
 전교조 안양지회 368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416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천을 위한 경기남부 공동대책위원회 328
 전교조 평택·송탄지회 368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투쟁 354
 전국교사협의회 3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28
 전국노동단체연합 367, 372
 전국노동단체연합 경기지부 368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365, 367, 389
 전국노동자대회 376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 381
 전국노동조합협의회 365, 372, 377, 379, 380, 382
 전국노련 372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371
 전국농학계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농대협) 34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365, 36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67, 372, 379, 382, 383, 384, 3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남부 3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지구협체제 3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3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구협의회 370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민투학련) 349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379
 전국연합 9월테제 370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 349
 전국환경미술전 424
 전규석 37

전규일 322
 전기명 50
 전기의병 81, 83, 85
 전노협 372, 377
 전대협 343
 전도선 108
 전민련 371
 전봉준 37
 전태일 316, 361
 전협관동자유노동조합 150
 정경수 37, 57
 정광수 149, 150, 172, 229
 정군필 108
 정규환 115
 정근우 350
 정금채 378
 정기섭 67, 70
 정남면 92, 232
 정남청년회 144, 152
 정노식 143
 정돈 275
 정문리 230
 정미의병 81, 90
 정순영 118
 정용전 35
 정운갑 45
 정운화 45
 정의평화실천목회자협의회 328
 정재호 67, 70
 정주원 92, 95
 정진후 368
 정창진 50
 정철리 부대 92
 정하보 177, 180, 182
 정한교 67, 70
 정해운 348
 정환규 50
 제2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185
 제1회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171, 173, 276
 제갈용우 378
 제암교회 97
 제암리 58, 95, 102, 109, 118, 121, 204
 제암리교회 119

제암리사건 97
 제암리학살사건 102, 118, 119
 제일야학 316, 317, 361
 제일은행권 43
 제지연합주식회사 300
 조경칠 123
 조동기 394
 조만식 206
 조만원 217
 조명재 147, 154, 156, 239, 240, 241, 249
 조백현 195, 199, 209
 조병시 208
 조상호 302
 조선개척사 134, 203, 209, 215
 조선개척사사건 216
 조선곡자회사 159
 조선공산당 166, 245, 258
 조선공산당사건 251
 조선공산당 재건협의회 219
 조선노동총동맹 271
 조선노동공제회 271
 조선노동대회 271
 조선노동연맹회 27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379
 조선노동총동맹 276
 조선농민사 204, 205, 206, 207, 215
 조선농우연맹 208, 215
 조선농회 192
 조선독립개성회 134
 조선박람회 275
 조선소년총동맹 274
 조선소작인상조회 291
 조선소작인상조회 수원지회 146
 조선예술호연구락부 300
 조선일보사 서정리분국 253
 조선일보사 수원지국 229, 271
 조선일보사 오산지국 254
 조선자동차주식회사 278, 282
 조선주차군 64, 118
 조선청년동맹 261
 조선청년애국회 137
 조선청년총동맹 152, 157, 159, 241, 243
 조선청년회연합회 139, 143, 225

조선청년회연합회강연단 143
 조선총독부 277, 289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192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282
 조선총독압살계획사건 273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165, 167, 169, 181, 187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경성본부 176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165, 169, 172, 182, 185, 227, 229, 237, 274, 276
 조선형평사 277, 284
 조선형평사 수원지사 284
 조선형평사총본부 285
 조선형평사총연맹 285
 조선형평운동 284
 조안득 273
 조안장 75
 조여옥 320
 조영표 378
 조영호 62
 조완구 54, 60
 조용호 132, 139
 조용환 140
 조원규 320
 조원시 72, 76, 79
 조익승 50
 조재현 302
 조찬용 328
 조천복 273, 276
 조철우 378
 조폐공사노조 381
 조희창 119
 존스 73
 종로 105
 종로경찰서 129
 종로교회 58, 69
 종로학원 144
 주민자치센터 410, 411, 461
 주민참여예산제 418
 주봉출 274, 275
 죽산집 29
 증기의병 81, 88

중성극단 238
 중성극우회 170
 중앙대 368
 중앙인쇄소 271, 279
 중외일보사 경동지국 254
 중외일보사 영등포지국 254
 중일전쟁 289, 303
 지공숙 140, 141
 지방의제21 427, 446
 지방자치제 선거지원투쟁 354
 지역노조협의회(지노협) 372
 지역업종전국회의(전국회의) 365
 지하영 60
 지홍갑 70
 직물업 282
 직선제 개헌 346
 진명고등여학교 63
 진명구락부 132, 135, 140, 142, 228, 230
 진명여학교 68
 진보정당운동 325
 진보학생정치연합(진학청련) 355
 진보회 57
 진안동 92
 진위 148
 진위군 248, 250, 251
 진위소년동맹 254
 진위수비대 93
 진위역 92
 진위집 29
 진위청년동맹 253, 254
 진주민란 84
 진주애국부인회 45
 진해운 333

㉮

차경현 108
 차관호 126, 127
 차궁호 444
 차석우 69
 차유순 46, 50, 60, 65, 68, 145
 차윤정 457
 차인범 118
 차인재 127, 129, 230
 차재성 276

차재윤 146
 차재정 159, 160
 차재화 172, 181, 187, 274, 275, 276
 차준석 270, 271, 293, 294, 295, 296,
 299, 300, 301, 302, 303
 차태익 146
 차희식 113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454
 채윤기 329
 책왜양창의운동 28
 천도교 118, 121, 226, 241, 242, 243
 천도교당 230
 천도교 수원교구 57, 227
 천주교 수원교구사제단 321, 322
 천도교 전교실 110, 111
 천도교청년당 234
 천도교청년동맹 수원동맹 227
 천주교청년회 132, 139, 226
 천도교청년회 수원지부 132, 139,
 226, 227
 천지산업 374
 철원청년동맹 165
 청계 115
 청년단체 137, 139, 143, 144
 청년운동 137, 151, 162
 청년회 131
 청룡면 95
 청룡산 251
 청명산 관통도로 개설 반대운동 435
 청북면 115
 청일전쟁 41, 81
 청충 159, 160, 161
 청호 70
 청호면 67
 체육회 131
 초록세상 445
 초장면 92
 촛불집회 477, 478
 총선 민중후보 지원과 민중진영 독자
 정당 지지 선거투쟁연합 353
 총선시민연대 446
 최송 146
 최광석 50
 최구현 95

최기현 207
 최남선 200
 최동필 60
 최린 141
 최명중 275
 최명준 456
 최문순 103, 128, 129, 130, 133, 230
 최봉환 217
 최상훈 76, 140, 141, 143, 226
 최성대 54, 60, 77
 최송 60, 76, 141
 최수익 272, 273, 276
 최승일 166
 최시의 53, 54, 62
 최시형 23, 25, 27, 35, 226
 최신복 149, 231, 239, 274
 최열 427
 최용범 269, 293, 294, 295, 296, 299,
 300, 302, 303, 305
 최윤재 342
 최익환 60, 146
 최정환 355
 최제우 22, 23, 25, 28
 최종순 60
 최진원 472
 최춘보 108
 최춘일 330
 최태중 294, 295, 296, 303, 305
 최태환 219, 222
 최현영 140
 최흥기 215, 217, 218, 220, 222
 최화실 89
 추병환 160
 충남방직 379
 측량학교 68, 70
 「치안유지법」 214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수원추진본부 418
 칠보산 도토리교실 415, 433, 445,
 459, 461
 칠보산 두꺼비 서식처 보전운동 435
 칠보산습지네트워크 433
 칠보산 습지 보전운동 433
 칠보산습지보전위원회 433
 칠보산 자유학교 415

칠보산 정월대보름 달집 축제 461

ㄱ 카프 241, 243
 쿠라카와(倉川信行) 30
 크리스찬아카데미 403

ㅅ 탐일야학 340
 태극학회 45
 태장면 115, 231
 태촌면 92
 태평양전쟁 290, 303
 태평양화학 수원공장 372
 토월회 166
 토진면 47, 93
 통감부 43, 77
 통일사랑청년회 333
 통일선봉대 392
 통일운동 387, 392, 394, 395
 퇴촌면 48

ㅇ 파스큐라 166, 172
 파업 278, 279, 282
 팔달공원 295
 팔달사진관 295
 팔달사청년회 333, 392
 팔달산 104, 291
 팔달산 관통터널 반대 대책위원회 429
 팔달산터널반대 수원시민대책위원회
 408
 팔탄면 109, 120, 156
 팔탄면 해장 93
 팔탄청년회 139, 144, 226
 폐물폐지부인회 45
 퍼시픽 니코노조 367
 평동야학 340
 평민면 수원지부 328
 평택 246, 249
 평택교사협의회 326
 평택군 115
 평택농민회 368
 평화민주통일연구소 324

포곡면 94
포천 148
표덕중 154, 239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462
풍물굿패 삶터 330, 416
풍원산업 374, 379
풍화당 140
프로예술동맹 수원지부 177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157, 172, 174, 178, 180, 227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170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 158, 171, 178

ㅎ

하나기(花木) 280
하라다(原田常入) 32, 36
하세가와(長谷川) 192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64
하야시 곤스케(林勘助) 64, 90
학농원 203
학무국 192
학부 191
학생비밀결사 203
학생연대 355
학생운동 191, 335, 336, 339, 347, 349
학원민주화운동 347, 348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348
학원민주화투쟁 343
학원사태공동대책위원회 348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 348
한겨레민주당 370
한겨레신문 가족모임 403
한경직 206
한국교회협의회 수원지역인권위원회 322, 40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362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320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345
한국기독교노동자 수원지역연맹 324, 365, 367, 368, 370, 372, 388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야학문제대책위원회 361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371
한국노동운동단체인협의회(한노협) 36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75
한국노총 360
한국대학생불교연합경기지부 392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352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330
한국사회주의노동당(한노당) 367
한국적 사회주의를 위한 전국학생정치연대(전학정련) 355
한국전쟁 360
한국청년연합회 수원지부(수원KYC) 333
한국통신노동조합 381
한규복 70
한규봉 378
한글연구회 222
한사랑청년회 368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수원지부 416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 480
한살림 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수원지부대회 481
한석명 275
한성용 275
한신대 336, 339, 349, 364, 368, 392
한신대학교 344, 345
한신대학 민주화추진위원회 345
한양대 368
한양 도성 84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 313
한일의정서 88
한일청소년물포럼 448
한일합병 68, 76, 292
한일합심 372
한일합심 수원공장 372
한일협약 88
한일협정 반대투쟁 313
한전중 203, 208
한진중공업 352, 368
한창수 154
한총련 343, 354
한홍유 35

함흥고등보통학교 203
해방 50년 통일맞이 수원시민 한마당 행사위원회 392
행궁동 마을만들기 415, 446, 461
행궁동 마을만들기사업 446
행복예식장 325, 371
행주대첩 84
향남면 109, 120
향회 53
허용 140
허일 160
허정숙 160
헤이그특사 의거 90
헤이그특사사건 65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245, 258, 259, 260, 261
혁명단 145, 147, 148, 229
혁명청년회 145
현대중공업노조 파업투쟁 379
현룡원원군 20
현룡원원군작요 22
혈복단 125, 126, 129, 133, 134, 135
협성대 392
형평사 172
형평사 수원지부 187
호헌철폐 346
홍건섭 144
홍건표 252, 253
홍경래 난 17
홍경운 32
홍경춘 153
홍경표 154, 275
홍관후 108
홍기석 328
홍남후 108
홍료 199
홍면옥 107, 109
홍명선 107, 108
홍문선 108
홍민섭 144
홍병선 206
홍복룡 107
홍복용 36
홍사선 76, 141, 146, 151

홍사안 140
 홍사현 146
 홍사훈 60, 75, 140, 144, 145, 148, 151, 157, 226, 227
 홍성경찰분서 96
 홍순진 121, 123
 홍승렬 139
 홍승업 31
 홍언후 77
 홍원식 95, 97, 123
 홍은석 274
 홍인미 328
 홍정현 154
 홍종각 227, 229, 230, 232, 239, 241, 242
 홍종근 159, 275
 홍종철 294, 299, 303
 홍준옥 108
 홍철후 146
 홍형준 139
 홍효선 107
 화남이발관 274
 화령전 140
 화산 216
 화서야학 340
 화서야학원 217
 화성 20, 38
 화성교사협의회 326
 화성군 농민협회 324
 화성여학교 73, 78, 79
 화성학교 63, 69, 75, 76

화성학원 141, 145, 157, 159, 162, 172, 173, 227, 228, 231, 234, 235, 241, 242, 260, 262, 272, 274
 화성학원유지회 145
 화성행궁 405
 화수주재소 102, 113
 화양여학교 68, 70, 73
 화학산업연대회의 381
 화홍문 101
 화홍야학 316, 361
 환경개발센터 427
 환경문제 446
 「환경선언문」 409
 환경 수도 수원선언 449
 환경운동 406, 423, 426, 427, 432
 환경운동연합 427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 426
 환경을 살리는 여성의 모임 403
 환곡 19
 활빈당 88
 활빈당투쟁 89
 황경후 156
 황구지리 249, 251, 252
 황구지천 448
 황군자 325, 329
 황대창 139
 황봉선 203, 209, 212
 황석근 276
 황성도 38
 황성신문사 44, 45

황연수 342
 황은석 277
 황용선 153, 156, 167, 172, 181, 187, 239, 275
 황재정 457
 황칠성 108
 황하일 27
 황혜성 328
 효성초등학교 457
 후기의병 81, 90
 흥농사 210, 211
 흥사단 수원분회 403
 흥사단 수원지부 402
 희망동아리 395

A~Z

iCOOP생활협동조합 470
 iCOOP생활협동조합연합회 477
 iCOOP수원미래소비자생활협동조합 481
 ILO 기본조약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379
 KBS TV시청료거부 가두캠페인 319
 KBS TV시청료거부 가두캠페인 활동 362
 KYC도시생태농업지킴이 448
 YMCA 215
 YMCA 운동 206
 YWCA 324

집필위원(가나다 순)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류지성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박동찬	한양대학교 강사
배상석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왕재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조교수
이동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이평원	배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연수	전 경기대학교 대우교수
최영옥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대우교수
홍현영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후지이 다케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BK연구교수

수원시사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

디자인 · 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keeg.com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68-0

ISBN 978-89-87738-60-4(세트)

